

연구보고 2016-23

출산수준 제고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내실화 방안(VI):

지역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 연구

강은진 유해미 윤지연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머 리 말

저출산 극복과 영유아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육아지원정책은 그간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계획을 통해 수립·실행되어 왔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의 속담과 같이 한 명의 아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역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육아지원정책에서 그간 지원해 온 공공인프라를 환경으로 정의하고, 물적환경에 중점을 두어 국내 육아지원환경의 형평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육아지원환경을 유아교육·보육 영역, (종합)육아지원서비스 영역, (맞춤형)돌봄지원 서비스 영역, 문화인프라 영역, 보건·의료서비스 영역, 안전관리·보호영역의 여섯 가지로 구분하였다. 각 영역에 따라 252개 시·군·구의 육아지원환경을 평가하고, 상위지역과 하위지역을 선정하여 부모들의 이용 만족도와 요구를 살펴보았다. 이와 더불어 국내 아동친화도시 사례와 네덜란드 로테르담 시의 사례를 통해 지역 맞춤형 육아지원환경 조성을 위한 조직과 성과관리체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육아지원환경의 영역에 따른 공급수준과 부모의 만족도를 고려해 현재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육아지원관련 정책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육아지원관련 서비스의 통합관리를 위해 중앙과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동안 본 연구에 참여하여 주신 연구협력진, 관계 전문가, 아동친화도시 사례를 들려준 지역 행정전문가, 설문에 참여해준 부모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정책 방안이 이후 육아지원정책의 형평성과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우리나라가 육아하기 좋은 환경이 되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2016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우 남 희**

차 례

요약	1
I. 서론	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9
2. 연구내용	11
3. 연구방법	12
4. 용어의 정의 및 연구 범위	23
II. 연구의 배경	25
1. 지역 맞춤형 육아지원환경의 개념	25
2. 육아지원환경 관련 정책 및 현황	38
III. 육아지원환경 정책의 국내외 사례	76
1. 국내 사례	76
2. 해외 사례	96
3. 소결	103
IV. 전국 지역의 육아지원환경 평가	105
1. 육아지원환경의 평가 영역 및 요소 도출	105
2. 영역별 육아지원환경 평가	124
3. 소결	178
V. 영유아 부모의 육아지원환경 만족도와 요구	184
1. 조사 참여자 특성	184
2. 이용 기관 및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185
3. 지역의 육아지원환경 요구 및 개선점	214
4. 육아지원환경에 따른 후속 출산 계획	232
5. 소결	237
VI. 정책 제언	242
1. 육아지원환경의 영역별 공급 개선 방안	243

2. 육아지원환경 통합서비스 조직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방안	251
참고문헌	263
Abstract	274
부 록	277
부록 1. 시군구별 영유아비율	279
부록 2. 지역 맞춤형 육아 지원 방안 전문가 설문지	281
부록 3. 지역 맞춤형 육아 지원 방안 부모 설문지	294
부록 4. 지역 명칭 표기 지도	316
부록 5. 육아지원환경 평가 지도	317
부록 6. 지역 규모별 육아지원환경 공급 최소 기준	355

표 차례

〈표 I-3- 1〉 수집 통계자료	12
〈표 I-3- 2〉 전문가 조사 참여 인원	17
〈표 I-3- 3〉 육아지원환경 평가 영역 및 요소	17
〈표 I-3- 4〉 설문조사 표본 구성	19
〈표 I-3- 5〉 부모 대상 설문조사 내용	20
〈표 I-3- 6〉 육아지원환경 지자체 우수사례	21
〈표 I-3- 7〉 전문가 자문회의 진행	22
〈표 I-3- 8〉 전문가 워크숍	23
〈표 II-2- 1〉 시도별 유치원 및 어린이집 수	41
〈표 II-2- 2〉 시도별 유치원 내 특수학급 수 및 장애 전문·통합 어린이집 수	42
〈표 II-2- 3〉 시도별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교사 수	43
〈표 II-2- 4〉 시도별 육아종합지원센터 수	45
〈표 II-2- 5〉 시도별 건강가정지원센터 수	47
〈표 II-2- 6〉 시도별 지역아동센터 수	48
〈표 II-2- 7〉 시도별 유아교육진흥원 및 체험교육원 수	49
〈표 II-2- 8〉 시도별 시간연장형 및 휴일 보육 기관 수	52
〈표 II-2- 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지원 금액 및 기간	53
〈표 II-2-10〉 산모·신생아 도우미 인력 수	54
〈표 II-2-11〉 시도별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56
〈표 II-2-12〉 시도별 워킹맘·워킹대디 센터	57
〈표 II-2-13〉 어린이 놀이시설/놀이터 및 공원/어린이공원 면적	59
〈표 II-2-14〉 시도별 어린이 문화시설	62
〈표 II-2-15〉 시도별 사회복지관 현황	63
〈표 II-2-16〉 시도별 보건소/병원	64
〈표 II-2-17〉 시도별 보건소 의사 수	65
〈표 II-2-18〉 시도별 어린이 전문병원 수	66
〈표 II-2-19〉 시도별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66
〈표 II-2-20〉 영유아 예방접종 지원사업	68

〈표 II-2-21〉 시도별 도로 면적	69
〈표 II-2-22〉 시도별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현황	69
〈표 II-2-23〉 시설별 어린이놀이시설 현황	70
〈표 II-2-24〉 사·도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현황	70
〈표 II-2-25〉 사·도별 안전(체험)교육	72
〈표 II-2-26〉 사·도별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73
〈표 II-2-27〉 사·도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	75
〈표 II-2-28〉 사·도별 파출소	75
〈표 III-1- 1〉 서울 성북구 “모두가 신뢰하는 환경조성” 세부사업 및 추진 현황 ..	79
〈표 III-1- 2〉 서울 성북구 “성북형 아동돌봄체계” 세부사업 및 추진 현황 ..	80
〈표 III-1- 3〉 서울 성북구 “자연과 체험이 함께하는 안전한 어린이세상” 세 부사업 및 추진 현황	82
〈표 III-1- 4〉 서울 성북구 아동친화예산 현황(2014)	83
〈표 III-1- 5〉 서울 성북구 아동친화예산 추이(2012-2014)	84
〈표 III-1- 6〉 인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_전략 과제 및 주요사업	86
〈표 III-1- 7〉 인천 서구 아동친화도시 전략 과제별 세부사업 목록	89
〈표 III-1- 8〉 인천 서구 아동관련 사업 현황(2016)	90
〈표 III-1- 9〉 인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전략과제 및 예산(2016) ..	91
〈표 III-1-10〉 전북 완주군의 인구 추이(2011-2014)	92
〈표 III-1-11〉 전라북도 내 시군의 아동인구 비율(2011-2014)	93
〈표 III-1-12〉 전북 완주군 연도별 인구 이동 추이(2011-2014)	93
〈표 III-1-13〉 전북 완주군 아동권리 분야별 예산액(2015)	95
〈표 III-2- 1〉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아동친화도시 계획	99
〈표 IV-1- 1〉 육아친화환경 관련 지표	109
〈표 IV-1- 2〉 아동친화 관련 지표	111
〈표 IV-1- 3〉 가족친화 관련 지표	112
〈표 IV-1- 4〉 선호된 육아지원환경 영역 및 요소	112
〈표 IV-1- 5〉 육아지원환경 평가 영역 및 요소에 대한 전문가 적합성 평가 결과 ..	115
〈표 IV-1- 6〉 육아지원환경 평가 영역의 상대적 중요도	117
〈표 IV-1- 7〉 육아지원환경 평가 영역 및 요소 중 추가 요소	118
〈표 IV-1- 8〉 육아지원환경의 평가영역	120

〈표 IV-1- 9〉 육아지원환경 평가요소별 산출방식	121
〈표 IV-2- 1〉 육아지원환경 전체 영역별 평가 결과	125
〈표 IV-2- 2〉 시·군·구별 전체 유치원 공급수준 상·하위 지역	127
〈표 IV-2- 3〉 시·군·구별 전체 어린이집 공급수준 상·하위 지역	129
〈표 IV-2- 4〉 시·군·구별 특수학급 및 장애아 전문/통합어린이집 공급수준 상·하위 지역	130
〈표 IV-2- 5〉 시·군·구별 국공립 유치원 공급수준 상·하위 지역	131
〈표 IV-2- 6〉 시·군·구별 국공립 어린이집 공급수준 상·하위 지역	133
〈표 IV-2- 7〉 시·군·구별 유치원 정교사 1급 비율 상·하위 지역	134
〈표 IV-2- 8〉 시·군·구별 보육교사 1급 비율 상·하위 지역	135
〈표 IV-2- 9〉 시·군·구별 육아종합지원센터 공급수준 상·하위 지역	137
〈표 IV-2-10〉 시·군·구별 건강가정지원센터 공급수준 상·하위 지역	138
〈표 IV-2-11〉 시·군·구별 시간제보육 공급수준 상·하위 지역	140
〈표 IV-2-12〉 시·군·구별 시간연장보육 공급수준 상·하위 지역	141
〈표 IV-2-13〉 시·군·구별 온종일돌봄 공급수준 상·하위 지역	143
〈표 IV-2-14〉 시·군·구별 아이돌보미사업 공급수준 상·하위 지역	144
〈표 IV-2-15〉 시·군·구별 공동육아나눔터 공급수준 상위 지역	145
〈표 IV-2-16〉 시·군·구별 산모신생아도우미 인력규모 상·하위 지역	146
〈표 IV-2-17〉 시·군·구별 24시간보육 공급수준 상·하위 지역	147
〈표 IV-2-18〉 시·군·구별 휴일보육 공급수준 상·하위 지역	149
〈표 IV-2-19〉 시·군·구별 시간연장보육 인력규모 상·하위 지역	150
〈표 IV-2-20〉 시·군·구별 휴일보육 인력규모 상·하위 지역	151
〈표 IV-2-21〉 시·군·구별 24시간보육 인력규모 상·하위 지역	153
〈표 IV-2-22〉 시·군·구별 어린이놀이시설 공급수준 상·하위 지역	155
〈표 IV-2-23〉 시·군·구별 어린이공원 공급수준 상·하위 지역	156
〈표 IV-2-24〉 시·군·구별 어린이도서관 공급수준 상·하위 지역	157
〈표 IV-2-25〉 시·군·구별 장난감도서관 공급수준 상·하위 지역	158
〈표 IV-2-26〉 시·군·구별 어린이박물관(과학관 포함) 공급수준 상·하위 지역	159
〈표 IV-2-27〉 시·군·구별 어린이미술관 공급수준 상·하위 지역	160
〈표 IV-2-28〉 시·군·구별 보건소 공급수준 상·하위 지역	162
〈표 IV-2-29〉 시·군·구별 소아청소년과(병의원) 공급수준 상·하위 지역	163

〈표 IV-2-30〉 시·군·구별 종합병원 공급수준 상위 지역	164
〈표 IV-2-31〉 시·군·구별 보건소 인력규모 상·하위 지역	166
〈표 IV-2-32〉 시·군·구별 보행자전용(우선)도로의 면적 상·하위 지역	168
〈표 IV-2-33〉 시·군·구별 영유아 교통사고 사망자율 상·하위 지역	169
〈표 IV-2-34〉 시·군·구별 영유아 교통사고 부상자율 상·하위 지역	170
〈표 IV-2-35〉 시·군·구별 안전 체험 교육 공급수준 상·하위 지역	172
〈표 IV-2-36〉 시·군·구별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공급수준 상위 지역	173
〈표 IV-2-37〉 시·군·구별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공급수준 하위 지역	174
〈표 IV-2-38〉 시·군·구별 아동보호전문기관 공급수준 상위 지역	174
〈표 IV-2-39〉 시·군·구별 아동보호전문기관 공급수준 하위 지역	175
〈표 IV-2-40〉 시·군·구별 학대피해아동쉼터 공급수준 상위 지역	176
〈표 IV-2-41〉 시·군·구별 학대피해아동쉼터 공급수준 하위 지역	177
〈표 IV-2-42〉 시·군·구별 파출소 공급수준 상·하위 지역	177
〈표 IV-2-43〉 지역규모별 육아지원환경 평가 결과	181
〈표 V-1- 1〉 조사 참여자 특성	184
〈표 V-2- 1〉 자녀가 이용하는 교육·보육 기관 유형	185
〈표 V-2- 2〉 교육·보육 기관 이용 만족도	186
〈표 V-2- 3〉 교육·보육 기관 미이용 이유	187
〈표 V-2- 4〉 향후 이용 계획 및 이용 예정 나이	188
〈표 V-2- 5〉 육아지원 기관 이용 경험(복수응답)	188
〈표 V-2- 6〉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 만족도	189
〈표 V-2- 7〉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 만족도	190
〈표 V-2- 8〉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만족도	191
〈표 V-2- 9〉 유아교육진흥원(유아체험교육원) 이용 만족도	193
〈표 V-2-10〉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가장 도움 된 서비스 1순위	193
〈표 V-2-11〉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장 도움 된 서비스 1순위	194
〈표 V-2-12〉 육아지원 기관 미이용 이유	194
〈표 V-2-13〉 돌봄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복수응답)	195
〈표 V-2-14〉 시간제보육 서비스 이용 만족도	196
〈표 V-2-15〉 시간연장·휴일·24시 보육 서비스 이용 만족도	197
〈표 V-2-16〉 온종일돌봄(에듀케어) 서비스 이용 만족도	198

〈표 V-2-17〉 공동육아나눔터 서비스 이용 만족도	199
〈표 V-2-18〉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만족도	199
〈표 V-2-19〉 산모신생아돌보미 서비스 이용 만족도	200
〈표 V-2-20〉 (맞춤형)돌봄지원 서비스 미이용 이유	201
〈표 V-2-21〉 문화인프라(시설) 이용 경험(복수응답)	202
〈표 V-2-22〉 어린이 놀이시설(어린이공원) 이용 만족도	203
〈표 V-2-23〉 어린이도서관 이용 만족도	204
〈표 V-2-24〉 장난감도서관 이용 만족도	205
〈표 V-2-25〉 박물관(미술관) 이용 만족도	206
〈표 V-2-26〉 문화체육시설(주민자치센터포함) 이용 만족도	207
〈표 V-2-27〉 문화인프라 미이용 이유	208
〈표 V-2-28〉 보건·의료 서비스(시설) 이용 경험(복수응답)	209
〈표 V-2-29〉 보건소 이용 만족도	210
〈표 V-2-30〉 소아청소년과(병의원) 이용 만족도	211
〈표 V-2-31〉 종합병원 이용 만족도	212
〈표 V-2-32〉 영유아 안전관리·보호 이용 만족도	213
〈표 V-3- 1〉 거주 지역 내 육아지원 기관과 서비스의 충분성	214
〈표 V-3- 2〉 육아지원 기관과 서비스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도움 정도	216
〈표 V-3- 3〉 거주 지역의 양육 환경 적합도	217
〈표 V-3- 4〉 거주 지역이 양육하기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라 생각하는 이유 1순위	218
〈표 V-3- 5〉 자녀 양육의 어려움	220
〈표 V-3- 6〉 아이 키우기 좋은 육아환경을 위한 교육·보육 기관의 중요도	221
〈표 V-3- 7〉 아이 키우기 좋은 육아환경을 위한 육아지원서비스의 중요도	222
〈표 V-3- 8〉 아이 키우기 좋은 육아환경을 위한 (맞춤형)돌봄지원 서비스의 중요도	224
〈표 V-3- 9〉 아이 키우기 좋은 육아환경을 위한 문화인프라의 중요도	225
〈표 V-3-10〉 아이 키우기 좋은 육아환경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중요도	227
〈표 V-3-11〉 아이 키우기 좋은 육아환경을 위한 안전관리·보호의 중요도	228
〈표 V-3-12〉 아이 키우기 좋은 육아환경을 위해 가장 중요한 기관 및 서비스	229
〈표 V-3-13〉 거주 지역의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및 지원	230
〈표 V-3-14〉 육아지원정책 수립의 적합한 주체	232
〈표 V-4 1〉 향후 자녀 출산 의향	233

〈표 V-4-2〉 출산 계획의 이유 1순위	234
〈표 V-4-3〉 출산 계획이 없는 이유 1순위	235
〈표 V-4-4〉 향후 출산결정시 육아지원환경의 중요도	236
〈표 VI-1-1〉 육아지원환경에 대한 영유아 부모의 만족도(상·하위지역 공통) ...	244
〈표 VI-1-2〉 육아지원환경관련 정책 및 개선 필요 사항	247

그림 차례

[그림 I-2-1] 연구 절차	11
[그림 I-3-1] 표집 방법	19
[그림 I-4-1] 육아지원환경의 영역	23
[그림 II-1-1] 생태학적 체계 이론을 통해 본 육아지원환경	28
[그림 II-2-1] 시간연장형보육 개념	51
[그림 III-1-1] 서울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정착을 위한 추진체계	78
[그림 III-1-2] 인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협력추진체계(2016)	87
[그림 III-1-3] 전북 완주군 아동친화도시 전략 과제	94
[그림 IV-1-1] 육아지원환경 평가 영역 및 요소 도출 과정	105
[그림 IV-1-2] 아동친화, 여성친화, 가족친화 개념 비교	106
[그림 IV-2-1] 유아교육·보육 영역의 요소별 평가점수 분포	126
[그림 IV-2-2] 육아지원서비스 영역의 요소별 평가점수 분포	136
[그림 IV-2-3] (맞춤형)돌봄지원 영역의 요소별 평가점수 분포	139
[그림 IV-2-4] 문화인프라 영역의 요소별 평가점수 분포	154
[그림 IV-2-5] 보건·의료 서비스 영역의 요소별 평가점수 분포	161
[그림 IV-2-6] 안전관리·보호 영역(1)의 요소별 평가점수 분포	167
[그림 IV-2-7] 안전관리·보호 영역(2)의 요소별 평가점수 분포	167
[그림 VI-1-1] 지역 맞춤형 육아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242
[그림 VI-1-2] 육아지원환경 평가 결과에 따른 영유아 부모의 만족도	245
[그림 VI-1-3] 발달환경별 주요 정책과제	246
[그림 VI-2-1]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육아지원 분과 설치(안)	261

부록 그림 차례

[부록 그림 IV- 1] 지역 명칭 표기 지도	316
[부록 그림 V- 1] 전체 유치원 공급수준	317
[부록 그림 V- 2] 전체 어린이집 공급수준	318
[부록 그림 V- 3] 전체 특수학급 및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 공급수준	319
[부록 그림 V- 4] 전체 국공립 유치원 공급수준	320
[부록 그림 V- 5] 전체 국공립 어린이집 공급수준	321
[부록 그림 V- 6] 전체 유치원 정교사 1급 비율	322
[부록 그림 V- 7] 전체 보육교사 1급 비율	323
[부록 그림 V- 8] 전체 육아종합지원센터 공급수준	324
[부록 그림 V- 9] 전체 건강가정지원센터 공급수준	325
[부록 그림 V-10] 전체 시간제보육 공급수준	326
[부록 그림 V-11] 전체 시간연장보육 공급수준	327
[부록 그림 V-12] 전체 온종일돌봄 공급수준	328
[부록 그림 V-13] 전체 아이돌보미 공급수준	329
[부록 그림 V-14] 전체 공동육아나눔터 공급수준	330
[부록 그림 V-15] 전체 산모신생아도우미 공급수준	331
[부록 그림 V-16] 전체 24시간보육 공급수준	332
[부록 그림 V-17] 전체 휴일보육 공급수준	333
[부록 그림 V-18] 전체 시간연장보육 인력규모	334
[부록 그림 V-19] 전체 휴일보육 인력규모	335
[부록 그림 V-20] 전체 24시간보육 인력규모	336
[부록 그림 V-21] 전체 어린이놀이시설 공급수준	337
[부록 그림 V-22] 전체 어린이공원 공급수준	338
[부록 그림 V-23] 전체 어린이도서관 공급수준	339
[부록 그림 V-24] 전체 장난감도서관 공급수준	340
[부록 그림 V-25] 전체 어린이박물관 공급수준	341
[부록 그림 V-26] 전체 어린이미술관 공급수준	342
[부록 그림 V-27] 전체 보건소 공급수준	343

[부록 그림 V-28]	전체 소아청소년과 공급수준	344
[부록 그림 V-29]	전체 종합병원 공급수준	345
[부록 그림 V-30]	전체 보건소 인력규모	346
[부록 그림 V-31]	전체 보행자전용도로 면적	347
[부록 그림 V-32]	전체 영유아 교통사고 사망자율	348
[부록 그림 V-33]	전체 영유아 교통사고 부상자율	349
[부록 그림 V-34]	전체 영유아 안전 체험 교육 공급수준	350
[부록 그림 V-35]	전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공급수준	351
[부록 그림 V-36]	전체 아동보호전문기관 공급수준	352
[부록 그림 V-37]	전체 학대피해아동쉼터 공급수준	353
[부록 그림 V-38]	전체 파출소 공급수준	354

요 약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2014년 합계출산율¹⁾은 1.21명으로 UN회원국 190여 개국 중 홍콩(1.20)과 마카오(1.19)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며, 2001년(1.3명) 이후부터 초저출산현상을 보이고 있음.
- 육아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육아지원환경의 촘촘한 탐색이 요구됨.
 -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중앙정부의 정책은 각 지역의 재정자립도, 예산규모, 영유아인구밀도 등 다양한 지역 환경과 양육여건에 따라 실행에서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음.
- 본 연구는 육아지원 정책을 통해 공급된 물적 환경을 중심으로 전국 육아지원환경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지역 수요자의 만족도 및 요구를 반영함으로써 (맞춤형)돌봄지원 환경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음.

나. 연구내용

- 연구 내용
 - ‘친양육적인 지역 맞춤형 육아지원환경’관련 요소 개념화.
 - 지역별 육아지원환경의 평가 영역과 요소 산출.
 - 국내외 ‘지역사회 맞춤형 육아지원’ 우수사례의 성공요인 및 시사점 도출.
 - 육아지원환경의 평가요소에 따라 지역별 육아지원 현황 평가.

1) 가임기여성 1명당 평균출생아수

- 평가 결과를 기초로 지역규모(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별로 상위 지역과 하위 지역의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지원환경에 대한 접근성, 서비스의 질 등 이용 만족도와 요구도 분석.
- '지역 맞춤형 육아지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육아지원 정책 방안 제안.

다. 연구방법

- 문헌연구: 선행연구 및 국내외 관련 제도 및 정책 자료, 지역별 육아지원환경 통계자료
- 지역별 육아지원환경의 GIS 분석
- 전문가 조사 및 영유아 부모 설문 조사
- 국내외 사례조사
- 자문회의와 전문가 워크숍

2. 연구의 배경

가. 지역 맞춤형 육아지원환경의 개념

- 중앙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간 공급의 형평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만족도는 매우 중요함.
-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요에 부응하는 전달체계 확립과 공급자원 확보 등 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수립되는 복지정책의 방향과 전략의 추진단위도 시·도 또는 시·군·구인 지역단위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
- 양육과 보호에 있어 지원이 필요한 가족들에게 정신적·물리적 지원 환경을 제공하는 양육친화적 환경의 고려가 필요함.
- 선행연구들에서는 미시체계로서 가정 및 어머니의 특성, 외체계로서 보육 서비스, 거시체계로서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있으나, 지역사회에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육아지원환경에 대해서는 영향력을 파악하고 있지 못해, 육아지원환경 등이 후속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볼 필요가 있음.

나. 육아지원환경 관련 정책 및 현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임산부·태아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등 모자보건의 증진과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함(동법 제9조).
-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한 ‘유엔 아동권리헌장’에서는 아동들이 겪는 위기에 주목하여 학대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놀 권리, 표현의 자유와 참여권, 창의적 활동 등에 대한 보장을 담고 있음.
- 육아지원환경 관련 정책과 현황을 살펴봄.
 - 영유아 교육·보육영역(유치원, 국·공립유치원,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특수학급 및 장애전문/통합 어린이집), 종합육아지원서비스 영역(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유아교육진흥원), (맞춤형)돌봄지원 영역(맞춤형 보육·돌봄서비스, 산모·신생아 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워킹맘·워킹대디 센터), 문화인프라 영역(어린이놀이시설/공원/어린이공원, 박물관/미술관, 사회복지관), 보건·의료서비스 영역(보건소/어린이 전문병원, 어린이전문병원,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 예방접종 지원사업), 영유아 안전관리·보호 영역(보행환경 조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안전(체험)교육,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아동쉼터).

3. 육아지원환경 정책의 국내외 사례

가. 국내 사례

- 국내 사례로는 최근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정착을 추구해 온 서울 성북구와 인천 서구, 전북 완주군 지역의 사례를 다루었음. 동 사업의 주요내용이 육아지원환경의 조성 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추진 전략 및 체계와 각 지역별 특화사업을 다루었음.
 -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정착의 배경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강조점을 달리 하나, 공통적으로는 아동관련 사업을 총괄 관리하고 종합적으로 운영하려는 목표를 지니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식은 지역별로 상이함.

- 아동관련 사업 전반을 총괄 관리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환류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아동관련 사업을 별도 구분하여 관련 예산을 일괄 관리함. 육아지원환경 조성 관련 사업에는 다양한 담당 부서들이 포함되므로, 이들 부서간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지역 내 민관 협력체계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 함.

나. 국외 사례

- 네델란드 로테르담시는 2011년에 정부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으므로, 지역 차원의 육아지원환경 조성 차원에서 주목할 바를 도출함.

4. 전국 지역의 육아지원환경 평가

가. 육아지원환경의 평가 영역 및 요소 도출

- 육아지원환경을 평가하기 위해 첫째,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육아지원환경을 개념화하고, 육아지원 관련 주요 정책의 성과 평가를 위해 제시된 지표들을 추출하였음. 둘째,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육아지원환경의 정의에 따른 평가 영역 여섯 개와 각 영역별 평가 요소를 선정하였음. 셋째,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설문을 통해 각 평가영역과 요소의 적합성과 산출방식의 적합성에 대해 검토하였음.

나. 영역별 육아지원환경 평가

- 전체적으로 편차가 매우 컸으며 낮은 공급수준을 보이는 지역이 많았음.
 - 국공립유치원과 전체어린이집의 공급 하위지역으로 대도시가 주로 포함되고 있고, 국공립 어린이집 공급 하위지역으로는 군지역이 포함되어 있어, 지역 규모와 영유아비율을 고려한 공급 정책이 마련될 필요 있음.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중심으로 공급수준이 높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군지역에 공급수준이 높아 각 지역 규모에 따른 공급 정책이 마련될 필요 있음.

- (맞춤형)돌봄지원 영역의 공급하위 지역은 대체로 대도시와 중소도시로 시간제 보육의 공급수준이 낮았으며, 시간연장보육 등 기타 (맞춤형)돌봄지원 서비스의 공급수준에서 대체로 군지역이 상위지역으로 평가되며, 중소도시나 대도시는 공급수준이 낮게 나타났음.
- 문화인프라의 공급수준은 대체로 낮았으며,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 박물관, 어린이 미술관은 군지역이, 장난감 도서관은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공급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보건소의 공급수준은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소아청소년과(병의원)은 군지역이 공급수준 하위인 것으로 나타남.
- 보행자전용도로는 비교적 신도시가 많이 분포된 중소도시의 공급수준이 상위지역으로 평가되었으며, 기타 안전관리·보호 영역의 인프라들은 미설치된 지역이 많아 영유아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인프라 마련이 시급함.

5. 영유아 부모의 육아지원환경 만족도와 요구

가. 조사 참여자 특성

- 본 조사 참여자는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1,200명으로 특성은 아래와 같음
- 부모의 연령은 35~39세가 각각 44.3%, 42.8%로 가장 많았으며, 학력은 72.5%, 73.4% 이상이 대학 졸업이었음. 부의 경우 정규직이 77.8%로 가장 많았고 모는 전업주부가 64.3%로 많았음. 자녀 연령은 만 5세 이상이 38.5%로 가장 많았으며 자녀는 2명이 50.9%로 가장 많았음.

나. 이용 기관 및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1,20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육아지원 기관은 각 지역별에서 하위지역보다 상위지역의 이용비율이 더 높았으며, (맞춤형)돌봄지원 서비스는 미이용자의 절반정도가 이용 필요가 없다고 응답하여 수요가 많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이용경험이 비교적 많은 교육·보육 기관, 문화인프라, 보건·의료 서비스 각 기관의 미이용 비율은 교육·보육 기관 19.6%, 문화인프라 13.3%, 보건·의료 서비스 2.1% 수준이었으며, 안전관리·보호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미이용 비율을 별도 조사하지 않았음.

- 자녀가 이용하는 교육·보육 기관은 어린이집이 50.3%로 가장 많았고, 유치원 30.3%, 가정양육 18.8%, 기타 반일제 이상 학원 0.8% 순이었음. 지역별로 이용 기관의 통계적 차이는 없었으나 가정양육은 하위지역에서 20.8%로 좀 더 높았음.
-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해본 경험 없음’이라고 응답한 부모가 81.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11%, 건강가정지원센터 5.3%,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유아교육진흥원이 각 2.5% 순이었음. 이러한 결과는 평가결과, 자녀연령, 월 가구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
- (맞춤형)돌봄지원 서비스에 대한 이용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81.6%로 가장 많았고, 산모신생아돌보미 8.6%, 아이돌보미(시간제 돌봄, 영아 종일제)서비스 3.9%, 시간연장, 휴일, 24시 보육(어린이집) 2.9%, 시간제 보육 2.8%, 온종일 돌봄 또는 에듀케어(유치원) 2.2%, 공동육아나눔터 0.7% 순으로 응답하였음. 이러한 결과는 평가결과, 자녀연령, 모 고용상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
- 문화인프라의 이용은 어린이 놀이시설이 75.3%로 가장 많았고 어린이도서관이 53.9%, 어린이공원 27.7%, 어린이 박물관 19.3%순으로 응답하였음. 이용해본 경험이 없는 경우는 13.3%로 육아지원기관과 (맞춤형)돌봄지원 서비스에 비해 낮았음. 이러한 결과는 평가결과, 지역구분, 자녀연령, 월 가구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
- 지역 보건·의료 서비스(시설) 이용은 소아청소년과(병의원)이 81.4%로 가장 많았고, 보건소 65.4%, 종합병원 30.4%, 이용해 본 경험 없음 2.1% 순으로 응답하였음. 이러한 결과는 평가결과, 자녀연령, 월 가구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
- 영유아 안전관리·보호에 대한 만족도를 1,200명을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대체적으로 2점대의 낮은 만족도를 보였는데 접근성 중에서 어린이 안전도로 2.5점, 질적 우수성 중에서 안전 교육 및 체험 2.1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낮았음.

다. 지역의 육아지원환경 요구 및 개선점

4점 만점에서, 교육·보육기관이 2.7점, 보건·의료 서비스 2.4점, (맞춤형)돌봄지

원 서비스와 안전관리·보호 서비스 2.2점 순으로 나타나 충분성에 대해서는 다소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일·가정 양립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4점 만점의 질문에 교육·보육기관이 3.6점으로 도움 정도가 가장 높았고, 보건·의료 서비스 3.3점, 문화인프라 3.2점, (맞춤형)돌봄지원 서비스와 안전관리·보호 서비스가 3.1점, 육아지원 서비스 기관 3.0점 순으로 나타났음.
- 거주하는 지역이 자녀를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개선되기 위해 필요한 노력에 대해 알아본 결과, ‘육아를 위해 필요한 인프라의 접근성 확보’가 3.7점으로 필요도가 가장 높았음.

라. 육아지원환경에 따른 후속 출산 계획

- 향후 자녀 출산 의향은 출산 의향이 전혀 없는 경우가 60.8%로 가장 많았으며, 의향이 있는 경우는 20.6% 정도였음. 평가결과, 지역, 자녀 연령, 월 가구소득, 자녀 수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으며, 평가결과 하위 지역, 중소도시, 월 가구소득이 적은 경우에 출산의향이 더 많았고 자녀가 영아이거나 자녀수가 적을수록 향후 출산 의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6. 정책 제언

- 252개 시·군·구의 자료를 중심으로 수요자 대비 육아지원환경을 평가하고, 상위지역과 하위지역에 거주하는 부모들의 만족도와 요구를 살펴봄으로써 육아지원환경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음.
 - 육아지원환경의 영역별 공급 수준의 격차를 살펴보고, 공급수준과 부모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탐색함으로써 그에 맞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음.
 -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육아지원환경 관리를 위해, 중앙차원의 노력과 지방정부차원의 노력으로 구분하여 정책제언을 제시하였음.

가. 육아지원환경의 공급 수준과 만족도를 고려한 공급 계획 마련

- 육아지원환경의 영역별 공급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상위지역과 하위지역으로 평가된 지역 간 격차가 매우 컸음.

- 육아지원환경 공급 수준에 따른 만족도를 분석하면, I 영역(유아교육·보육영역)에 대한 부모들의 이용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고, II영역, III영역, IV영역, V영역에 대해서도 대체로 높은 만족도를 보임. 반면 VI영역의 안전관리·보호영역은 전체 요소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육아지원환경 평가결과에 따른 영유아 부모의 만족도에 기초해 육아지원환경 지원의 우선순위를 제안함.

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육아지원환경 통합서비스 조직화 방안

- 중앙정부 차원의 육아지원환경 통합서비스 조직 방안.
 - 육아와 관련된 서비스를 단일 장소에서 제공함으로써 행정서비스 대상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원스톱 서비스 개념, 육아지원 서비스 단일 창구화, “육아지원총괄위원회” 조직과 중앙 육아지원센터가 전 사업관련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 수행.
 - 육아지원환경 통합서비스 운영을 위한 지원 방안.
 - 지역특성에 맞는 육아지원정책 개발 및 장려 필요 등의 방안 제시.
- 지방정부 차원의 육아지원환경 통합서비스 조직 방안.
 - 육아지원환경 총괄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체제 구축: 육아지원환경 지표 마련 및 평가, 지역 특성에 따른 육아지원환경 관련 사업 재배치
 - 지역의 육아지원환경 계획-실행-성과관리 체계 구축: 조례 제정 및 아동관련 예산서 도입
 - 기존 공공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기능 통합: 군지영형: 유치원-어린이집 연계안, 건강가정지원센터 기능 보강, 보건소 기능 보강.
 - 현장맞춤형 육아지원정책 구현: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활용한 육아지원정책 시행하여 국민들에게 (맞춤형)돌봄지원 서비스 제공.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2014년 합계출산율²⁾은 1.21명으로 UN회원국 190여 개국 중 홍콩(1.20)과 마카오(1.19)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며, 2001년(1.3명) 이후부터 초저출산현상을 보이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6: 10; OECD, 2015³⁾). 정부는 2005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⁴⁾을 수립·추진해 오고 있으나, 저출산의 근본원인인 고용·교육·주거문제 등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는 자체평가(대한민국정부, 2016)가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금번 2016년 3차 기본계획에서는 ‘아이 낳고 싶은 사회’를 목표로 출생·양육의 사회적 책임의 강화를 통해 임신(전, 중, 분만)과 출산에 대한 사회책임시스템 확립, 아이와 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맞춤형 보육·유아교육 강화, 일·가정양립제도의 근로현장 정착을 추진할 계획이다(대한민국정부, 2016).

지금까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소영·김은정·조성호·최인선, 2015: 15)이 지속됨에 따라, 그 대안으로 ‘영유아를 양육하기 좋은 지역사회’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김혜금(2012)은 육아를 지원하는 인프라가 풍부한 환경으로서 질적으로 우수한 보육시설과 유아교육기관의 접근성뿐만 아니라, 영유아를 기르기에 안전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문화시설이 다양하게 있으며, 여가 시설 및 놀이공간이 충분한 환경을 제시하였다. 정부도 저출산대책으로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여건 조성’(대한민국정부, 2016: 75-58)을 위해 지역사회의 아동친화적 분위기 확산, 아동이 안전한 사회를 위한 공공인프라 확충과 아동보호체계 시스템 구축 계획을 갖추는 등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환경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2) 가입기여성 1명당 평균출생아수

3) Fertility rates. from www.oecd.org/els/social/family/database. (검색일 2016년 5월 3일)

4)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06~‘10)은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및 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을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11~‘15)에서는 ‘점진적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을,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16~‘20)에서는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발전사회 구현’을 목표로 추진함(대한민국정부, 2016).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중앙정부의 정책은 각 지역의 재정자립도, 예산규모, 영유아인구밀도 등 다양한 지역 환경과 양육여건에 따라 실행에서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육아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의 육아지원환경의 촘촘한 탐색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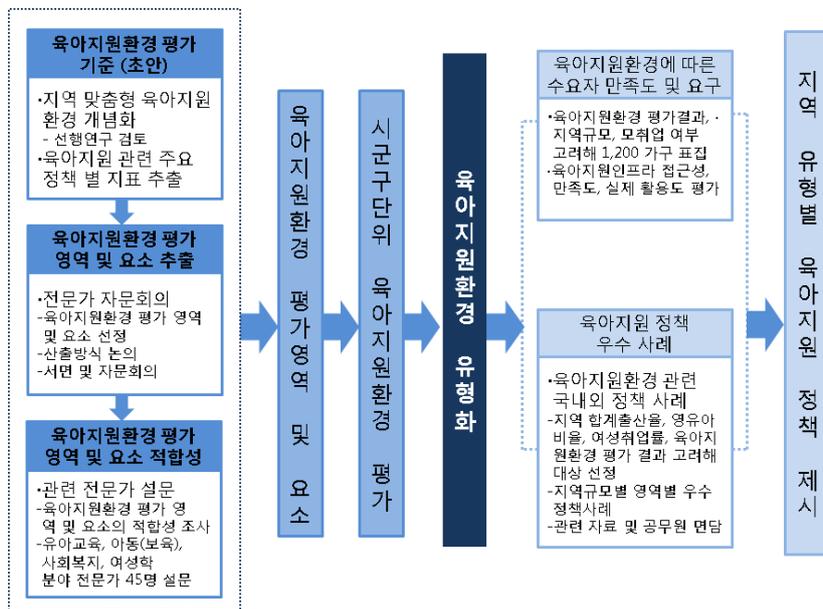
선행연구들은 육아지원을 위한 여러 인프라 중 주로 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박진아·도남희·조혜주, 2015; 유재언, 2014), 어린이집·유치원의 정원충족률과 공급률(최효미·이정원·김진미, 2015)에 대해 살펴보거나, 육아지원서비스기관의 공급률(유해미·양미선·송신영, 2012) 등에 초점을 두고, 지역 간 공급차를 살펴봄으로써 육아지원기관의 지역 간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최근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영유아 지원서비스를 어린이집, 유치원뿐만 아니라 문화기반시설과 양육수당으로 정의(유재언, 2014: 130)하거나, '자연환경, 가정문화환경, 사회문화환경, 교육기관환경'(권미량·김성원, 2012; 이주립, 2014; 이주립·구자훈, 2013)을 포괄하여 육아지원환경의 지역별 특성과 격차를 파악하였다. 이소영 외(2015)의 연구에서는 시·군·구별 임신·출산 인프라(보건의료 인프라)와 양육지원 인프라(어린이집, 건강가정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가 임신·출산 인프라에 비해 영아기 양육을 지원하는 인프라의 지역별 격차가 더욱 심하다는 결론을 얻는 등 육아를 위한 생태적 환경으로서 지역사회에 대해 주목하여 다각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이소영 외(2015: 16)의 연구는 특히 임신·출산과 양육 인프라를 기존의 총량적 접근에서 벗어나 접근도와 수요자 육구의 측면에서 공평하게 분배되어 있는지의 형평성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그간 육아정책연구소에서도 출산수준 제고를 위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중 자녀 양육지원의 분석과 정책방안(서문희·이윤진·유해미·송신영·김세현, 2011), 가정 내 영아의 양육형태별 지원방안(이정원·도남희·김세현·나지혜, 2012), 출산의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출산·양육 지원 방안(이정원·유해미·김문정, 2013), 맞벌이 가구의 특성에 따른 육아지원 방안(유해미·배윤진·김문정, 2014) 등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왔으나, 지역별 육아지원환경의 격차를 고려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지역사회의 육아지원환경의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 친(親)양육적인 육아지원환경을 재정의하고 그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지역의 특성에 따른 실질적인 육아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저출산 해소를 위한 육아지원의 방안으로서 지역사회의 친양육적인 육아지원환경에 주목하되, 지금까지 육아지원정책에서 지원한 공공인프라를

환경으로 정의하고, 물적 환경에 중점을 두어 전국의 육아지원환경을 평가하고 지역 수요자의 만족도 및 요구를 반영하여 지역 맞춤형 육아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내용



[그림 1-2-1] 연구 절차

첫째, 지역별 육아지원환경에 대한 선행연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친양육적인 지역 맞춤형 육아지원환경' 관련 요소를 개념화한다.

둘째, 전문가 설문 및 워크숍을 통해 지역별 육아지원환경의 평가 영역과 요소를 산출한다.

셋째, 육아지원환경의 평가요소별 시·군·구 단위의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지역별 육아지원 현황을 평가한다. 공통 적용 지표를 기준으로 육아지원환경이 우수한 지역과 열악한 지역을 유형화하고 각 특성을 분석한다.

넷째, 평가 결과를 기초로 지역규모(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별로 상위 지역과 하위 지역의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를 설문조사하여 지역 특성 및 취업 여

부에 따른 육아지원환경에 대한 접근 가능성, 이용 만족도, 실제 활용도와 요구도를 살펴본다.

다섯째, 국내외 '지역사회 맞춤형 육아지원'의 우수사례 고찰을 통한 성공요인 및 시사점을 도출한다.

여섯째, 지역별 육아지원환경 평가와 수요자 만족도 및 요구도, 지역별 우수 사례를 기초로, 지역 유형에 따른 '지역 맞춤형 육아지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육아지원 정책 방안을 제안한다.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1) 선행연구 및 국내외 관련 제도 및 정책 자료 수집

지역 맞춤형 육아지원 환경에 대해 개념화하고 관련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생태학적 체계와 지역사회, 육아지원환경의 지역 간 격차, 육아지원환경 관련 제도 및 정책, 육아지원환경 관련 지표 및 국가별 주요정책 사례 등의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2) 지역별 육아지원환경 통계자료 수집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선정된 육아지원환경의 평가 영역별 요소를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시·군·구 별 육아지원환경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한다. 육아지원환경 평가를 위해 수집한 기초 통계 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분석에 사용된 시·군·구는 총 252개 지역이다.

〈표 1-3-1〉 수집 통계자료

연구 분야	기준연도	수록기간	출처	자료 범위
주민등록인구통계 유치원	2016.04	2016.04	행정자치부	만 0~5세
유치원 정교사 1급 ³⁾	2015.04.01		교육통계서비스	-국·공·사립 유치원 현원 -유치원 교원 전체 -유치원 정교사 1, 2급 -전체 유치원 수

(표 I-3-1 계속)

연구 분야	기준연도	수록기간	출처	자료 범위
어린이집 ¹⁾	2015.12.31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어린이집·국공립어린이 집의 현원 및 정원
국공립어린이집 ²⁾				-보육교사 전체 수 및 1급 수
보육교사 1급 ⁴⁾				
시간연장보육 ⁵⁾	2015.12.31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시간제 보육 운영 반 수
휴일 보육 ⁶⁾	2015.12.31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휴일 보육 운영기관 수 및 인력규모 수
24시간 보육 ⁷⁾	2015.12.31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4시간 보육 운영기관 수 및 인력규모 수
장애아전문 및 통합 어린이집 ⁸⁾	2015.12.31		보건복지부, 교육통계	
공공형 어린이집	2016.04.30		보건복지부, 공공형 어린이집 웹사이트	-기관 수 -서울형 어린이집 수
산모신생아도우미 인력규모 ⁹⁾	2016.06.16	2015.02- 2015.12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여성경제활동 인구수 ¹⁰⁾	2016	2013-2015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여성경제활동인구수
육아종합 지원센터 ¹¹⁾	2016.05		육아종합 지원센터	-센터 수 및 분소 수
건강가정 지원센터	2016.01.01		건강가정지원 센터 웹사이트, 2016년도 건강가정지원 센터 사업안내	-기관 수
유치 돌봄 ¹²⁾	2016. 1차	2016. 07.15기준	교육부, 유치원알리미 웹사이트	-유치 돌봄 운영 기관
산모·신생아 도우미	2016.06	2015.02- 2015.12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신생아도우미 인력규모
아이돌보미지원 사업	2016.02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아이돌보미 인력규모
공동육아나눔터			건강지원센터, 건강지원센터 웹사이트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기관 수
어린이놀이시설 ¹³⁾	2016.05.24		국민안전처, 내부자료	-어린이놀이시설 수
공원 ¹⁴⁾	2014.12		산림청, 전국 도시림 현황 통계	-어린이공원 면적

(표 I-3-1 계속)

연구 분야	기준연도	수록기간	출처	자료 범위
도서관 ¹⁵⁾	2016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 웹사이트	-어린이도서관 수
	2015.04		중앙육아종합 지원센터	-장난감도서관 수
	2015	2015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도서관 수
문화시설 ¹⁶⁾	2015.01.01	2015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문화기반 시설총람	-박물관 수 -미술관 수
	2015.10.15		국립민속박물 관, 내부자료	-어린이 박물관 -어린이미술관 -관련 기관
보건소 ¹⁷⁾	2016.01.04		공공보건포털 G-Health 웹사이트	-보건소 수
보건소 의사	2016.04.30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내부자료	-보건소 근무 의사 수
병의원	2016.01.04	2003-2016	국민건강보험 공단, 시군구별 종별 영양기관 현황	-소아청소년 기관 수 -종합병원 수
도로면적 ¹⁸⁾	2014.07	2014.01-06	한국토지주택 공사, 도시계획현황	-보행자전용·우선·자전거 전용 면적 -전체도로면적
안전체험 교육 ¹⁹⁾	2014.12		국민안전처	-전국안전체험시설
	2016.04.27		경찰청	-교통체험시설
어린이급식관리지 원센터	2016.05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센터수
아동보호 전문기관	2016.01.12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	-기관수
학대피해 아동쉼터	2016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	-쉼터수
교통사고 ²⁰⁾	2015	2014.01-12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사망자, 부상자 수
파출소	2016	2015	사이버경찰청 웹사이트	-파출소 수

주: 1) 보육교사 관련 자료에서 부천, 수원, 안산, 안양, 용인, 청주시의 자료는 각 구의 자료와 시의 자료가 각각 기재되어있음. 포항시의 자료는 구 자료 부재.

2) 고양, 부천, 성남, 수원, 안산, 안양, 용인, 청주, 전주, 천안, 포항, 창원시의 구 자료 부재.

- 3) 고양, 부천, 성남, 수원, 안산, 안양, 용인, 청주, 전주, 천안, 포항시의 구 자료 부재.
- 4) 포항시의 구 자료 부재.
- 5) 시간연장 어린이집의 수와 원장, 시간연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조리원 및 기타의 보육교직원의 자료에서 시간제 보육 운영 어린이집 수와 보육교사 자료이용. 부천, 수원, 안산, 청주, 포항시의 자료는 시와 구의 자료가 각각 기재되어 있음.
- 6) 용인, 포항시의 구 자료 부재.
- 7) 24시간 어린이집의 수와 원장, 24시간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조리원 및 기타의 보육교직원의 자료에서 어린이집 수와 24시간 보육교사 자료이용. 안산, 수원, 용인, 청주, 포항시의 구단위 자료 부재.
- 8) 전문: 부천, 수원, 안산, 안양, 청주, 포항시의 구 자료 부재. 통합: 수원, 부천, 안산, 안양, 용인, 포항시의 경우 시와 구의 자료가 각각 기재가 되어 있거나, 구의 자료가 부재한 경우가 있음.
- 9) 고양, 부천, 성남, 수원, 안산, 용인, 청주, 천안, 전주, 포항, 창원시의 구 자료 부재.
- 1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의 구 자료 및 경기도, 강원도 자료 부재.
- 11) 센터 수와 분소 수의 합.
- 12) 국립, 공립단설, 공립병설, 사립(법인), 사립(사인) 유치원에서 제공하는 아침, 저녁, 온종일 돌봄 기관 수의 합.
- 13) 지자체 어린이놀이시설과 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수의 합. 고양, 부천, 성남, 수원, 안산, 안양, 용인, 청주, 천안, 전주, 포항, 창원시의 구단위 자료 부재.
- 14)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중에서 어린이 공원 자료 이용함.
- 15) 어린이도서관:공공(어린이)과 작은(문고)의 공립, 사립, 지자체에서 운영되는 어린이도서관 수. 장난감도서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되는 장난감 도서관 수. 공공도서관: 지자체, 교육청, 사립 공공도서관의 합. 고양, 남양주, 부천, 성남, 수원, 안산, 안양, 용인, 포항시의 구 자료 부재.
- 16) 국공립, 사립, 대학 박물관의 합. 국공립, 사립, 대학 미술관의 합. 고양, 남양주, 부천, 성남, 수원, 안산, 안양, 용인, 포항시의 구단위 자료 부재로 각 시의 총합 자료에 구의 수를 나눈 값을 부여함. 박물관은 과학, 민속, 경찰, 국악, 역사 등의 다양한 주제를 지니는 박물관들이 포함됨.
- 17)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합.
- 18) 고양, 부천, 성남, 수원, 안산, 안양, 용인, 청주, 천안, 전주, 포항, 창원시의 구단위 자료 부재로 각 시의 총합 자료에 구의 수를 나눈 값을 부여함.
- 19) 안전체험시설:종합 안전 체험관, 교통체험시설, 소방체험시설의 합. 교통체험시설: 교통안전체험교육장 현황(국고보조 17개소) 중 국민안전처 자료와 16개소 겹쳐 1개소 추가함.
- 20) 고양, 부천, 성남, 수원, 안산, 안양, 용인, 청주, 천안, 전주, 포항, 창원시의 구단위 자료 부재로 각 시의 총합 자료에 구의 수를 나눈 값을 부여함. 울릉군 자료 없음. 1-12세의 자료 중 1-5세의 자료 이용함.

3) 지역별 육아지원환경의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분석

시·군·구 지역별 육아지원환경의 공급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선행연구(이주립·구자훈, 2013; 이주립, 2014)의 방법에 따라, 평가 요소마다 정규분포를 체크한 뒤 측정값이 정규분포일 때에는 정규분포이론(Nominal distribution theory)을

근거로 평균 및 표준편차를 이용해 등급을 4개로 분류하였다. 그 외 정규분포가 아닌 변수들은 ArcGIS의 Jenk's Natural Break Method를 통해 등급을 구분하고 높은 순서에 따라 각 1.0, 0.75, 0.5, 0.25점의 점수를 부여하였다. Jenk's Natural Break Method는 "Jenk's optimization을 이용하여 값 사이의 구분점(breakpoint)을 부여하고 각 항목변이의 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비슷한 값들로 구간을 나누는 방법이며 표준편차로 구분이 어려울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서교·이지민·김한중·정남수·조순재·이정재, 2003; 이주립, 2014에서 재인용).

나. 설문조사

1) 전문가 설문

선행연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1차 육아지원환경 평가 영역과 요소를 추출하고, 관련 분야(유아교육, 아동·보육, 사회복지, 여성) 전문가에게 설문을 통해 적합성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전문가 설문지는 2016년 5월 1일 IRB 심의승인(KICCEIRB-2016-제02호)을 받아 이메일을 통해 2016년 5월 2일 배포하여 5월 16일 수거하였다. 전문가 설문의 목적은 지역 맞춤형 육아지원환경의 평가 영역을 선정하고, 각 영역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결정하며, 평가 영역별 요소의 적합성, 산출 방식의 적합성을 검토받기 위함이었다.

가) 설문대상

평가 영역 및 요소의 선정과 산출방식 결정을 위해 전문가 집단의 선정은 매우 중요하다. 전문가 집단의 선정에 있어 참여자는 대표성, 적절성, 전문적 지식 능력, 참여의 성실성, 참가자의 수 등을 고려해야 한다(김병성, 1996). 그러므로 전문가 선정에 있어서 육아 및 육아환경에 대한 연구, 지역사회 복지를 수행한 박사학위 이상의 학계전문가(교수 및 연구원)를 대상으로 하였다. 육아정책연구소 전문가 풀을 참조하여, 전문가 집단의 학문 배경(유아교육, 아동·보육, 사회복지, 여성)별 동수가 포함되도록 할당하되, 육아환경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 연구 및 자문 경력이 다수인 전문가를 우선 동의를 통해 모집하였다. 총 50명의 전문가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수거율 90%에 해당되는 최종 45명의 전문가가 설문에 응답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3-2〉 전문가 조사 참여 인원

연구분야	표집 목표인원	실제 참여인원	연령	성별(여:남)	연구경력 (평균)
유아교육	13	10	52	(10:0)	24
아동가족	13	13	50	(12:1)	21
사회복지	12	15	48	(12:3)	15
여성학·기타	12	7	46	(6:1)	11
총 합(평균)	50	45	49	(40:5)	16

나) 설문내용

선행연구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선정된 육아지원환경의 평가 영역 및 요소 중 시·군·구 단위의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요소를 중심으로 설문지를 작성한 뒤, 전문가 4인의 검토를 통해 완성하였다(부록 2참조).

〈표 1-3-3〉 육아지원환경 평가 영역 및 요소

영역	지표
I. 교육·보육지원	어린이집, 국공립, 공공형 어린이집 공급수준/정원충족률
	유치원·국공립 유치원 공급수준/정원충족률
II. (중합)육아지원서 비스 영역	육아종합지원센터 공급수준
	건강가정지원센터 공급수준
	지역아동센터 공급수준
	유아교육진흥원 공급수준
III. (맞춤형) 돌봄지원 영역	시간제보육지원(시간제, 시간연장, 24시간, 휴일보육) 공급수준/ 인력규모
	유치원돌봄(온종일 돌봄) 공급수준/ 인력규모
	공동육아나눔터 공급수준/인력규모
	아이돌보미사업 인력규모
	산모신생아도우미 공급수준/인력규모
	워킹맘·워킹대디 센터 공급수준
IV. 문화인프라 영역	어린이도서관 공급수준
	박물관/미술관 공급수준
	어린이놀이시설 공급수준
	장난감도서관 공급수준
	공원, 어린이공원 공급수준
	문화복합시설 공급수준 (구민회관, 아동회관, 여성회관, 청소년 수련관 등)
	사회복지관

(표 I-3-3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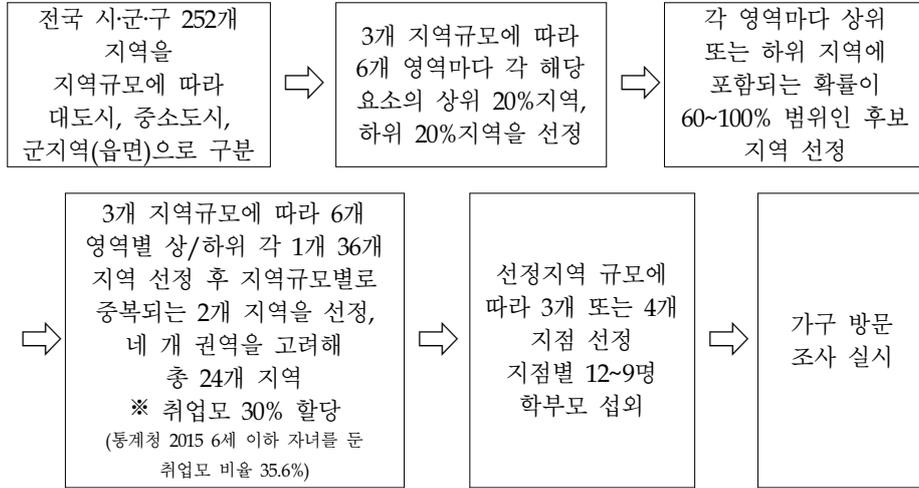
영역	지표
V. 보건·의료 서비스	보건소 공급수준
	소아청소년과(병의원) 공급수준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기관
	어린이 전문 병원(달빛 어린이 병원 등)
	예방접종률
VI. 안전관리·보호	안전체험교실(안전체험관) 공급수준
	아동보호전문기관 공급수준/인력규모
	학대피해아동쉼터
	보행자전용·우선도로의 면적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점검율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공급수준
학대피해아동쉼터 공급수준	

2) 부모 설문

육아지원환경 평가 결과를 기초로 지역규모(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별 상위 지역과 하위지역에 거주하는 부모들의 만족도와 요구를 살펴보기 위해 부모설문을 실시하였다. 부모 설문지는 2016년 8월 1일 IRB 심의승인(KICCEIRB-2016-제10호)을 받았다.

가) 설문대상

조사대상은 전국 지역규모(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육아지원환경 평가 결과의 전체 총합과 각 영역별 상·하위 지역을 고려하여 표집 하도록 한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연구 1에서 육아지원환경을 6개 영역(I 영유아교육·보육, II육아지원서비스, III돌봄서비스, IV문화인프라, V보건·의료, VI안전관리·보호 영역)으로 나누고, 세부적인 비교를 위해 I 영유아교육·보육(3개 요소), II육아지원서비스(2개 요소), III돌봄서비스(5개 요소), IV문화인프라(5개 요소), V보건·의료(3개 요소), VI안전관리·보호(4개 요소)영역의 각 요소를 산출방식에 따라 점수화하였다. 그 다음으로 영역별 60~100% 범위로 중복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각 영역별 대표 지역을 먼저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규모별, 영역별 상위지역과 하위지역 중 중복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최종 24개 지역을 선정하였다.



[그림 1-3-1] 표집 방법

<표 1-3-4> 설문조사 표본 구성

지역	평가 결과 (표집)	서울-경기(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지역 (표집)	영유아 비율	지역 (표집)	영유아 비율	지역 (표집)	영유아 비율	지역 (표집)	영유아 비율
대도시	상위 20% (200)	서울 중구 (50)	.041	대전 대덕구 (50)	.048	광주 동구 (50)	.042	부산 중구 (50)	.029
	.055 하위 20% (200)	서울 서초구 (50)	.054	대전 동구 (50)	.054	광주 서구 (50)	.050	울산 동구 (50)	.071
중소 도시	상위 20% (200)	경기 과천시 (50)	.045	세종시 (50)	.085	전북 남원시 (50)	.041	경남창원시 마산 합포구 (50)	.048
	.049 하위 20% (200)	수원시 권선구 (50)	.063	충남 당진시 (50)	.041	전북 김제시 (50)	.037	경남 양산시 (50)	.066
군 지역 (읍면)	상위 20% (200)	강원 영월군 (50)	.029	충북 단양군 (50)	.029	전남 곡성군 (50)	.031	경남 함양군 (50)	.033
	.039 하위 20% (200)	강원 고성군 (50)	.031	충북 증평군 (50)	.066	전북 장수군 (50)	.041	경북 칠곡군 (50)	.065
합계	1,200	300		300		300		300	

주: 영유아 비율은 지역의 주민등록인구 대비 만 0~5세의 영유아 인구로 산출함(부록 1 참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약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되, 취업모는 최소 30% 임의할당 하도록 한다. 한부모 가정은 포함하나 조손 가정은 표집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설문조사 표본 구성은 <표 I-3-4>와 같다.

나) 설문 내용

설문지는 육아지원환경 관련 선행연구(유해미 외, 2014; 이소영 외, 2015; 이윤진·조혜주 2014; 이영범 외, 2012; 이정원 외, 2013; 이주림, 2014)와 이정림 외(2015) 한국아동패널의 후속출산 및 사회적 지원 관련 질문을 참조하여 작성하고, 사회학, 경제학, 가족학 전공 전문가 3인과 아동학 및 유아교육 전공 전문가 3인의 검토를 통해 구성하였다. 부모 대상 설문조사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부록 3참조).

<표 I-3-5> 부모 대상 설문조사 내용

구분	내용
응답자 일반 특성	거주 지역(주소), 자녀연령, 모의 취업여부 부모의 연령, 학력, 고용상태, 직종, 가구 월소득, 가구원 수 및 자녀수, 부모동거여부, 현주소 거주기간, 차량소유여부
거주 지역 육아환경에 대한 만족도 및 이유	지역 내 위치한 인프라와 서비스에 대한 충분성, 접근성, 활용성, 양육 유용성 등, 거주지역의 육아환경으로서의 적합성, 육아환경으로서의 중요도, 자녀양육의 어려움 정도
거주 지역 육아지원 기관과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요구	이용해본 기관 및 서비스, 지역 내 위치한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편리성, 질적우수성, 경제성 등 이용 만족도, 미이용 이유
육아지원환경 관련 정책에 대한 요구	육아지원환경 관련 정책에 대한 요구, 개선 방안
후속출산의지와 이유	후속출산 계획 여부 및 이유, 후속출산결정에 대한 육아지원 환경의 중요도
일·가정 양립에 도움 정도	육아지원환경의 일·가정 양립의 도움 정도

다. 사례조사

지역사회의 인구 특성과 인구밀도를 고려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역 맞춤형 육아지원환경' 정책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수집하기 위해, 해외사례(네덜란드의 로테르담 등)와 시·군·구의 육아지원 담당 공무원 및 전문가

를 통해 지역 수요자의 요구를 고려한 육아지원의 모범사례(정책, 지역사회 네트워크 등)와 애로점 등을 수집하여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육아지원환경의 6개 평가영역 관련 지표들을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로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진행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사례를 수집하게 되었다. 성북구는 아동친화도시 인증 제1호 지자체로 관련 사업을 위한 추진체계와 조직을 갖추어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었다. 이와 유사하게 군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한 전북 완주군과 현재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사례를 수집하였다. 특히 전북 완주군과 인천 서구는 지속적으로 30대 젊은 인구와 영유아의 유입이 증가하는 지역으로 지자체의 아동영향평가를 기초로 아동권리와 관련된 지자체의 사업들을 수집하며 본 연구에서 지향하는 육아지원환경 관리를 위한 조직체계의 모범 사례를 제시해주었다.

〈표 1-3-6〉 육아지원환경 지자체 우수사례

구분	지역 규모	지자체	참석자	특징
제1차 (8. 31)	대도시	서울시 성북구	성북구청 아동친화도시 담당자	저출산 대응 차원에서 아동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 위해 아동친화도시 조성. 아동친화도시 국내 1호 인증 지자체임.
제2차 (9. 29)	군지역	전북 완주군	완주군청 교육아동복지과 담당자, 육아종합지원센터장, 건강가정지원센터장	타 군지역에 비해 영유아 인구 비율이 높고 육아 관련 인프라 공급수준도 높으며 유입인구 비율도 높음. 아동친화도시 국내 2호 인증 지역임.
제3차 (10. 11)	대도시	인천시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청 여성보육과 및 인재육성과 담당자, 육아종합지원센터장, 건강가정지원·다문화가족 지원센터장	영유아 인구수가 가장 많고, 유입인구 비율이 높음. 육아관련 인프라 수준도 높은 편임. 최근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추진 중임.

라. 자문회의

연구의 전반적인 방향과 연구방법의 검토, 설문지 검토와 정책제언 등을 위

하여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였다. 전문 자문진을 구성하여 지자체별 범위 설정 및 지역 맞춤형 육아지원의 개념과 평가 지표 도출, 각 요소별 세부 측정항목의 결정을 위해 가족학, 사회복지학, 도시행정학, 행정학 관련 교수, 육아지원 서비스 담당 공무원(보육 및 여성정책 담당, 유아교육, 보건 담당), 건강가정지원센터장,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등 연구자문진을 구성·운영하였다.

〈표 1-3-7〉 전문가 자문회의 진행

구분	일시	참석자	내용
제1차	3. 10	도시행정학 교수	육아지원환경 지표 논의
제2차	4. 1	교육청 장학사	양육 친화 관련 지자체 사업 논의
제3차	4. 1	아동가족학 교수, 사회복지학 교수, 보건사회 국책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연구 설계 적절성 및 육아지원환경 지표 검토
제4차	4. 4	여성가족분야 국책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연구방향 논의 및 지역사회 가족친화 정책 사례 발굴
제5차	4. 6	교육분야 국책연구기관 선임연구위원	연구방향 설계 및 지표 검토
제6차	5. 25	도시행정학 교수	육아지원환경 평가 기준 논의
제7차	6. 27	유아교육과 교수	부모 설문지 검토
제8차	7. 7	로테르담시 NPRZ(Nationaal programma rotterdam zuid) 학교 담당자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y), 아동 지역(Children's Zone) 관련 사례 논의
제9차	7. 11	심리학과 교수	분석방법 검토
제10차	9. 20	사회복지학과 교수	보고서 검토 및 아동친화도시 관련 논의
제11차	10. 25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책제언 관련 논의
제12차	11. 3	행정학과 교수	정책제언 관련 논의
제13차	11. 11	보건복지부 인구정책 담당 사무관	정책제언 관련 논의(서면)

마. 전문가 워크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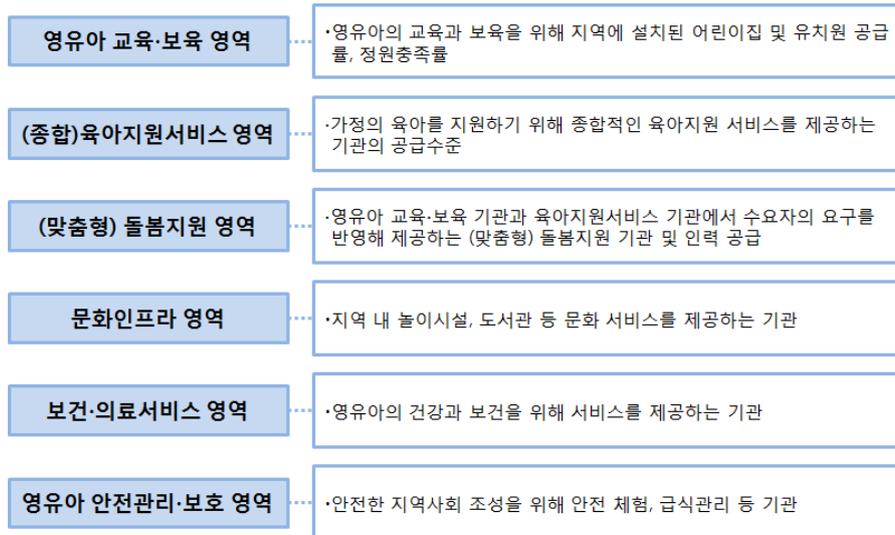
유아교육, 아동·보육, 여성학, 사회복지학, 도시행정학 분야의 전문가를 선정하여 선행연구와 전문가 설문, 육아지원환경 평가 결과를 기초로 육아지원환경의 평가영역별 평가요소와 산출방식, 영역 및 전체 평가 결과의 점수화에 대한 논의를 실시하였다.

〈표 1-3-8〉 전문가 워크숍

일시	참석자	내용
7. 15	유아교육, 아동학, 여성학, 통계학 전문가	-각 요소별 배타성을 고려해 평가요소를 통합. -6개 영역의 비교를 위해 물리적 환경 평가 지표를 중심으로 살펴봄. -질적인 측면을 살펴볼 수 있는 인력은 따로 구분하여 산출하도록 함. -부모설문 표집 대상지역과 설문 내용 확정.

4. 용어의 정의 및 연구 범위

가. 육아지원환경의 개념



[그림 1-4-1] 육아지원환경의 영역

육아지원환경이란 0~5세 자녀를 둔 부모가 영유아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의 물적 인프라를 말하며, 선행연구에서 포함되었던 민간사업(문화센터, 키즈카페, 서점 등)을 제외한 정부 정책이 반영된 ‘공공 인프라’로 그 범위를 제한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영유아의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투입되는 정책들 중 특히 인프라에 초점을 두어 연구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육아지원환경을 영유아 교육·보육, (종합)육아지원 서비스, (맞춤형)돌봄지원, 문화인프라, 보건·의료서비스, 영유아 안전관리·보호의 여섯 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정의한다.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된 육아친화환경이 민간 인프라를 모두 포괄하는 것과 달리 본 연구의 육아지원환경은 정부의 정책을 통해 설치·운영되는 ‘물적 공공 인프라’를 중심으로 살펴본다는 점이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지역 맞춤형 육아지원의 개념

중앙정부의 육아지원 관련 정책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간 공급의 형평성을 확인하고 공공서비스 제공 과정상의 문제점을 발굴하여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육아지원환경을 여섯 개 영역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각 영역의 상·하위 지역별 특성을 지역규모별로 파악하여, 각 지역의 유형에 따라 투입·개선되어야 할 육아지원환경을 지역규모와 육아지원환경의 유형에 따라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 육아지원환경평가는 시·군·구 252개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였으며, 평가결과에 따른 수요자 만족도 조사의 지역 단위는 특별시와 광역시, 광역시를 제외한 중소도시, 군지역으로 구분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평가 결과가 특정 지역 규모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고, 둘째, 지역 규모에 따라 육아지원의 제언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었다.

다.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본 연구는 육아지원환경의 연령 범위를 0~5세 취학 전 연령으로 제한하였으며, 임신 전과 임신 중 부모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연구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리고 육아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 중 물적 인프라와 서비스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특히 시·군·구 단위에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통계자료만을 그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육아지원 환경 서비스의 질에 대한 평가와 재정 및 비용에 대한 부분 역시 육아지원정책을 위해 중요한 부분이나 이는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연구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고 후속 연구로 제안한다.

II. 연구의 배경

1. 지역 맞춤형 육아지원환경의 개념

가. 지역 맞춤형 육아지원의 필요성

국내에서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방분권 정책을 거치면서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복지의 중심축이 중앙정부에서 지역사회로 이동하였다. 지방자치법(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 검색일 2016년 5월 3일) 제1조5)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시책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지방자치법 제123조)과 동시에,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지방자치법 제9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앙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간 공급의 형평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만족도는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요에 부응하는 전달체계 확립과 공급자원 확보 등 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수립되는 복지정책의 방향과 전략의 추진단위도 시·도 또는 시·군·구인 지역단위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제안되고 있다(배은석, 2013: 13).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수준은 시민들의 선호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 제공 과정상의 문제점을 발굴함으로써 효과적 자원배분과 서비스 질 향상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Lucy et al., 1997; 고명철, 2013: 249에서 재인용). 심미승·설선미(2014: 378)는 각 지역별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지역에 따른 차이점을 반영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에서 제공하는 일·가정 양립정책이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20~40대 남녀 375명

5) 지방자치법 제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며,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광주여성재단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다자녀 우대혜택 서비스⁶⁾와 임신부 대상 혜택⁷⁾은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심미승·설선미, 2014: 398), 각 지역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과 질적 확보가 중요함을 알려준다.

정책적 판단을 위해 지역적 격차를 확인하는 연구도 진행되어 왔다. 나정·박은실(2002: 13-25)은 유아교육 투자 우선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유아교육 수혜율, 인구 증감율, 재정 자립도의 시·군·구 자료를 기준으로 180개 지역 교육청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유아교육 투자 우선 지역으로 40개 지역을 선정하였다. 이는 지역 간 유아교육 기회의 격차를 줄이고 유아교육에 우선적인 공공재원 투자의 정당성 및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연구자들은 이를 통해 유아교육 투자 우선 지역을 합리적으로 선정하고 효율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적 특성의 차이 반영, 저소득 읍면 지역 내 공립 유아교육 기관 확대, 사립 유아교육 기관에 대한 지원,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여러 편의시설 제공, 사설 학원 정비와 장학 등을 제안하였다.

특히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수요자의 자녀 양육에 대한 욕구는 다를 수 있다.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어머니의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박정화·장영애, 2003: 12-13)에서 도시지역 어머니들은 정신적 스트레스나 가족형태가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반면, 농촌지역 어머니들은 가족형태 보다는 신체 건강 상태나 학력수준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어머니들의 자녀양육을 지지하기 위한 사회적 서비스의 유형과 빈도가 열악해 이에 대한 지원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나. 육아지원을 위한 생태적 체계로서의 지역사회

인간발달을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살펴본 Bronfenbrenner(Sandtrock, 2012: 29-30에서 재인용)는 영유아를 중심으로 하여 가장 근접한 체계부터 광역의 체계에 이르기까지 다섯 가지 환경 체계를 규정하고 이 체계들이 아동의 발달에

-
- 6) 다자녀 우대혜택 서비스는 공공기관 시설이용 비용 감면 혜택, 소득공제, 전기료 감면, 무주택 세대주 주택 특별공급, 셋째이상 유아학비 지원, 자동차세 경감 등(심미승·설선미, 2014: 398)
 - 7) 임신부들을 위한 서비스로 고운맘카드, 임신부 전용주차 구역,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의료비 지원 등으로 대표적인 고운맘카드는 지원 금액 50만원이며, 쌍둥이는 70만원 지원됨. 그러나 의료비용 지원금이 조기 소진되어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함(심미승·설선미, 2014: 3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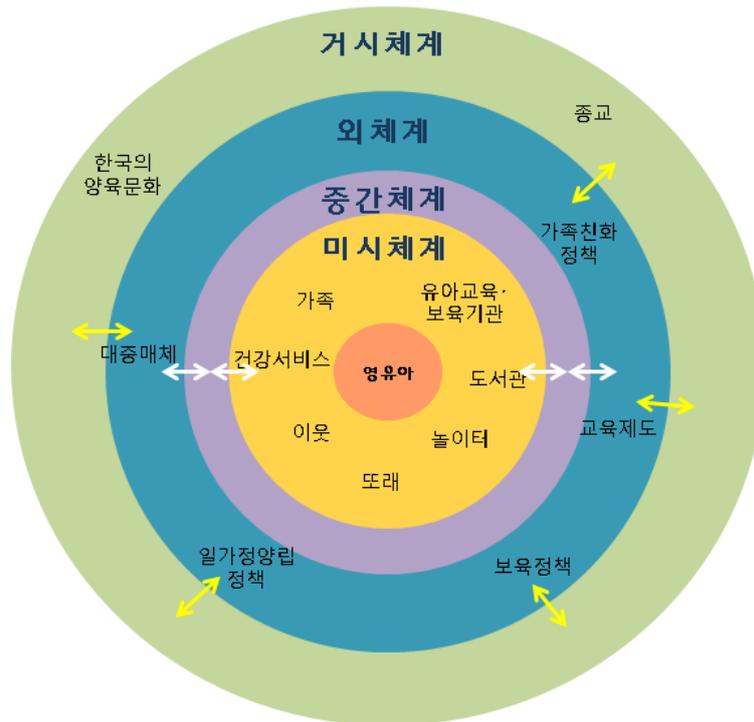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체계로는 아동과 가족에 가장 근접한 환경인 미시체계(microsystem), 미시체계들 간의 상호관계를 의미하는 중간체계(mesosystem), 아동이 직접 참여하지는 않으나 영향을 받는 사회적 환경으로서 외체계(exosystem), 마지막으로 아동이 속한 사회의 신념, 태도, 전통 등 문화적 환경을 포함하는 거시체계(macrosystem), 사회역사적 환경과 생애사적 사건이나 전이 등이 포함된 시간체계(chronosystem)가 있다.

생태학적 체계 분석을 통해 장애아 가정의 양육 성공과 실패요인을 살펴본 Algood, Harris, & Hong(2013: 128-131)은 미시체계 요인으로 양육 실제(parenting practices)와 부모-자녀 관계, 중간체계 요인으로 양육자의 부부관계와 사회적 지원으로서의 종교, 마지막으로 거시체계 요인으로 문화적 다양성과 인종과 민족 차이,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살펴보았다. 유대인과 인디언의 양육법을 비교한 김일부(2009: 105)는 미시체계와 중간체계를 비교하기 위한 기준으로 가정을, 외체계는 교육제도를, 거시체계는 양국의 종교, 시간체계는 역사적 사건을 비교하였다. 배광일(2011: 38)도 생태학적 접근을 통해 자녀출산에 대한 의도와 행동의 영향 변인을 살펴보았는데, 미시체계로 자녀수, 월평균소득, 맞벌이 여부, 가족관계 만족도를 보았고, 외체계로 보육비 부담감, 보육시설 접근성, 보육 장소, 거시체계로서 가족가치관과 출산지원정책을 제시하였다.

영유아의 양육을 위한 환경을 고려함에 있어서도 생태학적 체계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양육에 대한 논의는 주로 어머니의 연령, 양육스트레스 등의 개인변인과 더불어 사회적지지(권정윤·정미라·박수경·이방실, 2013; 류기자·김영주·송연숙, 2009; 박희진·문혁준, 2013; 이승미·김희진, 2005)와 같은 미시체계와 중간체계 차원의 연구, 각국의 양육 문화 비교(김일부, 2009)와 같은 거시체계를 살펴본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양육지원정책(가족친화정책 모범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가족친화 문화 확산, 가족친화 지역선정, 맞춤형 보육시설 등)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한윤옥(2012)의 연구는 거시체계를 고려한 연구라고 볼 수 있다.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다양한 환경과 정책이 필요한데 이를 생태학적 체계모델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최근 들어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육아여건 개선을 통해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육아시스템구축’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각 가정의 환경뿐만 아니라 전체 지역사회의 환경이 육아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주택과 도시환경에서의 출산과 양육 지원 정책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천현숙

외, 2013: 3-4). 빈곤층이 밀집된 지역이거나 사회적 자본이 부족한 이웃환경은 부모의 양육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부모로서의 긍정적 역할 모델, 상호지지 또는 지도, 제도적 자원 등을 경험하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이다(김광혁·김정석, 2012: 48).



[그림 II-1-1] 생태학적 체계 이론을 통해 본 육아지원환경

[그림 II-1-1]에서 보듯이 지역사회는 영유아에게 있어 가족 다음으로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임과 동시에 가족의 양육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양육지원환경으로서 지역사회를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사회(communitiy)란 라틴어인 'commuins'에서 유래한 용어로 '친목, 인간관계나 정서적 지역사회'를 의미하며, 중세 라틴어에서는 동료나 성곽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총체를 의미하기 위해 사용되었다(NASW, 1999; 배은석, 2013: 39에서 재인용). 지역사회는 지리적 영역(생활권역, 물리적 자원), 사회적 상호작용(사회관계), 공동의 연대감을

공통요소로 하여 “일정한 지리적 영역 안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의 연대감을 갖추고 있는 인간 집단”으로 정의된다(배은석, 2013: 40). 노병일(2015: 92-93)은 생태학적 관점에 따라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자본⁸⁾에 도 주목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사회자본은 부모의 재정적, 인적, 사회적 자원을 포함하는 가족 사회자본과 지역사회 사회자본으로 구분되는데, 부모역할을 교육하는데 있어 아동 개인, 부모·가족, 그리고 이웃과 지역사회 요인과 같은 지역사회의 사회적지지 네트워크도 중요하기 때문이다(노병일, 2015: 95).

최근 다양한 특성을 지닌 가족들에게 자녀 양육과 보호를 위한 지원과 환경을 제공하는 양육친화적 환경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정민자 외, 2008: 23). 정민자 외(2008: 207-208)는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동반한 양육친화적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현재 가족과 기관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양육을 지역사회로 확장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양육 네트워크는 주민의 편의성을 고려해 생활지역단위여야 하고, 양육친화 네트워크 전담 코디네이터 기관을 통한 정보 전달의 용이성, 주민들의 자치적이고 주도적인 참여와 활동을 이끌기 위한 정부의 개입, 지역의 특성과 주민 요구 파악을 기초로 한 다양한 형태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현재 지역 내에 존재하는 여러 돌봄과 양육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다. 육아지원 관련 인프라의 지역 간 차이

지역마다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공급된 인프라에 차이가 존재한다. 이를 교육·보육기관, 종합 육아지원서비스, 돌봄 서비스, 문화인프라, 보건 의료서비스 및 안전관리 보호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교육·보육기관 공급의 차이

지역격차를 고려한 선행연구들은 어린이집의 공급률과 정원충족률(박진아·도남희·조혜주, 2015; 유재언, 2014; 유해미·강은진·조아라, 2015; 최효미·이정원·김진미, 2015)을 분석하였다. 박진아 외(2015)는 최근 5년간(2010-2014) 지역별 어

8) 사회자본(Social Capital)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나 Putnam의 정의에 따르면 “서로에게 이득을 주기 위한 행동과 협력을 더 잘하게 하는 사회조직의 특징”으로 지역사회의 소속감, 지역사회 유대, 호혜, 시민 참여 등을 포함하는 개념임(Tzanakis, 2013: 6; 노병일, 2015, 89에서 재인용함).

린이집 정원충족률을 살펴본 결과 서울, 인천, 울산, 부산 등의 순으로 가장 높은 반면 세종시, 경북, 전북 순으로 낮게 나타나 지역적 차이를 발견하고 이에 따른 16개 시도의 각 연령 어린이집 이용률을 전망하였다. 최효미 외(2015)도 시·군·구 단위로 어린이집·유치원의 공급률과 정원충족률을 살펴보았는데, 지역 내에서도 강원도, 경북, 충남 등 농어촌 지역에 속한 시·군·구의 공급률이 높은 반면 부산, 대구 등의 광역시와 경기도의 어린이집·유치원 공급률이 낮은 시·군·구가 많으며, 어린이집·유치원 공급률이 영유아의 인구밀도 및 어린이집·유치원의 정원충족률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 지역 간 인프라 격차의 축소를 통해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 이용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유해미 외(2015: 53-55)의 연구에서는 2014년을 기준으로 평균 어린이집 공급률은 56.1%인데, 제주지역이 78.1%로 가장 높고, 부산시는 47.6%로 가장 낮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같은 연구에서 어린이집 이용률은 평균 46.6%이고 제주지역은 64.9%로 가장 높으며 부산시는 40.5%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지역규모별로 보았을 때 대도시 지역에 어린이집 공급 계획을 대규모 기관 위주로 마련하고 농어촌지역에는 어린이집 공급 계획이 소규모 기관 위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유재언·진미정(2013)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영유아 부모 1,246명을 대상으로 구별로 보육서비스 인프라에 차이가 있는지와 그에 따라 지역사회 가족친화성에 영향이 있는지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설립유형별로 구마다 숫자가 다르고 차이가 있었으며, 어린이집 수와 영아전담어린이집의 수가 가족친화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의 영유아 지원 서비스가 어린이집 충족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유재언(2014)의 연구에서도 도시규모가 클수록 어린이집 충족률이 높았으며, 유치원과 문화기반시설이 어린이집 충족률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 보육수요 대비 공급을 고려할 때, 유치원과 문화기반시설의 공급 정도를 함께 고려하여 영유아 가정 입장에서 다양한 선택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주림·구자훈(2013)의 연구에서 영유아 밀도를 고려하여 균형지역으로 선정된 2곳을 사례지역에 포함하였다. 연구 결과, 지역규모가 큰 대도시에는 사립유치원이 많았고, 지역규모가 작은 읍면지역에는 공립 유치원 위주의 공급 양상을 보였다. 기관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공급자 주도적 양상이 나타나 입소를 위한 대기과 경쟁이 많고 교육·보육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영유아 인구수를

단기와 중장기로 예측하여 기관 수급과 관련한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최은영·이진화·김승진(2015: 19)은 전국에서 유치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이며,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시, 제주도 순이라고 하였다. 설립유형별로 봤을 때 세종시의 국·공립유치원의 비율이 90.0%로 가장 높았고, 제주는 80.7%로 그 다음으로 높았다. 반면 부산은 19.2%로 국·공립유치원의 비율이 낮은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종합 육아지원서비스 공급의 차이

선행연구들은 육아지원서비스기관 공급률⁹⁾(유해미·양미선·송신영, 2012)의 지역 간 형평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유해미 외(2012: 145)는 육아지원서비스 제공 기관 현황에 있어 16개 시도별 인프라 수준뿐만 아니라 각 지역 내 인프라 수준의 격차도 크므로 이를 고려한 인프라 확충 계획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규모를 살펴본 유해미 외(2015: 62)는 2015년 8월 기준 시·군·구 센터가 67개소로 증가했으나, 영유아를 둔 부모의 특성상 센터의 접근성이 중요함을 고려할 때 전국적으로 지리적 접근성이 매우 낮으므로 시·군·구에 1개소 이상 확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유해미·양미선·송신영(2012: 10-13)은 지역사회 육아지원서비스의 개념을 기존의 기관보육·교육 위주에서, 지역사회 내 자녀를 양육하는데 요구되는 다양한 서비스와 부모와 가정을 포괄하였다. 해당 연구는 접근성과 효율성이 개선된 전달체계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사례 조사를 통해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서비스의 공급 현황 및 전달체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경기도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운영모형(기본형, 확장형, 혼합형)을 설정하였으며, 담당 공무원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서비스의 접근성, 효율성, 서비스 연계 현황 및 서비스 연계 강화 필요기관을 파악하였다. 연구의 결과로는 지역사회 육아지원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규정 명시, 서비스 인프라 확충, 지역 내 거점 기구 설치, 지역사회 육아지역 서비스 전달체계 모형(대도시형, 중소도시형, 농촌형)을 제시하였다.

이소영·김은정·조성호·최인선(2015:239-240)은 각 시·군·구의 임신 및 출산 인프라(보건의료 인프라)와 양육지원 인프라(어린이집, 건강가정지원센터, 육아중

9) 육아지원서비스 기관을 보육정보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도서관(어린이, 장난감), 기타 유아교육진흥원, 영유아플라자, 과학교육관, 유아체험교육원, 어린이 문화회관 등으로 구분하여 영유아수 대비 기관 공급률을 살펴봄(유해미·양미선·송신영, 2012: 57)

합지원센터)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가 임신 및 출산 인프라에 비해 영아기 양육을 지원하는 인프라의 지역별 격차가 더욱 심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또한, 서울과 경기권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집중되어 있고, 시·군·구별 건강가족지원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불균형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양육지원 인프라의 양적·질적 격차와 접근성의 제고를 위해 지역 밀착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이윤진·조혜주(2014: 128)의 연구에서는 좋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건을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64.8%가 '자녀와 즐길 수 있는 육아지원 서비스 기관 설립'이라고 응답하였다. 이 때 지역 내 센터수가 많을수록 더 높은 응답을 보인 것은 육아지원 서비스 기관이 많이 설치되어 잠정적으로 이용 경험이 많은 응답자들이 육아지원 서비스 기관에 대한 요구도 많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었다.

2014년 기준 전국의 유아교육진흥원 현황을 살펴본 최은영·이진화·김승진(2015: 48-49)은 유아교육 진흥원이 세종시와 경북을 제외한 전국 15개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체험교육원은 총 14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경북(9개), 경남(2개), 부산, 경기, 충남에 각각 1개소씩 설치되어 있다고 보고하여 이용자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움이 지적되었다.

3) 돌봄 서비스 공급의 지역적 차이

여성가족부에서는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09년, 2012년, 2015년 3년을 주기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영범 외(2012: 4-6)에서는 18개 시·군·구에 한정하여 진행되었던 2009년 제1차 실태조사를 전국의 234개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하여 가족친화 인프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가족 구성원을 위한 돌봄시설, 여가시설, 가족친화시설 등의 공급 및 수요와 욕구를 파악하였다. 조사 결과 가족친화 인프라는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별, 시군구 내에서도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시설과 여가시설은 지역별로 설립 수가 시와 구 지역에 많았지만, 1인당 및 지역 인구 당 설립비율은 상대적으로 구 지역이 낮게 나타났다.

김은설·윤재석·윤지연(2015: 14-15, 236)은 농어촌 지역을 인구 수, 인구의 이동, 연령을 중심으로 '인구과소 낙후지역, 농업농촌 중심지역, 도시농촌 혼합지역' 3가지로 유형화 하여 각 유형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 실태, 부모의 교

육·보육서비스 이용실태, 육아가족 지원 센터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았다. 농어촌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과제는 '시간연장 보육 및 돌봄 확충, 공립유치원을 장애와 특수교육 거점 기관으로 역할 강화, 교사 처우 개선 및 부모교육 강화' 등이었으며, 각 유형별로 유치원·어린이집의 개선사항은 차이가 있었고 농어촌 전반적으로 육아가족 관련 센터의 접근성이 낮고 조손가정에 대한 개별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4) 문화인프라의 지역적 차이

문화인프라로 공원, 체육시설, 문화 공간 등에 대한 지역적 차이와 요구를 살펴본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윤진·조혜주(2014: 123-125, 128)의 연구에서 영유아 자녀를 둔 1,000명의 부모에게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좋은 환경인지 질문하였을 때 70%이상이 좋은 환경이라고 평가하였으나, 좋은 양육환경이 아니라고 응답한 경우의 51.8%는 공원, 체육시설, 문화 공간 등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응답했고, 특히 군지역에서 이러한 응답률이 높아 군지역에 거주하는 부모들의 문화인프라에 대한 요구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이윤진·이정원·구자연(2013: 34, 37-38)에서 지역별 문화인프라 현황을 살펴본 결과, 공공도서관은 경기도(169개), 서울(109개), 경상북도(60개) 순으로 많은 반면, 울산은 11개로 편차가 크다고 보고하였다. 등록 박물관도 경기도(119개), 서울(106개), 강원도(69개) 순으로 가장 많았으며, 광주(8개), 울산(9개)로 가장 적었다. 등록 미술관 역시 서울(33개), 경기도(31개)로 주로 서울과 경기지역에 편중되어 있었다. 어린이 도서관은 경기도가 26개로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서울(15개), 인천(11개)에 많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어린이 놀이터도 경기도가 2,744개소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윤진 외, 2013: 45-46, 52-53).

그런데 문화인프라가 많은 서울 내에서도 지역에 따른 편차가 있음을 보고하는 연구도 있다. 백대흠·김세용(2008: 233-234)은 서울시 문화도시를 진단하기 위하여 문화시설, 문화프로그램, 문화정책으로 지표를 구성하였고, 3가지 유형으로 서울지역을 진단 및 향후발전 전략을 제시하였다. 제1유형은 종로구 등으로 서울시 평균보다 더 우수한 지역이었다. 제2유형은 강남구 등으로 문화시설, 프로그램, 정책 세 부분에서 평균보다 낮고, 앞으로 문화 관련 예산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밝혔다. 그리고 제3유형은 중구 등으로 서울지역 평균보다 매우

취약하여 장기적 발전을 위해 정책, 시설, 예산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최현묵(2014: 134-137)은 2013년 한국도서관 연합의 통계자료를 기초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형평성을 분석하였는데, 인적요인인 도서관 수 및 직원 수 등에 있어서 정책적 측면은 거의 형평성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인당 좌석 수, 1인당 도서관 면적, 1석당 인구 등 시설적 측면은 상당히 비형평 상태로 나타났다. 특히 1석당 인구는 지역별로 가장 심한 지역적 비형평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공공도서관 공급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지역 간 균형안배를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구자들은 분석결과를 기초로, 인적, 물적, 예산 요인에 있어서 상위 세 개 지역을 도출하고, 서비스 형평성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고명철(2013: 252-253)은 공공서비스를 개인적 소비성이 강한 서비스(여가 서비스, 도서관 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와 집단적 소비성이 강한 공공서비스(소방 및 응급서비스, 경찰서비스, 하수도서비스, 쓰레기 수거, 도로관리)로 유형화하고 미국 사우스 다코다주 수폴스시 시민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집단적 소비성이 강한 공공서비스 중 경찰서비스를 제외한 소방서비스, 하수도 서비스, 쓰레기 수거, 도로관리 등 대부분의 서비스가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나타난 반면, 도서관서비스, 여가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의 만족도는 시민들의 긍정적 삶의 질 인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보건 의료서비스 및 안전관리 보호의 지역적 차이

도시의 건강성과 안전성에 관련된 건강도시 인지도 및 중요도를 조사한 안창희·김운영·김수영(2012: 186)의 연구에서는 보건의료서비스관련지표, 환경관련지표, 사회·경제관련지표의 순으로 건강도시지표의 중요도를 보여주고 있어,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중요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김세원·김선숙(2012: 143)은 지역에 따른 아동 건강의 차이 및 아동 건강에 미치는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한국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 중 18세 이하의 아동과 가구 총 6,923명의 자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단위를 '시·군·구'로 구분하였으며, 분석에 포함된 응답자가 거주하는 '시·군·구'는 총 174개였다. 분석결과 지역 간 아동 건강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

는데, 특히 연령표준화 사망률이 높을수록 아동의 전반적인 건강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 내 수급아동 수는 고른 영향섭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전문 의료인의 수 또는 의료기관수를 모두 통제 한 후에도 아동 건강에 여전히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사망률이 높은 지역의 특성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한편 최천근(2011: 361, 367)은 지역 간 형평성 있는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본적으로 경찰의 인적자원이 형평성 있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치안비용과 치안수요를 경찰인력배분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전국 240개 경찰서를 분석단위로 선정하여 치안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 인적자원 배분 모형을 제시하였다.

라. 후속출산계획과 육아지원환경과의 관계

육아지원환경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어머니의 후속출산계획과 양육효능감과의 관련성에 대해 검토하여 왔다. 먼저, 어머니의 후속출산계획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어머니의 취업 여부(송영주·이주옥·김춘경, 2011),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이진화·민정원, 2015; 임효진·박휴용·장경은·이지은, 2015; 임현주·이대균, 2013), 부부특성 및 친지의 사회적 지원(이진화·김경은·임원신, 2015; 임현주·이대균, 2013)의 관련성을 연구하였다.

이들 연구는 대부분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분석한 연구로, 임효진 외(2015: 311-312)는 소득수준이 양육스트레스와 후속출산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히며, 오히려 양육스트레스가 소득을 통제하고도 후속출산의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의도도 낮았다고 밝혔다. 이진화·민정원(2015: 92)은 어머니의 후속출산계획과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및 가정환경자극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는데,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변인은 어머니의 자아 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이었다. 연구 결과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에 따라 후속출산계획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영유아를 위해 가정에서 제공하는 가정환경 자극 수준은 후속출산계획과 연관이 없다고 나타났다.

다른 변인으로 부부관계를 포함한 사회적 지원과 후속출산계획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이진화·김경은·임원신(2015: 13)은 한자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부부관계가 한 자녀 가정의 후속출산계획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한자녀 가정의 후속출산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부부관계를 매개로 하였을 때 후속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임현주·이대균(2013: 135-136)도 후속출산 계획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부부특성을 꼽았으며, 친지를 비롯한 주변의 사회적 지원이 취업모에는 긍정적 영향, 전업모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쳐, 모의 취업 상태에 따라 효과가 다름을 밝혔다. 박찬화(2012: 106-108)는 취업모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는데, 자녀에 대한 가치관과 자녀 양육 스트레스가 취업모의 후속 출산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직장의 양육지원, 사회적 지원, 결혼 만족, 그리고 직무만족이 후속출산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을 요약하면 어머니의 취업유무, 부부특성, 직장의 양육지원, 어머니의 정서적 특성 및 양육스트레스와 더불어 사회적 지원이 후속출산계획(의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김혜금(2012: 19-20)은 취업모와 비취업모 간 육아지원 및 사회적 지원에 대한 인식차를 비교하였는데, 연구결과에서 취업모와 비취업모 모두 50% 이상이 보육시설이 충분하고, 45% 이상이 유치원 및 사설교육기관이 충분하다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공공 여가 공간/시설 이용하는 데 편리함에 대해서는 비취업모(45%)보다 취업모(52%)가 더 편리하다고 인식하였으며, 문화시설 이용의 경우 비취업모(80%)가 취업모(73%)보다 더 불편하다고 인식하였다. 둘째, 사회적 지원에 대해 취업모가 비취업모보다 전반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었는데, 특히 취업모들은 외로울 때 타인에게 솔직히 털어놓는 것,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걱정을 해주는 것, 집안 길흉사에 서로 방문하는 것, 필요한 물품을 빌려주는 것, 일손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는 것, 같이 여가나 휴가를 즐기는 것 등의 사회적 지원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회적 지원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도 높은 관련성을 보이는 변인이다. 권정윤·정미라·박수경·이방실(2013: 194)은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사회적 관계변인으로 사회적지지, 또는 결혼 만족도와 양육효능감의 관계를 밝혔는데,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와 심리적 복지감이 양육효능감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더불어 송미혜·송연숙·김영주(2007: 178)와 박희진·문혁준(2013: 92)의 연구에서도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류기자·김영주·송연숙(2009)의 연구 결과도 사회적 지지,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다고

밝히고 있어, 선행연구들이 사회적 지원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사회적 관계망이 넓지 않은 비취업모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육아관련 사회적 지원책을 강구하고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김혜금, 2012: 21).

한윤옥(2012: 90)은 우리나라의 양육지원정책을 여성경제활동지원(일·가정양립을 위한 맞춤지원), 경제적 지원(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 시설, 서비스 지원(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환경적 지원(양육친화 환경 조성)으로 분류하여 정책의 양육지원 정보에 대한 인식과 출산의지와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네 가지의 정책이 출산의지에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 다만 각 항목별로 출산의지와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맞춤형)돌봄지원 중 '24시간 연장형 보육시설 확대'가 출산율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지원과 시설,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양육친화환경 중 가족친화정책모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과 가족친화 문화사업 확산은 긍정적 영향을 주지만 출산양육친화 가족지역 선정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적 출산 장려 정책 보다는 전반적인 가족친화 문화 확산이 출산율 제고에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한윤옥, 2012: 125-129).

후속출산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한 변인들 외에도 육아지원환경과 관련된 연구들도 진행되었다. 출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맹현옥·전정수(2015: 75-76)은 보육환경에 주목하여, 20~40대 기혼여성 1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200만 원 이상인 이들이 200만원 미만인 이들에 비해 출산결정의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육환경이 출산결정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영양·건강·안전이 확보될수록, 물리적 환경이 좋을수록, 학습환경이 우수할수록, 교사 대 아동비율이 높을수록, 교사의 상호작용이 원만할수록, 교육내용이 좋을수록 출산결정을 할 여지가 높았다. 출산결정을 높일 수 있는 보육환경 변수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평가한 결과, 특히 출산결정에 있어 보육시설의 실내 및 실외 환경인 물리적 환경이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변수로 나타났다.

한편 생태학적 관점에서 출산의도와 계획에 대해 살펴본 연구들도 수행되었다. 배광일(2011: 39-47, 86-88)은 출산의도와 출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하였으며, 전남지역에 거주하는 기혼남녀 528명을 대상으로

로 생태학적 관점에 의해 '개인유기체 변인, 미시체계 변인(가정환경), 외체계 변인(보육환경), 거시체계 변인(정책 및 가치관)'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고 살펴 보았다. 출산의도와 출산행동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녀수였다. 연구대상자들은 자녀수가 적을수록, 보육비 부담이 적을수록, 가족의 생활수준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아내연령이 적을수록, 향후 자녀출산에 있어 정책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인지할 경우, 주변에 믿고 맡길만한 보육기관이 있을수록 출산의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자녀수에 따라 집단을 구분해 살펴본 결과 아내연령, 출산지원정책의 수혜경험, 원가족형제수는 자녀수에 상관없이 출산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장소 유무는 자녀수 2명 이상 집단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희연(2015: 79-80, 95)도 생태학적 요인이 기혼여성의 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미시체계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자녀수와 배우자의 양육 참여 시간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자녀수는 자녀의 수가 한 단위 증가할수록 출산을 계획할 가능성이 72.7% 감소하였고, 배우자의 양육 참여 시간은 1시간 증가할수록 출산을 계획할 가능성이 14.1%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보육서비스의 제공이 후속자녀를 출산하는 의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어, 보육서비스의 내실화를 통해 실제 출산을 위한 의사결정에 보육서비스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주로 미시체계로서 가정 및 어머니의 특성, 외체계로서 보육 서비스, 거시체계로서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있으나, 지역사회에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육아지원환경에 대해서는 영향력을 파악하고 있지 못해, 김혜금(2012: 18-21)의 연구에서 살펴보고 있는 육아지원환경 등이 후속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봄이 필요하다.

2. 육아지원환경 관련 정책 및 현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에 따라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 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 검색일 2016년 5월 3일). 다시 말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임신부·태아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등 모자보건의 증진과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동법 제9조). 이에 따라 임신·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한 ‘유엔 아동권리헌장’에서는 아동들이 겪는 위기에 주목하여 학대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놀 권리, 표현의 자유와 참여권, 창의적 활동 등에 대한 보장을 담고 있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검색일 2016년 5월 11일). 이를 반영하여 2015년에 수립된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에는 문화인프라 확충,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발달 공간 및 주기별 건강 보장, 안전한 삶을 위한 생활안전·사회안전·안전관리 부문의 정책이 포괄된다(관계부처 합동, 2015). 이처럼 정부는 부모의 양육지원을 위한 서비스 인프라의 공급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아동친화적 분위기를 확산하고 아동의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다(대한민국정부, 2016: 77).

정부 주요 계획 및 관련 법률 등을 토대로 육아지원환경 관련 정책을 1) 영유아 교육·보육, 2) 종합육아지원서비스, 3) (맞춤형)돌봄지원, 4) 문화인프라, 5) 보건·의료서비스, 6) 안전관리·보호 영역으로 구분하여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영유아 교육·보육 영역

영유아 교육·보육 영역은 지난 10여 년간 저출산 대응을 위해 가장 주력해온 분야이며, 비용지원 확대와 더불어 인프라 공급 확대를 통한 서비스 접근성 제고는 주된 성과로 평가된다(유해미·강은진·조아라, 2015: 173). 그러나 전반적인 서비스 인프라 공급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공보육 인프라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진단된다(보건복지부, 2013: 37). 그러므로 서비스 형평성 측면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급 전반과 더불어 공보육·교육인프라 즉 국공립유치원과 국공립 어린이집의 공급 수준이 별도로 다루어진다.

1) 유치원/국공립유치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법」 제3조에 따라, 보호자와 더불어 유아

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을 진다. 이를 위한 유치원은 설립 주체에 따라 국립, 공립, 사립유치원으로 구분된다(유아교육법 제7조)(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 검색일 2016년 5월 3일). 국립유치원은 국가, 공립유치원은 지방자치단체, 사립유치원은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각각 설립·경영한다.

공립유치원의 공급은 유아교육의 동등한 기회 보장 측면에서 강조되어왔다. 2009년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계획'에서 공립유치원의 확충이 명시된 바 있으며(교육과학기술부, 2009), 2013년에는 유치원 수용계획을 통한 보다 체계적인 공급 방안이 제시된다. 즉 취학 권역별로 3개 학년도 이상의 시·도별 유아수용 계획을 수립하고,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구가 유입될 경우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경우 정원의 4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유아를 수용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 설립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명시된다(교육과학기술부, 2013: 10). 또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국공립유치원 이용원아수를 2014년 기준 148,269명에서 2020년까지 199,360명으로 늘린다고 밝히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6: 82).

2) 어린이집/국공립어린이집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보육, 즉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려는 목적을 지닌다(영유아보육법 제3조)(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 검색일 2016년 5월 3일).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어린이집은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 가정어린이집은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 부모협동어린이집은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며, 이외에 속하지 않는 민간어린이집으로 구분된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 검색일 2016년 5월 3일).

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된다(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 검색일 2016년 5월 3일).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

치하여야 한다.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서는 어린이집의 지역별 균형 배치를 통해 이용형평성을 제고하고자 2017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150개소씩 총 780개소까지 확충한다고 밝힌 바 있다(보건복지부, 2013: 38). 또한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 형성 차원에서 보육서비스 공공성 강화에 주목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을 명시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6a: 58).

나) 공공형어린이집 제도

정부는 2011년 7월부터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민간보육시설에 추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공공형어린이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한국보육진흥원 공공형어린이집 홈페이지 <https://www.kcpi.or.kr>, 검색일 2016년 5월 9일).

공공형어린이집은 2017년까지 총 2,300개소가 확충될 계획이며(대한민국정부 2016: 82; 여성가족부, 2016a: 45), 이를 위해 시설의 재무 건전성, 교직원 전문성 등 선정기준을 강화하고, 자율공부모임(전문강사 지원)이나 품질관리 컨설팅 등의 사후관리를 통해 질적 수준을 확보할 계획이다.

3) 시도별 유치원 및 어린이집 공급 현황

시·도별 유치원 수와 어린이집 수를 살펴보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유치원 2,188, 어린이집 12,689)였으며, 그 다음은 서울(유치원 888, 어린이집 6,598)이었다. 유치원은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인천, 부산 순으로 많았으며, 어린이집은 경상남도, 인천, 경상북도, 충청남도 순으로 많이 공급되어 있었다.

〈표 II-2-1〉 시도별 유치원 및 어린이집 수

시 도	유치원				어린이집							
	계	국립	공립	사립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계	8,930	3	4,675	4,252	42,517	2,629	1,414	834	14,626	22,074	155	785
서울	888	0	197	691	6,598	922	35	141	2,174	3,105	27	194
부산	403	0	80	323	1,971	161	84	38	824	820	12	32
대구	392	0	126	266	1,539	46	121	33	715	599	6	19

(표 II-2-1 계속)

시 도	유치원				어린이집							
	계	국립	공립	사립	계	국· 공립	사회 복지 법인	법안 단체 등	민간	가정	부모 협동	작상
인천	418	0	156	262	2,278	140	11	20	814	1,236	6	51
광주	315	0	126	189	1,264	32	108	24	422	646	10	22
대전	268	0	95	173	1,669	30	41	14	443	1,097	6	38
울산	194	0	78	116	934	33	13	5	476	377	5	25
세종	43	0	40	3	216	10	8	4	67	115	0	12
경기	2,188	0	1,117	1,071	12,689	595	68	139	4,005	7,646	66	170
강원	386	1	274	111	1,227	87	113	45	402	545	4	31
충북	343	1	250	92	1,230	58	107	34	445	551	7	28
충남	503	1	367	135	1,988	72	125	58	640	1,059	1	33
전북	530	0	361	169	1,623	55	144	96	502	807	0	19
전남	552	0	435	117	1,238	91	174	54	406	488	2	23
경북	711	0	463	248	2,130	134	84	39	891	944	0	38
경남	679	0	415	264	3,349	137	101	50	1,140	1,880	3	38
제주	117	0	95	22	574	26	77	40	260	159	0	12

자료: 1)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kess.kedi.re.kr>, 검색일 2016년 6월 15일).

2) 보건복지부(2016c). 2015 보육통계. p.6.

4) 시도별 특수학급 및 장애전문/통합 어린이집 공급 현황

시도별 유치원 내 특수학급 수와 장애 전문·통합 어린이집 수를 살펴보면, 특수학급은 경기도(특수학급 150),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은 경상남도(21),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은 서울특별시(320)가 가장 많았다.

〈표 II-2-2〉 시도별 유치원 내 특수학급 수 및 장애 전문·통합 어린이집 수

시도	유치원 내 특수학급 수	장애 전문 어린이집 수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수
계	167	175	899
서울	54	10	320
부산	20	16	34
대구	14	17	13
인천	32	6	60
광주	13	11	1
대전	36	5	14
울산	15	8	14
세종	14	0	6

(표 II-2-2 계속)

시도	유치원 내 특수학급 수	장애 전문 어린이집 수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수
경기	150	19	267
강원	19	4	17
충북	27	7	12
충남	29	10	33
전북	14	10	12
전남	25	13	13
경북	9	14	19
경남	30	21	29
제주	3	4	35

자료: 1)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kess.kedi.re.kr>, 검색일 2016년 6월 15일).
 2) 보건복지부(2016c). 2015 보육통계. pp.137-142.

5) 시도별 유치원교사 및 어린이집 교사 수/ 자격급별 교사수

유치원 전체 교사 수는 경기도(13,660명), 서울(7,023명), 경상남도(4,049명)의 순서로 많고, 정교사 1급과 2급 수의 시도별 순위는 유치원 전체 교사 수의 순서와 같다. 경기도의 어린이집 교사의 수도 87,475명으로 유치원과 같이 가장 많다.

〈표 II-2-3〉 시도별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교사 수

시도	유치원 교사 수	정교사 1급	정교사 2급	어린이집 교사 수	보육교사 1급	보육교사 2급
계	52,923	13,458	32,945	321,607	121,361	95,902
서울	7,023	1,236	4,716	54,432	20,878	16,006
부산	3,558	735	2,327	16,206	6,447	4,502
대구	3,064	855	1,821	13,439	5,517	3,916
인천	2,989	724	1,836	17,464	6,568	5,286
광주	1,924	329	1,302	10,363	4,209	3,246
대전	1,953	337	1,351	10,392	3,819	3,583
울산	1,284	232	877	7,367	2,668	2,241
세종	504	105	343	1,846	551	730
경기	13,660	3,043	9,091	87,475	32,411	26,265
강원	1,499	569	733	9,128	3,505	2,686
충북	1,553	628	756	10,361	3,876	3,169
충남	2,222	725	1,269	14,937	4,907	4,493
경기	2,255	729	1,289	12,331	5,089	3,455

(표 II-2-3 계속)

시도	유치원 교사 수	정교사		어린이집 교사 수	보육교사	
		1급	2급		1급	2급
전남	1,868	716	945	10,915	4,236	3,307
경북	3,004	1,142	1,536	15,704	6,291	4,618
경남	4,049	1,151	2,489	23,121	7,879	7,157
제주	514	202	264	5,586	2,510	1,242

주: 1) 유치원 교사 수=원장+원감+수석교사+정교사1급+정교사2급+준교사+보건교사+영양교사

2) 어린이집 교사 수=원장+보육교사+특수교사+영양사+치료사+간호사+사무원+조리원

3) 보육교사(담임교사, 대체교사, 방과후교사, 시간연장보육교사, 24시간보육교사, 시간제교사, 누리과정보조교사, 보조교사) 중 보육교사 1급, 2급 자격증 소지자

자료: 1)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kess.kedi.re.kr>, 검색일 2016년 10월 31일).

2) 보건복지부(2016c). 2015 보육통계. pp.200-205.

나. 종합육아지원서비스 영역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 이외에도 부모들의 육아관련 요구는 다양하며, 아동 발달은 환경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결과이므로 지역사회를 포괄한 접근이 요구된다. 즉 “지역 자원들(부모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 도서관, 지역 센터, 복지관 등)을 활용”하여 아동의 성장 및 발달 아동의 부모와 가족 전체를 지원하는 포괄적 육아지원서비스가 요구된다(유해미 외, 2012: 22). 영유아 교육·보육 이외의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육아지원의 주요 전달체계로는 영유아 가구 위주의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가족 전반을 포괄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들 수 있다. 그 밖에도 방과후 돌봄 지원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유아교육 기관 및 이용가구를 지원하는 유아교육진흥원이 설치·운영된다.

1)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역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어린이집 지원·관리 및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보건복지부, 2016a: 387). 즉 동 기관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하여 영유아에게 일시보육 또는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 검색일 2016년 5월 3일). 필요시에는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또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 및 보육 교직원의 정서적·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 등을 배치하도록 규정된다. 지원대상은 시·군·구 관할 지역 내의 부모, 영유아와 어린이집이며, 보육컨설팅, 교직원 상담 및 교육 등 어린이집 지원 기능과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일시보육서비스 제공 등 지역 내 One-stop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 2016a: 387).

2016년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총 90개가 설치되었으며, 중앙에 1개, 시도 에 18개, 시·군·구에 72개가 설치되어 있다.

〈표 II-2-4〉 시도별 육아종합지원센터 수

설치년도	센터수	설치지역		
		중앙(1)	시·도(18)	시·군·구
2016	90	-	-	문경시, 대구동구, 경기광주
2015	87	-	-	청주시, 합천군, 익산시, 남양주시, 오산시, 기장군, 연수구, 울산중구, 전주시, 용인시, 고창군
2014	76	-	세종시	과천시, 부산사상구, 김포시, 인천서구, 군산시, 부산진구
2013	69	-	-	구리시, 울산남구, 양주시, 인천계양구
2012	65	-	-	용산구, 파주시, 강북구
2011	62	-	-	광명시, 양천구, 서대문구, 강북구
2010	58	-	-	마포구, 중랑구, 구로구, 송파구, 은평구, 군포시, 창원시, 천안시
2009	50	-	-	인천남구, 화성시, 종로구, 성북구, 영등포구, 강서구, 광진구, 동대문구
2008	42	-	경기북구	포항시, 노원구, 서초구, 수원시
2007	37	-	-	평택시, 강동구, 금천구, 의정부시
2006	33	-	-	부평구, 시흥시, 이천시, 강남구, 도봉구, 동작구
2005	27	-	전남, 경북	성동구, 진주시
2004	23	-	전북, 경남, 제주	-
2003	20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고양시
2002	15	-	-	강릉시
2001	14	-	-	의왕시
2000	13	-	서울	-

(표 II-24 계속)

설치년도	센터수	설치지역		
		중앙(1)	시·도(18)	시·군·구
1999	12	-	-	관악구, 부천시
1998	10	-	인천, 광주, 대전	-
1997	7	-	대구, 울산	안양시
1996	4	-	-	-
1995	4	중앙	부산	-
1994	2	-	-	안산시
1993	1	-	-	성남시

자료: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central.childcare.go.kr>, 검색일 2016년 6월 13일).

2)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주민 특성에 따른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가족 안정성을 강화하고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한다. 동 기관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설치·운영된다(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 검색일 2016년 5월 3일). 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 센터의 조직·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검색일 2016년 5월 3일).

지원대상은 해당 서비스를 신청한 대한민국 국민이며, 가족상담서비스,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이나 아버지 교육 등 건강한 가정을 위한 가족교육, 가족이 함께 가족문화프로그램이 제공된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검색일 2016년 5월 3일).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총 151개가 개설되어 있으며, 센터 내에서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이 시·군·구 단위에서 214개가 있고, 가족역량강화사업은 시도 47개소에서 실시하고 있다.

〈표 II-2-5〉 시도별 건강가정지원센터 수

년도	센터수	아이돌봄지원사업 및 가족역량강화사업 실시
2016	151	-아이돌봄지원사업 시·군·구 214개 -가족역량강화사업 16개 시도 47개소
2015	151	-아이돌봄지원사업 230개 시·군·구 214개 -가족역량강화사업 16개 시도 30개소
2014	151	-아이돌봄지원사업 232개 시·군·구 213개 -가족역량강화사업 16개 시도 30개소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운영지원 사업 16개 시도 17개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기타공공기관 지정
2013	151	-아이돌봄지원사업 230개 시·군·구 213개 -가족역량강화사업 16개 시도 30개소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운영지원 사업 16개 시도 17개소
2012	148	-가족역량강화사업으로 통합 16개 시도 31개소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운영지원 사업 16개 시도 17개소
2011	138	-조손가족통합지원서 운영기관: 4개소
2010	137	-건강가정지원센터 다기능화 센터 설치: 독립형-11개소, 다기능화센터-23개소 -취약가족역량강화서비스지원사업 운영기관: 17개소 -가족보듬사업 운영기관: 11개소 -여성가족부로 주무부처 변경
2009	97	-건강가정지원센터 2가지 유형: A형-건강가정지원센터, B형-건강가정지원센터+한부모가족희망센터 통합 -아이돌보미지원사업 운영기관: 232개 시·군·구로 확대
2008	81	-건강가정지원센터 3가지 유형: A형-건강가정지원센터, B형-건강가정지원센터+한부모가족희망센터 통합 C형: 한부모가족희망센터 -보건복지부가족부로 주무부처 변경 -건강가정지원센터 통합 CI 제정
2007	65	-아이돌보미지원사업 위탁약정 체결 -장애아가정양육지원사업 관리사업 위탁약정 체결 -한부모가족희망센터 5개소 설치
2006	46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확대 이전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결혼이민자지원센터 관리기관사업 수탁
2005	15	-건강가정기본법 시행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개소 -여성가족부 출범
2004	3	-건강가정지원센터 3개소(용산, 여수, 김해) 시범사업 운영

자료: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familynet.or.kr/index.jsp>, 검색일 2016년 6월 13일).

3)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다(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 검색일 2016년 5월 3일).

지원대상은 맞벌이 가정 아동 등 지역사회의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의 학령기 아동'으로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이다(보건복지부, 2016: 19). 구체적으로 교육 급여 대상 가정의 아동, 3명 이상의 다자녀 가정의 아동, 맞벌이 가정의 아동,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과 조손 가정의 아동, 다문화 가정 아동, 장애 아동 또는 장애 가정의 아동 등에 지원된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검색일 2016년 5월 3일).

지원내용은 아동 보호(안전, 급식 등), 교육(일상생활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정서 지원(상담·가족지원)등이며, 지역사회 연계 등이 수행된다(보건복지부, 2016: 35).

지역아동센터는 경기도가 742개소로 가장 많고, 서울특별시가 426개소, 전라남도가 395개소, 광주광역시가 303개소 순으로 많았다. 세종시와 울산광역시는 설치 개수가 가장 적다.

〈표 II-2-6〉 시도별 지역아동센터 수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수	426	207	202	185	303	148	57	13	742	169	193	235	288	395	259	264	71

자료: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홈페이지(<https://www.icareinfo.info>, 검색일 2016년 4월 13일).

4) 유아교육진흥원

유아교육진흥원은 「유아교육법」 제6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치원교원 연수 및 평가, 유아 체험교육 등을 담당하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교육관련 연구기관 등에서 위탁 운영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 검색일 2016년 5월 3일).

동 기관의 설립 목적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서울시 유아교육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seoul-i.go.kr>, 검색일 2016년 5월 3일). 첫째, 공교육체제 확립

과 유치원 교육과정 정상 운영 기반 조성에 기여한다. 둘째, 유아발달 단계에 적합한 프로그램 제공 및 교수·학습 방법 일반화를 이룬다. 셋째, 유아교육 연구 및 정보 제공, 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 개발, 유치원 교육 연수, 평가 등으로 유아교육을 진흥한다. 넷째, 저출산 등 사회문제 해소를 위한 방과후 과정 활성화 및 문화 격차를 최소화한다. 다섯째, 유아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하여 유아체험교육을 제공한다(서울시 유아교육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seoul-i.go.kr>, 검색일 2016년 5월 3일).

〈표 II-2-7〉 시도별 유아교육진흥원 및 체험교육원 수

단위: 개원, 명, %

시도	유아 교육 진흥원	체험 교육원 수 (체험교육센터)	진흥원 이용아 수	체험원 (체험교육센터) 이용아 수	취원아 수	유아 이용률
서울	1	-	42,290	-	91,195	50.8
부산	1	1	2,401	18,410	43,909	96.7
대구	1	-	16,165	-	34,544	46.8
인천	1	-	-	-	40,369	-
광주	1	-	18,946	-	22,288	85.0
대전	1	-	17,043	-	25,024	68.1
울산	1	-	22,213	-	18,336	121.1
세종	-	-	-	-	1,699	-
경기	-	1	-	36,018	181,812	19.8
강원	1	-	9,916	-	15,947	62.2
충북	1	-	10,483	-	17,489	59.9
충남	1	-	21,453	10,348	26,096	121.9
전북	1	-	25,461	-	23,296	109.3
전남	1	-	5,459	-	18,951	28.8
경북	-	9	-	37,234	37,274	99.9
경남	-	2	7,592	18,542	49,011	53.3
제주	1	-	4,190	-	5,296	79.1
합계	13	13	229,224	120,552	652,536	39.9

자료: 최은영·이진화·김승진(2015). 2015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p.48 <표 II-6-1> 유아 교육진흥원·체험교육원(체험센터) 수 및 이용률: 2014를 수정·보완함.

지원대상은 유아교육진흥원 설치 지역의 만 3-5세 유아이며, 지원내용은 교원의 정보화 능력 함양을 위한 특수 분야 직무연수 등 교원 연수와 학부모 연수, 교육현장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멀티미디어 제작지원실 운영과 교재·교구 대여 프로그램 운영 실시, 다양한 교재·교구 개발·보급 등이다.

그 밖에도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유아교육 정보 제공 및 상담, 유아교육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가족지원프로그램과 학부모교육원을 운영한다(서울시 유아교육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seoul-i.go.kr>, 검색일 2016년 5월 3일).

유아교육진흥원은 세종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총 13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체험교육원은 부산시와 경기도에 각각 1개소, 경상북도에 9개소, 경상남도에 2개소가 설치되어 있었다.

다. (맞춤형)돌봄지원 영역

(맞춤형)돌봄지원은 2013년 전(全)계층으로 보육·양육지원이 확대되어 0~5세의 모든 영유아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 시나 기관 미이용 시에 가정양육 수당을 선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으나, 이외 다양한 가정양육 지원이 미흡함 등 아동·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들어 보다 강조된다(보건복지부, 2013: 31; 대한민국정부, 2016: 80-81). 특히 여성경제활동참가율과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로 맞벌이 가구의 생활패턴과 가족 특성을 고려한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여성가족부, 2016a: 35), 다양한 기관보육 지원과 가정 내 보육지원 사업 등이 추진되어왔다.

1) (맞춤형)돌봄지원 서비스

부모의 보육 수요에 따라 다양한 보육서비스가 어린이집을 통해 제공된다.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등 주요 계획들에서 장시간 근로 맞벌이 가구, 2~3교대 및 야간근무 가구 등의 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시간연장형보육 확대, 시간제 보육반 확대 등이 제시된다(여성가족부, 2016a: 59; 대한민국정부, 2016: 80-81).

가) 시간제보육

시간제보육은 가정 양육 시에도 필요한 경우 필요한 시간제로 이용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부모 선택권을 제고하기 위함이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검색일 2016년 5월 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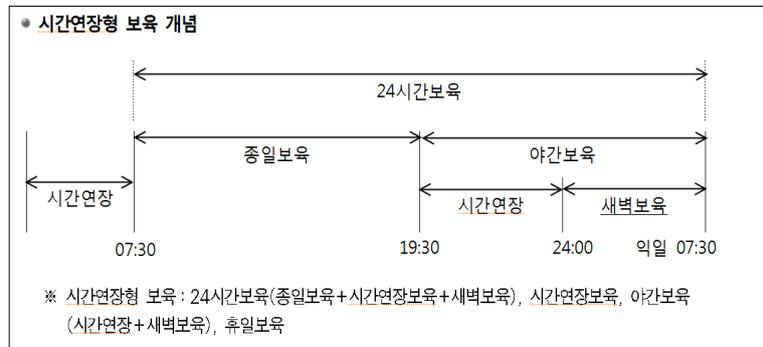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따른 무상보육 및 「유아교육법」 제24조에 따른 무상교육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일시보육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 검색일 2016년 5월 3일). 이에 따라 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그 밖에 일 시보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시설을 지정하여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은 가정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아동으로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의 영 아이며, 기본형(월 40시간)은 시간제보육료 이용단가 4,000원 중 2,000원을, 맞벌 이형(월 80시간)은 시간제보육료 이용단가 4,000원 중 3,000원을 지원한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검색일 2016년 5월 3일).

나) 시간연장형보육

시간연장형보육에는 시간연장, 야간, 24시간, 휴일보육이 포함된다. 시간연장 보육은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규 보육시간을 경과하여 최대 24시까지 연장하는 보육서비스이다(보건복지부, 2016a: 323). 야간보육은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은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며, 오후 7시 반에서 익일 오전 7시 반까지 보육한다. “24 시간보육은 부모의 야간 경제활동,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 게 주간보육(07:30~19:30)과 야간보육(19:30~익일 07:30)을 모두 이용하는 보육” 형태이다(보건복지부, 2016a: 327). 휴일보육은 공휴일에 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방식이며, 휴일보육 정원을 원래의 시설정원과 별도로 책정하여 휴일 기간의 부 모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을 지닌다(보건복지부, 2016a: 331).



자료: 보건복지부(2016a). 2016 보육사업안내. p.323.

[그림 11-2-1] 시간연장형보육 개념

이들 서비스는 국공립 및 정부지원 비영리법인시설인 경우는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보건복지부, 2016a: 323),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군·

구청장은 국공립시설의 운영자를 신규로 선정하거나 재위탁 계약 시에는 시간연장 보육 실시를 전제로 하고, 기 수탁자에 대한 재위탁 심사 시에도 시간연장 보육을 실시한 운영자에게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6a: 323).

전국 어린이집에서 시간연장형보육과 휴일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각각 1,061개소, 229소이며, 기관유형으로 살펴보면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이 가장 많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았으며, 경상남도, 서울시, 경상북도에서 많은 어린이집들이 시간연장보육과 휴일보육을 제공하고 있다.

〈표 II-2-8〉 시도별 시간연장형 및 휴일 보육 기관 수

시도	총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계	시간연장	휴일				시간연장	휴일	시간연장	휴일		시간연장	휴일
계	1,290	1,061	229	6	4	1	274	59	754	166	2	20	4
서울	147	124	23	1	0	0	24	5	98	18	0	1	0
부산	12	11	1	0	0	0	5	1	6	0	0	0	0
대구	58	48	10	0	0	0	18	3	30	7	0	0	0
인천	39	36	3	0	0	0	13	1	22	1	0	1	1
광주	34	29	5	0	0	0	11	3	16	2	0	2	0
대전	52	40	12	0	0	0	6	0	31	12	1	2	0
울산	5	5	0	0	0	0	2	0	3	0	0	0	0
세종	3	2	1	0	0	0	1	0	0	1	0	1	0
경기	434	362	72	2	0	0	72	15	279	54	1	8	3
강원	35	20	15	0	1	0	8	4	10	11	0	1	0
충북	15	9	6	0	0	0	3	1	5	5	0	1	0
충남	44	33	11	0	0	0	7	4	25	7	0	1	0
전북	64	47	17	0	1	0	9	3	36	14	0	1	0
전남	13	12	1	1	1	0	6	1	4	0	0	0	0
경북	136	113	23	2	0	0	50	8	61	15	0	0	0
경남	189	166	23	0	1	0	37	6	127	17	0	1	0
제주	10	4	6	0	0	1	2	4	1	2	0	0	0

주: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부모협동은 휴일보육 기관이 없음.
 자료: 보건복지부(2016c). 2015 보육통계. pp.118-120.

다) (유치원)온종일 돌봄교실

온종일 돌봄교실은 2012년 주 5일 수업제 전면 자율 도입에 따라 토요 돌봄 수요를 흡수하고,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의 부모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돌봄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1년에 도입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12. 2. 1: 1). 부모의 출퇴근 시간

등을 고려하여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에서는 이른 아침(6시 30분)부터 저녁 늦은 시간(10시)까지 아이들을 돌봐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공모로 선정된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에 대해서는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운영시간 및 돌봄학생 수에 따른 차등지원이 이루어진다. 이용비용은 저소득층 학생은 무료이며, 맞벌이 가정 학생 등은 별도 프로그램 운영비, 급간식비 등을 부담한다.

도입 당시 정부는 온종일 돌봄교실의 확대 운영을 통해 “저소득층 및 맞벌이 자녀의 보호·교육을 위한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함은 물론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여 고학력 경력 단절 여성 등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12. 2. 1: 2).

2) 산모·신생아 서비스

산모·신생아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도우미를 파견하여 건강관리 및 가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검색일 2016년 5월 3일).

지원대상은 중위소득의 80% 이하의 산모로서, 출산(예정)일 40일 전 또는 출산 30일 후 이내의 자이다.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있는 보건소에 신청하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일정 기간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권이 지급된다. 지원기간은 단태아 산모가 10일, 쌍생아 산모가 15일, 3태아 이상 산모와 중증장애 산모 20일이며, 산모 영양관리,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신생아 돌보기, 신생아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안내, 감염·예방관리 등이 이루어진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검색일 2016년 5월 3일).

〈표 11-2-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지원 금액 및 기간

구분	기준 가격	책정금액 상한선	소득구간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유형	정부 지원금	지원 기간
단태아	660,000	800,000	40% 이하	A-가	594,000	12일
			40% 초과 ~ 50% 이하	A-나	561,000	
			50% 초과 ~ 65% 이하	A-다	528,000	
			65% 초과(예외지원)	A-라	462,000	

(표 II-2-9 계속)

구분	기준 가격	책정금액 상한선	소득구간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유형	정부 지원금	지원 기간
쌍생아	1,214,000	1,500,000	40% 이하	B-가	1,098,000	18일
			40% 초과 ~ 50% 이하	B-나	1,035,000	
			50% 초과 ~ 65% 이하	B-다	972,000	
			65% 초과(예외지원)	B-라	855,000	
삼태아 이상 또는 중증장애 산모	1,798,000	2,200,000	40% 이하	C-가	1,620,000	24일
			40% 초과 ~ 50% 이하	C-나	1,530,000	
			50% 초과 ~ 65% 이하	C-다	1,440,000	
			65% 초과(예외지원)	C-라	1,260,000	

주: 본인부담금은 책정가와 정부 지원금의 차액임.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5. 6. 2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도 국민행복카드에 통합. p.5.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의하면, 서비스 지원기간 확대, 지역별 양성교육 수료자 풀 구축, 서비스 연계체계 구축, 제공인력 확보 및 질 제고 등을 통한 서비스 내실화가 추진된다(대한민국정부, 2016: 6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지원 금액 및 기간을 살펴보면 위와 같다.

전국에 있는 산모·신생아 도우미는 총 10,562명으로, 경기지역에 가장 많은 인력이 있었다.

〈표 II-2-10〉 산모·신생아 도우미 인력 수

총합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0,562	1,679	537	425	614	243	274	231	60	2,749	294	330	507	447	540	773	675	184

자료: 보건복지부(2016d). 내부자료. 산모신생아도우미 인력 수(2015년 2월-12월 기준).

3)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는 시설보다 가정 내 1:1 개별 양육을 희망하는 취업부모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제공된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검색일 2016년 5월 3일). 「아이돌봄지원법」 제2조에 의하면, "아이돌보미"는 동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지정된 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 검색일 2016년 5월 3일).

지원대상은 아동 연령 기준으로 시간제는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이고, 영아종일제는 생후 3개월부터 24개월 이하이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검색일 2016년 5월 3일). 아동 연령, 부모의 취업 등 양육공백, 중복금지 기준의 조건 충족 시 정부지원이 가능하며 가구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진다. 정부지원이 가능한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는 취업한 부모, 맞벌이 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이다. 시간제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영아종일제는 모든 소득계층(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에게 각각 지원된다.

지원내용은 시간제 돌봄은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 등(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시,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이고, 영아종일제 돌봄은 기저귀 갈기, 목욕,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등이다.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의하면, 영아종일제 지원연령을 만2세(36개월)까지 확대하고, 2020년까지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를 6만명으로 확대하며, “아이돌봄서비스 모니터링을 통한 서비스 품질관리 및 아이돌보미 활동 역량 강화 등”이 추진된다(여성가족부, 2016a: 59-60).

4)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은 기존 보육·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와 긴급돌봄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사회 기반 돌봄 네트워크 형성의 필요성에 따라 제기되었다(여성가족부, 2016a: 56). 즉 공동육아나눔터는 이웃 간 자녀 돌봄 품앗이 구성·확산 지원을 통해 핵가족화로 인한 육아부담 경감 및 지역 중심의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이양육 관련 정보 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 검색일 2016년 5월 3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육아나눔터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취학 전·후 아동 및 부모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자녀 돌봄활동 장소와 자녀양육 경험 및 정보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며, 장난감 및 도

서 이용과 대여와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을 연계한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검색일 2016년 5월 3일).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는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확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경우 인센티브 제공, 공동육아(육아품앗이) 지역네트워크 구성 지원, 돌봄지도 작성 및 배포 등을 명시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6a: 62). 특히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확대를 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유휴공간을 활용하고 아파트 건설 시 주민공동시설로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건설업체와 협력을 추진하며, 민간기업 등과 협력하여 노후한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는 2015년 기준 22.3만 명에서 2020년 25.8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대한민국정부, 2016: 85).

현재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은 총 52개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9개 기관으로 가장 많으며, 강원도 8개 기관, 인천시 7개 기관, 경기도 6개 기관, 충청남도과 경상남도가 각각 5개 기관으로 많다. 강원도에는 공동육아나눔터가 주로 군관사 지역에 설치되어 있다.

〈표 II-2-11〉 시도별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시도	공동육아나눔터사업	정부지원 사업 수행기관	정부지원 외 수행기관	군관사 지역
서울	9	관악구, 동작구, 강남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노원구, 서초구, 도봉구, 영등포구		
부산	4	부산시, 사하구, 연제구	동래구	
대구	3	수성구, 남구, 달성군		
인천	7	부평구, 계양구, 남동구, 서구, 중구	동구	용진군
광주	2	광산구	광주남구	
대전	2	대전시, 서구		
울산	1	울산시		
세종	1	세종시		
경기	6	고양시, 시흥시, 여주군, 용인시	양주시	연천군
강원	8	동해시, 삼척시		철원군, 화천군, 고성군, 인제군, 양구군, 양양군
충북	3	청주시, 제천시, 충주시		
충남	5	천안시, 당진시, 금산군, 보령시, 아산시		

(표 II-2-11 계속)

시도	공동육아나눔터사업	정부지원 사업 수행기관	정부지원 외 수행기관	군관사 지역
전북	2	익산시, 전주시		
전남	3	목포시, 광양시, 화순군		
경북	4	구미시, 경산시, 김천시		울릉군
경남	5	통영시, 산청군, 하동군	남해군, 양산시	
제주	1	제주시		
계	52	52	6	9

자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hf.or.kr/lay1/S1T103C207/contents.do>, 검색일 2016년 6월 13일).

5) 워킹맘·워킹대디 센터

워킹맘·워킹대디 센터는 “직장 내 고충 및 가정 생활정보 등 맞벌이 가정에 서 느끼는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해소와 가정에서의 부모 역할 강화 및 역할 갈등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여성가족부, 2016b: 48).

〈표 II-2-12〉 시도별 워킹맘·워킹대디 센터

시도	센터수	시, 군, 구
서울	7	관악구, 구로구, 도봉구, 서대문구, 서초구, 영등포구, 종로구
부산	3	동래구, 사상구, 연제구
대구	5	남구, 달성군, 북구, 서구, 수성구
인천	7	강화군, 계양구, 남동구, 동구, 서구, 연수구, 중구
광주	4	광산구, 남구, 북구, 서구
대전	2	대전광역시, 서구
울산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세종	1	세종특별자치시
경기	8	가평군, 광주시, 성남시, 시흥시, 여주시, 용인시, 파주시, 평택시
강원	5	삼척시, 속초시, 영월군, 원주시, 춘천시
충북	2	제천시, 진천군
충남	8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당진시, 서천군, 아산시, 태안군, 홍성군
전북	3	남원시, 완주군, 정읍시
전남	9	광양시, 나주시, 보성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9	경산시,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영주시, 울릉군, 의성군, 청도군, 칠곡군
경남	7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원시마산, 통영시, 하동군, 함양군
제주	82	-

자료: 여성가족부(2016c). 내부자료. 워킹맘·워킹대디 서비스 시도별 제공기관 현황(2016년 4월 25일 기준).

지원대상은 일하는 부모 및 그 가족이며, “생애주기별 가족관계 향상 서비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교육·상담·문화 등 다양한 서비스와의 연계, 임신·출산·육아 등에 따른 직장 내 노무관련 문제해결 지원,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지역문화 조성 추진, 가족문제 해소 및 정보교류를 위한 자조모임 형성 및 홍보, 지역공동체 형성 및 참여 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여성가족부, 2016b: 214).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는 맞벌이 가구를 위한 (맞춤형)돌봄지원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워킹맘·워킹대디 (맞춤형)돌봄지원 서비스 강화가 제시되고, 서비스 제공기관을 2015년 6개소에서 2020년까지 226개소로 확대하기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간 통합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확장한다고 명시된다(여성가족부, 2016a: 38). 그 밖에도 공인노무사회와 협력하여 직장 고충 및 일·가정 양립제도 활용관련 상담서비스 제공, 기업과 근로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일·가정 균형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등이 제시된다.

현재 워킹맘·워킹대디 센터는 전국에 82개소이며, 전라남도와 경상북도에 각각 9개소로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으며, 경기도(8개), 서울(7개), 인천(7개) 순이다.

라. 문화인프라 영역

놀이·여가는 건강, 교육 등과 더불어 아동발달의 필수요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동들은 놀이 시간 및 공간이 매우 부족하다고 진단되며, 이에 따라 아동들이 건강하게 놀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강조된다(대한민국정부, 2016: 75-78).

1) 어린이놀이시설(놀이터)/공원/어린이 공원

어린이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원 중에서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공원으로 일반적으로 주택단지 내 놀이터를 말한다(이윤진·이정원·구자연, 2013: 51). 또한 어린이놀이터는 「주택법」 제2조에 의거한 주택단지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시설로서 명시된다(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 검색일 2016년 6월 10일).

가) 어린이놀이시설/놀이터

「아동권리헌장」에 의하면,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누리며 다양한 놀이와 오락, 문화, 예술 활동에 자유롭고 즐겁게 참여할 권리’를 지닌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이지 <http://www.mohw.go.kr>, 검색일 2016년 5월 11일). 이에 따라 최근 아동의 놀 권리 현장을 제정하고 범부처에서 놀이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건강하게 놀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한 각 부처별 역할은 다음과 같다. 즉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 아동에게 공평한 놀이기회 제공, 문화관광체육부는 '다양한 놀이 여가시설 및 프로그램 제공', 교육부는 '놀이시간 확보', 여성가족부는 '가족이 함께 놀이를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이다(관계부처 합동, 2016: 76).

또한 주요 과제로서 문화체육시설 및 프로그램 확충도 제시된다. 이에 따라 2014년 기준 전국 놀이터 62,417개소를 아동친화적 형태로 개선하는 계획이 마련되었다(대한민국정부, 2016: 76).

〈표 II-2-13〉 어린이 놀이시설/놀이터 및 공원/어린이공원 면적

단위: 개/㎡

시도	어린이 놀이시설/놀이터			공원/어린이공원 면적	
	총시설수	지자체	교육청	공원 면적	어린이공원 면적
서울	9,287	8,075	1,212	28,464,213	872,703
부산	3,654	2,986	668	20,334,403	346,157
대구	3,124	2,575	549	9,189,866	398,004
인천	3,508	2,894	614	7,851,756	413,278
광주	2,324	1,874	450	4,223,485	300,230
대전	1,994	1,599	395	11,540,545	377,573
울산	1,647	1,354	293	9,384,869	429,841
세종	475	391	84	76,162	12,248
경기	17,442	14,199	3,243	34,389,246	1,904,314
강원	2,615	1,848	767	8,970,752	531,773
충북	2,511	1,910	601	8,170,397	276,053
충남	3,224	2,316	908	7,907,240	537,314
전북	2,949	2,030	919	22,551,973	368,254
전남	2,873	1,927	946	7,020,962	312,201
경북	3,858	2,731	1,127	11,026,096	549,809
경남	4,657	3,629	1,028	19,308,787	568,360
제주	909	673	236	4,173,452	114,155

자료: 1) 국민안전처(2016). 내부자료. 전국 놀이시설 현황(2016년 5월 30일 기준).

2) 산림청(2014). 전국 도시림 현황통계(2014년 12월 기준). pp.80-81.

나) 공원/어린이공원

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

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 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조성된다(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검색일 2016년 5월 3일).

어린이 공원은 동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된다(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 검색일 2016년 5월 3일).

다) 어린이 놀이시설/어린이공원 공급 현황

어린이 놀이시설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과 교육청에서 담당하는 기관의 두 유형이 있는데, <표 II-2-13>을 보면 경기도가 17,442개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서울시가 9,287개로 그 다음 순이었다.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시로 475개였다.

전국의 공원과 어린이 공원의 면적을 살펴본 결과, 공원의 면적과 어린이 공원 면적이 가장 넓은 곳은 경기도였다. 공원의 면적은 서울시와 전라북도, 경상남도, 대전광역시, 경상북도 순으로 넓었으며, 어린이 공원의 면적은 서울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인천광역시 순으로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어린이도서관/장난감도서관

어린이도서관은 「도서관법」 제2조에 따라 어린이를 대상으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한다. 즉 도서관은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육성되며, 사회 전반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 해소 등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도서관법 제1조)(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 검색일 2016년 5월 3일). 동 기관은 공공도서관 중에서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 전용도서관을 말한다(이윤진·이정원·구자연, 2013: 43). 여기에는 국공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 기적의 도서관 등이 포함된다.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과 유네스코(UNESCO)에서는 서비스 지침을 통해, “공공도서관은 다양한 자료와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독서의 즐거움과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고 상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이윤진·이정원·구자연, 2013: 42). IFCA는 특히 농어촌 지역과 도서관이 없는 지역의 어린이에게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고 지적한다.

장난감도서관은 영유아들의 장난감 구입에 대한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영유아의 연령과 발달 수준, 특성에 적합한 장난감, 도서를 대여하여 취학전(0-5세) 영유아들의 전인적 발달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central.childcare.go.kr/cccf/main.jsp>, 검색일 2016년 5월 10일). 지원대상은 해당 지역의 취학전 영유아이며,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가정양육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보건복지부, 2016a: 393).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작은 도서관, 장난감도서관, 어린이 자료실 등 아동전용도서관을 확충”한다고 제시되며(대한민국정부, 2016: 76-77),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아동전용 공공도서관 지자체 1개소 이상 권고한다고 밝히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5: 41).

3) 박물관(어린이박물관)/미술관

박물관과 미술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조에 따라,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 향유(文化享有)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육성된다(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 검색일 2016년 5월 3일). ‘박물관’이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考古)·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또한 ‘미술관’이란 문화·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조각·공예·건축·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동법 제2조).

어린이박물관은 박물관의 교육적 역할과 함께 어린이와 가족 관람객에게 체험적 전시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능이 강조된다(이윤진·이정원·구자연, 2013: 48). 즉 일반적인 박물관의 유물 전시가 전통문화를 알리는 것이라면, 어린이박물관은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즐기는 어린이를 기르는 데 목적을 둔다(이윤진·이정원·구자연, 2013: 48). 박물관에서 어린이 대상 교육프로그램이 시작된 것은 1987년 국립중앙박물관의 어린이박물관 교실 개설에서 비롯되었다.

전국 어린이 문화시설을 보면 어린이 도서관은 경기도가 65개로 가장 많으며, 서울시에는 64개 설치되어 있다. 인천(24개), 대전(23개), 대구(14개), 부산(7개)의 순서로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다.

어린이 박물관, 미술관 및 관련기관은 서울(7개), 경기도(4개)에 설치되어 있고, 각 시와 도에 1~2개 정도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대전광역시와 세종시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표 II-2-14〉 시도별 어린이 문화시설

시도	어린이 도서관 ¹⁾	장난감도서관 ²⁾	공공 도서관 ³⁾	어린이박물관, 미술관 및 관련기관 ⁴⁾	미술관 ⁵⁾	박물관 ⁶⁾
서울	64	37	132	7	38	122
부산	7	3	32	1	5	16
대구	14	1	30	1	4	13
인천	24	8	42	2	4	25
광주	8	1	20	2	7	10
대전	23	1	23	-	5	15
울산	2	4	17	1	-	9
세종	0	0	3	-	-	5
경기	65	35	217	4	44	143
강원	7	1	50	1	10	91
충북	5	1	41	1	8	44
충남	7	1	57	2	8	44
전북	2	0	55	1	11	40
전남	3	1	63	2	22	46
경북	3	2	64	1	9	64
경남	7	4	63	2	8	60
제주	3	1	21	1	19	62

자료: 1) 문화체육관광부(2016).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http://www.libsta.go.kr>, 검색일 5월 30일).

2)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16). 내부자료. 장난감도서관 사업운영 안내(2015년 4월 기준).

4) 국립민속박물관(2015). 내부자료. 한국 어린이박물관, 미술관 및 기관 현황(2015년 10월 15일 기준).

3), 5), 6) 문화체육관광부(2015). 2015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2015년 1월 1일 기준). p.9

4) 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은 사회적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여 모든 연령과 계층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사업을 갖추고, 특히 저소득층 및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한국사회복지관협회 홈페이지 <http://kaswc.or.kr>, 검색일 2016년 5월 3일).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5에 의거하여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 주민의 복지 욕구를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등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

시할 수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 검색일 2016년 5월 3일). 동 기관은 모든 지역주민을 서비스 대상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장애인,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아동 및 청소년 등에 우선 제공한다. 또한 현재 분절되고 파편화된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제한 점을 극복하고 좀 더 통합적인 서비스 전달을 위해 지역사회 내 민·관을 아우르는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연결시킴으로써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강조된다. 또한 가족 기능 강화, 지역사회 보호, 교육 문화, 자활지원 등의 전문서비스를 제공한다(한국사회복지관협회 홈페이지 <http://kaswc.or.kr>, 검색일 2016년 5월 3일). 사회복지관은 전국 459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서울(98)과 경기도(76)이다.

〈표 II-2-15〉 시도별 사회복지관 현황

시도	사회복지관	입대지역	일반지역
서울	98	30	68
부산	53	18	35
대구	26	13	13
인천	20	6	14
광주	18	10	9
대전	21	8	13
울산	8	2	6
경기	76	23	50
강원	18	7	11
충북	13	4	9
충남	21	6	15
전북	17	9	8
전남	15	6	9
경북	16	11	5
경남	30	7	23
제주	9	2	7
계	459	162	295

자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홈페이지(<http://kaswc.or.kr/centerlist> 검색일 2016년 6월 13일).

마. 보건·의료서비스 영역

2015년에 수립된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아동의 건강한 삶을 위해 건강한 발달 환경을 제공하고 건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신체활동 증진 등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한다고 명시된다(관계부처 합동, 2015: 54). 이를 위해 “발달주기별 건강 취약 분야에 대한 예방투자를 확대하고, 아동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활동 공간(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건강을 통합관리하는 체계”(관계부처 합동, 2015: 54)가 마련된다. 또한 “평생건강을 결정짓는 식습관 형성기임을 고려하여 아동기 영양 부족 및 과잉에 대응하는 건강한 식습관 형성 전략”이 수립된다(관계부처 합동, 2015: 54).

1) 보건소/어린이 전문병원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은 「지역보건법」 제1조에 의거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 검색일 2016년 5월 3일). 동법 제11조에 의하면, 보건소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의 업무와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 건강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둘째,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셋째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 넷째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다섯째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 검색일 2016년 5월 3일). 전국 시도별 보건소와 병원수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2-16〉 시도별 보건소/병원

시도	상급 종합 병원	종합 병원	병원	요양 병원	의원	치과 병원	치과 의원	조산 원	보건 의료 원	보건 소	보건 지소	보건 진료 소	한방 병원	한 의 원	약 국
서울	14	42	219	104	7,859	67	4,702	5	0	25	4	0	9	3,539	4,925
부산	4	24	131	193	2,204	20	1,212	3	0	16	11	5	9	1,098	1,495
대구	4	8	114	61	1,635	17	834	2	0	8	9	8	2	845	1,190
인천	3	16	57	64	1,444	5	838	2	0	10	27	27	17	613	1,022
광주	2	20	77	51	891	12	575	0	0	5	1	10	82	308	646
대전	1	9	37	53	1,031	5	511	1	0	5	7	8	5	502	697
울산	1	6	41	41	582	3	366	0	0	5	8	11	3	290	398
세종	0	0	1	7	107	0	54	0	0	1	11	7	0	42	84
경기	5	53	286	278	6,210	34	3,738	10	1	45	125	161	38	2,792	4,496
강원	1	14	48	31	727	3	367	1	2	16	98	129	2	345	634

(표 II-2-16 계속)

시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조산원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한방병원	한의원	약국
충북	1	11	39	42	827	2	384	1	0	14	94	158	4	386	636
충남	2	11	53	75	1,029	10	503	0	2	14	151	233	4	493	862
전북	2	11	80	82	1,104	3	537	0	4	10	149	242	25	492	886
전남	1	22	83	69	907	6	436	3	3	19	213	327	20	352	789
경북	0	19	83	112	1,238	11	625	0	2	23	224	311	6	612	1,054
경남	2	23	145	112	1,533	18	822	1	1	20	173	221	5	774	1,194
제주	0	6	8	8	366	0	183	1	0	6	10	47	0	166	253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16a). 시·군·구별 중별 요양기관 현황(2016년 1월 기준).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검색일 2016년 5월 27일).

보건소 근무 의사 수는 전체 3,420명 중, 전남지역 535명, 경북지역 460명, 경기지역 369명, 경남지역 366명으로 대도시 지역보다 도 단위 지역에 밀집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2-17〉 시도별 보건소 의사 수

총합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420	230	66	41	111	27	16	29	18	369	248	204	325	327	535	460	366	48

주: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의사 수, 해당기관에서 상근인력(주 5일 40시간 이상 근무)으로 신고한 인원 수.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6). 내부자료. 보건소 근무 의사 수(2016년 4월 기준).

2) 어린이 전문병원(달빛어린이병원)

어린이 전문병원(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과 전문의가 평일 23-24시, 휴일 최소 18시까지 진료함으로써 소아환자가 야간과 휴일에도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5. 8. 11: 1). 소아과 전문의 3인 이상을 보유한 의원, 병원, 종합병원 중에서 동 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연간 평균 1.8억 원(월 평균 1,500만원, 국가와 지자체 50:50)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2014년 9월에 9개 기관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16개 병원을 지정·운영하였다. 2015년에는 소아환자의 수요에 부응하여 30개소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을 발표한바 있으나(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5. 8. 11: 2) 2016년 3월 현재 11개 병원이 정상 운영 중이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6. 3. 30: 6).

전국에서 어린이 전문병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부산, 대구, 경기도, 전북, 경북, 경남, 제주로 총 11개 기관이 설치되어 있다.

〈표 II-2-18〉 시도별 어린이 전문병원 수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도	강원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수	-	3	1	-	-	-	-	-	2	-	-	-	1	-	1	2	1

자료: 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http://www.e-gen.or.kr/moonlight/main.do>, 검색일 2016년 6월 14일).

3)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은 2008년부터 영유아 연령에 맞는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영유아의 성장 및 발달 사항을 추적 관리하고 보호자를 위한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되었다(보건복지부, 1201: 9). 「건강검진기본법」 제1조에 의거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규정되며(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 검색일 2016년 5월 3일), 이로써 “출생 후 만 6세까지 성장·발달의 시계열적인 추적이 가능하도록 설정”하고자 한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1. 2. 11: 9).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에서는 2015년 기준 63.7%인 영유아 건강검진율을 제고하고, 영유아 장애예방 등 조기발달 검사를 수행한다고 밝히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5: 61).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기관은 총 4,158개 기관이며, 수검률은 69.8%이다.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기관과 대상인원이 가장 많이 분포된 지역은 경기도이며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인원 대비 수검 인원은 69.5%이다.

〈표 II-2-19〉 시도별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시도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기관 ¹⁾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인원 ²⁾ A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 인원 ²⁾ B	수검률 [B/A*100]
서울	864	596,061	416,318	69.8
부산	262	181,465	134,174	73.9
대구	194	137,957	91,210	66.1
인천	266	180,640	130,458	72.2
광주	101	94,381	62,614	66.3
대전	143	99,903	71,561	71.6
울산	71	79,690	58,691	73.6
세종	22	7,449	5,146	69.1
경기	1,083	839,250	583,578	69.5

(표 II-2-19 계속)

시도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기관 ¹⁾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인원 ²⁾ A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 인원 ²⁾ B	수검률 [B/A*100]
강원	98	82,363	59,102	71.8
충북	110	98,324	67,516	68.7
충남	127	135,359	89,513	66.1
전북	109	106,129	70,854	66.8
전남	117	108,465	74,026	68.2
경북	174	157,153	109,565	69.7
경남	231	218,791	154,089	70.4
제주	40	38,888	27,889	71.7
계	4,012	3,162,268	2,206,304	69.8

자료: 1)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인 홈페이지(<http://hi.nhis.or.kr>, 검색일 2016년 7월 22일)

2) 국민건강보험공단(2015). 건강검진통계(2014년 12월 기준).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검색일 2016년 5월 27일).

4) 영유아 예방접종 지원사업

영유아 예방접종 비용지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에 의거하여 양육자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예방접종률 향상을 통해 감염병을 퇴치하고자 2009년 3월부터 실시되었다(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 검색일 2016년 5월 9일).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은 필수 예방접종을 더 편리하게 받도록 보건소와 더불어 시장·군수·구청장이 예방접종 서비스를 위탁한 지정 의료기관에서도 이루어진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검색일 2016년 5월 3일).

지원대상은 만 12세 이하 아동이며, 보건소와 전국 7천여 곳의 지정 의료기관에서 받은 국가예방접종 비용이 전액 지원되고,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무료접종이 가능하다. 2016년 지원 백신은 BCG(피내용),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IPV(폴리오),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수두, 일본뇌염(생백신, 사백신), Td(파상풍/디프테리아),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PCV(폐렴구균), A형간염, HPV(자궁경부암)이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은 예방접종 기록 전산화를 통해 효율적 보관·관리, 예방접종 증명서 무료 인터넷발급 서비스(민원24 홈페이지), 예방접종 확인 및 다음 접종 알림 서비스(문자 수신 동의자), 예방접종 안전관리 업무 등을 추진한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아동종합실태조사(보건복지부, 2015a)

에 따르면 9,678,277의 응답자 중 필수항목의 예방접종을 모두 받은 경우가 94.4% 이나, 소득수준별 빈곤가구, 기초수급 가구와 차상위 가구, 가족유형별 한부모·조손 가구에서 필수항목 중 접종받지 못한 비율과 모른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11-2-20〉 영유아 예방접종 지원사업

가구특 성별(1)	가구특성별 (2)	응답자수 (명)	필수항목 중 하지 못 한 것이 있다(%)	필수항목을 모두 다 했다(%)	모름(%)
전체	소계	9,678,277	3.7	94.4	2.0
성별	남자	5,049,157	3.3	94.8	2.0
	여자	4,629,120	4.1	93.9	2.0
연령별	0-2세	1,407,369	3.9	95.2	1.0
	3-5세	1,407,945	3.0	95.8	1.2
	6-8세	1,357,821	1.9	97.2	1.0
	9-11세	1,546,503	3.3	95.6	1.2
	12-17세	3,958,639	4.6	92.1	3.3
소득수 준별1	빈곤	376,738	9.6	84.1	6.4
	일반	9,301,539	3.4	94.8	1.8
소득수 준별2	기초수급	247,664	10.2	82.6	7.2
	차상위	129,073	8.3	86.9	4.8
	일반	9,301,539	3.4	94.8	1.8
지역별	대도시	4,218,761	3.4	95.0	1.6
	중소도시	4,869,141	3.9	94.1	2.0
	농어촌	590,375	4.0	92.1	4.0
가족유 형별	양부모	8,565,684	3.2	95.3	1.5
	한부모·조손	1,012,991	7.5	87.1	5.4

자료: 보건복지부(2015a). 아동종합실태조사. 예방접종(2013년 기준).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검색일 2016년 6월 15일).

바. 영유아 안전관리·보호 영역

아동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아동기 안전 위해요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발달주기별 안전 취약분야에 대한 예방투자 확대, 가정·학교에서의 생활안전, 성범죄·아동학대로부터의 사회안전 확보”(관계부처 합동, 2015: 69)가 강조된다.

1) 보행환경 조성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정부는 보행자가 안전하

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 검색일 2016년 5월 9일). 동법 제16조에 따라, 특별시장등은 보행자길 중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행자길을 보행자전용길로 지정할 수 있다. 시도별 도로면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2-21〉 시도별 도로 면적

시도	도로(m ²)	보행자전용도로(m ²)	보행자우선도로(m ²)	자전거전용도로(m ²)
서울	86,714,706	70,615	21,488	0
부산	56,361,984	163,867	5,146	0
대구	57,778,672	307,920	0	0
인천	65,906,006	371,773	0	6,144
광주	37,383,150	168,725	0	0
대전	36,184,921	457,349	0	493,437
울산	47,661,914	160,710	0	12,710
세종	46,615,074	18,085,560	0	0
경기	288,421,313	4,257,043	0	920,604
강원	104,563,134	138,177	0	0
충북	90,044,034	397,789	0	48,486
충남	111,678,863	475,187	4,292	168,194
전북	109,852,457	375,476	0	1,434
전남	149,241,725	1,027,731	849	233,331
경북	182,955,932	283,791	0	7,985
경남	190,459,528	589,922	0	1,707
제주	35,703,146	44,549	0	0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2015). 도시계획현황(2014년 기준).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검색일 2016년 4월 11일).

국민안전처에서는 보행환경이 낙후되어 보행자가 다니기 열악한 지역을 선정해 예산을 보행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시도별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을 통해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67개 지역 중 경남(12) 전북(11)이 가장 많았다.

〈표 II-2-22〉 시도별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현황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수	67	5	2	4	0	2	9	1	0	1	4	3	2	11	7	4	12	0

자료: 국민안전처(2015). 2015 국민안전처 통계연보(2014년 12월 31일 기준). p.44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조에 의하면,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기본 사항이 규정된다. 또한 어린이놀이시설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 검색일 2016년 5월 3일).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안전점검, 보험가입 등 제도적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및 허술한 관리감독 체계로 인해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위험성은 더욱 심화”(국민권익위원회, 2015: 1)된다고 지적하고, “모든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검사, 안전점검 및 안전성 유지 등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책을 발표한 바 있다(국민권익위원회, 2015: 1).

국민안전처에서 관리하는 어린이 놀이시설은 각 시설에 분포되어 있는데, 그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62,197개 놀이시설 중 주택단지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48.7%로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II-2-23〉 시설별 어린이놀이시설 현황

합계	주택단지	도시공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기타
62,197	30,267	8,368	8,288	7,203	6,198	1,873
100%	48.7%	13.5%	13.3%	11.6%	10.0%	3.0%

자료: 국민안전처(2015). 2015 국민안전처 통계연보(2014년 12월 31일 기준). p.4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율의 시·도별 현황을 보면, 전라남도의 검사율이 99.9%로 가장 높고, 상대적으로 광주광역시의 검사율은 다소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II-2-24〉 시·도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현황

시도	총 시설수(개소)	검사완료 시설수(개소)	검사율(%)
서울	8,828	8,008	90.7
부산	3,328	3,089	92.8
대구	2,802	2,697	96.3
인천	3,280	3,002	91.5
광주	2,215	1,936	87.4
대전	1,926	1,791	93.0

(표 II-2-24 계속)

시도	총 시설수(개소)	검사완료 시설수(개소)	검사율(%)
울산	1,514	1,426	94.2
세종	315	311	98.7
경기	16,584	15,743	94.9
강원	2,483	2,391	96.3
충북	2,359	2,306	97.8
충남	2,937	2,878	98.0
전북	2,788	2,547	91.4
전남	2,544	2,543	99.9
경북	3,424	3,388	98.9
경남	4,055	3,941	97.2
제주	815	804	98.7
계	62,197	58,801	94.5

자료: 국민안전처(2015). 2015 국민안전처 통계연보(2014년 12월 31일 기준). p.43

3) 안전(체험)교육

아동이 안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실제 위험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현장형 안전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대한민국정부, 2016: 76). 안전체험교육은 재난으로부터 체험을 통하여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교육, 즉, 지구 온난화 및 기상이변,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빈번한 재난 발생 대비와 체험식 안전교육 실시로 국민의 안전의식 고취 및 사태 대응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국민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ndti.go.kr>, 검색일 2016년 5월 9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9의2에 의하면, "안전문화활동"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으로 규정된다(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 검색일 2016년 5월 9일).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유아기부터 “종합적인 안전교육·훈련체제를 구축하여 안전습관·의식을 내면화”하기 위해, “누리과정(3~5세)의 신체운동·건강 영역 중 안전하게 생활하기를 활용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5: 72). 소방체험교육은 35개소, 교통체험교육이 64개소, 종합안전체험관은 10개소이며, 소방체험교육과 종합안전체험관은 서울시에, 교통체험교육관은 경기도에 주로 분포되어 있다.

〈표 II-2-25〉 시·도별 안전(체험)교육

시도	소방 체험 교육	종합안전체험관	교통 체험 교육
서울	19	3	5
부산	0	1	4
대구	0	1	1
인천	1	0	4
광주	1	0	1
대전	1	0	1
울산	3	0	1
세종	0	0	0
경기	4	0	14
강원	0	1	4
충북	0	2	4
충남	0	1	7
전북	0	1	5
전남	4	0	1
경북	0	0	3
경남	1	0	7
제주	1	0	2
계	35	10	64

주: 전국안전체험시설 안내와 전국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에서의 교육장 합이 교통체험교육에 정리 됨.

자료: 1) 국민안전처(2014). 전국안전체험시설 안내(2014년 12월 기준). pp.2-4.

2) 경찰청(2016). 내부자료. 전국 교통안전체험교육장 현황(2016년 4월 27일 기준).

4)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정부는 급식 위생관리 부실 및 아동학대 사건 발생으로 부모의 불안이 야기된다고 지적하고, 소규모 유치원의 경우도 어린이집 급식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적절한 영양 및 위생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3: 12).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의거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 검색일 2016년 5월 3일).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해당 기관으로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가 포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에 대하여 지도·점검 및 평가 등을 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의 어린이이다. 동 기관은 이들을 대상으로 단체급식소 위생관리 실태 파악 및 컨설팅으로 급식 컨설팅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점검을 실시하고, 1차 점검 후 2차 점검 시 개선 정도를 평가한다. 또한 원장 및 조리종사자 대상, 어린이 대상, 학부모를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식단 작성 및 보급에 더불어 표준 레시피 개발하여 보급한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총 193개소로 경기도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

〈표 II-2-26〉 시·도별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93	13	13	8	10	5	3	5	1	29	18	9	13	12	19	23	11	1

자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http://ccfsm.foodnara.go.kr>, 검색일 2016년 5월 2일)

5) 아동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아동쉼터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 강화 및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통해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 조성 및 권리 증진을 도모”해야 하며(보건복지부, 2016b: 173), 최근 아동학대 관련 확인 조사 등 발굴체계와 사후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아동쉼터 등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밝혔다(관계부처 합동, 2016: 23). 이를 배경으로 정부에서 아동학대 예방 조치를 강화함에 따라 2005년 지방이양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5년 국고지원으로 전환되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4년 기준 50개소에서 2015년 55개소로, 학대아동쉼터는 2014년 기준 36개소에서 2015년 기준 46개소로 확충되었다(관계부처 합동, 2016: 4).

가) 아동보호전문기관

국가는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둔다(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 검색일 2016년 5월 3일).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동법 제2항 단서에 따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신체적·정신적 상해, 성적 행위 및 방임을 포함하는 학대를 받고 있는 아동이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6조에 의거하여 구체적인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즉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아동 상담·조사를 위한 진술녹화실 설치·운영,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설치·운영 및 자체 사례회의 운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등이다(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 검색일 2016년 5월 3일).

나) 학대피해아동쉼터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경찰이 분리보호 조치한 학대피해아동에 한하여 입소하는 특수 공동생활가정이다(보건복지부, 2016b: 205). 동 기관은 「아동복지법」 제53조의2에 의거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 검색일 2016년 5월 9일).

지원대상은 학대피해아동으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신고접수 후 현장조사 등을 통해 학대피해로 격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아동이다. 동 기관은 이들 아동에 대해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을 제공하고 의복 등 생필품과 일상생활 훈련 및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심리검사, 개별심리치료, 집단심리치료, 건강검진 지원 및 병원 치료”가 제공되며, 학업지도, 안전교육, 문화체험, 체육활동의 교육 및 정서지원이 이루어진다(보건복지부, 2016b: 205).

〈표 II-2-27〉 시·도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시도	아동보호기관 ¹⁾	학대피해아동쉼터 ²⁾
서울	9	0
부산	3	4
대구	3	2
인천	3	1
광주	1	0
대전	1	2
울산	1	2
세종	0	0
경기	11	9
강원	4	4
충북	3	5
충남	3	2
전북	3	3
전남	3	5
경북	4	2
경남	5	2
제주	2	2

자료: 1)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a). 내부자료.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2016. 1. 12. 기준).
 2)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b). 내부자료. 전국 학대피해아동쉼터 현황(2016. 5. 2. 기준).

다) 파출소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법과 질서를 수호하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온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치안 업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기 위해 전국 특별시·광역시·도에 17개의 지방경찰청을 두고 있으며 지방경찰청장 소속하에 파출소 1,437개를 운영하고 있다.

〈표 II-2-28〉 시·도별 파출소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437	147	40	27	38	21	10	20	7	225	75	51	79	139	192	207	141	18

자료: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검색일 2016년 7월 19일).

Ⅲ. 육아지원환경 정책의 국내외 사례

이 장에서는 지역 차원에서 육아지원환경 조성을 위한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법률 및 전달체계 개편 등을 통한 기반을 조성하며, 세부 사업별 성과 목표를 명시하는 등 체계적으로 노력하는 국내외 사례들을 다루고 지역 맞춤형 육아지원환경 차원의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1. 국내 사례

국내 사례로는 최근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정착을 추구해 온 서울 성북구와 인천 서구, 전북 완주군 지역의 사례를 다루었다. 동 사업의 주요내용이 육아지원환경의 조성 및 직결된다는 점에서 추진 전략 및 체계와 각 지역별 특화 사업을 다루었다.

가. 서울 성북구

서울 성북구는 저출산 대응 차원에서 아동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체계의 마련에 주목하고, 이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추진되었으며, 여기에는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육아지원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들이 포함된다.

1) 지역적 배경

서울 성북구는 2011년 10월에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3년 계획을 수립한 이후, 아동친화도시 정착의 일환으로 모두가 신뢰하는 육아환경 조성 및 성북형 아동돌봄체계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당초 동 사업은 저출산 대응 차원에서 도입되었다. 즉 출산 및 양육 부담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저해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며, 출산율 감소에 따른 보육대상 인원이 점차 줄어들고 맞벌이, 한부모 가구의 증가로 아동 돌봄의 필요성이 증대한다는 점이 주요하였다¹⁰⁾. 이

10) 서울 성북구는 2016년 2월말 기준 18세 미만 아동수가 103,134명으로 전체 인구의 20.4%

에 덧붙여 지역내 아동·청소년 돌봄 인프라 기관들이 대부분 보편적 복지 차원의 일반 아동 보다는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를 우선으로 지원한다고 점과 2013년 기준으로 아동 10명당 7명이 방과후 사설학원에 다니는 점에도 주목하였다(서울 성북구, 2015b: 19). 그 밖에도 아동·청소년 돌봄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각각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으로 담당 부처가 따로 있어 돌봄서비스의 기능 중복 또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도 주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지역내 사회조사에서 어린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 대한 지역주민의 욕구가 높게 나타난 점도 반영되었다.

이처럼 성북구는 아동돌봄 체계를 구축하려는 과정에서 아동친화도시 사업으로 발전되었으며, 아동권리의 주요 영역별로 보육 및 아동 돌봄은 물론, 안전과 건강관리(무상급식), 놀이기반 조성 등을 포괄한 일관된 추진 및 성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다.

2) 추진 전략 및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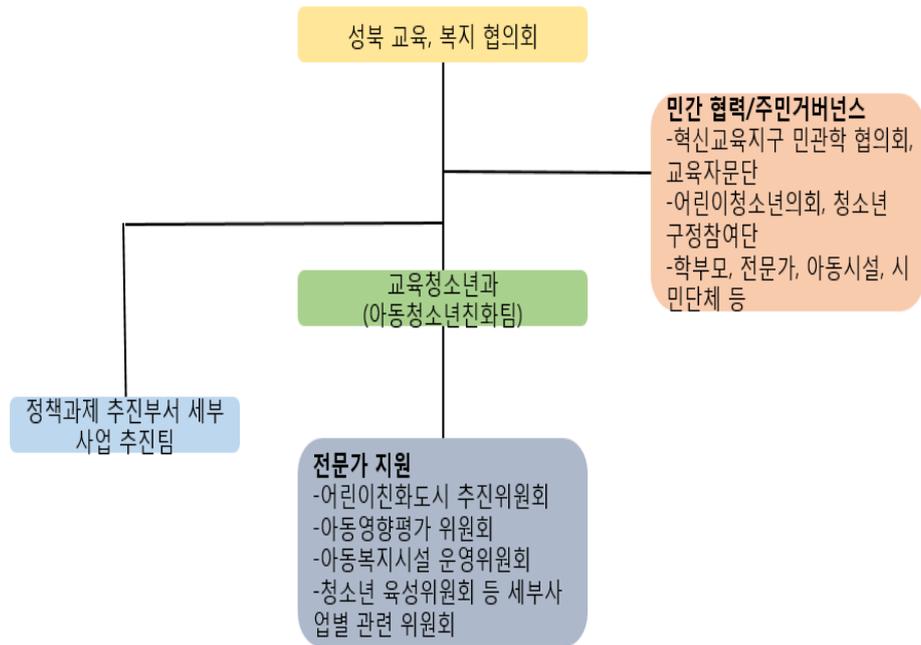
동 지역이 추구하는 아동친화도시 정착을 위한 정책 과제에는 지역 맞춤형 육아지원환경과 직결되는 “모두가 신뢰하는 육아환경 조성”, “성북형 아동돌봄 체계 확대”, “자연과 함께하는 안전한 어린이 세상” 등이 포함된다(서울 성북구 2015b: 14). 이들 영역의 세부 사업을 살펴보기에 앞서, 주요 경과 및 추진체계를 살펴보면 이하와 같다.

우선 2011년 10월에는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어린이 친화도시 추진 위한 전담조직인 “어린이친화 TF”를 신설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어린이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어린이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서울 성북구, 2015b: 7). 이 과정에서 2013년에는 아동돌봄서비스 허브 기관으로 방과후 돌봄 기능의 연계와 조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성북 아동청소년센터”를 개관하였다. 나아가 아동친화도시의 정착을 위해 아동권리 보장과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서울 성북구, 2015b: 9). 즉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민·관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며 아동권리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하고 정기적인 아동실태조사 및 보고도 진행한다. 이를 위한 행정전달체계와 관련 사업규모는 교육청소년과(19), 여성가족과(5), 공원녹지과

를 차지하며, 이들 중 영유아수(0~6세)는 38,838명으로 나타난다(서울 성북구, 2016b: 4). 서울성북구(2015b). 내부자료.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정착. p.16.

(3), 도시디자인(1), 교통행정과(2), 보건위생과(1)이며, 이외에도 복지정책과, 문화체육과, 주택관리과, 자치행정과, 성북구의회가 협력한다.

또한 성북교육복지협의회를 구성하고, 동 사업 총괄부서인 교육청소년과 아동청소년팀, 전문가가 지원하는 각종 위원회와 민간협력을 위한 주민 구성의 단체 등이 협력하는 체계를 이루고 있다(그림 III-1-1 참조).



자료: 서울 성북구(2015a). 내부자료. 2015아동친화·교육도시 정착. p.29.

[그림 III-1-1] 서울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정착을 위한 추진체계

3) 주요 사업내용

아동친화도시 정착을 위해 7개 정책과제의 30개 세부사업이 포함되는데, 이들 정책 과제 중 육아지원환경 관련 부문에 한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모두가 신뢰하는 육아환경 조성

주요 배경으로는 출산 및 양육 부담이 여성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상황에 대응하고, 다문화, 한부모 가족, 장애아동, 맞벌이 가구의 증가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확대 요구가 증가한 점이 지적된다(서울 성북구, 2015a: 14).

성과 지표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동별 1개소 이상 확충,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 어린이집 모니터링, 방문교육, 점검 등 확대, 어린이집 정보공시 100% 달성, 민간어린이집 대상 국공립 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 보육교사 처우 개선, 24시간어린이집 확대를 위해 미운영 동 우선 지정, 시간연장형어린이집 확대를 위해 신규 개원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지정을 설정하였다(서울 성북구, 2015a: 2-3). 또한 각 세부사업별 추진지표를 다음 <표 III-1-1>과 같이 마련해두고 있다.

<표 III-1-1> 서울 성북구 “모두가 신뢰하는 환경조성” 세부사업 및 추진 현황

세부사업	추진지표	2015	2016	2017
구립 어린이집 확충(동별 1개소 이상)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5	5	5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2	2	2
투명한 어린이집 관리체계 구축	어린이집 지도점검	150	150	150
	부모모니터링	244	244	244
	어린이집 부모참여단 참여	330	600	600
	찾아가는 어린이집 방문교육	20	20	20
	정보공시제	337	337	337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수준의 서비스 제공과 인프라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	기능보강비 지원	32	32	32
	대체교사 지원	97	97	97
	교구교재비 지원	100	100	100
	특별활동 강사 지원	5	10	20
	환경개선 용자금	20	60	60
24시간 어린이집 동별 운영 등 보육돌봄 관리 체계 구축	24시간어린이집 동별 지정	2	3	5
	시간연장어린이집 지정 확대	3	3	3
	시간제보육 지정	1	1	1

주: 각 세부사업별 년도별 현황 단위는 환경개선비 용자금 지원의 경우 백만원, 이외 경우는 개소임.

자료: 서울 성북구(2015a). 내부자료. 2015 아동친화·교육도시 정착. p.2

주요 성과로는 특히 민간공동연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종교단체와 무상임대 협약을 통해 2014년에 신규어린이집을 개원한 점을 들 수 있다(서울 성북구, 2015a: 14).

나) 성북형 아동돌봄체계 확대

주요 배경으로는 맞벌이 가구와 한부모가족의 증가로 방과후 돌봄 필요성이 증대하였으나, 관내 아동 청소년 시설 및 이용 현황을 성북구 아동인구에 비해 미흡하여, 각 시설로 분절적인 돌봄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아동이 중복되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점이 지적된다(서울 성북구, 2015a: 16). 즉 성북형 아동돌봄체계 구축은 관내 아동·청소년 시설 및 이용인원이 전체 성북 아동인구수(6-17세, 54,237명)에 비해 미흡하고, 각 시설별로 분절적 돌봄사업 추진으로 대상 아동이 중복되거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다(서울 성북구, 2015b: 19).

성과지표로는 성북구 방과후 서포터즈 운영, 도서관을 통한 틈새 돌봄,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통합서비스 제공을 설정하고, 각 세부사업별 추진지표를 다음 <표 III-1-2>와 같이 마련해두고 있다(서울 성북구, 2015a: 3).

<표 III-1-2> 서울 성북구 “성북형 아동돌봄체계” 세부사업 및 추진 현황

세부사업	추진지표	2015	2016	2017
민·관이 함께하는 돌봄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관내 아동·청소년 시설 간 네트워크 운영	1	1	1
	관내 아동·청소년 시설 협업체계 수립·운영	1	1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아동청소년> 분과 운영	1	1	1
우리마을 도서관과 함께하는 돌봄	작은도서관 공동돌봄체계 구성·운영	8	10	12
	새마을문고 공동돌봄체계 구성·운영	4	5	6
꿈의 출발을 함께하는 드림스타트 사업 확대	대상지역 확대	11개동	성북구 전체 동	성북구 전체 동

자료: 서울 성북구(2015a). 내부자료. 2015 아동친화·교육도시 정착. p.3.

이들 사업 중 특히 주목할 바는 일반 아동 대상 돌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국 최초로 구립 방과후 돌봄센터를 4개 권역별로 각각 1개소씩 설치·운영하고, 이에 민관의 연계, 협력을 통합 허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2013년 5월 성북 아동청소년센터를 설립·운영하며,¹¹⁾ 동 체계의 운영을 위해 동별로 아동복지플래너 1명을 배치하고 아동을 찾아다니면서 아동학대 방임 등 관련서비스를 연계한다는 점이다(서울 성북구, 2015a: 16). 그 밖에도 특정 지역(장위동)을 대

11) 서울성북구(2015a). 내부자료. 2015 아동친화·교육도시 정착. p.16.

상으로 이루어진 드림스타트 사업을 관내 모든 지역 및 모든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확대 추진하였다(서울 성북구, 2015b: 20). “우리마을 도서관과 함께 하는 틈새 돌봄”이라는 지역사회 돌봄 환경 구축 즉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등 정규 돌봄시설 외에 민과 관의 거버넌스 차원의 마을 단위 새로운 일시 돌봄 환경을 마련하였다(서울 성북구, 2015a: 17).

□ 구립 방과후 돌봄센터 설치·운영

동 사업은 구비 100%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13년부터 추진되었다. 사업 목적은 지역의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보호 및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이며,¹²⁾ 이하 사업을 추진한다.

- 아동보호사업: 지역사회 안에서 아동의 권리보장과 안전한 보호 여건 조성
- 교육적지원사업: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 일상생활지도,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 정서적지원사업: 아동의 심리·정서적 안정 및 건강한 신체발달기능 강화
- 지역사회 연계사업: 지역사회 자원 확보, 발굴 및 지원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안의 아동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사업 지역은 길음동, 삼선동, 석과동, 종암동 지역이며, 소요 예산은 2015년에 13,900천원으로 당초 예산액의 286%가 증가하였고, 사업 수혜자는 2012년 103명에서 2013년부터 152명으로 증가하였다(서울 성북구 2016a: 108-109).

□ 성북아동청소년센터 건립

동 센터의 건립은 관내 교회 등 유휴공간을 확보하고 기 무상임대 계약의 형태로 부지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며, 민관 협력을 통해 시설 설치비 예산 절감을 도모하였다(서울 성북구, 2015b: 20).

향후에는 성북구내 유치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초·중등학교, 아동청소년기관의 시설 및 위치 정보, 프로그램 정도 등을 담은 가칭 ‘성북구 아동청소년 통합정보 서비스’ 홈페이지 운영,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아동·청소년 분과 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다.

12) 서울성북구(2016a). 내부자료. 아동권리 접근방법 활용한 아동친화 예산서. pp.108-109.

다) 자연과 체험이 함께하는 안전한 어린이세상

주요 배경으로는 획일적인 도시 주거환경을 어린이들의 시각을 통해 바라보고, 표현하는 체험 위주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어린 아이에게 자연과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다(서울 성북구, 2015a: 21).

성과지표로는 문화 및 여가생활의 만족도 제고, 어린이 통학로 개선 등을 통해 아동의 교통안전 확보로 설정하고, 각 세부사업별 추진지표를 다음 <표 III-1-3>과 같이 마련해두고 있다(서울 성북구, 2015a: 5).

<표 III-1-3> 서울 성북구 “자연과 체험이 함께하는 안전한 어린이세상” 세부사업 및 추진 현황

세부사업	추진 지표	2015	2016	2017
친환경 체험 텃밭 운영	체험 텃밭 운영	1	1	1
유아숲체험 프로그램 확대	유아숲 체험 참여단체	30	31	32
사고제로 안전 어린이 놀이터 만들기	<공공부분> 어린이놀이시설정비	3	3	3
	<민간부분>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 시설개선 외 관리비용 지원	5	10	10
어린이가 함께 디자인하는 마을 만들기	어린이 마을 만들기 아카데미 운영	3	5	5
	아카데미 운영 결과물 설치	1	1	1
맞춤형 어린이 통학로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신규개선	3	3	3
	어린이보호구역 재정비	8	8	8
학교 앞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건수	40건 이하	30건 이하	25건 이하

자료: 서울 성북구(2015a). 내부자료. 2015 아동친화·교육도시 정착. p.5.

주요 성과로는 유아숲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유아숲체험장을 추가로 조성한 점을 들 수 있다. 2009년에 서울시 최초로 운영한 이후, 2013년에 개운산 유아숲체험장(10,000㎡)을 추가로 조성하였다(서울 성북구, 2015a: 22-23). 또한 마을공동체 중요성을 인식시켜주는 ‘어린이 마을만들기 아카데미’ 운영하고, 2014년에는 성북구 어린이 보호구역을 104개소까지 완료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재정비 사업¹³⁾

동 사업은 구비 100%로 기존에 조성된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후된 교통안전 시설(노면표시, 안전표지 등) 정비·보완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유지·관리하려는 것이다.

사업내용은 훼손, 망실, 노후, 개선 필요 등 기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보완, 어린이보호구역내 시인성 강화를 위한 시·종점, 정문 앞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유색 미끄럼방지 포장 등 보완 설치이다.

소요 예산은 2015년 기준 70,929천원이며, 수혜 대상 학교는 2012년 18개소(유치원 2개소 포함), 2013년 12개소(어린이집 1개소, 유치원 8개소 포함), 2014년 15개소(어린이집 3개소, 유치원 6개소 포함)이다(서울 성북구 2016a: 129-130).

□ 유아숲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유아숲체험장 추가 조성

2009년 서울시 최초 운영 이후 2014년 현재까지 21,205명이 참여하였으며, 2013년에는 개운산 유아숲체험장을 추가 조성하였다.¹⁴⁾

향후에는 보육시설 및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 등 유관기관의 협조체계를 마련하고, 유아숲체험프로그램 참여 단체를 확대할 계획이다.

4) 예산 편성

아동친화도시 정착을 위해 관련 사업 예산은 종합하여 별도 편성·운영되며, 일반 예산 중 아동친화예산 비율은 2012년 이후 매년 증가하여 2014년 기준으로 약 28%를 차지한다.

〈표 III-1-4〉 서울 성북구 아동친화예산 현황(2014)

단위: 백만원	
정책과제	총계
어린이·청소년 참여 지원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 운영 등)	19,651
아동의 권리와 함께하는 성북 (아동영향평가 시행 등)	164

13) 서울성북구(2016a). 내부자료. 아동권리 접근방법 활용한 아동친화 예산서. pp.129-130.

14) 서울성북구(2015a). 내부자료. 2015 아동친화교육도시 정착. p.22.

(표 III-1-4 계속)

정책과제	총계
모두가 신뢰하는 육아환경 조성 (민간 자원을 활용한 구립어린이집 동별 1개소 이상 확충 등)	15,491
성북형 아동 돌봄체계 확대 (민관이 함께하는 돌봄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1,578
성북형 혁신교육도시 프로젝트 (혁신교육 민관학네트워크 운영 활성화 및 특색사업 추진 등)	11,083
친환경 급식의 생활화 (어린이급식시설 위생 클린, 영양 업)	17,349
자연과 체험이 함께하는 안전한 어린이세상 (유아숲체험 프로그램 운영)	1,805
총 소요 예산	67,121

자료: 서울 성북구(2015a). 내부자료. 2015 아동친화·교육도시 정착. pp.27-28.

〈표 III-1-5〉 서울 성북구 아동친화예산 추이(2012-2014)

단위: 백만원

회계별	2012년		2013년		2014년	
	예산액	비율	예산액	비율	예산액	비율
일반회계	343,513	100%	379,591	100%	418,456	100%
아동친화예산	73,265	21.32%	100,923	26.58%	116,425	27.82%

자료: 서울 성북구(2015a). 내부자료. 2015 아동친화·교육도시 정착. p.12.

나. 인천 서구

인천 서구는 인천 지역내에서 영유아 인구수가 가장 많고, 유입인구 비율이 높고, 육아 관련 인프라 수준도 높음에 따라, 아동권리 관련 사업의 총괄 관리하고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다.

1) 지역적 배경¹⁵⁾

인천 서구는 2016년부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아동권리 영역별(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실현 및 기반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인천 서구, 2016a: 1).

동 사업의 주요 배경으로는 타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영유아 비율과 잦은 아동학대 사건 발생 등이 지적된다. 즉 인천 서구는 2016년 2월말 기준으로

15) 10월 11일 인천광역시 서구 사례조사 시 담당자 면담을 토대로 작성함.

18세 미만 아동이 103,134명으로 전체의 20.4%로(인천 서구, 2016a: 4), 인천 지역내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며, 최근 아동학대 사건 발생 등으로 아동 안전 등 아동 중심의 지역 환경 조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고조되었다. 또한 청라 지역을 중심으로 젊은 부부의 유입이 많아, 인천 지역내에서 어린이집 공급 수준이 가장 높고 보육아동수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 사업에는 인천 서구 지역의 아동관련 시설 전반이 포괄된다. 2016년 기준으로 이 지역에는 어린이집은 470개소, 보육아동수는 18,992명으로 나타나며, 지역아동센터 29개소, 아동그룹홈 4개소, 드림스타트 1개소, 육아종합지원센터 1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그 밖에도 도서관은 총 59개소인데, 이들 중 52개소가 작은 도서관으로 공립 도서관 13개소를 차지하며, 1일 기준으로 총 90,767명(회원수)이 이용하고 있다(인천 서구, 2016a: 5).

저희가 어린이집이 458개로 인천에서 가장 많고요. 어린이집에 있는 영유아 수만 해도 만 오천명이 넘거든요. (인천시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담당자)

저희가 인천에서도 아동 비율이 제일 높거든요. 그런 영향도 있고 최근아동학대 사건이 최근 불거지면서 (중략) 작년도부터 아동이 안전한 것에 먼저 초점이 맞춰져서 옐로우카펫이라고 전국 지자체 중에서 처음으로 시행을 했거든요. (중략) 아동비율도 높고 아동학대도 많이 일어나면서 아동한테 초점이 맞추어진거죠. 그동안 성인이나 다른 여성, 장애인이 정책이 되었다면, 사회적 약자 중에 하나인 아동에 대한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시작이 된거죠. (인천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사업담당자)

2) 추진 전략 및 체계

2016년 3월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하고 동년 4월에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 및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전략과제를 선정하고 세부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인천 서구, 2016a: 1). 또한 동년 6월에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하고,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으며, 8월부터는 아동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아동영향평가도 추진 중이다.

특히 아동권리 영역을 중심으로 분야별로 지역내 사업을 모두 총괄 관리하기 위한 전담부서로 “아동친화도시팀”을 설치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조례 제정,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및 협업시스템 구축 등의 역할을 부여하였다(인천 서구, 2016a: 10).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아동관련 사업을 통합 및 분류하

되, 아동권리 영역별로 접근하고 있다. 즉 기반 조성을 포함하여 총 5개 분야의 27개 전략과제와 101개 세부사업을 선정하였다(인천 서구, 2016a: 2). 각 영역별로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등을 통해 발달 주기별로 건강보장체계를 제공하고, 아동통합안전망과 아동생활공간 안정, 식생활 위해 요소로부터의 보호, 영유아 보육과 교육 제공, 아동 놀이공간 제공 등을 추진한다(표 V-1-6 참조). 세부사업의 선정은 현재 추진 중인 아동관련 사업을 통합하여 분류하고, 필요사업 중 현재 미추진 또는 누락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추가 발굴 하도록 요청하고 있다(인천 서구, 2016a: 15).

또한 이들 사업의 추진을 위해 조례 제정, 추진위원회 구성, 아동영향평가, 아동권리실태조사,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아동권리 인식도 제고 행사 발굴 등 기반을 조성하였다. 향후에는 아동전용 구 홈페이지 구축, 아동친화도시 안내지도 제작, 아동친화도시 슬로건 공모, 경인고속도로 홍보 현판 게시, 어린이, 청소년 이동시설 순회 아동권리 교육 등을 추가적으로 계획하고 있다(인천 서구, 2016a: 2).

〈표 III-1-6〉 인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_전략 과제 및 주요사업

추진분야	주요 전략과제	주요사업
생존권	발달주기별 건강보장체계 제공 건강, 행복한 양육환경 조성 사회적 보호·지원 필요아동 지원 대책 시행	건강검진, 예방접종 주민참여 건강생활실천사업 정신건강증진 운영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운영
보호권	아동 통합안전망 구축 아동 생활공간 안정 확보 식생활 위해요소로부터 보호	방범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전 통학로 옐로 카펫 사업 안심 외식환경 조성
발달권	알찬 영유아 보육과 교육 제공 우수인재 육성 교육복지정책 시행 글로벌 인재육성 교육환경 조성 아동놀이공간, 문화·예술 공간 확충	구립 어린이집 두누리리 개원 부모·아동 인성교육, 연세대 멘토링 공공도서관 확충 청라복합문화센터 건립 운영
참여권	구 정책 의사결정에 참여권 보장 문화, 사회행사 참여 기회 제공 청소년 건전 문화 활동 지원	청소년운영위원회 연합회 정책 참여 서곶문화예술제, 정서진해넘이축제 청소년 가요제, 동아리 지원 주말영어광장, 비바잉글리쉬 골든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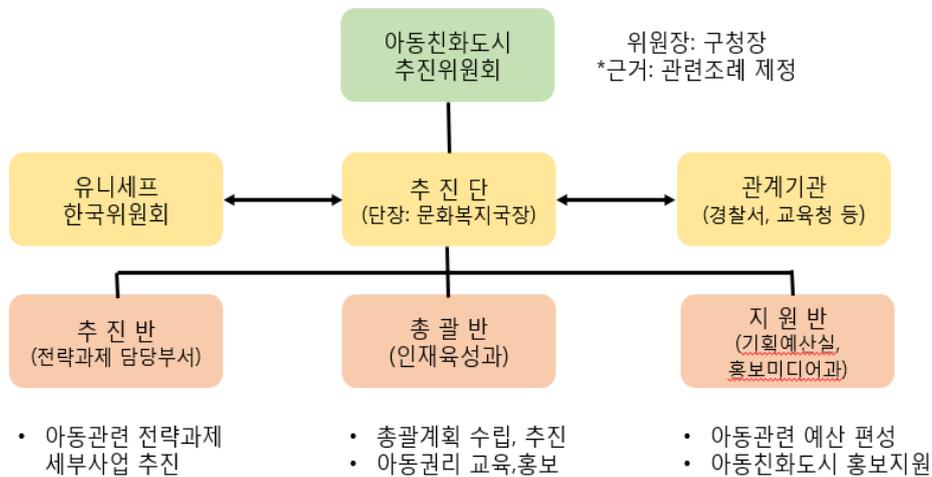
자료: 인천 서구(2016a). 내부자료.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주요내용. p.2.

한편 세부사업의 추진은 해당 부서에서 담당하되, 중점 점검 사항으로 다음

을 명시하고 있다(인천 서구, 2016a: 16). 즉 계획 수립, 시행, 종료 후 전반에 걸쳐 아동권리 존중 측면에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홍보 등에서 아동 눈높이 홍보물을 별도 제작하며, 사업 추진 전·후에 아동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다. 또한 총괄부서(인재육성과)에서는 부서에서 제출된 대상사업을 취합 분류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대상사업을 확정하고, 확정된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아동영향평가”를 시행하고 향후 사업 추진에 반영한다.

또한 동 사업의 전담 기구로서 2016년 3월 4일 행정 6급 1명, 행정 7급 1명, 행정 8급 1명을 포함한 3명으로 인재육성과 아동친화도시팀을 구성하였다(인천 서구, 2016a: 10). 이 팀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 계획 수립과 조례를 제정하고,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및 협업시스템 구축 및 사업 발굴에 집중하며, 아동친화도시 유니세프 인증 추진 등의 업무 전반을 도맡아 진행하고 있다.

그 밖에도 해당 사업의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인천 서구, 2016a: 5)(그림 III-1-2 참조). 우선 인천 서구 아동친화도시 추진단은 문화복지국장을 단장으로, 3개반(총괄반, 추진반, 지원반)으로 구성되며, 아동권리 교육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협력을 추진한다. 이때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협의를 통한 업무협약 사항 수행 및 유니세프 후원사업을 담당한다.



자료: 인천 서구(2016a). 내부자료.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주요내용. p.7.

[그림 III-1-2] 인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협력추진체계(2016)

3) 주요 사업내용

인천 서구는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필두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하였는데, 이는 지역 면적이 상하로 길게 펼쳐져 있는 데 기인한 것이었다. 또한 지역 사회 돌봄공동체 형성이 강조된다. 인천시에서는 중앙정부 지원 이전 부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품앗이 사업을 추진해왔다. 당초 공간적 여유가 있었던 구리검단어린이집의 일부를 부모 모임 장소로 대여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지역내 교회 등도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공동육아나눔터 이용 인원은 2015년에는 6,417명이었으며, 2016년에는 8,712명을 목표로 삼고 있다(인천 서구 2016c). 이들 공동육아나눔터를 통해 부모교육은 물론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등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한다. 이때 특히 부서별로 협력이 원활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또한 관련 세부사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재교육도 강조된다. 16) 한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전략 과제는 건강 관리, 안전보호 및 관리, 놀이 및 문화활동, 보육지원, 아동 통합지원 등이 제시되며, 각 과제별 주요사업은 <표 III-1-7>과 같다.

서구지역이 인천전체 지역의 1/30이에요. 우리가 처음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할 때 처음 찾아가는 사업을 많이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서 부모교육이든 이것도 다 찾아가는 사업을 처음부터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어요. 서구가 워낙 크고 길게 생겼고, 그렇다 보니까 멀어요. (인천시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담당자)

엄마들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도 시키고 엄마들이 품앗이를 하고 싶은데, 뭘 하고 싶으나 그랬을 때 가베교육, 이런식으로 원하는 것들을 얘기하면 가서 그 교육을 시켜주기도 하고, 지금 가베교육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계실 정도로 단계별로 하고 있어요. (중략) 맞벌이 하는 부부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도 아동양육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데다가 서구청에서 여성발전기금이 어느 정도 모여져서 거기서 또 저희한테 사업비를 조금 주셔서 예비부모가 되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또 시행을 하고 있어요. (인천시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담당자)

기관마다 마음이 통해요. 그래서 여기서 협력 좀 해주세요. 하면 서로 불쾌하거나 그런 것 없이 협력을 너무 잘해요. 아동친화도시는 있는 이 인프라만 가지고도 잘 나가고 있는 그런 느낌,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알아서 만들고. (인천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사업담당자)

16) 10월 11일 인천광역시 서구 사례조사 시 담당자 면담을 토대로 작성함.

저희가 외부에서 볼 때는 특수시책같이 생각이 되었었는데, (아동친화도시) 서구라는 지역이 있으면 전반적인 시스템을 짜야 되더라고요.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 인증조건 10가지에 보면, 이런 개별사업을 추진하는게 아니라 (중략) 그 사업들을 추진할 때 어떻게 하느냐, (중략) 기존사업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제정을 조례하고, 사전영향평가를 해서 어떤 부분을 해야 할지 보고, 이런 것을 아동친화팀에서 하는 거고, 관련된 사업을 건강가정같이 역량이 있는 곳에서(인천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사업담당자)

〈표 III-1-7〉 인천 서구 아동친화도시 전략 과제별 세부사업 목록

구분	주요사업
기초보건 및 건강증진	건강한 출산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영유아 건강관리, 감염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률 향상, 영양 플러스 사업, 가좌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석남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구강건강관리 사업,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건강교실
사회적 보호 필요아동 지원	특수 보육시설 지원,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주민참여형 안전한 마을 만들기, 유해환경에 대한 개선사업, 식생활 안전을 위한 식중독 예방관리, 석남완충녹지 도시숲 조성, 보호구역 및 교통시설 물 개선사업,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운영,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아동여성 보호안전지도 제작
아동 활동공간 안전관리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엘로카펫 사업, 어린이 식품안전 관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관리, 교통안전 교육 시행, 어린이 보호구역 CCTV설치 사업,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 친환경 Green Play Zone 관리
교육, 학습지원	구립도서관 활성화 운영,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독서문화 활성화 추진
놀이 및 문화활동, 여가 지원	사계절 썰매장 운영, 여름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어린이 태권도 시범단 운영
아동 통합 지원	방과후 돌봄체계 강화,
보육 지원	지역별 균형있는 어린이집 수급, 어린이집 운영지원과 보육종사자 처우개선, 어린이집 지도점검,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운영, 구립 어린이집 개원, 공동육아나눔터 및 가족 품앗이
시민적 권리와 참여적 보장	서구 어린이 홈페이지 개설 및 운영
아동친화 행정기반 조성	아동실태조사, 아동권리 인식도 조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아동영향평가 시행
아동권리 인식개선	아동권리교육 추진, 아동권리 홍보

자료: 인천 서구(2016c). 내부자료. 전략과제별 세부사업 목록. pp.1-3.

이들 중 주목할 만한 사업으로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구강건강관리교실 운영 등을 들 수 있다.

□ 석남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어린이 건강체험관 운영)¹⁷⁾

동 사업은 6-10세 아동을 대상으로 사전 예약제 방식으로 단체-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매일 3회 운영/개인-매일 15시 이후에 운영된다(2016c). 동 센터는 또래 친구들과 함께 아동 스스로 건강 체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아동이 실생활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모형이 설치된 준비된 전문시설이다.

2015년에는 5,584명이 이용하였으며, 2016년에는 2,400천원을 들여 어린이 건강체험관을 300회 이상(어린이 5,000명) 운영할 계획이다.

□ 꿈동이 구강건강관리교실¹⁸⁾

동 사업은 검단보건지소 보건사업팀 구강보건사업 담당자가 검단지역 어린이집 및 유치원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구강관리 방법 및 올바른 칫솔질 방법 등 교육, 구강검진 및 불소도포 실시, 불소양치용액 사용법 설명 및 배부, 구강검진 결과서 배부, 보육시설 참여교사 만족도를 조사한다(인천 서구, 2016d).

꿈동이 구강건강관리교실은 2015년에 총 24회 운영되어 834명에게 구강교육 및 구강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2016년에는 2015년과 마찬가지로 700천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

〈표 III-1-8〉 인천 서구 아동관련 사업 현황(2016)

담당부서	사업	예산액	참고
아이돌봄지원팀	아이돌봄지원사업운영	872,000천원	2016년 아이돌봄지원사업 국시비보조금
가족지원팀	다문화가정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54,759천원	2016년 다문화가족 언어발달지원사업 보조금
가족지원팀	공동육아나눔터사업	40,000천원	2016년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보조금
가족지원팀	가족꿈앗이사업	1,800천원	2016년 통합센터사업 보조금
가족지원팀	배움지도사 파견사업 찾아가는 양육코칭사업	8,900천원	2016년 통합센터 추가사업 보조금
가족지원팀	멘토링사업	3,100천원	2016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보조금
상담사례팀	자녀 심리치료비	2,500천원	다문화가족자녀성장지원사업 2016년 통합센터사업 국시비보조금

17) 인천 서구(2016c). 내부자료. 전략과제별 세부사업 목록. 관리번호 1-7.

18) 인천 서구(2016d). 내부자료. 전략과제별 세부사업. 관리번호 1-8-2.

(표 III-1-8 계속)

담당부서	사업	예산액	참고
가족사업팀	다문화가족 자녀성장지원사업	1,400천원	여성가족부 국비보조금
가족사업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201,186천원	2016년 통합센터사업 보조금

주: 인천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받은 자료임.

4) 예산 편성

아동관련 예산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대상사업의 담당 부서별로 <표 III-1-9>와 같이 일괄 편성 관리된다.

<표 III-1-9> 인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전략과제 및 예산(2016)

단위: 원

대상사업 선정목록	예산금액	국비	시비	구비
전체	167,680,303	81,764,942	50,637,002	35,276,458
안전총괄실 (주민참여형 안전한 마을 만들기 등)	1,495,400	561,000	451,000	483,400
재무과 (사계절 썰매장 운영)	487,701	0	0	487,701
희망복지과 (취약계층 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	300,000	300,000	0	0
노인장애인지원 (장애아동 수당지원(기초, 차상위, 시설))	1,240,120	868,084	185,968	185,968
여성보육과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가정 양육지원 등)	127,140,980	69,037,026	45,000,987	13,104,167
인재육성과 (아동친화도시 조성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17,418,464	2,874,176	741,238	13,800,049
문화관광체육과 (여름 어린이물놀이장 운영 등)	2,326,612	50,000	0	2,276,612
환경보전과 (친환경 Green Play Zone 관리)	38,500	0	0	38,500
위생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971,220	455,450	237,725	278,045
주차관리과 (교통안전 교육 및 공연)	444,000	18,000	80,000	346,000
공원녹지과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	850,000	300,000	150,000	400,000
보건행정과 (성장기 청소년 약물 안전사용 교육)	7,478,687	3,650,603	1,895,042	1,933,042

(표 III-1-8 계속)

대상사업 선정목록	예산금액	국비	시비	구비
건강증진과 (영유아 건강관리)	7,476,887	3,650,603	1,895,042	1,931,242
검단보건지소 (건강한 출산과 육아를 위한 부모준비교실)	11,732	0	0	11,732

자료: 인천 서구(2016b). 내부자료. 2016년 아동친화 조성을 위한 전략과제 부서별 사업목록. pp.1-5.

다. 전북 완주군

전북 완주군은 타 군 지역에 비해 영유아 수 비율과 육아 관련 인프라 공급 수준도 높고 유입 인구 비율도 높은 특징을 지니므로, 기존 관련 사업들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적 배경

전북 완주군은 그간 보육 등 아동관련 사업에 주력해왔으며, 이들 사업의 체계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하게 되었다. 각자 담당 업무에 한정되어 유관 타 업무에 대한 정보가 미약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타 군 지역에 비해 인프라 공급 수준이 높아 이들 기관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전북 지역내에서 인구 유입이 증가하는 점도 주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타 지역과는 달리 출산 인구가 늘고 청소년 인구는 전체의 19%를 차지하며, 최근 귀농 귀촌 인구의 유입도 두드러진다. 전라북도 지역의 아동 인구 비율은 평균 20% 미만으로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이며, 이러한 경향은 시 단위 도시보다는 군 단위 지역에서 두드러져 해당 지역은 대부분 20%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III-1-10〉 전북 완주군의 인구 추이(2011-2014)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총 인구(명)	85,119	84,660	86,164	86,978	90,377
인구증가율(%)	1.47	-0.54	1.78	0.94	3.91
출생아수(명)	991	986	1,035	941	821
아동인구(명)	17,167	17,072	17,216	17,046	17,455
(비율)	(20.17)	(20.16)	(19.98)	(19.59)	(19.31)

자료: 전북 완주군(2015a). 내부자료.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 p.2.

이처럼 아동 인구의 감소는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진행되는데, 완주군의 아동 인구는 타 지역과는 달리 아동 인구의 비율이 20%를 넘어, 전주, 군산 익산을 제외하면 지역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다(표 III-1-11 참조).

더욱이 완주군의 아동 인구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완주군 아동의 비율과 출산율이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결과는 전라북도 내 14개 시·군의 인구 이동 추이 분석을 통해서도 그 경향이 확인된다. 완주군은 전체적으로 전출 인구보다 전입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2011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전입 인구가 전출 인구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표 III-1-12 참조). 그 결과 완주군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된다.

〈표 III-1-11〉 전라북도 내 시·군의 아동인구 비율(2011-2014)

지명	2011	2012	2013	2014
전주시	0.282	0.282	0.282	0.283
군산시	0.109	0.110	0.111	0.112
익산시	0.027	0.026	0.025	0.024
정읍시	0.042	0.042	0.041	0.040
남원시	0.007	0.007	0.006	0.006
김제시	0.028	0.027	0.027	0.026
완주군	0.031	0.032	0.033	0.034
진안군	0.008	0.008	0.007	0.007
무주군	0.008	0.007	0.007	0.007
장수군	0.007	0.007	0.007	0.007
임실군	0.008	0.008	0.008	0.008
순창군	0.002	0.002	0.002	0.002
고창군	0.004	0.004	0.004	0.004
부안군	0.004	0.004	0.004	0.003

자료: 전북 완주군(2015b). 내부자료. 2015년 아동친화 예산서(안).

〈표 III-1-12〉 전북 완주군 연도별 인구 이동 추이(2011-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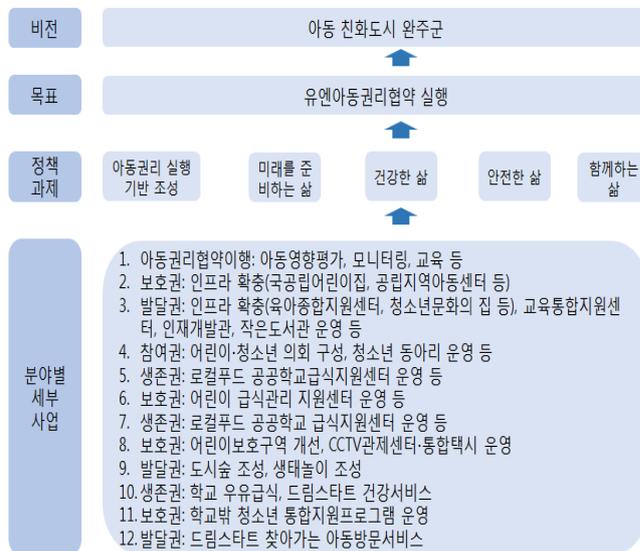
행정 구역	2011		2012		2013		2014	
	총전입	총전출	총전입	총전출	총전입	총전출	총전입	총전출
전북	308,011	306,290	271,835	275,126	258,198	260,395	274,337	276,900
완주군	12,429	13,211	13,024	11,696	12,159	11,490	15,526	12,241

자료: 전북 완주군(2015b). 내부자료. 2015년 아동친화 예산서(안).

2) 사업 추진 전략 및 체계

전북 완주군은 아동친화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2015년에 아동영향평가와 아동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관련 법체계를 마련하였다(전북 완주군, 2015a: 3). 즉 2015년에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에 관한 조례 제정,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상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하였다(전북 완주군, 2015a: 3).

또한 아동친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 농어촌아동지원사업 업무 협약(세이브더칠드런 전북 지부)을 통해 방과후 놀이터 1개소와 공립지역아동센터 1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신도시 작은 도서관(별마루)건립 및 개관, 육아용품 대여점 확충(장난감도서관과 병행 운영)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아동 참여 사업으로 놀이터를 지켜라 어린이 옹호활동가 캠프(어린이가 놀기 좋은 완주 만들기 10가지 제안)등이 실시되었다(전북 완주군, 2015a: 3).



자료: 전북 완주군(2015a). 내부자료. 아동 친화도시 기본계획. p.4.

[그림 III-1-3] 전북 완주군 아동친화도시 전략 과제

이들 중 주목할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전북 완주군, 2015b).

□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사업 목적은 안전체험시설이 없는 어린이들의 조기 안전습관 형성 및 안전실천 생활화로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사업 대상은 3,000여명(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학부모, 교사 등)이고, 사업 내용으로는 어린이 안전생활 습관화를 위한 20여개의 안전체험교육, 재난안전, 신변안전, 심폐소생술, 교통안전, 안전인형극, 소방안전, 구명조끼착용체험, 승강기, 가스, 전기, 자전거, 식품안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어린이, 교사 및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종합적인 안전체험교육 확대로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 시 대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둔산 어린이공원 생태놀이터(아이뜨락)

사업 목적은 둔산 어린이공원에 소규모 생태·자연 공간 및 테마가 있는 생태놀이터를 조성하여 아이들과 주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놀이 환경 제공과 도심내 부족한 자연생태공간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3) 예산 편성

아동과 관련된 예산을 분석하여 아동권리 분야별로 분류하여 127개 사업 549억(생존 106, 보호 43, 발달 399, 참여 1)으로 파악하였으며, 2015년 기준으로 아동권리 영역별 예산액 및 해당 비율은 <표 III-1-13>과 같다.

<표 III-1-13> 전북 완주군 아동권리 분야별 예산액(2015)

단위: 백만원

권리	사업명	예산액	비율
생존권	로컬푸드 학교급식 지원사업, 모자보건사업, 아동복지시설운영	10,560	19.2%
보호권	지역아동센터 운영,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아이돌보미지원사업	4,272	7.8%
발달권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보육시설 운영지원 사업, 장난감도서관 운영	39,896	72.7%
참여권	어린이날 축제 한마당	137	0.3%
합계		54,865	100%

자료: 전북 완주군(2015b). 내부자료. 2015년 아동친화 예산서(안). pp.35-41

2. 국외 사례

네델란드 로테르담시는 2011년에 정부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으므로, 지역 차원의 육아지원환경 조성 차원에서 주목할 바를 도출하고자 한다.

가. 네델란드의 육아지원환경 개요

네델란드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건강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건강 보험에는 기본 보험(Basispakket)과 추가 보험(Aanvullend verzekering)이 있으며, 추가 항목에 따라 보험금에 차이가 있다(www.rijksoverheid.nl, 검색일 2016년 9월 27일).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면 곧바로 주치의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고 근처의 산과(Verloskundige)와 약속을 한다. 임신부의 건강이나 시험관 임신 등의 경우에는 산부인과 의사와 약속을 하나, 그 이외의 경우는 산과에 해당하는 Verloskundige와 임신 초기는 매달, 후기에는 격주 또는 매주 정기 검진을 받는다. 거의 모든 지역에 산과가 있으며, 임신 기간 중 산모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서로 간 신뢰감을 형성한다. 초음파 등의 검사도 이곳에서 이루어진다(www.deverloskundige.nl 검색일 2016년 9월 27일). 네델란드의 임신부들은 출산 장소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임신 기간 동안 어떤 형식으로 출산을 할지 결정해야 한다. 2013년의 조사에 의하면 15.9%의 임신부가 집에서 출산하였다(M. Renfrew et al., 2014).

또한 이 기간에 임신부들은 산후 조리(Kraamzorg)에 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기본 보험인지 추가 보험인지에 따라서 최소 24시간에서 최대 80시간의 혜택을 산후 조리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 산후 조리사에 관한 역사는 100년 전부터 이어져 왔는데, 1900년부터 산후 조리사 과목이 생겼으며 1923년부터 산후 조리사의 일을 검증한다. 보통 산후 직후부터 하루 8시간을 10일 동안 나누어 받으며, 산모와 아기를 돌보는 일과 동시에 간단한 집안일을 도와준다. 네델란드에서는 산후에 곧장 가까운 인척, 지인이 방문하는 것이 전통인데, 이때 손님을 접대하거나, 산모의 모유 수유를 돕고 육아 지식을 가르치기도 한다.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보건상담소(Consultatiebureau)에서 사람을 집으로 파견하여 상담을 한다. 부모는 이러한 기회를 통해 아이가 자라는 환경과 부모의 어려움, 도움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산모는 아기가 태어난 지 4주부터 만 3

세가 될 때까지 보건상담소에 아기와 방문을 한다. 이 기관은 마을마다 위치해 있으며, 보건상담소의 의사, 지역 간호사, 업무 도우미로 구성되어 있다. 정해진 기간마다 방문하여 아이의 체중, 신장, 머리 둘레 등을 기록하고 예방 접종, 모유 수유, 가정환경 등 육아를 함에 있어 겪는 어려움에 대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방문이 의무는 아니지만 거의 모든 부모가 이곳을 이용하며 정부의 지원으로 운영된다.

네덜란드의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교육 및 보육 시설은 Dagopvang, Buitenschoolopvang(BSO), Gastouderopvang이 있다(rijksoverheid, 2016). 먼저 Dagopvang은 만 0세부터 만 4세까지 유아가 이용 가능한 기관으로 지방 정부의 관리를 받는다. 이 기관은 다시 Kinderdagverblijf, Peuterspeelzaal, Voor- en vroegschoolse educatie(Vve)로 나뉘는데, Kinderdagverblijf는 생후 6주부터 만 4세까지 아동이 이용 가능한 기관으로, 주로 아침 8시부터 저녁 6~8시까지 운영한다. 두 번째로 Peuterspeelzaal는 만2세부터 만4세의 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초등학교 입학 전 준비 과정을 위한 곳이다. 네덜란드는 유아교육이 초등교육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덜란드의 유아들은 만 4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뒤 1, 2학년은 유치원 과정으로 운영하므로 이 시기의 유아교육은 공교육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Peuterspeelzaal는 놀이를 통해 함께 놀이하기, 차례와 규율 지키기 등을 배우는 곳이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기관을 통해 이러한 부분을 먼저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로 Voor- en vroegschoolse educatie(Vve)는 만 2.5세부터 만4세 유아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주로 언어가 뒤쳐진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이 프로그램은 Kinderdagverblijf와 Peuterspeelzaal에서 진행된다. 이 시기는 본격적으로 학교를 다니기 전 원만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질 높은 교육 및 보육 기관이 공급되는 것은 초등학교와의 연계 및 부모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네덜란드 정부는 높은 교육의 질은 교사의 교육수준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믿음 하에 보다 많은 4년제 대학 학사출신을 보육기관에 일하게 하여 그들의 지식을 전문대 출신 교사와 공유하게 하기도 하였다.

보건상담소(Consultatiebureau)를 통하여 어떤 아동이 Vve 프로그램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이 나오면 지정된 peuterspeelzaal에서 한 주에 3번씩 오전 프로그램을 받게 된다. Dagopvang외에 네덜란드 유아의 교육 및 보육을 책임지는 다른 기관에는 Buitenschoolopvang(BSO)가 있다. 이 기관은 방과 후 학교로, 만 4

세부터 만 12세 아동이 이용할 수 있다.

나. 로테르담 시의 육아지원환경

로테르담은 네덜란드의 가장 큰 항구도시로서 국제 교역의 중심지로, 이민자들의 유입이 많고, 도시빈민자도 많은 지역에 속한다. 로테르담 시는 도시가 아이 키우기 부적절한 공간이라는 개념을 바꾸고, 일·가정 양립을 추구하는 젊은 가족에게 육아환경과 주거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도시 재생 전략(Urban Regeneration Strategy)을 수립하여 진행해오고 있다(van den Berg, 2013: 528). 2004-2007년 청소년 정책 플랜에서 로테르담의 젊은이들의 교육수준이 낮고, 고용, 네덜란드어에 대한 지식, 건강에 대한 기회가 적다고 지적됨에 따라(van den Berg, 2013: 525), 로테르담 시는 2007년부터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y)'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는 다른 맥락에서 로테르담 시는 네덜란드 내에서도 학업성취가 낮은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시장과 시의회가 교육정책을 마련하여, '아동 지역(Children's Zone)'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Beleidregel Onderwijs Rotterdam, 2014-2015).

1) 아동친화도시

로테르담시는 아동친화도시를 목표로 다양한 프로젝트가 시행되고 있다.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청소년이 행복하고 책임감을 지니고 안전하며 역동적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로테르담은 '아동친화 로테르담(Rotterdam Kindvriendelijk)'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도시계획인 '아동친화 로테르담을 위한 빌딩 블록(Building Blocks for a Child Friendly Rotterdam)'을 수립하였고, 이러한 계획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었다. 빌딩 블록은 아동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아동친화적인 주거환경, 공공장소, 편의 시설, 안전한 교통 환경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Rotterdam wins a national prize for the most child friendly city initiative, European Network Child Friendly City <http://www.childinthecity.eu/2010/11/04/rotterdam-adopts-a-tool-to-design-livable-city>, 검색일 2016년 8월 30일).

로테르담은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네덜란드 정부가 선정한 2011년 가장 아동친화적인 도시로 선정되기도 하였다(Rotterdam wins a national prize for the

most child friendly city initiative, European Network Child Friendly City <http://www.childinthecity.eu/2010/11/04/rotterdam-adopts-a-tool-to-design-livable-city>, 검색일 2016년 8월 30일).

로테르담 시는 스포츠 시설, 공원, 놀이터, 아동돌봄 시설, 놀이터, 교통 안전 등의 개선 노력을 하였으며, 특히 가족이 떠나면 편의시설의 양과 질도 떨어진다고 보아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가족에게 필수적이라고 보았다(van den Berg, 2013: 529). 로테르담은 아동친화도시를 통해 도시재생을 통한 역유입을 증가시키고 아동과 여성, 그리고 남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한 공간을 제안하였다.

〈표 III-2-1〉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아동친화도시 계획

유형	설명
빌딩블록1 : 주거환경	아동친화적인 주거환경은 주거지의 최소 크기가 85평방미터 이상이고 아동을 위한 공간이 반드시 개인당 주어져야 하며, 엘리베이터가 있고 적어도 한 개의 책상을 놓을 수 있는 외부 공간이 있어야 함.
빌딩블록2: 공공장소	공공장소는 아동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주택지대가 15헥타르 보다 클 경우 최소 5,000평방미터의 스포츠 놀이 공간이 있어야 하며, 15헥타르 보다 작을 경우 최소 1,000평방미터의 스포츠 놀이 공간이 있어야 함. 이는 인도의 활용과 녹지에 대한 내용 역시 포함하는데, 인도는 그 폭이 3-5미터로 아이들이 놀기에 적절해야 하며, 녹지에는 다양한 계절을 나타낼 수 있는 나무와 아이들이 올라탈 수 있는 나무가 있어야 함.
빌딩블록3: 편의시설	학교 운동장이 300평방미터보다 클 경우 표면영역과 녹지가 2:1 비율을 유지하여야 함. 각 구역 마다 주 당 6시간동안 추가적인 활동을 제공하는 방과후 학교(Extended school)가 적어도 한 개 이상 있어야 하고, 학교 내 놀이공간과 교내의 환경이 안전해야 함.
빌딩블록4: 안전환경	속도 감속 대책과 차량통행제한구역(no-through traffic zone)을 포함하며, 적어도 한쪽에는 반드시 3m 폭의 보도가 있어야 함.

자료: City of Rotterdam, Youth, Education and Society(2010) Rotterdam, city with a future. (<http://www.rotterdam.nl/JOS/kindvriendelijk/Rotterdam%20City%20with%20a%20future.pdf>, 검색일 2016년 8월 30일).

2) 네덜란드 로테르담 시의 어린이 구역(Children's Zone)

가) 남부 로테르담 국가 프로그램(Nationaal Programma Rotterdam Zuid)의 추진 배경

NPRZ(2015)에 의하면 로테르담 남부, 특히 7 focus지역(Tarwewijk, Bloemhof, Hillesluis, Feijenoord, Carnisse, Afrikaanderwijk, Oud-Chalois)의 실업수당으로 생활하는 가구의 비율은 22%로 네덜란드의 평균 가구 8%에 비해 높으며, 고학력 거주인도 네덜란드 평균이 46%에 비해 7 focus 지역은 25%가 낮다. 또한 초등학교 8 학년이 보는 cito 시험의 평균 점수는 7 focus 지역이 528.4로 네덜란드 평균인 534.8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이민자 비율이 평균 21%인데 반해 7 focus 지역은 74%의 이민자가 거주하고 있다. 이와 같이 로테르담 남부, 특히 7 focus 지역은 실업 수당으로 생활하는 가구가 많으며 대부분의 거주자가 이민자이고 저학력의 부모에 자녀의 학업 성적 또한 낮다.

네덜란드 정부와 로테르담 지방 정부는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1~2014년에는 제1차 프로그램으로 ‘중퇴 줄이기’(programma aanval op uitval), ‘보다 나은 성적’(programma beter presteren) 프로그램을 실행하였다(Beleidregel Onderwijs Rotterdam, 2014-2015: 3). 그리고 2015년부터 제2차 프로그램(2015~2018)을 진행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은 바로 ‘배우면 얻는다’(Leren Loont)이다.

남부 로테르담의 문제해결을 위해 주 정보는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 연계해 NPRZ를 조직하였다.

로테르담 남부의 문제는 훨씬 이전부터입니다. 먼저 로테르담 시 정부에서 정책 pak op zuid을 실행하였는데 많은 재정 부담이었고 지원금이 떨어졌을 때 그 정책을 계속 이어 나갈 수가 없었지요. 문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네덜란드 주 정부의 정책인 대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연계되어 NPRZ가 구성되었어요. 또한 네덜란드의 한 학생당 제공되는 일정 지원금이 있어요 (2016. 7. 7. 로테르담시 NPRZ 학교 담당자).

네덜란드의 도시인 로테르담(Rotterdam)의 페예노르트(Feijenoord), Hillesluis, Bloemhof를 포함한 7개 구역에서는 ‘남부 로테르담 국가 프로그램(Nationaal programma rotterdam zuid)’의 일환으로 ‘어린이 구역(Children’s Zone)’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18세 이하 자녀를 둔 가족을 겨냥한 프로젝트로, 로테르담의 다양한 기관 출신의 전문가들이 부모교육, 스케줄과 숙제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부모교육을 통해 가정 내 상황을 개선하고 교육적 측면에서 위험 요소들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http://www.rotterdam.nl/childreuzonenprz>, 검색일 2016년 11월 30일).

나) 사업 추진 체계 및 과정¹⁹⁾

(1) 사업 추진 체계

로테르담은 2012년 여름 '남부 로테르담 국가 프로그램(NPRZ)'을 실행하였으며 6개의 기관이 함께 협력 운영하고 있다. 로테르담 시 정부, 국가, 로테르담시의 학교, 의료시설, 회사들, 주택 협회의 6개의 기관 중 로테르담시가 50%의 운영비를 지불하며 나머지 5개의 기관에서 나머지 경비를 나누어 사업을 위한 비용을 지원한다.

NPRZ의 출발점은 NPRZ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Rotterdam 시 정부, 국가, 로테르담시의 학교들, 의료시설, 회사들, 주택 협회의 6개의 기관에서 직접 모여 서로의 기관을 모니터하며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감독, 조연을 하는 기구입니다(2016. 7. 7. 로테르담시 NPRZ 학교 담당자).

NPRZ의 목적은 국가의 정권이 바뀌거나 시 정부의 위원회가 바뀌는 경우 이미 진행되고 있는 정책의 연계성이 떨어지거나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은 그 성과를 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기를 지나야 하기에 연계성과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꾸준한 지원과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 기구를 만들었습니다(2016. 7. 7. 로테르담시 NPRZ 학교 담당자).

NPRZ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통합된 접근방식이라는 것이다. 학교, 직장, 주거의 세 요소가 연계, 통합되어 전체적인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즉, 교육 수준을 높여 취업을 원활하게 하여 수입을 더욱 많이 받을 수 있다면 주거 환경도 개선하게 되며, 결국 삶에 질을 높일 수 가 있다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일회적인 순환이 아닌 지속적인 발전을 목표로 한다. NPRZ와 유사한 기구로는, 2008년 구성된 Delta commissie(www.deltacommissie.com)가 있다.

NPRZ와 같은 기구단위 사업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우린 네덜란드 장관부터 교사들까지 연계가 가능하죠. 정책이 거의 4년 주기로 즉 장관이 바뀔 때 마다 변화되는 것을 막고 지속성을 이어 갈 수 있는 비전입니다(2016. 7. 7. 로테르담시 NPRZ 학교 담당자).

19) 2016년 7월 7일 NPRZ(Nationaal programma rotterdam zuid)의 학교담당자와 인터뷰를 진행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함. 주소: Mijnsheerenlaan 4-10, 3081 CA Rotterdam



자료: 로테르담시 NPRZ 면담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함.

[그림 III-2-1] NPRZ의 조직도

그림과 같이 NPRZ는 총 책임자와 5명의 직원 1명의 주민대표로 구성된 작은 기구이다. 학교담당관은 지원금 제공 시 학교와 도달 목표를 작성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학교가 약속된 조항을 잘 이루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며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학교를 경고하며 또 그 이후에도 변화가 되지 않았을 경우 보고서를 상부에 제출하는 역할을 한다.

네덜란드 정부는 Children's Zone을 위하여 이와 같은 지역팀(wijkteam)을 2012년 처음으로 발족하였다(Beleidregel Onderwijs Rotterdam, 2014-2015: 4-5). 먼저 Children's Zone에 위치한 초등학교에서 문제가 있는 학생들의 명단을 받아 문제를 분석하며 해결 방법을 강구하였다. 이는 학교의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으로, 학교는 본연의 임무인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보다 노력을 기울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2015년 이후에는 '어린이구역(Children's Zone)' 지역팀이 보다 통합적으로 전 로테르담 시로 확대되어, 학교, 주치의, 경찰, 복지사, 병원, 약국 등이 함께 협력하여 일을 하고 있다.

로테르담 교육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팀의 조직을 통해 지역맞춤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이다. 지역맞춤 업무란 해당 지구에 알맞은 공동 작업이다. 학교와 어린이집과 같은 기관들은 해당 지역시민들에 알맞은 맞춤형 시설과 정책을 제공한다. 로테르담의 교육정책과 Ieder Kind Wint 2의 합의된 규정은 학부모들과 시 정부, 육아-아동관련 기관들, 복지부, 경찰들과의 상호 협력을 통해 실행된다. 학교는 부모들의 학업에 대한 관심을 높여 보다 많은 참여를 촉진한다. 뿐만 아니라 학교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연계 짓는 역할을 하며 본 프로그램을 하는 학생, 아동, 이웃이나 언어수업을 받는 학부모들에게 장소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한다(Beleidregel Onderwijs Rotterdam, 2014-2015).

(2) 사업 추진 과정²⁰⁾

어린이구역(Children's Zone)은 2012-2014 NPRZ에서 로테르담 시의위원회와 NPRZ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2012년 10월 결성되었다. 로테르담 남부지역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 어린이구역은 향후 몇 년 내에 7개 집중지역 (Tarwewijk, Bloemhof, Hilleluis, Feijenoord, Carnisse, Afrikaanerwijk, Oud-Charlois)에 위치한 모든 초등학교와 Charlois, Feijenoord, Ijsselmonde지역의 모든 중고등학교를 포함한 계획을 갖추었다.

2014-2015년에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맞춤 업무에 대한 지원금을 제공하였다. 파일럿 프로그램에서는 Rotterdam Children's Zone에 중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본 정책이 수립된 후 학교의 성격을 파악하는 단계를 거친 다음 시 정부와 관심이 있는 학교와의 합의점을 모았으며, 파일럿 프로그램의 결과물은 심의를 거친 후 지원금 평가과정에 반영하여 2015-2016 교육지원금 정책에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2015-2016년부터 모든 학교에 맞춤형 업무를 실행하려는 계획을 지녔다. 최근에는 2015-2018년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어린이구역(Children's Zone)은 학교, 시 정부, 해당 지역의 관계자들 간의 연합이다. 그리고 아동이 생활하는 주거 공간에서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높이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소결

앞서 다룬 국내외 사례들을 종합하여 지역 차원에서 육아지원환경 조성 차원의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정착의 배경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강조점을 달리하나, 공통적으로는 아동관련 사업을 총괄 관리하고 종합적으로 운영하려는 목표를 지닌다. 단,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식은 지역별로 상이하다. 이를테면 육아지원 인프라 수준이 낮은 서울 성북구 지역의 경우는 별도 인프라를 설치하는 방식을 취하나, 인프라 수준이 높은 인천 서구 또는 완주군의 경우는 행정 전달체계 개편에 보다 주력하였다. 이를테면 서울 성북구의 경우는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돌봄서비스의 종합적 관리, 연계를 위해 관내 아동·청소년 시설의 허브 역할을 하는 성북 아동청소년센터를 건립 및 운영하고 있다.

20) Beleidregel Onderwijs Rotterdam, 2014-2015의 자료를 중심으로 기술함.

둘째, 아동관련 사업 전반을 총괄 관리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환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들 지역은 공통적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주된 목표로 삼고 있으므로, 아동 이익이 우선적으로 반영된 계획의 수립에 이어 아동영향평가와 아동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결과를 다음 년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즉 아동관련 사업들이 아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지를 매년 점검하고, 관련 결과를 다음 계획에 반영하여 즉각적인 개선 효과를 기대한다.

셋째, 아동관련 사업을 별도 구분하여 관련 예산을 일괄 관리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권리 영역별로 유관 사업을 분류하는 방식을 취하거나 부서별로 관련 사업을 분류하는 등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지역적 여건에 부합하는 예산 편성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시 아동관련 예산 전반에서 종합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넷째, 육아지원환경 조성 관련 사업에는 다양한 담당 부서들이 포함되므로, 이들 부서간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다양한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아동관련 사업들이 일괄 기획 관리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존 관련 부서의 협조가 절실히 요망된다. 따라서 관련 부서들이 협력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사업 연속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위해 별도 기구를 신설하는 등의 조치가 요구된다. 육아지원환경 조성에 관한 주요 계획들이 선출직 공무원인 시·군·구청장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별도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다. 로테르담 시는 성과 달성을 위한 지속성이 견지될 수 있도록 별도 기구를 설치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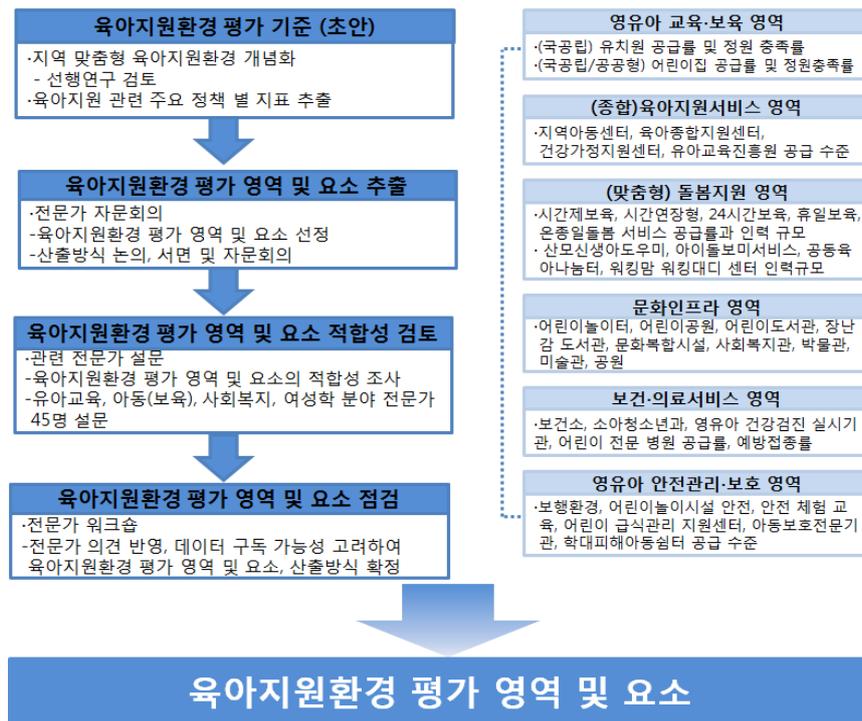
여섯째, 지역 내 민관 협력체계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한다. 여기에는 총괄 행정 부서 및 기구는 물론, 지역 내 유관 기관과 지역 내 민간 협의체 등을 모두 포괄하고, 필요 시 각 기관 및 협의체들 간의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일곱째, 예산 제약 등 필요시에는 지역 내에서 재정투자 우선순위를 정하여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할 지역을 선별한다. 네델란드 로테르담 시의 경우는 취약 계층 밀집지역을 우선투자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이때 문제아동에 대한 조기개입의 중요성과 가족 단위의 서비스 지원이 강조된다.

IV. 전국 지역의 육아지원환경 평가

1. 육아지원환경의 평가 영역 및 요소 도출

육아지원환경을 평가하기 위해 첫째,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육아지원환경을 개념화하고, 육아지원 관련 주요 정책의 성과 평가를 위해 제시된 지표들을 추출하였다. 둘째,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육아지원환경의 정의에 따른 평가 영역 여섯 개와 각 영역별 평가 요소를 선정하였다. 셋째,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설문문을 통해 각 평가영역과 요소의 적합성과 산출방식의 적합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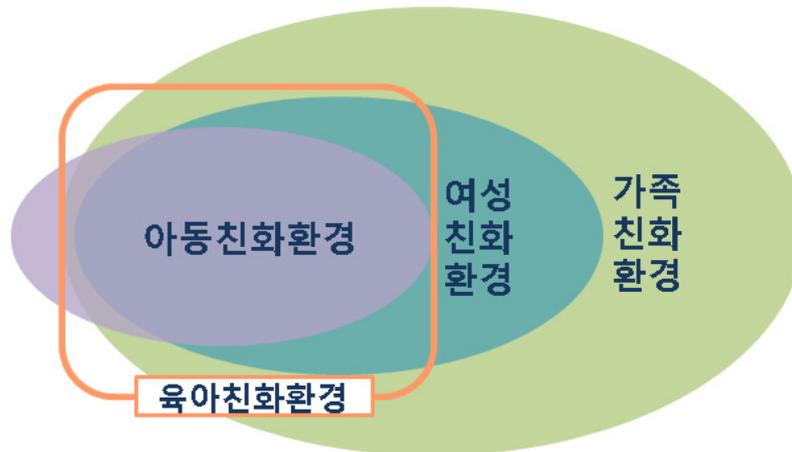


[그림 IV-1-1] 육아지원환경 평가 영역 및 요소 도출 과정

가. 육아지원환경 지표 관련 연구

육아지원 관련 지표는 합의된 목표와 기준을 나타내는 규범적 성격과 관심분야의 현황을 드러내주는 기술적인 면이 모두 포함된다(장명림·이재연·김영옥·안동현·박수연·김홍희, 2007: 8-9). 장명림 외(2007)의 연구는 한국의 육아교육·보육, 부모의 자녀 양육, 영유아의 복지측면을 아우르는 한국의 육아지표를 개발하여 육아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육아지원환경 평가 기준을 선정하기 위해 관련 지표에 관한 연구들을 폭넓게 살펴보면 장명림 외(2007)의 육아·보육지표, 육아환경지표(권미량·김성원, 2012; 이주림, 2014; 이주림·구자훈, 2013), 육아친화지표(천현숙·정희남·김혜승·하수정·오민준 외, 2013), 아동친화지표(정경숙, 2008; 홍승애·이재연, 2011; 홍승애·이재연, 2014), 가족친화지표(유재연·진미정, 2013), 육아지원지표(김혜금, 2012)와 같이 국내에서 육아 및 아동과 관련된 지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국내 육아 및 아동 지표 관련 선행연구는 한국사회의 긍정적·부정적인 물리적 요소를 파악하고, 육아환경의 정책적 구축 방안을 얻어 궁극적으로 유아 및 가족의 생활 만족도 및 출산율 증가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둔다. 각 지표들 간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 천현숙 외(2013: 39)의 비교 표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함. p.42

[그림 IV-1-2] 아동친화, 여성친화, 가족친화 개념 비교

1) 육아친화환경지표

육아환경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유아교육·보육기관을 중심으로 살펴보던 기존 차원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환경을 살펴본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지역의 육아환경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개발된 지표를 기초로 지역의 육아환경을 진단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주림·구자훈(2013: 392)은 서울시를 중심으로 도시 내 소생활권의 물리적 육아환경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보육시설, 양육지원시설, 공원 및 녹지, 문화, 복합상업, 의료환경”으로 구분하고 있다. 각 환경에 대한 현황은 출산율과 영유아 밀도와의 비교를 통해 제시되었으며, 서울시 주요 자치구들의 육아환경을 진단하였다.

이주림(2014: 35) 역시 동일한 평가지표를 통해 아파트밀집 지역인 송파구의 육아환경을 평가하고, 육아환경의 현황 파악으로 각 자치구의 부족한 인프라 확인, 다른 자치구와의 상대적인 수준비교를 통해 정책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이에 더해 이주림(2014: 86)은 육아관련 인프라가 부모들의 육아환경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육아와 직접 관련된 인프라보다 편의를 위한 생활인프라의 수준이 부모의 육아환경에 대한 만족도에 더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상의 연구는 육아환경과 관련된 인프라 공급 수준을 영유아 비율 및 인구밀도를 고려해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아동의 안전에 관한 부분은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이주림, 2014: 90).

다른 연구에서는 이주림·구자훈(2015b: 3)은 물리적 육아환경으로서 주택특성, 근린특성, 입지특성으로 나누어 육아환경 여건이 다른 다가구·다세대 밀집지역과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영유아 어머니의 중요도와 만족도를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주택유형에 따라 다가구·다세대 밀집지역에서는 보행환경, 보차분리, 녹지, 놀이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또한 아파트단지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공급과 가정어린이집, 민담어린이집의 질적 확보, 어린이 도서관에 대한 요구가 제안되었다(이주림·구자훈, 2015b: 7-8).

권미량·김성원(2012: 145)은 육아환경을 “가정문화환경, 자연환경, 사회문화환경, 교육기관환경”으로 범주화하여 부산지역 부모들의 인식을 알아보았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기관이용 부모 28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수행한 결과, 부모들은 가장 위험한 시설로 ‘도로’라고 응답하였고, 자녀들의 주요 놀이공간은 ‘집안’이

라는 응답이 많았다. 부산지역 부모들은 지역의 자연환경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하였으나, 지역의 안전성과 놀이환경의 부족함과 자녀와 함께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는 공간과 문화적 환경에 대해 부족하다고 인식하였다(권미량·김성원, 2012: 157).

유인창·강부성·박지연(2014: 33)은 거주유형에 따라 육아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기 위해, 육아지원을 위한 환경을 '내부환경, 외부환경, 보육시설'의 세 환경으로 범주화하여, 설문조사하였다. 응답자들은 주로 각 환경의 필요성에 대해 높이 인식하였으나, 반면 만족도는 모두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특히 아파트에 비해 다른 형태의 주거 유형에 거주하는 부모들의 경우 외부환경과 보육시설 항목에 대해 필요도는 높는데 반해 만족도는 낮게 나타나 부모들의 요구가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자들은 육아환경의 개선을 통해 출산율 증가에도 긍정적 효과를 줄 것이라 제안하였다(유인창 외, 2014: 38).

천현숙·정희남·김혜승·하수정·오민준 외(2013)는 도시환경에서 출산과 양육과 관련되어 있는 물리적·공간적 특성과 서비스이용의 관점에서 도시주거환경의 요소를 정리하였다. 이를 위해 출산 및 양육과 관련 있는 변수들을 추출하고 친화적 도시주거환경지표를 구축하였는데, 이 중 육아친화 분야 세부지표로는 '아동보육시설, 아동교육시설, 가족지원시설, 의료시설'을 포함된다. 연구를 통해, 양육친화적인 도시주거환경의 의미와 출산장려를 위한 도시주거환경정책 방안 마련을 위한 전략 및 정책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김혜금(2012)은 영아기 자녀를 가진 어머니의 육아 관련 지역사회 지원과 사회적 지원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이루어졌다. 2008년 한국아동패널의 자료를 사용하여 지역사회의 육아지원에 대한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육아지원지표로서 '보육시설, 유치원, 사교육기관, 여가 공간/시설, 문화시설, 치안측면 안전성, 안전사고 측면 안전성'(김혜금, 2012: 10)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대해 두 집단 모두 충분하다고 인식하였으나, 공공 여가 공간/시설 이용의 편리성과 문화시설 이용 편리성에 대해 비취업모가 취업모에 비해 더 불편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혜금(2012: 19)은 전반적으로 취업모가 비취업모에 비해 사회적 지원을 높게 인식하여 비취업모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육아환경, 육아친화, 육아지원지표와 관련한 연구에서 다룬 대주제와 소주제의 내용은 다음 <표 IV-1-1>과 같다.

〈표 IV-1-1〉 육아친화환경 관련 지표

지표	출 처	내용		
		대주제	소주제	
육아환경 지표	이주람 (2014); 이주람 구자훈 (2013)	보육시설환경	-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유치원수	
		양육지원시설	-보육정보센터, 영유아플라자	
		공원 및 녹지 환경	-공원면적, 어린이공원면적, 녹지면적	
		문화환경	-장난감 도서관, 공공 어린이 도서관, 지역 문화 복지시설	
		복합상업환경	-백화점, 할인점, 쇼핑몰	
		의료환경	-종합병원, 의원수, 소아청소년과, 보건소	
	이주람· 구자훈 (2015b)	주거특성	-지역 방의 수, 빛의 밝기, 통풍, 보온, 방음	
		이웃특성	-보행환경, 보차분리, 자연환경, 놀이터, 주차장, 마트, 커뮤니티를 위한 프로그램, 보육시설	
		위치특성	-병원, 근무지, 대중교통, 공원, 대형마트, 문화센터, 어린이 도서관, 영유아플라자, 성인용 시설, 조부모 주택	
	관미량 김성원 (2012)	자연환경	-주거환경, 주요한 위험시설, 자녀의 실제 주된 놀이 공간 가장 적절한 육아환경 선호도, 육아에 유용한 자연 환경, 자연환경의 안전성 정도, 자연환경의 만족 정도	
		가정문화환경	-자녀동행 외출 횟수, 외출 장소, 교육비 지출, 자녀의 책 보유량, 자녀 TV 시청시간, 자녀 별의 방법, 주양육자 여가방법, 가정문화 만족 정도	
		사회문화환경	-자녀가 선호하는 사회문화환경, 사회문화환경의 주거 거리 정도, 사회문화 프로그램 질적 정도, 위험 및 유해 환경 정도, 육아에 필요한 사회문화환경의 양, 사회문화 환경 만족 정도	
		교육기관 환경	-교육기관에서의 교육 프로그램, 교육기관의 건강과 먹거리, 가정과의 연계정도, 자녀에 대한 유아교사의 질, 자녀에게 가장 적절한 교육기관 환경 선호도, 교육문화행사의 정도, 교육기관 환경의 안전성 정도	
	유인창· 강부성· 박지연 (2014)	내부환경	-안전사고 예방, 소음, 공기환경, 범죄 예방	
		외부환경	-보행 안전, 인접성, 다양한 놀이 공간, 범죄 예방, 시설 안전성, 아동 관찰 공간, 운동 시설, 생태 조정	
		보육시설	-보육시설의 수, 아동 안전성, 인접성, 다양한 보육 시간, 학부모 커뮤니티, 아동 커뮤니티	
	육아친화 지표	천현숙 정 희남 김혜 승 하수장· 오민준 외(2013)	아동보육시설	-보육시설 제공률, 보육시설 이용률, 국공립보육시설 현원 정원
			아동교육시설	-지역아동센터 제공률, 유치원 제공률
가족지원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자수, 드림스타트센터 유무	
의료시설			-인구 천명당 산부인과진료 의원수, 소아과/가정의학과 진료 의원수	
육아지원 지표	김혜금 (2012)	지역사회 육아지원	-보육시설, 유치원, 사교육기관, 여가 공간/시설, 문화시설, 치안측면 안전성, 안전사고 측면 안전성	
		사회적 지원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 질문	

2) 아동친화지표

아동친화지표는 지역사회에 아동친화도시의 개념 도입과 디자인의 측면에서 제시되었다. 먼저 정경숙(2008)은 주거 환경에서 아동친화적 공간구성을 위해 아동의 주요생활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디자인지침을 제시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를 위해 아동환경을 '주거환경, 옥외 놀이환경, 보육환경'으로 나누어 디자인지침을 추출하고, 부모와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을 통해 추가적인 지침서를 수정·보완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주거 환경으로서 '아동실, 거실, 식당, 욕실, 현관, 출입구, 주차장, 도로'를 포함하고 있으며, 옥외놀이 환경으로서 '어린이 놀이터, 산책 및 운동공간, 물놀이 공간'을, 근린환경으로서 '보육시설, 교육시설, 놀이시설, 쇼핑 및 외식 공간, 도서관 등의 일반시설'을 범위로 설정하고 있다(정경숙, 2008: 192). 이와 더불어 주거 커뮤니티 구성을 위한 필요한 공간을 '교육공간, 놀이/운동공간, 휴식/친교공간/기타편익시설'(정경숙, 2008: 240)로 구분하여 살펴 본 점도 특징이다.

홍승애·이재연(2011)은 지역사회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아동·청소년의 인식과 욕구를 파악함으로써 아동 친화적인 도시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아동·청소년의 도시 및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인식을 성별, 연령, 지역에 따라 나누어 분석하였다. 서울시에 위치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유니세프가 개발한 '아동 친화 지역사회 척도'를 번안한 후 전문가의 검증을 받아 사용하였다. 아동 친화적인 도시를 위해 복지 제도를 넘어선 종합적인 도시계획, 아동 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도시계획, 아동·청소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홍승애·이재연(2014)은 아동·청소년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첫 단계로 아동·청소년이 인식하는 놀이공간, 녹지공간, 깨끗한 도시환경, 안전한 환경, 의료 서비스의 지역사회 환경을 평가하였다. 지역사회의 긍정적·부정적 요소를 탐색하여 아동·청소년이 살기 좋은 지역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구성 요소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서울시, 화성시, 대전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대상이었으며, 'Growing Up In Cities' 라는 유네스코의 프로젝트 매뉴얼을 바탕으로 개방형 질문지를 개발하였다. 조사 결과를 통하여 아동·청소년 친화적인 환경을 위해 향후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아동친화 지표와 관련한 연구에서 다른 대주제와 소주제의 내용은 다음 <표 IV-1-2>와 같다.

〈표 IV-1-2〉 아동친화 관련 지표

지표	출 처	내용	
		대주제	소주제
아동 친화지표	홍승애·이재연 (2011)	놀이와 여가	-야외놀이, 친구와의 교류, 녹지 공간, 문화행사 참가, 여가활동 참여, 신체장애아의 놀이 장소 조성
		지역사회 유대관계	-지역사회에서 아동을 대하는 태도, 지역주민간의 유대감, 외국인에 대한 차별, 지역사회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지역사회 정책 참여, 아동권리 홍보와 교육, 아동권리 이행
		안전과 보호	-교통체계, 유해환경, 안전한 통학로, 범죄 및 폭력, 아동 보호 기관 설치, 아동보호를 위한 지역주민의 노력
		학교생활	-학교의 물리적 환경, 학교에서 아동권리 교육, 남녀평등 정도, 환경보호 교육, 교과과정 만족도, 교사와의 신뢰 및 유대감 -또래간의 차별 및 폭력, 다문화 아동에 대한 차별정도, 학교 운영위원회 참여, 신체적 처벌정도, 아동의 의견 존중
		개인생활	-가정의 물리적 환경, 집주변 유해환경, 이웃 간의 관심 및 온정적 태도, 타인의 권리 존중, 종교 활동의 자유
	홍승애·이재연 (2014)	건강-사회적 서비스	-병원, 보건소, 응급시설, 상담기관, 안심 먹거리 제공
		안전과 보호환경	-경찰서, 소방서, CCTV, 등하교 도우미, 안전지킴이, 유해환경 정비, 유흥시설의 합법적 운영, 보안등 설치, 유해매체단속, 대중교통, 교통 환경
		교육적 환경	-도서관, 공교육, 학교시설, 학교, 진로직업 프로그램, 방과후 프로그램
		놀이와 여가환경	-놀이공간, 체육시설,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 자전거 전용 도로, 영화문화예술 공연 청소년 할인, 녹지 공간, 체험활동을 위한 아동청소년 시설
		유대감과 지속성	-어른의 존중과 배려, 어른들의 공중도덕
	정경숙 (2008)	환경적 수준	-공중화장실, 편의시설, 깨끗한 도시환경, 성인용 전단지 등이 정비된 거리, 편의시설, 특색 있는 지역사회 환경
		교육 공간	-어린이집, 유치원, 시간제 보육시설, 학교, 도서관/문고, 독서실, 문화센터, 학원
		놀이/운동 공간	-실외 놀이터, 실내 놀이터, 실외 운동 공간, 실내 운동 공간
		휴식/친교공간	-휴게 공간, 테마 광장, 친수물놀이 공간, 산책로, 어린이 공원
		기타편익시설	-의료시설, 상가, 대형마트

3) 가족친화지표

유재언·진미정(2013)은 서울시의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구성요소가 가족생애주기에 따라 생활환경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가족 지역사회 구성요소 지표를 편의서비스 인프라, 문화시설, 돌봄시설, 불안전, 환경오염, 사회자본으로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각 자치구의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구성 요소 현황을 파악하고 생활환경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다층모형으로 제시하여 서울시가 가족친화적 지역사회로서 갖는 특성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개인 및 지역사회의 요인을 도출하였다.

〈표 IV-1-3〉 가족친화 관련 지표

지표	출 처	내용	
		대주제	소주제
가족친화 지표	유재언· 진미정 (2013)	편의서비스 인프라	-구별 의료기관 사설학원 민원사무처리건 금융기관 횡단보도 공중위생업소 공공체육시설
		돌봄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문화시설	-박물관 공연장 영화관
		환경오염	-소음 및 진동대기오염수질오염 배출업소 단속
		불안전	-119 구조 활동
		사회자본	-자원봉사 기부경험

나. 육아지원환경 평가 영역 및 요소 추출

먼저 선행연구에서 선호된 육아지원환경을 추출하고, 각 요소별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영역을 크게 여섯 가지로 범주화하였다.

〈표 IV-1-4〉 선호된 육아지원환경 영역 및 요소

평가 영역	평가 요소	평가 요소													
		A	B	C	D	E	F	G	H	I	J	K	L	M	N
I. 영유아 교육·보 육 영역	평가인증 수입기관	√													
	유치원·보육시설 취원율	√													
	어린이집 (보육시설, 국공립, 공공형)	√	√	√			√			√	√	√	√	√	
	유치원 (국공립유치원)	√	√				√			√	√	√			√

(표 IV-14 계속)

평가 영역	평가 요소	평가 요소													
		A	B	C	D	E	F	G	H	I	J	K	L	M	N
	영유아 안전교육 (안전체험교실)	√													√
	교사 안전교육	√													
	시설 안전점검	√													
	영유아 상해보험 가입 기관	√													
	질 높은 급간식 제공 (교육기간 건강과 먹거리)	√			√	√									
	아동보호전문기관														√
	학대피해아동쉼터														√
	소방서								√		√				
	경찰서								√						

A: 장명림·이재연·김영옥·안동현·박수연·김홍희(2007), B: 이주림(2014)/이주림·구자훈(2013)
 C: 이주림·구자훈(2015a), D: 권미량·김성원(2012), E: 유인창·강부성·박지연(2014),
 F: 천현숙·정희남·김혜승·하수정(2013), G: 홍승애·이재연(2011), H: 홍승애·이재연(2014)
 I: 정경숙(2008), J: 유재연·진미정(2013), K: 김혜금(2012), L: 김정석 외(2013),
 M: 이소영·김은정·조성호·최인선(2015), N: 연구진 추가

다. 육아지원환경 평가 영역 및 요소의 적합성 검토

1) 전문가 설문 조사 결과

전문가 설문을 통해 살펴본 육아지원환경 평가 영역 및 요소의 적합성은 다음과 같다. 매우 적합은 7점 매우 부적합은 1점을 부여하도록 하였으며, 전문가들이 인지하는 본인의 학문분야에 따라 적합도 평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F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전체 평균 4.5미만인 평가요소는 제외하였는데, 예를 들어 유아교육진흥원,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워킹맘·워킹대디센터, 문화복합시설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학문분야에 따라 대체로 사회복지 전문가에게 낮은 평가를 받은 요소(어린이집 충족률, 시간제보육·시간연장보육·휴일보육·온종일 돌봄 인력규모, 신생아도우미 공급수준, 공동육아나눔터, 박물관, 소아청소년과 공급수준), 여성 및 기타 분야 전문가에게 낮은 평가를 받은 요소(어린이도서관, 장난감 도서관 공급수준)가 구별되었으나 대체로 전체 평균이 4.5이상을 선회하고 있어, 평가요소에서 제외하지 않았다.

〈표 IV-1-5〉 육아지원환경 평가 영역 및 요소에 대한 전문가 적합성 평가 결과

영역	평가요소	학문분야별 적합도 평가				전체 평균	표준 편차	F
		아동 가족	유아 교육	사회 복지	여성·기타			
I	유치원 공급수준	5.00	5.70	4.60	5.45	5.18	1.19	1.833
	국공립유치원 공급수준	5.46	6.00	4.70	5.55	5.43	1.86	.832
	어린이집 공급수준	5.08	5.40	5.10	5.09	5.16	1.30	.141
	어린이집 충족률	5.08	5.50	4.60	3.64	4.70	1.52	3.525*
	국공립 어린이집 공급수준	5.69	6.00	5.10	5.45	5.57	1.92	3.80
	국공립 어린이집 충족률	5.46	5.90	5.00	5.00	5.34	1.76	.599
	공공형 어린이집 공급수준	4.69	5.00	4.50	5.18	4.84	1.74	.313
	공공형 어린이집 충족률	4.92	5.00	4.60	4.00	4.64	1.82	6.76
II	지역아동센터 공급수준	4.62	4.50	4.18	4.27	4.40	1.66	1.161
	육아종합지원센터 공급수준	5.54	5.90	5.55	5.09	5.51	1.42	.554
	건강가정지원센터 공급수준	5.15	5.50	4.18	4.27	4.78	1.74	1.568
	유아교육진흥원 공급수준	5.50	5.70	2.91	3.82	4.36	1.80	7.362***
III	시간제보육 공급수준	6.00	5.00	4.82	4.82	5.31	1.46	1.984
	시간제보육 인력규모	6.15	5.50	3.73	5.18	5.18	1.51	7.807***
	시간연장보육 공급수준	5.69	5.50	5.00	4.82	5.27	1.47	.949
	시간연장보육 인력규모	5.85	5.60	3.91	5.18	5.16	1.52	4.507**
	24시간보육 공급수준	4.85	7.70	4.09	4.55	5.22	4.57	1.347
	24시간보육 인력규모	5.23	4.80	3.00	4.82	4.49	1.78	4.364**
	휴일보육 공급수준	5.46	4.90	4.09	4.73	4.82	1.60	1.533
	휴일보육 인력규모	5.62	4.90	3.00	5.00	4.67	1.62	8.359***
	온종일돌봄 공급수준	5.58	5.00	4.64	5.00	5.07	1.52	.761

(표 IV-1-5 계속)

영역	평가요소	학문분야별 적합도 평가				전체 평균	표준 편차	F
		아동 가족	유아 교육	사회 복지	여성· 기타			
	온종일돌봄 인력규모	6.00	5.00	3.55	5.45	5.02	1.60	7.002*
	산모신생아도우미 공급수준	5.85	4.80	4.45	4.37	4.91	1.70	2.150
	산모신생아도우미 인력규모	6.16	4.80	4.45	4.73	5.09	1.65	2.984*
	아이돌보미사업 인력규모	6.00	4.90	5.18	5.00	5.32	1.60	1.195
	공동육아나눔터 공급수준	5.69	4.70	4.90	4.09	4.89	1.62	2.139
	공동육아나눔터 인력규모	5.69	4.80	3.91	3.73	4.58	1.73	3.976*
	워킹맘·워킹대디 센터 공급수준	5.67	4.20	3.73	3.27	4.25	1.88	4.376**
IV	어린이놀이시설 공급수준	6.23	6.60	6.09	5.39	6.07	1.07	2.800
	어린이공원 공급수준	6.23	6.40	5.09	5.70	5.86	1.25	2.744
	어린이도서관 공급수준	6.38	6.20	6.09	5.00	5.93	1.29	3.031*
	장난감도서관 공급수준	6.38	5.70	5.27	5.00	5.62	1.19	3.660*
	문화복합시설	5.23	5.00	4.36	4.82	4.87	4.87	.940
	사회복지관	5.00	4.70	3.91	4.27	4.48	1.44	1.279
	박물관 공급수준	5.62	5.40	4.00	4.82	4.98	1.48	3.086*
	미술관 공급수준	5.54	5.20	4.09	4.73	4.91	1.47	2.289
	공원 공급수준	5.92	5.70	4.91	5.27	5.47	1.10	2.100
	보건소 공급수준	6.31	5.80	5.36	5.55	5.78	1.43	1.003
V	소아청소년과 (병의원) 공급수준	6.31	6.20	5.18	5.30	5.77	1.22	2.974*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기관 비율	6.38	6.30	4.55	5.55	5.76	1.50	5.249**
	어린이 전문 병원 공급수준	5.83	5.90	4.18	5.18	5.27	1.55	3.403*
	예방접종률	6.23	5.80	5.18	6.27	5.89	1.66	1.066
VI	보행자전용도로면적	6.15	6.30	4.82	5.18	5.62	1.57	2.628
	보행자우선도로면적	5.92	6.30	4.91	5.36	5.62	1.52	1.827

(표 IV-1-5 계속)

영역	평가요소	학문분야별 적합도 평가				전체 평균	표준 편차	F
		아동 가족	유아 교육	사회 복지	여성·기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진단 비율	6.31	6.10	5.55	5.64	5.91	1.38	.814
	안전체험교육(소방, 교통) 공급수준	5.85	5.60	5.55	4.45	5.38	1.54	1.945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공급수준	5.85	5.50	5.09	5.27	5.44	1.50	.549
	아동보호전문기관 공급수준	6.00	5.50	5.27	5.27	5.53	1.44	.682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인력 규모	6.00	5.60	4.82	5.09	5.40	1.51	1.481
	학대피해아동쉼터 수	5.77	5.89	4.91	4.45	5.25	1.54	2.367

주: 본 연구의 전문가 조사 결과임.

다음으로 육아지원환경의 평가 영역의 상대적 중요도를 7점 척도로 평가하게 한 결과, 전문가들은 'I 영역-교육·보육 영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고, 다음으로 'V 영역-보건·의료서비스 영역', 'VI 영역-안전관리·보호 영역' 순으로 중요하다고 평가하였다. 이상에 대해서는 학분 분야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나, 'III 영역-(맞춤형)돌봄지원 영역'과 'IV 영역-문화인프라 영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가들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IV-1-6> 육아지원환경 평가 영역의 상대적 중요도²¹⁾

영역	학문분야별 적합도 평가				전체 평균	표준 편차	F
	아동 가족	유아 교육	사회 복지	여성·기타			
I. 교육·보육지원	6.69	6.90	6.72	6.72	6.76	0.52	0.32
II. (종합)육아지원서비스 영역	6.46	6.20	5.54	5.45	5.93	1.07	2.75
III. (맞춤형)돌봄지원 영역	6.53	6.30	4.81	5.90	5.91	1.31	4.84**
IV. 문화인프라 영역	6.53	5.90	5.45	5.55	5.89	1.04	3.06*
V. 보건·의료서비스 영역	6.69	6.00	6.36	6.55	6.42	0.78	1.67
VI. 영유아 안전관리·보호 영역	6.69	5.70	6.36	6.27	6.29	0.94	2.30

21) 평가영역별 상대적 중요도 평균은 이후 전체 영역의 평가를 종합하는데 활용할 예정임. 전문가가 워크숍을 통해 결정할 것임.

2) 육아지원환경 평가 요소의 산출방식

전문가들의 설문 결과를 통해 자료를 취득하기 어렵고 다른 평가 요소와 중복 우려가 있다고 의견이 제시된 요소들도 공동연구진과의 협의를 통해 삭제하였다.

영유아 건강검진(보건소, 소아과에서 할 수 있어 중복), 예방접종률(시군구단위자료 없음),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률(자료는 있지만 공개할 수 없음), 아동보호 전문기관 담당인력규모(데이터 없음), 유치원 정원충족률(정원데이터 없음)

〈표 IV-1-7〉 육아지원환경 평가 영역 및 요소 중 추가 요소

평가영역	변경 전	변경 후	사유
I. 교육·보 육지원 (13개)	유치원 공급수준	유지	-
	국공립유치원 공급수준		
	어린이집 공급수준		
	어린이집 충족률		
	국공립 어린이집 공급수준		
	국공립 어린이집 충족률		
	공공형 어린이집 공급수준		
	공공형 어린이집 충족률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 및 유치원 공급수준	추가	특별한 요구를 지닌 영유아를 위한 기관 포함
	유치원 정교사 1급 비율		
	보육교사 1급 비율	삭제	유치원의 정원충족률 자료 없음
	유치원 정원충족률		
	국립유치원 정원충족률	유지	
	육아종합지원센터 공급수준		
건강가정지원센터 공급수준	삭제	저소득층의 방과후 프로그램에 집중	
지역아동센터			
유아교육진흥원			아동과 가정이 아닌 기관 지원임
III. (맞춤형) 돌봄지원 영역 (14개)	시간제보육 공급수준	유지	
	시간제보육 인력규모		
	시간연장보육 공급수준		
	시간연장보육 인력규모		
	24시간보육 공급수준		
	24시간보육 인력규모		
	휴일보육 공급수준		
	휴일보육 인력규모		
	온종일돌봄 공급수준		
	온종일돌봄 인력규모		

(표 IV-1-7 계속)

평가영역	변경 전	변경 후	사유
	공동육아나눔터 공급수준	추가	기관보다 인력규모가 적절함 자료구득 불가 사업 초기 단계로 모든 지역이 부족으로 판단 될 가능성 지님
	아이돌보미사업 인력규모		
	산모신생아도우미 인력규모		
	아이돌보미사업 기관 공급수준		
	산모신생아도우미 공급수준	삭제	
	공동육아나눔터 인력규모		
	워킹맘·워킹대디 센터 공급률		
IV. 문화인프라 영역 (7개)	어린이 놀이시설(놀이터)	유지	
	어린이 공원		
	어린이 도서관		
	장난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원		
문화복합시설 공급수준	삭제	이용연령의 다양성	
사회복지관 공급수준			
V. 보건의료서비스 영역 (4개)	보건소 공급수준	유지	보건소 서비스의 질에 대한 평가 중요 사업 초기 단계로 모든 지역이 부족으로 판단 될 가능성 지님 자료구득 불가
	소아청소년과(병의원) 공급수준		
	보건소 인력규모	추가	
	종합병원 공급수준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기관	삭제	
	어린이 전문 병원(달빛 어린이 병원 등)		
예방접종	삭제		
VI. 영유아 안전관리·보호 영역 (7개)	보행자전용 도로의 길이 또는 면적률	유지	
	안전체험교육 공급수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공급수준		
	영유아 교통사고 사망자율		
	영유아 교통사고 부상자율		
	아동보호기관 공급수준		
	학대피해아동쉼터 공급수준	삭제	
	보행자우선도로의 길이 또는 면적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진단 비율	삭제	자료구득 불가 육아지원과 관계 적음	
아동보호기관 담당 인력규모			

이와 반대로 전문가 의견 중 필요하다는 판단된 요소는 새롭게 추가하였다. 예를 들어 영유아교육·보육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보육교사 1급과 유치

원 정교사 1급 교사 수, 평가인증 어린이집 수, 장애아 전문 및 통합 어린이집이 새롭게 포함되었다.

이 외에 전문가들의 의견 중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재정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본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반영하지 않았다. 그 외에 초등 돌봄, 어린이 극장, 체육시설 등에 대한 요소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본 연구의 대상범위인 만 0-5세를 포함하지 않는 서비스와 어린이 극장과 같이 모든 지역에 보편적이지 않은 인프라는 본 평가에서 제외하였다.

라. 육아지원환경의 평가 영역 및 요소

전문가 설문과 연구진 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 육아지원환경 평가 영역 및 요소별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다.

1) 육아지원환경의 평가 영역

〈표 IV-1-8〉 육아지원환경의 평가영역

영역	지표	관련 정책 성과영역
I. 교육·보육 지원	어린이집, 국공립, 공공형 어린이집 공급수준/정원충족률	(보건복지부)공공성 확대
	유치원·국공립 유치원 공급수준	(교육부)유아교육 기회 확대 및 공공성 확보 직장유치원설립 확대 및 의무화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통합 유치원 및 어린이집	
	유치원 정교사 1급 비율	
	보육교사 1급 비율	
II. (종합)육아 지원서비스 영역	육아종합지원센터 공급수준	(보건복지부)전달체계개선
	건강가정지원센터 공급수준	(여성가족부)생애주기별 출산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생애주기별 저출산대책 자녀돌봄 지역인프라확대 (건강가정기본계획)
III. (맞춤형)돌 봄지원 영역	시간제보육지원	(보건복지부)수요자 맞춤 보육양육지원
	유치원돌봄(온종일 돌봄)	(교육부)수요자 중심 방과후 운영
	공동육아나눔터 공급수준	
	아이돌보미사업 공급수준, 인력규모 산모신생아도우미 인력규모	

(표 IV-1-8 계속)

영역	지표	관련 정책 성과영역
IV. 놀이문화 지원 (공공)	어린이도서관	'아동이 행복한 사회' 아동전용 도서관 확충(저출산3차)
	박물관/미술관	1차아동정책기본계획 문화여가기반조성
	어린이놀이시설	'아동이 행복한 사회' 문화체육시설프로그램 등 놀이 여건 확충 (전국놀이터 62,411개소, 아동친화적 추천 숲체험 프로그램 활성화(저출산3차))
	장난감도서관 공원, 어린이공원	
V. 보건·의료 서비스	보건소 공급수준, 인력규모	
	소아청소년과(병의원) 공급수준	
	종합병원 공급수준	
VI. 안전관리·보호	안전체험교실(안전체험관)	영유아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아동이 안전한 사회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3차)
	아동보호전문기관 공급수준	
	학대피해아동쉼터 공급수준	
	보행자전용·우선도로의 면적률	
	영유아 교통사고 사망자율, 부상자율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공급수준	

2) 평가 요소별 산출방식

전문가 워크숍 결과를 반영해, 각 요소별 수요자를 고려한 산식을 확정하였다. 그리고 부모설문조사를 위한 지역 선정 시 비교를 위한 주요 요소를 중심으로 상위지역과 하위지역을 선정하도록 하였다.

〈표 IV-1-9〉 육아지원환경 평가요소별 산출방식

영역	평가 요소	산출 방식	비고
I. 영유아 교육·보육 영역	전체 유치원 공급수준	$\frac{\text{유치원 현원}}{(\text{지역}) \text{ 만 3-5세 주민등록인구수}}$	*
	전체 어린이집 공급수준	$\frac{\text{어린이집 정원}}{(\text{지역}) \text{ 만 0-5세 주민등록인구수}}$	*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통합어린이집 공급수준	$\frac{\text{장애아 전문} + \text{통합어린이수} + (\text{유치원})\text{특수학급수}}{(\text{지역})\text{만 0-5세 주민등록인구수}} \times 100$	*
	국공립유치원공 급수준	$\frac{\text{국공립유치원 현원}}{(\text{지역}) \text{ 만 3-5세 주민등록인구수}} \times 100$	
	국공립어린이집 공급수준	$\frac{\text{국공립어린이집 정원}}{(\text{지역}) \text{ 만 0-5세 주민등록인구수}} \times 100$	

(표 IV-1-9 계속)

영역	평가 요소	산출 방식	비고
	유치원 정교사 1급 비율	$\frac{\text{유치원 정교사 1급 교사 수}}{\text{(지역) 만 3-5세 주민등록인구 수}} \times 100$	
	보육교사 1급 비율	$\frac{\text{보육교사 1급 교사 수}}{\text{(지역) 만 0-5세 주민등록인구 수}} \times 100$	
II. 육아지원 서비스 영역	육아종합지원센터 공급수준	$\frac{\text{육아종합지원센터 수} + \text{분소 수}}{\text{(지역) 만 0-5세 주민등록인구 수}} \times 10,000$	*
	건강가정지원센터 공급수준	$\frac{\text{건강가정지원센터 수}}{\text{(지역) 주민등록전체인구 수}} \times 10,000$	*
III. 돌봄 지원 영역	시간제보육 공급수준	$\frac{\text{시간제 보육 담당 반 개수 (인력 수)}}{\text{(지역) 양육수당수혜자 수}} \times 100$	*
	시간연장보육공 급수준	$\frac{\text{시간 연장 보육 운영 기관 개수}}{\text{(지역) 전체 어린이집 수}}$	*
	온종일돌봄 공급수준	$\frac{\text{아침} + \text{저녁} + \text{온종일 돌봄 운영 기관 수}}{\text{(지역) 전체 유치원 수}} \times 100$	*
	아이돌보미사업 공급수준	$\frac{\text{아이돌보미사업 인력 수}}{\text{(지역) 만 12세 미만 주민등록인구 수}} \times 100$	*
	공동육아나눔터 공급수준	$\frac{\text{공동육아나눔터 수}}{\text{(지역) 만 0-5세 주민등록인구 수}} \times 100$	*
	산모신생아도우 미 인력규모	$\frac{\text{산모신생아도우미 인력 수}}{\text{(지역) 만 0세 주민등록인구 수}} \times 100$	
	24시간보육 공급수준	$\frac{\text{24시간 보육 운영 기관 개수}}{\text{(지역) 전체 어린이집 수}}$	
	휴일보육 공급수준	$\frac{\text{휴일 보육 운영 기관 개수}}{\text{(지역) 전체 어린이집 수}}$	
	시간 연장 보육 인력규모	$\frac{\text{시간 연장 보육 담당 인력 수}}{\text{(지역) 여성경제활동인구 수} \times 0.356} \times 100$	
	휴일보육 인력규모	$\frac{\text{휴일 보육 담당 인력 수}}{\text{(지역) 여성경제활동인구 수} \times 0.356} \times 100$	
IV. 문화인 프라 영역	어린이놀이시설 공급수준	$\frac{\text{어린이놀이시설 수}}{\text{(지역) 만 0-12세 주민등록인구 수}} \times 100$	*
	어린이공원 공급수준	$\frac{\text{어린이공원 면적}}{\text{(지역) 만 0-12세 주민등록인구 수}}$	*
	어린이도서관 공급수준	$\frac{\text{어린이도서관 수}}{\text{(지역) 만 0-12세 주민등록인구 수}} \times 100$	*
	장난감도서관 공급수준	$\frac{\text{장난감도서관 수}}{\text{(지역) 만 0-5세 주민등록인구 수}} \times 10,000$	*

(표 IV-1-9 계속)

평가 영역	평가 요소	산출 방식	비고
	어린이 박물관(과학관) 공급수준	$\frac{\text{어린이박물관수}}{(\text{지역})\text{만0-12세주민등록인구수}} \times 100$	*
	어린이 미술관 공급수준	$\frac{\text{어린이미술관수}}{(\text{지역})\text{만0-12세주민등록수}} \times 100$	*
V. 보건·의료서비스 영역	보건소 공급수준	$\frac{\text{보건소수}}{(\text{지역})\text{주민등록전체인구수}} \times 100$	*
	소아청소년과(병의원)공급수준	$\frac{\text{소아청소년기관수}}{(\text{지역})\text{만0-18세주민등록인구수}} \times 100$	*
	종합병원 공급수준	$\frac{\text{종합병원수}}{(\text{지역})\text{주민등록전체인구수}} \times 100$	*
VI. 영유아 안전관리·보호 영역	보건소 인력규모	$\frac{\text{보건소 의사수}}{(\text{지역})\text{만0-5세주민등록인구수}} \times 100$	
	보행자전용도로의 면적	$\frac{\text{보행자전용+우선도로의 면적}}{(\text{지역})\text{도로전체면적}} \times 100$	*
	영유아 교통사고 사망자율	$\frac{\text{영유아 교통사고 사망자수}}{(\text{지역})\text{만0-5세 주민등록인구수}} \times 100$	*
	영유아 교통사고 부상자율	$\frac{\text{영유아 교통사고 부상자수}}{(\text{지역})\text{만0-5세 주민등록인구수}} \times 100$	*
	안전 체험 교육 공급수준	$\frac{\text{안전 체험 교육 기관(소방+교통+종합) 수}}{(\text{지역})\text{만0-5세 주민등록인구수}} \times 10,000$	*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공급수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수	
	아동보호전문기관 공급수준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학대피해아동쉼터 공급수준	학대피해아동쉼터 수	
파출소 공급수준	$\frac{\text{파출소 수}}{(\text{지역})\text{주민등록전체인구수}} \times 10000$		

주 1) 맞벌이 가구 추산은 2016년 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결과 중 영유아자녀를 둔 부모 비율인 35.6% 적용해 공식을 산정함.

2) 도에 속한 시의 경우, 해당 구의 데이터 구득이 불가능함. 각 구의 수준은 소속시와 동일하다고 가정함.

3) 영유아 교통사고 사망자율과 부상자율은 부적지표로 1* 로 계산함

4) 여성경제활동인구수는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의 시도 및 시군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데이터가 없는 각 구는 소속 시의 데이터를 구의 개수로 나눠 산정함.

5) *영역은 우수지역 선정기준에 포함된 요소임.

2. 영역별 육아지원환경 평가

육아지원환경을 수요자 대비 공급수준을 기초로 살펴보았을 때, 전반적인 공급수준이 낮게 평가되었다. 또한 공급수준의 최대와 최소값을 살펴보았을 때 그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 지역의 공급수준에 큰 격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영역별 육아지원환경의 평가점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육아교육·보육영역(I영역)에서 평가점수 1.0을 받은 지역은 소수이며, 전체 어린이집 공급수준 만이 상위 수준(1.0점+0.75점)이 44.0%로 나타났다. 그 외에 대부분은 0.50점과 0.25점에 많이 분포되어있었으며, 특히 국공립유치원과 국공립어린이집 공급수준, 그리고 유치원 정교사 1급과 보육교사 1급 비율은 대부분이 0.25점대로 공급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육아지원서비스영역(II영역) 역시 소수의 지역만이 1.0점을 받았으며, 1.0점과 0.75점으로 평가된 지역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10.3%, 건강가정지원센터가 18.7%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공급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 영역 역시 대부분 공급수준이 0.50과 0.25점 대로 낮았으며, 특히 육아종합지원센터는 69.4%가 0.25점대로 평가된 공급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맞춤형)돌봄지원 서비스영역(III영역)도 1.0점을 받은 지역은 소수였으나, 시간 연장 보육 인력규모는 1.0과 0.75점으로 평가된 부분이 48.4%로 가장 높은 편이었다. 특히 온종일돌봄의 공급수준은 대부분이 0.25점대로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문화인프라영역(IV영역)에서 어린이놀이시설 공급수준만이 1.0과 0.75점으로 평가된 부분이 38.9%로 높은 편이었으며, 대부분 공급수준이 0.50과 0.25로 낮게 평가되었다. 특히 어린이공원 공급수준, 어린이도서관 공급수준, 장난감 도서관 공급수준, 어린이 박물관(과학관 포함) 공급수준 그리고 어린이 미술관 공급수준은 0.25점대로 대부분이 낮았다.

보건·의료서비스영역(V영역)에서 소아청소년과(병의원) 공급수준만이 1.0과 0.75점으로 평가된 부분이 35.7%로 높은 편이었으며, 대부분 공급수준은 낮은 편이었는데, 특히 보건소 공급수준, 종합병원 공급수준 그리고 보건소 인력규모는 0.25점대로 대부분이 낮았다.

영유아안전관리·보호영역(VI영역)에서는 지역의 71.8%가 학대피해아동쉼터 공급수준에서는 1.0점을 받아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에 대부분은 공급수준이 낮

았다. 다만 1.0과 0.75점으로 평가된 부분을 보았을 때 파출소 공급수준이 16.7%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표 IV-2-1〉 육아지원환경 전체 영역별 평가 결과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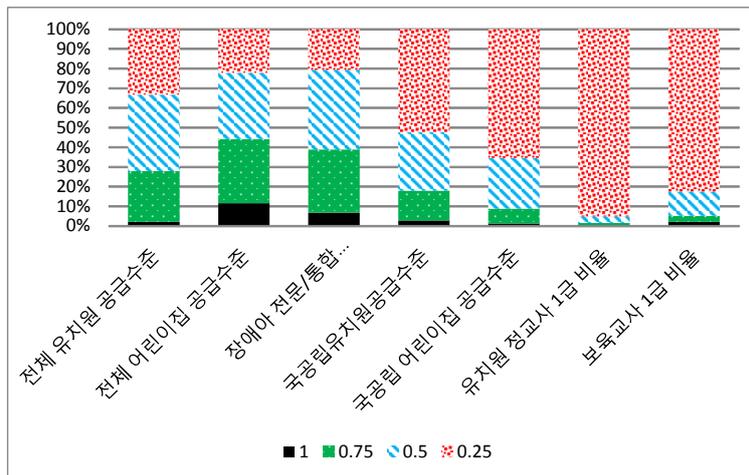
영역	요소별 공급수준	공급수준		평가점수			
		최대	최저	1.00	0.75	0.50	0.25
I	1 전체 유치원	1.083	0.209	2.0 (5)	25.8 (65)	38.9 (98)	33.3 (84)
	2 전체 어린이집	1.178	0.314	11.5 (29)	32.5 (82)	33.7 (85)	22.2 (56)
	3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 특수학급	0.333	0	6.7 (17)	32.1 (81)	40.5 (102)	20.6 (52)
	4 국공립유치원	221.756	0	2.8 (7)	15.1 (38)	29.8 (75)	52.4 (132)
	5 국공립 어린이집	101.830	0	1.2 (3)	7.5 (19)	25.8 (65)	65.5 (165)
	6 유치원 정교사 1급 비율	151.125	0.056	0.4 (1)	1.2 (3)	3.2 (8)	95.2 (240)
	7 보육교사 1급 비율	82.153	0.229	2.0 (5)	3.2 (8)	12.3 (31)	82.5 (208)
II	1 육아종합지원센터	9.801	0	1.2 (3)	9.1 (23)	20.2 (51)	69.4 (175)
	2 건강가정지원센터	0.417	0	4.4 (11)	14.3 (36)	36.1 (91)	45.2 (114)
III	1 시간제보육	65.924	24.516	4.8 (12)	28.2 (71)	38.9 (98)	28.2 (71)
	2 시간연장보육	27.0	6.143	7.1 (18)	19.4 (49)	36.9 (93)	36.5 (92)
	3 온종일돌봄	21.429	0	0.8 (2)	7.9 (20)	22.6 (57)	68.7 (173)
	4 아이돌보미사업	9.854	4.845	13.9 (35)	34.1 (86)	32.9 (83)	19.0 (48)
	5 공동육아나눔터	31.450	8.645	11.5 (29)	36.1 (91)	33.7 (85)	18.7 (47)
	6 산모신생아도우미 인력규모	26.136	0.435	4.0 (10)	8.3 (21)	40.1 (101)	47.6 (120)
	7 24시간보육	24.0	6.887	5.6 (14)	25.8 (65)	39.7 (100)	29.0 (73)
	8 휴일보육	27.286	7.250	6.3 (16)	21.4 (54)	38.5 (97)	33.7 (85)
	9 시간 연장 보육 인력규모	34.254	0.506	17.1 (43)	31.3 (79)	31.0 (78)	20.6 (52)
	10 휴일보육 인력규모	33.981	0.608	7.5 (19)	31.0 (78)	30.2 (76)	31.3 (79)
	11 24시간보육 인력규모	31.406	0.578	7.5 (19)	31.0 (78)	30.2 (76)	31.3 (79)
IV	1 어린이놀이시설	2.930	0.572	9.9 (25)	29.0 (73)	31.0 (78)	30.2 (76)
	2 어린이공원	27.970	0	0.4 (1)	6.0 (15)	28.2 (71)	65.5 (165)
	3 어린이도서관	0.045	0	1.6 (4)	6.7 (17)	22.6 (57)	69.0 (174)
	4 장난감 도서관	5.856	0	0.4 (1)	4.4 (11)	17.1 (43)	78.2 (197)
	5 어린이 박물관 (과학관 포함)	0.148	0.036	6.3 (16)	11.1 (28)	25.0 (63)	57.5 (145)
	6 어린이 미술관	0.121	0	2.8 (7)	7.5 (19)	13.1 (33)	76.6 (193)

(표 IV-2-1 계속)

영역	요소별 공급수준	공급수준		평가점수			
		최대	최저	1.00	0.75	0.50	0.25
V	1 보건소	0.207	0	2.0 (5)	14.7 (37)	19.4 (49)	63.9 (161)
	2 소아청소년과(병의원)	0.488	0	0.4 (1)	35.3 (89)	37.7 (95)	26.6 (67)
	3 종합병원	0.0066	0	4.0 (10)	15.5 (39)	30.2 (76)	50.4 (127)
	4 보건소 인력규모	6.688	0	1.2 (3)	8.3 (21)	17.5 (44)	73.0 (184)
VI	1 보행자전용도로의 면적	38.798	0	0.4 (1)	7.1 (18)	20.6 (52)	71.8 (181)
	2 영유아 교통사고 사망자율	0.113	0	2.0 (5)	0.8 (2)	8.3 (21)	88.9 (224)
	3 영유아 교통사고 부상자율	1.367	0	1.6 (4)	13.5 (34)	31.0 (78)	54.0 (136)
	4 안전 체험 교육	11.325	0	2.0 (5)	7.9 (20)	25.8 (65)	64.3 (162)
	5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2	0	0.4 (1)	19.0 (48)	80.6 (203)	
	6 아동보호전문기관 공급수준	2	0	2.0 (5)	14.3 (36)	83.7 (211)	
	7 학대피해아동쉼터 공급수준	2	0	2.4 (6)	71.8 (181)	5.8 (65)	
	8 파출소 공급수준	3.944	0	4.0 (10)	12.7 (32)	19.4 (49)	63.9 (161)

주. 음영색은 공급수를 살펴본 것으로 평가점수가 2, 1, 0임

가. 유아교육·보육 영역



[그림 IV-2-1] 유아교육·보육 영역의 요소별 평가점수 분포

유아교육·보육 영역에서는 252개 시·군·구를 중심으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공급수준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교원들의 자격수준에 대해 살펴보았다. 각 요소별 평가점수의 분포를 살펴보면 [그림 IV-2-1]과 같다.

1) 유치원

먼저 전국의 유치원 공급수준을 시·군·구로 나누어 살펴보면 [부록 그림 V-1]과 같다. 공급수준이 높아 평가수준 1.00에 해당하는 지역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등이었다. 유치원 공급수준 상위 20개 지역 중 가장 높은 공급수준을 보인 지역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로, 공급수준은 1.083이었다. 그 밖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0.786),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0.956),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0.874) 등 경기 지역의 공급수준이 잇따라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0.759), 경상북도 상주시(0.705) 순이었다.

유치원 공급수준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전라남도 강진군(0.209)으로 나타났으며, 그 밖에 충청북도 증평군(0.217), 제주도 서귀포시(0.218) 등이 있었다. 특히 충청북도 증평군, 경기도 광주시, 충청남도 당진시의 경우 군 지역(0.039) 및 중소도시(0.049)의 영유아 비율²²⁾과 비교하였을 때, 영유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하위 지역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볼 수 있다.

〈표 IV-2-2〉 시·군·구별 전체 유치원 공급수준 상·하위 지역

순 위	상위				하위			
	지역명	공급 수준	평가 점수	영유아 비율	지역명	공급 수준	평가 점수	영유아 비율
1	경기 수원시 팔달구	1.083	1.00	0.046	전남 강진군	0.209	0.25	0.043
2	경기 용인시 처인구	0.956	1.00	0.054	충북 증평군	0.217	0.25	0.066
3	경기 부천시 오정구	0.874	1.00	0.044	제주도 서귀포시	0.218	0.25	0.050
4	경기 성남시 수정구	0.786	1.00	0.045	강원 양구군	0.222	0.25	0.054
5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0.759	1.00	0.048	부산 중구	0.223	0.25	0.029
6	경북 상주시	0.705	0.75	0.035	전남 함평군	0.231	0.25	0.035
7	경기 오산시	0.701	0.75	0.080	서울 서초구	0.239	0.25	0.054
8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0.679	0.75	0.047	경기 광주시	0.262	0.25	0.066

22) 영유아 비율은 지역의 주민등록인구 대비 만 0~5세의 영유아 인구를 의미한다(부록 1 참조).

(표 IV-2-2 계속)

순위	상위				하위			
	지역명	공급 수준	평가 점수	영유아 비율	지역명	공급 수준	평가 점수	영유아 비율
9	경기 부천시 소사구	0.678	0.75	0.049	경기 성남시 분당구	0.263	0.25	0.056
10	부산 부산진구	0.658	0.75	0.043	경남 고성군	0.266	0.25	0.040
11	대전 대덕구	0.650	0.75	0.048	경기 양평군	0.270	0.25	0.042
12	경북 울릉군	0.650	0.75	0.031	충남 논산시	0.270	0.25	0.041
13	경북 구미시	0.647	0.75	0.069	경북 영덕군	0.278	0.25	0.031
14	부산 동구	0.647	0.75	0.030	충남 당진시	0.285	0.25	0.069
15	충남 천안시 동남구	0.636	0.75	0.059	경북 상주군	0.291	0.25	0.035
16	경기 안양시 만안구	0.633	0.75	0.048	서울 강북구	0.293	0.25	0.041
17	경기 성남시 중원구	0.633	0.75	0.048	강원 속초시	0.293	0.25	0.047
18	부산 동래구	0.633	0.75	0.043	경남 하동군	0.294	0.25	0.029
19	부산 사상구	0.627	0.75	0.046	서울 구로구	0.298	0.25	0.056
20	대구 북구	0.625	0.75	0.054	제주도 제주시	0.299	0.25	0.062

주: 유치원현원/(지역)만3-5세 주민등록인구 수

- 자료: 1)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kess.kedi.re.kr>, 검색일 2016년 6월 15일).
국·공·사립 유치원 현원(2015년 4월 기준).
2) 행정자치부(2016). 만3-5세 주민등록인구통계(2016년 5월 기준).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검색일 2016년 6월 7일).

2) 어린이집

다음으로 전국의 어린이집 공급수준은 평가점수가 1.00인 지역이 29개, 0.75인 지역이 82개, 0.50인 지역이 85개, 0.25인 지역이 56개이다. 어린이집 공급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1.178)로 나타났다. 용인시 처인구는 앞선 유치원 공급수준에서도 0.956으로 상위 지역에 포함되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공급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린이집 공급수준에서 상위를 차지한 지역은 대부분 중소도시와 군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어린이집 공급수준 하위 지역에서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가 공급수준 0.314로 가장 낮았다. 그 다음으로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가 0.336, 부산시 강서구가 0.377, 서울시 서초구가 0.397로 낮았다. 상위 지역에는 20개 지역 중 대도시 지역이 1개만 포함된 반면 하위 지역에는 대도시 지역이 총 8개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대도시 지역의 영유아 비율이 다른 지역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는 0.470으로 낮은 공급수준을 보였는데, 공급수준 상위 지역에 속하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와 비교하였을 때 그 차이가 크다. 이는 같은 지역 내에서도 구에 따라 공급수준이 불균형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므로 지역 내 균형 잡힌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IV-2-3〉 시·군·구별 전체 어린이집 공급수준 상·하위 지역

순 위	상위				하위			
	지역명	공급 수준	평가 점수	영유아 비율	지역명	공급 수준	평가 점수	영유아 비율
1	경기 용인시 처인구	1.178	1.00	0.054	경기 성남시 분당구	0.314	0.25	0.056
2	전남 화순군	1.174	1.00	0.039	경기 부천시 원미구	0.336	0.25	0.052
3	경기 수원시 팔달구	1.119	1.00	0.046	부산 강서구	0.377	0.25	0.094
4	충북 단양군	1.088	1.00	0.029	서울 서초구	0.397	0.25	0.054
5	충북 장주시 상당구	1.079	1.00	0.051	경북 울릉군	0.398	0.25	0.031
6	강원 횡성군	1.027	1.00	0.031	경기 수원시 영통구	0.422	0.25	0.072
7	충북 괴산군	1.026	1.00	0.023	서울 강남구	0.452	0.25	0.045
8	경기 포천시	1.006	1.00	0.044	경기 수원시 권선구	0.457	0.25	0.063
9	충남 논산시	0.992	1.00	0.041	부산 진구	0.458	0.25	0.043
10	경남 사천시	0.983	1.00	0.054	경기 고양시 덕양구	0.463	0.25	0.056
11	전북 남원시	0.979	1.00	0.041	경기 용인시 기흥구	0.470	0.25	0.073
12	경기 부천시 오정구	0.962	1.00	0.044	전남 장성군	0.470	0.25	0.048
13	대구 서구	0.961	1.00	0.036	인천 연수구	0.498	0.25	0.058
14	전남 목포시	0.955	1.00	0.057	전북 진안군	0.499	0.25	0.040
15	충남 서천군	0.949	1.00	0.031	경남 거제시	0.502	0.25	0.082
16	경기 양주시	0.943	1.00	0.058	서울 송파구	0.503	0.25	0.051
17	전북 정읍시	0.942	1.00	0.040	울산 중구	0.506	0.25	0.055
18	경기 안성시	0.937	1.00	0.057	전남 담양군	0.509	0.25	0.037
19	제주도 서귀포시	0.923	1.00	0.050	경기 안양시 동안구	0.510	0.25	0.052
20	전남 고흥군	0.922	1.00	0.025	부산 연제구	0.518	0.25	0.046

주: 어린이집정원/(지역)만0-5세 주민등록인구 수

자료: 1) 보건복지부(2016c). 보육통계(2015년 12월 기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검색일 2016년 5월 1일).

2) 행정자치부(2016). 만0-5세 주민등록인구통계(2016년 5월 기준).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검색일 2016년 6월 7일).

3) 특수학급 및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

다음으로 특수학급 및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공급수준을 살펴보면 [부록 그림 V-3]과 같다. 특수학급 및 장애아 전문/통합어린이집 공급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청북도 단양군으로, 공급수준은 0.333이다. 이는 비록 상위 지역 중 가

장 높은 수치이지만 일반 어린이집과 비교하였을 때는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상위 지역으로 판명된 지역 역시 더 많은 특수학급과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이 설치 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수학급 및 장애아 전문/통합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은 총 27개로, 그 중에서 가장 영유아 비율이 높은 지역은 충청북도 진천군(0.056)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강원도 양구군(0.054), 강원도 화천군(0.053), 강원도 태백시(0.044)가 그 뒤를 이었고 경상북도 고령군(0.040), 전라남도 보성군(0.039) 등 대부분 군 지역에 특수학급과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의 설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4〉 시·군·구별 특수학급 및 장애아 전문/통합어린이집 공급수준 상·하위 지역

순 위	상위				하위			
	지역명	공급 수준	평가 점수	영유아 비율	지역명	공급 수준	평가 점수	영유아 비율
1	충북 단양군	0.333	1.00	0.029	충북 진천군	0.000	0.25	0.056
2	전남 곡성군	0.210	1.00	0.031	강원 양구군	0.000	0.25	0.054
3	전북 장수군	0.209	1.00	0.041	강원 화천군	0.000	0.25	0.053
4	충남 금산군	0.197	1.00	0.037	강원 태백시	0.000	0.25	0.044
5	전북 진안군	0.190	1.00	0.040	경북 고령군	0.000	0.25	0.040
6	전북 순창군	0.186	1.00	0.037	전남 보성군	0.000	0.25	0.039
7	전남 강진군	0.181	1.00	0.043	경북 예천군	0.000	0.25	0.037
8	경북 영양군	0.177	1.00	0.032	인천 옹진군	0.000	0.25	0.036
9	제주도 서귀포시	0.166	1.00	0.050	경북 봉화군	0.000	0.25	0.036
10	충북 옥천군	0.156	1.00	0.037	경북 성주군	0.000	0.25	0.035
11	인천 강화군	0.154	1.00	0.029	전남 함평군	0.000	0.25	0.035
12	서울 양천구	0.153	1.00	0.045	전북 임실군	0.000	0.25	0.035
13	전북 고창군	0.153	1.00	0.033	경북 상주시	0.000	0.25	0.035
14	서울 종로구	0.151	1.00	0.034	전남 구례군	0.000	0.25	0.034
15	경남 함양군	0.149	1.00	0.033	경남 산청군	0.000	0.25	0.033
16	경남 하동군	0.137	1.00	0.029	강원 양양군	0.000	0.25	0.032
17	서울 중구	0.137	1.00	0.041	충북 보은군	0.000	0.25	0.032
18	경기 가평군	0.123	0.75	0.039	경남 의령군	0.000	0.25	0.031
19	서울 노원구	0.122	0.75	0.046	경북 울릉군	0.000	0.25	0.031
20	충북 영동군	0.121	0.75	0.033	경북 영덕군	0.000	0.25	0.031

주: $\{(\text{장애아전문어린이집 수} + \text{장애아통합어린이집 수} + (\text{유치원 특수학급수}) / (\text{지역 만0-5세 주민등록인구 수}) \times 100$

- 자료: 1) 보건복지부(2016e). 내부자료. 장애아전문 및 통합 어린이집(2015년 12월 기준).
 2) 유치원알리미 홈페이지(<http://e-childschoolinfo.moe.go.kr/main.do>, 검색일 2016년 7월 15일).
 3) 행정자치부(2016). 만0-5세 주민등록인구통계(2016년 5월 기준).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검색일 2016년 6월 7일).

4) 국공립 유치원

전국 시·군·구의 국공립 유치원 공급수준을 살펴보면 [부록 그림 V-4]와 같으며, 상위와 하위 지역의 점수 차로 인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산식에 추가적으로 100을 더 곱하여 공급수준을 산출하였다. 인천시 중구와 경기도 화성시, 그 밖에 충청북도에서는 충주시와 제천시, 충청남도에서는 천안시 서북구와 아산시가 평가점수 1.00으로 높은 공급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IV-2-5〉 시·군·구별 국공립 유치원 공급수준 상·하위 지역

순 위	상위				하위			
	지역명	공급 수준	평가 점수	영유아 비율	지역명	공급 수준	평가 점수	영유아 비율
1	충북 충주시	221.756	1.00	0.045	부산 중구	0.000	0.25	0.029
2	충북 청주시 청원구	208.333	1.00	0.075	인천 동구	1.500	0.25	0.051
3	인천 중구	207.557	1.00	0.060	경기 의왕시	1.525	0.25	0.056
4	충남 천안시 서북구	155.348	1.00	0.068	경기 연천군	1.586	0.25	0.049
5	충북 제천시	145.345	1.00	0.044	부산 해운대구	2.053	0.25	0.048
6	경기 화성시	131.270	1.00	0.084	충북 단양군	2.078	0.25	0.029
7	충남 아산시	124.153	1.00	0.079	충남 계룡시	2.132	0.25	0.061
8	충남 천안시 동남구	90.498	0.75	0.059	대구 중구	2.134	0.25	0.045
9	충북 청주시 상당구	81.762	0.75	0.051	서울 도봉구	2.536	0.25	0.043
10	충남 서산시	66.644	0.75	0.061	부산 동래구	2.831	0.25	0.043
11	광주 광산구	64.447	0.75	0.071	경기 안산시 단원구	2.859	0.25	0.050
12	충북 진천군	61.530	0.75	0.056	서울 강북구	2.909	0.25	0.041
13	경기 하남시	59.941	0.75	0.061	대구 서구	3.064	0.25	0.036
14	경기 수원시 팔달구	59.902	0.75	0.046	경기 여주시	3.147	0.25	0.048
15	경기 파주시	58.981	0.75	0.066	충북 보은군	3.294	0.25	0.032
16	경북 청송군	57.143	0.75	0.029	경기 과천시	3.318	0.25	0.045
17	경기 평택시	52.310	0.75	0.061	대구 수성구	3.693	0.25	0.041
18	충북 청주시 서원구	48.955	0.75	0.056	부산 사상구	3.743	0.25	0.046
19	전북 무주군	46.828	0.75	0.037	인천 남구	3.743	0.25	0.048
20	충남 홍성군	45.933	0.75	0.048	충북 괴산군	3.748	0.25	0.023

주: (국공립유치원현원/(지역)만3-5세 주민등록인구 수)×100

상·하위의 공급수준의 점수 차로 인한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로 ‘곱하기 100’을 하였음.

자료: 1)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kess.kedi.re.kr>, 검색일 2016년 6월 15일).
국·공립유치원 현원(2015년 4월 기준).

2) 행정자치부(2016). 만3-5세 주민등록인구통계(2016년 5월 기준).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검색일 2016년 6월 7일).

가장 높은 국공립 유치원 공급수준을 보이는 지역은 충청북도 충주시로, 공급수준은 221.756였다. 그러나 충주시는 상위를 기록한 다른 지역과 비교하였을 때 영유아 비율이 0.045로 다소 낮은 편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충주시를 비롯하여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208.333),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155.348), 충청북도 제천시(145.345) 등 상위 20개 지역 중 충청도 지역이 8개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상위 지역의 경우 영유아 비율이 비교적 높았는데, 경상북도 청송군과 전라북도 무주군은 예외적으로 영유아 비율이 각각 0.029, 0.037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 유치원 공급수준이 가장 낮은 지역은 부산시 중구로, 해당 지역에는 국공립 유치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중구의 영유아 비율은 0.029로 낮은 수준이지만, 국공립 유치원이 한 기관도 없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공급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 동구의 공급수준은 1.500, 경기도 의왕시의 공급수준은 1.525로 부산시 중구를 이어 공급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20개 지역 중 충청남도 계룡시의 경우 영유아 비율이 0.061로 가장 높아 해당 지역에도 국공립 유치원이 우선적으로 공급되어야 할 것으로 볼 수 있다.

5) 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의 전국 공급수준을 살펴보면 [부록 그림 V-5]과 같다. 국공립 유치원의 공급수준과 더불어 충청북도 충주시와 제천시가 높은 공급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 어린이집 공급수준 상위 지역 중 가장 높은 공급수준을 보이는 지역은 인천시 중구로, 공급수준은 101.830이었다. 공급수준 1위부터 4위에 해당하는 인천시 중구와 충청북도 제천시(68.048), 충청북도 충주시(59.867),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49.224)의 경우 국공립 유치원의 공급수준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공급이 균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은 총 6개로, 그 중 가장 높은 영유아 비율을 보이는 지역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이다. 해당 지역의 영유아 비율은 0.051로, 가장 먼저 국공립 어린이집의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충청남도 계룡시의 경우 공급수준은 0.381로 하위 지역 8위에 해당하지만 영유아 비율이 0.061로 비교적 높으며, 국공립 유치원 공급수준에서도 하위 7위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여 해당지역에는 특히 교육·보육 기관의 균형 있는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IV-2-6〉 시·군·구별 국공립 어린이집 공급수준 상·하위 지역

순위	상위				하위			
	지역명	공급 수준	평가 점수	영유아 비율	지역명	공급 수준	평가 점수	영유아 비율
1	인천 중구	101.830	1.00	0.060	경기안산시 상록구	0.000	0.25	0.051
2	충북 제천시	68.048	1.00	0.044	전남 강진군	0.000	0.25	0.043
3	충북 충주시	59.867	1.00	0.045	전남 담양군	0.000	0.25	0.037
4	충남 천안시 서북구	49.224	0.75	0.068	전북 임실군	0.000	0.25	0.035
5	강원 고성군	45.698	0.75	0.031	충남 부여군	0.000	0.25	0.031
6	경기 포천시	43.961	0.75	0.044	경북 군위군	0.000	0.25	0.024
7	충북 청주시 청원구	37.924	0.75	0.075	경기 여주시	0.262	0.25	0.048
8	서울 종로구	37.607	0.75	0.034	충남 계룡시	0.381	0.25	0.061
9	경기 화성시	35.544	0.75	0.084	대전 유성구	0.384	0.25	0.072
10	경기 성남시 분당구	34.699	0.75	0.056	충북 보은군	0.709	0.25	0.032
11	서울 중구	34.452	0.75	0.041	대구 수성구	0.794	0.25	0.041
12	강원 태백시	34.177	0.75	0.044	충북 영동군	0.918	0.25	0.033
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29.150	0.75	0.059	광주 동구	1.001	0.25	0.042
14	경북 영양군	28.799	0.75	0.032	대구 중구	1.106	0.25	0.045
15	충남 이산시	28.663	0.75	0.079	전북 전주시 완산구	1.231	0.25	0.052
16	경북 울릉군	28.662	0.75	0.031	대구 남구	1.313	0.25	0.036
17	경북 영덕군	28.465	0.75	0.031	대구 북구	1.326	0.25	0.054
18	강남 산청군	28.034	0.75	0.033	전남 해남군	1.338	0.25	0.048
19	서울 성동구	27.406	0.75	0.049	전북 전주시 덕진구	1.448	0.25	0.056
20	강원 정선군	26.547	0.75	0.034	충북 괴산군	1.462	0.25	0.023

주: (국공립어린이집정원/(지역)만0-5세 주민등록인구 수)×100

자료: 1) 보건복지부(2016c). 보육통계(2015년 12월 기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검색일 2016년 5월 1일).

2) 행정자치부(2016). 만0-5세 주민등록인구통계(2016년 5월 기준).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검색일 2016년 6월 7일).

6) 유치원 정교사 1급 비율

전국적으로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의 비율은 [부록 그림 V-6]과 같다. 이 중 평가수준 0.50 이상인 지역은 12개 이며 나머지는 모두 평가수준 0.25였다. 유치원 정교사 1급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상남도 남해군이다. 남해군의 공급수준은 151.125로 다른 지역과 비교하였을 때 그 수준이 매우 높다. 해당지역의 경우 영유아 비율이 0.024로 매우 낮지만, 2위인 경상남도 밀양시와 비교하였을 때 영유아 비율은 0.012 만큼 낮고 공급수준은 약 3배가 높기 때문에 유치원 정교사 1급의 비율이 실질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인다.

〈표 IV-2-7〉 시·군·구별 유치원 정교사 1급 비율 상·하위 지역

순 위	상위				하위			
	지역명	공급 수준	평가 점수	영유아 비율	지역명	공급 수준	평가 점수	영유아 비율
1	경남 남해군	151.125	1.00	0.024	경기 연천군	0.056	0.25	0.049
2	경남 밀양시	54.063	0.75	0.036	경남 거제시	0.121	0.25	0.082
3	경남 하동군	38.279	0.75	0.029	경기 의왕시	0.139	0.25	0.056
4	경남 의령군	35.597	0.75	0.031	부산 중구	0.147	0.25	0.029
5	충남 천안시 서북구	17.736	0.50	0.068	인천 동구	0.148	0.25	0.051
6	충북 청주시 청원구	13.088	0.50	0.075	경남 진주시	0.151	0.25	0.053
7	충북 충주시	11.377	0.50	0.045	경기 가평군	0.168	0.25	0.039
8	충남 천안시 동남구	10.332	0.50	0.059	경기 안산시 단원구	0.170	0.25	0.050
9	충북 제천시	9.483	0.50	0.044	충남 계룡시	0.184	0.25	0.061
10	인천 중구	9.320	0.50	0.060	경기 여주시	0.204	0.25	0.048
11	충남 아산시	8.378	0.50	0.079	충북 단양군	0.208	0.25	0.029
12	경기 화성시	7.024	0.50	0.084	광주 동구	0.216	0.25	0.042
13	충북 청주시 상당구	5.136	0.25	0.051	경남 창원시 의창구	0.233	0.25	0.053
14	대구 동구	4.298	0.25	0.054	충북 보은군	0.254	0.25	0.032
15	광주 광산구	4.217	0.25	0.071	충남 서천군	0.276	0.25	0.031
16	충남 서산시	4.186	0.25	0.061	경기 과천시	0.287	0.25	0.045
17	충북 진천군	4.162	0.25	0.056	경남 양산시	0.294	0.25	0.066
18	경기 수원시 팔달구	4.093	0.25	0.046	충북 영동군	0.305	0.25	0.033
19	경남 산청군	3.971	0.25	0.033	대구 중구	0.326	0.25	0.045
20	경기 평택시	3.960	0.25	0.061	경기 구리시	0.327	0.25	0.050

주: (유치원정교사 1급교사 수/(지역)만3-5세 주민등록인구 수)×100

자료: 1)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kess.chedi.re.kr>, 검색일 2016년 6월 15일). 유치원 정교사 1, 2급(2015년 4월 기준).

2) 행정자치부(2016). 만3-5세 주민등록인구통계(2016년 5월 기준).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검색일 2016년 6월 7일).

유치원 정교사 1급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도 연천군으로 공급수준은 0.056이며, 영유아 비율은 0.049로 군 지역 평균인 0.39보다 높은 수준이다. 유치원 공급수준(0.328)과 더불어 국공립유치원 공급수준(1.586) 역시 매우 낮은 수준임을 고려하였을 때 연천군에는 유치원의 공급과 더불어 정교사 1급 인력이 함께 배치될 필요가 있다. 유치원 정교사 1급 비율이 다음으로 낮은 지역은 경상남도 거제시이며 공급수준은 0.121로 연천군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영유아 비율은 0.082로 확연하게 높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으로 공급수준에 차이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보았을 때 4위를 기록한 부산시 중구의 경우 영유아 비율이 0.029로 매우 낮아 공급수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7) 보육교사 1급 비율

보육교사 1급 교사의 전국 시·군·구 별 비율은 [부록 그림 V-7]과 같다. 보육교사 1급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로 공급수준은 82.153이며,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55.882)도 경우 영유아 비율이 평균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공급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각 지역 보육교사 1급의 실질적 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충청도 지역의 천안시 서북구와 청주시 청원구, 충주시 등의 경우 유치원 정교사 1급의 비율을 비롯하여 유아교육 및 보육 영역의 대부분의 구분에서 공급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표 IV-2-8〉 시·군·구별 보육교사 1급 비율 상·하위 지역

순위	상위				하위			
	지역명	공급 수준	평가 점수	영유아 비율	지역명	공급 수준	평가 점수	영유아 비율
1	충남 천안시 서북구	82.153	1.00	0.068	충북 보은군	0.229	0.25	0.032
2	충북 충주시	73.836	1.00	0.045	대구 수성구	0.445	0.25	0.041
3	충북 청주시 청원구	55.882	1.00	0.075	충북 단양군	0.465	0.25	0.029
4	경기 포천시	52.043	1.00	0.044	충북 영동군	0.520	0.25	0.033
5	충남 아산시	49.778	1.00	0.079	충북 괴산군	0.551	0.25	0.023
6	인천 중구	39.216	0.75	0.060	경기 연천군	0.584	0.25	0.049
7	광주 광산구	37.454	0.75	0.071	인천 동구	0.595	0.25	0.051
8	충남 천안시 동남구	34.693	0.75	0.059	충남 계룡시	0.801	0.25	0.061
9	충북 제천시	26.611	0.75	0.044	경기 여주시	0.869	0.25	0.048
10	인천 계양구	23.457	0.75	0.050	경기 안성시	0.934	0.25	0.057
11	제주도 제주시	22.606	0.75	0.062	인천 강화군	0.950	0.25	0.029
12	경기 평택시	21.731	0.75	0.061	충남 공주시	0.953	0.25	0.037
13	대구 동구	19.587	0.75	0.054	충남 청양군	0.982	0.25	0.032
14	경기 하남시	17.907	0.50	0.061	충북 옥천군	0.989	0.25	0.037
15	충남 서산시	14.815	0.50	0.061	충남 서천군	1.000	0.25	0.031
16	충북 청주시 상당구	14.321	0.50	0.051	경기 의왕시	1.037	0.25	0.056
17	경기 용인시 수지구	11.685	0.50	0.065	인천 옹진군	1.283	0.25	0.036
18	경기 부천시 소사구	11.078	0.50	0.049	경기 가평군	1.386	0.25	0.039
19	대구 달성군	10.975	0.50	0.069	경기 구리시	1.500	0.25	0.050
20	충북 진천군	10.609	0.50	0.056	경기 양평군	1.565	0.25	0.042

주: (보육교사 1급교사 수/(지역)만0-5세 주민등록인구 수)×100

자료: 1) 보건복지부(2016c). 보육통계(2015년 12월 기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검색일 2016년 5월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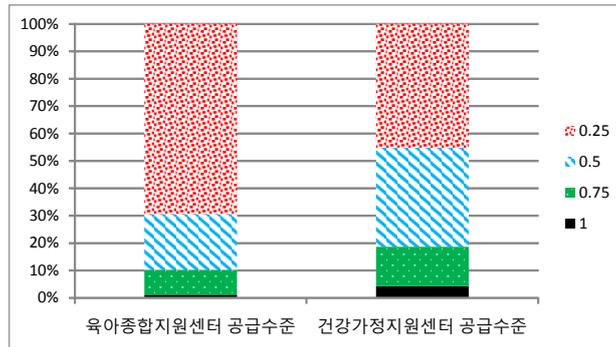
2) 행정자치부(2016). 만0-5세 주민등록인구통계(2016년 5월 기준).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검색일 2016년 6월 7일).

반면 보육교사 1급의 공급수준이 가장 낮은 지역은 충청북도 보은군으로 공급 수준은 0.229이다. 보은군의 영유아 비율이 0.032로 군 지역 평균(0.039)보다 다소 낮다는 사실을 고려하였을 때 실질적인 1급 보육교사는 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보육교사 1급의 비율이 두 번째로 낮은 지역은 대구시 수성구로, 공급수준은 0.445이며 영유아 비율은 0.041로 대도시 지역 평균(0.055)보다 낮다. 하위 지역 중 영유아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청남도 계룡시로, 높은 순위에 있는 지역과 더불어 보육교사 1급을 우선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종합)육아지원서비스 영역

제2영역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하여 시·군·구의 육아지원서비스 공급수준을 알아보았다. 각 요소별 평가점수의 분포를 살펴보면 [그림 IV-2-2]와 같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공급수준이 전반적으로 낮는데 반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공급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을 보여준다.



[그림 IV-2-2] 육아지원서비스 영역의 요소별 평가점수 분포

1) 육아종합지원센터

먼저 전국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공급수준은 [부록 그림 V-8]과 같다. 시·군·구별 육아종합지원센터 공급수준 상위 20개 지역은 <표 IV-2-9>와 같다. 만 0~5세의 인구 만명당 센터의 공급수준을 살펴본 결과 경기도 과천시가 9.801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서울시 중구(7.808), 경상남도 합천군(7.746), 전라북도 고창군(5.097), 서울시 종로구(3.787) 순으로 나타났다. 단, 합천군과 고창군은 영유아

비율이 각각 0.027, 0.033으로 전국 평균(0.048)보다 낮기 때문에 공급수준이 다소 높게 측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V-2-9〉 시·군·구별 육아종합지원센터 공급수준 상·하위 지역

순 위	상위				하위			
	지역명	공급 수준	평가 점수	영유아 비율	지역명	공급 수준	평가 점수	영유아 비율
1	경기 과천시	9.801	1.00	0.045	부산 강서구	0.000	0.25	0.094
2	서울 중구	7.808	1.00	0.041	경남 거제시	0.000	0.25	0.082
3	경남 합천군	7.746	1.00	0.027	충남 아산시	0.000	0.25	0.079
4	전북 고창군	5.097	0.75	0.033	충북 청주시 청원구	0.000	0.25	0.075
5	서울 종로구	3.787	0.75	0.034	울산 북구	0.000	0.25	0.074
6	충남 예산군	3.700	0.75	0.033	경기 용인시 기흥구	0.000	0.25	0.073
7	서울 성동구	3.418	0.75	0.049	경남 창원시 진해구	0.000	0.25	0.073
8	경북 문경시	3.225	0.75	0.041	울산 동구	0.000	0.25	0.071
9	경기 오산시	3.022	0.75	0.080	광주 광산구	0.000	0.25	0.071
10	경기 성남시 수정구	3.008	0.75	0.045	대구 달성군	0.000	0.25	0.069
11	경기 부천시 소사구	2.782	0.75	0.049	경북 구미시	0.000	0.25	0.069
12	서울 동작구	2.606	0.75	0.048	충남 당진시	0.000	0.25	0.069
13	경기 수원시 장안구	2.567	0.75	0.052	충북 증평군	0.000	0.25	0.066
14	경기 성남시 중원구	2.524	0.75	0.048	경남 양산시	0.000	0.25	0.066
15	경북 영천시	2.523	0.75	0.039	전남 광양시	0.000	0.25	0.065
16	경기 고양시 덕양구	2.401	0.75	0.056	경북 칠곡군	0.000	0.25	0.065
17	인천 계양구	2.390	0.75	0.050	경남 김해시	0.000	0.25	0.064
18	서울 강남구	2.317	0.75	0.045	제주도 제주시	0.000	0.25	0.062
19	경기 의왕시	2.265	0.75	0.056	경기 하남시	0.000	0.25	0.061
20	경기 수원시 권선구	2.224	0.75	0.063	충남 계룡시	0.000	0.25	0.061

주: $\{(\text{육아종합지원센터수} + \text{분소수}) / (\text{지역} \text{만} 0\text{-}5\text{세} \text{주민등록인구 수}) \times 10,000$

자료: 1)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central.childcare.go.kr>, 검색일 2016년 6월 13일).

2) 행정자치부(2016). 주민등록인구통계(2016년 5월 기준).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검색일 2016년 6월 7일).

시·군·구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는 곳은 총 157개 지역이며, 시·군·구별 육아종합지원센터 공급률 하위 지역 중 영유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20개 지역을 살펴보면 <표 IV-2-9>와 같다. 부산시 강서구의 영유아비율이 0.094로 가장 높았고 경상남도 거제시(0.082), 충청남도 아산시(0.079),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0.075), 울산시 북구(0.07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0.073),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0.073) 순으로 나타났다. 아래 지역들은 영유아의 비율이 높은 만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공급수준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 건강가정지원센터

시·군·구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공급수준은 [부록 그림 V-9]와 같다. 만 0~5세의 인구 만 명당 센터의 공급수준을 살펴본 결과 상위 20개 지역 중 서울시 중구를 제외한 19개 지역은 모두 군 지역으로 <표 IV-2-10>과 같다. 강원도 양구군이 0.41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전라남도 구례군(0.367), 경상남도 의령군(0.354), 강원도 고성군(0.341), 경상남도 산청군(0.278) 순으로 나타났다. 단, 경상북도 청도군, 강원도 영월군, 경상남도 하동군 등은 영유아 비율이 0.025, 0.029로 영유아 비율의 군 지역 평균(0.039)보다 낮으므로 공급수준이 다소 높게 측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V-2-10> 시·군·구별 건강가정지원센터 공급수준 상·하위 지역

순 위	상위				하위			
	지역명	공급 수준	평가 점수	영유아 비율	지역명	공급 수준	평가 점수	영유아 비율
1	강원 양구군	0.417	1.00	0.054	부산 강서구	0.000	0.25	0.094
2	전남 구례군	0.367	1.00	0.034	부산 기장군	0.000	0.25	0.084
3	경남 의령군	0.354	1.00	0.031	경남 거제시	0.000	0.25	0.082
4	강원 고성군	0.341	1.00	0.031	울산 북구	0.000	0.25	0.074
5	경남 산청군	0.278	1.00	0.033	경기 용인시 기흥구	0.000	0.25	0.073
6	강원 영월군	0.250	1.00	0.029	경남 창원시 진해구	0.000	0.25	0.073
7	경남 합양군	0.249	1.00	0.033	경기 수원시 영통구	0.000	0.25	0.072
8	전남 장흥군	0.243	1.00	0.033	울산 동구	0.000	0.25	0.071
9	경북 청도군	0.229	1.00	0.025	충북 증평군	0.000	0.25	0.066
10	경기 연천군	0.218	1.00	0.049	경남 양산시	0.000	0.25	0.066
11	전남 장성군	0.216	1.00	0.048	경기 수원시 권선구	0.000	0.25	0.063
12	경남 하동군	0.201	0.75	0.029	충북 청주시 흥덕구	0.000	0.25	0.062
13	전남 완도군	0.189	0.75	0.044	충남 계룡시	0.000	0.25	0.061
14	경북 의성군	0.184	0.75	0.025	충남 서산시	0.000	0.25	0.061
15	충남 서천군	0.177	0.75	0.031	충남 천안시 동남구	0.000	0.25	0.059
16	경기 가평군	0.161	0.75	0.039	전남 무안군	0.000	0.25	0.058
17	서울 중구	0.159	0.75	0.041	강원 인제군	0.000	0.25	0.057
18	충남 태안군	0.157	0.75	0.036	전남 영암군	0.000	0.25	0.057
19	경남 창녕군	0.157	0.75	0.036	경북 경산시	0.000	0.25	0.056
20	인천 강화군	0.148	0.75	0.029	전북 전주시 덕진구	0.000	0.25	0.056

주: (건강가정지원센터 수/(지역)주민등록 전체 인구 수)×10,000

자료: 1)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familynet.or.kr/index.jsp>, 검색일 2016년 6월 1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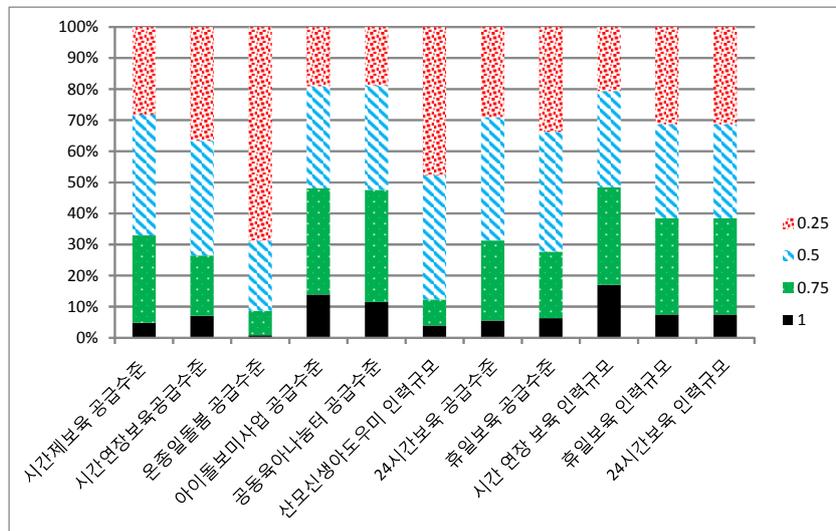
2) 행정자치부(2016). 주민등록인구통계(2016년 5월 기준).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검색일 2016년 6월 7일).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없는 곳은 총 104개 지역이며, 영유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20개 지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산시 강서구의 영유아 비율이 0.094로 가장 높았고, 부산시 기장군(0.084), 경상남도 거제시(0.082), 울산시 북구(0.074) 순으로 나타났다. 아래 지역들은 영유아의 비율이 높은 만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공급수준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부산시 강서구와 경상남도 거제시, 울산시 북구는 육아종합지원센터도 미설치된 지역으로 더욱 시급한 지역으로 볼 수 있다.

다. (맞춤형)돌봄지원 영역

(맞춤형)돌봄지원 영역에서는 시간제보육, 시간연장보육, 온종일돌봄, 아이돌보미 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산모신생아도우미 등 개개인의 요구에 맞는 육아지원의 공급수준을 살펴보았다. 각 요소별 평가점수의 분포를 살펴보면 [그림 IV-2-3]과 같다. 타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급수준의 높은 경향을 보이며, 특히 아이돌보미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시간연장보육 인력 규모는 약 50%의 지역이 1.0과 0.75점대로 평가됨을 알 수 있다.



[그림 IV-2-3] (맞춤형)돌봄지원 영역의 요소별 평가점수 분포

1) 시간제보육

전국 시간제보육 공급수준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부록 그림 V-10]과 같다. 시간제보육 공급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라북도 순창군으로 공급수준은 65.924이며 뒤를 이어 제주도 서귀포시(64.245), 전라남도 화순군(60.684), 경상남도 밀양시(60.393), 제주도 제주시(56.028)의 순서대로 공급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 경우 서귀포시와 제주시가 모두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순창군(0.037), 화순군(0.039), 밀양시(0.036)의 영유아 비율과 비교하였을 때, 제주도 서귀포시와 제주시가 각각 0.050, 0.062로 높아 공급수준에 비해 그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유아 비율이 0.029로 가장 낮은 충청북도 단양군의 경우 그 수가 상대적으로 작음에도 공급수준이 크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표 IV-2-11〉 시·군·구별 시간제보육 공급수준 상·하위 지역

순 위	상위				하위			
	지역명	공급 수준	평가 점수	영유아 비율	지역명	공급 수준	평가 점수	영유아 비율
1	전북 순창군	65.924	1.00	0.037	서울 서초구	24.516	0.25	0.054
2	제주도 서귀포시	64.245	1.00	0.050	서울 강남구	26.125	0.25	0.045
3	전남 화순군	60.684	1.00	0.039	경기 용인시 수지구	30.112	0.25	0.065
4	경남 밀양시	60.393	1.00	0.036	서울 용산구	31.051	0.25	0.044
5	제주도 제주시	56.028	1.00	0.062	경기 성남시 분당구	31.626	0.25	0.056
6	전남 진도군	55.908	1.00	0.039	서울 송파구	31.783	0.25	0.051
7	경기 연천군	55.507	1.00	0.049	부산 해운대구	32.725	0.25	0.048
8	전남 곡성군	55.056	1.00	0.031	인천 연수구	33.218	0.25	0.058
9	전북 남원시	54.799	1.00	0.041	충북 괴산군	33.645	0.25	0.023
10	전남 완도군	54.505	1.00	0.044	대구 수성구	34.042	0.25	0.041
11	전북 정읍시	54.362	1.00	0.040	경기 과천시	34.242	0.25	0.045
12	경북 성주군	53.803	1.00	0.035	서울 성동구	34.765	0.25	0.049
13	충북 단양군	52.590	0.75	0.029	경기 양평군	35.198	0.25	0.042
14	전남 해남군	52.505	0.75	0.048	서울 양천구	35.229	0.25	0.045
15	전남 담양군	52.351	0.75	0.037	부산 남구	35.246	0.25	0.043
16	경남 산청군	52.214	0.75	0.033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35.306	0.25	0.047
17	경기 포천시	52.074	0.75	0.044	광주 동구	35.490	0.25	0.042
18	전남 장성군	52.035	0.75	0.048	경기 용인시 기흥구	35.531	0.25	0.073
19	경북 예천군	51.867	0.75	0.037	부산 중구	35.690	0.25	0.029
20	전북 고창군	51.789	0.75	0.033	서울 동작구	35.703	0.25	0.048

주: (시간제보육담당반개수(인력수)/(지역)양육수당수혜자수)×100

자료: 1) 보건복지부(2016f). 내부자료. 시간제 보육 운영반 수(2015년 12월 기준).

2) 보건복지부(2016g). 내부자료. 양육수당수혜자 수(2015년 12월 기준).

전국 시·군·구 중 시간제보육 공급수준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이다. 서초구의 공급수준은 24.516이며, 그 밖에 서울시 강남구(26.125),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30.112), 서울시 용산구(31.05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31.626)의 순서대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제보육 공급수준이 낮은 지역은 충청북도 괴산군을 제외하면 모두 대도시 및 중소도시 지역이다. 그 중에서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경우 영유아 비율이 0.073으로 매우 높아 보다 많은 시간제보육 서비스가 공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시간연장보육

다음으로 시간연장보육의 전국 공급수준은 [부록 그림 V-11]과 같이 나타났다. 시간연장보육 공급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상북도 울릉군으로, 공급수준은 27.000이다. 그 밖에 전라남도 장성군(24.071), 전라북도 장수군(23.714), 전라남도 담양군(20.846), 부산시 강서구(20.000)가 순서대로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강서구의 경우 5위를 기록하였으나 영유아 비율이 0.094로 매우 높은 점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실질적인 공급은 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시간연장보육 공급수준이 낮은 순으로 20개의 지역을 살펴보면 <표 IV-2-12>와 같다.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의 공급수준이 6.143으로 가장 낮았으며, 다음으로 전라남도 화순군(6.309), 경기도 양주시(6.563), 경기도 의정부시(6.690), 경기도 동두천시(6.831)가 순서대로 공급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20개 지역 중 경상남도 김해시의 영유아 비율은 0.064로 가장 높아 해당 지역에 시간연장보육을 공급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표 IV-2-12> 시·군·구별 시간연장보육 공급수준 상·하위 지역

순위	상위				하위			
	지역명	공급 수준	평가 점수	영유아 비율	지역명	공급 수준	평가 점수	영유아 비율
1	경북 울릉군	27.000	1.00	0.031	경기 부천시 오정구	6.143	0.25	0.044
2	전남 장성군	24.071	1.00	0.048	전남 화순군	6.309	0.25	0.039
3	전북 장수군	23.714	1.00	0.041	경기 양주시	6.563	0.25	0.058
4	전남 담양군	20.846	1.00	0.037	경기 의정부시	6.690	0.25	0.050
5	부산 강서구	20.000	1.00	0.094	경기 동두천시	6.831	0.25	0.052
6	전북 진안군	19.750	1.00	0.040	경남 김해시	6.879	0.25	0.064
7	전남 영광군	19.474	1.00	0.045	경기 안성시	7.153	0.25	0.057

(표 IV-2-12 계속)

순위	상위				하위			
	지역명	공급 수준	평가 점수	영유아 비율	지역명	공급 수준	평가 점수	영유아 비율
8	전남 보성군	19.133	1.00	0.039	경기 포천시	7.266	0.25	0.044
9	충북 증평군	19.091	1.00	0.066	강원 원주시	7.274	0.25	0.053
10	서울 서초구	18.617	1.00	0.054	전북 남원시	7.478	0.25	0.041
11	전남 해남군	18.581	1.00	0.048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7.542	0.25	0.052
12	경기 부천시 원마구	18.251	1.00	0.052	인천 동구	7.770	0.25	0.051
13	충북 영동군	18.250	1.00	0.033	대전 서구	7.770	0.25	0.054
14	경북 군위군	17.800	1.00	0.024	충남 공주시	7.805	0.25	0.037
15	충북 보은군	17.778	1.00	0.032	대전 대덕구	7.895	0.25	0.048
16	경북 의성군	17.571	1.00	0.025	경남 밀양시	7.918	0.25	0.036
17	전남 나주시	17.269	1.00	0.053	서울 노원구	7.940	0.25	0.046
18	서울 강남구	17.172	1.00	0.045	경기 안산시 단원구	7.968	0.25	0.050
19	경남 합천군	16.846	0.75	0.027	충남 논산시	7.989	0.25	0.041
20	강원 정선군	16.769	0.75	0.034	전북 정읍시	8.022	0.25	0.040

주: 시간연장보육운영기관개수/(지역)전체어린이집수

자료: 보건복지부(2016c). 보육통계(2015년 12월 기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검색일 2016년 5월 1일).

3) 온종일돌봄

전국 온종일돌봄 사업의 공급수준은 [부록 그림 V-12]와 같다. 온종일돌봄 공급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상북도 청도군으로, 공급수준은 21.429이다. 청도군의 경우 영유아 비율이 0.025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돌봄운영기관 수는 보다 적을 수 있다. 그 밖에 전라북도 임실군(18.182), 경상북도 고령군(11.765), 충청북도 옥천군(11.111), 경상북도 문경시(10.256)가 순서대로 온종일돌봄 공급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의 경우 영유아 비율이 0.085로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인 운영기관의 수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시·군·구 중 온종일돌봄운영기관이 없는 지역은 102개 지역이다. 해당 지역을 영유아 비율이 높은 순으로 살펴보면 <표 IV-2-13>과 같다. 부산시 강서구가 영유아 비율 0.094로 온종일돌봄기관 공급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부산시 기장군(0.084), 경상남도 거제시(0.082), 경기도 김포시(0.07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0.072)의 순서로 영유아 비율이 크게 나타나 해당지역에 온종일돌봄기관의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IV-2-13〉 시·군·구별 온종일돌봄 공급수준 상·하위 지역

순 위	상위				하위			
	지역명	공급 수준	평가 점수	영유아 비율	지역명	공급 수준	평가 점수	영유아 비율
1	경북 청도군	21.429	1.00	0.025	부산 강서구	0.000	0.25	0.094
2	전북 임실군	18.182	1.00	0.035	부산 기장군	0.000	0.25	0.084
3	경북 고령군	11.765	0.75	0.040	경남 거제시	0.000	0.25	0.082
4	충북 옥천군	11.111	0.75	0.037	경기 김포시	0.000	0.25	0.074
5	경북 문경시	10.256	0.75	0.041	경기 수원시 영통구	0.000	0.25	0.072
6	충남 부여군	10.000	0.75	0.031	충남 당진시	0.000	0.25	0.069
7	경북 청송군	10.000	0.75	0.029	경기 광주시	0.000	0.25	0.066
8	강원 양양군	9.091	0.75	0.032	경남 양산시	0.000	0.25	0.066
9	세종시	8.333	0.75	0.035	경기 용인시 수지구	0.000	0.25	0.065
10	강원 정선군	7.692	0.75	0.034	경남 김해시	0.000	0.25	0.064
11	충남 태안군	7.407	0.75	0.036	제주도 제주시	0.000	0.25	0.062
12	충북 단양군	7.143	0.75	0.029	경기 하남시	0.000	0.25	0.061
13	울산 울주군	6.748	0.75	0.038	경기 군포시	0.000	0.25	0.061
14	강원 영월군	6.667	0.75	0.029	인천 중구	0.000	0.25	0.060
15	경북 상주시	6.522	0.75	0.035	경남 통영시	0.000	0.25	0.059
16	경북 포항시 북구	6.513	0.75	0.054	경기 양주시	0.000	0.25	0.058
17	경북 포항시 남구	6.276	0.75	0.054	강원 인제군	0.000	0.25	0.057
18	충북 영동군	6.250	0.75	0.033	충북 진천군	0.000	0.25	0.056
19	충남 청양군	5.882	0.75	0.032	경기 의왕시	0.000	0.25	0.056
20	강원 평창군	5.882	0.75	0.033	경기 성남시 분당구	0.000	0.25	0.056

주: {(아침+저녁+온종일돌봄운영기관수)/(지역)전체유치원수}×100

자료: 1) 유치원알리미 웹사이트(<http://e-childschoolinfo.moe.go.kr>, 검색일 2016년 7월 15일).

2)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kess.chedi.re.kr>, 검색일 2016년 6월 15일). 전체 유치원 수(2015년 4월 기준).

4) 아이돌보미사업

시·군·구별 아이돌보미사업의 공급수준 현황은 [부록 그림 V-13]과 같다. 아이돌보미사업의 공급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상남도 남해군이며 공급수준은 9.854이다. 강원도 영월군(9.777), 대구시 수성구(9.687), 충청북도 단양군(9.518), 충청남도 계룡시(9.364) 순으로 공급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해군의 경우 공급수준이 가장 높지만 영유아 비율이 0.024로 매우 낮아 실질적인 인력 수는 다소 적을 수 있다. 반면 계룡시의 경우 영유아 비율이 0.061로 다른 지역과 비교하였을 때 다소 높아 실질적으로는 아이돌보미사업 인력 수가 다소 많을 수 있다.

한편 부산시 강서구는 아이돌보미사업 공급률이 가장 낮는데, 공급수준이

4.845로 다른 지역과 비교하였을 때 현저히 낮다. 그러나 해당 지역의 경우 영유아 비율이 0.094로 매우 높아 공급수준이 비교적 낮게 나왔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대구시 중구(6.071), 울산시 동구(6.147), 부산시 기장군(6.181), 경상남도 거제시(6.253)의 순서대로 아이돌보미사업 공급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남도 거제시 역시 영유아 비율이 0.082로 매우 높아 상대적으로 공급수준이 낮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표 IV-2-14〉 시·군·구별 아이돌보미사업 공급수준 상·하위 지역

순위	상위				하위			
	지역명	공급 수준	평가 점수	영유아 비율	지역명	공급 수준	평가 점수	영유아 비율
1	경남 남해군	9.854	1.00	0.024	부산 강서구	4.845	0.25	0.094
2	강원 영월군	9.777	1.00	0.029	대구 중구	6.071	0.25	0.045
3	대구 수성구	9.687	1.00	0.041	울산 동구	6.147	0.25	0.071
4	충북 단양군	9.518	1.00	0.029	부산 기장군	6.181	0.25	0.084
5	충남 계룡시	9.364	1.00	0.061	경남 거제시	6.253	0.25	0.082
6	전남 고흥군	9.313	1.00	0.025	전남 신안군	6.295	0.25	0.081
7	강원 횡성군	9.285	1.00	0.081	전남 나주시	6.311	0.25	0.053
8	서울 양천구	9.237	1.00	0.045	충북 청주시 청원구	6.541	0.25	0.075
9	경남 거창군	9.199	1.00	0.041	충남 당진시	6.573	0.25	0.069
10	충북 보은군	9.091	1.00	0.082	전북 진안군	6.575	0.25	0.040
11	강원 양양군	9.082	1.00	0.082	서울 구로구	6.587	0.25	0.056
12	경남 합양군	9.058	1.00	0.083	경북 성주군	6.648	0.25	0.085
13	충남 서천군	9.014	1.00	0.081	서울 중구	6.676	0.25	0.041
14	경기 과천시	9.003	1.00	0.045	서울 영등포구	6.681	0.25	0.049
15	경남 의령군	8.968	1.00	0.081	경북 고령군	6.690	0.25	0.040
16	전남 곡성군	8.947	1.00	0.081	울산 북구	6.692	0.25	0.074
17	충북 괴산군	8.870	1.00	0.023	충남 아산시	6.700	0.25	0.079
18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8.867	1.00	0.052	경기 오산시	6.702	0.25	0.080
19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8.816	1.00	0.047	경기 하남시	6.731	0.25	0.061
20	전북 순창군	8.790	1.00	0.087	대구 달성군	6.740	0.25	0.069

주: (아이돌보미사업인력수/(지역)만12세미만주민등록인구 수)×100

자료: 1) 여성가족부(2016d). 내부자료. 아이돌보미 인력규모(2016년 2월 기준).

2) 행정자치부(2016). 만12세 미만 주민등록인구통계(2016년 5월 기준).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검색일 2016년 6월 7일).

5) 공동육아나눔터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의 공급수준은 [부록 그림 V-14]와 같다. 공동육아나눔터

의 공급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시 수성구이다. 수성구의 공급수준은 31.450이며 서울시 양천구(25.124), 충청남도 부여군(24.908), 경기도 과천시(24.763), 충청북도 단양군(24.501)이 순서대로 높은 공급률을 보인다.

부산시 강서구는 아이돌보미사업에 이어 공동육아나눔터 역시 8.645로 가장 낮은 공급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강서구의 높은 영유아 비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공동육아나눔터의 경우, 부산시 기장군(0.084), 강원도 화천군(0.053), 충청남도 당진시(0.069), 경상남도 거제시(0.082) 등의 영유아 비율이 비교적 높은 지역의 공급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해당 지역에 보다 많은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하는 것이 시급한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IV-2-15〉 시·군·구별 공동육아나눔터 공급수준 상위 지역

순위	상위				하위			
	지역명	공급 수준	평가 점수	영유아 비율	지역명	공급 수준	평가 점수	영유아 비율
1	대구 수성구	31.450	1.00	0.041	부산 강서구	8.645	0.25	0.094
2	서울 양천구	25.124	1.00	0.045	부산 기장군	12.106	0.25	0.084
3	충남 부여군	24.908	1.00	0.031	강원 화천군	12.500	0.25	0.053
4	경기 과천시	24.763	1.00	0.045	충남 당진시	12.682	0.25	0.069
5	충북 단양군	24.501	1.00	0.029	경남 거제시	12.801	0.25	0.082
6	전남 화순군	24.200	1.00	0.039	울산 동구	12.812	0.25	0.071
7	인천 강화군	24.166	1.00	0.029	충북 증평군	12.897	0.25	0.066
8	충남 계룡시	24.074	1.00	0.061	서울 구로구	13.161	0.25	0.056
9	충북 괴산군	23.982	1.00	0.023	충남 아산시	13.536	0.25	0.079
10	강원 평창군	23.847	1.00	0.033	대구 중구	13.625	0.25	0.045
11	강원 영월군	23.785	1.00	0.029	경북 성주군	13.754	0.25	0.035
12	강원 강릉시	23.714	1.00	0.042	서울 영등포구	13.926	0.25	0.049
13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23.579	1.00	0.052	전남 나주시	13.978	0.25	0.053
14	경남 남해군	23.566	1.00	0.024	전북 완주군	14.092	0.25	0.061
1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23.342	1.00	0.047	경기 광주시	14.120	0.25	0.066
16	서울 노원구	23.143	1.00	0.046	경기 연천군	14.121	0.25	0.049
17	광주 서구	22.974	1.00	0.050	경기 오산시	14.135	0.25	0.080
18	경남 하동군	22.940	1.00	0.029	대구 달성군	14.282	0.25	0.069
19	전남 고흥군	22.634	1.00	0.025	서울 성동구	14.377	0.25	0.049
20	전북 남원시	22.571	1.00	0.041	대구 동구	14.384	0.25	0.054

주: (공동육아나눔터수/(지역)만0-5세 주민등록인구 수)×100

자료: 1) 건강가정지원센터(<http://www.familynet.or.kr/index.jsp>, 검색일 2016년 6월 13일)

2) 행정자치부(2016). 주민등록인구통계(2016년 5월 기준).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검색일 2016년 6월 7일).

6) 산모신생아도우미 인력

전국 시·군·구의 산모신생아도우미 인력 현황은 [부록 그림 V-15]와 같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인력규모가 큰 지역은 제주도 서귀포시를 제외하고 모두 군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공급률이 가장 큰 지역은 경상북도 영양군으로, 공급수준은 26.136이다. 그 뒤로는 경상북도 군위군(20.619), 경상북도 영덕군(20.339), 경상북도 청송군(20.325), 경상북도 봉화군(19.231)으로 경상북도 지역의 산모신생아도우미 공급수준이 연달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16〉 시·군·구별 산모신생아도우미 인력규모 상·하위 지역

순 위	상위				하위			
	지역명	공급 수준	평가 점수	영유아 비율	지역명	공급 수준	평가 점수	영유아 비율
1	경북 영양군	26.136	1.00	0.032	충북 청주시 흥덕구	0.435	0.25	0.062
2	경북 군위군	20.619	1.00	0.024	충북 청주시 청원구	0.640	0.25	0.075
3	경북 영덕군	20.339	1.00	0.031	서울 강남구	0.902	0.25	0.045
4	경북 청송군	20.325	1.00	0.029	경기 용인시 기흥구	0.991	0.25	0.073
5	경북 봉화군	19.231	1.00	0.036	경북 성주군	1.034	0.25	0.035
6	강원 평창군	18.041	1.00	0.033	대구 중구	1.153	0.25	0.045
7	경남 의령군	17.886	1.00	0.031	경남 합천군	1.183	0.25	0.027
8	인천 옹진군	16.800	1.00	0.036	경기 용인시 수지구	1.340	0.25	0.065
9	전남 곡성군	15.646	1.00	0.031	서울 성동구	1.395	0.25	0.049
10	전남 고흥군	15.578	1.00	0.025	전남 무안군	1.406	0.25	0.038
11	경북 의성군	9.843	0.75	0.025	부산 영도구	1.431	0.25	0.033
12	전남 구례군	9.790	0.75	0.034	서울 영등포구	1.450	0.25	0.049
13	경남 남해군	9.459	0.75	0.024	대구 달성군	1.456	0.25	0.069
14	충남 청양군	8.633	0.75	0.032	전남 강진군	1.471	0.25	0.043
15	전남 완도군	8.540	0.75	0.044	강원 원주시	1.488	0.25	0.053
16	충북 단양군	8.333	0.75	0.029	경기 화성시	1.498	0.25	0.084
17	전북 진안군	7.538	0.75	0.040	부산 해운대구	1.505	0.25	0.048
18	충북 괴산군	7.407	0.75	0.023	부산 강서구	1.509	0.25	0.094
19	전남 장흥군	6.842	0.75	0.033	경기 수원시 영통구	1.518	0.25	0.072
20	제주도 서귀포시	6.816	0.75	0.050	서울 서초구	1.525	0.25	0.054

주: (산모신생아도우미 인력수/(지역)만0세 주민등록인구 수)×100

자료: 1) 보건복지부(2016h). 내부자료. 산모신생아도우미 인력규모(2016년 6월 기준).

2) 행정자치부(2016). 주민등록인구통계(2016년 5월 기준).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검색일 2016년 6월 7일).

반면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0.435),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0.640)는 산모

신생아도우미 인력규모가 연달아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서울시 강남구(0.902),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0.991), 경상북도 성주군(1.034) 등이 순서대로 인력규모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모신생아도우미 공급수준이 낮은 지역은 대체로 영유아 비율이 높았는데, 그 중에서도 부산시 강서구(0.094), 경기도 화성시(0.084) 등의 지역에 산모신생아도우미를 공급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7) 24시간보육

24시간보육의 전국 공급수준은 [부록 그림 V-16]과 같다. 24시간보육 공급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라북도 장수군으로, 공급수준은 24.000이었다. 장수군 다음으로 전라남도 장성군(23.429), 경상북도 울릉군(21.500), 충청북도 보은군(21.444), 서울시 서초구(20.699) 순서대로 24시간보육 공급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수준이 높은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20.699),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18.207), 서울시 강남구(17.525), 대구시 수성구(17.248)와 전라남도 여수시(16.453)를 제외하고 모두 군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시간보육 공급수준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로 공급수준은 6.887이다. 경기도 의정부시(7.059), 경상남도 김해시(7.299), 경기도 동두천시(7.452), 양주시(7.599)가 뒤를 이어 24시간보육 공급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20개 지역 중 충청남도 아산시(0.079)와 경기도 광주시(0.066)는 특히 영유아 비율이 높아 24시간보육 운영기관의 설치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표 IV-2-17〉 시·군·구별 24시간보육 공급수준 상·하위 지역

순위	상위				하위			
	지역명	공급 수준	평가 점수	영유아 비율	지역명	공급 수준	평가 점수	영유아 비율
1	전북 장수군	24.000	1.00	0.041	경기 부천시 오정구	6.887	0.25	0.044
2	전남 장성군	23.429	1.00	0.048	경기 의정부시	7.059	0.25	0.050
3	경북 울릉군	21.500	1.00	0.031	경남 김해시	7.299	0.25	0.064
4	충북 보은군	21.444	1.00	0.032	경기 동두천시	7.452	0.25	0.052
5	서울 서초구	20.699	1.00	0.054	경기 양주시	7.599	0.25	0.058
6	강원 정선군	20.615	1.00	0.034	전남 화순군	7.676	0.25	0.039
7	전남 담양군	20.077	1.00	0.037	경기 연천군	7.718	0.25	0.049
8	전북 진안군	19.875	1.00	0.040	대구 서구	7.754	0.25	0.036
9	전남 영광군	19.842	1.00	0.045	서울 금천구	7.914	0.25	0.042

(표 IV-2-17 계속)

순위	상위				하위			
	지역명	공급 수준	평가 점수	영유아 비율	지역명	공급 수준	평가 점수	영유아 비율
10	인천 강화군	19.227	1.00	0.029	경기 성남시 중원구	7.914	0.25	0.048
11	충북 영동군	18.988	1.00	0.033	경기 안성시	7.952	0.25	0.057
12	경기 부천시 원곡구	18.207	1.00	0.052	인천 동구	8.000	0.25	0.051
13	충북 증평군	17.545	1.00	0.066	대전 서구	8.031	0.25	0.054
14	서울 강남구	17.525	1.00	0.045	대전 대덕구	8.040	0.25	0.048
15	대구 수성구	17.248	0.75	0.041	경기 광주시	8.139	0.25	0.066
16	전남 진도군	16.667	0.75	0.039	서울 노원구	8.163	0.25	0.046
17	경남 합천군	16.615	0.75	0.027	강원 원주시	8.375	0.25	0.053
18	경남 하동군	16.563	0.75	0.029	경기 수원시 팔달구	8.456	0.25	0.046
19	전남 고흥군	16.455	0.75	0.025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8.471	0.25	0.052
20	전남 여수시	16.453	0.75	0.052	충남 아산시	8.520	0.25	0.079

주: 24시간보육 운영기관 개수/(지역)전체어린이집수

자료: 보건복지부(2016c). 보육통계(2015년 12월 기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검색일 2016년 5월 1일).

8) 휴일보육

휴일보육 공급수준의 전국 시·군·구 현황은 [부록 그림 V-17]과 같다. 휴일보육 공급수준이 높은 지역은 전라남도 장성군(27.286), 경상북도 울릉군(24.500), 전라북도 진안군(23.875), 경상북도 군위군(23.400), 전라북도 장수군(22.429) 등이 있었다. 그러나 휴일보육 공급수준의 경우 전체어린이집 수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상위 20개 지역 중 장성군, 울릉군, 진안군, 담양군, 전체 어린이집 공급수준에서 보성군 평가점수는 0.25로 최하위이다. 즉, 다른 지역에 비해 어린이집 수가 매우 적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지역들은 공급수준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어린이집이 함께 공급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휴일보육 공급수준이 낮은 하위 20지역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2-18>과 같다. 경기도 동두천시가 7.250으로 공급수준이 가장 낮았고,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7.320), 경기도 의정부시(7.476), 경상남도 김해시(7.646), 경기도 양주시(7.655) 등이 순서대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경기도 동두천시, 부천시 오정구, 전라남도 화순군의 경우 어린이집 공급수준이 각각 0.888, 0.962, 1.174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와 같이 어린이집 공급수준이 높은 지역의 휴일보육 공급수준은 다른 지역보다 다소 낮게 측정 되었을 수 있다.

〈표 IV-2-18〉 시·군·구별 휴일보육 공급수준 상·하위 지역

순위	상위				하위			
	지역명	공급 수준	평가 점수	영유아 비율	지역명	공급 수준	평가 점수	영유아 비율
1	전남 장성군	27.286	1.00	0.048	경기 동두천시	7.250	0.25	0.052
2	경북 울릉군	24.500	1.00	0.031	경기 부천시 오정구	7.320	0.25	0.044
3	전북 진안군	23.875	1.00	0.040	경기 의정부시	7.476	0.25	0.050
4	경북 군위군	23.400	1.00	0.024	경남 김해시	7.646	0.25	0.064
5	전북 장수군	22.429	1.00	0.041	경기 양주시	7.655	0.25	0.058
6	전남 영광군	22.263	1.00	0.045	전남 화순군	7.750	0.25	0.039
7	서울 서초구	20.206	1.00	0.054	경기 포천시	8.224	0.25	0.044
8	전남 담양군	20.000	1.00	0.037	경기 안성시	8.306	0.25	0.057
9	전남 보성군	19.867	1.00	0.039	대전 서구	8.337	0.25	0.054
10	경기 부천시 원미구	19.517	1.00	0.052	대전 대덕구	8.395	0.25	0.048
11	충북 보은군	19.444	1.00	0.032	강원 원주시	8.406	0.25	0.053
12	충북 영동군	19.313	1.00	0.033	서울 노원구	8.411	0.25	0.046
13	경남 합천군	19.000	1.00	0.027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8.533	0.25	0.052
14	경북 봉화군	18.750	1.00	0.036	인천 동구	8.662	0.25	0.051
15	부산 강서구	18.588	1.00	0.094	서울 금천구	8.741	0.25	0.042
16	전남 진도군	18.583	1.00	0.039	전북 전주시 완산구	8.769	0.25	0.052
17	전남 여수시	18.135	0.75	0.052	경기 연천군	8.821	0.25	0.049
18	서울 강남구	18.090	0.75	0.045	경기 수원시 팔달구	8.953	0.25	0.046
19	강원 정선군	18.077	0.75	0.034	전북 남원시	8.971	0.25	0.041
20	부산 중구	18.000	0.75	0.029	경남 함안군	8.985	0.25	0.050

주: 휴일보육 운영기관 개수/(지역)전체어린이집수
 자료: 보건복지부(2016c). 보육통계(2015년 12월 기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검색일 2016년 5월 1일).

9) 시간연장보육 인력규모

다음으로 시간연장보육 인력규모 현황은 [부록 그림 V-18]과 같다. 시간연장보육 인력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충청북도 음성군으로, 공급수준은 34.254이다. 그러나 음성군의 경우 여성경제활동 인구 수가 7,200명으로 매우 적어 공급수준이 높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27.517), 인천시 서구(25.617), 경기도 화성시(24.702), 인천시 남동구(24.168)의 순서대로 시간연장보육 인력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화성시의 경우 여성경제활동 인구 수가 104,400명으로 매우 많음에도 상위 지역에 속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시간연장보육 인력이 적절히 배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2-19〉 시·군·구별 시간연장보육 인력규모 상·하위 지역

순 위	상위				하위			
	지역명	공급 수준	영유아 비율	여성 경제활동 인구 수 ⁹⁾	지역명	공급 수준	영유아 비율	여성 경제활동 인구 수 ⁹⁾
1	충북 음성군	34,254	0.051	7,200	인천 옹진군	0.506	0.036	66,100
2	경기 용인시 기흥구	27,517	0.073	55,400	부산 중구	1.260	0.029	47,500
3	인천 서구	25,617	0.066	66,100	인천 강화군	1.568	0.029	66,100
4	경기 화성시	24,702	0.084	104,400	충북 괴산군	2.147	0.023	20,800
5	인천 남동구	24,168	0.060	66,100	서울 중구	2.508	0.041	94,400
6	경남 거제시	23,690	0.082	43,600	대구 중구	2.661	0.045	67,250
7	세종시	23,183	0.085	40,300	부산 동구	2.815	0.030	47,500
8	광주 광산구	22,130	0.071	66,600	인천 동구	2.822	0.051	66,100
9	경기 오산시	22,045	0.080	38,200	서울 종로구	2.886	0.034	94,400
10	대구 달서구	21,887	0.051	67,250	광주 동구	3.054	0.042	66,600
11	부산 해운대구	21,295	0.048	47,500	경북 의성군	3.132	0.025	17,400
12	경기 용인시 수지구	20,697	0.065	55,400	경북 군위군	3.491	0.024	7,000
13	울산 남구	20,462	0.051	40,800	부산 서구	3.625	0.032	47,500
14	경기 김포시	20,253	0.074	66,600	경남 남해군	3.634	0.024	14,300
15	인천 부평구	20,075	0.051	66,100	경북 청도군	3.966	0.025	13,600
16	충남 아산시	19,335	0.079	60,800	대구 남구	4.039	0.036	67,250
17	충남 천안시 서북구	19,296	0.068	60,150	부산 영도구	4.270	0.033	47,500
18	경기 수원시 영통구	19,146	0.072	61,650	경북 청송군	4.389	0.029	8,000
19	전남 광양시	18,994	0.065	25,600	전남 고흥군	4.484	0.025	20,800
20	대전 서구	18,971	0.054	68,200	경북 영양군	4.838	0.032	5,400

주: {시간연장보육담당인력수/((지역)여성경제활동인구수×35.6%)}×10,000

세종시의 경우 경제활동인구수를 조사한 2010년 모집단에 포함되지 않아 세종시에서 통계자료로 사용한 충남 연기군 수치로 대체하였음.

평가점수는 상하위 모두 동일하여 제시하지 않음.

자료: 1) 보건복지부(2016c). 보육통계(2015년 12월 기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검색일 2016년 5월 1일).

2) 통계청(2015). 지역별고용조사 시도 및 시·군 경제활동인구(2015년 하반기 기준).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검색일 2016년 5월 27일).

시간연장보육 인력규모가 가장 작은 지역은 인천시 옹진군으로, 공급수준은 0.506이다. 그 밖에 부산시 중구(1.260), 인천시 강화군(1.568), 충청북도 괴산군(2.147) 등이 시간연장보육 인력규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동구의 경우 하위 지역 중 영유아 비율이 가장 높아 시간연장보육의 공급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서울시 중구와 종로구의 경우 여성경제활동 인구수가 94,400명으로 많아 시간연장보육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0) 휴일보육 인력규모

휴일보육 인력규모의 전국 현황은 [부록 그림 V-19]와 같다. 휴일보육 인력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충청북도 음성군으로 공급수준은 33.981이며 시간연장보육 규모와 더불어 휴일보육 인력규모 역시 가장 크다. 그 다음으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28.785), 경기도 화성시(25.760), 인천시 서구(25.353), 세종시(24.744) 등이 휴일보육 인력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해당 지역들은 모두 음성군과 같이 시간연장보육 인력규모에서도 상위 5개 지역에 해당한다. 그 밖에 광주시 광산구, 대구시 달서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등 휴일보육 인력규모 상위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들 중 대다수가 시간연장보육 인력규모 상위 지역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경기도 화성시의 경우 여성경제활동 인구 수가 104,400명으로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력규모에서 상위 지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지역에 휴일보육 인력이 가장 적절히 배치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휴일보육 인력규모가 가장 작은 지역은 인천시 옹진군으로 공급수준은 0.608이며, 시간연장보육 인력과 더불어 휴일보육 인력 역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부산시 중구(1.384), 인천시 강화군(1.598), 충청북도 괴산군(2.228), 서울시 중구(2.470) 등 대부분의 지역이 시간연장보육 인력규모와 더불어 휴일보육 인력규모에서도 하위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지역 중 서울시 중구와 종로구의 경우 여성경제활동 인구 수가 94,400명으로, 보다 많은 인력이 배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IV-2-20〉 시·군·구별 휴일보육 인력규모 상·하위 지역

순위	상위				하위			
	지역명	공급수준	영유아비율	여성경제활동인구수 ²⁾	지역명	공급수준	영유아비율	여성경제활동인구수 ²⁾
1	충북 음성군	33.981	0.051	7,200	인천 옹진군	0.608	0.036	66,100
2	경기 용인시 기흥구	28.785	0.073	55,400	부산 중구	1.384	0.029	47,500
3	경기 화성시	25.760	0.084	104,400	인천 강화군	1.598	0.029	66,100
4	인천 서구	25.353	0.066	66,100	충북 괴산군	2.228	0.023	20,800
5	세종시	24.744	0.085	40,300	서울 중구	2.470	0.041	94,400
6	인천 남동구	23.976	0.060	66,100	대구 중구	2.560	0.045	67,250
7	광주 광산구	23.261	0.071	66,600	부산 동구	2.679	0.030	47,500
8	대구 달서구	22.977	0.051	67,250	인천 동구	2.779	0.051	66,100
9	경기 용인시 수지구	22.355	0.065	55,400	서울 종로구	2.818	0.034	94,400

(표 IV-2-20 계속)

순위	상위				하위			
	지역명	공급수준	영유아 비율	여성 경제활동 인구 수 ²⁾	지역명	공급수준	영유아 비율	여성 경제활동 인구 수 ²⁾
10	경남 거제시	22350	0.082	43,600	광주 동구	2914	0.042	66,600
11	경기 오산시	21876	0.080	38,200	경북 군위군	3411	0.024	7,000
12	부산 해운대구	21579	0.048	47,500	경북 의성군	3519	0.025	17,400
13	인천 부평구	20334	0.051	66,100	대구 남구	3930	0.036	67,250
14	울산 남구	19952	0.051	40,800	부산 서구	3986	0.032	47,500
15	경기 김포시	19874	0.074	66,600	경북 청송군	4108	0.029	8,000
16	충북 진천군	19579	0.056	10,000	전남 고흥군	4308	0.025	20,800
17	대전 서구	19416	0.054	68,200	경북 청도군	4461	0.025	13,600
18	충남 아산시	19381	0.079	60,800	경남 남해군	4616	0.024	14,300
19	충남 계룡시	19018	0.061	7,400	서울 금천구	4865	0.042	94,400
20	경기 수원시 영통구	18968	0.072	61,650	경북영양군	4890	0.032	5,400

주: {휴일보육 담당인력수/((지역)여성 경제활동 인구수×35.6%)}×10,000

세종시의 경우 경제활동인구수를 조사한 2010년 모집단에 포함되지 않아 세종시에서 통계자료로 사용한 지역별 고용조사의 충남 연기군 수치로 대체하였음.

평가점수는 상위 1~12위 1점, 13~20위 0.75점, 하위 20위 동일하였음.

자료: 1) 보건복지부(2016c). 보육통계(2015년 12월 기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검색일 2016년 5월 1일).

2) 통계청(2015). 지역별고용조사 시도 및 시군 경제활동인구(2015년 하반기 기준).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검색일 2016년 5월 27일).

11) 24시간보육 인력규모

24시간보육 인력규모의 전국 현황은 [부록 그림 V-20]과 같다. 24시간보육 인력규모가 큰 지역은 충북 음성군이다. 충북 음성군은 7,200명의 비교적 높지 않은 여성경제활동인구 수를 보유하고 있지만, 31,406의 가장 높은 24시간보육 인력 규모를 가진다. 두 번째로 공급수준이 높은 지역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27,583)이다. 그리고 경기 화성시(24,245), 인천 서구(23,594), 세종시(23,364)가 뒤를 이었다.

24시간보육 인력규모가 낮은 지역은 인천 옹진군으로 24시간보육 인력규모는 0.578이다. 66,100명의 여성경제활동 인구를 고려하였을 때, 24시간보육의 인력이 추가적으로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인천 옹진군을 이어 부산 중구(1,159), 인천 강화군(1,759), 대구 중구(2,059), 서울 중구(2,145)가 24시간보육 인력이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표 IV-2-21〉 시·군·구별 24시간보육 인력규모 상·하위 지역

순위	상위				하위			
	지역명	공급 수준	영유아 비율	여성 경제활동 인구 수 ²⁾	지역명	공급 수준	영유아 비율	여성 경제활동 인구 수 ²⁾
1	충북 음성군	31,406	0.051	7,200	인천 옹진군	0,578	0.036	66,100
2	경기 용인시 기흥구	27,583	0.073	55,400	부산 중구	1,159	0.029	47,500
3	경기 화성시	24,245	0.084	104,400	인천 강화군	1,759	0.029	66,100
4	인천 서구	23,594	0.066	66,100	대구 중구	2,059	0.045	67,250
5	세종시	23,364	0.085	40,800	서울 중구	2,145	0.041	94,400
6	광주 광산구	22,615	0.071	66,600	광주 동구	2,417	0.042	66,600
7	남동구	22,510	0.060	66,100	부산 동구	2,507	0.030	47,500
8	경기 용인시 수지구	22,168	0.065	55,400	인천 동구	2,575	0.051	66,100
9	대구 달서구	21,954	0.051	67,250	충북 괴산군	2,768	0.023	20,800
10	부산 해운대구	20,958	0.048	47,500	서울 종로구	2,922	0.034	94,400
11	울산 남구	20,393	0.051	40,800	경북 의성군	3,277	0.025	17,400
12	경기 오산시	20,332	0.080	38,200	경북 군위군	3,692	0.024	7,000
13	충남 계룡시	20,080	0.061	74,000	부산 서구	3,791	0.032	47,500
14	경남 거제시	19,689	0.082	43,600	대구 남구	3,855	0.036	67,250
15	인천 부평구	19,476	0.051	66,100	경북 청도군	3,862	0.025	13,600
16	충북 진천군	18,596	0.056	10,000	경남 산청군	4,147	0.033	10,500
17	경기 수원시 영통구	18,535	0.072	61,650	전남 고흥군	4,213	0.025	20,800
18	인천 서구	18,452	0.054	68,200	부산 영도구	4,299	0.033	47,500
19	경기 김포시	18,393	0.074	66,600	경북 영양군	4,370	0.032	5,400
20	충남 천안시 서북구	17,755	0.068	60,150	서울 금천구	4,404	0.042	94,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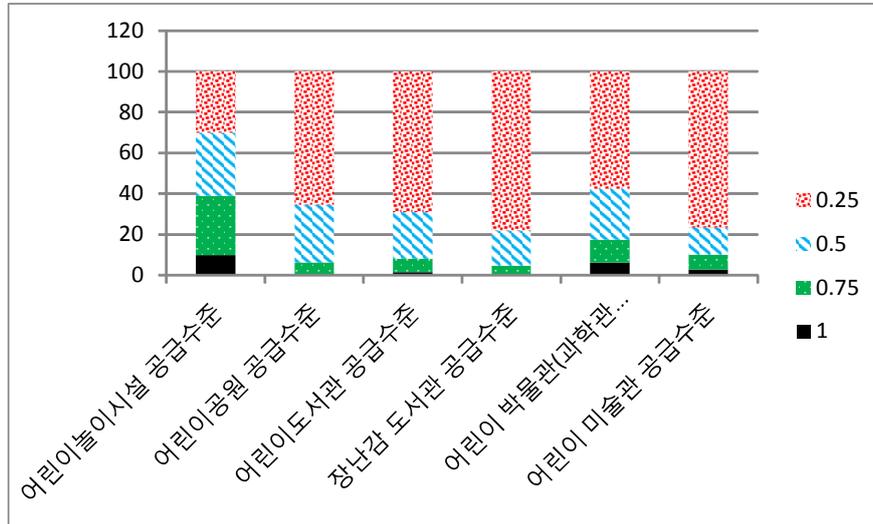
주: {24시간보육 담당인력수/((지역)여성 경제활동 인구수(만50세미만)×35.6%)}×100
 세종시의 경우 여성경제활동인구수를 조사한 2010년 모집단에 포함되지 않아 세종시에서 통계자료로 사용한 지역별 고용조사의 충남 연기군 수치로 대체하였음.
 평가점수는 상위 1~19위 1점, 20위 0.75점, 하위 20위 동일하였음.

자료: 1) 보건복지부(2016c). 보육통계(2015년 12월 기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검색일 2016년 5월 1일).
 2) 통계청(2015). 지역별고용조사 시도 및 시·군 경제활동인구(2015년 하반기 기준).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검색일 2016년 5월 27일).

라. 문화인프라 영역

문화인프라 영역에서는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도서관, 장난감도서관, 어린이 박물관 및 어린이 미술관의 공급수준을 살펴보았다. 각 요소별 평가점수의 분포를 살펴보면 [그림 IV-2-4]와 같다. 어린이놀이시설의 공급수준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모든 요소에서 공급수준이 낮게 평가되었으며, 특히 장

난감 도서관의 공급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2-4] 문화인프라 영역의 요소별 평가점수 분포

1) 어린이 놀이시설

전국 어린이 놀이시설 공급수준 현황은 [부록 그림 V-21]과 같다. 어린이 놀이시설 공급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시 옹진군이다. 옹진군의 어린이 놀이시설 공급수준은 2.930이며, 그 다음 강원도 양양군(2.901), 강원도 횡성군(2.356), 강원도 고성군(2.308), 충청북도 단양군(2.303)등 군 지역이 잇따라 공급수준 상위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20개 지역 중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강원도 태백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를 제외하면 나머지 지역은 모두 군 지역이다.

어린이 놀이시설 공급률 하위 지역에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0.572),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0.595), 서울시 광진구(0.643),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0.736), 서울시 강북구(0.741) 등이 있었다. 이 중 어린이 놀이시설 공급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이다. 앞서 상위 20개 지역은 대부분 군 지역임과 달리 하위 20개 지역에는 군 지역이 없고 모두 대도시 및 중소도시 지역이다. 대도시 및 중소도시의 경우 영유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시급히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IV-2-22〉 시·군·구별 어린이놀이시설 공급수준 상·하위 지역

순위	상위				하위			
	지역명	공급 수준	평가 점수	영유아 비율	지역명	공급 수준	평가 점수	영유아 비율
1	인천 옹진군	2980	1.00	0.036	경기 상암시 분당구	0.572	0.25	0.056
2	강원 양양군	2901	1.00	0.032	경기 부천시 원미구	0.595	0.25	0.052
3	강원 횡성군	2356	1.00	0.031	서울 광진구	0.643	0.25	0.043
4	강원 고성군	2308	1.00	0.031	경기 수원시 영통구	0.736	0.25	0.072
5	충북 단양군	2303	1.00	0.029	서울 강북구	0.741	0.25	0.041
6	강원 정선군	2289	1.00	0.034	서울 은평구	0.752	0.25	0.047
7	강원 영월군	2233	1.00	0.029	서울 강동구	0.760	0.25	0.048
8	전북 임실군	2223	1.00	0.035	서울 송파구	0.771	0.25	0.051
9	경북 울릉군	2216	1.00	0.031	경기 용인시 기흥구	0.804	0.25	0.073
10	충북 괴산군	2206	1.00	0.023	경기 안산시 상록구	0.808	0.25	0.051
11	강원 평창군	2189	1.00	0.033	서울 관악구	0.829	0.25	0.040
12	전남 신안군	2175	1.00	0.031	부산 남구	0.836	0.25	0.043
13	전북 진안군	2100	1.00	0.040	부산 서구	0.837	0.25	0.032
14	전북 순창군	2023	1.00	0.037	경기 광주시	0.837	0.25	0.066
15	경북 영양군	2021	1.00	0.032	서울 동작구	0.842	0.25	0.048
16	경기 용인시 처안구	2002	1.00	0.054	경기 광명시	0.846	0.25	0.059
17	강원 태백시	1972	1.00	0.044	경기 수원시 권선구	0.852	0.25	0.063
18	충남 서천군	1963	1.00	0.031	서울 중랑구	0.855	0.25	0.045
19	경기 수원시 팔달구	1949	1.00	0.046	인천 남구	0.855	0.25	0.048
20	경북 봉화군	1945	1.00	0.036	서울 서초구	0.874	0.25	0.054

주: (어린이놀이시설 수/(지역)만0-12세 주민등록인구 수)×100
 자료: 1) 국민안전처(2016). 내부자료. 어린이 놀이시설 수(2016년 5월 기준).
 2) 행정자치부(2016). 주민등록인구현황(2016년 5월 기준).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검색일 2016년 6월 7일).

2) 어린이공원

전국 시·군·구별 어린이공원 공급수준은 [부록 그림 V-22]와 같다. 강원도 양구군의 어린이공원 공급수준은 27.970으로, 다른 지역의 공급수준과 비교하였을 때 현저히 높다. 그 다음으로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9.875), 강원도 영월군(8.418), 강원도 정선군(7.949), 충청북도 단양군(7.219) 등이 뒤를 이어 공급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양구군은 영유아 비율 역시 군 지역 평균 비율보다 높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린이공원의 면적이 넓을 것으로 보인다.

〈표 IV-2-23〉 시·군·구별 어린이공원 공급수준 상·하위 지역

순 위	상위				하위			
	지역명	공급 수준	평가 점수	영유아 비율	지역명	공급 수준	평가 점수	영유아 비율
1	강원 양구군	27.970	1.00	0.054	충북 청주시 청원구	0.000	0.25	0.075
2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9.875	0.75	0.048	경남 창원시 진해구	0.000	0.25	0.073
3	강원 영월군	8.418	0.75	0.029	경기 수원시 영통구	0.000	0.25	0.072
4	강원 정선군	7.949	0.75	0.034	충남 천안시 서북구	0.000	0.25	0.068
5	충북 단양군	7.219	0.75	0.029	경기 광주시	0.000	0.25	0.066
6	충남 천안시 동남구	6.676	0.75	0.059	경기 용인시 수지구	0.000	0.25	0.065
7	경북 문경시	6.663	0.75	0.041	충북 청주시 흥덕구	0.000	0.25	0.062
8	강원 횡성군	6.536	0.75	0.031	전남 무안군	0.000	0.25	0.058
9	충남 금산군	6.466	0.75	0.037	전남 영암군	0.000	0.25	0.057
10	강원 삼척시	5.848	0.75	0.039	충북 진천군	0.000	0.25	0.056
11	경기 부천시 소사구	5.771	0.75	0.049	충북 청주시 서원구	0.000	0.25	0.056
12	충북 청주시 상당구	5.305	0.75	0.051	경남 창원시 성산구	0.000	0.25	0.054
13	전남 광양시	5.181	0.75	0.065	경북 포항시 북구	0.000	0.25	0.054
14	경북 의성군	5.165	0.75	0.025	경기 용인시 처인구	0.000	0.25	0.054
15	경북 포항시 남구	4.784	0.75	0.0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0.000	0.25	0.053
16	경남 밀양시	4.646	0.75	0.036	경기 부천시 원미구	0.000	0.25	0.052
17	충남 보령시	4.234	0.50	0.042	경기 수원시 장안구	0.000	0.25	0.052
18	전북 전주시 덕진구	4.083	0.50	0.056	전북 전주시 완산구	0.000	0.25	0.052
19	충북 제천시	4.065	0.50	0.044	경기 고양시 일산구	0.000	0.25	0.052
20	경기 수원시 권선구	3.957	0.50	0.063	경기 안산시 상록구	0.000	0.25	0.051

주: 어린이공원 면적/(지역)만0-12세 주민등록인구 수

자료: 1) 산림청(2014). 전국 도시림 현황 통계(2014년 12월 기준), pp.80-81.

2) 행정자치부(2016). 주민등록인구현황(2016년 5월 기준).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검색일 2016년 6월 7일).

반면 총 55개 지역에는 어린이 공원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역을 영유아 비율이 높은 순으로 정리하면 <표 IV-2-23>과 같다. 영유아 비율이 높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등의 지역에 어린이공원이 보다 시급하게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어린이도서관

전국의 어린이도서관 공급수준 현황은 [부록 그림 V-23]과 같다. 전국의 어린이도서관 공급수준은 대부분의 지역이 평가점수 0.25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어린이도서관 공급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라남도 구례군이다. 전라남도 구례군의 공급수준은 0.045이며, 그 뒤로 경상북도 청도군(0.040), 서울시 중구(0.039), 대전시 중구(0.032), 서울시 종로구(0.024) 등이 있었다.

<표 IV-2-24> 시·군·구별 어린이도서관 공급수준 상·하위 지역

순 위	상위				하위			
	지역명	공급 수준	평가 점수	영유아 비율	지역명	공급 수준	평가 점수	영유아 비율
1	전남 구례군	0.045	1.00	0.034	부산 강서구	0.000	0.25	0.094
2	경북 청도군	0.040	1.00	0.025	세종시	0.000	0.25	0.085
3	서울 중구	0.039	1.00	0.041	경남 거제시	0.000	0.25	0.082
4	대전 중구	0.032	1.00	0.048	경기 용인시 기흥구	0.000	0.25	0.073
5	서울 종로구	0.024	0.75	0.034	경남 창원시 진해구	0.000	0.25	0.073
6	강원 태백시	0.021	0.75	0.044	울산 동구	0.000	0.25	0.071
7	대구 서구	0.020	0.75	0.036	경북 구미시	0.000	0.25	0.069
8	인천 남구	0.019	0.75	0.048	충남 당진시	0.000	0.25	0.069
9	충남 태안군	0.019	0.75	0.036	충북 증평군	0.000	0.25	0.066
10	대전 대덕구	0.018	0.75	0.048	경남 양산시	0.000	0.25	0.066
11	서울 동대문구	0.018	0.75	0.044	경북 칠곡군	0.000	0.25	0.065
12	서울 성동구	0.017	0.75	0.049	경남 김해시	0.000	0.25	0.064
13	강원 홍천군	0.016	0.75	0.039	경기 수원시 권선구	0.000	0.25	0.063
14	경기 구리시	0.014	0.75	0.050	경기 하남시	0.000	0.25	0.061
15	전남 해남군	0.014	0.75	0.048	충남 계룡시	0.000	0.25	0.061
16	경기 안산시 단원구	0.013	0.75	0.050	전북 완주군	0.000	0.25	0.061
17	서울 서대문구	0.013	0.75	0.044	경남 통영시	0.000	0.25	0.059
18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0.013	0.75	0.052	울산 울주군	0.000	0.25	0.058
19	서울 동작구	0.013	0.75	0.048	경기 양주시	0.000	0.25	0.058
20	강원 춘천시	0.013	0.75	0.050	전남 무안군	0.000	0.25	0.058

주: (어린이도서관 수/(지역)만0-12세 주민등록인구 수)×100

자료: 1) 문화체육관광부(2016).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http://www.libsta.go.kr>, 검색일 5월 30일).

2) 행정자치부(2016). 주민등록인구현황(2016년 5월 기준).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검색일 2016년 6월 7일).

어린이도서관이 없는 지역은 총 143개 지역으로, 해당 지역을 영유아 비율이 높은 순으로 정리하면 <표 IV-2-24>와 같다. 영유아 비율이 가장 높은 부산시 강서구에 어린이도서관의 설치가 특히 시급한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세종시, 경상남도 거제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등에 어린이도서관이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장난감도서관

전국 시·군·구의 장난감도서관 공급수준 현황은 [부록 그림 V-24]와 같다. 시·군·구별 장난감도서관 공급수준 상위 20개 지역에는 전라남도 무안군을 제외하면 대도시(9개)와, 중소도시(10개) 지역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공급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시 중구로 5.856의 공급수준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경기도 과천시(3.267), 경상북도 영천시(2.523), 울산시 남구(2.296), 전라남도 무안군(2.100)이 높은 공급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서울시 중구의 영유아 비율은 0.041로 대도시 평균(0.055)보다 낮고, 무안군의 영유아 비율은 0.058로 군 지역 평균(0.039)보다 높아 공급수준에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V-2-25〉 시·군·구별 장난감도서관 공급수준 상·하위 지역

순 위	상위				하위			
	지역명	공급 수준	평가 점수	영유아 비율	지역명	공급 수준	평가 점수	영유아 비율
1	서울 중구	5.856	1.00	0.041	부산 강서구	0.000	0.25	0.094
2	경기 과천시	3.267	0.75	0.045	세종시	0.000	0.25	0.085
3	경북 영천시	2.523	0.75	0.039	부산 기장군	0.000	0.25	0.084
4	울산 남구	2.296	0.75	0.051	경남 거제시	0.000	0.25	0.082
5	전남 무안군	2.100	0.75	0.058	경기 오산시	0.000	0.25	0.080
6	경기 성남시 수지구	2.005	0.75	0.045	충남 아산시	0.000	0.25	0.079
7	서울 금천구	1.999	0.75	0.042	충북 청주시 청원구	0.000	0.25	0.075
8	서울 강남구	1.980	0.75	0.045	울산 북구	0.000	0.25	0.074
9	서울 종로구	1.894	0.75	0.034	경기 용인시 기흥구	0.000	0.25	0.073
10	경기 부천시 소사구	1.855	0.75	0.049	경기 수원시 영통구	0.000	0.25	0.072
11	경기 성남시 중원구	1.683	0.75	0.048	울산 동구	0.000	0.25	0.071
12	경남 진주시	1.626	0.75	0.053	광주 광산구	0.000	0.25	0.071
13	대구 서구	1.377	0.50	0.036	대구 달성군	0.000	0.25	0.069
14	서울 도봉구	1.315	0.50	0.043	경북 구미시	0.000	0.25	0.069
15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1.289	0.50	0.052	충남 당진시	0.000	0.25	0.069
16	경기 수원시 장안구	1.283	0.50	0.052	충북 증평군	0.000	0.25	0.066
17	서울 동대문구	1.276	0.50	0.044	경기 광주시	0.000	0.25	0.066
18	경기 부천시 오정구	1.235	0.50	0.044	경남 양산시	0.000	0.25	0.066
19	인천 계양구	1.195	0.50	0.050	경기 용인시 수지구	0.000	0.25	0.065
20	경기 의왕시	1.133	0.50	0.056	전남 광양시	0.000	0.25	0.065

주: (장난감도서관 수/(지역)만0-5세주민등록인구 수)×10,000

자료: 1)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central.childcare.go.kr>, 검색일 2016년 6월 13일).

2) 행정자치부(2016). 주민등록인구현황(2016년 5월 기준).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검색일 2016년 6월 7일).

장난감도서관이 없는 시·군·구는 총 185개 지역이며, 그 중 영유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20개 지역을 살펴보면 <표 IV-2-25>와 같다. 부산시 강서구의 경우 영유아 비율이 0.094로, 대도시 평균(0.055)와 비교하였을 때 매우 높은 수준이므로 장난감도서관의 설치가 매우 시급한 지역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세종시(0.085), 부산시 기장군(0.084), 경상남도 거제시(0.082), 경기도 오산시(0.080) 등도 높은 영유아 비율을 보이고 있어 해당 지역에 보다 빠른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 어린이박물관

<표 IV-2-26> 시·군·구별 어린이박물관(과학관 포함) 공급수준 상·하위 지역

순위	상위				하위			
	지역명	공급 수준	평가 점수	영유아 비율	지역명	공급 수준	평가 점수	영유아 비율
1	경북 울릉군	0.148	1.00	0.031	부산 남구	0.0036	0.25	0.043
2	강원 고성군	0.147	1.00	0.031	서울 서초구	0.0036	0.25	0.054
3	충북 단양군	0.130	1.00	0.029	부산 동래구	0.0037	0.25	0.043
4	경북 청송군	0.124	1.00	0.029	부산 기장군	0.0040	0.25	0.084
5	강원 평창군	0.114	1.00	0.033	울산 동구	0.0041	0.25	0.071
6	충남 금산군	0.104	1.00	0.037	부산 사상구	0.0046	0.25	0.046
7	전북 장수군	0.093	1.00	0.041	경기 성남시 분당구	0.0057	0.25	0.056
8	전남 고흥군	0.093	1.00	0.025	서울 은평구	0.0059	0.25	0.047
9	전남 곡성군	0.090	1.00	0.031	부산 사하구	0.0059	0.25	0.048
10	전북 무주군	0.090	1.00	0.037	인천 남동구	0.0059	0.25	0.060
11	전남 구례군	0.090	1.00	0.034	부산 강서구	0.0061	0.25	0.094
12	전남 장성군	0.088	1.00	0.048	경기 용인시 기흥구	0.0064	0.25	0.073
13	충남 청양군	0.088	1.00	0.032	대전 서구	0.0067	0.25	0.054
14	전북 임실군	0.087	1.00	0.035	경북 김천시	0.0069	0.25	0.049
15	전남 보성군	0.086	1.00	0.039	인천 서구	0.0070	0.25	0.066
16	경북 군위군	0.085	1.00	0.024	대구 달성군	0.0071	0.25	0.069
17	경북 영양군	0.081	0.75	0.032	울산 중구	0.0072	0.25	0.055
18	경북 청도군	0.080	0.75	0.025	강원 원주시	0.0073	0.25	0.053
19	강원 철원군	0.078	0.75	0.048	경기 김포시	0.0073	0.25	0.074
20	전북 순창군	0.078	0.75	0.037	경기 부천시 원미구	0.0074	0.25	0.052

주: (어린이박물관 수/(지역)만0-12세 주민등록인구 수)×100

- 자료: 1) 문화체육관광부(2015).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2015년 1월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p://www.mcst.go.k> 2016년 5월 30일 검색)
- 2) 국립민속박물관(2015). 내부자료. 한국 어린이박물관, 미술관 및 기관 현황(2015년 10월 15일 기준).
- 3) 행정자치부(2016). 주민등록인구현황(2016년 5월 기준).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검색일 2016년 6월 7일).

전국 어린이박물관 공급수준 현황은 [부록 그림 V-25]와 같다. 어린이박물관 공급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상북도 울릉군으로 공급수준은 0.148이며, 그 뒤로 강원도 고성군(0.147), 충청북도 단양군(0.130), 경상북도 청송군(0.124), 강원도 평창군(0.114) 순이었다. 공급수준이 높은 지역은 20개 모두 군 지역이었다.

반면 어린이박물관 공급수준이 가장 낮은 지역은 부산시 남구로, 공급수준은 0.0036이다. 그 뒤로 서울시 서초구(0.0036), 부산시 동래구(0.0037), 부산시 기장군(0.0040) 등이 있다. 상위 지역과 달리 하위 지역은 모두 중소도시 및 대도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6) 어린이미술관

〈표 IV-2-27〉 시·군·구별 어린이미술관 공급수준 상·하위 지역

순 위	상위				하위			
	지역명	공급 수준	평가 점수	영유아 비율	지역명	공급 수준	평가 점수	영유아 비율
1	서울 종로구	0.121	1.00	0.084	부산 강서구	0.000	0.25	0.094
2	전남 진도군	0.109	1.00	0.089	세종시	0.000	0.25	0.085
3	전북 무주군	0.090	1.00	0.087	부산 기장군	0.000	0.25	0.084
4	전남 함평군	0.078	1.00	0.085	경기 화성시	0.000	0.25	0.084
5	광주 동구	0.073	1.00	0.042	경남 거제시	0.000	0.25	0.082
6	경기 가평군	0.072	1.00	0.089	울산 북구	0.000	0.25	0.074
7	강원 영월군	0.068	1.00	0.029	울산 동구	0.000	0.25	0.071
8	경북 청송군	0.062	0.75	0.029	광주 광산구	0.000	0.25	0.071
9	전남 보성군	0.058	0.75	0.039	대구 달성군	0.000	0.25	0.069
10	전남 담양군	0.056	0.75	0.037	경북 구미시	0.000	0.25	0.069
11	강원 인제군	0.052	0.75	0.057	충북 증평군	0.000	0.25	0.066
12	강원 양양군	0.048	0.75	0.032	인천 서구	0.000	0.25	0.066
13	전남 고흥군	0.046	0.75	0.025	경남 양산시	0.000	0.25	0.066
14	제주도 서귀포시	0.046	0.75	0.050	전남 광양시	0.000	0.25	0.065
15	전남 영암군	0.046	0.75	0.057	경북 칠곡군	0.000	0.25	0.065
16	전남 곡성군	0.045	0.75	0.081	경기 하남시	0.000	0.25	0.061
17	전북 부안군	0.045	0.75	0.084	충남 계룡시	0.000	0.25	0.061
18	경북 청도군	0.040	0.75	0.025	경기 평택시	0.000	0.25	0.061
19	인천 강화군	0.040	0.75	0.029	경기 군포시	0.000	0.25	0.061
20	경기 과천시	0.039	0.75	0.045	충남 서산시	0.000	0.25	0.061

주: (어린이미술관 수/(지역)만0-12세 주민등록인구 수)×100

자료: 1) 국립민속박물관(2015). 내부자료. 한국 어린이박물관, 미술관 및 기관 현황(2015년 10월 15일 기준).

2) 행정자치부(2016). 주민등록인구현황(2016년 5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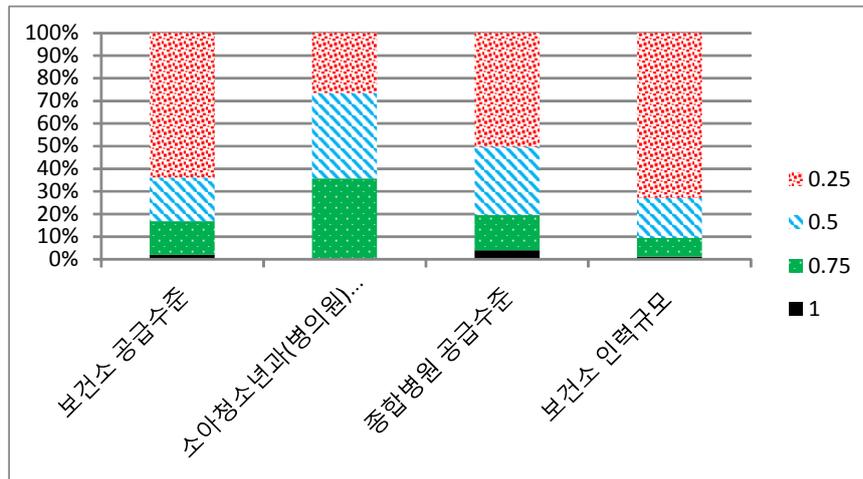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검색일 2016년 6월 7일).

전국 시·군·구의 어린이미술관 공급수준 현황은 [부록 그림 V-26]과 같다. 어린이미술관 공급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시 종로구(0.121)이다. 그 뒤로 전라남도 진도군(0.109), 전라북도 무주군(0.090), 전라남도 함평군(0.078) 등 군 지역이 뒤를 이었으며 광주시 동구(0.073) 역시 공급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종로구의 경우 영유아 비율이 대도시 평균보다 낮으므로 공급수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역 내 어린이 미술관이 없는 곳은 총 135개 지역이다. 해당 지역을 영유아 비율이 높은 순으로 정리하면 <표 IV-2-27>과 같다. 부산시 강서구가 영유아 비율이 가장 높으므로 어린이 미술관의 설치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세종시, 부산시 기장군, 경기도 화성시, 경상남도 거제시 등의 지역에 어린이 미술관이 빠르게 설치되어야 한다.

마. 보건·의료서비스 영역

보건·의료서비스 영역에서는 보건소, 소아청소년과(병의원), 종합병원의 공급수준과 보건소 인력규모의 공급수준을 알아보았다. 각 요소별 평가점수의 분포를 살펴보면 [그림 IV-2-5]와 같다. 소아청소년과의 공급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보건소와 종합병원 공급수준은 1.0과 0.75점대가 20% 미만으로 나타났다.



[그림 IV-2-5] 보건·의료 서비스 영역의 요소별 평가점수 분포

1) 보건소

전국 시·군·구의 보건소 공급수준 현황은 [부록 그림 V-27]과 같다. 보건소 공급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상북도 울릉군이다. 울릉군의 공급수준은 0.207이며 다음으로 인천시 옹진군(0.148), 전라남도 신안군(0.130), 전라북도 장수군(0.103), 전라북도 순창군(0.102) 순으로 공급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20개 지역 모두 군 지역이며, 보건소 공급수준이 해당지역 보건소 수를 주민등록 전체 인구 수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인구 수가 적은 군 지역의 공급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V-2-28〉 시·군·구별 보건소 공급수준 상·하위 지역

순 위	상위				하위			
	지역명	공급 수준	평가 점수	영유아 비율	지역명	공급 수준	평가 점수	영유아 비율
1	경북 울릉군	0.207	1.00	0.0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0.0000	0.25	0.056
2	인천 옹진군	0.148	1.00	0.036	경남 창원시 성산구	0.0000	0.25	0.054
3	전남 신안군	0.130	1.00	0.031	대전 서구	0.0004	0.25	0.054
4	전북 장수군	0.103	1.00	0.041	경기 용인시 기흥구	0.0005	0.25	0.073
5	전북 순창군	0.102	1.00	0.037	인천 남동구	0.0006	0.25	0.060
6	경북 청송군	0.087	0.75	0.029	부산 사하구	0.0006	0.25	0.048
7	전북 임실군	0.085	0.75	0.035	경기 수원시 장안구	0.0007	0.25	0.052
8	전북 진안군	0.084	0.75	0.040	경기 고양시 덕양구	0.0007	0.25	0.056
9	전남 완도군	0.083	0.75	0.044	경기 성남시 분당구	0.0008	0.25	0.056
10	전북 무주군	0.080	0.75	0.037	전남 목포시	0.0008	0.25	0.057
11	강원 화천군	0.079	0.75	0.053	경기 수원시 영통구	0.0009	0.25	0.072
12	전남 곡성군	0.075	0.75	0.031	경기 성남시 수정구	0.0009	0.25	0.045
13	경남 의령군	0.074	0.75	0.031	경기 부천시 원미구	0.0009	0.25	0.052
14	전남 구례군	0.073	0.75	0.034	부산 북구	0.0010	0.25	0.048
15	경남 산청군	0.069	0.75	0.033	인천 서구	0.0010	0.25	0.066
16	경남 합천군	0.062	0.75	0.027	대구 달서구	0.0010	0.25	0.051
17	전남 진도군	0.062	0.75	0.039	경기 수원시 팔달구	0.0010	0.25	0.046
18	경북 영양군	0.062	0.75	0.032	울산 북구	0.0010	0.25	0.074
19	강원 양구군	0.058	0.75	0.054	인천 부평구	0.0011	0.25	0.051
20	경북 고령군	0.058	0.75	0.040	경기 부천시 오정구	0.0011	0.25	0.044

주: (보건소 수/(지역)주민등록 전체인구수)×100

자료: 1) 공공보건포털 G-Health 웹사이트(<http://www.g-health.kr>, 검색일 2016년 5월 27일). 보건소 수(2016년 1월 기준).

2) 행정자치부(2016). 주민등록인구현황(2016년 5월 기준).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검색일 2016년 6월 7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는 보건소 공급수준이 0.0000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역의 영유아 비율은 중소도시 평균 영유아 비율(0.049)과 비교하였을 때 높은 편으로, 보건소의 설치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 대전시 서구(0.000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0.0005), 인천시 남동구(0.0006) 등의 지역이 공급수준 하위 지역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경우 영유아 비율이 0.073으로 매우 높아 해당 지역에도 보건소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2) 소아청소년과(병의원)

〈표 IV-2-29〉 시·군·구별 소아청소년과(병의원) 공급수준 상·하위 지역

순위	상위				하위			
	지역명	공급 수준	평가 점수	영유아 비율	지역명	공급 수준	평가 점수	영유아 비율
1	부산 중구	0.488	1.00	0.029	강원 인제군	0.000	0.25	0.057
2	경기 성남시 수정구	0.048	0.75	0.045	전남 영암군	0.000	0.25	0.057
3	부산 수영구	0.044	0.75	0.041	강원 양구군	0.000	0.25	0.054
4	서울 상동구	0.044	0.75	0.049	강원 화천군	0.000	0.25	0.053
5	부산 사상구	0.042	0.75	0.046	경남 함안군	0.000	0.25	0.050
6	경기 의왕시	0.040	0.75	0.056	경기 연천군	0.000	0.25	0.049
7	서울 영등포구	0.039	0.75	0.049	전남 해남군	0.000	0.25	0.048
8	서울 마포구	0.039	0.75	0.049	전남 장성군	0.000	0.25	0.048
9	서울 서초구	0.038	0.75	0.054	강원 철원군	0.000	0.25	0.048
10	서울 광진구	0.038	0.75	0.043	전남 완도군	0.000	0.25	0.044
11	강원 태백시	0.038	0.75	0.044	경북 울진군	0.000	0.25	0.044
12	경기 부천시 오정구	0.038	0.75	0.044	전남 강진군	0.000	0.25	0.043
13	경기 성남시 중원구	0.037	0.75	0.048	전북 장수군	0.000	0.25	0.041
14	서울 관악구	0.037	0.75	0.040	전북 진안군	0.000	0.25	0.040
15	서울 송파구	0.036	0.75	0.051	경북 고령군	0.000	0.25	0.040
16	경기 용인시 기흥구	0.034	0.75	0.073	경남 고성군	0.000	0.25	0.040
17	부산 해운대구	0.034	0.75	0.048	전남 진도군	0.000	0.25	0.039
18	전북 완주군	0.034	0.75	0.061	전남 보성군	0.000	0.25	0.039
19	강원 속초시	0.034	0.75	0.047	전북 무주군	0.000	0.25	0.037
20	서울 은평구	0.033	0.75	0.047	전남 담양군	0.000	0.25	0.037

주: (소아청소년기관 수/(지역)만0-18세 주민등록인구 수)×100

자료: 1) 국민건강보험공단(2016b). 시·군·구별 표시과목별 의원현황(2016년 1분기 기준).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검색일 2016년 6월 14일).

2) 행정자치부(2016). 주민등록인구현황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검색일 2016년 6월 7일).

소아청소년과(병의원)의 전국 공급수준 현황은 [부록 그림 V-28]과 같다. 소아청소년과(병의원) 공급수준 상위 지역에는 부산시 중구(0.488),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0.048), 부산시 수영구(0.044), 서울시 성동구(0.044), 부산시 사상구(0.042) 등이 있다. 전라북도 완주군을 제외한 상위 지역은 모두 중소도시 및 대도시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공급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난 부산시 중구의 경우 영유아 비율이 0.029로 매우 낮아 공급수준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소아청소년과(병의원) 공급수준이 0인 지역은 총 54개이며 모두 군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지역을 영유아 비율 순으로 정렬하였을 때 강원도 인제군과 전라남도 영암군이 영유아 비율 0.057로 높게 나타나 해당 지역에 소아청소년과(병의원)의 설치가 특히 시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종합병원

종합병원 의 전국 공급수준 현황은 [부록 그림 V-29]와 같다. 종합병원 공급수준 상위 지역에는 부산시 중구(0.0066), 전라남도 영광군(0.0036), 부산시 동구(0.0033), 전라남도 고흥군(0.0029), 인천시 동구(0.0028) 등이 있다. 상위 20개 지역 중 군 지역의 경우 지역 주민등록 전체인구 수가 중소도시 및 대도시와 비교하였을 때 적기 때문에 공급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표 IV-2-30〉 시·군·구별 종합병원 공급수준 상위 지역

순위	상위				하위			
	지역명	공급수준	평가점수	영유아비율	지역명	공급수준	평가점수	영유아비율
1	부산 중구	0.0066	1.00	0.029	부산 강서구	0.0000	0.25	0.094
2	전남 영광군	0.0036	1.00	0.045	세종시	0.0000	0.25	0.085
3	부산 동구	0.0033	1.00	0.030	경기 수원시 영통구	0.0000	0.25	0.072
4	전남 고흥군	0.0029	1.00	0.025	울산 동구	0.0000	0.25	0.071
5	인천 동구	0.0028	1.00	0.051	대구 달성군	0.0000	0.25	0.069
6	대전 대덕구	0.0026	1.00	0.048	충북 증평군	0.0000	0.25	0.066
7	강원 영월군	0.0025	1.00	0.029	경기 광주시	0.0000	0.25	0.066
8	강원 속초시	0.0024	1.00	0.047	경기 용인시 수지구	0.0000	0.25	0.065
9	전남 장흥군	0.0024	1.00	0.033	경북 칠곡군	0.0000	0.25	0.065
10	서울 중구	0.0024	1.00	0.041	경기 수원시 권선구	0.0000	0.25	0.063
11	강원 태백시	0.0021	0.75	0.044	경기 하남시	0.0000	0.25	0.061
12	전남 목포시	0.0021	0.75	0.057	충남 계룡시	0.0000	0.25	0.061
13	광주 동구	0.0021	0.75	0.042	전북 완주군	0.0000	0.25	0.061

(표 IV-2-30 계속)

순위	상위				하위			
	지역명	공급 수준	평가 점수	영유아 비율	지역명	공급 수준	평가 점수	영유아 비율
14	경북 상주시	0.0020	0.75	0.035	인천 남동구	0.0000	0.25	0.060
15	충북 옥천군	0.0019	0.75	0.037	경남 통영시	0.0000	0.25	0.059
16	강원 강릉시	0.0019	0.75	0.042	경기 양주시	0.0000	0.25	0.058
17	서울 영등포구	0.0019	0.75	0.049	강원 인제군	0.0000	0.25	0.057
18	대전 서구	0.0018	0.75	0.054	전남 영암군	0.0000	0.25	0.057
19	전남 순천시	0.0018	0.75	0.052	경기 의왕시	0.0000	0.25	0.056
20	경북 안동시	0.0018	0.75	0.050	강원 양구군	0.0000	0.25	0.054

주: (종합병원 수/(지역)주민등록 전체인구수)×100

자료: 1) 국민건강보험공단(2016a). 시·군·구별 종별 요양기관 현황(2016년 1월 기준).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검색일 2016년 5월 27일).

2) 행정자치부(2016). 주민등록인구현황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검색일 2016년 6월 7일).

종합병원 공급수준이 0인 지역은 총 93개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부산시 강서구는 영유아 비율이 0.094로 매우 높아 종합병원의 시급한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세종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울산시 동구, 대구시 달성군 등 중소도시 및 대도시 지역과 더불어 충청북도 증평군, 경상북도 칠곡군 등 영유아 비율이 높은 지역의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보건소 인력규모

보건소 인력규모의 전국 현황은 [부록 그림 V-30]과 같다. 보건소 인력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경상북도 울릉군으로, 공급수준은 6.688이다. 다음으로 전라남도 신안군(4.249), 인천시 옹진군(4.052), 경상북도 청송군(3.042), 전라북도 순창군(2.783) 등이 순서대로 공급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 인력규모가 큰 지역 중 상위 20개 지역은 모두 군 지역으로, 해당 지역은 보건소 공급수준이 높은 지역과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 인력규모가 작은 지역에는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0),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0.0066), 대전시 서구(0.0075), 인천시 남동구(0.0094) 등이 있었다. 이 중 전주시 덕진구, 창원시 성산구는 공급수준이 0인 지역으로, 보건소 공급수준 역시 0으로 나타나 보건소의 설치와 인력배치가 보다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하위 5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하위 지역 역시 보건

소 공급수준의 순위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 해당 지역에 보건소의 설치와 더불어 보다 많은 인력이 배치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표 IV-2-31〉 시·군·구별 보건소 인력규모 상·하위 지역

순위	상위				하위			
	지역명	공급 수준	평가 점수	영유아 비율	지역명	공급 수준	평가 점수	영유아 비율
1	경북 울릉군	6.688	1	0.0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0.0000	0.25	0.056
2	전남 신안군	4.249	1	0.031	경남 창원시 성산구	0.0000	0.25	0.054
3	인천 용진군	4.052	1	0.036	경기 용인시 기흥구	0.0066	0.25	0.073
4	경북 청송군	3.042	0.75	0.029	대전 서구	0.0075	0.25	0.054
5	전북 순창군	2.783	0.75	0.037	인천 남동구	0.0094	0.25	0.060
6	전북 장수군	2.503	0.75	0.041	경기 고양시 덕양구	0.0120	0.25	0.056
7	충북 괴산군	2.489	0.75	0.023	경기 수원시 영통구	0.0123	0.25	0.072
8	전남 곡성군	2.419	0.75	0.031	부산 사하구	0.0125	0.25	0.048
9	전북 임실군	2.418	0.75	0.035	경기 수원시 장안구	0.0128	0.25	0.052
10	경남 의령군	2.378	0.75	0.031	울산 북구	0.0141	0.25	0.074
11	경남 합천군	2.324	0.75	0.027	경기 성남시 분당구	0.0143	0.25	0.056
12	경북 군위군	2.289	0.75	0.024	전남 목포시	0.0146	0.25	0.057
13	전남 고흥군	2.234	0.75	0.025	인천 서구	0.0150	0.25	0.066
14	전남 구례군	2.162	0.75	0.034	대전 유성구	0.0165	0.25	0.072
15	경남 산청군	2.137	0.75	0.033	경기 부천시 원미구	0.0173	0.25	0.052
16	전북 무주군	2.128	0.75	0.037	경기 수원시 권선구	0.0178	0.25	0.063
17	전북 진안군	2.085	0.75	0.040	충북 청주시 서원구	0.0191	0.25	0.056
18	경북 청도군	2.037	0.75	0.025	대구 달서구	0.0198	0.25	0.051
19	경북 영양군	1.943	0.75	0.032	경기 성남시 수정구	0.0201	0.25	0.045
20	경북 의성군	1.926	0.75	0.025	부산 북구	0.0202	0.25	0.048

주: (보건소의사 수/(지역)만0-5세 주민등록인구 수)×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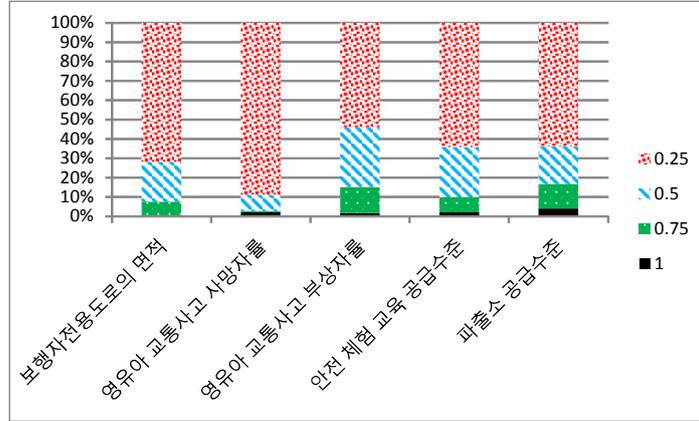
자료: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6). 내부자료. 보건소 근무 의사 수, 2016년 4월 기준.

2) 행정자치부(2016). 주민등록인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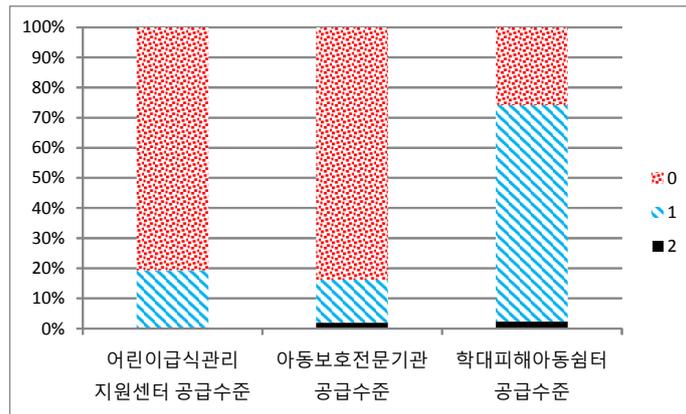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검색일 2016년 6월 7일).

바. 영유아 안전관리·보호 영역

영유아 안전관리·보호 영역에서는 보행자전용도로의 면적, 영유아 교통사고 사망자 및 부상자율과 안전체험교육,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아동피해쉼터, 파출소의 공급수준을 살펴보았다. 각 요소별 평가점수의 분포를 살펴보면 [그림 IV-2-6], [그림 IV-2-7]과 같다. 상대적으로 파출소의 공급수준과 학대피해아동쉼터의 공급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그림 IV-2-6] 안전관리·보호 영역(1)의 요소별 평가점수 분포



[그림 IV-2-7] 안전관리·보호 영역(2)의 요소별 평가점수 분포

1) 보행자전용도로 면적

먼저 시·군·구별 보행자전용(우선)도로의 전국 현황은 [부록 그림 V-31]과 같다. 보행자전용도로 상위 20개 지역은 <표 IV-2-32>와 같다. 전체도로면적 중 보행자전용(우선)도로의 비율을 살펴본 결과 세종시가 38.798로 두드러지게 높았으며 다음으로 대전시 서구(5.806), 대전시 유성구(5.645), 경기도 광명시(4.588), 경기도 용인시(3.531) 순으로 나타났다. 이 때 경기도 용인시의 경우 자료가 구 단위로 나누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면적은 다른 시·군·구 지역보다 적

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경기 지역이 14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부분의 지역이 영유아의 비율도 평균(0.048)보다 높아 보행자전용(우선)도로의 면적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표 IV-2-32〉 시·군·구별 보행자전용(우선)도로의 면적 상·하위 지역

순 위	상위				하위			
	지역명	면적	평가 점수	영유아 비율	지역명	면적	평가 점수	영유아 비율
1	세종시	38,798	1.00	0.085	경기 화성시	0.000	0.25	0.084
2	대전 서구	5,806	0.75	0.054	경남 거제시	0.000	0.25	0.082
3	대전 유성구	5,645	0.75	0.072	강원 인제군	0.000	0.25	0.057
4	경기 광명시	4,588	0.75	0.059	충북 진천군	0.000	0.25	0.056
5	경기 용인시 수지구	3,531	0.75	0.065	강원 양구군	0.000	0.25	0.054
6	경기 용인시 기흥구	3,531	0.75	0.073	서울 서초구	0.000	0.25	0.054
7	경기 용인시 처인구	3,531	0.75	0.054	서울 송파구	0.000	0.25	0.051
8	경기 성남시 중원구	3,244	0.75	0.048	인천 부평구	0.000	0.25	0.051
9	경기 성남시 수정구	3,244	0.75	0.045	강원 춘천시	0.000	0.25	0.050
10	경기 성남시 분당구	3,244	0.75	0.056	광주 서구	0.000	0.25	0.050
11	전남 목포시	2,913	0.75	0.057	서울 영등포구	0.000	0.25	0.049
12	대구 북구	2,870	0.75	0.054	서울 성북구	0.000	0.25	0.047
13	경기 고양시 덕양구	2,554	0.75	0.056	서울 은평구	0.000	0.25	0.047
14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2,554	0.75	0.052	부산 연제구	0.000	0.25	0.046
1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2,554	0.75	0.047	서울 노원구	0.000	0.25	0.046
16	울산 중구	2,519	0.75	0.055	대구 중구	0.000	0.25	0.045
17	경기 부천시 오정구	2,449	0.75	0.044	서울 양천구	0.000	0.25	0.045
18	경기 부천시 소사구	2,449	0.75	0.049	서울 서대문구	0.000	0.25	0.044
19	경기 부천시 원미구	2,449	0.75	0.052	강원 태백시	0.000	0.25	0.044
20	경기 하남시	2,205	0.50	0.061	경기 포천시	0.000	0.25	0.044

주: 1) 도에 속한 시의 경우, 해당 구의 데이터가 없어 각 구는 시와 동일하다고 가정함.

2) {보행자전용+우선도로의 면적}/(지역)도로 전체면적}×100

자료: 1) 한국토지주택공사(2015). 도시계획현황(2014년 기준).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검색일 2016년 4월 11일)

2) 행정자치부(2016). 주민등록인구현황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검색일 2016년 6월 7일).

시·군·구에 보행자전용(우선)도로가 없는 곳은 총 49개 지역이며, 보행자전용(우선)도로 면적 하위 지역 중 영유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20개 지역을 살펴보면 <표 III-2-32>과 같다. 경기도 화성시의 영유아 비율이 0.084로 가장 높았고 경상남도 거제시(0.082), 강원도 인제군(0.057), 충청북도 진천군(0.056), 강원

도 양구군(0.054) 순으로 나타났다. 아래 지역들은 영유아의 비율이 높은 만큼 보행자전용(우선)도로 면적을 우선적으로 개선하여 영유아를 위한 안전한 환경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 영유아 교통사고 사망자 및 부상자 비율

시·군·구별 전체 영유아 교통사고 사망자율을 살펴보면 [부록 그림 V-32]와 같다. 영유아 교통사고 사망자율 상위 지역은 <표 IV-2-33>과 같다. 만 0~5세의 인구 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살펴본 결과 충청북도 괴산군이 0.113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인천시 강화군(0.051), 충청남도 금산군(0.049) 순으로 나타났다. 단, 괴산군과 강화군은 영유아 비율이 각각 0.023, 0.029로 낮기 때문에 사망률이 다소 높게 측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상남도 고성군과 전라남도 장성군은 영유아 비율이 낮지 않은데도 사망자율이 상위에 있기 때문에 영유아의 교통사고에 좀 더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영유아 교통사고 사망자가 없는 곳은 총 213개 지역이었으며, 이중 영유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20개 지역을 살펴보면 <표 IV-2-33>과 같다. 아래 지역들은 영유아의 비율이 높은 지역이므로 현재 사망률은 낮지만 우선적으로 영유아 교통사고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는 지역으로 볼 수 있다.

<표 IV-2-33> 시·군·구별 영유아 교통사고 사망자율 상·하위 지역

순 위	상위				하위			
	지역명	사망 자율	평가 점수	영유아 비율	지역명	사망 자율	평가 점수	영유아 비율
1	충북 괴산군	0.113	1.00	0.023	부산 강서구	0.000	0.25	0.094
2	인천 강화군	0.051	1.00	0.029	세종시	0.000	0.25	0.085
3	충남 금산군	0.049	1.00	0.037	부산 기장군	0.000	0.25	0.084
4	경남 고성군	0.046	1.00	0.040	경남 거제시	0.000	0.25	0.082
5	전남 장성군	0.045	1.00	0.048	경기 오산시	0.000	0.25	0.080
6	강원 동해시	0.022	0.75	0.049	충북 청주시 청원구	0.000	0.25	0.075
7	부산 수영구	0.014	0.75	0.041	울산 북구	0.000	0.25	0.074
8	충남 당진시	0.009	0.50	0.069	경기 김포시	0.000	0.25	0.074
9	울산 울주군	0.008	0.50	0.058	대전 유성구	0.000	0.25	0.072
10	강원 원주시	0.006	0.50	0.053	울산 동구	0.000	0.25	0.071
11	경남 양산시	0.005	0.50	0.066	광주 광산구	0.000	0.25	0.071
12	경기 광명시	0.005	0.50	0.059	대구 달성군	0.000	0.25	0.069
13	경기 의정부시	0.005	0.50	0.050	경북 구미시	0.000	0.25	0.069

(표 IV-2-33 계속)

순 위	상위				하위			
	지역명	사망 자율	평가 점수	영유아 비율	지역명	사망 자율	평가 점수	영유아 비율
14	경기안양시 만안구	0.004	0.50	0.048	충남 천안시 서북구	0.000	0.25	0.068
15	충남 아산시	0.004	0.50	0.079	충북 증평군	0.000	0.25	0.066
16	경기 부천시 오정구	0.004	0.50	0.044	경기 광주시	0.000	0.25	0.066
17	서울 노원구	0.004	0.50	0.046	인천 서구	0.000	0.25	0.066
18	경기 파주시	0.004	0.50	0.066	전남 광양시	0.000	0.25	0.065
19	경기 평택시	0.004	0.50	0.061	경북 칠곡군	0.000	0.25	0.065
20	제주도 제주시	0.003	0.50	0.062	경기 남양주시	0.000	0.25	0.063

주: (영유아 교통사고 사망자 수/(지역)만0-5세 주민등록인구 수)×100

자료: 1) 교통사고분석시스템 홈페이지(<http://taas.koroad.or.kr/>, 검색일 2016년 6월 17일).

2) 행정자치부(2016). 주민등록인구현황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검색일 2016년 6월 7일).

다음으로 시·군·구별 영유아 교통사고 부상자율의 전국현황을 살펴보면 [부록 그림 V-33]과 같다. 영유아 교통사고 부상자율 상위 지역은 <표 IV-2-34>와 같다. 만 0~5세의 인구 만명당 교통사고 부상자 수를 살펴본 결과 부산시 중구가 공급수준 1.367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해당 지역의 경우 영유아 비율이 0.029로 매우 낮아 부상자율이 보다 높게 책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밖에 강원도 평창군(1.278), 제주도 서귀포시(1.199), 충청북도 괴산군(0.905) 등의 지역이 교통사고 부상자율에서 상위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역 중 제주도 서귀포시의 경우 영유아 비율이 0.050으로 높아 보다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IV-2-34> 시·군·구별 영유아 교통사고 부상자율 상·하위 지역

순 위	상위				하위			
	지역명	공급 수준	평가 점수	영유아 비율	지역명	공급 수준	평가 점수	영유아 비율
1	부산 중구	1.367	1.00	0.029	충남 계룡시	0.000	0.25	0.061
2	강원 평창군	1.278	1.00	0.033	경북 울릉군	0.000	0.25	0.031
3	제주도 서귀포시	1.199	1.00	0.050	전남 신안군	0.000	0.25	0.031
4	충북 괴산군	0.905	1.00	0.023	경북 군위군	0.000	0.25	0.024
5	경북 청도군	0.741	0.75	0.025	부산 강서구	0.011	0.25	0.094
6	충북 제천시	0.735	0.75	0.044	경남 함안군	0.029	0.25	0.050
7	경북 경주시	0.624	0.75	0.043	세종시	0.042	0.25	0.085
8	전북 부안군	0.624	0.75	0.034	부산 연제구	0.042	0.25	0.046
9	전남 담양군	0.624	0.75	0.037	부산 동래구	0.052	0.25	0.043

(표 IV-2-34 계속)

순 위	상위				하위			
	지역명	공급 수준	평가 접수	영유아 비율	지역명	공급 수준	평가 접수	영유아 비율
10	대구 중구	0.602	0.75	0.045	부산 북구	0.054	0.25	0.048
11	강원 고성군	0.559	0.75	0.031	부산 사상구	0.056	0.25	0.046
12	전남 나주시	0.547	0.75	0.053	인천 연수구	0.059	0.25	0.058
13	전남 보성군	0.516	0.75	0.039	경남 진주시	0.060	0.25	0.053
14	전남 영암군	0.515	0.75	0.057	울산 북구	0.063	0.25	0.074
15	강원 삼척시	0.513	0.75	0.039	서울 동대문구	0.064	0.25	0.044
16	전남 무안군	0.504	0.75	0.058	경기 성남시 분당구	0.068	0.25	0.056
17	경북 영덕군	0.498	0.75	0.031	강원 화천군	0.070	0.25	0.053
18	충남 태안군	0.480	0.75	0.036	경남 함양군	0.075	0.25	0.033
19	전북 정읍시	0.472	0.75	0.040	경남 거창군	0.078	0.25	0.041
20	광주 동구	0.469	0.75	0.042	서울 관악구	0.078	0.25	0.040

주: (영유아 교통사고 부상자 수/(지역)만0-5세 주민등록인구 수)×100

자료: 1) 교통사고분석시스템 홈페이지(<http://taas.koroad.or.kr>, 검색일 2016년 6월 17일).

2) 행정자치부(2016). 주민등록인구현황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검색일 2016년 6월 7일).

영유아 교통사고 부상자가 없는 곳은 충청남도 계룡시, 경상북도 울릉군, 전라남도 신안군, 경상북도 군위군 4개 지역이었으며, 부산시 강서구(0.011), 경상남도 함안군(0.029)과 세종시(0.042) 순으로 부상자율이 낮았다. 영유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부상자율이 낮은 부산시 강서구와 세종시는 교통사고에 대한 대비가 잘 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며, 이는 보행자 전용(우선)도로의 면적이 가장 넓은 것과도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3) 안전체험 교육

소방과 교통 관련 안전 체험 교육 공급수준의 전국 현황은 [부록 그림 V-34]와 같다. 만 0~5세의 인구 만 명당 교육의 공급수준을 살펴본 결과 경상남도 의령군이 11.32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전라북도 임실군(9.671), 경상남도 함양군(7.468), 강원도 화천군(7.022), 강원도 횡성군(7.003) 순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인구 비율을 함께 고려하였을 때, 강원도 화천군은 영유아 비율이 0.053으로 높은데도 불구하고 높은 공급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이 없는 지역은 총 156개 지역이며, 안전 체험교육 공급수준 하위 지역 중 영유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20개 지역을 살펴보면 다음 <표 IV-2-35>와 같다.

부산시 강서구가 0.09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세종시(0.085), 부산시 기장군(0.084), 경기도 화성시(0.084), 경상남도 거제시(0.082) 순으로 나타났다. 아래 지역들은 영유아의 비율이 높은 만큼 소방과 교통 관련 안전 체험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영유아를 위한 안전관리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IV-2-35〉 시·군·구별 안전 체험 교육 공급수준 상·하위 지역

순 위	상위				하위			
	지역명	공급 수준	평가 점수	영유아 비율	지역명	공급 수준	평가 점수	영유아 비율
1	경남 의령군	11.325	1	0.031	부산 강서구	0.000	0.25	0.094
2	전북 임실군	9.671	1	0.035	세종시	0.000	0.25	0.085
3	경남 함양군	7.468	1	0.033	부산 기장군	0.000	0.25	0.084
4	강원 화천군	7.022	1	0.053	경기 화성시	0.000	0.25	0.084
5	강원 횡성군	7.003	1	0.031	경남 거제시	0.000	0.25	0.082
6	충남 금산군	4.933	0.75	0.037	경기 오산시	0.000	0.25	0.080
7	충남 공주시	4.882	0.75	0.037	충남 아산시	0.000	0.25	0.079
8	강원 태백시	4.773	0.75	0.044	충북 청주시 청원구	0.000	0.25	0.075
9	경기 연천군	4.440	0.75	0.049	울산 북구	0.000	0.25	0.074
10	경남 거창군	3.911	0.75	0.041	경기 김포시	0.000	0.25	0.074
11	강원 삼척시	3.662	0.75	0.039	경남 창원시 진해구	0.000	0.25	0.073
12	경기 과천시	3.267	0.75	0.045	대구 달성군	0.000	0.25	0.069
13	전북 남원시	2.883	0.75	0.041	경북 구미시	0.000	0.25	0.069
14	인천 동구	2.743	0.75	0.051	경기 파주시	0.000	0.25	0.066
15	충북 진천군	2.587	0.75	0.056	충북 증평군	0.000	0.25	0.066
16	경남 밀양시	2.562	0.75	0.036	경기 광주시	0.000	0.25	0.066
17	충북 청주시 상당구	2.249	0.75	0.051	인천 서구	0.000	0.25	0.066
18	경기 양평군	2.204	0.75	0.042	경남 양산시	0.000	0.25	0.066
19	충남 홍성군	2.182	0.75	0.048	경기 용인시 수지구	0.000	0.25	0.065
20	전북 정읍시	2.146	0.75	0.040	전남 광양시	0.000	0.25	0.065

주: (안전체험교육기관(소방+교통+종합) 수/(지역)만0-5세 주민등록인구 수)×10,000

자료: 1) 국민안전처(2014). 전국안전체험시설 안내(2014년 12월 기준). pp.2-4.

2) 경찰청(2016). 내부자료. 전국 교통안전체험교육장 현황(2016년 4월 27일 기준).

4)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다음으로 시·군·구별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공급수준의 전국 현황은 [부록 그림 V-35]와 같다.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의 수로 공급수준을 살펴본 결과, 부산시 남구, 인천시 서구, 경기도 의정부시, 충청북도 청주시,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가 각각 2개로 가장 많았다. 그 밖에 서울 13개

지역, 부산 11개 지역, 경기 27개 지역, 경상북도 21개 지역 등에 각각 1개씩 급식관리 지원센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36〉 시·군·구별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공급수준 상위 지역

순위	시도	시·군·구	개수
1	부산	남구	2
	인천	서구	2
	경기	의정부시	2
	충북	청주시	2
	경북	포항시 북구	2
	경남	창원시 의창구	2
	서울(13)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은평구, 중구	1
	부산(11)	강서구, 금정구, 기장군, 동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영도구, 해운대구	1
	대구(8)	남구, 달서구, 달성군,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 중구	1
	인천(8)	강화군, 계양구, 남구, 남동구, 동구, 부평구, 연수구, 중구	1
대전(3)	대덕구, 서구, 유성구	1	
울산(5)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중구	1	
광주(5)	광산구, 남구, 동구, 북구, 서구	1	
2	경기(27)	가평군, 고양시 덕양구, 과천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동두천시, 부천시 원미구,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장안구, 시흥시, 안성시, 안산시 단원구, 안양시 만안구, 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처인구, 의왕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 화성시	1
	세종(1)	세종시	1
	강원(18)	강릉시,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원주시,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춘천시,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1
	충북(7)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제천시, 진천군, 청주시 흥덕구, 충주시	1
	충남(13)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아산시, 천안시 동남구, 태안군, 홍성군	1
	전북(12)	고창군, 군산시,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완주군, 익산시, 전주시 덕진구, 전주시 완산구, 정읍시, 진안군	1
	전남(19)	고흥군, 곡성군, 광양시, 나주시, 담양군, 무안군, 목포시, 보성군, 순천시, 신안군, 여수시,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해남군, 화순군	1
	경북(21)	경산시, 경주시, 고령군, 구미시, 군위군, 김천시,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예천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칠곡군	1
	경남(9)	거제시, 김해시, 남해군, 양산시, 의령군, 통영시,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1
	제주도(1)	제주시	1

주: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수.

부천시(2)와 제주시(4)의 동일위탁 기관은 각 1개로 인정하였음.

자료: 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http://ccfsm.foodnara.go.kr>, 검색일 2016년 5월 2일).

2) 행정자치부(2016). 주민등록인구현황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검색일 2016년 6월 7일).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가 없는 곳은 총 65개 지역이며, 그중 영유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20개 지역을 살펴보면 다음 <표 IV-2-37>과 같다. 영유아 비율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0.075),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0.073),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0.073),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0.072),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0.068) 순으로 높았다. 아래 지역들은 영유아의 비율이 높은 만큼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우선적으로 설치하여 영유아 급식을 안전하게 제공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IV-2-37> 시·군·구별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공급수준 하위 지역

순위	지역명	영유아 비율	순위	지역명	영유아 비율
1	충북 청주시 청원구	0.075	11	경기 성남시 분당구	0.056
2	경기 용인시 기흥구	0.073	12	경북 포항시 남구	0.054
3	경남 창원시 진해구	0.073	13	경남 창원시 성산구	0.054
4	경기 수원시 영통구	0.072	14	경남 사천시	0.054
5	충남 천안시 서북구	0.068	15	경남 진주시	0.053
6	충북 증평군	0.066	16	경기 안양시 동안구	0.052
7	경기 용인시 수지구	0.065	17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0.052
8	경기 수원시 권선구	0.063	18	경기 안산시 상록구	0.051
9	경기 남양주시	0.063	19	대전 동구	0.051
10	경기 광명시	0.059	20	충북 청주시 상당구	0.051

주: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수

자료: 1)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ccfsm.foodnara.go.kr>, 검색일 2016년 5월 2일).

2) 행정자치부(2016). 주민등록인구현황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검색일 2016년 6월 7일).

5) 보호 및 확대 관련 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공급수준의 전국 현황은 [부록 그림 V-36]과 같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로 공급수준을 살펴본 결과 서울시 강남구가 2개로 가장 많았고, 서울 7개 지역, 부산 3개 지역, 경기 11개 지역, 강원 4개 지역 등의 지역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1개씩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38> 시·군·구별 아동보호전문기관 공급수준 상위 지역

순위	지역명	사군구	개수
1	서울	강남구	2
2	서울(7)	강서구, 동대문구, 마포구, 성북구, 송파구, 영등포구, 은평구	1
	부산(3)	북구, 서구, 해운대구	1

(표 IV-2-38 계속)

순위	지역명	사군구	개수
	대구(3)	달서구, 북구, 중구	1
	인천(3)	남구, 남동구, 부평구	1
	대전(1)	중구	1
	울산(1)	중구	1
	광주(1)	서구	1
	경기(11)	고양시 덕양구, 남양주시, 부천시 원미구, 성남시 수정구, 수원시 장안구, 시흥시, 안산시 단원구, 용인시 기흥구, 의정부시, 평택시, 화성시	1
	강원(4)	강릉시, 동해시, 원주시, 춘천시	1
	충북(3)	옥천군, 제천시, 청주시 흥덕구	1
	충남(3)	논산시, 천안시 서북구, 홍성군	1
	전북(3)	남원시, 익산시, 전주시 완산구	1
	전남(3)	나주시, 목포시, 순천시	1
	제주도(2)	제주시, 서귀포시	1

주: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자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a). 내부자료.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2016. 1. 12. 기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없는 곳은 총 203개 지역이며, 공급수준 하위 지역 중 영유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20개 지역을 살펴보면 다음 <표 IV-2-39>와 같다. 부산시 강서구가 0.09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세종시(0.085), 부산시 기장군(0.084), 경상남도 거제시(0.082), 경기도 오산시(0.080) 순으로 나타났다. 아래 지역들은 영유아의 비율이 높은 만큼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 영유아에게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IV-2-39> 시·군·구별 아동보호전문기관 공급수준 하위 지역

순위	지역명	영유아 비율	순위	지역명	영유아 비율
1	부산 강서구	0.094	11	경기 수원시 영통구	0.072
2	세종시	0.085	12	대전 유성구	0.072
3	부산 기장군	0.084	13	울산 동구	0.071
4	경남 거제시	0.082	14	광주 광산구	0.071
5	경기 오산시	0.080	15	대구 달성군	0.069
6	충남 아산시	0.079	16	경북 구미시	0.069
7	충북 청주시 청원구	0.075	17	충남 당진시	0.069
8	울산 북구	0.074	18	경기 파주시	0.066
9	경기 김포시	0.074	19	충북 증평군	0.066
10	경남 창원시 진해구	0.073	20	경기 광주시	0.066

주: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자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a). 내부자료.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2016. 1. 12. 기준).

6) 학대피해아동쉼터

다음으로 시·군·구별 학대피해아동쉼터 공급수준의 전국 현황은 [부록 그림 V-37]과 같다.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수로 공급수준을 살펴본 결과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광주시 서구, 전라남도 목포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가 각각 2개로 가장 많았고 그 밖에 경기도 7개구, 강원도 4개구, 부산시 3개구 등 지역에 한 개의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40〉 시·군·구별 학대피해아동쉼터 공급수준 상위 지역

순위	시도	시·군·구	개수
1	충북(2)	옥천군, 청주시 청원구	2
	광주(1)	서구	2
	전남(1)	목포시	2
	경기(1)	수원시 장안구	2
	부산(3)	금정구, 사하구, 연제구	1
	대구(3)	서구, 중구, 유성구	1
	인천(1)	계양구	1
	대전(1)	중구	1
	울산(2)	울주군, 중구	1
2	경기(7)	고양시 덕양구, 광주시, 남양주시, 성남시 분당구, 안산시 단원구, 의정부시, 화성시	1
	강원(4)	동해시, 속초시, 원주시, 춘천시	1
	충북(1)	청주시 상당구	1
	충남(2)	아산시, 천안시 서북구	1
	전북(3)	남원시, 익산시, 전주시 완산구	1
	전남(3)	나주시, 순천시, 해남군	1
	경북(2)	안동시, 포항시 남구	1
	경남(2)	진주시, 창원시 마산회원구	1
	제주도(2)	서귀포시, 제주시	1

주: 학대피해아동쉼터 수

자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b). 내부자료. 전국 학대피해아동쉼터 현황(2016. 5. 2. 기준).

시·군·구별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없는 곳은 총 211개 지역이며, 공급수준 하위 지역 중 영유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20개 지역을 살펴보면 다음 <표 IV-2-41>과 같다. 부산시 강서구(0.094), 세종시(0.085), 부산시 기장군(0.084), 경상남도 거제시(0.082), 경기도 오산시(0.080) 순으로 높았다. 따라서 아래 지역은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우선적으로 설치하여 학대피해 영유아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IV-2-41〉 시·군·구별 학대피해아동쉼터 공급수준 하위 지역

순위	지역명	영유아 비율	순위	지역명	영유아 비율
1	부산 강서구	0.094	11	울산 동구	0.071
2	세종시	0.085	12	광주 광산구	0.071
3	부산 기장군	0.084	13	대구 달성군	0.069
4	경남 거제시	0.082	14	경북 구미시	0.069
5	경기 오산시	0.080	15	충남 당진시	0.069
6	울산 북구	0.074	16	경기 파주시	0.066
7	경기 김포시	0.074	17	충북 증평군	0.066
8	경기 용인시 기흥구	0.073	18	인천 서구	0.066
9	경남 창원시 진해구	0.073	19	경남 양산시	0.066
10	경기 수원시 영통구	0.072	20	경기 용인시 수지구	0.065

주: 학대피해아동쉼터 수

자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b). 내부자료. 전국 학대피해아동쉼터 현황(2016. 5. 2. 기준).

7) 파출소

전국 시·군·구별 파출소 공급수준은 [부록 그림 V-38]과 같다. 공급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상북도 울릉군으로, 공급수준은 3.944이다. 그 밖에 전라남도 신안군(3.475), 전라북도 진안군(3.061), 인천시 옹진군(2.856), 경상북도 영양군(2.812) 순으로 공급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지역은 대부분 군 지역이며, 영유아 비율은 평균과 비슷하여 파출소 공급수준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충청북도 증평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충청남도 계룡시 등 총 7개 지역의 파출소 공급수준이 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영유아 비율이 특히 높은 충청북도 증평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와 충청남도 계룡시의 경우 파출소의 설치가 보다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표 IV-2-42〉 시·군·구별 파출소 공급수준 상·하위 지역

순위	지역명	상위			하위			
		공급 수준	평가 점수	영유아 비율	지역명	공급 수준	평가 점수	영유아 비율
1	경북 울릉군	3.944	1	0.031	충북 증평군	0.000	0.25	0.066
2	전남 신안군	3.475	1	0.031	경기 용인시 수지구	0.000	0.25	0.065
3	전북 진안군	3.061	1	0.040	충남 계룡시	0.000	0.25	0.061
4	인천 옹진군	2.856	1	0.036	경기 부천시 소사구	0.000	0.25	0.049
5	경북 영양군	2.812	1	0.032	경기 안양시 만안구	0.000	0.25	0.048
6	전북 무주군	2.789	1	0.037	강원 속초시	0.000	0.25	0.047

(표 IV-2-42 계속)

순 위	상위				하위			
	지역명	공급 수준	평가 점수	영유아 비율	지역명	공급 수준	평가 점수	영유아 비율
7	전북 순창군	2722	1	0.037	경기 과천시	0.000	0.25	0.045
8	경북 청송군	2658	1	0.029	인천 서구	0.020	0.25	0.066
9	전북 장수군	2581	1	0.041	대전 서구	0.020	0.25	0.054
10	경북 군위군	2490	1	0.024	대구 수성구	0.022	0.25	0.041
11	전남 곡성군	2286	0.75	0.031	광주 북구	0.022	0.25	0.052
12	전남 구례군	2202	0.75	0.034	경기 부천시 원미구	0.023	0.25	0.052
13	전남 진도군	2167	0.75	0.039	대구 북구	0.023	0.25	0.054
14	경남 의령군	2123	0.75	0.031	서울 동작구	0.025	0.25	0.048
15	강원 양구군	2083	0.75	0.054	경기 광명시	0.029	0.25	0.059
16	강원 정선군	2055	0.75	0.034	울산 남구	0.029	0.25	0.051
17	전남 합평군	2019	0.75	0.035	인천 연수구	0.031	0.25	0.058
18	인천 강화군	1922	0.75	0.029	부산 북구	0.032	0.25	0.048
19	전남 완도군	1893	0.75	0.044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0.033	0.25	0.052
20	강원 화천군	1878	0.75	0.053	경기 군포시	0.035	0.25	0.061

주: (파출소 수/(지역)주민등록 전체인구 수)×10,000

자료: 1) 공공데이터포털(<https://www.data.go.kr>, 검색일 2016년 5월 27일). 전국 경찰관서 주소(2014년 기준).

2) 행정자치부(2016). 주민등록인구현황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검색일 2016년 6월 7일).

3. 소결

가. 육아지원환경의 영역별 평가 결과

전체 지역의 수요자 대비 육아지원환경의 공급수준을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편차가 매우 컸으며 낮은 공급수준을 보이는 지역이 많았다. 1.0과 0.75점 대로 평가된 영역만을 보았을 때 모든 영역 중 (맞춤형)돌봄지원 영역이 비교적 높은 공급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영역중에서도 요소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는데, 유아교육·보육 영역에서는 약 40%의 지역이 전체어린이집과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과 특수학급 공급수준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맞춤형)돌봄지원 영역에서는 약 50%의 지역이 아이돌보미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시간연장보육 인력 규모에서 높은 공급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문화인프라 중 어린이놀이시설 공급수준과 보건·의료 서비스 중 소아청소년과(병의원) 공급수

준은 약 40% 미만 지역에서, 안전관리·보호 영역 중 학대피해아동쉼터 공급수준이 약 70% 지역의 공급수준이 높은 편으로 평가되었다.

상위지역과 하위지역 중 각각 20위에 포함된 지역을 규모별로 살펴보았을 때 국공립유치원과 전체어린이집의 공급 하위지역으로 대도시가 주로 포함되고 있고, 국공립 어린이집 공급 하위지역으로는 군지역이 포함되어 있어, 지역 규모와 영유아비율을 고려한 공급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겠다.

둘째, 육아지원 영역에 포함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중심으로 공급수준이 높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군지역에 공급수준이 높아 각 지역 규모에 따른 공급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셋째, (맞춤형)돌봄지원 영역의 공급하위 지역은 대체로 대도시와 중소도시로 시간제 보육의 공급수준이 낮았으며, 시간연장보육 등 기타 (맞춤형)돌봄지원 서비스의 공급수준에서 대체로 군지역이 상위지역으로 평가되며, 중소도시나 대도시는 공급수준이 낮게 나타났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여성경제활동인구 수 등 취업모의 비율과 부모의 돌봄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고려할 때 중소도시와 대도시의 돌봄지원에 대한 욕구가 미충족 될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넷째, 문화인프라의 공급수준은 대체로 낮았으며,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 박물관, 어린이 미술관은 군지역이, 장난감 도서관은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공급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보건소의 공급수준은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소아청소년과(병의원)은 군지역이 공급수준 하위인 것으로 나타나,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급수준에 지역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보행자전용도로는 비교적 신도시가 많이 분포된 중소도시의 공급수준이 상위지역으로 평가되었으며, 기타 안전관리·보호 영역의 인프라들은 미설치된 지역이 많아 영유아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인프라 마련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나. 종합 평가 결과

252개 시·군·구를 육아지원환경 6개 평가 영역 중 물리적 환경 측면에서 상위 20%와 하위 20% 지역을 각 지역규모별 영유아비율 평균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평가 결과 6개 영역에서 고르게 상위지역으로 평가된 지역은 대도시의 서울

시 종로구와 중구였으며, 두 개 지역은 물리적 환경에서 관련 여건이 좋은 반면 영유아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높게 평가된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영유아비율을 고려하는 것은 중요한데, 그 이유는 각 평가요소의 산출방식에 있어서 서비스 수혜자인 영유아비율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서비스의 수혜자들의 접근성을 고려한 것으로 대부분의 대도시 지역은 물리적 환경이 영유아비율에 비해 충족되지 않아 낮게 평가되고 있었다.

〈표 IV-2-43〉 지역규모별 육아지원환경 평가 결과

영역	평가	대도시/ 영유아비율 평균(.055)	중소도시/ 영유아비율 평균(.049)	군지역/ 영유아비율 평균(.039)
I	상위	서울 종로구, 서울 중구, 서울 금천구, 대전 대덕구, 부산 동구	제주도 서귀포시,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인천 강화군, 충북 옥천군, 충북 영동군, 충남 금산군, 전남 곡성군, 경남 함양군
		부산 강서구	성남시 수정구, 전북 남원시, 경기 부천시 오정구, 수원시 팔달구,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충남 논산시	
	하위	서울 강남구, 서울 서초구, 서울 마포구, 서울 송파구, 부산연제구,	경기 부천시 원미구, 성남시 분당구, 경남 거제시, 수원시 권선구	경북 영덕군, 강원 양구군
		서울 중구, 서울 종로구	경북 상주시,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인천 옹진군, 전남 함평군, 경북 성주군, 경북 봉화군, 경북 울릉군
II	상위	서울 송파구, 대전 동구, 대전 중구, 대전 서구, 대구 동구, 울산 동구	경기 과천시,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
	하위		경기 용인시 기흥구, 충북 청주시 상당구, 충남 서산시, 전북 전주시 덕진구, 경북 경산시,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경남 창원시 진해구, 경남 사천시, 경남 양산시	인천 옹진군, 강원 홍천군 외 7개, 충북 보은군, 충북 옥천군, 충북 영동군, 충북 증평군 외 3개, 충남 금산군 외 2개, 전북 장수군외 5개, 전남 담양군 외 10개, 경북 군위군 외 9개, 경남 함안군 외 3개
			진북 김제시, 경북 경주시, 전남 나주시, 강원 태백시	

(표 IV-2-43 계속)

영역	평가	대도시/ 영유아비율 평균(055)	중소도시/ 영유아비율 평균(049)	군지역/ 영유아비율 평균(039)
III	상위	서울 종로구, 서울 강남구, 대전 대덕구	세종시, 충남 계룡시, 전남 나주시 강원 속초시, 충북 충주시, 충북 제천시, 충남 논산시, 전북 남원시, 전북 정읍시, 경북 상주시, 경북 영주시,	강원 평창군, 강원 영월군, 강원 양양군, 충북 단양군, 충남 부여군, 전남 곡성군
	하위	서울 구로구, 부산 강서구 서울 성동구, 대구 중구, 대구 동구 인천 중구	경기 김포시, 경기 하남시,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경기 오산시, 충남 당진시, 충남 거제시, 경남 양산시	경기 연천군, 강원 화천군, 부산 기장군 전남 신안군, 경북 성주군, 경북 군위군, 경북 울릉군, 경남 의령군
	상위	서울 중구, 서울 종로구, 광주동구, 부산 중구	경기 과천시, 강원 태백시, 강원 삼척시, 충북 제천시, 충남 공주시, 충남 공주시, 충남 보령시, 전북 남원시	강원 영월군, 경북 청송군
IV	상위	울산 동구	경기 안양시 동안구, 경기 부천시 원미구, 경기 하남시, 경기 화성시, 용인시 기흥구, 경북 구미시, 경남 양산시	부산 기장군, 전북 장수군, 전남 강진군, 전남 무안군, 전남 장성군, 경북 예천군, 경북 칠곡군, 경남 함안군
	하위	서울 서초구, 부산 수영구, 부산 사상구, 부산 남구, 부산 동구, 부산 사하구		

(표 IV-2-43 계속)

영역	평가	대도시/ 영유아비율 평균(.055)	중소도시/ 영유아비율 평균(.049)	군지역/ 영유아비율 평균(.039)
V	상위	서울 중구, 서울 성동구, 서울 종로구, 서울 영등포구, 인천동구, 광주 동구, 부산 중구, 부산 동구	경기 포천시, 강원 속초시, 강원 삼척시, 강원 태백시, 전북 남원시, 경북 상주시, 경북 문경시	부산 기장군, 강원 홍천군 충남 예산군, 충남 홍성군, 경남 합천군
	하위	부산 사하구, 인천 남동구, 대전 동구, 광주 북구, 울산 남구, 부산 북구, 대구 달서구, 대구 수성구, 울산 동구	수원시 영통구, 경기 수원시 권선구, 전남 목포시, 경남 사천시	강원 철원군, 충북 증평군, 충북 음성군, 전북 장수군, 대구 달성군, 경북 칠곡군, 경남 함안군 강원 고성군
VI	상위	울산 북구 부산 연제구	경기 성남시 분당구, 경기 고양시 덕양구, 경기 성남시 중원구, 경기의왕시, 세종시, 충남 계룡시	강원 화천군, 경남 거창군 경남 함양군
	하위	서울시 노원구, 광주 서구, 광주 동구, 부산 수영구, 부산 중구, 대구 서구, 대구 중구	경남 통영시 경기 포천시, 전북 김제시, 경북 상주시, 경북 경주시, 경북 영주시, 충남 논산시	강원 고성군, 인천 강화군, 충북 괴산군, 경북 청도군

주. 색인된 지역은 본 연구의 부모조사 설문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임.

V. 영유아 부모의 육아지원환경 만족도와 요구

본 장에서는 육아지원환경에 대한 부모들의 만족도와 정책개선을 위한 요구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IV장의 전국 육아지원환경 평가를 통해 선정된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각각의 상·하위 지역에 거주하는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1. 조사 참여자 특성

본 조사 참여자는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1,200명으로 특성은 아래와 같다. 부모의 연령은 35~39세가 각각 44.3%, 42.8%로 가장 많았으며, 학력은 72.5%, 73.4% 이상이 대학 졸업이었다. 부의 경우 정규직이 77.8%로 가장 많았고 모는 전업주부가 64.3%로 많았다. 자녀 연령은 만 5세 이상이 38.5%로 가장 많았으며 자녀는 2명이 50.9%로 가장 많았다.

〈표 V-1-1〉 조사 참여자 특성

		단위: %(명)	
구분	계(수)	구분	계(수)
전체	100.0(1,200)	부	모
자녀연령		응답자 연령	
0세	4.8(58)	30세 미만	3.1(37) 10.4(125)
만1세	11.8(142)	30~34세	21.3(255) 32.6(391)
만2세	13.1(157)	35~39세	44.3(533) 42.8(513)
만3세	12.0(144)	40세 이상	31.3(375) 14.3(171)
만4세	19.8(237)	응답자 최종 학력	
만5세 이상	38.5(462)	고등학교 졸업 이하	19.7(236) 21.3(255)
거주지 지역규모		(전문)대학 재/졸	72.5(870) 73.4(881)
대도시	33.3(400)	대학원 이상 재/졸	7.8(94) 5.3(64)
중소 도시	33.3(400)	고용상태	
읍/면	33.3(400)	정규직	77.8(933) 18.4(221)
지역		비정규직(8시간)	3.5(42) 2.9(35)
서울	8.3(100)	비정규직(시간제)	0.3(4) 4.3(51)
경인/강원	16.7(200)	자영업	17.3(207) 4.5(54)
충청	25.0(300)	휴직/이직준비	0.4(5) 5.5(66)
전라	25.0(300)	전업주부	- 64.3(771)
경상	25.0(300)	무직/학생	0.7(9) 0.2(2)

(표 V-1-1 계속)

구분	계(수)	구분	계(수)	
현주소 거주 기간		직종		
1~3년 미만	28.8(346)	관리직	6.5(77)	1.7(6)
3~5년 미만	26.0(312)	전문직	12.6(149)	18.3(66)
5~7년 미만	21.3(255)	사무직	35.8(424)	44.9(162)
7년 이상	23.9(287)	서비스직	10.9(129)	18.3(66)
월 가구소득		판매직	6.1(72)	10.8(39)
250만원 미만	11.2(134)	농림어업직	2.6(31)	0.8(3)
250~350만원 미만	30.0(360)	기능직(단순)	7.8(93)	0.6(2)
350~450만원 미만	24.3(291)	노동직(단순노무)	1.4(17)	2.2(8)
450~550만원 미만	16.4(197)	군인	1.4(17)	-
550만원 이상	18.2(218)	기술직(전문)	12.6(149)	1.4(5)
모 취업 여부		장치, 기계 조작조립 종사자	2.0(24)	-
취업모	30.0(360)	기타	0.3(4)	1.1(4)
비취업모	70.0(840)			
자녀수		자녀와 동거여부		
1명(외동아)	35.1(421)	동거	98.5(1,182)	98.8(1,185)
2명	50.9(611)	비동거	1.5(18)	1.3(15)
3명 이상	14.0(168)			

주: 평가 점수 상·하위지역별 일반적 특성이 차이가 크지 않아 전체 응답자 특성만 제공함.

2. 이용 기관 및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가. 교육·보육 기관

현재 자녀가 이용하는 교육·보육 기관은 어린이집이 50.3%로 가장 많았고 유치원 30.3%, 가정양육 18.8%, 기타 반일제 이상 학원 0.8% 순이었다. 지역별로 이용 기관의 통계적 차이는 없었으나 가정양육은 하위지역에서 20.8%로 좀 더 높았다.

〈표 V-2-1〉 자녀가 이용하는 교육·보육 기관 유형

항목	응답률		
	상위지역	하위지역	전체
유치원	28.5	32.0	30.3
어린이집	54.0	46.5	50.3
기타 반일제 이상 학원	0.8	0.7	0.8
가정양육	16.7	20.8	18.8
사례수	100.0(600)	100.0(600)	100.0(1,200)

단위: %(명)

현재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966명을 대상으로 기관의 편리성, 질적 우수성, 경제성에 대한 만족도를 4점 만점으로 분석하였다.

편리성 중 운영시간과 질적 우수성 중 교직원 전문성, 급간식에 대해 3.4점으로 가장 만족했으며, 편리성 중 거리, 다양한 돌봄 서비스와 질적 우수성 중 시설구비, 프로그램, 경제성 모두 3.3점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표 V-2-2〉 교육·보육 기관 이용 만족도

구분	편리성				질적 우수성				경제성		사태수
	거리	운영시간	다양한 돌봄 서비스	입소요시간	시설 구비	프로그램	교직원 전문성	급간식	이용 비용	M(SD)	
전체	3.3(0.8)	3.4(0.6)	3.3(0.7)	3.2(0.8)	3.3(0.6)	3.3(0.6)	3.4(0.6)	3.4(0.6)	3.3(0.7)	966	
평가접수											
상위지역	3.3(0.8)	3.4(0.7)	3.3(0.7)	3.2(0.8)	3.3(0.6)	3.3(0.6)	3.3(0.6)	3.3(0.6)	3.3(0.6)	495	
하위지역	3.3(0.7)	3.4(0.6)	3.3(0.8)	3.2(0.8)	3.3(0.6)	3.4(0.6)	3.4(0.6)	3.4(0.6)	3.3(0.7)	471	
t	-1.13	-0.31	-0.34	-0.59	-1.49	-2*	-1.23	-0.84	1.24		
지역구분											
대도시-상	3.3(0.7)	3.5(0.6) ^b	3.3(0.6)	3.2(0.8)	3.3(0.6)	3.4(0.5)	3.4(0.6)	3.4(0.6)	3.3(0.6)	173	
대도시-하	3.2(0.7) ^a	3.3(0.7)	3.2(0.7)	3.1(0.9)	3.2(0.6)	3.3(0.6)	3.3(0.6)	3.3(0.6)	3.1(0.7) ^a	156	
중소도시-상	3.3(0.9)	3.3(0.8) ^a	3.1(0.8) ^a	3.0(0.8) ^a	3.2(0.7)	3.2(0.7) ^a	3.2(0.7)	3.3(0.6)	3.3(0.7)	150	
중소도시-하	3.5(0.7) ^b	3.5(0.6)	3.4(0.7) ^b	3.2(0.9)	3.4(0.6)	3.5(0.6) ^b	3.4(0.6)	3.5(0.5)	3.4(0.6) ^b	148	
군지역-상	3.2(0.8) ^a	3.5(0.6)	3.4(0.7) ^b	3.3(0.8) ^b	3.4(0.7)	3.3(0.7)	3.4(0.6)	3.4(0.6)	3.5(0.6) ^b	172	
군지역-하	3.3(0.7)	3.5(0.6)	3.2(0.8)	3.3(0.8)	3.4(0.6)	3.4(0.6)	3.4(0.6)	3.3(0.6)	3.3(0.7) ^b	167	
F	3.56**	3.66**	4.51***	4.07**	3.81**	3.37**	2.87*	1.62	7.54***		
	a<b	a<b	a<b	a<b		a<b			a<b		
모 고용상태											
취업모	3.3(0.8)	3.4(0.6)	3.3(0.7)	3.2(0.9)	3.4(0.6)	3.4(0.6)	3.4(0.6)	3.4(0.6)	3.3(0.7)	326	
비취업모	3.3(0.8)	3.4(0.7)	3.3(0.7)	3.2(0.8)	3.3(0.6)	3.3(0.6)	3.4(0.6)	3.3(0.6)	3.3(0.6)	640	
t	0.58	0.59	0.58	0.32	2.31*	0.29	0.06	0.75	-0.13		

주: a, b집단 간 차이가 있음.

* $p < .05$, ** $p < .01$, *** $p < .001$

질적 우수성 중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상위지역보다 하위지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편리성 전체와 질적 우수성 일부, 경제성에 대한 만족도에서 지역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검증을 통해 집단 평균 차이를 확인한 결과 중소도시-하위 지역이 대도시-하위 지역과 군지역-상위 지역보다 거리에 대한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도시-상위 지역이

중소도시-상위 지역보다 운영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돌봄서비스와 대기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군지역-상위 지역이 중소도시-상위 지역 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적 우수성 측면에서는 중소도시-하위 지역이 중소도시-상위 지역보다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경제성 측면에서는 중소도시-하위 지역과 군지역-상·하위 지역이 대도시-하위 지역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적 우수성 중 시설구비에 대해서는 취업모가 비취업모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234명을 대상으로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본 결과, '아직 어린 아이이므로 가정에서 돌보고 싶어서'가 각 57.3%로 가장 많았고, '주양육자가 직접 양육하고 싶어서'가 각 32.5%로 그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하는 유치원 혹은 어린이집에 가지 못해서'는 상위지역이 3.8%였으나 하위지역은 6.2%가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3〉 교육·보육 기관 미이용 이유

단위: %(명)

항목	응답률		
	상위지역	하위지역	전체
주양육자가 직접 양육하고 싶어서	35.2	30.2	32.5
아직 어린 나이이므로 가정에서 돌보고 싶어서	57.1	57.4	57.3
양육수당이 가계경제에 도움이 되어서	0.0	0.8	0.4
유치원 혹은 어린이집 경비가 부담이 되어서	0.0	0.8	0.4
가족 내 어른이 많아 대리 양육이 가능해서	0.0	0.8	0.4
아이가 원치 않아서	1.0	1.6	1.3
원하는 유치원 혹은 어린이집에 가지 못해서	3.8	6.2	5.1
영어교육에 집중하기 위하여	1.9	1.6	1.7
기타	1.0	0.8	0.9
사례수	100.0(105)	100.0(129)	100.0(234)

향후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 이용 계획에 대해서는 상위지역 92.4%, 하위지역 94.6%로 대다수의 부모가 향후 이용할 계획이 있다고 답하였다. 이용 예정 나이를 살펴보면, 상위지역과 하위지역 모두 만 3세, 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13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에 계획 비율이 높았다. 12개월 미만의 경우는 상위지역에서만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만 4세에 계획하고 있는 비율은 상위지역이 4.1%인 것에 비해 하위지역은 11.5%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4〉 향후 이용 계획 및 이용 예정 나이

단위: %(명)

항목	응답률		
	상위지역	하위지역	전체
예	92.4	94.6	93.6
아니오	7.6	5.4	6.4
12개월 미만	2.1	0.0	0.9
13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22.7	16.4	19.2
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30.9	32.8	32.0
만 3세	34.0	32.8	33.3
만 4세	4.1	11.5	8.2
만 5세	3.1	3.3	3.2
원하는 곳의 입학이 가능해지는 대로	3.1	3.3	3.2
사례수	100.0(97)	100.0(122)	100.0(219)

나. 육아지원 기관

육아지원 기관 이용 형태를 살펴본 결과는 <표 V-2-5>와 같다. 전체적으로 ‘이용해본 경험 없음’이라고 응답한 부모가 81.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육아종합 지원센터 11.0%, 건강가정지원센터 5.3%,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유아교육진흥원이 각 2.5% 순이었다. 평가결과에 따라서는 상위지역이 하위지역보다 전체적으로 육아지원 기관 이용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표 V-2-5〉 육아지원 기관 이용 경험(복수응답)

단위: %

구분	육아종합 지원센터	건강가정 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유아교육 진흥원	이용해본 경험 없음
전체	11.0	5.3	2.5	2.5	81.9
평가결과					
상위지역	15.2	7.0	1.2	3.7	77.3
하위지역	6.8	3.7	3.8	1.3	86.5
지역구분					
대도시-상위	19.0	3.5	0.0	6.0	74.0
대도시-하위	15.5	5.5	0.0	1.5	82.5
중소도시-상위	21.5	12.5	1.5	3.5	68.5
중소도시-하위	4.5	3.5	11.0	2.5	80.0
군지역- 상위	5.0	5.0	2.0	1.5	89.5
군지역- 하위	0.5	2.0	0.5	0.0	97.0

(표 V-2-5 계속)

구분	육아종합 지원센터	건강가정 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유아교육 진흥원	이용해본 경험 없음
자녀연령					
영아	14.4	5.4	1.0	0.6	81.4
유아	8.6	5.3	3.6	3.9	82.3
월 가구소득					
250만원 미만	8.2	8.2	6.7	2.2	79.9
250~350만원 미만	5.0	3.3	2.8	2.2	87.8
350~450만원 미만	13.7	7.2	2.1	3.1	80.1
450~550만원 미만	12.2	3.6	0.5	3.0	82.7
550만원 이상	17.9	6.0	1.8	1.8	75.2
모 고용상태					
취업모	10.3	5.0	3.1	1.9	82.5
비취업모	11.3	5.5	2.3	2.7	81.7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한 132명을 대상으로 편리성, 질적 우수성, 경제성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았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경제성에 대한 만족도가 3.4점으로 가장 높았고 대기시간이 짧아 원활하게 이용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가 3.3점으로 높았다.

〈표 V-2-6〉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 만족도

단위: 점, 명

구분	편리성			질적 우수성					경제성	사례수
	편리한 교통	운영 시간	다양한 서비스	대기 시간	시설 구비	프로 그램	직원 전문성	도서 및 장난감	이용 비용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전체	3.0(0.9)	3.0(0.8)	3.0(0.8)	3.3(0.8)	3.2(0.7)	3.0(0.7)	3.2(0.7)	3.1(0.7)	3.4(0.7)	132
평가점수										
상위지역	3.2(0.8)	3.1(0.8)	3.0(0.8)	3.3(0.7)	3.2(0.6)	3.1(0.7)	3.3(0.7)	3.1(0.7)	3.4(0.7)	91
하위지역	2.6(1.1)	3.0(0.8)	3.1(0.8)	3.1(0.9)	3.2(0.7)	2.9(0.8)	3.0(0.7)	3.1(0.8)	3.3(0.7)	41
t	3.27**	0.78	-0.52	1.18	0.39	1.64	1.9	0.03	1.06	
지역구분										
대도시-상	3.4(0.8)	3.0(0.8)	2.8(0.7)	3.6(0.7)	3.2(0.7)	3.1(0.6)	3.4(0.8)	3.0(0.6)	3.5(0.7)	38
대도시-하	2.8(1.0)	3.0(0.8)	3.3(0.7)	3.3(0.8)	3.2(0.8)	3.0(0.8)	3.2(0.7)	3.1(0.9)	3.5(0.7)	31
중소도시-상	3.1(0.8)	3.1(0.8)	3.1(0.8)	3.1(0.7)	3.2(0.7)	3.1(0.8)	3.2(0.7)	3.2(0.7)	3.3(0.7)	43
중소도시-하	2.0(1.1)	2.7(0.7)	2.4(0.7)	2.6(1.0)	3.2(0.7)	2.3(0.7)	2.4(0.5)	3.1(0.3)	2.7(0.5)	9
군지역 상	3.3(0.8)	3.3(0.7)	3.4(0.5)	3.2(0.8)	3.2(0.4)	3.1(0.6)	3.1(0.6)	2.9(0.6)	3.4(0.5)	10
군지역 하	1.0(0.0)	4.0(0.0)	3.0(0.0)	4.0(0.0)	3.0(0.0)	3.0(0.0)	3.0(0.0)	3.0(0.0)	3.0(0.0)	1
F	5.33***	1.04	3.4**	3.19**	0.06	1.92	3.00*	0.59	2.44*	

(표 V-2-6 계속)

구분	편리성			질적 우수성					경제성	사례수
	편리한 교통	운영 시간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	대기 시간	시설 구비	프로 그램	직원 전문성	도서 및 장난감	이용 비용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모 고용상태										
취업모	3.0(0.9)	2.9(0.8)	3.1(0.7)	3.2(0.7)	3.2(0.6)	3.1(0.6)	3.1(0.7)	3.1(0.7)	3.4(0.7)	37
비취업모	3.1(1.0)	3.1(0.8)	3.0(0.8)	3.3(0.8)	3.2(0.7)	3.0(0.8)	3.2(0.8)	3.1(0.7)	3.4(0.7)	95
t	-0.5	-1.53	0.33	-0.7	-0.16	0.5	-0.94	-0.22	0.15	

주: 4점 만점 척도의 평균을 제시함.

* $p < .05$, ** $p < .01$, *** $p < .001$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자의 평가 결과 편리한 교통의 만족도가 평가점수 하위지역보다 상위지역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 편리한 교통, 다양한 서비스(프로그램) 항목에서 통계적 차이가 나타났다. 교통에 대한 만족도는 대도시-상위에서 3.4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군지역-상에서 3.4점으로 가장 높았다. 질적 우수성 측면에서는 특히 대도시-상위에서 대기시간(3.6점)과 직원의 전문성(3.4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 측면인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대도시 상, 하위 지역에 거주하는 부모의 만족도가 3.5점으로 가장 높았다. 한편, 중소도시-하위지역에서는 교통(2.0점) 및 다양한 서비스(2.4점), 대기시간(2.6점) 및 직원의 전문성(2.4점), 이용비용(2.7점) 등에 대한 만족도가 2점대로 전반적인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7>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 만족도

단위: 점, 명

구분	편리성			질적 우수성					경제성	사례수
	편리한 교통	운영 시간	다양한 서비스	대기 시간	시설 구비	프로 그램	직원 전문성	도서 및 장난감	이용 비용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전체	3.1(1.0)	3.1(0.8)	3.0(0.8)	3.0(1.0)	2.9(0.8)	3.0(0.7)	3.1(0.7)	2.8(0.7)	3.3(0.8)	64
평가점수										
상위지역	3.2(1.0)	3.2(0.8)	2.9(0.9)	3.0(1.0)	3.0(0.8)	3.0(0.7)	3.1(0.7)	2.9(0.8)	3.2(0.9)	42
하위지역	2.9(0.9)	3.0(0.7)	3.1(0.6)	2.8(0.9)	2.8(0.7)	3.0(0.7)	3.0(0.6)	2.7(0.6)	3.5(0.5)	22
t	1.08	1.08	-1.12	0.91	0.79	0.5	0.52	0.93	-1.19	

(표 V-2-7 계속)

구분	편리성			질적 우수성					경제성	사례수
	편리한 교통	운영 시간	다양한 서비스	대기 시간	시설 구비	프로 그램	직원 전문성	도서 및 장난감	이용 비용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지역구분										
대도시-상	2.4(1.3)	2.7(1.0)	2.3(1.1)	2.7(1.0)	2.3(1.0)	3.0(0.6)	3.0(0.6)	2.3(0.8)	3.0(0.8)	7
대도시-하	2.9(0.9)	3.1(0.8)	3.1(0.7)	2.9(1.0)	2.9(0.5)	3.1(0.5)	3.2(0.6)	2.8(0.6)	3.6(0.5)	11
중소도시-상	3.5(0.8)	3.4(0.7)	3.0(0.8)	3.3(1.0)	3.2(0.6)	3.2(0.7)	3.2(0.6)	3.1(0.7)	3.4(0.8)	25
중소도시-하	2.6(1.0)	2.9(0.7)	3.1(0.4)	2.3(0.5)	2.7(0.8)	2.7(1.0)	2.7(0.8)	2.6(0.5)	3.0(0.0)	7
군지역 상	2.9(1.1)	3.0(0.7)	3.0(0.8)	2.7(0.9)	2.9(0.9)	2.7(0.8)	2.9(1.0)	2.7(0.8)	3.0(1.1)	10
군지역 하	3.5(0.6)	3.0(0.0)	3.3(0.5)	3.5(0.6)	2.8(1.0)	3.0(0.0)	3.0(0.0)	2.5(0.6)	3.8(0.5)	4
F	2.52*	1.62	1.36	1.87	1.92	1.04	0.74	1.94	1.51	
모 고용상태										
취업모	2.7(1.0)	2.9(0.8)	2.9(1.0)	2.4(1.1)	2.8(0.9)	3.1(0.7)	3.0(0.8)	2.7(0.8)	3.2(0.6)	18
비취업모	3.2(0.9)	3.2(0.7)	3.0(0.7)	3.2(0.8)	3.0(0.7)	3.0(0.7)	3.1(0.7)	2.8(0.7)	3.3(0.8)	46
t	-1.92	-1.31	-0.6	-2.55*	-0.95	0.28	-0.45	-0.52	-0.84	

주: 4점 만점 척도의 평균을 제시함.

* $p < .05$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이용한 64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나 경제성에 대한 만족도가 3.3점으로 가장 높았고 편리한 교통(3.1점)과 직원의 전문성(3.1점)에 대해 만족도가 높았다. 편리성 측면에서는 지역에 따라 중소도시-상위 군지역-하위에서 교통의 편리함에 대하여 3.5점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질적 우수성 측면 중 대기시간에 대해서는 모 고용상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타나 비취업모(3.2점)가 취업모(2.4점)보다 대기시간이 짧은 것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았다.

<표 V-2-8>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만족도

단위: 점, 명

구분	편리성			질적 우수성				경제성	사례수
	편리한 교통	운영 시간	다양한 서비스	대기 시간	시설 구비	프로 그램	직원 전문성	이용 비용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전체	3.4(0.9)	3.7(0.5)	2.9(0.7)	3.9(0.6)	3.5(0.7)	2.6(0.7)	2.6(0.9)	3.8(0.7)	30
평가점수									
상위지역	2.9(1.5)	3.3(0.5)	3.3(1.0)	3.4(1.1)	3.1(0.9)	3.3(0.8)	3.3(0.8)	3.0(1.2)	7
하위지역	3.5(0.5)	3.9(0.5)	2.8(0.5)	4.0(0.0)	3.7(0.6)	2.4(0.6)	2.3(0.8)	4.0(0.0)	23
t	-1.89	-2.91**	1.83	-2.52	-1.8	3.32**	2.82**	-4.33	

(표 V-28 계속)

구분	편리성			질적 우수성				경제성	사례수
	편리한 교통	운영 시간	다양한 서비스	대기 시간	시설 구비	프로 그램	직원 전문성	이용 비용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지역구분									
대도시-상	-	-	-	-	-	-	-	-	-
대도시-하	-	-	-	-	-	-	-	-	-
중소도시상	3.0(1.7)	3.3(0.6)	3.0(1.0)	3.0(1.7)	3.3(1.2)	3.0(1.0)	3.0(1.0)	3.3(1.2)	3
중소도시하	3.5(0.5)	3.9(0.4)	2.8(0.5)	4.0(0.0)	3.7(0.6)	2.4(0.6)	2.3(0.8)	4.0(0.0)	22
군지역 상	2.8(1.5)	3.3(0.5)	3.5(1.0)	3.8(0.5)	3.0(0.8)	3.5(0.6)	3.5(0.6)	2.8(1.3)	4
군지역 하	4.0(0.0)	3.0(0.0)	3.0(0.0)	4.0(0.0)	3.0(0.0)	3.0(0.0)	3.0(0.0)	4.0(0.0)	1
F	1.29	4.36*	1.46	3.49*	1.54	4.39*	3.07*	6.95**	
모 고용상태									
취업모	3.3(1.0)	3.6(0.5)	3.1(0.7)	3.9(0.3)	3.5(0.7)	2.9(0.7)	2.8(0.9)	3.5(0.9)	11
비취업모	3.4(0.8)	3.8(0.5)	2.8(0.6)	3.8(0.7)	3.5(0.7)	2.4(0.7)	2.4(0.8)	3.9(0.5)	19
t	-0.45	-0.77	1.21	0.3	0.07	1.85	1.23	-1.38	

주: 4점 만점 척도의 평균을 제시함.

* $p < .05$, ** $p < .01$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한 3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수가 적어서 해석에 주의를 해야 하나 질적 우수성 중 짧은 대기시간(3.9점)에 대해 가장 만족했으며, 경제성(3.8점), 편리성 중 운영시간(3.7점)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높았다. 운영시간 만족도가 하위지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질적 우수성 중 프로그램과 직원 전문성의 만족도는 상위지역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편리성 측면 중 운영시간은 특히 중소도시-하위 지역에서 3.9점으로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질적 우수성 측면에서는 지역별로 차이가 나타났는데, 대기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중소도시-하위에서 4.0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프로그램과 직원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는 군지역-상위에서 3.5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중소도시-하위지역에서 각 2.4점, 2.3점으로 가장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 측면에서는 중소도시-하위에서 4.0점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유아교육진흥원(유아체험교육원)을 이용한 3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경제성에 대한 만족도가 3.4점으로 가장 높았고 편리성 중 다양한 서비스(3.3점)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질적 우수성 중 시설구비(3.3점), 직원의 전문성(3.3점)에 대해 만족도가 높았다. 편리성 측면에서는 모 고용상태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는데 취업모(3.1점)가 비취업모(2.2점) 보다 더 편리한 교통에 대해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9〉 유아교육진흥원(유아체험교육원) 이용 만족도

단위: 점, 명

구분	편리성			질적 우수성					경제성	사례수
	편리한 교통	운영 시간	다양한 서비스	대기 시간	시설 구비	프로 그램	직원 전문성	도서 및 장난감	이용 비용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전체	2.4(1.0)	2.9(0.8)	3.3(0.7)	2.9(0.7)	3.3(0.7)	3.2(0.7)	3.3(0.7)	3.2(0.6)	3.4(0.6)	30
평가점수										
상위지역	2.5(1.0)	2.9(0.8)	3.3(0.8)	2.9(0.8)	3.3(0.7)	3.3(0.8)	3.3(0.7)	3.2(0.7)	3.4(0.7)	22
하위지역	2.3(1.0)	2.8(0.9)	3.1(0.4)	2.9(0.6)	3.3(0.5)	3.1(0.4)	3.3(0.5)	3.3(0.5)	3.4(0.5)	8
t	0.59	0.46	0.67	-0.04	0.25	0.52	0.25	-0.09	-0.04	
지역구분										
대도시-상	2.3(1.1)	3.0(1.0)	3.5(0.7)	2.8(0.8)	3.4(0.7)	3.5(0.7)	3.6(0.7)	3.4(0.7)	3.5(0.7)	12
대도시-하	2.0(1.7)	2.3(1.5)	3.3(0.6)	2.3(0.6)	3.3(0.6)	3.3(0.6)	3.7(0.6)	3.3(0.6)	3.7(0.6)	3
중소도시-상	2.7(1.1)	2.9(0.7)	3.1(0.9)	2.9(0.7)	3.1(0.9)	3.1(0.9)	3.0(0.8)	3.0(0.8)	3.1(0.7)	7
중소도시-하	2.4(0.5)	3.0(0.0)	3.0(0.0)	3.2(0.4)	3.2(0.4)	3.0(0.0)	3.0(0.0)	3.2(0.4)	3.2(0.4)	5
군지역 상	2.7(0.6)	2.7(0.6)	3.0(1.0)	3.3(1.2)	3.3(0.6)	2.7(0.6)	3.0(0.0)	3.0(0.0)	3.3(0.6)	3
군지역 하	-	-	-	-	-	-	-	-	-	
F	0.31	0.44	0.67	1.05	0.21	1.22	1.77	0.59	0.61	
모 고용상태										
취업모	3.1(0.7)	3.0(0.6)	3.1(0.7)	2.9(0.4)	3.3(0.8)	3.3(0.8)	3.3(0.8)	3.3(0.8)	3.3(0.8)	7
비취업모	2.2(1.0)	2.8(0.9)	3.3(0.7)	2.9(0.8)	3.3(0.6)	3.2(0.7)	3.3(0.6)	3.2(0.6)	3.4(0.6)	23
t	2.28*	0.49	-0.53	-0.04	-0.07	0.23	-0.07	0.25	-0.39	

주: 4점 만점 척도의 평균을 제시함.

* $p < .05$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서비스 중 가장 도움이 된 서비스 1순위로는 ‘장난감도서 대여’가 46.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실내놀이실’ 26.5%, ‘부모교육’ 8.3%, ‘시간제보육 서비스’ 7.6%, ‘가족행사공연’ 6.8%, ‘자녀양육 상담’ 4.5% 순으로 나타났다.

〈표 V-2-10〉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가장 도움 된 서비스 1순위

단위: %(명)

항목	응답률
장난감도서 대여	46.2
실내놀이실	26.5
부모교육	8.3
자녀양육 상담	4.5

(표 V-2-10 계속)

항목	응답률
가정방문 지원	-
가족행사공연	6.8
시간제보육 서비스	7.6
사례수	100.0(132)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 시 가장 도움이 된 서비스 1순위는 '공동육아나눔터'가 43.8%로 나타났으며, '부모교육', '가족문화', '가족(집단) 상담', '가족품앗이', '아버지교육' 순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 1순위로 응답하였다.

〈표 V-2-11〉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장 도움 된 서비스 1순위

단위: %(명)

항목	응답률
부모교육	20.3
아버지교육	3.1
가족(집단) 상담	7.8
가족품앗이	6.3
공동육아나눔터	43.8
가족문화	18.8
사례수	100.0(64)

〈표 V-2-12〉 육아지원 기관 미이용 이유

단위: %(명)

항목	응답률		
	상위지역	하위지역	전체
지역 내 없어서	33.6	38.5	36.2
지역에 있지만 거리가 멀어 접근성이 떨어져서	6.9	10.0	8.5
지역에 있지만 대기가 길어 이용이 불편해서	3.2	1.9	2.5
제공하는 정보와 자료 등 서비스의 질이 낮아서	1.9	2.9	2.4
이용시간대가 제한되어 있어서	3.7	2.1	2.8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홍보가 덜 돼서	45.0	41.0	42.9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3.7	1.7	2.6
서비스 수혜 자격이 안 되어서	0.9	0.2	0.5
자녀가 어려서	0.6	1.5	1.1
기타	0.4	0.0	0.2
사례수	100.0(464)	100.0(519)	100.0(983)

육아지원 기관을 한번도 이용해 보지 않은 983명을 대상으로 미이용 이유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상·하위지역 모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홍보가 덜 돼서'가 각 45.0%, 41.0%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지역 내 없어서'가 각 33.6%, 38.5%, '거리가 멀어 접근성이 떨어져서'가 각 6.9%, 10.0% 등으로 나타났다. 근소한 차이지만 상위지역에서는 홍보부족을 높이 인식하였고, 하위지역에서는 지역 내에 없거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다. (맞춤형)돌봄지원 서비스

(맞춤형)돌봄지원 서비스에 대한 이용 형태를 알아보았다. 이용해본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81.6%로 가장 많았고, 산모신생아돌보미 8.6%, 아이돌보미(시간제 돌봄, 영아 종일제)서비스 3.9%, 시간연장, 휴일, 24시 보육(어린이집) 2.9%, 시간제 보육 2.8%, 온종일 돌봄 또는 에듀케어(유치원) 2.2%, 공동육아나눔터 0.7%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용경험이 없다는 비율은 상위지역(78.7%)이 하위지역(84.5%)보다 낮았고, 취업모(78.1%)가 비취업모(83.1%)보다 낮았으며, 영아와 유아 간 서비스 제공처에 따른 이용경험의 차이가 있었다.

〈표 V-2-13〉 돌봄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복수응답)

구분	시간제 보육	시간연장, 휴일, 24시간 보육 ¹⁾	온종일 돌봄 에듀케어 ²⁾	아이 돌보미 서비스 ³⁾	공동 육아 나눔터	산모 신생아 돌보미	이용해본
							경험 없음
전체	2.8	2.9	2.2	3.9	0.7	8.6	81.6
평가결과							
상위지역	4.2	2.7	1.5	4.2	1.0	10.7	78.7
하위지역	1.5	3.2	2.8	3.7	0.3	6.5	84.5
지역구분							
대도시-상위	4.5	1.0	1.0	5.0	0.0	10.5	80.5
대도시-하위	2.5	4.0	5.0	4.0	0.5	6.0	84.0
중소도시-상위	4.5	2.0	1.5	5.0	3.0	12.0	75.0
중소도시-하위	1.0	3.0	0.5	6.0	0.5	6.0	84.0
군지역- 상위	3.5	5.0	2.0	2.5	0.0	9.5	80.5
군지역- 하위	1.0	2.5	3.0	1.0	0.0	7.5	85.5
자녀연령							
영아	3.0	3.4	0.4	2.8	1.2	8.0	82.4
유아	2.7	2.6	3.4	4.7	0.3	9.0	81.0

단위: %

(표 V-2-13 계속)

구분	시간제 보육	시간연장, 휴일, 24시간 보육 ¹⁾	온종일 돌봄 에듀케어 ²⁾	아이 돌보미 서비스 ³⁾	공동 육아 나눔터	산모 신생아 돌보미	이용해본 경험 없음
월 가구소득							
250만원 미만	0.0	2.2	2.2	4.5	0.7	16.4	76.9
250~350만원 미만	1.4	2.5	1.7	3.9	0.6	9.4	82.5
350~450만원 미만	3.4	3.1	2.7	3.1	1.0	5.5	83.8
450~550만원 미만	4.6	3.6	3.0	4.6	0.5	9.6	79.2
550만원 이상	4.6	3.2	1.4	4.1	0.5	5.5	82.1
모 고용상태							
취업모	3.1	5.3	3.9	4.7	0.6	8.1	78.1
비취업모	2.7	1.9	1.4	3.6	0.7	8.8	83.1

주: 1) 어린이집 2) 유치원 3) 시간제 돌봄, 영아 종일제

시간제보육을 이용한 34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질적 우수성 중 급간식(3.5점)에 대해 가장 만족했으며, 경제성(3.4점), 편리성 중 운영시간(3.4점)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높았다. 지역과 모 고용상태에 따른 통계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V-2-14> 시간제보육 서비스 이용 만족도

단위: 점, 명

구분	편리성			질적 우수성				경제성	사례수
	편리한 교통	운영 시간	대기 시간	시설 구비	프로 그램	담당인력 전문성	급간식	이용 비용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전체	3.2(0.8)	3.4(0.7)	3.2(0.8)	3.0(0.8)	3.1(0.8)	3.1(0.7)	3.5(1.6)	3.4(0.7)	34
평가점수									
상위지역	3.1(0.9)	3.2(0.8)	3.1(0.7)	3.1(0.8)	3.0(0.8)	3.1(0.8)	3.6(1.8)	3.4(0.8)	25
하위지역	3.4(0.7)	3.7(0.5)	3.4(1.0)	2.8(0.7)	3.4(0.7)	3.3(0.5)	3.2(1.1)	3.4(0.5)	9
t	-0.99	-1.53	-1.03	1.11	-1.34	-0.87	0.65	-0.31	
지역구분									
대도시-상	3.1(1.1)	3.1(1.1)	3.0(1.0)	2.9(1.1)	2.8(1.0)	2.9(1.1)	3.1(1.1)	3.3(1.0)	9
대도시-하	3.6(0.5)	3.8(0.4)	3.4(1.3)	2.4(0.5)	3.6(0.5)	3.4(0.5)	3.6(0.9)	3.6(0.5)	5
중소도시-상	3.2(0.7)	3.1(0.6)	3.2(0.4)	3.1(0.6)	3.0(0.5)	3.0(0.7)	4.2(2.8)	3.2(0.4)	9
중소도시-하	3.5(0.7)	3.5(0.7)	3.5(0.7)	3.0(0.0)	3.5(0.7)	3.5(0.7)	3.5(0.7)	3.5(0.7)	2
군지역 상	3.0(1.0)	3.6(0.5)	3.1(0.7)	3.4(0.8)	3.4(0.8)	3.4(0.5)	3.6(0.5)	3.6(0.8)	7
군지역 하	3.0(1.4)	3.5(0.7)	3.5(0.7)	3.5(0.7)	3.0(1.4)	3.0(0.0)	2.0(1.4)	3.0(0.0)	2
F	0.36	0.91	0.26	1.23	1.09	0.67	0.76	0.4	

(표 V-2-14 계속)

구분	편리성			질적 우수성				경제성	사례수
	편리한 교통	운영 시간	대기 시간	시설 구비	프로 그램	담당인력 전문성	급간식	이용 비용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모 고용상태									
취업모	3.3(1.0)	3.5(0.5)	3.3(0.6)	3.1(0.5)	3.0(0.6)	2.9(0.7)	4.3(2.5)	3.5(0.7)	11
비취업모	3.2(0.8)	3.3(0.8)	3.2(0.9)	3.0(0.9)	3.2(0.9)	3.3(0.8)	3.2(0.9)	3.3(0.7)	23
t	0.31	0.55	0.33	0.31	-0.75	-1.3	1.9	0.94	

주: 4점 만점 척도의 평균을 제시함.

어린이집에서 시간연장, 휴일, 24시 보육을 이용한 35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질적 우수성 중 급간식(3.6점)에 대해 가장 만족했으며, 편리성 중 운영시간(3.6점), 경제성(3.5점)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높았다. 이외에 교통과 대기 시간, 시설구비와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3.4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지역과 모 고용상태에 따른 통계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V-2-15> 시간연장·휴일·24시 보육 서비스 이용 만족도

단위: 점, 명

구분	편리성			질적 우수성				경제성	사례수
	편리한 교통	운영 시간	대기 시간	시설 구비	프로 그램	담당인력 전문성	급간식	이용 비용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전체	3.4(0.8)	3.6(0.6)	3.4(0.7)	3.4(0.8)	3.4(0.7)	3.3(0.7)	3.6(0.6)	3.5(0.7)	35
평가점수									
상위지역	3.3(0.9)	3.4(0.6)	3.2(0.8)	3.3(0.9)	3.3(0.8)	3.1(0.7)	3.5(0.7)	3.5(0.6)	16
하위지역	3.5(0.8)	3.7(0.5)	3.6(0.5)	3.5(0.7)	3.5(0.5)	3.4(0.6)	3.7(0.6)	3.5(0.8)	19
t	-0.96	-1.63	-1.83	-0.58	-1.26	-1.32	-1.08	-0.11	
지역구분									
대도시-상	3.5(0.7)	3.5(0.7)	3.5(0.7)	4.0(0.0)	4.0(0.0)	3.5(0.7)	4.0(0.0)	4.0(0.0)	2
대도시-하	3.9(0.4)	3.9(0.4)	3.6(0.5)	3.5(0.5)	3.4(0.5)	3.6(0.5)	4.0(0.0)	3.8(0.5)	8
중소도시-상	3.3(1.0)	3.3(0.5)	3.0(0.8)	2.8(1.3)	3.0(0.8)	2.8(0.5)	3.0(0.8)	3.0(0.0)	4
중소도시-하	3.8(0.4)	3.7(0.5)	3.3(0.5)	3.5(0.8)	3.8(0.4)	3.3(0.5)	3.5(0.5)	3.5(0.5)	6
군지역 상	3.2(0.9)	3.5(0.7)	3.2(0.8)	3.4(0.8)	3.2(0.8)	3.2(0.8)	3.6(0.7)	3.6(0.7)	10
군지역 하	2.6(1.1)	3.6(0.5)	3.8(0.4)	3.4(0.9)	3.4(0.5)	3.2(0.8)	3.6(0.9)	3.2(1.3)	5
F	2.17	0.79	1.1	0.75	1.46	1.03	1.6	1.04	
모 고용상태									
취업모	3.4(0.8)	3.5(0.5)	3.3(0.7)	3.3(0.7)	3.4(0.6)	3.3(0.7)	3.7(0.6)	3.5(0.8)	19
비취업모	3.4(0.9)	3.7(0.6)	3.5(0.6)	3.5(0.9)	3.4(0.7)	3.3(0.7)	3.6(0.7)	3.6(0.6)	16
t	0.16	-0.86	-0.83	-0.66	0.21	-0.21	0.55	-0.37	

주: 4점 만점 척도의 평균을 제시함.

유치원에서 온종일돌봄 또는 에듀케어를 이용한 26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편리성 중 편리한 교통(3.7점)과 질적 우수성 중 급간식(3.7점), 경제성(3.7점)에 대해 가장 만족했으며, 편리성 중 운영시간(3.6점), 질적우수성 중 담당인력 전문성(3.6점)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높았다. 이외에 시설구비와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3.5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지역에 따른 통계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V-2-16〉 온종일돌봄(에듀케어) 서비스 이용 만족도

단위: 점, 명

구분	편리성			질적 우수성				경제성	사례수
	편리한 교통	운영 시간	대기 시간	시설 구비	프로 그램	담당인력 전문성	급간식	이용 비용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전체	3.7(0.7)	3.6(0.8)	3.3(0.8)	3.5(0.6)	3.5(0.6)	3.6(0.6)	3.7(0.5)	3.7(0.6)	26
평가점수									
상위지역	3.4(0.9)	3.1(1.1)	3.0(1.0)	3.3(0.7)	3.3(0.9)	3.4(0.7)	3.6(0.7)	3.6(0.7)	9
하위지역	3.8(0.6)	3.9(0.3)	3.5(0.7)	3.6(0.5)	3.5(0.5)	3.7(0.5)	3.8(0.4)	3.7(0.6)	17
t	-1.13	-2.81	-1.56	-1.06	-0.73	-1.12	-0.92	-0.57	
지역구분									
대도시-상	3.0(1.4)	2.5(0.7)	2.5(2.1)	3.0(1.4)	3.0(1.4)	3.0(1.4)	3.0(1.4)	3.0(1.4)	2
대도시-하	3.7(0.7)	3.9(0.3)	3.5(0.7)	3.4(0.5)	3.4(0.5)	3.8(0.4)	3.9(0.3)	3.6(0.7)	10
중소도시-상	4.0(0.0)	3.0(1.7)	2.7(0.6)	3.3(0.6)	3.7(0.6)	3.7(0.6)	3.7(0.6)	3.7(0.6)	3
중소도시-하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3.0(0.0)	4.0(0.0)	1
군지역 상	3.3(1.0)	3.5(0.6)	3.5(0.6)	3.5(0.6)	3.3(1.0)	3.5(0.6)	3.8(0.5)	3.8(0.5)	4
군지역 하	3.8(0.4)	3.8(0.4)	3.5(0.8)	3.8(0.4)	3.7(0.5)	3.5(0.5)	3.7(0.5)	3.8(0.4)	6
F	0.91	2.13	1.05	0.93	0.57	0.82	1.34	0.57	
모 고용상태									
취업모	3.9(0.4)	3.8(0.4)	3.5(0.7)	3.7(0.5)	3.5(0.7)	3.8(0.4)	3.8(0.4)	3.7(0.5)	14
비취업모	3.4(0.9)	3.4(1.0)	3.2(1.0)	3.3(0.6)	3.4(0.7)	3.4(0.7)	3.6(0.7)	3.6(0.8)	12
t	1.68	1.26	1.00	2.17*	0.32	1.70	0.93	0.52	

주: 4점 만점 척도의 평균을 제시함.

* $p < .05$

공동육아나눔터를 이용한 8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편리성 중 편리한 교통(3.9점)과 운영시간(3.8점)에 대해 가장 만족했으며, 경제성(3.6점)과 편리성 중 대기시간(3.6점)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높았다. 이외에 시설구비와 담당인력의 전문성에 대해서도 3.4점 이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지역과 모 고용상태에 따른 통계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V-2-17〉 공동육아나눔터 서비스 이용 만족도

단위: 점, 명

구분	편리성			질적 우수성				경제성	사례수
	편리한 교통	운영 시간	대기 시간	시설 구비	프로 그램	담당인력 전문성	급간식	이용 비용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전체	3.9(0.4)	3.8(0.5)	3.6(0.7)	3.4(0.5)	3.3(0.7)	3.5(0.8)	3.0(1.1)	3.6(0.5)	8
평가점수									
상위지역	4.0(0.0)	3.7(0.5)	3.7(0.8)	3.3(0.5)	3.3(0.5)	3.3(0.8)	3.0(1.4)	3.7(0.5)	6
하위지역	3.5(0.7)	4.0(0.0)	3.5(0.7)	3.5(0.7)	3.0(1.4)	4.0(0.0)	3.0(0.0)	3.5(0.7)	2
t	2.12	-0.87	0.26	-0.37	0.55	-1.1	0	0.37	
지역구분									
대도시-상	-	-	-	-	-	-	-	-	-
대도시-하	4.0(0.0)	4.0(0.0)	3.0(0.0)	4.0(0.0)	4.0(0.0)	4.0(0.0)	3.0(0.0)	4.0(0.0)	1
중도시-상	4.0(0.0)	3.7(0.5)	3.7(0.8)	3.3(0.5)	3.3(0.5)	3.3(0.8)	3.0(1.4)	3.7(0.5)	6
중도시-하	3.0(0.0)	4.0(0.0)	4.0(0.0)	3.0(0.0)	2.0(0.0)	4.0(0.0)	3.0(0.0)	3.0(0.0)	1
군지역 상	-	-	-	-	-	-	-	-	-
군지역 하	-	-	-	-	-	-	-	-	-
F	0.00	0.31	0.41	1.02	4.06	0.5	0.00	1.02	
모 고용상태									
취업모	4.0(0.0)	4.0(0.0)	3.0(1.4)	3.5(0.7)	3.5(0.7)	3.5(0.7)	4.0(0.0)	4.0(0.0)	2
비취업모	3.8(0.4)	3.7(0.5)	3.8(0.4)	3.3(0.5)	3.2(0.8)	3.5(0.8)	2.8(1.1)	3.5(0.5)	6
t	0.55	0.87	-1.49	0.37	0.55	0.0	1.0	1.22	

주: 4점 만점 척도의 평균을 제시함.

아이돌보미를 이용한 47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편리성 중 운영시간(3.2점)에 대해 가장 만족했으며, 질적 우수성에 대해서 3.1점으로 만족하였으나 다른 돌봄서비스에 비해 만족도가 낮은 편이었다. 편리성 중 대기시간에 대한 지역 차이가 있었으며, 군지역이 상대적으로 대기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질적 우수성 중 담당인력의 전문성에 대해 모 고용상태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취업모가 만족도가 더 높았다.

〈표 V-2-18〉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만족도

단위: 점, 명

구분	편리성		질적 우수성		경제성	사례수
	운영시간	대기시간	프로그램	담당인력 전문성	이용비용	
	M(SD)	M(SD)	M(SD)	M(SD)	M(SD)	
전체	3.2(0.8)	2.9(1.1)	3.1(0.8)	3.1(0.9)	3.0(1.0)	47

(표 V-2-18 계속)

구분	편리성		질적 우수성		경제성	사례수
	운영시간	대기시간	프로그램	담당인력 전문성	이용비용	
	M(SD)	M(SD)	M(SD)	M(SD)	M(SD)	
평가점수						
상위지역	3.1(0.8)	2.8(1.0)	3.0(0.7)	2.9(0.6)	2.8(1.0)	25
하위지역	3.4(0.8)	3.0(1.2)	3.3(0.9)	3.2(1.1)	3.2(0.9)	22
t	-0.99	-0.76	-1.18	-1.21	-1.55	
지역구분						
대도시-상	2.9(1.0)	2.5(0.7)	3.1(0.7)	2.9(0.6)	2.9(0.6)	10
대도시-하	3.3(0.9)	2.3(1.0)	3.0(0.8)	2.9(1.4)	3.0(1.1)	8
중소도시-상	3.3(0.8)	2.6(1.3)	2.9(0.9)	2.9(0.9)	2.9(1.3)	10
중소도시-하	3.3(0.9)	3.3(1.1)	3.3(1.0)	3.4(0.9)	3.3(0.9)	12
군지역-상	3.2(0.4)	3.6(0.5)	3.0(0.0)	3.0(0.0)	2.4(0.9)	5
군지역-하	4.0(0.0)	4.0(0.0)	4.0(0.0)	3.5(0.7)	3.5(0.7)	2
F	0.67	2.64*	0.86	0.69	0.82	
모 고용상태						
취업모	3.4(0.9)	2.9(1.2)	3.4(0.7)	3.4(0.7)	3.2(1.0)	17
비취업모	3.2(0.8)	2.8(1.0)	3.0(0.8)	2.9(0.9)	2.9(1.0)	30
t	0.73	0.33	1.48	2.14*	0.95	

주: 4점 만점 척도의 평균을 제시함.

* $p < .05$

산모신생아돌보미를 이용한 103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편리성 중 운영시간(3.2점)과 대기시간(3.2점)에 대해 가장 만족했으며, 다른 돌봄서비스에 비해 이용자 수는 많았으나 만족도가 낮은 편이었다. 지역과 모 고용상태에 따른 통계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경제성의 이용비용에 대한 만족도는 상위 지역보다 하위지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19〉 산모신생아돌보미 서비스 이용 만족도

단위: 점, 명

구분	편리성		질적 우수성		경제성	사례수
	운영시간	대기시간	프로그램	교직원 전문성	이용비용	
	M(SD)	M(SD)	M(SD)	M(SD)	M(SD)	
전체	3.2(0.8)	3.2(0.7)	2.9(0.9)	3.0(0.8)	3.0(0.9)	103
평가점수						
상위지역	3.2(0.7)	3.3(0.7)	2.8(0.9)	2.9(0.8)	2.8(1.0)	64
하위지역	3.2(0.9)	3.1(0.8)	3.1(0.9)	3.1(0.8)	3.2(0.7)	39
t	-0.21	0.83	-1.34	-1.23	-2.18*	

(표 V-2-19 계속)

구분	편리성		질적 우수성		경제성	사례수
	운영시간 M(SD)	대기시간 M(SD)	프로그램 M(SD)	교직원 전문성 M(SD)	이용비용 M(SD)	
지역구분						
대도시-상	3.0(0.7)	3.1(0.7)	2.8(0.7)	2.8(0.7)	2.7(1.0)	21
대도시-하	3.1(0.9)	2.8(0.7)	2.6(1.0)	2.8(0.8)	3.1(0.5)	12
중소도시상	3.5(0.6)	3.4(0.5)	3.0(0.8)	3.1(0.8)	3.0(0.8)	24
중소도시하	3.5(0.7)	3.6(0.7)	3.3(0.8)	3.4(0.8)	3.4(0.7)	12
군지역 상	3.0(0.7)	3.2(0.8)	2.6(1.1)	2.8(0.9)	2.7(1.1)	19
군지역 하	3.1(1.0)	3.0(0.8)	3.2(0.8)	3.1(0.8)	3.1(0.7)	15
<i>F</i>	1.98	2.12	2.08	1.38	1.46	
모 고용상태						
취업모	3.1(0.9)	3.2(0.6)	2.7(0.9)	2.9(0.9)	2.9(1.0)	29
비취업모	3.2(0.7)	3.2(0.8)	3.0(0.9)	3.0(0.8)	3.0(0.8)	74
<i>t</i>	-0.66	0.33	-1.29	-0.53	-0.79	

주: 4점 만점 척도의 평균을 제시함.

(맞춤형)돌봄지원 서비스를 이용해보지 않은 979명을 대상으로 미이용 이유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없어서’가 48.8%로 가장 많았고 ‘이용 방법의 홍보가 덜 되어서’가 24.6%로 많았다. 평가결과에 따른 통계적 차이가 나타났는데 하위지역(51.5%)이 상위지역(46.0%)보다 필요가 없다는 비율이 많았고 홍보가 부족하다는 의견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내 이용 가능한 곳이 없다는 것은 하위지역(14.0%)이 상위지역(9.3%)보다 많았다.

<표 V-2-20> (맞춤형)돌봄지원 서비스 미이용 이유

단위: %(명)

항목	응답률		
	상위지역	하위지역	전체
지역 내 이용가능한 곳이 없어서	9.3	14.0	11.7
지역에 있지만 거리가 멀어 접근성이 떨어져서	2.3	1.4	1.8
지역에 있지만 대기가 길어 이용이 불편해서	3.4	4.1	3.8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낮아서	4.7	1.2	2.9
이용시간대가 제한되어 있어서	4.2	3.6	3.9
이용 방법의 홍보가 덜 되어서(몰라서)	26.1	23.3	24.6
이용할 필요가 없어서	46.0	51.5	48.8
서비스 수혜 자격이 안 되어서	3.6	1.0	2.2
기타	0.4	0.0	0.2
사례수	100.0(472)	100.0(507)	100.0(979)
$\chi^2(df)$	28.637(8)***		

라. 문화인프라

문화인프라에 대한 이용 형태를 알아보았다. 어린이 놀이시설이 75.3%로 가장 많았고 어린이도서관이 53.9%, 어린이공원 27.7%, 어린이 박물관 19.3%순으로 응답하였다. 이용해본 경험이 없는 경우는 13.3%로 육아지원기관과 (맞춤형) 돌봄지원 서비스에 비해 낮았다.

〈표 V-2-21〉 문화인프라(시설) 이용 경험(복수응답)

구분	단위: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체	75.3	27.7	53.9	16.5	19.3	7.5	10.7	8.0	8.3	13.3
평가결과										
상위지역	72.2	26.5	58.5	21.3	19.5	9.7	12.8	9.5	10.5	12.8
하위지역	78.3	28.8	49.3	11.7	19.0	5.3	8.5	6.5	6.2	13.8
지역구분										
대도시-상위	64.0	35.0	51.5	32.0	23.0	12.0	4.5	8.5	8.5	14.5
대도시-하위	89.5	30.5	38.5	26.5	24.5	11.0	8.5	7.0	10.5	6.5
중소도시-상위	80.5	18.0	65.0	19.0	20.0	12.5	14.0	16.0	7.0	12.0
중소도시-하위	83.0	48.0	64.0	8.5	28.0	5.0	12.5	8.5	6.5	7.0
군지역- 상위	72.0	26.5	59.0	13.0	15.5	4.5	20.0	4.0	16.0	12.0
군지역- 하위	62.5	8.0	45.5	0.0	4.5	0.0	4.5	4.0	1.5	28.0
자녀연령										
영아	68.1	24.0	39.9	19.6	13.4	6.6	9.2	6.2	7.4	20.6
유아	80.4	30.3	63.9	14.3	23.5	8.2	11.7	9.3	9.0	8.2
월 가구소득										
250만원 미만	71.6	22.4	45.5	6.7	10.4	3.0	11.2	6.7	6.0	20.1
250~350만원 미만	70.6	19.4	45.8	8.1	14.4	5.0	7.8	7.2	5.8	17.2
350~450만원 미만	76.6	28.5	60.8	23.4	21.3	8.2	9.6	8.2	8.6	8.9
450~550만원 미만	76.1	32.5	53.8	18.8	19.3	7.6	11.7	10.7	9.1	11.7
550만원 이상	82.6	39.0	63.3	25.2	29.8	13.3	15.6	7.3	12.8	10.1
모 고용상태										
취업모	78.6	27.2	57.5	16.9	18.9	5.0	11.1	7.8	7.8	10.6
비취업모	73.8	27.9	52.4	16.3	19.4	8.6	10.5	8.1	8.6	14.5

주: ① 어린이 놀이시설(놀이터) ② 어린이 공원
 ③ 어린이 도서관(일반 도서관 어린이 서가 포함) ④ 장난감 도서관
 ⑤ 어린이 박물관(박물관, 과학관 포함) ⑥ 어린이 미술관(미술관 포함)
 ⑦ 문화체육시설 ⑧ 자치구 주민센터 ⑨ 문화예술시설 ⑩ 이용해본 경험 없음

상위지역이 하위지역에 비해 어린이도서관, 장난감 도서관, 문화체육시설, 문화예술시설 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군지역-

하위 지역에서 미이용 비율이 28%로 가장 많았으며, 어린이 놀이시설은 대도시-하위지역, 어린이 공원은 중소도시-하위지역, 어린이 도서관은 중소도시-상위 지역, 장난감 도서관은 대도시 상위지역에서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유아인 경우 영아보다 문화인프라를 대체적으로 많이 이용하였으며, 특히 어린이 놀이시설과 어린이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였다. 영아인 경우 장난감도서관 이용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도 20.6%로 비교적 많았다. 대체적으로 월 가구소득이 많아질수록 문화인프라를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50만원 미만의 경우가 이용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22〉 어린이 놀이시설(어린이공원) 이용 만족도

단위: 점, 명

구분	편리성	질적 우수성		사례수
	편리한 교통	시설구비	다양한 종류의 놀이기구	
	M(SD)	M(SD)	M(SD)	
전체	3.5(0.8)	2.9(0.7)	2.7(0.8)	912
평가점수				
상위지역	3.4(0.9)	2.9(0.8)	2.7(0.8)	440
하위지역	3.6(0.7)	2.9(0.7)	2.7(0.8)	472
t	-4.08***	-0.86	-0.19	
지역구분				
대도시-상	3.1(1.0) ^a	3.0(0.7)	2.9(0.7) ^b	132
대도시-하	3.6(0.7)	3.0(0.6)	2.8(0.7) ^b	179
중소도시-상	3.6(0.7)	2.9(0.8)	2.8(0.8)	161
중소도시-하	3.7(0.6) ^b	3.0(0.8)	2.9(0.8) ^b	167
군지역-상	3.3(0.9)	2.8(0.9)	2.5(0.9)	147
군지역-하	3.4(0.7)	2.8(0.7)	2.4(0.8) ^a	126
F	11.37*** a<b	1.52	11.03*** a<b	
모 고용상태				
취업모	3.5(0.7)	2.9(0.7)	2.7(0.8)	284
비취업모	3.4(0.8)	2.9(0.7)	2.7(0.8)	628
t	0.86	-0.21	0.05	

주: 4점 만점 척도의 평균을 제시함.

a, b집단 간 차이가 있음.

*** $p < .001$

어린이 놀이시설을 이용한 912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편리한 교통(3.5점)에 대해 가장 만족했으며, 질적 우수성 중 시설구비(2.9점)과 다양한

종류의 놀이기구(2.7)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다소 낮은 편이었다.

편리성의 편리한 교통의 만족도는 상위지역보다 하위지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편리한 교통과 다양한 놀이기구에 대한 만족도에서 지역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검증을 통해 집단 평균 차이를 확인한 결과 중소도시-하위 지역이 대도시-상위 지역보다 편리한 교통에 대한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도시-상·하위 지역과 중소도시-하위지역이 군지역-하위지역보다 다양한 종류의 놀이기구에 대한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23〉 어린이도서관 이용 만족도

단위: 점, 명

구분	편리성			질적 우수성				경제성	사례수
	편리한 교통	운영 시간	대기 시간	시설 구비	다양한 도서	프로 그램	담당인력 전문성	이용 비용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전체	3.3(0.8)	3.3(0.6)	3.4(0.6)	3.2(0.7)	3.0(0.8)	2.9(0.8)	3.0(0.8)	3.5(0.6)	647
평가점수									
상위지역	3.3(0.8)	3.4(0.7)	3.5(0.6)	3.2(0.8)	3.0(0.8)	3.0(0.8)	3.0(0.8)	3.5(0.6)	351
하위지역	3.3(0.8)	3.3(0.6)	3.4(0.6)	3.2(0.7)	3.0(0.7)	2.8(0.8)	2.9(0.7)	3.4(0.6)	296
t	0.04	1.49	1.13	-0.95	-0.54	2.35*	2.9**	2.64**	
지역구분									
대도시-상	2.9(0.9) ^a	3.3(0.7)	3.5(0.6)	3.2(0.7)	3.0(0.8)	3.0(0.8)	3.2(0.7) ^b	3.7(0.5)	103
대도시-하	3.2(0.8)	3.3(0.7)	3.3(0.6)	3.2(0.7)	3.1(0.7)	2.9(0.6)	2.9(0.6)	3.3(0.7)	77
중소도시-상	3.4(0.7) ^b	3.3(0.7)	3.4(0.7)	3.2(0.7)	3.1(0.7)	3.0(0.8)	3.0(0.8)	3.4(0.6)	130
중소도시-하	3.5(0.7) ^b	3.4(0.6)	3.5(0.6)	3.3(0.7)	3.0(0.7)	2.8(0.8)	2.7(0.8) ^a	3.4(0.6)	128
군지역 상	3.5(0.7) ^b	3.5(0.6)	3.6(0.6)	3.2(0.9)	2.9(0.9)	3.0(0.8)	3.0(0.8)	3.5(0.6)	118
군지역 하	3.1(0.9)	3.2(0.6)	3.4(0.6)	3.2(0.7)	2.9(0.8)	2.9(0.9)	3.0(0.7)	3.5(0.6)	91
F	8.51***	2.89*	2.27*	1.0	1.21	1.49	4.41***	3.65**	
	a<b						a<b		
모고용상태									
취업모	3.3(0.7)	3.2(0.7)	3.4(0.6)	3.2(0.8)	2.9(0.8)	2.9(0.9)	2.9(0.8)	3.4(0.6)	207
비취업모	3.3(0.8)	3.4(0.6)	3.5(0.6)	3.2(0.7)	3.0(0.7)	3.0(0.8)	3.0(0.8)	3.5(0.6)	440
t	0.1	-3.42***	-0.79	-1.1	-1.2	-1.31	-1.1	-1.25	

주: 4점 만점 척도의 평균을 제시함.

a, b집단 간 차이가 있음.

* $p < .05$, ** $p < .01$, *** $p < .001$

어린이 도서관을 이용한 647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경제성에 대해 3.5점으로 가장 만족했으며, 편리성 중 대기시간(3.4점)과 편리한 교통(3.3

점), 질적 우수성 중 시설구비(3.2점)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다.

질적 우수성 중 프로그램과 담당인력 전문성, 경제성의 이용비용에 대한 만족도가 하위지역보다 상위지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편리한 교통과 운영시간, 대기시간, 담당인력 전문성, 이용비용에 대한 만족도에서 지역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검증을 통해 집단 평균 차이를 확인한 결과 중소도시-상하위 지역과 군지역-상위 지역이 대도시-상위 지역보다 편리한 교통에 대한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도시-상위 지역이 중소도시-하위지역보다 담당인력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편리성 중 운영시간에 대해서는 모 고용상태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 비취업모(3.4점)가 취업모(3.2점)보다 만족도가 더 높았다.

〈표 V-2-24〉 장난감도서관 이용 만족도

단위: 점, 명

구분	편리성			질적 우수성				경제성	사례수
	편리한 교통	운영 시간	대기 시간	시설 구비	다양한 놀잇감	프로 그램	담당인력 전문성	이용 비용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전체	3.1(0.9)	3.2(0.7)	3.4(0.7)	3.2(0.7)	3.0(0.8)	2.9(0.8)	3.1(0.8)	3.4(0.7)	198
평가점수									
상위지역	3.1(0.9)	3.3(0.7)	3.5(0.7)	3.3(0.7)	3.1(0.8)	3.0(0.8)	3.2(0.8)	3.6(0.7)	128
하위지역	3.0(1.0)	3.0(0.7)	3.2(0.8)	3.1(0.7)	2.9(0.8)	2.9(0.8)	2.9(0.7)	3.2(0.7)	70
t	1.32	2.19*	3**	1.36	1.75	0.28	2.31*	3.4***	
지역구분									
대도시-상	3.1(0.9)	3.3(0.6)	3.5(0.6)	3.2(0.6)	3.0(0.7)	2.7(0.7) ^a	3.1(0.7)	3.6(0.6)	64
대도시-하	2.8(0.9) ^a	3.0(0.6)	3.1(0.7)	3.0(0.8)	2.8(0.8) ^a	2.9(0.7)	2.8(0.7)	3.2(0.7)	53
중소도시상	3.2(1.0)	3.3(0.8)	3.5(0.7)	3.4(0.8)	3.5(0.7) ^b	3.4(0.8) ^b	3.3(0.8)	3.6(0.8)	38
중소도시하	3.6(0.7) ^b	3.3(0.9)	3.2(1.0)	3.3(0.7)	3.1(0.9)	3.1(0.9)	3.2(0.6)	3.2(0.6)	17
군지역 상	3.2(0.8)	3.2(0.9)	3.3(0.9)	3.2(0.9)	2.9(0.9)	3.0(0.8)	3.1(0.9)	3.4(0.9)	26
군지역 하	-	-	-	-	-	-	-	-	-
F	3.59**	1.97	2.65*	1.22	4.23**	5.02***	2.57*	3.46**	
	a<b				a<b	a<b			
모 고용상태									
취업모	3.0(0.9)	3.1(0.8)	3.3(0.7)	3.1(0.8)	3.0(0.8)	2.9(0.8)	3.0(0.7)	3.4(0.7)	61
비취업모	3.1(0.9)	3.2(0.7)	3.4(0.8)	3.2(0.7)	3.1(0.8)	3.0(0.8)	3.1(0.8)	3.5(0.7)	137
t	-0.4	-1.26	-0.92	-1.24	-0.54	-0.18	-0.2	-0.24	

주: 4점 만점 척도의 평균을 제시함.

a, b집단 간 차이가 있음.

* $p < .05$, ** $p < .01$, *** $p < .001$

장난감 도서관을 이용한 198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경제성과 편리성 중 대기시간에 대해 3.4점으로 가장 만족했으며, 운영시간과 시설구비에 대해 3.2점으로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다.

편리성 중 운영시간과 대기시간, 질적 우수성 중 담당인력 전문성, 경제성의 이용비용의 만족도는 하위지역보다 상위지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편리한 교통, 대기시간, 다양한 종류의 놀잇감, 프로그램, 담당인력 전문성, 이용비용에 대한 만족도에서 지역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검증을 통해 집단 평균 차이를 확인한 결과 중소도시-하위 지역이 대도시-하위 지역보다 편리한 교통에 대한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도시-상위 지역이 대도시-하위 지역보다 다양한 종류의 놀잇감에 대한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소도시-상위 지역이 대도시-상위 지역보다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25〉 박물관(미술관) 이용 만족도

단위: 점, 명

구분	편리성			질적 우수성				경제성	사례수
	편리한 교통	운영 시간	대기 시간	시설 구비	다양한 작품	프로그램	담당인력 전문성	이용 비용	
	M(SD)								
전체	2.7(0.9)	3.2(0.7)	3.2(0.6)	3.3(0.7)	3.1(0.8)	3.0(0.8)	3.1(0.8)	3.2(0.7)	244
평가점수									
상위지역	2.7(0.9)	3.3(0.7)	3.3(0.7)	3.4(0.7)	3.1(0.8)	3.1(0.8)	3.1(0.9)	3.4(0.7)	126
하위지역	2.6(0.8)	3.1(0.6)	3.1(0.6)	3.1(0.6)	3.1(0.7)	3.0(0.7)	3.0(0.7)	3.1(0.7)	118
t	1.15	2.01*	1.81	2.56*	0.79	1.03	0.89	2.85**	
지역구분									
대도시-상	2.4(0.8)	3.4(0.6)	3.0(0.5)	3.5(0.7)	3.4(0.7)	3.3(0.8)	3.4(0.8)	3.4(0.6)	47
대도시-하	2.7(0.8)	3.2(0.6)	3.1(0.5)	3.3(0.6)	3.2(0.6)	3.1(0.7)	3.2(0.7)	3.0(0.8)	50
중소도시-상	2.8(0.9)	3.3(0.8)	3.4(0.7)	3.3(0.7)	3.1(0.8)	3.0(0.8)	3.0(0.9)	3.2(0.9)	48
중소도시-하	2.5(0.7)	3.1(0.6)	3.2(0.6)	3.0(0.6)	2.9(0.7)	2.8(0.7)	2.8(0.7)	3.1(0.6)	59
군지역 상	3.0(1.0)	3.3(0.7)	3.5(0.7)	3.3(0.7)	2.8(0.8)	3.0(0.9)	2.8(1.0)	3.5(0.7)	31
군지역 하	2.7(1.3)	3.2(0.7)	3.3(0.7)	3.3(0.5)	3.3(0.5)	3.1(0.8)	3.3(1.0)	3.4(0.7)	9
F	2.88*	1.37	3.55**	2.96*	4.07**	1.79	4.12**	2.76*	
모 고용상태									
취업모	2.8(0.8)	3.2(0.6)	3.1(0.6)	3.2(0.7)	3.0(0.7)	3.0(0.8)	3.0(0.8)	3.2(0.7)	69
비취업모	2.6(0.9)	3.2(0.7)	3.3(0.7)	3.3(0.7)	3.1(0.8)	3.0(0.8)	3.1(0.9)	3.2(0.8)	175
t	1.79	-0.23	-1.16	-1.21	-0.61	-0.1	-1.19	-0.27	

주: 4점 만점 척도의 평균을 제시함.

* $p < .05$, ** $p < .01$, *** $p < .001$

박물관을 이용한 244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질적 우수성 중 시설구비에 대해 3.3점으로 가장 만족했으며, 편리성 중 운영시간과 대기시간, 경제성에 대해 3.2점으로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다.

편리성 중 운영시간, 질적 우수성 중 시설구비, 경제성 중 이용비용의 만족도는 하위지역보다 상위지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편리한 교통에 대해서는 2.7점으로 만족도가 다소 낮게 나타났다. 편리한 교통, 대기시간, 시설구비, 다양한 종류의 작품, 담당인력 전문성, 이용비용에 대한 만족도에서 지역 차이가 있었으나 사후검증은 집단 구분이 되지 않았다. 편리성에 대해서는 군지역-상위지역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질적 우수성에 대해서는 대도시-상위 지역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경제성에 대해서는 대도시-상위 지역과 군지역-상·하위 지역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26〉 문화체육시설(주민자치센터포함) 이용 만족도

단위: 점, 명

구분	편리성			질적 우수성				경제성	사례수
	편리한 교통	운영 시간	대기 시간	시설 구비	다양한 기구	프로 그램	담당인력 전문성	이용 비용	
	M(SD)								
전체	3.3(0.9)	3.3(0.8)	3.3(0.8)	3.1(0.8)	2.8(0.8)	2.9(0.9)	3.0(0.8)	3.4(0.7)	203
평가점수									
상위지역	3.4(0.9)	3.4(0.8)	3.3(0.8)	3.1(0.8)	2.8(0.8)	2.9(0.9)	3.0(0.8)	3.4(0.8)	122
하위지역	3.0(0.9)	3.2(0.8)	3.3(0.7)	3.1(0.8)	2.8(0.8)	2.9(0.8)	3.0(0.8)	3.3(0.6)	81
t	2.97**	1.67	0.36	-0.26	0.08	-0.13	0.3	0.31	
지역구분									
대도시-상	3.5(0.7)	3.2(0.7)	3.3(0.7)	3.3(0.6)	2.9(0.8)	3.2(0.8)	3.3(0.6)	3.5(0.6)	26
대도시-하	3.0(0.9)	3.3(0.7)	3.2(0.9)	3.1(0.8)	2.5(0.8)	2.9(0.9)	3.0(0.9)	3.4(0.7)	29
중소도시상	3.5(0.8)	3.3(0.8)	3.2(0.8)	3.0(0.8)	2.9(0.7)	2.8(0.8)	3.0(0.7)	3.3(0.8)	51
중소도시하	3.0(1.0)	3.1(0.9)	3.3(0.7)	3.2(0.7)	3.1(0.7)	2.9(0.8)	2.9(0.7)	3.3(0.6)	36
군지역 상	3.3(0.9)	3.5(0.8)	3.5(0.7)	3.0(0.8)	2.8(1.0)	2.8(1.0)	2.8(0.9)	3.4(0.8)	45
군지역 하	3.2(0.7)	3.1(0.7)	3.4(0.6)	3.0(0.7)	2.8(0.8)	2.8(1.0)	3.0(0.6)	3.3(0.6)	16
F	2.06	1.37	1.14	0.5	1.83	0.76	1.23	0.43	
모 고용상태									
취업모	3.3(0.9)	3.3(0.8)	3.4(0.8)	3.1(0.8)	2.8(0.8)	2.9(0.9)	3.0(0.8)	3.4(0.7)	63
비취업모	3.3(0.9)	3.3(0.7)	3.3(0.8)	3.1(0.8)	2.9(0.8)	2.9(0.8)	3.0(0.8)	3.3(0.7)	140
t	-0.08	-0.51	0.56	0.41	-0.45	-0.38	-0.33	0.65	

주: 4점 만점 척도의 평균을 제시함.

문화체육시설(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한 203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살펴본 결

과, 경제성에 대해 3.4점으로 가장 만족했으며, 편리성에 대해 모두 3.3점으로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다. 편리성 중 편리한 교통의 만족도는 하위지역보다 상위 지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과 모 고용상태에 따른 통계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V-2-27〉 문화인프라 미이용 이유

단위: %(명)

항목	응답률		
	상위지역	하위지역	전체
지역 내 이용가능한 곳이 없어서	23.4	37.3	30.6
지역에 있지만 거리가 멀어 접근성이 떨어져서	24.7	13.3	18.8
지역에 있지만 대기가 길어 이용이 불편해서	3.9	1.2	2.5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낮아서	0.0	2.4	1.3
이용시간대가 제한되어 있어서	2.6	6.0	4.4
이용 방법의 홍보가 덜 되어서(몰라서)	19.5	9.6	14.4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1.3	6.0	3.8
자녀가 어려서	24.7	24.1	24.4
사례수	100.0(77)	100.0(83)	100.0(160)

문화인프라를 이용해보지 않은 160명을 대상으로 미이용 이유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지역 내 이용가능한 곳이 없어서’가 30.6%로 가장 많았고 ‘자녀가 어려서’가 24.4%로 많았다. 평가결과에 따른 통계적 차이는 없었지만 하위 지역(37.3%)이 상위지역(23.4%)보다 이용가능한 곳이 없다는 비율이 많았고 지역에 있지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 보건·의료 서비스

지역 보건·의료 서비스(시설) 이용 형태를 알아보았다. 소아청소년과(병의원)이 81.4%로 가장 많았고, 보건소 65.4%, 종합병원 30.4%, 이용해 본 경험 없음 2.1% 순으로 응답하였다.

상위지역은 하위지역에 비해 보건소와 종합병원을 많이 이용하나, 하위지역은 소아청소년과(병의원)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연령별로는 대체적으로 자녀가 유아인 경우에 보건·의료 서비스(시설)를 많이 이용하였으며, 특히 영아보다 종합병원을 많이 이용하였다. 대체적으로 월 가구소득이 많아질수록 소아청소년과(병의원)과 종합병원은 이용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건소는 이용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28〉 보건·의료 서비스(시설) 이용 경험(복수응답)

구분	보건소	소아청소년과 (병의원)	종합병원	단위: %
				이용해 본 경험 없음
전체	65.4	81.4	30.4	2.1
평가결과				
상위지역	66.8	77.3	31.2	1.5
하위지역	64.0	85.5	29.7	2.7
지역구분				
대도시-상위	52.5	91.0	47.0	1.0
대도시-하위	54.0	95.5	47.5	3.0
중소도시-상위	57.5	94.5	32.5	1.0
중소도시-하위	53.5	96.5	38.5	0.5
군지역-상위	90.5	46.5	14.0	2.5
군지역-하위	84.5	64.5	3.0	4.5
자녀연령				
영아	64.9	82.4	24.6	1.8
유아	65.8	80.7	34.6	2.3
월 가구소득				
250만원 미만	76.9	74.6	19.4	1.5
250~350만원 미만	66.4	79.7	27.8	2.2
350~450만원 미만	71.1	81.8	31.3	1.7
450~550만원 미만	60.4	83.8	38.1	2.5
550만원 이상	53.7	85.8	33.5	2.3
모 고용상태				
취업모	61.7	81.4	27.5	1.7
비취업모	67.0	81.4	31.7	2.3

보건소를 이용한 785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경제성(3.4점)에 대해 가장 만족했으며, 질적 우수성 중 의료시설 및 장비(2.7점)와 의료진의 전문성(2.8점)에 대한 만족도는 다소 낮은 편이었다.

편리성 중 편리한 교통의 만족도는 하위지역보다 상위지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편리성 중 다양한 의료서비스와 질적 우수성의 의료진의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는 상위지역보다 하위지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편리성 전체와 질적 우수성 전체, 경제성에 대한 만족도에서 지역 차이가 있었는데, 사후검증을 통해 집단 평균 차이를 확인한 결과 대체적으로 대

도시-상·하위 지역이 중소도시-상위 지역보다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편리성 중 대기 시간에 대해서는 대도시-하위 지역과 군지역-상위 지역이 중소도시-상위 지역보다 대기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 고용상태에 따른 통계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V-2-29〉 보건소 이용 만족도

단위: 점, 명

구분	편리성			질적 우수성		경제성	사례수
	편리한 교통	다양한 의료서비스	대기 시간	의료시설 및 장비	의료진의 전문성	이용 비용	
	M(SD)	M(SD)	M(SD)	M(SD)	M(SD)	M(SD)	
전체	3.0(1.0)	3.2(0.7)	3.2(0.7)	2.7(0.8)	2.8(0.8)	3.4(0.7)	785
평가점수							
상위지역	3.1(0.9)	3.1(0.8)	3.2(0.7)	2.7(0.8)	2.8(0.8)	3.4(0.7)	401
하위지역	2.8(1.0)	3.2(0.7)	3.2(0.7)	2.8(0.8)	2.9(0.8)	3.4(0.7)	384
t	4.54***	-1.96*	-0.34	-1.77	-2.18*	1.39	
지역구분							
대도시-상	3.4(0.8) ^b	3.4(0.7) ^b	3.3(0.7)	3.1(0.7) ^b	3.1(0.7) ^b	3.6(0.6) ^b	105
대도시-하	3.0(1.0)	3.4(0.6) ^b	3.4(0.6) ^b	3.0(0.7) ^b	3.2(0.7) ^b	3.6(0.6) ^b	108
중소도시-상	2.7(0.9) ^a	3.1(0.8) ^a	2.9(0.8) ^a	2.6(0.8) ^a	2.6(0.8) ^a	3.3(0.7) ^a	115
중소도시-하	2.9(0.8)	3.1(0.7)	3.1(0.8)	2.8(0.8) ^a	2.7(0.8) ^a	3.3(0.7) ^a	107
군지역- 상	3.2(0.9)	3.0(0.8) ^a	3.4(0.7) ^b	2.5(0.8) ^a	2.6(0.8) ^a	3.4(0.6)	181
군지역- 하	2.7(1.1) ^a	3.2(0.7)	3.3(0.7)	2.7(0.7)	2.8(0.7) ^a	3.3(0.7) ^a	169
F	12.22***	6.63***	9.06***	10.02***	12.06***	7.57***	
	a<b	a<b	a<b	a<b	a<b	a<b	
모 고용상태							
취업모	3.0(0.9)	3.2(0.7)	3.3(0.7)	2.7(0.7)	2.8(0.8)	3.4(0.6)	222
비취업모	3.0(1.0)	3.2(0.8)	3.2(0.7)	2.8(0.8)	2.8(0.8)	3.4(0.7)	563
t	-0.14	0.19	1.81	-0.78	-0.68	0.39	

주: 4점 만점 척도의 평균을 제시함.

a, b집단 간 차이가 있음.

*** $p < .001$

소아청소년과(병의원)을 이용한 977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편리성 중 편리한 교통(3.4점)과 다양한 의료서비스(3.4점), 질적 우수성 중 의료진의 전문성(3.2점)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다.

편리성 중 다양한 의료서비스와 대기시간, 질적 우수성 중 의료시설 및 장비와 의료진의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는 상위지역보다 하위지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편리성 전체와 질적 우수성 전체, 경제성에 대한 만족도

에서 지역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검증을 통해 집단 평균 차이를 확인한 결과 대체적으로 대도시-하위 지역이 소아청소년과(병의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군지역-상위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편리성 중 대기 시간에 대해서는 대도시-하위 지역이 중소도시-상위 지역보다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경제성 측면에서는 모 고용상태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 취업모(3.2점)가 비취업모(3.1)보다 만족도가 더 높았다.

〈표 V-2-30〉 소아청소년과(병의원) 이용 만족도

단위: 점, 명

구분	편리성			질적 우수성		경제성	사례수
	편리한 교통	다양한 의료서비스	대기 시간	의료시설 및 장비	의료진의 전문성	이용 비용	
	M(SD)	M(SD)	M(SD)	M(SD)	M(SD)	M(SD)	
전체	3.4(0.8)	3.4(0.7)	2.9(0.9)	3.1(0.8)	3.2(0.8)	3.1(0.7)	977
평가점수							
상위지역	3.4(0.8)	3.4(0.7)	2.8(0.9)	2.9(0.8)	3.1(0.8)	3.1(0.7)	464
하위지역	3.4(0.7)	3.5(0.6)	3.0(0.9)	3.2(0.7)	3.3(0.7)	3.2(0.7)	513
t	-1.27	-2.13*	-3.39***	-4.78***	-3.8***	-0.62	
지역구분							
대도시-상	3.5(0.6) ^b	3.6(0.6)	2.9(0.9)	3.3(0.6)	3.5(0.6) ^c	3.4(0.6) ^b	182
대도시-하	3.5(0.7) ^b	3.6(0.5) ^c	3.1(0.8) ^b	3.4(0.7) ^c	3.6(0.5) ^c	3.2(0.6)	191
중소도시상	3.4(0.8) ^b	3.3(0.7) ^b	2.6(0.9) ^a	2.9(0.8) ^b	3.0(0.8) ^b	3.0(0.7) ^a	189
중소도시하	3.5(0.7) ^b	3.4(0.7)	2.9(0.9)	3.1(0.8)	3.2(0.8) ^b	3.2(0.9)	193
군지역 상	2.9(0.9) ^a	2.9(0.8) ^a	2.9(0.8)	2.4(0.8) ^a	2.6(0.9) ^a	3.0(0.8) ^a	93
군지역 하	3.3(0.8) ^b	3.3(0.6) ^b	3.0(0.8)	2.9(0.7) ^b	3.0(0.7) ^b	3.1(0.6) ^a	129
F	12.05***	18.34***	5.4***	34.86***	40.97***	7.87***	
	a<b	a<b<c	a<b	a<b<c	a<b<c	a<b	
모 고용상태							
취업모	3.4(0.7)	3.4(0.7)	2.9(0.9)	3.0(0.7)	3.2(0.7)	3.2(0.7)	293
비취업모	3.4(0.8)	3.4(0.7)	2.9(0.9)	3.1(0.8)	3.2(0.8)	3.1(0.7)	684
t	1.23	-0.28	0.38	-0.7	-0.45	2.25*	

주: 4점 만점 척도의 평균을 제시함.

a, b, c집단 간 차이가 있음.

* $p < .05$, *** $p < .001$

종합병원을 이용한 365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질적 우수성 중 의료시설 및 장비와 의료진의 전문성에 대해 3.4점으로 가장 만족했으며, 편리성 중 다양한 의료서비스 3.3점으로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다. 편리성 중 대기 시간에 대해서는 2.5점, 경제성 2.4점으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편리성 중 대기시간의 만족도가 상위지역보다 하위지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편리성 전체, 질적 우수성 전체, 경제성에 대한 만족도에서 지역 차이가 있었는데, 사후검증을 통해 집단 평균 차이를 확인한 결과 편리성 측면에서 군지역-하위 지역이 중소도시-상위 지역보다 편리한 교통과 대기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질적 우수성 측면에서는 대도시-상·하위 지역이 군지역-상·하위 지역보다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표 V-2-31〉 종합병원 이용 만족도

단위: 점, 명

구분	편리성			질적 우수성		경제성	
	편리한 교통	다양한 의료서비스	대기시간	의료시설 및 장비	의료진의 전문성	이용비용	사례수
	M(SD)	M(SD)	M(SD)	M(SD)	M(SD)	M(SD)	
전체	2.9(0.9)	3.3(0.8)	2.5(1.0)	3.4(0.8)	3.4(0.8)	2.4(0.9)	365
평가점수							
상위지역	2.9(1.1)	3.3(0.9)	2.4(1.0)	3.3(0.9)	3.4(0.9)	2.5(0.9)	187
하위지역	3.0(0.8)	3.2(0.7)	2.6(0.9)	3.4(0.7)	3.4(0.7)	2.3(0.9)	178
t	-1.03	0.24	-2.28*	-0.33	0.01	1.66	
지역구분							
대도시-상	3.3(0.9) ^b	3.5(0.7)	2.6(1.1)	3.6(0.6) ^b	3.8(0.5) ^b	2.6(0.8)	94
대도시-하	3.1(0.7)	3.5(0.6)	2.6(0.9)	3.7(0.6) ^b	3.8(0.4) ^b	2.5(0.8)	95
중소도시-상	2.2(0.9) ^a	3.1(1.0)	2.0(0.8) ^a	3.2(1.0)	3.2(1.0)	2.1(0.8)	65
중소도시-하	2.8(0.8)	2.9(0.8)	2.5(0.9)	3.0(0.7)	3.0(0.7) ^a	2.1(1.0)	77
군지역-상	3.0(1.1)	2.9(1.0)	2.6(1.1)	2.7(1.0) ^a	2.9(1.1) ^a	2.8(1.0)	28
군지역-하	3.2(1.3) ^b	3.5(0.5)	3.0(0.9) ^b	3.3(0.8)	3.0(1.1) ^a	2.8(0.8)	6
F	11.78***	8.74***	4.65***	14.86***	20.02***	5.85***	
	a<b		a<b	a<b	a<b		
모 고용상태							
취업모	3.1(0.9)	3.4(0.7)	2.6(0.9)	3.4(0.7)	3.5(0.6)	2.5(0.9)	99
비취업모	2.9(1.0)	3.2(0.9)	2.4(1.0)	3.3(0.9)	3.4(0.8)	2.4(0.9)	266
t	1.56	1.52	1.07	0.47	1.66	0.84	

주: 4점 만점 척도의 평균을 제시함.

a, b집단 간 차이가 있음.

*** $p < .001$

바. 안전관리·보호

영유아 안전관리·보호에 대한 만족도를 1,200명을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대

체적으로 2점대의 낮은 만족도를 보였는데 그 중 접근성에서 어린이 안전도로 지정 2.5점, 질적 우수성 중에서 안전 교육 및 체험 2.1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접근성 중 보도와 차도 분리, 어린이 안전도로 그리고 질적 우수성 중 교통 안전, 안전 교육 및 체험, 먹거리에 대한 만족도는 상위지역보다 하위지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편리성 전체, 질적 우수성 전체에 대한 만족도에서 지역 차이가 있었는데, 사후검증을 통해 집단 평균 차이를 확인한 결과 대체적으로 대도시-상위지역이 만족도 2.3점 이하로 낮았으며 대도시-하위지역, 중소도시-상·하위 지역, 군지역-상·하위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32〉 영유아 안전관리·보호 이용 만족도

단위: 점, 명

구분	접근성			질적 우수성				사례수
	보도와 차도 분리	어린이 안전도로 지정	파출소 설치	교통 안전	안전 교육 및 체험 시설	먹거리 안전	범죄 예방보호 관리	
	M(SD)							
전체	2.7(0.8)	2.5(0.9)	2.7(0.9)	2.5(0.8)	2.1(0.9)	2.5(0.8)	2.4(0.8)	1,200
평가점수								
상위지역	2.6(0.9)	2.4(0.9)	2.7(0.9)	2.4(0.8)	2.0(0.9)	2.4(0.8)	2.4(0.8)	600
하위지역	2.7(0.8)	2.6(0.9)	2.8(0.9)	2.5(0.8)	2.2(0.9)	2.5(0.8)	2.5(0.7)	600
t	-2.83**	-3.42***	-1.74	-2.68**	-2.67**	-2.76**	-1.31	
지역구분								
대도시-상	2.3(0.8) ^a	2.1(0.9) ^a	2.3(0.9) ^a	2.1(0.8) ^a	1.8(0.7) ^a	2.3(0.7) ^a	2.1(0.8) ^a	200
대도시-하	2.9(0.8) ^c	2.6(1.0) ^b	2.8(0.9) ^b	2.6(0.9) ^b	2.3(0.9) ^b	2.5(0.8) ^b	2.5(0.8)	200
중소도시-상	2.9(0.8)	2.6(0.9) ^b	2.8(0.9) ^b	2.6(0.8) ^b	2.3(0.9) ^b	2.4(0.8)	2.5(0.8)	200
중소도시-하	2.7(0.7)	2.6(0.8) ^b	2.7(0.8) ^b	2.6(0.7) ^b	2.3(0.7) ^b	2.5(0.6)	2.5(0.6)	200
군지역- 상	2.6(0.8) ^b	2.5(0.9) ^b	2.9(0.8) ^b	2.5(0.8) ^b	2.1(0.9)	2.5(0.8)	2.6(0.8) ^b	200
군지역- 하	2.6(0.8) ^b	2.5(0.9) ^b	2.8(0.8) ^b	2.4(0.8) ^b	2.0(0.9)	2.5(0.9) ^b	2.3(0.7)	200
F	14.1***	11***	13.33***	14.05***	12.07***	3.92**	12.7***	
	a<b<c	a<b	a<b	a<b	a<b	a<b	a<b	
모 고용상태								
취업모	2.7(0.9)	2.5(1.0)	2.8(0.9)	2.4(0.8)	2.1(0.9)	2.5(0.8)	2.5(0.8)	360
비취업모	2.7(0.8)	2.5(0.9)	2.7(0.9)	2.5(0.8)	2.1(0.9)	2.5(0.8)	2.4(0.8)	840
t	-0.04	0.96	0.95	-0.4	-0.27	-0.14	1.44	

주: 4점 만점 척도의 평균을 제시함.

a, b, c집단 간 차이가 있음.

*** p < .001

3. 지역의 육아지원환경 요구 및 개선점

가. 기관 및 서비스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교육보육 기관, 육아지원 서비스, (맞춤형)돌봄지원 서비스, 문화인프라, 보건·의료 서비스, 안전관리·보호 서비스가 충분히 있는지 4점 만점으로 분석하였다. 교육보육기관이 2.7점, 보건·의료 서비스 2.4점, (맞춤형)돌봄지원 서비스와 안전관리·보호 서비스 2.2점 순으로 나타나 충분성에 대해서는 다소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보육 기관을 제외하고 모든 영역에서 지역에 따라 충분성에 대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대체적으로 군지역-하위 지역이 충분성이 2.1점 이하로 낮았으며, 사후검증을 통해 집단 평균 차이를 확인할 결과 중소도시-상위, 대도시-상위 지역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3-1〉 거주 지역 내 육아지원 기관과 서비스의 충분성

구분	교육보육 기관 ¹⁾	육아지원 서비스 기관 ²⁾	(맞춤형) 돌봄지원 서비스 ³⁾	문화 인프라 ⁴⁾	보건·의료 서비스 ⁵⁾	안전관리·보호 서비스 ⁶⁾	사례수
	M(SD)	M(SD)	M(SD)	M(SD)	M(SD)	M(SD)	
전체	2.7(0.8)	2.0(0.8)	2.2(0.8)	2.1(0.8)	2.4(0.9)	2.2(0.8)	1,200
평가결과							
상위지역	2.7(0.8)	2.1(0.8)	2.1(0.8)	2.1(0.8)	2.4(1.0)	2.2(0.8)	600
하위지역	2.7(0.8)	2.0(0.8)	2.2(0.8)	2.1(0.8)	2.4(0.9)	2.2(0.8)	600
<i>t</i>	0.49	1.29(1,198)	-1.73(1,198)	0.1(1,198)	-0.98(1,198)	-0.75(1,198)	
지역구분							
대도시-상위	2.8(0.8)	2.0(0.8)	2.0(0.8) ^a	2.1(0.7)	3.0(0.8) ^c	2.1(0.7)	200
대도시-하위	2.8(0.9)	2.1(0.9)	2.2(0.9)	2.3(0.8) ^c	2.8(0.8)	2.2(0.9)	200
중소도시-상위	2.6(0.8)	2.2(0.8) ^b	2.2(0.7)	2.2(0.9)	2.4(0.8) ^b	2.2(0.8)	200
중소도시-하위	2.7(0.9)	2.1(0.6)	2.3(0.8) ^b	2.3(0.7) ^c	2.6(0.7)	2.3(0.7) ^b	200
군지역- 상위	2.7(0.8)	2.0(0.8)	2.2(0.8)	2.0(0.8) ^b	1.8(0.8) ^a	2.2(0.7)	200
군지역- 하위	2.6(0.7)	1.8(0.8) ^a	2.1(0.8)	1.7(0.8) ^a	1.9(0.8) ^a	2.0(0.7) ^a	200
<i>F</i>	1.56	4.6*** a<b	3.21** a<b	16.14*** a<b<c	74.28*** a<b<c	3.97** a<b	
자녀연령							
영아	2.7(0.9)	2.0(0.8)	2.2(0.8)	2.0(0.8)	2.4(0.9)	2.2(0.8)	501
유아	2.7(0.8)	2.0(0.8)	2.2(0.8)	2.1(0.8)	2.4(0.9)	2.2(0.8)	699
<i>t</i>	-1.6(1,198)	0.34(1,198)	0.07(1,198)	-0.76(1,198)	0.1(1,198)	-0.68(1,198)	

단위: 점, 명

(표 V-3-1 계속)

구분	교육보육 기관 ¹⁾	육아지원 서비스 기관 ²⁾	맞춤형) 돌봄지원 서비스 ³⁾	문화 인프라 ⁴⁾	보건·의료 서비스 ⁵⁾	안전관리· 보호 서비스 ⁶⁾	사례수
	M(SD)	M(SD)	M(SD)	M(SD)	M(SD)	M(SD)	
월 가구소득							
250만원 미만	2.7(0.9)	1.9(0.7)	2.1(0.8)	1.8(0.8) ^a	2.3(0.9)	2.1(0.8)	134
250~350만원 미만	2.7(0.8)	2.0(0.8)	2.2(0.8)	2.0(0.8)	2.3(0.9)	2.2(0.8)	360
350~450만원 미만	2.7(0.9)	2.1(0.8)	2.2(0.8)	2.1(0.8) ^b	2.5(0.9)	2.2(0.8)	291
450~550만원 미만	2.8(0.8)	2.1(0.9)	2.3(0.9)	2.1(0.9)	2.5(1.0)	2.2(0.8)	197
550만원 이상	2.6(0.9)	2.0(0.8)	2.1(0.8)	2.2(0.8) ^b	2.5(0.9)	2.2(0.8)	218
F	2.16	1.68	1.19	4.16 ^{**}	2.15	0.33	
				a<b			
모 고용상태							
취업모	2.8(0.8)	2.0(0.8)	2.2(0.8)	2.1(0.8)	2.4(0.9)	2.2(0.8)	360
비취업모	2.6(0.9)	2.0(0.8)	2.2(0.8)	2.1(0.8)	2.4(0.9)	2.2(0.8)	840
t	327(1,198) ^{***}	0.22(1,198)	0.44(1,198)	0.17(1,198)	-0.76(1,198)	0.26(1,198)	

주: 4점 만점 척도의 평균을 제시함.

a, b, c 집단 간 차이가 있음.

- 1) 유치원, 어린이집
- 2)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 유아체험교육원 등
- 3) 시간제·시간연장·24시간·휴일보육, 종일 돌봄, 아이돌보미 서비스, 공동육아 나눔터, 산모신생아 돌보미
- 4)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도서관, 장난감도서관, 어린이 박물관, 어린이 미술관
- 5) 보건소, 소아청소년과, 종합병원 등
- 6) 보행환경, 교통사고율, 안전교육, 급식관리, 아동보호 및 쉼터, 파출소

** $p < .01$, *** $p < .001$

교육·보육 기관, 육아지원 서비스, (맞춤형)돌봄지원 서비스, 문화인프라, 보건·의료 서비스, 안전관리·보호 서비스가 일·가정 양립에 도움이 되는지 4점 만점으로 분석하였다. 교육·보육기관이 3.6점으로 도움 정도가 가장 높았고, 보건·의료 서비스 3.3점, 문화인프라 3.2점, (맞춤형)돌봄지원 서비스와 안전관리·보호 서비스가 3.1점, 육아지원 서비스 기관 3.0점 순으로 나타났다. (맞춤형)돌봄지원 서비스를 제외하고 모든 영역에서 지역에 따라 도움 정도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사후검증을 통해 집단 평균 차이를 확인한 결과 교육·보육기관, 보건·의료 서비스, 안전관리·보호 서비스에 대해서 대도시·상·하위 지역이 군지역·상위 지역보다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3-2〉 육아지원 기관과 서비스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도움 정도

단위: 점, 명

구분	교육보육 기관	육아지원 서비스 ¹⁾	돌봄지원 서비스 ²⁾	문화 인프라 ³⁾	보건·의료 서비스 ⁴⁾	안전관리· 보호 ⁵⁾	사례수
	M(SD)	M(SD)	M(SD)	M(SD)	M(SD)	M(SD)	
전체	3.6(0.6)	3.0(0.9)	3.1(0.9)	3.2(0.8)	3.3(0.8)	3.1(0.9)	1,200
평가결과							
상위지역	3.6(0.6)	3.1(0.9)	3.1(1.0)	3.2(0.8)	3.3(0.8)	3.1(0.9)	600
하위지역	3.5(0.6)	3.0(1.0)	3.1(0.9)	3.1(0.8)	3.3(0.7)	3.1(0.8)	600
<i>t</i>	1.49	2.02*	-0.28	1.85	0.22	1.19	
지역구분							
대도시-상위	3.8(0.5) ^b	3.1(0.9)	3.2(1.0)	3.3(0.8)	3.5(0.7)	3.3(0.9) ^b	200
대도시-하위	3.6(0.6)	3.1(1.1)	3.1(0.9)	3.3(0.9)	3.6(0.6) ^b	3.2(1.0)	200
중소도시-상위	3.5(0.7)	3.1(0.9)	3.1(0.9)	3.3(0.8)	3.3(0.8)	3.1(0.9)	200
중소도시-하위	3.5(0.6)	3.0(0.8)	3.2(0.8)	3.0(0.7)	3.1(0.6)	3.0(0.7) ^a	200
군지역- 상위	3.4(0.6) ^a	3.0(0.9)	3.0(0.9)	3.1(0.9)	3.0(0.9) ^a	2.9(0.9) ^a	200
군지역- 하위	3.5(0.6)	2.8(1.0)	3.1(0.9)	3.0(0.9)	3.1(0.8)	3.1(0.8)	200
<i>F</i>	11.46***	2.97*	1.01	4.12**	20***	5.18***	
	a<b				a<b	a<b	
자녀연령							
영아	3.5(0.7)	3.0(0.9)	3.1(0.9)	3.2(0.8)	3.3(0.8)	3.1(0.9)	501
유아	3.6(0.6)	3.0(1.0)	3.1(0.9)	3.2(0.9)	3.3(0.8)	3.1(0.9)	699
<i>t</i>	-2.14*	0.38	0.55	-0.09	0.25	0.4	
월 가구소득							
250만원 미만	3.4(0.7) ^a	2.8(1.0) ^a	3.0(1.0)	3.0(1.0)	3.2(0.9)	3.0(0.9)	134
250~350만원 미만	3.5(0.6)	3.1(0.9) ^b	3.2(0.9)	3.2(0.8)	3.3(0.8)	3.1(0.8)	360
350~450만원 미만	3.6(0.6)	3.1(0.9)	3.1(0.9)	3.2(0.8)	3.3(0.8)	3.1(0.9)	291
450~550만원 미만	3.6(0.6) ^b	2.9(1.0)	3.1(0.9)	3.1(0.9)	3.3(0.8)	3.1(0.9)	197
550만원 이상	3.6(0.6) ^b	2.9(1.0)	3.0(1.0)	3.1(0.8)	3.3(0.8)	3.1(0.9)	218
<i>F</i>	3.8**	3.59**	2.02	1.97	0.74	1.19	
	a<b	a<b					
모 고용상태							
취업모	3.6(0.6)	2.9(1.0)	3.1(1.0)	3.1(0.9)	3.2(0.8)	3.0(0.9)	360
비취업모	3.5(0.6)	3.1(0.9)	3.1(0.9)	3.2(0.8)	3.3(0.8)	3.2(0.9)	840
<i>t</i>	0.92	-3.42**	-1.57	-2.62**	-2.11*	-3.04**	

주: 4점 만점 척도의 평균을 제시함. a, b집단 간 차이가 있음.

- 1)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 유아체험 교육원 등
- 2) 시간제·시간연장·24시간·휴일보육, 종일 돌봄, 아이돌보미 서비스, 공동육아 나눔터, 산모신생아 돌보미
- 3)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도서관, 장난감도서관, 어린이 박물관·미술관
- 4) 보건소, 소아청소년과, 종합병원 등
- 5) 보행환경, 교통사고율, 안전교육, 급식관리, 아동보호 및 쉼터, 파출소

* $p < .05$, ** $p < .01$, *** $p < .001$

나. 양육환경

거주 지역이 자녀를 양육하기에 얼마나 적합한 환경인지 알아보았다. 약간 적합함이 53.4%로 가장 많았고, 대체로 적합하지 않음 32.1%, 매우 적합함 8.4%, 매우 적합하지 않음 6.1%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평가결과, 지역, 월 가구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평가결과에 따라서는 매우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은 상위지역이 하위 지역보다 많았고, 매우 적합하다는 의견은 하위지역이 상위지역보다 많았다. 지역에 따라서는 대도시-상위지역이 적합하지 않음이 54.0%(매우 적합하지 않음+대체로 적합하지 않음), 적합도가 2.3점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자녀 양육 환경이 적합하지 않다는 응답비율이 높았다. 대체적으로 중소도시-상·하위 지역이 자녀 양육 환경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3-3〉 거주 지역의 양육 환경 적합도

구분	매우 적합하지 않음	대체로 적합하지 않음	약간 적합함	매우 적합함	계(수)	평균 (점)	X ² (df)	단위: %(명)
전체	6.1	32.1	53.4	8.4	1000(120)	2.6		
평가결과								
상위지역	8.3	33.7	51.5	6.5	1000(600)	2.6	16.987(3)	
하위지역	3.8	30.5	55.3	10.3	1000(600)	2.7	***	
지역구분								
대도시-상위	14.5	39.5	43.0	3.0	1000(200)	2.3		
대도시-하위	0.5	34.5	46.5	18.5	1000(200)	2.8		
중소도시-상위	3.0	18.5	64.5	14.0	1000(200)	2.9	155.058(15)	
중소도시-하위	2.5	19.5	67.5	10.5	1000(200)	2.9	***	
군지역- 상위	7.5	43.0	47.0	2.5	1000(200)	2.4		
군지역- 하위	8.5	37.5	52.0	2.0	1000(200)	2.5		
자녀연령								
영아	6.6	33.9	50.5	9.0	1000(501)	2.6		
유아	5.7	30.8	55.5	8.0	1000(699)	2.7	2.972(3)	
월 가구소득								
250만원 미만	9.7	29.9	56.7	3.7	1000(134)	2.5		
250~350만원 미만	5.8	31.1	56.9	6.1	1000(360)	2.6		
350~450만원 미만	6.5	36.8	48.1	8.6	1000(291)	2.6	22.328(12)*	
450~550만원 미만	5.6	32.5	50.8	11.2	1000(197)	2.7		
550만원 이상	4.1	28.4	55.0	12.4	1000(218)	2.8		

(표 V-3-3 계속)

구분	매우 적합하지 않음	대체로 적합하지 않음	약간 적합함	매우 적합함	계(수)	평균 (점)	$X^2(df)$
모 고용상태							
취업모	5.3	31.7	54.4	8.6	100.0(360)	2.7	0.701(3)
비취업모	6.4	32.3	53.0	8.3	100.0(840)	2.6	

주: 4점 만점 척도의 평균을 제시함.

* $p < .05$, *** $p < .001$

자녀 양육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라 생각하는 이유 1순위는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 문화 시설이 부족해서’가 33.4%로 나타났으며, ‘육아에 대한 정보나 교육 등 서비스 지원이 부족해서’ 24.2%, ‘주변의 병원 등 의료시설이 부족해서’ 17.0%, ‘믿고 맡길 만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부족해서’ 13.1%, ‘주변의 안전과 치안이 걱정돼서’ 6.1%, ‘가정의 상황에 따른 돌봄 서비스가 부족해서’ 5.9% 순으로 나타났다.

〈표 V-3-4〉 거주 지역이 양육하기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라 생각하는 이유 1순위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계(수)	$X^2(df)$
전체	13.1	24.2	5.9	33.4	6.1	17.0	0.2	100.0(458)	
평가결과									
상위지역	9.9	20.2	4.4	37.7	8.3	19.4	0.0	100.0(252)	20.99(6)**
하위지역	17.0	29.1	7.8	28.2	3.4	14.1	0.5	100.0(206)	
지역구분									
대도시-상위	7.4	15.7	2.8	56.5	16.7	0.9	0.0	100.0(108)	n.a
대도시-하위	18.6	45.7	10.0	15.7	2.9	7.1	0.0	100.0(70)	
중소도시-상위	20.9	30.2	7.0	30.2	4.7	7.0	0.0	100.0(43)	
중소도시-하위	36.4	15.9	11.4	25.0	6.8	4.5	0.0	100.0(44)	
군지역- 상위	7.9	20.8	5.0	20.8	1.0	44.6	0.0	100.0(101)	
군지역- 하위	6.5	22.8	4.3	39.1	2.2	23.9	1.1	100.0(92)	
자녀연령									
영아	16.7	22.7	6.4	26.6	7.4	20.2	0.0	100.0(203)	13.206(6)*
유아	10.2	25.5	5.5	38.8	5.1	14.5	0.4	100.0(255)	
월 가구소득									
250만원 미만	9.4	17.0	1.9	35.8	5.7	30.2	0.0	100.0(53)	n.a
250~350만원 미만	10.5	24.1	6.0	37.6	3.0	18.8	0.0	100.0(133)	
350~450만원 미만	15.1	23.8	4.0	31.7	7.9	16.7	0.8	100.0(126)	
450~550만원 미만	13.3	29.3	9.3	24.0	9.3	14.7	0.0	100.0(75)	
550만원 이상	16.9	25.4	8.5	36.6	5.6	7.0	0.0	100.0(71)	

(표 V-34 계속)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계(수)	X ² (df)
모 고용상태									
취업모	9.8	22.6	8.3	37.6	4.5	17.3	0.0	100.0(133)	5.783(6)
비취업모	14.5	24.9	4.9	31.7	6.8	16.9	0.3	100.0(325)	

주: na 각 셀별 기대치가 통계적 검정에 적절하지 않아 교차분석을 실시하지 않음

- ① 믿고 맡길 만한 어린이집·유치원 부족 ② 육아정보나 교육 등 서비스 지원이 부족
 ③ 가정의 상황에 따른 돌봄 서비스 부족 ④ 자녀와 함께 하는 놀이, 문화 시설이 부족
 ⑤ 주변의 안전과 치안이 걱정됨 ⑥ 주변의 병원 등 의료시설이 부족
 ⑦ 기타

* $p < .05$, ** $p < .01$

평가결과, 자녀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평가결과에 따라서는 상위지역은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 문화 시설이 부족해서 (37.7%)'를, 하위지역은 '육아에 대한 정보나 교육 등 서비스 지원이 부족해서 (29.1%)'를 1순위로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어려움 정도를 1,200명을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응답 인원수가 적은 기타를 제외하고 '돌보미 등 육아지원 인력 확보'에 대한 어려움 정도가 2.9점으로 가장 높았고, '영유아 교육(보육)기관 (유치원, 어린이집)의 이용'에 대한 어려움 정도가 2.1점으로 가장 낮았다.

평가결과에 따라서는 '육아관련 정보 교류가 가능한 모임에 참여', '긴급한 경우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 및 유치원 돌봄 서비스 이용', '지역 내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문화 시설의 이용', '영유아 관련 안전·치안 관리'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났는데, 상위지역이 하위지역보다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서는 사후검증을 통해 집단 평균 차이를 확인한 결과 대체적으로 중소도시-상위 지역과 군지역-상·하위 지역이 대도시-상위 지역과 중소도시-하위 지역보다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연령에 따라서는 영아가 유아보다 '영유아 교육(보육)기관 (유치원, 어린이집)의 이용'과 '자녀 양육에 대한 지식·정보를 얻는 부모 교육 참여'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월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사후검증을 통해 집단 평균 차이를 확인한 결과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이 '육아관련 정보 교류가 가능한 모임의 참여'와 '지역 내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문화 시설의 이용'에 대해서 자녀 양육을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가 높은 편이었다.

〈표 V-3-5〉 자녀 양육의 어려움

구분	단위: 점, 명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전체	M(SD) 21(0.8)	M(SD) 26(0.8)	M(SD) 27(0.8)	M(SD) 27(0.8)	M(SD) 29(0.8)	M(SD) 28(0.9)	M(SD) 27(0.8)	M(SD) 25(0.9)	M(SD) 3.3(0.6)	1,200
평가결과										
상위지역	21(0.8)	27(0.8)	28(0.8)	27(0.7)	29(0.7)	29(0.8)	27(0.7)	25(0.9)	3.3(0.6)	600
하위지역	21(0.8)	25(0.8)	27(0.8)	27(0.8)	28(0.8)	28(1.0)	26(0.8)	25(0.9)	-	600
<i>t</i>	0.11	3.55***	2.27*	0.0	1.57	2.35*	2.74**	-0.44	-	
지역구분										
대도시-상위	20(0.8) ^a	26(0.8)	28(0.8)	26(0.7)	3.0(0.7)	29(0.7)	28(0.7) ^b	20(0.8) ^a	-	200
대도시-하위	22(0.9)	26(0.9)	28(0.8)	27(0.8)	29(0.8)	25(1.0) ^a	26(0.9)	22(0.9)	-	200
중소도시-상위	23(0.8) ^b	27(0.8) ^b	28(0.7)	26(0.7)	29(0.7)	28(0.9)	27(0.8)	24(0.8)	4.0(0.0)	200
중소도시-하위	20(0.8) ^a	24(0.8) ^a	26(0.8)	27(0.7)	28(0.7)	27(0.8)	25(0.7) ^a	24(0.7)	-	200
군지역- 상위	20(0.8)	28(0.8) ^b	27(0.9)	28(0.8)	29(0.8)	3.0(0.8)	27(0.7)	31(0.9) ^b	3.0(0.0)	200
군지역- 하위	21(0.8)	27(0.8) ^b	26(0.9)	27(0.8)	29(0.8)	32(1.0) ^b	28(0.8) ^b	30(0.9) ^b	-	200
<i>F</i>	4.28***	7.14***	2.8*	1.96	1.12	18.18***	5.62***	53.25***	-	
	a<b	a<b				a<b	a<b	a<b		
자녀연령										
영아	22(0.9)	27(0.8)	27(0.8)	28(0.8)	29(0.7)	29(0.9)	27(0.8)	25(1.0)	4.0(0.0)	501
유아	20(0.8)	26(0.8)	27(0.8)	26(0.8)	29(0.8)	28(0.9)	26(0.8)	25(0.9)	3.0(0.0)	699
<i>t</i>	3.62***	2.02*	1.22	2.53*	-0.17	0.93	1.39	0.22	-	
월 가구소득										
250만원 미만	20(0.9)	28(0.8) ^b	27(0.9)	27(0.8)	3.0(0.8)	31(0.8) ^b	28(0.8)	26(1.0)	-	134
250~350만원 미만	21(0.8)	25(0.8) ^a	26(0.8)	27(0.8)	28(0.8)	29(0.9)	26(0.8)	26(0.9)	4.0(0.0)	360
350~450만원 미만	21(0.8)	26(0.8)	28(0.8)	27(0.8)	28(0.8)	28(0.8)	27(0.8)	25(0.9)	3.0(0.0)	291
450~550만원 미만	21(0.8)	27(0.8)	27(0.8)	27(0.7)	29(0.7)	28(0.9)	27(0.8)	25(0.9)	-	197
550만원 이상	21(0.9)	27(0.8)	28(0.8)	27(0.7)	3.0(0.7)	27(0.9) ^a	27(0.8)	24(0.9)	3.0(0.0)	218
<i>F</i>	0.69	4.32**	1.49	0.29	3.75**	5.38***	1.85	2.62*	-	
		a<b				a<b				
모 고용상태										
취업모	20(0.8)	27(0.8)	27(0.8)	27(0.8)	29(0.8)	28(0.9)	27(0.8)	25(0.9)	3.3(0.6)	360
비취업모	21(0.8)	26(0.8)	27(0.8)	27(0.8)	29(0.7)	28(0.9)	27(0.8)	25(0.9)	-	840
<i>t</i>	-2.2*	2.25*	-1.5	1.14	0.53	-0.31	-0.55	-0.59	-	

주: 4점 만점 척도의 평균을 제시함. a, b집단 간 차이가 있음.

- | | |
|---|---------------------------|
| ① 영유아 교육(보육)기관 이용 | ② 육아관련 정보 교류 모임의 참여 |
| ③ 긴급한 경우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 및 유치원 돌봄 서비스 이용 | ④ 자녀 양육 지식·정보를 얻는 부모교육 참여 |
| ④ 자녀 양육 지식·정보를 얻는 부모교육 참여 | ⑤ 돌보미 등 육아지원 인력 확보 |
| ⑥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문화 시설의 이용 | ⑦ 영유아 관련 안전·치안 관리 |
| ⑧ 지역의 영유아 건강 의료기관의 서비스 이용 | ⑨ 기타 |

* $p < .05$, ** $p < .01$, *** $p < .001$

거주 지역이 '아이 키우기 좋은 육아환경'이 되기 위해 영유아 교육·보육 부

문에서 중요한 항목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민간 국·공립 모두 포함)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3.9점으로 중요도가 가장 높았다.

평가결과에 따라서는 '국공립 유치원'과 '국공립 어린이집'을 제외한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났는데, 상위지역이 하위지역보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치원'과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자격 기준이 높은 질 높은 교사'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지역에 따라서는 '국공립 유치원'과 '국공립 어린이집'을 제외한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났는데, 사후검증을 통해 집단 평균 차이를 확인한 결과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대도시-상위 지역과 군지역-상위 지역이 중소도시-하위 지역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해서는 대도시-상위 지역과 중소도시-상·하위 지역이 군지역-하위 지역보다 중요도가 높았고, '자격 기준이 높은 질 높은 교사'에 대해서는 대도시-상위 지역이 대도시-하위 지역, 중소도시-하위 지역보다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 고용상태에 따라서는 '국공립 유치원'과 '국공립 어린이집'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V-3-6〉 아이 키우기 좋은 육아환경을 위한 교육·보육 기관의 중요도

단위: 점, 명

구분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치원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국공립 유치원	국공립 어린이집	장애 전문·통합 어린이집 및 유치원	자격 기준 높은 질 높은 교사	사례수
	M(SD)	M(SD)	M(SD)	M(SD)	M(SD)	M(SD)	
전체	3.8(0.4)	3.9(0.4)	3.8(0.4)	3.8(0.4)	3.7(0.5)	3.8(0.4)	1,200
평가결과							
상위지역	3.9(0.3)	3.9(0.3)	3.8(0.4)	3.8(0.4)	3.7(0.5)	3.9(0.4)	600
하위지역	3.8(0.4)	3.8(0.4)	3.8(0.4)	3.8(0.5)	3.7(0.5)	3.8(0.5)	600
<i>t</i>	5.82***	4.86***	0.07	1.04	3.29**	4.35***	
지역구분							
대도시-상위	3.9(0.3) ^b	3.9(0.3) ^b	3.8(0.5)	3.8(0.5)	3.8(0.5) ^b	3.9(0.4) ^b	200
대도시-하위	3.8(0.4)	3.8(0.4)	3.9(0.4)	3.8(0.4)	3.7(0.5)	3.7(0.5) ^a	200
중소도시-상위	3.9(0.4)	3.9(0.4)	3.8(0.4)	3.8(0.4)	3.8(0.5) ^b	3.9(0.4)	200
중소도시-하위	3.7(0.4) ^a	3.8(0.4) ^a	3.8(0.4)	3.8(0.4)	3.8(0.4) ^b	3.7(0.5) ^a	200
군지역- 상위	3.9(0.3) ^b	3.9(0.2) ^b	3.9(0.4)	3.8(0.4)	3.7(0.5)	3.8(0.4)	200
군지역- 하위	3.8(0.5)	3.8(0.4)	3.8(0.5)	3.7(0.5)	3.6(0.6) ^a	3.8(0.4)	200
<i>F</i>	7.57***	5.63***	1.28	1.4	5.41***	5.15***	
	a<b	a<b			a<b	a<b	

(표 V-3-6 계속)

구분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치원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국공립 유치원	국공립 어린이집	장애 전문통합 어린이집 및 유치원	자격 기준 높은 질 높은 교사	사례수
	M(SD)	M(SD)	M(SD)	M(SD)	M(SD)	M(SD)	
자녀연령							
영아	3.8(0.4)	3.8(0.4)	3.8(0.4)	3.8(0.4)	3.7(0.5)	3.8(0.4)	501
유아	3.8(0.4)	3.9(0.4)	3.8(0.4)	3.8(0.5)	3.7(0.5)	3.8(0.5)	699
<i>t</i>	-0.45	-1.22	-0.51	0.55	-1	1.18	
월 가구소득							
250만원 미만	3.8(0.4)	3.9(0.4)	3.8(0.5)	3.8(0.4)	3.7(0.5)	3.8(0.4)	134
250~350만원 미만	3.8(0.4)	3.8(0.4)	3.9(0.4)	3.8(0.4)	3.7(0.5)	3.8(0.4)	360
350~450만원 미만	3.8(0.4)	3.8(0.4)	3.8(0.5)	3.8(0.5)	3.7(0.5)	3.8(0.4)	291
450~550만원 미만	3.9(0.4)	3.9(0.3)	3.9(0.4)	3.8(0.4)	3.7(0.5)	3.8(0.4)	197
550만원 이상	3.9(0.4)	3.9(0.3)	3.8(0.5)	3.8(0.5)	3.7(0.5)	3.9(0.4)	218
<i>F</i>	2.22	2.26	1.84	1.04	0.48	0.89	
모 고용상태							
취업모	3.8(0.4)	3.9(0.4)	3.8(0.5)	3.7(0.5)	3.7(0.5)	3.8(0.5)	360
비취업모	3.8(0.4)	3.9(0.4)	3.8(0.4)	3.8(0.4)	3.7(0.5)	3.8(0.4)	840
<i>t</i>	-0.51	0.4	-2.23*	-2.69*	-0.98	-0.57	

주: 4점 만점 척도의 평균을 제시함. a, b집단 간 차이가 있음.

* $p < .05$, ** $p < .01$, *** $p < .001$

거주 지역이 ‘아이 키우기 좋은 육아환경’이 되기 위해 영유아 육아지원 서비스 부문에서 중요한 항목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육아종합지원센터 3.7점, 건강가정지원센터 3.6점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다. 건강가정지원센터 항목에서 지역과 월 가구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타났는데, 사후검증을 통해 집단 평균 차이를 확인한 결과 군지역-상·하위 지역과 중소도시-상위 지역이 대도시-상위 지역보다 유의미하게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3-7〉 아이 키우기 좋은 육아환경을 위한 육아지원서비스의 중요도

단위: 점, 명

구분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사례수
	M(SD)	M(SD)	
전체	3.7(0.5)	3.6(0.6)	1,200
평가결과			
상위지역	3.7(0.5)	3.6(0.6)	600
하위지역	3.6(0.6)	3.6(0.6)	600
<i>t</i>	1.33	0.35	

(표 V-3-7 계속)

구분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사례수
	M(SD)	M(SD)	
지역구분			
대도시-상위	3.6(0.6)	3.5(0.6) ^a	200
대도시-하위	3.6(0.6)	3.5(0.6)	200
중소도시-상위	3.7(0.5)	3.7(0.6) ^b	200
중소도시-하위	3.6(0.5)	3.6(0.5)	200
군지역- 상위	3.7(0.5)	3.7(0.5) ^b	200
군지역- 하위	3.7(0.6)	3.7(0.5) ^b	200
<i>F</i>	2.17	5.43*** a<b	
자녀연령			
영아	3.7(0.5)	3.6(0.6)	501
유아	3.6(0.6)	3.6(0.6)	699
<i>t</i>	0.98	-0.26	
월 가구소득			
250만원 미만	3.7(0.5)	3.6(0.6)	134
250~350만원 미만	3.7(0.5)	3.7(0.5)	360
350~450만원 미만	3.7(0.5)	3.6(0.5)	291
450~550만원 미만	3.6(0.6)	3.6(0.6)	197
550만원 이상	3.6(0.6)	3.5(0.7)	218
<i>F</i>	1.33	3.51**	
모 고용상태			
취업모	3.6(0.6)	3.6(0.6)	360
비취업모	3.7(0.5)	3.6(0.6)	840
<i>t</i>	-1.73	-1.61	

주: 4점 만점 척도의 평균을 제시함.

** $p < .01$, *** $p < .001$

거주 지역이 '아이 키우기 좋은 육아환경'이 되기 위해 (맞춤형)돌봄지원 서비스 부문에서 중요한 항목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맞벌이, 장애, 다자녀 가정 등을 위한 아이돌보미 서비스',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충분한 인력' 항목이 각 3.7점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결과에 따라서는 상위지역이 '부모가 필요한 시간에 이용가능한 시간제 보육 서비스', '자녀양육 경험 및 정보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동육아 나눔터' 항목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지역에 따라서는 사후 검증을 통해 집단 평균 차이를 확인한 결과 군지역-하위 지역이 대도시-하위 지역보다 '부모가 필요한 시간에 이용가능한 시간제 보육 서비스', '맞벌이, 장애,

다자녀 가정 등을 위한 아이돌보미 서비스', '자녀양육 경험 및 정보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동육아 나눔터',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충분한 인력'에 대해서 느끼는 중요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에 따라서는 사후검증을 통해 집단 평균 차이를 확인한 결과 250~350만원 미만이 550만원 이상보다 '출산부터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돌봄 지원'에 대해 느끼는 중요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자녀연령과 모 고용상태에 따른 통계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V-3-8〉 아이 키우기 좋은 육아환경을 위한 (맞춤형)돌봄지원 서비스의 중요도

구분	시간제	시간연장형	온종일	아이돌보미	공동육아	산모·	돌봄	사례수
	보육	보육	돌봄	서비스	나눔터	산모·	돌봄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신생아	서비스	
	M(SD)	M(SD)	M(SD)	M(SD)	M(SD)	M(SD)	M(SD)	
전체	3.7(0.5)	3.6(0.6)	3.6(0.6)	3.7(0.5)	3.5(0.6)	3.6(0.5)	3.7(0.5)	1,200
평가결과								
상위지역	3.7(0.5)	3.6(0.6)	3.6(0.6)	3.7(0.5)	3.6(0.6)	3.6(0.6)	3.7(0.5)	600
하위지역	3.6(0.5)	3.6(0.5)	3.6(0.6)	3.6(0.5)	3.5(0.6)	3.6(0.5)	3.6(0.5)	600
<i>t</i>	2.97**	-0.26	-0.15	1.73	2.4*	-0.38	1.66	
지역구분								
대도시-상위	3.7(0.5)	3.6(0.5)	3.6(0.5)	3.8(0.4) ^b	3.5(0.6)	3.6(0.6)	3.7(0.5) ^b	200
대도시-하위	3.5(0.5) ^a	3.6(0.5)	3.6(0.5)	3.6(0.5) ^a	3.4(0.7) ^a	3.5(0.6)	3.5(0.5) ^a	200
중소도시-상위	3.8(0.5) ^b	3.6(0.6)	3.6(0.6)	3.7(0.5)	3.5(0.6)	3.6(0.6)	3.7(0.5)	200
중소도시-하위	3.6(0.5)	3.6(0.5)	3.6(0.5)	3.6(0.5)	3.4(0.6) ^a	3.7(0.5)	3.7(0.5)	200
군지역- 상위	3.6(0.5)	3.6(0.5)	3.5(0.6)	3.7(0.5)	3.6(0.6)	3.6(0.5)	3.7(0.5)	200
군지역- 하위	3.8(0.4) ^b	3.7(0.5)	3.6(0.6)	3.7(0.4) ^b	3.6(0.6) ^b	3.7(0.5)	3.7(0.5) ^b	200
<i>F</i>	7.41***	0.82	1.62	4.35***	4.53***	1.74	3.89**	
	a<b			a<b	a<b		a<b	
자녀연령								
영아	3.7(0.5)	3.6(0.6)	3.6(0.5)	3.7(0.5)	3.5(0.6)	3.7(0.5)	3.7(0.5)	501
유아	3.7(0.5)	3.6(0.6)	3.6(0.6)	3.7(0.5)	3.5(0.6)	3.6(0.5)	3.7(0.5)	699
<i>t</i>	-0.01	0.39	1.56	1.21	0.61	1.77	1.21	
월 가구소득								
250만원 미만	3.7(0.5)	3.6(0.6)	3.6(0.6)	3.7(0.5)	3.5(0.6)	3.7(0.5)	3.7(0.5)	134
250~350만원 미만	3.7(0.5)	3.6(0.6)	3.6(0.6)	3.7(0.5)	3.6(0.6)	3.7(0.5) ^b	3.7(0.5)	360
350~450만원 미만	3.7(0.5)	3.6(0.6)	3.5(0.6)	3.7(0.5)	3.5(0.6)	3.6(0.5)	3.7(0.5)	291
450~550만원 미만	3.7(0.5)	3.6(0.5)	3.6(0.5)	3.7(0.5)	3.5(0.6)	3.6(0.5)	3.7(0.5)	197
550만원 이상	3.6(0.5)	3.6(0.6)	3.6(0.6)	3.7(0.5)	3.4(0.7)	3.5(0.6) ^a	3.6(0.5)	218
<i>F</i>	0.51	0.38	0.51	0.18	2.4*	3.49**	1.81	
						a<b		

(표 V-3-8 계속)

구분	시간제	시간연장형	온종일	아이돌봄	공동육아	산모·	돌봄	사례수
	보육	보육	돌봄	서비스	나눔터	신생아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돌봄 지원	제공인력	
	M(SD)							
모 고용상태								
취업모	3.7(0.5)	3.6(0.5)	3.6(0.5)	3.7(0.5)	3.5(0.6)	3.6(0.6)	3.7(0.5)	360
비취업모	3.7(0.5)	3.6(0.6)	3.6(0.6)	3.7(0.5)	3.5(0.6)	3.6(0.5)	3.7(0.5)	840
<i>t</i>	-0.19	-0.03	1.34	1.87	-1.25	-1.37	-0.71	

주: 4점 만점 척도의 평균을 제시함. a, b 집단 간 차이가 있음.

* $p < .05$, ** $p < .01$, *** $p < .001$

거주 지역이 ‘아이 키우기 좋은 육아환경’이 되기 위해 문화인프라 부문에서 중요한 항목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자녀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3.8점)’에 대하여 여기는 중요도가 가장 높았다.

<표 V-3-9> 아이 키우기 좋은 육아환경을 위한 문화인프라의 중요도

단위: 점, 명

구분	어린이	어린이	어린이	장난감	영유아	어린이	어린이	사례수
	놀이시설	공원	도서관	도서관	체험	박물관	어린이	
	놀이터				놀이터	과학관	미술관	
	M(SD)	M(SD)	M(SD)	M(SD)	M(SD)	M(SD)	M(SD)	
전체	3.8(0.4)	3.7(0.5)	3.7(0.5)	3.6(0.5)	3.7(0.5)	3.7(0.5)	3.6(0.6)	1,200
평가결과								
상위지역	3.8(0.4)	3.8(0.5)	3.8(0.4)	3.7(0.5)	3.8(0.4)	3.7(0.5)	3.6(0.5)	600
하위지역	3.8(0.4)	3.7(0.5)	3.7(0.5)	3.6(0.5)	3.7(0.5)	3.6(0.6)	3.6(0.6)	600
<i>t</i>	1.6	2.11*	4.12***	0.79	2.72**	2.64**	2.42*	
지역구분								
대도시-상위	3.8(0.4)	3.8(0.4) ^b	3.8(0.4) ^b	3.7(0.6)	3.8(0.4) ^b	3.7(0.4) ^b	3.7(0.5)	200
대도시-하위	3.7(0.5) ^a	3.6(0.5) ^a	3.6(0.6) ^a	3.6(0.6)	3.6(0.5) ^a	3.6(0.6) ^a	3.5(0.6)	200
중소도시-상위	3.8(0.4)	3.8(0.5)	3.8(0.4) ^b	3.7(0.5)	3.7(0.5)	3.7(0.5)	3.7(0.5)	200
중소도시-하위	3.7(0.5)	3.7(0.5)	3.7(0.5)	3.7(0.5)	3.7(0.5)	3.7(0.6)	3.6(0.6)	200
군지역- 상위	3.8(0.4)	3.7(0.5)	3.8(0.5) ^b	3.6(0.6)	3.8(0.4)	3.7(0.5)	3.6(0.5)	200
군지역- 하위	3.9(0.4) ^b	3.8(0.4) ^b	3.8(0.5) ^b	3.7(0.5)	3.7(0.5)	3.7(0.5)	3.6(0.6)	200
<i>F</i>	4.19***	4.31***	7.42***	1.21	3.61**	3.04**	2.67*	
	a<b	a<b	a<b		a<b	a<b		
자녀연령								
영아	3.8(0.4)	3.7(0.5)	3.7(0.5)	3.7(0.5)	3.8(0.5)	3.7(0.5)	3.6(0.6)	501
유아	3.8(0.4)	3.7(0.5)	3.7(0.5)	3.6(0.5)	3.7(0.5)	3.7(0.5)	3.6(0.6)	699
<i>t</i>	1.52	0.98	0.79	0.96	0.87	-0.44	-0.79	

(표 V-3-9 계속)

구분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 공원	어린이 도서관	장난감 도서관	영유아 체험 놀이터	어린이 박물관	어린이 미술관	사례수
	M(SD)	M(SD)	M(SD)	M(SD)	M(SD)	M(SD)	M(SD)	
월 가구소득								
250만원 미만	3.9(0.4)	3.8(0.4)	3.8(0.5)	3.8(0.4) ^b	3.8(0.4)	3.8(0.4)	3.7(0.5)	134
250~350만원 미만	3.8(0.4)	3.7(0.5)	3.7(0.5)	3.6(0.5) ^a	3.8(0.5)	3.7(0.5)	3.6(0.6)	360
350~450만원 미만	3.7(0.4)	3.7(0.5)	3.7(0.5)	3.6(0.5) ^a	3.7(0.5)	3.7(0.5)	3.6(0.6)	291
450~550만원 미만	3.8(0.5)	3.7(0.5)	3.7(0.5)	3.6(0.5) ^a	3.7(0.5)	3.6(0.5)	3.5(0.6)	197
550만원 이상	3.8(0.4)	3.7(0.5)	3.8(0.4)	3.6(0.6) ^a	3.7(0.5)	3.6(0.6)	3.6(0.6)	218
<i>F</i>	1.67	2.32	1.32	4.93***	2.7*	2.1	2.68*	
				a<b				
모 고용상태								
취업모	3.8(0.4)	3.7(0.5)	3.7(0.5)	3.6(0.6)	3.7(0.5)	3.6(0.6)	3.6(0.6)	360
비취업모	3.8(0.4)	3.7(0.5)	3.7(0.5)	3.7(0.5)	3.7(0.5)	3.7(0.5)	3.6(0.6)	840
<i>t</i>	-0.12	-0.01	-0.52	-1.24	-0.95	-1.8	-1.36	

주: 4점 만점 척도의 평균을 제시함. a, b집단 간 차이가 있음.

* $p < .05$, ** $p < .01$, *** $p < .001$

평가결과에 따라서는 어린이 놀이시설과 장난감 도서관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상위지역이 하위지역보다 문화인프라에 대해 느끼는 중요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지역에 따라서는 장난감 도서관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타났는데, 사후검증을 통해 집단 평균 차이를 확인한 결과 대도시-상위 지역과 군지역-하위 지역이 대도시-하위 지역보다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 공원, 어린이 도서관의 중요도가 유의미하게 높았고 대도시-상위지역이 대도시-하위 지역보다 영유아 체험 놀이터와 어린이 박물관, 과학관의 중요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월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장난감 도서관, 영유아 체험 놀이터, 어린이 미술관에 대해서 중요도 차이가 나타났는데, 사후검증을 통해 집단 평균 차이를 확인한 결과 250만원 미만이 나머지 집단보다 장난감 도서관에 대해 느끼는 중요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자녀연령과 모 고용상태에 따른 통계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거주 지역이 '아이 키우기 좋은 육아환경'이 되기 위해 보건·의료 서비스 부문에서 중요한 항목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소아청소년과 병의원, 종합병원, 서비스 인력 모두 3.8점, 보건소 3.7점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정도가 높았다.

〈표 V-3-10〉 아이 키우기 좋은 육아환경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중요도

단위: 점, 명

구분	보건소	소아청소년과, 병의원	종합병원	서비스 인력	사례수
	M(SD)	M(SD)	M(SD)	M(SD)	
전체	3.7(0.5)	3.8(0.4)	3.8(0.5)	3.8(0.4)	1,200
평가결과					
상위지역	3.7(0.5)	3.8(0.4)	3.8(0.4)	3.8(0.4)	600
하위지역	3.7(0.5)	3.8(0.5)	3.7(0.5)	3.7(0.5)	600
<i>t</i>	1.26	3.05**	3.3***	4.07***	
지역구분					
대도시-상위	3.7(0.5)	3.8(0.4) ^b	3.8(0.4) ^b	3.9(0.4) ^b	200
대도시-하위	3.7(0.5)	3.8(0.5)	3.8(0.5)	3.8(0.5)	200
중소도시-상위	3.7(0.5)	3.8(0.4)	3.8(0.4)	3.8(0.4)	200
중소도시-하위	3.6(0.6) ^a	3.7(0.5) ^a	3.7(0.5) ^a	3.7(0.5) ^a	200
군지역- 상위	3.8(0.4) ^b	3.9(0.4) ^b	3.8(0.4) ^b	3.8(0.4) ^b	200
군지역- 하위	3.8(0.5)	3.8(0.4)	3.8(0.4)	3.8(0.4)	200
<i>F</i>	3.74** a<b	4.6*** a<b	4.5*** a<b	5.09*** a<b	
자녀연령					
영아	3.7(0.5)	3.8(0.4)	3.8(0.5)	3.8(0.4)	501
유아	3.7(0.5)	3.8(0.4)	3.8(0.5)	3.8(0.4)	699
<i>t</i>	-1.13	-0.6	0.41	-0.16	
월 가구소득					
250만원 미만	3.8(0.4) ^b	3.9(0.4)	3.8(0.4)	3.8(0.4)	134
250~350만원 미만	3.7(0.5)	3.8(0.4)	3.8(0.5)	3.8(0.5)	360
350~450만원 미만	3.7(0.5)	3.8(0.4)	3.8(0.4)	3.8(0.4)	291
450~550만원 미만	3.7(0.5)	3.8(0.4)	3.8(0.4)	3.8(0.4)	197
550만원 이상	3.6(0.6) ^a	3.8(0.5)	3.7(0.5)	3.8(0.4)	218
<i>F</i>	2.82* a<b	1.07	1.86	0.14	
모 고용상태					
취업모	3.7(0.5)	3.8(0.4)	3.8(0.5)	3.8(0.5)	360
비취업모	3.7(0.5)	3.8(0.4)	3.8(0.4)	3.8(0.4)	840
<i>t</i>	-1.15	0.26	-0.66	0.13	

주: 4점 만점 척도의 평균을 제시함. a, b집단 간 차이가 있음.

* $p < .05$, ** $p < .01$, *** $p < .001$

평가결과에 따라서는 보건소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차이가 났다. 지역에 따라서는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타났는데, 사후검증을 통해 집단 평균 차이를 확인한 결과 대도시-상위 지역과 군지역-상위 지역이 중소도시-하위 지역보다 보건·의료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월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보건소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타났고, 사후검증을 통해 집단 평균 차이를 확인한 결과 250만원 미만은 550만원 이상보다 보건소의 중요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3-11〉 아이 키우기 좋은 육아환경을 위한 안전관리·보호의 중요도

단위: 점, 명

구분	보행자 전용도로의 면적	낮은 영유아 교통사고 발생률	안전 체험 교육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보호기관 학대피해 아동쉼터	파출소	사례수
	M(SD)	M(SD)	M(SD)	M(SD)	M(SD)	M(SD)	
전체	3.7(0.5)	3.8(0.4)	3.7(0.5)	3.8(0.4)	3.7(0.5)	3.7(0.5)	1,200
평가결과							
상위지역	3.8(0.5)	3.8(0.4)	3.7(0.5)	3.8(0.4)	3.8(0.5)	3.8(0.4)	600
하위지역	3.7(0.5)	3.8(0.5)	3.7(0.5)	3.7(0.5)	3.6(0.5)	3.6(0.5)	600
<i>t</i>	4.28***	2.48*	2.01*	2.96**	4.61***	5.38***	
지역구분							
대도시-상위	3.9(0.4) ^b	3.9(0.4)	3.8(0.4) ^b	3.9(0.3) ^b	3.7(0.5)	3.8(0.5) ^b	200
대도시-하위	3.7(0.5)	3.8(0.5)	3.8(0.4) ^b	3.7(0.5)	3.7(0.5)	3.7(0.5) ^b	200
중소도시-상위	3.8(0.5)	3.8(0.4)	3.7(0.5)	3.8(0.5)	3.8(0.5) ^b	3.8(0.4) ^b	200
중소도시-하위	3.5(0.5) ^a	3.7(0.5)	3.6(0.5) ^a	3.7(0.4)	3.6(0.5) ^a	3.5(0.5) ^a	200
군지역- 상위	3.7(0.5)	3.8(0.4)	3.7(0.5)	3.8(0.4)	3.8(0.4) ^b	3.8(0.4) ^b	200
군지역- 하위	3.8(0.4)	3.8(0.4)	3.7(0.5)	3.7(0.5) ^a	3.7(0.5)	3.7(0.5) ^b	200
<i>F</i>	15.26*** a<b	2.62*	5.85*** a<b	2.78* a<b	5.03*** a<b	13.26*** a<b	
자녀연령							
영아	3.7(0.5)	3.8(0.4)	3.7(0.5)	3.7(0.5)	3.7(0.5)	3.7(0.5)	501
유아	3.7(0.5)	3.8(0.4)	3.7(0.5)	3.8(0.4)	3.7(0.5)	3.7(0.5)	699
<i>t</i>	-0.15	-0.03	-0.22	-1.18	0.31	-0.17	
월 가구소득							
250만원 미만	3.7(0.5)	3.8(0.4)	3.7(0.5)	3.8(0.4)	3.7(0.5)	3.7(0.5)	134
250~350만원 미만	3.7(0.5)	3.8(0.5)	3.7(0.5)	3.7(0.5)	3.7(0.5)	3.7(0.4)	360
350~450만원 미만	3.7(0.4)	3.8(0.4)	3.7(0.5)	3.7(0.5)	3.7(0.5)	3.7(0.5)	291
450~550만원 미만	3.7(0.5)	3.8(0.4)	3.7(0.5)	3.8(0.4)	3.7(0.5)	3.7(0.5)	197
550만원 이상	3.7(0.5)	3.8(0.4)	3.7(0.5)	3.8(0.4)	3.7(0.5)	3.7(0.5)	218
<i>F</i>	0.89	0.64	0.22	0.98	0.61	0.29	
모 고용상태							
취업모	3.7(0.5)	3.8(0.5)	3.7(0.5)	3.8(0.5)	3.7(0.5)	3.7(0.5)	360
비취업모	3.7(0.5)	3.8(0.4)	3.7(0.5)	3.8(0.4)	3.7(0.5)	3.7(0.5)	840
<i>t</i>	-0.44	-1.36	-0.13	-0.7	-0.79	-0.92	

주: 4점 만점 척도의 평균을 제시함. a, b집단 간 차이가 있음.

* $p < .05$, ** $p < .01$, *** $p < .001$

거주 지역이 '아이 키우기 좋은 육아환경'이 되기 위해 영유아 안전관리·보호 부문에서 중요한 항목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지역의 낮은 영유아 교통사고 발생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의 중요도는 3.8점, '안전하게 보행 가능한 보행자 전용도로의 면적 소방', '교통 등의 안전 체험 교육',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 쉼터',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파출소'는 3.7점으로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과결과에 따라서는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타났는데 대체적으로 상위지역이 하위지역보다 영유아 안전관리·보호에 대하여 느끼는 중요도가 높았다. 지역에 따라서는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타났고, 사후검증을 통해 집단 평균 차이를 확인한 결과 대도시-상위 지역이 중소도시-하위 지역보다 '안전하게 보행 가능한 보행자 전용도로의 면적'과 '소방, 교통 등의 안전 체험 교육'의 중요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또한 대도시-상위 지역이 군지역-하위 지역보다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중요하게 여겼으며, 중소도시-상위 지역과 군지역-상위 지역이 중소도시-하위 지역보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 쉼터의 중요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파출소'에 대해서는 중소도시-하위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3-12〉 아이 키우기 좋은 육아환경을 위해 가장 중요한 기관 및 서비스

구분	단위: 점	
	구분	평균
교육·보육 영역		
(민간, 국공립 포함)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치원		3.8
(민간, 국공립 포함)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3.9
국공립 유치원		3.8
국공립 어린이집		3.8
자격 기준이 높은 질 높은 교사		3.8
문화 인프라 영역		
자녀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		3.8
보건·의료 영역		
영유아 건강검진이 가능한 소아청소년과, 병의원		3.8
응급실 이용이 가능한 종합병원		3.8
충분한 보건·의료 서비스 인력		3.8
안전관리·보호 영역		
지역의 낮은 영유아 교통사고 발생률		3.8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3.8

거주 지역이 ‘아이 키우기 좋은 육아환경’이 되기 위해 영역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한 항목을 정리해 보면 <표 V-3-12>와 같다. 가장 많은 항목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영역은 교육·보육 영역으로 전체 6개 항목 중 5개 항목이 3.8점 이상으로 중요도가 높았으며, 특히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 3.9점으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였다. 이외의 보건·의료 영역도 4개 항목 중 3개 항목이 모두 3.8점으로 중요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정책에 대한 개선 요구

거주하는 지역이 자녀를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개선되기 위해 필요한 노력에 대해 알아본 결과, ‘육아를 위해 필요한 인프라의 접근성 확보’가 3.7점으로 필요도가 가장 높았다.

평가결과에 따라서는 ‘우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지원’, ‘육아를 위해 필요한 인프라의 접근성 확보’, ‘지역 내 일·가정양립을 지원하는 육아친화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에 대해서 상위지역이 하위지역보다 필요도가 높았다.

지역구분에 따라서는 일부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타났는데, 사후검증을 통해 집단 평균 차이를 확인한 결과 대도시-상위 지역이 대도시-하위 지역보다 ‘우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지원’, ‘육아를 위해 필요한 인프라의 접근성 확보’, ‘지역의 이용이 가능한 육아지원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 홍보’, ‘지역 내 일·가정양립을 지원하는 육아친화기업육성을 위한 지원’의 필요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연령에 따라서는 ‘가정의 육아를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에 대해서만 차이가 나타났고, 유아가 영아보다 필요도가 높았다. 월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수요자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인프라간 중복된 서비스 점검’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V-3-13> 거주 지역의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및 지원

구분	단위: 점, 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사례수
전체	3.6(0.6)	3.7(0.5)	3.6(0.6)	3.6(0.5)	3.6(0.6)	3.6(0.6)	3.6(0.6)	3.6(0.6)	3.5(0.6)	3.6(0.5)	1,200
평가결과											
상위지역	3.7(0.5)	3.7(0.5)	3.6(0.6)	3.7(0.6)	3.7(0.6)	3.6(0.6)	3.6(0.6)	3.7(0.6)	3.5(0.6)	3.6(0.6)	600
하위지역	3.6(0.6)	3.6(0.5)	3.6(0.6)	3.6(0.5)	3.6(0.5)	3.6(0.6)	3.6(0.5)	3.6(0.6)	3.5(0.6)	3.5(0.5)	600
t	3.51***	2.82**	-0.19	1.29	1.4	1.05	0.56	1.61	-0.3	2.48*	

(표 V-3-13 계속)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사례수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지역구분											
대도시-상위	37(05) ^b	38(05) ^b	36(06)	37(05) ^b	37(06)	36(06)	36(06)	37(05)	36(06)	37(05) ^b	200
대도시-하위	35(06) ^a	36(06) ^a	35(06)	36(05) ^a	35(06)	35(06)	35(06)	36(06)	34(06)	35(06) ^a	200
중소도시-상위	37(06)	37(05)	37(06)	37(05)	37(05)	36(06)	36(06)	37(06)	35(06)	37(06) ^b	200
중소도시-하위	35(06)	36(05)	36(06)	36(05)	36(06)	37(05)	37(05)	36(06)	36(05)	36(05)	200
군지역- 상위	37(05)	37(05)	35(06)	35(06) ^a	36(06)	37(06)	36(06)	36(05)	35(06)	35(05)	200
군지역- 하위	37(05)	37(05)	37(06)	37(05)	37(05)	36(06)	37(05)	37(05)	36(05)	36(05)	200
<i>F</i>	5.67 ^{***}	3.24 ^{**}	3.47 ^{**}	4.21 ^{***}	4.71 ^{***}	1.92	2.01	2.97 [*]	2.59 [*]	5.42 ^{***}	
	a<b	a<b		a<b						a<b	
자녀연령											
영아	36(06)	37(05)	36(06)	36(05)	36(06)	36(06)	36(06)	36(06)	35(06)	36(06)	501
유아	36(05)	37(05)	36(06)	36(05)	37(05)	36(06)	36(06)	36(05)	35(06)	36(05)	699
<i>t</i>	-0.94	-1.65	-1.04	-0.76	-2.41 [*]	-0.54	-0.12	-0.29	-0.81	-0.5	
월 가구소득											
250만원 미만	37(05)	38(05)	37(06)	37(06)	37(06)	37(06)	37(05)	38(05)	36(06)	37(06)	134
250~350만원 미만	36(06)	36(06)	36(06)	36(06)	36(06)	36(06)	36(06)	36(06)	35(06)	36(05)	360
350~450만원 미만	36(05)	37(05)	35(06)	36(05)	36(06)	36(06)	36(06)	36(05)	35(06)	36(05)	291
450~550만원 미만	36(05)	37(05)	35(06)	36(05)	36(05)	36(05)	36(05)	37(05)	35(06)	36(05)	197
550만원 이상	36(06)	37(05)	36(06)	37(05)	36(06)	36(06)	36(05)	36(06)	35(06)	36(06)	218
<i>F</i>	0.77	1.97	2.92 [*]	2.01	0.53	0.92	0.92	2.11	1.52	0.67	
모 고용상태											
취업모	36(05)	37(05)	36(06)	37(05)	36(06)	36(06)	36(06)	37(05)	35(06)	36(05)	360
비취업모	36(06)	37(05)	36(06)	36(05)	36(06)	36(06)	36(06)	36(06)	35(06)	36(05)	840
<i>t</i>	-0.31	0.2	-0.29	0.92	-1.1	-0.4	0.46	0.58	-0.32	0.89	

주: 4점 만점 척도의 평균을 제시함. a, b집단 간 차이가 있음.

- ① 우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지원
- ② 육아를 위해 필요한 인프라의 접근성 확보
- ③ 수요자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인프라간 중복된 서비스 점검
- ④ 지역의 이용이 가능한 육아지원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 홍보
- ⑤ 가정의 육아를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 ⑥ 지역 별 차이가 없이 동등하게 이용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육아인프라 정책
- ⑦ 지역마다 필수적인 육아인프라 설치기준 마련
- ⑧ 출산부터 유아기까지 한 번의 등록을 통해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받는 육아 인프라 정책
- ⑨ 지역 내 주민들의 육아를 위한 공동체 의식 개선
- ⑩ 지역 내 일·가정양립을 지원하는 육아친화기업육성을 위한 지원

* $p < .05$, ** $p < .01$, *** $p < .001$

지역 특성을 고려한 육아지원정책의 수립 주체에 대해 살펴본 결과 현행과 같은 중앙정부 관련 부처 담당(31.1%), 각 업무를 총괄하는 육아지원 관련 기구

가 담당(30.3%), 각 지방자치단체가 담당(29.0%)등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군지역-하위 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읍, 면, 동사무소 등 더 작은 단위로 정책이 수립되길 원하였다.

〈표 V-3-14〉 육아지원정책 수립의 적합한 주체

단위: %(명)

구분	중앙정부 관련 부처	총괄 육아지원 관련 기구	지방자치 단체	읍, 면, 동사무소	기타	계(수)
전체	31.1	30.3	29.0	9.2	0.4	100.0(1200)
평가결과						
상위지역	30.0	36.3	26.0	7.0	0.7	100.0(600)
하위지역	32.2	24.3	32.0	11.3	0.2	100.0(600)
지역구분						
대도시-상위	23.0	46.0	22.0	9.0	0.0	100.0(200)
대도시-하위	33.0	22.5	27.0	17.0	0.5	100.0(200)
중소도시-상위	26.5	35.5	33.5	4.0	0.5	100.0(200)
중소도시-하위	37.0	29.5	29.5	4.0	0.0	100.0(200)
군지역- 상위	40.5	27.5	22.5	8.0	1.5	100.0(200)
군지역- 하위	26.5	21.0	39.5	13.0	0.0	100.0(200)
자녀연령						
영아	35.5	26.5	27.3	9.8	0.8	100.0(501)
유아	27.9	33.0	30.2	8.7	0.1	100.0(699)
월 가구소득						
250만원 미만	33.6	26.1	29.9	9.7	0.7	100.0(134)
250~350만원 미만	33.3	30.8	28.3	7.2	0.3	100.0(360)
350~450만원 미만	28.2	29.9	29.9	11.7	0.3	100.0(291)
450~550만원 미만	29.9	26.4	31.0	12.2	0.5	100.0(197)
550만원 이상	30.7	36.2	26.6	6.0	0.5	100.0(218)
모 고용상태						
취업모	31.9	33.1	24.4	10.0	0.6	100.0(360)
비취업모	30.7	29.2	31.0	8.8	0.4	100.0(840)

주: 각 셀별 기대치가 통계적 검정에 적절하지 않아 교차분석을 실시하지 않음

4. 육아지원환경에 따른 후속 출산 계획

향후 자녀 출산 의향에 대해 살펴본 결과 출산 의향이 전혀 없는 경우가 60.8%로 가장 많았으며, 의향이 있는 경우(대체로 그렇다+매우그렇다)는 20.6% 정도였다. 평가결과, 지역, 자녀 연령, 월 가구소득, 자녀 수에 따른 차이가 나타

났으며, 평가결과 하위 지역, 중소도시, 월 가구소득이 적은 경우에 출산의향이 더 많았고 자녀가 영아이거나 자녀수가 적을수록 향후 출산 의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4-1〉 향후 자녀 출산 의향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비교적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X ² (df)
전체	60.8	18.7	13.8	6.8	1000(1200)	
평가결과						
상위지역	64.8	16.0	14.5	4.7	100.0(600)	16.6(3)***
하위지역	56.7	21.3	13.0	9.0	100.0(600)	
지역구분						
대도시-상위	69.5	15.5	9.5	5.5	100.0(200)	52.45(15)***
대도시-하위	52.0	29.0	12.5	6.5	100.0(200)	
중소도시-상위	60.5	14.5	21.0	4.0	100.0(200)	
중소도시-하위	64.5	11.5	13.0	11.0	100.0(200)	
군지역- 상위	64.5	18.0	13.0	4.5	100.0(200)	
군지역- 하위	53.5	23.5	13.5	9.5	100.0(200)	
자녀연령						
영아	42.3	21.2	24.0	12.6	100.0(501)	157.57(3)***
유아	74.0	16.9	6.4	2.7	100.0(699)	
월 가구소득						
250만원 미만	62.7	13.4	16.4	7.5	100.0(134)	22.709(12)*
250~350만원 미만	55.6	19.2	18.1	7.2	100.0(360)	
350~450만원 미만	58.1	21.6	14.1	6.2	100.0(291)	
450~550만원 미만	65.0	18.8	10.7	5.6	100.0(197)	
550만원 이상	67.9	17.0	7.3	7.8	100.0(218)	
모 고용상태						
취업모	66.1	15.6	13.3	5.0	100.0(360)	7.694(3)
비취업모	58.5	20.0	13.9	7.6	100.0(840)	
자녀수						
1명(외동아)	29.7	22.3	31.1	16.9	100.0(421)	358.563(6)***
2명	74.3	18.7	5.4	1.6	100.0(611)	
3명 이상	89.3	9.5	0.6	0.6	100.0(168)	

* p < .05, *** p < .001

출산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본 결과 ‘자녀에게 형제를 만들어 주고 싶어서’가 78.9%로 가장 많았고, ‘본인 또는 가족이 원해서’가 19.0%로 두 번째로 많았다. ‘국가의 비용지원으로 양육부담이 적어서’는 응답자가 없었다.

〈표 V-4-2〉 출산 계획의 이유 1순위

단위: %(명)

구분	형제를 만들어 주고 싶어서	경제적 안정으로 시기가 적절함	국가의 비용 지원으로 양육 부담이 줄어서	본인 또는 가족이 원해서	기타	계(수)
전체	78.9	1.6	0.0	19.0	0.4	100.0(247)
평가결과						
상위지역	85.2	0.9	0.0	13.0	0.9	100.0(115)
하위지역	73.5	2.3	0.0	24.2	0.0	100.0(132)
지역구분						
대도시-상위	90.0	0.0	0.0	10.0	0.0	100.0(30)
대도시-하위	63.2	7.9	0.0	28.9	0.0	100.0(38)
중소도시-상위	88.0	0.0	0.0	12.0	0.0	100.0(50)
중소도시-하위	85.4	0.0	0.0	14.6	0.0	100.0(48)
군지역- 상위	77.1	2.9	0.0	17.1	2.9	100.0(35)
군지역- 하위	69.6	0.0	0.0	30.4	0.0	100.0(46)
자녀연령						
영아	83.1	2.2	0.0	14.2	0.5	100.0(183)
유아	67.2	0.0	0.0	32.8	0.0	100.0(64)
월 가구소득						
250만원 미만	81.3	0.0	0.0	18.8	0.0	100.0(32)
250~350만원 미만	75.8	2.2	0.0	20.9	1.1	100.0(91)
350~450만원 미만	84.7	1.7	0.0	13.6	0.0	100.0(59)
450~550만원 미만	71.9	3.1	0.0	25.0	0.0	100.0(32)
550만원 이상	81.8	0.0	0.0	18.2	0.0	100.0(33)
모 고용상태						
취업모	77.3	3.0	0.0	19.7	0.0	100.0(66)
비취업모	79.6	1.1	0.0	18.8	0.6	100.0(181)
자녀수						
1명(외동아)	85.1	2.0	0.0	12.4	0.5	100.0(202)
2명	51.2	0.0	0.0	48.8	0.0	100.0(43)
3명 이상	50.0	0.0	0.0	50.0	0.0	100.0(2)

주: 각 셀별 기대치가 통계적 검정에 적절하지 않아 교차분석을 실시하지 않음

출산 계획이 없는 경우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본 결과 '현재 자녀수로 만족해서'가 46.6%로 가장 많았고, '양육비용이 부담스러워서'가 24.1%, '아이 키우는데 주변의 도움을 받기 어려워서' 15.7% 순이었다. 지역과 자녀연령, 월 가구소득, 모 고용상태, 자녀수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는데, 대도시-상위와 중소도시-상위 지역은 주변의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의견이, 대도시-하위와 군지역-하위 지역은 양육비용이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많았고, 군지역-하위 지역에서는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때문도 상대적으로 많았다. 월 가구소득이 250만원 미만인 경우는 양육비용의 부담이 42.2%로 많았고, 550만원 이상인 경우와 취업모인 경우에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자녀수가 2명 이상인 경우 현재 자녀수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이었으며 1명인 경우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4-3〉 출산 계획이 없는 이유 1순위

단위: %(명)

구분	주변의 도움 받기 어려움	양육비용 부담	현재 자녀수 만족함	연령 및 건강상의 이유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계(수)	X ² (df)
전체	15.7	24.1	46.6	6.2	7.3	100.0(953)	
평가결과							
상위지역	19.0	22.7	44.3	6.8	7.2	100.0(485)	9.113(4)
하위지역	12.4	25.6	48.9	5.6	7.5	100.0(468)	
지역구분							
대도시-상위	21.2	18.8	45.3	7.6	7.1	100.0(170)	33.971(20)*
대도시-하위	12.3	27.8	46.3	6.2	7.4	100.0(162)	
중소도시-상위	23.3	24.0	35.3	8.7	8.7	100.0(150)	
중소도시-하위	15.1	21.1	54.6	4.6	4.6	100.0(152)	
군지역- 상위	12.7	25.5	51.5	4.2	6.1	100.0(165)	
군지역- 하위	9.7	27.9	46.1	5.8	10.4	100.0(154)	
자녀연령							
영아	19.5	25.2	38.4	7.2	9.7	100.0(318)	16.006(4)**
유아	13.9	23.6	50.7	5.7	6.1	100.0(635)	
월 가구소득							
250만원 미만	6.9	42.2	39.2	5.9	5.9	100.0(102)	50.177(16)***
250~350만원 미만	11.9	21.9	55.4	5.9	4.8	100.0(269)	
350~450만원 미만	17.7	24.6	47.0	4.3	6.5	100.0(232)	
450~550만원 미만	21.8	22.4	38.2	9.1	8.5	100.0(165)	
550만원 이상	18.4	18.4	44.9	6.5	11.9	100.0(185)	
모 고용상태							
취업모	18.4	21.1	40.1	4.1	16.3	100.0(294)	57.046(4)***
비취업모	14.6	25.5	49.5	7.1	3.3	100.0(659)	
자녀수							
1명(외동아)	27.4	28.3	24.7	8.2	11.4	100.0(219)	76.532(8)***
2명	14.1	23.8	50.2	5.3	6.7	100.0(568)	
3명 이상	6.0	19.9	63.3	6.6	4.2	100.0(166)	

* $p < .05$, ** $p < .01$, *** $p < .001$

향후 출산결정에 육아지원환경이 어느 정도 중요한가에 대해 살펴본 결과 부모는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긴급한 경우 자녀를 맡길 만한 돌봄지원 서비스’, 거주하는 지역의 의료서비스’를 3.8점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평가결과와 지역, 월 가구소득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는데, 문화시설, 안전·치안, 의료 서비스, 공동체 의식 개선, 가족 친화적 기업 등에 대해서 상위 지역이 더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지역과 중소도시-상위 지역이 중소도시-하위 지역 보다 육아지원환경의 중요도를 유의미하게 높게 인식했다. 월 가구소득별로는 250만원 미만 가구가 550만원 이상 가구보다 돌봄지원과 문화시설, 의료서비스, 공동체 의식 개선 등에 대한 중요도를 높게 인식했다.

〈표 V-4-4〉 향후 출산결정시 육아지원환경의 중요도

구분	단위: 점, 명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전체	3.8(0.5)	3.6(0.6)	3.8(0.5)	3.6(0.6)	3.7(0.5)	3.8(0.5)	3.6(0.6)	3.5(0.6)	1,200
평가결과									
상위지역	3.8(0.4)	3.7(0.6)	3.8(0.5)	3.7(0.6)	3.8(0.5)	3.8(0.4)	3.6(0.6)	3.6(0.6)	600
하위지역	3.8(0.5)	3.6(0.6)	3.7(0.5)	3.5(0.6)	3.6(0.6)	3.7(0.5)	3.5(0.6)	3.5(0.6)	600
<i>t</i>	2.58*	1.07	0.63	5.99***	5.89***	4.9***	3.04**	4.23***	
지역구분									
대도시-상위	3.9(0.4)	3.6(0.7)	3.7(0.5)	3.7(0.5) ^b	3.9(0.4) ^b	3.9(0.4) ^b	3.6(0.6)	3.6(0.6)	200
대도시-하위	3.8(0.4)	3.7(0.6)	3.8(0.5)	3.6(0.5)	3.8(0.5) ^b	3.8(0.4) ^b	3.6(0.6)	3.5(0.6)	200
중소도시-상위	3.8(0.5)	3.7(0.6) ^b	3.7(0.6)	3.6(0.6)	3.8(0.5) ^b	3.8(0.5)	3.6(0.6) ^b	3.7(0.6)	200
중소도시-하위	3.7(0.5)	3.5(0.5) ^a	3.7(0.6)	3.4(0.7) ^a	3.5(0.6) ^a	3.6(0.6) ^a	3.4(0.6) ^a	3.5(0.6) ^b	200
군지역- 상위	3.8(0.4)	3.7(0.5)	3.8(0.4)	3.7(0.5) ^b	3.7(0.5)	3.8(0.4)	3.6(0.5) ^b	3.6(0.6)	200
군지역- 하위	3.7(0.5)	3.7(0.6)	3.8(0.4)	3.5(0.7)	3.6(0.6)	3.6(0.5)	3.5(0.6)	3.4(0.7) ^a	200
<i>F</i>	2.19	4.2***	1.66	10.7***	15.43***	9.46***	3.21**	4.21***	
		a<b		a<b	a<b	a<b	a<b	a<b	
자녀연령									
영아	3.8(0.4)	3.6(0.6)	3.7(0.5)	3.6(0.6)	3.7(0.5)	3.8(0.5)	3.5(0.6)	3.6(0.6)	501
유아	3.8(0.5)	3.6(0.6)	3.8(0.5)	3.6(0.6)	3.7(0.5)	3.7(0.5)	3.6(0.6)	3.5(0.6)	699
<i>t</i>	0.84	0.06	-0.58	-0.24	0.23	0.99	-0.58	0.22	
월 가구소득									
250만원 미만	3.9(0.4)	3.7(0.5)	3.9(0.3) ^b	3.7(0.5) ^b	3.7(0.5)	3.9(0.3) ^b	3.7(0.5) ^b	3.7(0.6)	134
250~350만원 미만	3.7(0.5)	3.7(0.5)	3.8(0.5)	3.6(0.6)	3.7(0.6)	3.7(0.5) ^a	3.6(0.6)	3.6(0.6)	360
350~450만원 미만	3.8(0.4)	3.7(0.5)	3.7(0.5) ^a	3.6(0.6)	3.7(0.5)	3.8(0.4)	3.6(0.6)	3.5(0.6)	291
450~550만원 미만	3.8(0.5)	3.6(0.7)	3.7(0.6) ^a	3.6(0.7)	3.7(0.6)	3.7(0.5)	3.5(0.7)	3.5(0.7)	197
550만원 이상	3.8(0.5)	3.6(0.6)	3.7(0.6) ^a	3.5(0.6) ^a	3.7(0.5)	3.7(0.5) ^a	3.5(0.7) ^a	3.5(0.7)	218

(표 V-44 계속)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사례수
	M(SD)								
F	2.52*	2.58*	4.27**	3.04*	1.33	3.74**	2.51*	1.78	
			a<b	a<b		a<b	a<b		
모 고용상태									
취업모	3.8(0.4)	3.6(0.6)	3.8(0.5)	3.6(0.6)	3.7(0.5)	3.7(0.5)	3.5(0.6)	3.5(0.6)	360
비취업모	3.8(0.5)	3.7(0.6)	3.7(0.5)	3.6(0.6)	3.7(0.5)	3.8(0.5)	3.6(0.6)	3.6(0.6)	840
t	1.08	-1.67	0.89	-0.92	-0.86	-1.24	-1.84	-0.75	

주: 4점 만점 척도의 평균을 제시함. a, b 집단 간 차이가 있음.

- ①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 ② 자녀 양육·교육을 지원하는 육아지원서비스기관(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 ③ 긴급한 경우 자녀를 맡길 만한 (맞춤형)돌봄지원 서비스(시간제 보육 아이돌봄 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 ④ 자녀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시설(공원, 놀이터, 도서관, 미술관 등)
- ⑤ 거주하는 지역의 안전·치안 관리
- ⑥ 거주하는 지역의 의료 서비스
- ⑦ 지역사회 육아를 위한 공동체 의식 개선
- ⑧ 육아를 지원하는 가족 친화적 기업

* $p < .05$, ** $p < .01$, *** $p < .001$

5. 소결

가. 이용 기관 및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1,20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육아지원기관과 (맞춤형)돌봄지원 서비스는 미이용 비율이 각각 81.9%, 81.6%로 전반적인 이용률이 낮아 이용자 중심으로 조사한 만족도 평가에 유의해야 하므로 이용 경험만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육아지원 기관은 각 지역별에서 하위지역보다 상위지역의 이용비율이 더 높았으며, (맞춤형)돌봄지원 서비스는 미이용자의 절반정도가 이용 필요가 없다고 응답하여 수요가 많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용경험이 비교적 많은 교육·보육 기관, 문화인프라, 보건·의료 서비스 각 기관의 미이용 비율은 교육·보육 기관 19.6%, 문화 인프라 13.3%, 보건·의료 서비스 2.1% 수준이었으며, 안전관리·보호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미이용 비율을 별도 조사하지 않았다. 이를 중심으로 지역별 만족도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도시 상위 지역은 교육·보육 기관 운영시간 만족도가 높았다. 문화인프라 영역에서는 어린이 놀이시설 및 어린이도서관 교통에 대한 만족도 낮으나

담당인력 전문성 만족도가 높았고 박물관(미술관)의 질적우수성 만족도가 높았다. 보건·의료 영역에서는 보건소 편리성, 질적우수성, 이용비용 만족도 높았고 병의원은 교통과 질적우수성 높으나 대기시간 만족도가 낮았다. 안전관리·보호 영역에서는 전반의 만족도가 타지역에 비해 많이 낮았다.

둘째, 대도시 하위 지역은 교육·보육 기관영역에서 거리, 이용비용 만족도가 낮았다. 문화인프라 영역에서는 장난감 도서관의 교통과 질적우수성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 보건·의료 영역에서는 병의원 편리성, 질적우수성이 높았다.

셋째, 중소도시 상위지역은 다양한 교육·보육영역에서 다양한 서비스, 입소/입학 대기시간, 질적우수성 전반 만족도가 낮으며, 문화인프라영역은 장난감도서관의 질적우수성 만족도가 높았다. 병의원은 교통, 질적우수성 높으나 대기시간 만족이 낮았다.

넷째, 중소도시 하위지역은 교육·보육 기관 거리, 프로그램, 이용비용 등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문화인프라 영역에서는 어린이 놀이시설 교통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어린이도서관 교통에 대한 만족도는 높으나 질적우수성 만족도가 낮았다. 보건소 및 종합병원의 질적우수성 만족도가 낮았다.

다섯째, 군지역 상위지역은 교육·보육 기관 거리 만족도가 낮았으나 다양한 서비스 이용과 비용 만족도가 높았다. 문화 인프라영역에서는 박물관(미술관)의 이용비용 만족도가 높았다. 보건소의 질적우수성과 병의원 및 종합병원 편리성 질적우수성 만족도가 낮았다.

여섯째, 군지역 하위지역은 교육·보육 기관 입소/입학 대기시간, 교직원 전문성 만족도가 높았다. 문화인프라 어린이 놀이시설 놀이기구 종류에 대한 만족도는 낮았고 보건소의 교통, 질적우수성, 이용비용 만족도가 전체적으로 낮았다.

정리하면, 대도시 지역은 질적우수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중소도시 지역은 교통에 대한 만족은 높으나 일부 질적우수성이나 대기시간에 만족도가 낮았으며, 군지역은 비용의 만족도는 높으나 교통과 질적우수성이 낮았다. 특히 안전관리·보호 영역은 두드러지게 대도시 상위지역이 낮았고, 보건·의료영역이 군지역에서 취약한 특징을 보였다.

나. 지역의 육아지원환경 요구 및 개선점

1,200명의 부모에게 지역의 각 영역 서비스에 대한 충분성을 평가하게 한 결과, 대체로 모든 영역에서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교육·보육기관을 제외하고 모

은 영역에서 지역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는데, 대체로 군지역-하위 지역이 중소도시-상위, 대도시-상위 지역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격 영역의 서비스가 일·가정 양립에 도움이 되는지 살펴본 결과 교육·보육 기관의 도움정도를 가장 높게 평가였다. (맞춤형)돌봄지원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지역차가 나타났으며, 대도시 상·하위 지역에서 군지역-상위 지역보다 교육·보육 기관, 보건·의료 서비스, 안전관리·보호 서비스에 대한 충분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현재 거주하는 지역이 자녀 양육 환경에 적합한지 조사한 결과, 약간 적합함(53.4%)과 대체로 적합하지 않음(32.1%)의 응답비율이 높았고, 지역에 따라 대도시-상위지역의 적합도가 다소 낮게 나타난 반면 중소도시-상·하위 지역에서 자녀 양육 환경에 적합하다는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자녀를 양육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라고 평가한 이유로는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 문화 시설이 부족해서'가 33.4%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육아에 대한 정보나 교육 등 서비스 지원이 부족해서' 24.2%, '주변의 병원 등 의료시설이 부족해서' 17.0%, '믿고 맡길 만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부족해서' 13.1%, '주변의 안전과 치안이 걱정돼서' 6.1%, '가정의 상황에 따른 돌봄 서비스가 부족해서' 5.9%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돌보미 등 육아지원 인력 확보'에 대한 어려움 정도가 2.9점으로 가장 높았고, '영유아 교육(보육)기관 (유치원, 어린이집)의 이용'에 대한 어려움 정도가 2.1점으로 가장 낮았다. 지역에 따라서는 중소도시-상위 지역과 군지역-상·하위 지역이 대도시-상위 지역과 중소도시-하위 지역보다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가 높았다.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는 영아가 유아보다 '영유아 교육(보육)기관 (유치원, 어린이집)의 이용'과 '자녀 양육에 대한 지식·정보를 얻는 부모교육 참여'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가 높았으며, 가구소득이 250만원 미만인 경우 '육아관련 정보 교류가 가능한 모임의 참여'와 '지역 내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문화 시설의 이용'에 대해서 자녀 양육을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가 높은 편이었다.

무엇보다, 거주 지역이 '아이 키우기 좋은 육아환경'이 되기 위해, '(민간 국·공립 모두 포함)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의 중요도를 가장 높게 평가했으며, 대도시-상위 지역과 군지역-상위 지역이 중소도시-하위 지역보다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해서는 대도시-상위 지역과 중소도시-상·하위 지역이 군지역-하위 지역보다 중요도가 높

았고, ‘자격 기준이 높은 질 높은 교사’에 대해서는 대도시-상위 지역이 대도시-하위 지역, 중소도시-하위 지역보다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육아지원 서비스 부문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3.7점, 건강가정지원센터 3.6점 순으로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 특히 군지역-상·하위 지역과 중소도시-상위 지역이 대도시-상위 지역보다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였다.

(맞춤형)돌봄지원 서비스 부문에서 중요도를 살펴본 결과 군지역-하위 지역이 대도시-하위 지역보다 ‘부모가 필요한 시간에 이용가능한 시간제 보육 서비스’, ‘맞벌이, 장애, 다자녀 가정 등을 위한 아이돌보미 서비스’, ‘자녀양육 경험 및 정보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동육아 나눔터’,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충분한 인력’에 대해서 느끼는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에 따라서는 250~350만원 미만인 550만원 이상보다 ‘출산부터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돌봄 지원’에 대한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였다.

문화인프라 부문에서 중요도를 살펴본 결과 지역에 따라 대도시-상위 지역과 군지역-하위 지역이 대도시-하위 지역보다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 공원, 어린이 도서관의 중요도가 높았고, 대도시-상위지역이 대도시-하위 지역보다 영유아 체험 놀이터와 어린이 박물관, 과학관의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 서비스 부문에서는 특히 대도시-상위 지역과 군지역-상위 지역이 중소도시-하위 지역보다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였으며, 소아청소년과, 종합병원, 서비스 인력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정도가 높았다. 보건소에 대한 중요도는 군지역-상위에서 높았다. 영유아 안전관리·보호 부문에서 대도시-상위 지역은 중소도시-하위 지역보다 ‘안전하게 보행 가능한 보행자 전용도로의 면적’과 ‘소방, 교통 등의 안전 체험 교육’의 중요도가 높고, 군지역-하위 지역보다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소도시-상위 지역과 군지역-상위 지역은 중소도시-하위 지역보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 쉼터의 중요도를 높았게 보았다.

거주하는 지역의 자녀를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개선 요구로, ‘육아를 위해 필요한 인프라의 접근성 확보’를 가장 많이 요구하였는데, 대도시-상위 지역이 대도시-하위 지역보다 ‘우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지원’, ‘육아를 위해 필요한 인프라의 접근성 확보’, ‘지역의 이용이 가능한 육아지원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 홍보’, ‘지역 내 일·가정양립을 지원하는 육아친화기업육성을 위한 지원’의

필요도가 높았다. 그리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육아지원정책의 수립의 주체에 대해 질문한 결과, 현행과 같은 중앙정부 관련 부처 담당(31.1%), 각 업무를 총괄하는 육아지원 관련 기구가 담당(30.3%), 각 지방자치단체가 담당(29.0%)등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군지역-하위 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읍, 면, 동사무소 등 더 작은 단위로 정책이 수립되길 원하였다.

마지막으로, 향후 자녀 출산 의향에 대해 살펴본 결과 출산 의향이 전혀 없는 경우가 60.8%로 가장 많았는데, 본 연구 대상인 부모의 35.1%만이 외동아를 지니고 있어, 평가결과 하위 지역, 중소도시, 월 가구소득이 적은 경우에 출산의향이 더 많았고 자녀가 영아이거나 자녀수가 적을수록 향후 출산 의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차 보다는 부모의 개인변인이 관련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다만, 향후 출산결정에 있어 육아지원환경의 중요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 부모는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긴급한 경우 자녀를 맡길 만한 (맞춤형)돌봄지원 서비스', 거주하는 지역의 의료서비스'를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지역과 중소도시-상위 지역이 중소도시-하위 지역 보다 육아지원환경의 중요도를 유의미하게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VI. 정책 제언

본 연구는 252개 시·군·구의 자료를 중심으로 수요자 대비 육아지원환경을 평가하고, 상위지역과 하위지역에 거주하는 부모들의 만족도와 요구를 살펴봄으로써 육아지원환경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장에서는 먼저, 육아지원환경의 영역별 공급 수준의 격차를 살펴보고, 공급수준과 부모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탐색함으로써 그에 맞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둘째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육아지원환경 관리를 위해, 중앙차원의 노력과 지방정부차원의 노력으로 구분하여 정책제언을 제시한다.

정책 제언	❖ 육아지원환경의 영역별 공급 개선 방안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h style="background-color: #1a3d4d; color: white;">공급수준과 만족도 고려한 육아지원환경 공급계획</th> <th style="background-color: #1a3d4d; color: white;">육아지원환경 영역에 따른 정책 개선 방안</th>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e6f2f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지원환경의 영역별 공급수준의 지역 간 격차 ▪육아지원환경 영역별 수요자 만족도 </td> <td style="background-color: #e6f2ff;">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립유치원 및 국공립 어린이집 공급 계획 실행 ▪육아지원센터의 공급 확대안 마련 ▪수요자 맞춤형 돌봄 서비스의 질적 제고 및 홍보 강화 ▪문화인프라 확대를 위한 어린이 전용 도서관 및 아동친화적 놀이 인프라 확충 ▪보건의료 서비스 영역의 사각지대 해소 ▪안전관리 보호 영역 인프라 확충 방안 마련 </td> </tr> </table>	공급수준과 만족도 고려한 육아지원환경 공급계획	육아지원환경 영역에 따른 정책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지원환경의 영역별 공급수준의 지역 간 격차 ▪육아지원환경 영역별 수요자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립유치원 및 국공립 어린이집 공급 계획 실행 ▪육아지원센터의 공급 확대안 마련 ▪수요자 맞춤형 돌봄 서비스의 질적 제고 및 홍보 강화 ▪문화인프라 확대를 위한 어린이 전용 도서관 및 아동친화적 놀이 인프라 확충 ▪보건의료 서비스 영역의 사각지대 해소 ▪안전관리 보호 영역 인프라 확충 방안 마련
공급수준과 만족도 고려한 육아지원환경 공급계획	육아지원환경 영역에 따른 정책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지원환경의 영역별 공급수준의 지역 간 격차 ▪육아지원환경 영역별 수요자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립유치원 및 국공립 어린이집 공급 계획 실행 ▪육아지원센터의 공급 확대안 마련 ▪수요자 맞춤형 돌봄 서비스의 질적 제고 및 홍보 강화 ▪문화인프라 확대를 위한 어린이 전용 도서관 및 아동친화적 놀이 인프라 확충 ▪보건의료 서비스 영역의 사각지대 해소 ▪안전관리 보호 영역 인프라 확충 방안 마련 				
	❖ 육아지원환경 통합서비스 조직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방안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h style="background-color: #1a3d4d; color: white;">중앙정부 차원의 노력</th> <th style="background-color: #1a3d4d; color: white;">지방정부 차원의 노력</th>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e6f2ff;">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아지원환경 통합서비스 운영 방안 육아지원 서비스의 균질화 육아지원 서비스의 단일 창구화 육아지원 서비스 통합기구화 ▪육아지원환경 통합서비스 운영을 위한 지원 방안 협력 촉진을 위한 공공서비스 성과관리 지표 마련 지역의 시민서비스 활용 방안 ▪지역특성에 맞는 육아지원정책 개발 장려 </td> <td style="background-color: #e6f2ff;">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아지원환경 총괄관리를 위한 기준 및 모니터링 체제 구축 육아지원환경 지표 마련 및 평가 지역 특성에 따른 육아지원환경 관련 사업 재배치 ▪지역의 육아지원환경 계획·실행·성과관리 체계 구축 조례제정 아동관련 예산서 도입 ▪기존 공공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가능 통합형 ▪현장 맞춤형 육아지원정책을 통한 정책 체감도 증진 </td> </tr> </table>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아지원환경 통합서비스 운영 방안 육아지원 서비스의 균질화 육아지원 서비스의 단일 창구화 육아지원 서비스 통합기구화 ▪육아지원환경 통합서비스 운영을 위한 지원 방안 협력 촉진을 위한 공공서비스 성과관리 지표 마련 지역의 시민서비스 활용 방안 ▪지역특성에 맞는 육아지원정책 개발 장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아지원환경 총괄관리를 위한 기준 및 모니터링 체제 구축 육아지원환경 지표 마련 및 평가 지역 특성에 따른 육아지원환경 관련 사업 재배치 ▪지역의 육아지원환경 계획·실행·성과관리 체계 구축 조례제정 아동관련 예산서 도입 ▪기존 공공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가능 통합형 ▪현장 맞춤형 육아지원정책을 통한 정책 체감도 증진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아지원환경 통합서비스 운영 방안 육아지원 서비스의 균질화 육아지원 서비스의 단일 창구화 육아지원 서비스 통합기구화 ▪육아지원환경 통합서비스 운영을 위한 지원 방안 협력 촉진을 위한 공공서비스 성과관리 지표 마련 지역의 시민서비스 활용 방안 ▪지역특성에 맞는 육아지원정책 개발 장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아지원환경 총괄관리를 위한 기준 및 모니터링 체제 구축 육아지원환경 지표 마련 및 평가 지역 특성에 따른 육아지원환경 관련 사업 재배치 ▪지역의 육아지원환경 계획·실행·성과관리 체계 구축 조례제정 아동관련 예산서 도입 ▪기존 공공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가능 통합형 ▪현장 맞춤형 육아지원정책을 통한 정책 체감도 증진 				

[그림 VI-1-1] 지역 맞춤형 육아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1. 육아지원환경의 영역별 공급 개선 방안

가. 공급 수준과 만족도를 고려한 육아지원환경 공급계획

1) 육아지원환경의 영역별 공급수준의 지역 간 격차

육아지원환경의 평가 결과, 수요자 대비 육아지원환경의 공급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상위지역과 하위지역으로 평가된 지역 간의 공급수준에서 보이는 격차도 매우 컸다. 육아지원환경의 여섯 개 영역 중 공급수준이 높은 영역을 살펴보면 ‘(맞춤형)돌봄지원 영역’에서 전체지역 중 1.0점과 0.75점을 얻은 지역이 50%정도에 해당되어 비교적 높은 공급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아이돌보미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시간연장보육 인력 규모의 공급수준이 높은 편이었다.

그 다음으로 ‘유아교육·보육 영역’ 중 전체어린이집 공급수준과 특수학급 및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의 공급수준과 ‘문화인프라 영역’ 중 어린이놀이시설 공급수준, ‘보건·의료서비스 영역’ 중 소아청소년과(병의원) 공급수준이 비교적 높은 편에 속했으며, ‘안전관리·보호 영역’ 중 학대피해아동쉼터 공급수준만이 지역 중 70%에서 높은 공급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반면 ‘육아지원서비스 영역’은 공급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2) 육아지원환경 영역별 수요자의 만족도

영유아 부모 1,200명의 육아지원환경 이용경험을 살펴본 결과, 다른 영역에 비해 육아지원 기관(18.1%)과 (맞춤형)돌봄지원 서비스(18.6%)를 이용해본 부모는 매우 적었다. 이들 부모들의 만족도를 4점 척도로 살펴보았을 때 지역의 평가결과와 관련 없이 만족도가 높은 부분과 낮은 부분이 발견되었다.

육아지원환경 중 I 영역인 유아교육·보육영역에 대한 부모들의 이용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고, 그 외에 II영역, III영역, IV영역, V영역에 대해서도 이용해본 부모들의 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II영역에서 유아교육진흥원의 교통 편리성과 IV영역에서 어린이 놀이시설의 질적 우수성, 박물관의 교통 편리성, V영역에서 종합병원의 대기시간 및 비용에서의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VI영역의 ‘안전관리·보호영역’은 전체 요소에서 모두 부모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표 VI-1-1〉 육아지원환경에 대한 영유아 부모의 만족도(상·하위지역 공통)

만족도 상하	영역	요소별 만족도
만족도 높은 부분 (2.8점 이상)	I	·전체
	II	·육아종합지원센터(편리성: 운영시간, 다양한 서비스, 대기시간/ 질적 우수성 전체/경제성)
		·건강가정지원센터(편리성 전체/ 질적 우수성: 대기시간, 시설 구비, 프로그램, 교직원 전문성/ 경제성)
		·다문화가족지원센터(편리성 전체/ 질적 우수성: 대기시간, 시설구비/ 경제성)
		·유아교육진흥원(편리성: 운영시간, 다양한서비스/ 질적 우수성 전체/ 경제성)
III	·시간제보육, 시간연장·휴일24보육, 온종일돌봄, 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보미, 산모신생아돌보미 전체	
IV	·어린이 놀이시설(편리성: 교통/ 질적 우수성: 시설구비)	
	·어린이 도서관 및 장난감도서 전체	
	·박물관(편리성: 운영시간, 대기시간/ 질적 우수성 전체/ 경제성)	
	·문화체육시설(편리성 전체/ 질적 우수성 전체/ 경제성)	
V	·보건소(편리성 전체/ 질적 우수성: 의료진의 전문성/ 경제성)	
	·소아청소년과 전체	
	·종합병원(편리성: 교통, 다양한 의료서비스/ 질적 우수성 전체)	
만족도 낮은 부분 (2.8점 미만)	II	·유아교육진흥원(편리성: 교통)
	IV	·어린이 놀이시설(질적 우수성: 다양한 종류의 놀잇감)
		·박물관 (편리성: 교통)
	V	·종합병원(편리성: 대기시간/ 경제성)
	VI	·안전관리·보호(접근성: 보도와 차도분리, 어린이 안전도로/ 질적 우수성: 교통안전, 안전교육 및 체험, 먹거리, 범죄 예방관리)

육아지원환경의 평가결과 상위지역과 하위지역에 따라 부모의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를 정리하자면 다음 [그림 VI-1-2]와 같다. 육아지원환경 평가결과 '상위 지역 중 만족도(상)'인 지역은 공급수준과 만족도 모두 좋은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육아지원환경이 상위로 평가된 지역의 부모들은 특히 육아종합지원센터, 문화체육시설, 보건소에 대해서는 접근성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어린이도서관, 장난감 도서관에 대해서는 서비스의 질(프로그램 및 직원 전문성)과 경제성 등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지역 중 만족도(하)'인 지역은 보건의료 서비스 중 응급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종합병원의 이용편리성이 떨어지며, 안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낮게 평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관계부처 합동, 2015)에서도 안전한 환경을 위해 응급센터 구축을 계획하고 있듯이 인프라가 높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안전과 관련한 환경개선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육아지원환경이 ‘하위지역이며 만족도(상)’인 지역에서는 교육·보육 기관의 서비스 질, 보건소와 소아청소년과의 서비스 질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시간,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교통 편리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지원환경이 낮게 평가되었으나 실제 이 인프라와 서비스를 이용해 본 부모들은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에 대해 만족하고 있어, 공급수준이 낮은 지역일수록 교육·보육환경, 육아지원서비스 환경,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공급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하위지역 중 만족도(하)’인 지역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가 낮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만족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 양질의 육아지원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환경평가 지역	상위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병원 대기시간(V) · 영유아 안전관리·보호 보도와 차도 분리, 어린이 안전도로, 교통안전, 안전교육 체험 시설, 먹거리 안전(V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편리한 교통(II)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직원 전문성(II) · 어린이도서관 프로그램 및 담당인력 전문성, 이용비용(IV) · 장난감도서관 운영시간 및 대기시간, 담당인력전문성, 이용비용(IV) · 박물관 운영시간, 시설구비, 이용비용(IV) · 문화체육시설 편리한 교통(IV) · 보건소 편리한 교통(V)
	하위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편리한 교통(II)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프로그램 및 직원 전문성(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보육 기관 프로그램(I)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시간(II) · 산모신생아돌보미 이용비용(III) · 어린이 놀이시설 편리한 교통(IV) · 보건소 다양한 의료서비스, 의료진의 전문성(V) · 소아청소년과 다양한 의료 서비스 및 대기시간, 의료시설장비 및 의료진 전문성(V)
		만족도 하위	만족도 상위

주: 본 보고서 V장 2절의 이용 기관 및 서비스 만족도 조사 내용에서 상위지역과 하위지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항목 중 만족도 점수 28점을 기준으로 하위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을 만족도 상위에, 상대적으로 더 낮은 것을 하위로 구분하였음.

[그림 VI-1-2] 육아지원환경 평가 결과에 따른 영유아 부모의 만족도

그러므로 육아지원환경을 위한 인프라 공급에 있어 우선적으로 하위인 지역에 대해 육아지원서비스 영역과 문화인프라 영역의 접근성과 서비스의 질 개선에 대한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으며,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교육보육기관 및 보건소 등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함께 지원해줌이 필요하겠다.

나. 육아지원환경 영역에 따른 정책 개선 방안

정부는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관계부처 합동, 2015: 31)에서 ‘행복한 아동, 존중받는 아동’이라는 비전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수행될 수 있는 정책과제로 16개 과제를 제시하였는데 이중 한 개 과제(아동의견 상시수렴 창구 운영)를 제외한 15개 과제 모두 영유아와 관련된 과제이다. 또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실행할 수 있는 7개 과제를 함께 제시하였다.



주.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관계부처 합동, 2015)의 p.31 발달환경별 주요 정책과제 중 영유아 영역과 어린이집·유치원, 지역사회에 해당되는 내용만을 발췌함.

[그림 VI-1-3] 발달환경별 주요 정책과제

육아지원환경과 관련된 정책을 본 연구에서 제시한 영역에 따라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VI-1-2〉 육아지원환경관련 정책 및 개선 필요 사항

영역	관련 정책	내용	개선 필요 사항
I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계획’ (교육과학기술부, 2009)	공립유치원 확충	⇒ 공립유치원 확대 방안 마련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대한민국정부, 2016)	국공립유치원 이용원아수를 2020년까지 199,360명으로 늘림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보건복지부, 2013)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150개소씩 총 780개소까지 확충	⇒ 전체 어린이집수에 비해 지역의 국공립어린이집 격차 큼. 확충 방안 마련 필요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여성가족부, 2016a)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	
II	영유아보육법	필요시에는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음을 명시	⇒ 전반적인 공급수준 낮음. 육아지원 및 시간제 돌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의무 설치 명시 필요
III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여성가족부, 2016a)	시간연장형보육 확대, 시간제보육반 확대 2020년까지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를 6만명으로 확대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확대	⇒ 타 영역에 비해 공급수준은 높은 편임. 지역 간 형평성을 위한 공급과 질 개선방안 마련 필요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2012)	온종일 돌봄교실의 확대 운영	⇒ 유치원 방과 후 돌봄에 대한 구체방안 필요
IV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관계부처 합동, 2015)	아동전용 공공도서관 지자체 1개소 이상 권고	⇒ 지역에 따라 격차가 매우 큼. 대도시와 군지역 중심 인프라 공급 확대 필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대한민국정부, 2016)	작은 도서관, 장난감도서관, 어린이 자료실 등 아동전용도서관을 확충 2014년 기준 전국 놀이터 62,417개소를 아동친화적 형태로 개선하는 계획	

(표 VI-1-2 계속)

영역	관련 정책	내용	개선 필요 사항
V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관계부처 합동, 2015)	2015년 기준 63.7%인 영유아 건강검진을 제고 영유아 장애예방 등 조기발달 검사 수행 예방접종률 향상 영유아 건강관리 체계 마련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확대 식품이력 추적관리 확대 아동전용 보건인프라 확대	⇒ 영유아의 건강 및 식품 안전 확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될 필요.
VI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국민권익위원회, 2015)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검사, 안전점검 및 안전성 유지 등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	⇒ 전국의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 점검 등 아동정책기본계획에 포함해 관리할 필요 있음.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관계부처 합동, 2015)	유아기(누리과정)부터 종합적인 안전교육·훈련체제를 구축 안전체험관 확대	⇒ 전국 안전체험관 및 체험교실의 공급수준은 낮은 편임. 지역에 따라 공급 정책 마련이 시급함.

1) 공립유치원 및 국공립 어린이집 공급 계획의 실행

공립유치원의 공급 확대는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계획'(교육과학기술부, 2009)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대한민국정부, 2016)에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확대는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보건복지부, 2013)과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여성가족부, 2016a)에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전국의 유아교육·보육 영역의 이용 대상자인 영유아비율을 기초로 공급수준을 살펴본 결과 공립유치원과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수준은 여전히 지역적 격차가 큰 것을 볼 수 있었다.

한편 육아지원환경을 평가하였을 때, 하위 지역에서도 교육·보육 영역에 대한 만족도는 높게 나타나는 점은 고무적이나 전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나 (국)공립유치원의 공급수준에서 지역적 편차가 크다는 점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보건복지부, 2013)에서 어린이집의 지역별 균형 배치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의 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으나,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지역 간 육아지원환경의 형평성에서 여전히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지역의 영유아 비율을 고려해 전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공급수준을 기초로 국공립 유치원과 국공립 어린이집의 실효성있는 확충 계획 마련을 통해 보다 질적으로 우수한 유아교육·보육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이 필요하겠다.

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보육교사 1급 교사 비율과 유치원 정교사 1급 비율, 즉 경력을 유지하는 전문성 있는 교사들의 확보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보다 양질의 유아교육·보육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전문적인 인력이 경력을 유지·발전할 수 있는 지원 방안도 함께 모색될 필요가 있겠다.

2) 육아지원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공급 확대 방안 마련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지역적 불균형(유해미 외, 2015; 이소영 외, 2015)은 여전히 존재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대도시 중심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군지역 중심으로 공급되고 있는 경향이 있었는데, 모든 지역에 두 가지 센터가 설치될 필요는 없으나 지역에 따라 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계획을 마련함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육아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확충에 대한 내용은 정책에 미반영되어 있고 지자체에 따라 설립할 수 있다고만 명시되어 있어 국가에서 일괄 공급 계획 수립 방안을 마련해 정책의 전달체계로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줌이 필요하겠다.

3) (맞춤형)돌봄지원 서비스의 질적 제고 및 홍보 강화

시간제보육과 시간연장형보육, 아이돌보미 사업 등에 대한 이용 확대 계획이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여성가족부, 2016a)에 제시되어 있고, 본 연구에서 육아지원환경의 평가 결과 온종일돌봄 사업을 제외하고 지역에 고르게 공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이용 경험을 알아본 결과 미이용 부모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 정책이 충분히 모든 수요자들에게 전달되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본다. 설문조사 결과 소수였지만 실제 이용한 부모들의 만족도는 높아 이용을 원하는 수요자들에게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겠다.

4) 문화인프라 확대를 위한 어린이 전용 도서관 및 아동친화적 놀이 인프라 확충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관계부처 합동, 2015)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 본계획’(대한민국정부, 2016)에서 특히 유아의 문화인프라 확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환경 평가 결과 어린이 놀이시설을 제외하고 문화인프라의 모든 요소들의 공급수준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어린이 도서관과 장난감 도서관의 공급수준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경험이 있는 부모들의 만족도는 높게 나타나 각 지역의 영유아 가정에서 문화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한편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공급수준은 비교적 높은 편이었는데, 실제 이 용해본 부모들의 만족도는 낮은 편에 속해서 지역에 제공된 어린이 놀이시설의 질적 우수성과 안전성에 대해 점검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함이 필요하 겠다.

5) 보건·의료 서비스 영역의 사각지대 해소

영유아의 보건·의료 서비스 영역에서 보건소와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만족도는 육아지원환경의 평가결과에 상관없이 모두 높았으며, 아이키우기 좋은 육아지원환 경을 위해 부모들이 중요한 영역으로 보고 있었다.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관계 부처 합동, 2015: 67)에서도 아동전용 보건인프라 확충 추진을 통해 어린이병원 건 립 지원, 소아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의료체계 구축 등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현 재 어린이 전문병원은 전국에 11개 설치되어 있고, 부산, 대구, 경기도, 전북, 경북, 경남, 제주에만 설치되어 있어 다른 지역의 확대 설치가 제안된다. 소아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센터의 설치 여부와 전문 의료 인력에 대한 파악을 통해 지역의 보건인 프라 공급 격차를 줄이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겠다.

보건소, 소아청소년과는 각 지역에서 접근성이 용이하여 영유아 건강검진 및 예 방접종 서비스를 모든 영유아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도시 지역의 보건소 공급수준은 낮고, 군지역은 소아청소년과의 공급수준이 낮게 나타나 지역에 따라 보건소와 소아청소년과 의료서비스의 사각지 대는 없는지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하겠고, 지역의 유형에 따라 영유아 보건서비스 를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함이 필요하다고 본다.

6) 안전관리·보호 영역 인프라 확충 방안 마련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관계부처 합동, 2015)에서 아동안전기반 구축을 위해 보행안전, 안전체험시설 등 아동안전관리 인프라 확충,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인프라 확충,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확대 등을 제안하고 있다. 국민안전처에서도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육아지원환경 평가 결과 안전관리·보호 영역은 공급수준도 낮으며, 만족도 역시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 전 지역의 안전관리 실태 점검과 인프라 확충 계획 마련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각 지역의 영유아 안전관리·보호를 위한 인프라가 공급될 수 있도록 계획 마련이 필요하겠다.

이를 위해 보행자전용도로 마련, 안전체험교육 및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확충이 시급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 아동쉼터는 홍보를 통해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겠다. 마지막으로 과출소의 공급수준이 인구에 비해 낮게 나타나 영유아 가정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본다.

2. 육아지원환경 통합서비스 조직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방안

최근 정부조직의 관리 효율성에 대해 개별 조직기관 단위의 효율적 관리를 넘어서, ‘복잡한’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치를 강조하는 통합정부 혹은 협력적 파트너십이 강조되고 있다(김근세·박현신, 2012: 36). 육아지원과 관련된 공공서비스만하더라도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가 각각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어, 이를 총괄 관리하는 부처 혹은 기구는 부재한 상황이다. 국내 일부 지역과 해외 사례를 통해 아동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행정시스템을 통합하려는 노력이 발굴되며, 국내에서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16. 4. 26. 대통령령 제27103호] 제41조(행정협업의 촉진) 제1항에서 다수의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등의 경우 상호간의 기능을 연계하거나 시설·장비 및 정보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 제안하고 있어 융합행정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우리나라 행정기관의 분절화 문제와 행정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대안(김근세·박현신, 2012: 55)으로서 통합서비스 전달기구가 제안된다. 통합서비스기구는

연합조직체계의 전 단계, 군집화 단계, 단일창구 단계, 통합기구화 단계로 구분(김근세·박현신, 2012: 45)될 수 있는데, 이상의 결과를 기초로 육아지원환경 통합서비스 조직을 위한 중앙정부차원과 지방정부차원의 육아지원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가. 중앙정부 차원의 육아지원환경 통합서비스 조직 방안

1) 육아지원환경 통합서비스 운영 방안

가) 육아지원 서비스의 군집화: 장소와 자원의 공유

육아지원서비스의 군집화란 육아와 관련된 서비스를 단일 장소에서 제공함으로써 행정서비스 대상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원스톱 서비스 개념이다. 군청이나 구청에 육아지원관련 직원을 두어 관련된 모든 연관 서비스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단일 공간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육아지원정책과 지자체의 육아지원정책의 집행을 위해 다음의 광역고용복지+센터의 통합사례를 준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고용노동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는 국민들에게 일자리·여성·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기 위해 2016년 7월 22일 인천고용복지+센터(인천시 남동구 문화로 131)를 개소하였다. 인천고용복지+센터는 “각 기관의 지위, 조직·인사·예산 등의 독립성을 유지한 기관 간 협의체”로서 공간 등 하드웨어와 서비스·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를 연계·통합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2016년 7월 22일).²³⁾ 여기에는 인천시 일자리지원센터, 자치구 복지지원팀, 여성가족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금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장애인고용공단 등이 참여하여 경력단절여성 취업정보제공, 직업교육훈련,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실업급여 지급 및 재취업 지원, 각종 복지급여 신청, 접수, 처리, 서민금융지원 상담, 장애인 및 고용기업의 업무 등을 처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아동친화도시의 사례 역시 공동의 사업을 계획하기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구청, 그리고 가족지원센터 등이 서로의 인력과 자원을 공유

23) 관계부처 합동보도자료(2016.7.22). 일자리, 복지, 서민금융 서비스를 한곳에서 해결! 광역형 고용복지+센터, 인천에서 최초 개소: 고용복지+센터를 통한 고용서비스 혁신! 정부 3.0실현!

하고 있는 형태이다. 이 유형은 기존의 담당부처와 사업과 예산 모두 독자적으로 운영되면서도, 서비스를 수혜받는 영유아와 부모들을 고려해 관련 서비스들을 종합하는 방안으로 지자체 단위에서 수행하기 적합한 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자체 수준의 실행을 위해서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의 업무협약을 통한 “육아지원+ 종합센터”를 마련하여 공간과 하드웨어, 서비스 등을 연계·통합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

앞서 자원와 공간을 공유한 형태에서 보다 적극적인 협력방안은 육아지원 서비스를 단일 창구화하는 방안이다. 로테르담 시는 NPRZ 기구를 두 되 각 부처의 담당인력과 예산의 50% 지원을 받아 협력해 운영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지역대표가 함께 조직에 포함되어 지역의 요구들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호주의 Centerlink는 다목적서비스기관으로서 실업자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회보장부와 실업자의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교육노동훈련청년부의 서비스 통합 기구로 이 모델에 해당된다(김근세·박현신, 2012: 48).

현재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 중 군수나 구청장 직속으로 아동친화팀 부서를 신설하여, 아동관련 예산과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육아지원 서비스 단일 창구화를 위해서 여기에 교육지원청도 함께 통합하여, 아동친화팀 혹은 육아지원팀에 각 부서의 인력을 파견하고 관련 예산을 계획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관련 사업을 정리하고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발굴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공부문에서 휴먼서비스 부분은 서비스의 분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수준에서 서비스의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전달체계 구축을 지향하고 있다(김근세·허아랑·김예린, 2014: 523). 다만 이 안은 장소와 자원뿐만 아니라 인력과 예산도 함께 모아서 공동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방안이므로, 각 관련 부처 간의 협력과 지원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협력은 지역의 영향분석 결과와 지역 욕구에 따라 협력에 참여한 부서 및 전달체계의 역할과 비중이 달라질 수도 있다.

나) 육아지원 서비스 통합기구화: 중앙의 육아지원관리 총괄 부처나 기구 마련

육아지원 서비스의 통합기구화는 가장 높은 수준의 통합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를 아우르는 육아지원을 위한 독립기구를 독자적으로 두고, 관련 인력과 예산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다. 현재 호주 정부는 독자기구이던 Centerlink와 Medicare를 흡수 통합해 휴먼서비스부라는 독자적 기구를 구축하였으며, 영국의 JCP 역시 고용청과 급여청의 통합적 서비스 기구로 만들었다(김근세·박현신, 2012: 48).

부처 통합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를 아우르는 대통령자문기구 형태의 “육아지원총괄위원회”를 조직하고, 중앙, 시·도, 시·군·구 단위의 조직을 구성하여 중앙 육아지원센터가 전 사업관련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현행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타법개정 2016. 1. 22,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3조(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이 때 사회보장의 기본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등이 기본계획에 포함된다. 그리고 사회보장제고의 운영과 개선을 위해 실무위원회의 설치(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1조)가 가능하며,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동법 제12조)의 설치가 가능하다. 전문위원회는 기획 전문위원회, 제도조정 전문위원회, 평가 전문위원회, 재정·통계 전문위원회가 있다. 이상의 규정을 준용하여 ‘육아지원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육아지원과 관련된 제반 사업과 정책에 대한 평가와 계획을 실행하는 체계를 갖출 수 있다.

2) 육아지원환경 통합서비스 운영을 위한 지원 방안

가) 협력 촉진을 위한 공공 서비스 성과관리 지표 마련

협업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힘의 수평적 균형이 요구되기도 하지만, 사안에 따라 힘을 나누어 가지도록 구성할 수 있다. 무엇보다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협업에 대한 성과관리와 인센티브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에서 사업을 주도하고 지방정부는 이를 실행하고 있어 성과관리에도 이 체제가 반영되고 있다.

그러므로 지역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영국과 호주와 같이 중앙정부는 사업 기획하고 재정을 지원하며, 지방정부는 사업을 주도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성과평가 지표에 협업을 실행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협업의 동력을 마련해 주는 방안도 함께 모색될 필요가 있겠다.

나) 지역의 시민서비스 활용 방안

마지막으로 각 지역의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것은 우수한 전문인력의 공급이다. 이를 위해 시민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제안하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보육반장과 같은 육아반장 혹은 육아품앗이 등 지역사회 전문가자원을 활용하여 조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자체 아동지원정책지원의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2016년 9월부터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일환으로 재능과 경험을 지닌 퇴직공무원 111명을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역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하는 ‘복지살피미’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보건복지부·행정자치부 보도자료, 2016. 7. 29.)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는 2016년 공무원연금공단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재능나눔 희망 퇴직공무원의 신청을 받았는데, 복지살피미 퇴직공무원 111명은 복지허브화 추진 읍면동과 연계·매칭을 통해 총 59개 읍면동에서 여성·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복지업무의 지원을 위해 참여하고 있다.²⁴⁾ 복지살피미는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을 구석구석 살피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며, 방문을 통해 개개인의 다양한 애로사항과 문제를 맞춤형으로 해결한함으로써 맞춤형 사례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러한 복지살피미의 활동을 준용해 아이돌보미, 공동육아나눔, 산모신생아 도우미, 시간연장 및 휴일 보육 등에 활용하는 방안 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3) 지역특성에 맞는 육아지원정책 개발 장려 필요

지자체에서 향후 지역주민의 욕구와 지역특성에 적합한 정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경우 보편적인 중앙부처 정책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할 잠재성이 있다.

지자체에서는 아동지원정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여성부, 교육부외에도 행정자치부에서 2016년부터 실시한 「뉴-베이비붐 선도지자체 공모사업」을 통해 최종 5개 지자체(서울시 성북구, 충남 부여군, 전북 완주군, 경북 의성군, 경남 밀양시)를 선정하여 특별교부세 총 29억원을 지원한다. 선도 지자체로 선정된 서울시 성북구는 ‘아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한 동행 프로젝트’로 시설과 시스템의 원스톱 통합서비스 지원을 통해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였다. 그리고 충남 부여군은 출산·육아·보육관련 통합공간 구축, 전북 완주군은 일·가정양립지원센터

24) 보건복지부·행정자치부 보도자료(2016. 7. 29). 읍면동 “복지살피미”(퇴직공무원 자원봉사자), 어려운 이웃에게 먼저 찾아가겠습니다!

신축, 경북 의성군은 보건소를 증축한 출산통합지원센터 건립 등을 계획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남 밀양시는 가족친화마을을 위한 공동체 활용 지역맞춤형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²⁵⁾

이와 같이 중앙에서는 지역 맞춤형(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우수 아동지원 정책 모델을 발굴하여 전국의 지자체로 확산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즉, 중앙에서는 지자체에서 지역특성에 맞게 시행되는 양육지원 대책 중 광범위하게 시행되는 것은 중앙에서 제도화하여 전국의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지자체에서는 현재 중앙부처에서 시행하지 않는 역할에 대해 지역특성에 맞게 계획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간의 지나친 격차를 방지하기 위해 중앙부처에서는 지자체 아동지원정책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인구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에서는 지자체 아동지원정책의 선도모델을 발굴 추진하고, '중앙과 지방간의 역할분담 모델'의 하나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 지방정부 차원의 육아지원환경 통합서비스 지원 방안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타법개정 2015. 7. 24 법률 제13426호]에 의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상의 법적 근거를 기초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행할 수 있는 육아지원환경 지원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1) 육아지원환경 총괄 관리를 위한 기준 및 모니터링 체제 구축

가) 육아지원환경 지표 마련 및 평가

현재 유아교육·보육기관, 육아지원 서비스, (맞춤형)돌봄지원 서비스, 문화인프라, 보건·의료, 안전관리·보호 관련 인프라의 공급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다(부록 6 참조). 영유아비율을 고려해 최소한의 공급 기준을 명시하여 육아지원환경의 사각지대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특히 영유아의 안전하고 건강한 발달과 부모의 육아를 돕기 위해 필수적인 공공 인프라는 지역 내 이용 접근성을 고려해 필수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중

25) 행정자치부 보도자료(2016. 12. 16). 저출산 극복, 선도지자체가 책임집니다. 「뉴-베이비붐」 공모사업 5개 선도지자체 최종 선정.

양정부의 가이드라인 제시와 예산 지원의 노력이 필요하겠다. 육아지원환경과 관련된 공급에 대한 법적 기준을 살펴보면(부록3 참조), 기관의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는 있으나, 수요자인 영유아와 부모를 고려해 시도 단위나 시·군·구 단위에서 최소 공급되어야 하는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각 육아지원 영역 및 요소별로 지역의 요구를 수용한 최소 설치 기준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추후 ‘육아친화지표’의 개발을 통해,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육아지원 공공인프라 공급 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영유아와 그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물적 환경을 최우선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겠다.

다음은 본 연구를 통해 제안된 지역의 육아지원환경 관리 지표는 총 6개 영역에 물적 환경 요소 총 13개와 질적 환경 요소 15개, 총 28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영유아와 유아만을 대상으로 하는 육아지원환경도 있으나, 만12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 주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육아지원환경도 있어 지역의 영유아 및 아동 인구비율과 주민 인구수를 고려해 지표를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육아지원환경 관리 지표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가 전체 조사를 통해 파악해 지역 내 공급수준의 적정성 기준과 공급 계획을 수립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향후 본 연구에서 수행한 육아지원환경 평가의 기초자료를 근거로 지역에서 실행한 지역의 영유아지원환경 성과관리 지표를 개발하여 제시함으로써 영유아관련 정책기본계획의 평가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이 필요하겠다.

나) 지역 특성에 따른 육아지원환경 관련 사업 재배치

지역에 따라 문화인프라 중 특히 영유아들에게 필요도가 높은 어린이 놀이시설 및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접근성은 경향이 있으며, 무엇보다 안전관리·보호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경향이 있다. 또한 같은 대도시라 하더라도 육아지원환경의 평가가 낮았던 지역은 상대적으로 교육·보육기관과의 접근성 및 이용비용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장난감 도서관 등 영유아 부모의 필요도가 높은 문화 인프라에 대해서는 접근성과 질적 우수성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의 사례에서 살펴본 성북구의 경우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해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육아지원관련 사업들을 총괄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도시의 경우 자치구가 주체가 되어 영유아를 위한 놀이시설, 부모들을 위한 양육지원 서비스와 어린이 도서관, 안전관련 인프라를 재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육아관련 사업과 관련 예산들을 정리하고, ‘아

동영향평가'를 통한 지역의 욕구 파악을 통해 지역민의 요구를 반영한 사업들을 신설·병합함으로써 예산 효율화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공공 인프라를 신설하기 보다는 기존의 인프라 간 연계, 발굴을 통해 지역주민의 필요를 반영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겠다.

2) 지역의 육아지원환경 계획-실행-성과관리 체계 구축: 조례 제정 및 아동관련 예산서 도입

지자체 사례를 통해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에서 아동관련 사업 전반을 총괄관리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환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아동영향평가와 아동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당결과를 다음 년도 계획에 반영하고, 계획 실행에 따른 평가를 통해 그 결과를 환류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아동관련 예산서를 종합하여 지역적 여건에 부합하는 예산편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며, 아동관련 조례 마련을 통해 성과관리 체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자체 별로 육아지원환경을 점검하기 위한 지표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현황 파악과 지역 주민의 욕구를 살펴보는 내용을 포함한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지자체의 영유아 및 아동관련 예산서를 종합하여, 적정 공급 기준안이 포함된 차 년도 육아지원환경 개선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또한 아동친화도시 조례를 준용한 육아지원 관련 조례를 마련하여 이상의 과정들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노력도 동반되어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지역 내 육아지원을 위한 사업들을 종합하고 중복되거나 지역내 욕구를 미반영한 사업들을 신규 발굴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육아지원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역 주민의 만족도 제고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여겨진다. 이상의 결과들을 지역 홍보에도 적극 활용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마을”로서 지역 주민들의 자부심을 고취시키는데도 영향을 줄 것이다.

3) 기존 공공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기능통합형: 군지역형

군지역 육아지원환경 공급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으나, 이용 경험이

있는 부모들의 만족도는 영역에 따라 달랐다. 군지역 중 상위지역의 부모들은 교육·보육 기관의 거리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으나, 다양한 서비스 이용과 비용 만족도가 높았으며, 문화 인프라영역에서 박물관(미술관)의 이용비용 만족도도 높았다. 군지역 하위지역의 부모들 역시 교육·보육 기관 입소/입학 대기시간, 교직원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다.

그러나 문화인프라 영역에서 어린이 놀이시설과 놀이기구 종류 등 서비스의 질에 대한 만족도, 보건소의 교통, 질적 우수성, 이용비용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낮아, 군지역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군지역의 경우 무엇보다 보건 건강관리를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보건소에서 영유아관련 건강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육아지원 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이상의 결과들은 군지역 부모들의 육아지원환경에 대한 욕구가 크고, 만족도 역시 높음을 알려주는 것으로, 군지역의 육아인프라 확충과 보완이 시급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군지역의 경우 모든 인프라를 확충하기보다 기존에 설치된 인프라를 중심으로 기능을 통합·보강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겠다. 아울러 가정양육을 돕는 아이돌보미 파견 확대, 취약 보육 개선의 통로 일원화 등을 위해 기존 공공 인프라를 중심으로 기능을 통합하고, 관련 사업 예산을 지원 하는 형태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 유치원-어린이집 연계안

군지역 거주 영유아들의 교육·보육기관 접근성을 고려해 소규모 어린이집 설치를 장려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바대로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에 병설유치원과 연계해 0-2세 유치원 취원이 가능한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김은설 외(2015: 232-233)는 영아보육수요에 대응해 소규모 영아전담 국공립 설치나 0-2세 유치원 취원을 제안한 바 있다. 현재 5인 미만 어린이집의 경우 교사 대 아동비율만 맞으면 어린이집 원장 겸직 교사 1인이 영아 3명을 돌보는 것도 가능한 상황이어서 이와 같은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해 추가 인력 배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 건강가정지원센터 기능 보강

현재 군지역의 육아지원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 중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율을 매우 낮고,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는 비교적 이루어진 상황이다. 군지역에 신규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기 보다는

기존에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 기능을 이양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겠다. 대개 군지역의 어린이집교사와 영유아부모를 위한 서비스는 도 단위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육아지원을 위한 사업을 확대하고(도 단위 센터에서 군 지역까지의 사업을 확장하면 접근성이 떨어져서 질적으로 우수한 활동과 교육의 실천이 어려움), 장난감도서관 대여사업, 작은 어린이도서관 등의 소규모의 문화인프라 확충을 통해 군지역의 육아지원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운영비 부족을 통한 곤란을 겪지 않도록 기존에 설치된 센터 옆에 공간을 마련하여 장난감사업이나 도서관 사업은 운영적 측면에서 보육전문가가 상근하여 영유아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때 설치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 보건소 기능 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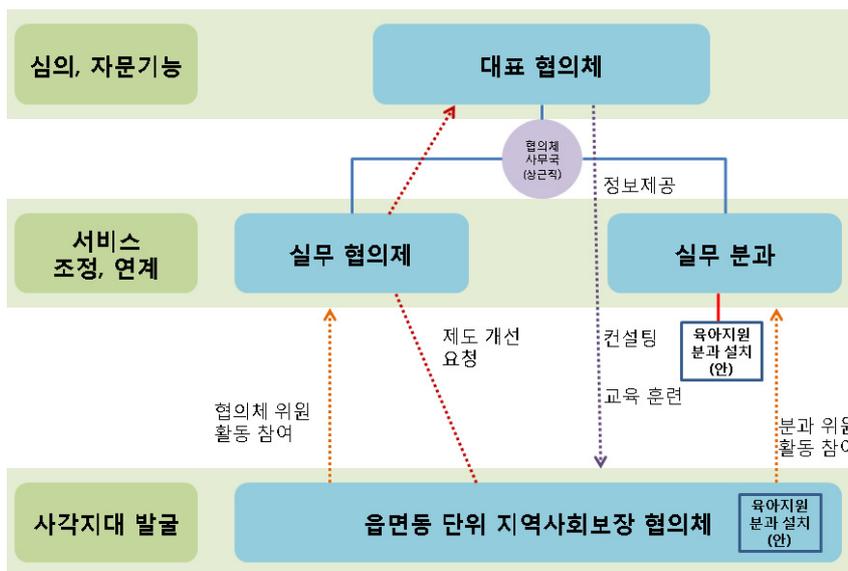
보건 건강관리를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보건소에서 영유아 관련 건강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육아지원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군지역은 보건소를 활용하는 것이 설치에 대한 예산 감면과 접근성에서 효율적이다. 보건소 내에 구분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분소(장난감 도서관 대여 사업 및 육아상담)가 설치되고, 보육전문요원 등의 보육전문가가 상근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때 해당 보건소당 작은 공간에 대한 임대료와 보육전문가 1인의 인건비 지원 및 실질 경비 등의 지원만이 요구되므로 육아종합지원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신설하는 비용에 비해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 도단위 센터나 혹은 시·군·구센터에서 보육전문요원의 파견 및 관리, 육아상담 서비스 전문가 파견, 부모교육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속적 사업 유지와 질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함이 필요하다.

4) 현장 맞춤형 육아지원정책을 통한 정책 체감도 증진

지자체 육아지원정책의 집행은 기존에는 아동복지시설을 활용하였다면, 이제는 수요자에게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집행을 하여야 한다고 본다. 2016년부터 정부(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활용하여 육아지원정책을 시행한다면 생활여건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동복지시설을 방문할 수 없는 국민들에게 (맞춤형)돌봄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정부는 공무원이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직접 방문해, “주민의 복지 체감

도를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에게 근접성이 좋은 읍면동의 복지기능을 강화한 형태인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추진하고 있다(보건복지부·행정자치부 보도자료, 2016. 7. 6: 2). 이와 같은 서비스는 육아지원정책분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면동 단위로 지역의 다양한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민관협력 거버넌스체계 구축,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욕구에 대응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내 자원 발굴·연계 강화 및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로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운영 방향으로 삼고 있다(보건복지부, 2015b: 11).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회의 규모는 전국 214개 시군구, 3,359개 읍·면·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은 전국 58,454명, 읍면동 평균 17.3명으로 구성(10명 이상)되어 있다(보건복지부·행정자치부 보도자료, 2016. 7. 6: 13).



자료: 보건복지부·행정자치부 보도자료(2016. 7. 6).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읍면동 현장에 뿌리 내리다: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허브로 거듭나다. p.13 내용을 보완함.

[그림 VI-2-1]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육아지원 분과 설치(안)

현재 실행중인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 산하에 육아지원 분과를 설치함으로써 지역 내 육아 사각지대와 지원방안에 대한 지역맞춤형 지원을 발굴하고 모

색하도록 할 수 있다. 지역주민의 아이디어를 활용하되, 지역공모와 지원금 마련에 예산을 투입하는 형태의 사업 발굴이 필요하겠다. 그 외에도 지역사회조직 전문가를 채용(육성)한 지역자원 활성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 센터, 보건소 등과 협력하여 육아지원환경을 확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장된 자원을 개발하도록 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행정업무체계의 변화는 읍·면·동 단위에서 육아지원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준용될 수 있으며, 육아지원정책을 소개하고 연결해주는 “육아지원 도우미”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지역의 영유아 부모들의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며, 사각지대 발굴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참고문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6). 내부자료. 보건소 근무 의사 수(2016년 4월 기준).
- 경찰청(2016). 내부자료. 전국 교통안전체험교육장 현황(2016년 4월 27일 기준).
- 고명철(2013). 공공서비스 만족도가 지역사회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0(2), 243-270.
- 관계부처 합동(2015).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 관계부처 합동(2016). 아동학대 방지 대책(안).
-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16. 7. 22). 일자리, 복지, 서민금융 서비스를 한곳에서 해결! 광역형 고용복지+센터, 인천에서 최초 개소 - 고용복지+센터를 통한 고용서비스 혁신! 정부 3.0실현!
- 교육과학기술부(2009).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계획.
- 교육과학기술부(2013).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계획(안).
-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2012. 2. 1). 3월부터 전국 1,700개 엄마품 온종일 돌봄 교실 운영.
- 국민건강보험공단(2015). 건강검진통계(2014년 12월 기준).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검색일 2016년 5월 27일).
- 국민건강보험공단(2016a). 시·군·구별 중별 요양기관 현황(2016년 1월 기준).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검색일 2016년 5월 27일).
- 국민건강보험공단(2016b). 시·군·구별 표시과목별 의원현황(2016년 1분기 기준).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검색일 2016년 5월 27일).
- 국민권익위원회(201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방안.
- 국민안전처(2014). 전국안전체험시설 안내(2014년 12월 기준).
- 국민안전처(2015). 2015 국민안전처 통계연보(2014년 12월 31일 기준).
- 국민안전처(2016). 내부자료. 전국 놀이시설 현황(2016년 5월 30일 기준).
- 국립민속박물관(2015). 내부자료. 한국 어린이박물관, 미술관 및 기관 현황(2015

- 년 10월 15일 기준).
- 권미량·김성원(2012). 육아환경에 대한 부모의 인식 연구: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생태유아교육연구*, 11(4), 141-161.
- 권정윤·정미라·박수경·이방실(2013). 만2세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 *한국영유아보육학*, 77, 179-201.
- 김광혁·김정석(2012). 가족빈곤 및 지역사회환경과 아동학대, 그리고 아동발달. *사회과학논총*, 28(1), 45-64.
- 김근세·박현신(2012). 고용지원서비스의 통합기구 비교분석: 영국, 미국, 호주의 윈스톱숍을 중심으로. *한국조직학회보*, 9(2), 35-71.
- 김근세·허아랑·김예린(2014).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과 서비스통합에 관한 경험적 연구. *한국행정논집*, 26(3), 521-552.
- 김병성(1996). *교육연구방법*. 학지사.
- 김세원·김선숙(2012). 지역사회 간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아동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39, 127-150.
- 김은설·윤재석·윤지연(2015). 농어촌 지역 영유아 교육·보육 실태 및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김일부(2009). 생태학적 체계이론에 기반한 인디언과 유대인 양육법 기초연구. *부모교육연구*, 6(2), 105-123.
- 김정석·황선재·송유진·김혜영(2013). 지표체계안 개발을 위한 제언: 출산환경 및 행태지표를 중심으로. *조사연구*, 14(3), 79-114.
- 김혜금(2012).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지역사회 육아 지원과 사회적 지원에 대한 인식. *한국보육지원학회지*, 8(1), 5-24.
- 나정·박은실(2002). 유아교육 투자 우선 지역 선정과 투자 방안. *유아교육연구*, 22(2), 7-27.
- 노병일(2015). 생태학적 관점에 따른 사회자본과 아동발달 사이의 관계. *열린부모교육연구*, 7(1), 85-100.
- 노신애·진미정(2012).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인식이 미취학자녀 부모의 양육 효능감 및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0(3), 135-148.

- 대한민국정부(2016).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
- 류기자·김영주·송연숙(2009). 보육시설 영아반에 자녀를 보내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와 양육 효능감. 한국보육지원학회지, 5(1), 1-23.
- 맹헌옥·전정수(2015). 기혼여성의 보육환경이 출산결정에 미치는 영향. 경영교육 저널, 26(1), 75-108.
- 문화체육관광부(2015).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2015년 1월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 검색일 2016년 5월 30일).
- 문화체육관광부(2016).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http://www.libsta.go.kr>, 검색일 5월 30일).
- 박정희·장영애(2003).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어머니의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관련변인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1(3), 31-44.
- 박진아·도남희·조혜주(2015). 지역별·유형별 어린이집 수급 현황 분석 및 전망. 육아정책연구소.
- 박찬화(2012). 10개월 이하 영아를 둔 취업모의 양육지원체계, 자녀가치관 및 심리적 안녕감이 둘째아 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21(1), 95-111.
- 박희진·문혁준(2013). 영아를 둔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애착, 우울, 사회적 지지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20(3), 81-98.
- 배광일(2011). 출산의도 및 출산행동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배은석(2013).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복지수요·공급력에 따른 유형화 및 특성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백대흠·김세용(2008). 서울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 문화도시 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24(12), 225-235.
- 보건복지부(2013).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 보건복지부(2015a). 아동종합실태조사. 예방접종(2013년 기준).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검색일 2016년 6월 15일).
- 보건복지부(2015b). 2015년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 보건복지부(2016a). 2016년도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16b). 아동분야사업안내(2).
- 보건복지부(2016c). 2015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검색일 2016년 5월 1일).
- 보건복지부(2016d). 내부자료. 산모신생아도우미 인력 수(2015년 2월-12월 기준).
- 보건복지부(2016e). 내부자료. 장애아전문 및 통합 어린이집(2015년 12월 기준).
- 보건복지부(2016f). 내부자료. 시간제 보육 운영반 수(2015년 12월 기준).
- 보건복지부(2016g). 내부자료. 양육수당수혜자 수(2015년 12월 기준).
- 보건복지부(2016h). 내부자료. 신생아도우미 인력규모(2016년 6월 기준).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1. 2. 11). 영유아 건강검진 정밀진단 지원아동 차상위 까지 확대.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5. 6. 2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도 국민행복카드에 통합.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5. 8. 11). '15년도 달빛어린이병원 30개소 확대 지정 추진.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6. 3. 30). 달빛어린이병원, 응급의료기관 활용 및 의원 연합방식 등 다양화 제안.
- 보건복지부·행정자치부 보도자료(2016. 7. 6).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읍면동 현장에 뿌리 내리다: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허브로 거듭나다.
- 보건복지부·행정자치부 보도자료(2016. 7. 29). 읍면동 “복지살피미”(퇴직공무원 자원봉사자), 어려운 이웃에게 먼저 찾아가겠습니다!
- 산림청(2014). 전국 도시림 현황 통계. (2014년 12월 기준).
- 서교·이지민·김한중·정남수·조순재·이정재(2003). 농촌의 잠재적 가치에 의한 농촌지역개발 평가지표 연구. 한국농촌계획학회지, 9(1), 47~53.
- 서문희·이운진·유해미·송신영·김세현(2011). 출산수준 제고를 위한 육아지원 내실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서울 성북구(2015a). 내부자료. 2015 아동친화교육도시 정착.
- 서울 성북구(2015b). 내부자료.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정착.

- 서울 성북구(2016a). 내부자료. 아동권리 접근방법 활용한 아동친화 예산서.
- 서울 성북구(2016b). 내부자료.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주요내용.
- 송미혜·송연숙·김영주(2007). 유아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2(5), 165-183.
- 송영주·이주옥·김준경(2011).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후속출산계획 관련 심리사회적 요인 탐색. 열린유아교육연구, 16(3), 185-206.
- 심미승·설선미(2014). 일·가정 양립정책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23(1), 373-402.
- 안창희·김운영·김수영(2012). 보건의료서비스 기반 증진을 위한 건강도시 지표 개발 및 중요도 분석. 국정관리연구, 7(2), 165-189.
- 여성가족부(2016a).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6-2020).
- 여성가족부(2016b). 2016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안내.
- 여성가족부(2016c). 내부자료. 워킹맘·워킹대디 서비스 시도별 제공기관 현황 (2016년 4월 25일 기준).
- 여성가족부(2016d). 내부자료. 아이돌보미 인력규모(2016년 2월 기준).
- 유인창·강부성·박지연(2014). 미취학 아동 육아환경에 관한 거주유형별 만족도 비교 분석.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30(6), 31-38.
- 유재언·진미정(2013). 가족친화 지역사회 요소가 생활환경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 거주자의 가족생애주기 단계별 비교. 가족과 문학, 25(3), 97-127.
- 유재언(2014). 지역사회 영유아 지원서비스가 어린이집 충족률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34(4), 123-152.
- 유해미·강은진·조아라(2015). 2015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유해미·배운진·김문정(2014). 출산수준 제고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내실화 방안(IV): 맞벌이 가구의 영유아 자녀 양육지원 실태 및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유해미·양미선·송신영(2012). 지역사회내 육아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현황과 개선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이소영·김은정·조성호·최인선(2015). 임신·출산 및 영아기 양육 인프라의 형평성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승미·김희진(2005).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사회적지지, 양육 효능감 및 자녀 성취에 대한 기대. 대한가정학회지, 43(1), 17-33.
- 이영범·배득중·이기주·오영균·주운현·한상일(2012).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이윤진·조혜주(2014). 지역사회 육아지원 네트워크 모델 개발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이윤진·이정원·구자연(2013). 영유아 문화인프라 이용실태와 지원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이정림·김길숙·송신영·이예진·김진미·김소아·김신경(2015). 한국아동패널 2015. 육아정책연구소.
- 이정원·도남희·김세현·나지혜(2012). 출산수준 제고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내실화 방안(II): 가정 내 영아 양육 실태와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 이정원·유해미·김문정(2013). 가족변화에 대응한 출산·육아지원 방안 연구: 출산의 고통화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 이주림(2014). 주거 생활권의 육아환경 평가체계 및 영유아 부모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주림·구자훈(2013). 육아환경 평가지표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서울시 자치구의 물리적 환경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3(3), 385-412.
- 이주림·구자훈(2015a). AHP를 이용한 서울시 자치구의 물리적 육아환경 평가. 서울도시연구, 16(1), 137-147.
- 이주림·구자훈(2015b). 근린생활권의 육아환경 요소에 대한 영유아 어머니의 중요도-만족도 분석.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6(3), 1-9.
- 이진화·민정원(2015). 어머니의 개인 심리적 특성과 가정환경자극 수준이 후속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 생태유아교육연구, 14(1), 79-100.
- 이진화·김경은·임원신(2015). 한자녀 가정의 후속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가족 환경적 특성과 유아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중

- 심으로. 육아정책연구, 9(2), 1-22.
- 인천 서구(2016a). 내부자료.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주요내용.
- 인천 서구(2016b). 내부자료. 2016년 아동친화 조성위한 전략과제 부서별 사업목록.
- 인천 서구(2016c). 내부자료. 전략과제별 세부사업 목록. 관리번호 1-7.
- 인천 서구(2016d). 내부자료. 전략과제별 세부사업. 관리번호 1-8-2.
- 임효진·박휴용·장경은·이지은(2015). 어머니의 심리적, 관계적 변인과 양육스트레스, 후속 출산의도의 구조적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20(2), 297-318.
- 임현주·이대균(2013). 부부특성 및 사회적 지원과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이 후속 출산에 미치는 효과: 모의 취업과 후속출산계획 여부에 따른 다중집단 분석. 유아교육연구, 33(2), 121-144.
- 장명림·이재연·김영옥·안동현·박수연·김홍희(2007). 한국의 육아지표 개발 및 정책 모니터링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장희연(2015). 기혼여성의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요인탐색.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북 완주군(2015a). 내부자료. 아동 친화도시 기본계획.
- 전북 완주군(2015b). 내부자료. 2015년 아동친화 예산서(안).
- 정경숙(2008). 아동친화적인 주거커뮤니티를 위한 공간환경 디자인지침 개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민자·정지영·조성은·한지수·김은희·김명희·오청미·박승대(2008). 양육친화적 지역사회 네트워크 모형개발. 보건복지가족부.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a). 내부자료.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2016년 1월 12일 기준).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b). 내부자료. 전국 학대피해아동쉼터 현황(2016년 5월 2일 기준).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16). 내부자료. 장난감·도서 사업운영 안내(2015년 4월 기준).
- 전현숙·정희남·김혜승·하수정·오민준 외(2013). 저출산 추세에 대응한 주택 및 도

- 시정책 방향 연구(II). 국토연구원.
- 최은영·이진화·김승진(2015). 2015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최효미·이정원·김진미(2015). 어린이집·유치원 인프라 격차에 따른 지역 유형화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최천근(2011). 치안서비스 형평성 제고를 위한 경찰의 인적자원 배분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지출수요 이론의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0(3), 359-393.
- 최현묵(2014). 지역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형평성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6(5). 115-140.
- 통계청(2015). 지역별고용조사 시도 및 시·군 경제활동인구(2015년 하반기 기준).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검색일 2016년 5월 27일).
- 한국토지주택공사(2015). 도시계획현황(2014년 기준).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검색일 2016년 4월 11일).
- 한윤옥(2012). 양육지원정책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행정자치부(2016). 각 연령 주민등록인구현황(2016년 5월 기준).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검색일 2016년 6월 7일).
- 행정자치부 보도자료(2016. 12. 16). 저출산 극복, 선도지자체가 책임집니다: 「뉴-베이비붐」 공모사업 5개 선도지자체 최종 선정.
- 홍승애·이재연(2011). 아동 친화적인 도시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인식. 아동학회지, 32(2), 53-70.
- 홍승애·이재연(2014).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인식. 아동과 권리, 18(2), 303-330.
- Algood, C. L., Harris, C. & Hong, J. S. (2013). Parenting success and challenges for familie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 ecological systems analysis. *Journal of Human Behavior in the Social Environment*, 23(2), 126-136.
- Beleidsregel Onderwijs Rotterdam(2014-2015). from <http://www.rotterdam.nl/Clusters/Maatschappelijke%20ontwikkeling/Document%202013/>

- Jeugd%20en%20Onderwijs/Subsidies/Beleidsregel%20 Onderwijs%20 Rotterdam%202014-2015%20def%2010feb2014.pdf(검색일 2016년 8월 30일).
- City of Rotterdam, Youth, Education and Society(2010) Rotterdam, city with a future. from <http://www.rotterdam.nl/JOS/kindvriendelijk/Rotterdam%20City%20with%20a%20future.pdf>(검색일 2016년 8월 30일).
- Lucy, W. H., Gilbert, D., & Birkhead, G. S. (1997). Equity in Local Service Distribu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87-697.
- NASW(1999). 사회복지대백과사전. 나눔의 집.
- NPRZ(2015). Nationaal Programma Rotteradm Zuid: Uitvoeringsplan 2015-2018. Programmabureau NPRZ.
- OECD(2015). Fertility rates. from www.oecd.org/els/social/family/database (검색일 2016년 5월 3일).
- Renfrew, M. J., McFadden, A., Bastos, M. H., Campbell, J., Channon, A. A., Cheung, N. F., McCormick, F., et al. (2014). Midwifery and quality care: findings from a new evidence-informed framework for maternal and newborn care. *The Lancet*, 384(9948), 1129-1145.
- Rotterdam wins a national prize for the most child friendly city initiative, European Network Child Friendly City. from <http://www.childinthecity.eu/2010/11/04/rotterdam-adopts-a-tool-to-design-livable-city>(검색일 2016년 8월 30일).
- Sandtrock, J. W. (2012). *Child Development*(Thirteenth Ed.). New York, NY: McGraw-Hill Companies.
- Tzanakis, M. (2013). Social capital in Bourdieu's, Coleman's and Putnam's theory: empirical evidence and emergent measurement issues. *Educate*, 13(2), 2-23.
- van den Berg, M. (2013). City children and genderfied neighbourhoods: The new generation as urban regeneration strategy.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37(2), 23-536.

[참고 사이트]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familynet.or.kr/index.jsp>(검색일 2016년 6월 13일).

공공데이터포털 <https://www.data.go.kr>(검색일 2016년 5월 27일). 전국 경찰관서 주소(2014년 기준).

공공보건포털 G-Health 웹사이트 <http://www.g-health.kr>(검색일 2016년 5월 27일). 보건소 수(2016년 1월 기준).

교통사고분석시스템 홈페이지 <http://taas.koroad.or.kr>(검색일 2016년 6월 17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검색일 2016년 5월 3일, 5월 9일, 6월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홈페이지 <http://hi.nhis.or.kr>(검색일 2016년 6월 14일, 7월 22일).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ndti.go.kr>(검색일 2016년 5월 9일).

네덜란드 정부 홈페이지 www.rijksoverheid.nl(검색일 2016년 9월 27일).

네덜란드 임신과 출산 홈페이지 www.deverloeskundige.nl(검색일 2016년 9월 27일).

네덜란드 로테르담 홈페이지 <http://www.rotterdam.nl/childrengzonenprz>(검색일 2016년 11월 30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검색일 2016년 5월 11일).

복지로 <http://www.bokjiro.go.kr>(검색일 2016년 5월 3일).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 <http://www.police.go.kr>(검색일 2016년 7월 19일).

서울시 유아교육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seoul-i.go.kr>(검색일 2016년 5월 3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ccfsm.foodnara.go.kr>(검색일 2016년 5월 2일).

유치원알리미 홈페이지 <http://e-chilidschoolinfo.moe.go.kr>(검색일 2016년 7월 15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central.childcare.go.kr/ccef/main.jsp>(검색일 2016년 5월 10일, 2016년 6월 13일).

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 <http://www.e-gen.or.kr/moonlight/main.do>(검색일 2016년 6월 14일).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홈페이지 <https://www.icareinfo.info>(검색일 2016년 4월 13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kihf.or.kr/lay1/S1T103C207/contents.do>
(검색일 2016년 6월 13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 <http://kess.kedi.re.kr>(검색일 2016년 6월 15일, 10월 31일).

한국보육진흥원 공공형어린이집 홈페이지 <https://www.kcpi.or.kr>(검색일 2016년 5월 9일).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홈페이지 <http://kaswc.or.kr>(검색일 2016년 5월 3일, 2016년 6월 13일).

Abstract

Analysis of locally tailored childcare support policies

Eun Jin Kang Haemi Yoo Jiyeon Yun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provide childcare support to increase birthrate by focusing on supportive childcare environment. This study reflects countrywide assessment for childcare environment and consumer satisfaction and needs to suggest policy plans for customized childcare support services.

This study defines environment as civil infrastructure supported by childcare policy and examines countrywide childcares support environment by emphasizing on physical environments. Professional advisors divided childcare support environment into 6 domains such as Preschool Education and Childcare, (Total)Childcare Services, (Customized)Care Support Services, Cultural Infrastructure, Health and Medical Services, and Safety Management and Security, and examined suitability of each domain's components and evaluation criteria. Based on evaluation criteria, we looked at childcare environment of each district from 252 municipalities and presented it as a map through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Nextly, the upper and lower district were selected based on the size of the district and 1,200 parents of young children were asked about their user satisfaction and policy demands about childcare environment. Also the case of child-friendly city of Korea and the case of Rotterdam city of Netherlands are presented to examine and push for the organizational system and achievement management system of child-friendly city.

The overall result of childcare environment evaluation has a large deviation and there were many districts with low supplies. Thus, supply policy plans concerning the size of the district and the ratio of young

children need to be considered. The result of parent survey showed high utilization ratio and high levels of satisfaction in Preschool Education and Childcare domain, and due to unused ratio it was difficult to investigate Childcare Services and Care Support Services domain. Except for some of the components in Cultural Infrastructure and Health and Medical Services domains the overall satisfaction was high. The levels of satisfaction was low in Safety Management and Security domain where improvement is needed. Additionally when looking at parent's demands for improvements on childcare environment, it was apparent that they thought childcare support organizations and services were very insufficient in their districts. They believed the most important thing needed to make the child-friendly environment is the reliable education and childcare center and also believed in the need for improved access to infrastructure.

We suggested policy improvement plans about childcare support considering the level of supply and parental satisfaction in each childcare environment district, and also suggested improvement plans that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can act on for integrated management of childcare services.

부 록

부록 1. 시군구별 영유아비율

부록 2. 지역 맞춤형 육아 지원 방안 전문가 설문지

부록 3. 지역 맞춤형 육아 지원 방안 부모 설문지

부록 4. 지역 명칭 표기 지도

부록 5. 육아지원환경 평가 지도

부록 6. 지역 규모별 육아지원환경 공급 최소 기준

부록 1. 시군구별 영유아비율

지역명	영아 비율	지역명	영아 비율	지역명	영아 비율			
서울	종로구	0.034	경기	안양시 동안구	0.052	전북	전주시 덕진구	0.056
	중구	0.041		부천시 원미구	0.052		군산시	0.057
	용산구	0.044		부천시 소사구	0.049		익산시	0.049
	성동구	0.049		부천시 오정구	0.044		정읍시	0.040
	광진구	0.043		광명시	0.059		남원시	0.041
	동대문구	0.044		평택시	0.061		김제시	0.037
	중랑구	0.045		동두천시	0.052		완주군	0.061
	성북구	0.047		안산시 상록구	0.051		진안군	0.040
	강북구	0.041		안산시 단원구	0.050		무주군	0.037
	도봉구	0.043		고양시 덕양구	0.056		장수군	0.041
	노원구	0.046		고양시 일산동구	0.047		임실군	0.035
	은평구	0.047		고양시 일산서구	0.052		순창군	0.037
	서대문구	0.044		과천시	0.045		고창군	0.033
	마포구	0.049		구리시	0.050		부안군	0.034
	양천구	0.045		남양주시	0.063		목포시	0.057
	강서구	0.054		오산시	0.080		여주시	0.052
	구로구	0.056		시흥시	0.056		순천시	0.052
	금천구	0.042		군포시	0.061		나주시	0.053
	영등포구	0.049		의왕시	0.056		광양시	0.065
	부산	동작구		0.048	하남시		0.061	담양군
관악구		0.040	용인시 처인구	0.054	곡성군	0.031		
서초구		0.054	용인시 기흥구	0.073	구례군	0.034		
강남구		0.045	용인시 수지구	0.065	고흥군	0.025		
송파구		0.051	과주시	0.066	보성군	0.039		
강동구		0.048	이천시	0.062	화순군	0.039		
중구		0.029	안성시	0.057	장흥군	0.033		
서구		0.032	김포시	0.074	강진군	0.043		
동구		0.030	화성시	0.084	해남군	0.048		
영도구		0.033	광주시	0.066	영암군	0.057		
부산진구		0.043	양주시	0.058	무안군	0.058		
동래구		0.043	포천시	0.044	함평군	0.035		
남구		0.043	여주시	0.048	영광군	0.045		
북구		0.048	연천군	0.049	장성군	0.048		
해운대구		0.048	가평군	0.039	완도군	0.044		
사하구		0.048	양평군	0.042	진도군	0.039		
금정구		0.037	춘천시	0.050	신안군	0.031		
강서구		0.094	원주시	0.053	포항시 남구	0.054		
연제구		0.046	강릉시	0.042	포항시 북구	0.054		
수영구		0.041	동해시	0.049	경주시	0.043		
사상구	0.046	태백시	0.044	김천시	0.049			
기장군	0.084	속초시	0.047	안동시	0.050			
대구	중구	0.045	삼척시	0.039	구미시	0.069		
	동구	0.054	홍천군	0.039	영주시	0.040		

지역명	영아 비율	지역명	영아 비율	지역명	영아 비율		
인	서구	0.036	충북	횡성군	0.031	영천시	0.039
	남구	0.036		영월군	0.029	상주시	0.035
	북구	0.054		평창군	0.033	문경시	0.041
	수성구	0.041		정선군	0.034	경산시	0.056
	달서구	0.051		철원군	0.048	군위군	0.024
	달성군	0.069		화천군	0.053	의성군	0.025
천	중구	0.060		양구군	0.054	청송군	0.029
	동구	0.051		인제군	0.057	영양군	0.032
	남구	0.048		고성군	0.031	영덕군	0.031
	연수구	0.058		양양군	0.032	청도군	0.025
	남동구	0.060		청주시 상당구	0.051	고령군	0.040
	부평구	0.051		청주시 서원구	0.056	성주군	0.035
	계양구	0.050	청주시 흥덕구	0.062	칠곡군	0.065	
	서구	0.066	청주시 청원구	0.075	예천군	0.037	
	강화군	0.029	충주시	0.045	봉화군	0.036	
	웅진군	0.036	제천시	0.044	울진군	0.044	
광	동구	0.042	보은군	0.032	울릉군	0.031	
	서구	0.050	옥천군	0.037	창원시 의창구	0.053	
	남구	0.049	영동군	0.033	창원시 성산구	0.054	
	북구	0.052	증평군	0.066	창원시 마산합포구	0.048	
주	광산구	0.071	진천군	0.056	창원시 마산회원구	0.050	
	동구	0.051	괴산군	0.023	창원시 진해구	0.073	
	중구	0.048	음성군	0.051	진주시	0.053	
	서구	0.054	단양군	0.029	통영시	0.059	
대	유성구	0.072	천안시 동남구	0.059	사천시	0.054	
	대덕구	0.048	천안시 서북구	0.068	김해시	0.064	
	중구	0.055	공주시	0.037	밀양시	0.036	
울	남구	0.051	보령시	0.042	거제시	0.082	
	동구	0.071	아산시	0.079	양산시	0.066	
	북구	0.074	서산시	0.061	의령군	0.031	
	울주군	0.058	논산시	0.041	함안군	0.050	
세	세종시	0.085	충남	계룡시	0.061	창녕군	0.036
	수원시 장안구	0.052	당진시	0.069	고성군	0.040	
경	수원시 권선구	0.063	금산군	0.037	남해군	0.024	
	수원시 팔달구	0.046	부여군	0.031	하동군	0.029	
	수원시 영통구	0.072	서천군	0.031	산청군	0.033	
	성남시 수정구	0.045	청양군	0.032	함양군	0.033	
	성남시 중원구	0.048	홍성군	0.048	거창군	0.041	
	성남시 분당구	0.056	예산군	0.033	합천군	0.027	
	의정부시	0.050	태안군	0.036	제주시	0.062	
안양시 만안구	0.048	전북	전주시 완산구	0.052	서귀포시	0.050	

주: 각 연령 주민등록인구현황(2016년 5월 기준).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검색일 2016년 6월 7일).

부록 2. 지역 맞춤형 육아 지원 방안 전문가 설문지

『지역맞춤형 육아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육아지원환경 평가 영역 및 요소 조사-전문가용』

설문조사 참여 동의서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국무총리산하 경제사회인문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으로 「출산수준제고와 일·가정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내실화 방안(VI): 지역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 연구」란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과제를 위해 육아지원환경의 평가 영역 및 요소의 적합성에 관한 전문가님의 의견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요청내용 : 육아지원환경 평가 영역 및 요소 등에 관한 설문조사
 - 조사목적 : 육아지원환경 평가를 통한 지역 간 차이 파악
 - 조사기간 : 2016. 4. 29 ~ 2016. 5. 16
 - 조사대상 : 유아교육, 보육, 사회복지, 여성학 관련 전문가
 - 조사방법 : 이메일을 통한 설문조사
 - 응답소요시간: 약 25~30분
 - 조사참여에 따른 이익 : 지역사회의 육아지원환경 평가의 기준 제시
 - 조사참여에 따른 보상 : 조사 참여 후, 답례비(약 70,000원)를 지급함
 - 개인정보와 비밀보장 : 연락처는 설문조사 조사 품질 관련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연구종료 후 바로 폐기함.
 - 연구참여 도중 중도 탈락 : 본 연구는 귀하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귀하가 하는 연구에 참여하신 후에도 언제든지 도중에 그만둘 수 있으며 해당 자료는 즉시 폐기되고,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담당 연구원에게 즉시 연락하여 주십시오.
 - 조사기관 : 육아정책연구소
 - 담당자 연락처 : 윤지연 연구원(02-398-7758, sunflower@kicce.re.kr)
- ※ 동의하신 후에는 조사가 진행되므로 신중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본 설문 목적, 방법, 진행과정 등을 확인하셨습니다. 참여에 동의하십니까?

- 1) 동의합니다 ____ 2) 동의하지 않습니다. ____

귀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통계자료로 부호화됩니다. 부호화된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시는 데 동의하십니까?(개인신분 및 비밀보장)

- 1) 동의합니다 ____ 2) 동의하지 않습니다. ____

설문조사 참여 동의를 위해 전문가님의 성함을 한글로 조사지에 적어주십시오.

<제3자 정보제공 동의>		
<p>육아정책연구소는 국무조정실산하의 국책연구기관으로,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개인정보 제외)이 연구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통계 처리 후 익명화하여 제공될 것입니다. 이상의 제3자 정보제공에 대해 동의하시면, 확인란에 서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p>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확인
		성명: _____ (인)

『지역맞춤형 육아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육아지원환경 평가 영역 및 요소 조사- 전문가용』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소는 2016년 연구과제로 「출산수준제고와 일·가정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내실화 방안(VI): 지역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 연구」란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육아지원환경’의 지역 간 차이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지역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그 기준이 되는 평가 영역과 요소에 관한 전문가님의 의견을 조사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사지는 육아지원환경을 여섯 개의 평가 영역에 따라 구분하고, 각 영역별로 하위 요소를 두어 육아지원환경으로서 적합한 평가요소인지를 문의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요소들은 선행연구를 기초로 마련되었으며, 1) 공공 서비스, 2) 시·군·구 단위에서 수집 가능 자료를 기초로 추출하고, 지역 간 비교를 위해 산출 방식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본 조사는 육아지원환경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본 연구 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본 조사에 응답하시는 모든 전문가님의 정보는 통계법에 의거해 아이디와 코드를 부여하여 처리하므로 소중한 개인정보 및 기관 자료에 대한 비밀이 보장됩니다.

본 조사는 약 25~30분 정도 소요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어 육아지원 정책의 개선을 위한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연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 4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우남희 올림

※ 조사진행 문의처 : 육아정책연구소

조사내용 문의처 : 윤지연 연구원(02-398-7758, sunflower@kicce.re.kr)

※ 본 설문지에 제시된 평가 영역과 평가 요소는 선행연구의 분석을 기초로 육아지원을 위한 환경을 크게 여섯 가지 평가영역으로 범주화하고, 각 평가 영역별 요소들을 기관수, 담당인력 규모 등으로 세분화한 후, 산출방식을 제시하였습니다. 여섯 개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영유아 교육보육 영역
- 2)(종합)육아지원서비스 영역
- 3)(맞춤형)돌봄지원 영역
- 4)문화인프라 영역
- 5)보건의료서비스 영역
- 6)영유아 안전관리보호 영역

※ 각 문항에 제시되는 보기 중 귀하의 의견을 표기하고, 관련 정보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각 항목 별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V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7점 척도)

I. 영유아 교육보육 영역

문5. '영유아 교육보육' 영역에 속한 다음의 요소별 항목이 지역의 육아지원 여건을 평가하기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항목에 대한 산출 방법은 아래 문항 5-1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문5. 영·유아 교육·보육 영역									
	요소	항목	최고 부적합 ← → 최고 적합						
가	유치원	유치원 공급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유치원 정원충족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나	국공립 유치원	국공립유치원 공급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국공립유치원 정원충족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다	어린이집	어린이집 공급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라	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공급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국공립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마	공공형 어린이집	공공형 어린이집 공급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공공형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5-1. '영유아 교육보육' 영역 내 각 요소의 산출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출방식이 적절한지 평가해 주시고 부적절하다면, 적절한 산출방식을 제안해 주십시오.

※ 적절, 부적절을 평가하여 항목에 V 표시를 해주십시오. 산출방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비고'란에 적어주십시오.

	항목	산출방식	적절	부적절	비고
가-1	유치원 공급률	$\frac{\text{유치원 정원}}{\text{3-6세 주민등록인구 수}} \times 100$			
가-2	유치원 정원충족률	$\frac{\text{유치원현원수}}{\text{유치원 정원수}} \times 100$			
나-1	국공립유치원 공급률	$\frac{\text{국공립유치원 정원}}{\text{3-6세 주민등록인구 수}} \times 100$			

나-2	국공립유치원 정원충족률	$\frac{\text{국공립유치원현원수}}{\text{국공립유치원정원수}} \times 100$			
다-1	어린이집 공급률	$\frac{\text{어린이집정원}}{0-6\text{세주민등록인구수}} \times 100$			
다-2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frac{\text{어린이집현원수}}{\text{어린이집정원수}} \times 100$			
라-1	국공립어린이집 공급률	$\frac{\text{국공립어린이집정원}}{0-6\text{세주민등록인구수}} \times 100$			
라-2	국공립어린이집 정원충족률	$\frac{\text{국공립어린이집현원수}}{\text{국공립어린이집정원수}} \times 100$			
마-1	공공형어린이집 공급률	$\frac{\text{공공형어린이집정원}}{0-6\text{세주민등록인구수}} \times 100$			
마-2	공공형어린이집 정원충족률	$\frac{\text{공공형어린이집현원수}}{\text{공공형어린이집정원수}} \times 100$			
기타	국공립유치원·국공립어린이집 공급률	$\frac{\text{국공립유치원정원} + \text{국공립어린이집정원}}{0-6\text{세주민등록인구수}} \times 100$			

문5-2. 추가로 포함되어야 할 요소가 있다면, 추가 요소에 관련된 항목, 이유, 산출방식 등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육아지원환경의 지역 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군구 단위의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요소만 추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육교사 1급, 유치원교사 1급 비율, 교원대비 영유아수, 평가인증 기관 수, 다문화어린이집, 장애통합어린이집 등)

추가 요소	추가 항목	추가 이유	산출방식

II. (종합)육아지원서비스 영역

문6. '(종합)육아지원서비스' 영역에 속한 요소가 지역의 육아지원 여건을 평가하기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항목에 대한 산출 방법은 아래 문항 6-1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문6. (종합)육아지원서비스 영역									
	요소	항목	최고 부적합 ← → 최고 적합						
가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공급수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나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공급수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다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공급수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라	유아교육진흥원	시도유아교육진흥원 공급수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6-1. ‘(종합)육아지원 서비스’ 영역에 산출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적절한지 평가해 주시고 부적절하다면, 적절한 산출방식을 제안해 주십시오.
 ※ 적절, 부적절을 평가하여 항목에 V 표시를 해주십시오. 산출방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비고’란에 적어주십시오.

	항목	산출방식	적절	부적절	비고
가	지역아동센터 공급수준	$\frac{\text{지역아동센터 수}}{(\text{지역})18\text{세 이하 학령기 인구 수}} \times 100$			
나	육아종합지원센터 공급수준	$\frac{\text{육아종합지원센터(교육원) 수}}{0-6\text{세 주민등록인구 수}} \times 100$			
다	건강가정지원센터 공급수준	$\frac{\text{건강가정지원센터(교육원) 수}}{0-6\text{세 주민등록인구 수}} \times 100$			
라	유아교육 진흥원 공급수준	$\frac{\text{유아교육진흥원 수}}{3-6\text{세 주민등록인구 수}} \times 100$			

문6-2. 추가로 포함되어야 요소가 있다면, 추가 요소에 관련된 항목, 이유, 산출방식 등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육아지원환경의 지역 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군구 단위의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요소만 추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요소	추가 항목	추가 이유	산출방식

III. (맞춤형)돌봄지원 영역

문7. ‘(맞춤형)돌봄지원’ 영역에 속한 다음의 요소별 항목이 지역의 여건을 평가하기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항목에 대한 산출 방법은 아래 문항 7-1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문7. (맞춤형)돌봄지원 영역									
	요소	항목	최고 부적합 ←					→ 최고 적합	
가	시간제보육	시간제보육 운영 기관 공급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시간제보육 인력 규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나	시간연장보육	시간연장보육 운영 기관 공급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시간연장보육 인력 규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다	24시간보육	24시간보육 운영 기관 공급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4시간보육 운영 인력 규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라	휴일보육	휴일보육 운영 기관 공급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휴일보육 운영 인력 규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마	온종일 돌봄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기관 공급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인력 규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바	산모신생아도우미	산모신생아도우미 공급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산모신생아도우미 인력규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	아이돌보미서비스	아이돌보미 인력규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아	공동육아나눔터 (가족돌봄나눔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기관 공급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공동육아나눔터 인력규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자	워킹맘워킹대디 센터	워킹맘워킹대디 센터 공급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7-1. ‘(맞춤형)돌봄지원’ 영역에 산출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적절한지 평가해 주시고 부적절하다면, 적절한 산출방식을 제안해 주십시오.

※ 적절, 부적절을 평가하여 항목에 V 표시를 해주십시오. 산출방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비고’란에 적어주십시오.

	항목	산출방식	적절	부적절	비고
가-1	시간제보육 운영 기관 공급률	$\frac{\text{시간제 보육 운영 기관 개수}}{(\text{지역})0-6\text{세 주민등록인구수}} \times 100$			
가-2	시간제보육 인력규모	$\frac{\text{시간제 보육 담당 인력 수}}{(\text{지역})0-6\text{세 주민등록인구수}} \times 100$			
나-1	시간연장보육 공급률	$\frac{\text{시간연장보육 운영 기관 개수}}{(\text{지역})0-6\text{세 주민등록인구수}} \times 100$			
나-2	시간연장보육 인력 규모	$\frac{\text{시간연장보육 담당 인력 수}}{(\text{지역})0-6\text{세 주민등록인구수}} \times 100$			
다-1	24시간보육 공급률	$\frac{\text{24시간보육 운영 기관 개수}}{(\text{지역})0-6\text{세 주민등록인구수}} \times 100$			
다-2	24시간보육 인력 규모	$\frac{\text{24시간보육 담당 인력 수}}{(\text{지역})0-6\text{세 주민등록인구수}} \times 100$			
라-1	휴일보육 공급률	$\frac{\text{휴일 보육 운영 기관 개수}}{(\text{지역})0-6\text{세 주민등록인구수}} \times 100$			
라-2	휴일보육 인력 규모	$\frac{\text{휴일 보육 담당 인력 수}}{(\text{지역})0-6\text{세 주민등록인구수}} \times 100$			
마-1	온종일 돌봄 운영 기관 공급률	$\frac{\text{온종일 돌봄 운영 기관 개수}}{(\text{지역})3-6\text{세 주민등록인구수}} \times 100$			
마-2	온종일 돌봄 운영 인력 규모	$\frac{\text{온종일 돌봄 담당 인력 수}}{(\text{지역})3-6\text{세 주민등록인구수}} \times 100$			
바-1	신생아 도우미 공급률	$\frac{\text{신생아도우미 기관 수}}{(\text{지역})0-1\text{세 주민등록인구수}} \times 100$			

바2	신생아도우미 인력 규모	$\frac{\text{신생아도우미인력수}}{(\text{지역})0-1\text{세주민등록인구수}} \times 100$			
아	공동육아나눔터 인력 규모	$\frac{\text{공동육아나눔터담당인력수}}{(\text{지역})0-6\text{세주민등록인구수}} \times 100$			
자	워킹맘·워킹대디 센터 공급률	$\frac{\text{워킹맘·워킹대디센터기관개수}}{(\text{지역})0-6\text{세주민등록인구수}} \times 100$			

문7-2. 추가로 포함되어야 요소가 있다면, 추가 요소에 관련된 항목, 이유, 산출방식 등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육아지원환경의 지역 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군구 단위의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요소만 추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요소	추가 항목	추가 이유	산출방식

IV. 문화인프라 영역

문8. '문화인프라' 영역에 속한 다음의 요소별 항목이 지역의 육아지원 여건을평가하기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항목에 대한 산출 방법은 아래 문항 8-1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문8. 문화 인프라 영역									
	요소	항목	최고 부적합 ←					→ 최고 적합	
가	어린이놀이시설(놀이터)	어린이놀이시설 공급수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나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공급수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다	어린이 도서관(일반 도서관내 부설 어린이도서관 포함)	어린이 도서관 공급수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라	장난감 도서관(육아종합지원센터 내 건립기관 포함)	장난감 도서관 공급수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마	문화복합시설(구민회관, 아동회관, 여성회관, 청소년 수련관 등)	문화복합시설 공급수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바	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 공급수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	박물관(어린이 박물관 포함)	박물관 공급수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아	미술관(어린이 미술관 포함)	미술관 공급수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자	공원	공원 공급수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8-1. '문화인프라' 영역에 산출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적절한지 평가해 주시고 부적절하다면, 적절한 산출방식을 제안해 주십시오.

※ 적절, 부적절을 평가하여 항목에 V 표시를 해주십시오. 산출방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비고'란에 적어주십시오.

	항목	산출방식	적절	부적절	비고
가	어린이놀이시설 (놀이터) 공급수준	$\frac{\text{어린이놀이시설(놀이터) 개수}}{0-6\text{세 주민등록인구 수}} \times 100$			
나	어린이 공원 공급수준	$\frac{\text{어린이 공원 면적}}{0-6\text{세 주민등록인구 수}} \times 100$			
다	어린이 도서관 공급수준	$\frac{\text{어린이 도서관 개수}}{0-6\text{세 주민등록인구 수}} \times 100$			
라	장난감 도서관 공급수준	$\frac{\text{장난감 도서관 개수}}{0-6\text{세 주민등록인구 수}} \times 100$			
마	문화복합시설 공급수준	$\frac{\text{문화복합시설 개수}}{0-18\text{세 주민등록인구 수}} \times 100$			
바	사회복지관 공급수준	$\frac{\text{사회복지기관}}{(\text{지역})\text{주민등록 전체 인구 수}} \times 100$			
사	박물관 공급수준	$\frac{\text{박물관 개수}}{(\text{지역})\text{주민등록 전체 인구 수}} \times 100$			
아	미술관 공급수준	$\frac{\text{미술관 개수}}{(\text{지역})\text{주민등록 전체 인구 수}} \times 100$			
자	공원 공급수준	$\frac{\text{공원 면적}}{(\text{지역})\text{주민등록 전체 인구 수}} \times 100$			

문8-2. 추가로 포함되어야 할 요소가 있다면, 추가 요소에 관련된 항목, 이유, 산출방식 등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육아지원환경의 지역 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군구 단위의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요소만 추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요소	추가 항목	추가 이유	산출방식

V. 보건의료서비스 영역

문9. 보건의료서비스 영역에 속한 다음의 요소별 항목이 지역의 육아지원 여건을 평가하기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항목에 대한 산출 방법은 아래 문항 9-1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문9. 보건의료서비스 영역									
	요소	항목	최고 부적합 ←					→ 최고 적합	
가	보건소	보건소 공급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나	소아청소년과(병의원)	소아청소년과 공급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다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기관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 기관 비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라	어린이 전문 병원 (달빛 어린이 병원 등)	어린이 전문병원 공급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마	예방접종	예방접종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9-1. '보건의료서비스' 영역에 산출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적절한지 평가해 주시고 부적절하다면, 적절한 산출 방식을 제안해 주십시오.
 * 적절, 부적절을 평가하여 항목에 V 표시를 해주십시오. 산출방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비고'란에 적어주십시오.

	항목	산출방식	적절	부적절	비고
가	보건소 공급률	$\frac{\text{보건소 수}}{\text{주민등록 인구 수}} \times 100$			
나	소아청소년과(병의원) 공급률	$\frac{\text{소아청소년과기관 수}}{\text{0-18세 주민등록 인구 수}} \times 100$			
다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 기관 비율	$\frac{\text{영유아 건강검진 실시기관 수}}{\text{병원총기관 수}} \times 100$			
라	어린이 전문 병원 공급률	$\frac{\text{어린이 전문 병원 수}}{\text{병원총기관 수}} \times 100$			
마	예방접종률	예방접종률			

문9-2. 추가로 포함되어야 할 요소가 있다면, 추가 요소에 관련된 항목, 이유, 산출방식 등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육아지원환경의 지역 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군구 단위의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요소만 추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요소	추가 항목	추가 이유	산출방식

VI. 영유아 안전관리·보호 영역

문10. '영유아 안전·보호' 영역에 속한 다음의 요소별 항목이 지역의 육아지원 여건을 평가하기에 적합한지의 정도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항목에 대한 산출 방법은 아래 문항 10-1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문10. 영유아 안전·보호 영역									
	요소	항목	최고 부적합			최고 적합			
가	보행환경	보행자전용도로의 길이 또는 면적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보행자우선도로의 길이 또는 면적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진단 비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다	안전 체험 교육(소방, 교통)	안전 체험 교육수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라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공급수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마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공급수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담당 인력 규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바	학대피해아동쉼터	학대피해아동쉼터 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10-1. '영유아 안전·보호' 영역에 산출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적절한지 평가해 주시고 부적절하다면, 적절한 산출방식을 제안해 주십시오.

※ 적절, 부적절을 평가하여 항목에 V 표시를 해주십시오. 산출방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비고'란에 적어주십시오.

	항목	산출방식	적절	부적절	비고
가	보행자전용도로의 길이 또는 면적률	$\frac{\text{보행자전용(우선)도로의 길이 또는 면적}}{(\text{지역})\text{주민등록인구수}} \times 100$			
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율	$\frac{\text{어린이놀이시설안전점검수}}{\text{어린이놀이시설설치수}} \times 100$			
다	안전 체험 교육 공급수준	$\frac{\text{안전 체험 교육 기관 수}}{(\text{지역})0-6세 주민등록인구수} \times 100$			
라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공급수준	$\frac{\text{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 센터 수}}{0-6세 주민등록인구수} \times 100$			
마-1	아동보호전문기관 공급수준	$\frac{\text{아동 보호 전문 기관 수}}{(\text{지역})18세 미만 주민등록인구수} \times 100$			
마-2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인력 규모	$\frac{\text{아동 보호 전문 기관 상담원 수}}{(\text{지역})18세 미만 주민등록인구수} \times 100$			
바	학대아동피해쉼터	$\frac{\text{학대아동피해쉼터 수}}{(\text{지역})18세 미만 주민등록인구수} \times 100$			

문10-2. 추가로 포함되어야 할 요소가 있다면. 추가 요소에 관련된 항목, 이유, 산출방식 등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육아지원환경의 지역 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군구 단위의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요소만 추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요소	추가 항목	추가 이유	산출방식

VII. 평가영역별 중요도

문11. 다음은 위에서 응답한 평가영역이 육아지원을 위한 환경 조성에 어느 정도 중요한지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구분	영역	전혀 중요하지 않음 ←→ 매우 중요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	영유아 교육보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종합)육아지원 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맞춤형) 돌봄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문화인프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보건의료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영유아 안전관리·보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12. 육아지원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한 평가 영역과 요소 구성 시 추가로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면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영역의 명칭 등)

구분	평가영역	평가요소
1		
2		
3		
4		

♣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부록 3. 지역 맞춤형 육아 지원 방안 부모 설문지

ID 부모용지역 맞춤형 육아 지원 방안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 관련 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국가 정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조사는 2016년 연구과제 「출산수준 제고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내실화 방안(VI): 지역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의 육아지원환경 평가를 통해 지역 간 차이를 파악하고, 지역 규모와 특성에 맞는 육아지원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 육아지원환경이란?

영유아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사회의 물적 환경(인프라)으로, 본 연구에서는 민간사업(예. 문화센터와 키즈카페 등)을 제외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반영된 **공공 인프라로 범위를 제한하여** 연구하고자 합니다.

영유아의 부모에게 최적의 육아지원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귀하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 응답은 약 25-30분 정도 소요되며, 모든 문항에는 맞고 틀리는 정답이 없으므로 귀하의 솔직한 의견을 있는 그대로 대답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통계자료 작성 및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고, 개인정보 및 비밀이 보장되며, 조사결과를 연구목적 이외에 어떤 용도로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6년 8월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본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주관기관: 육아정책연구소- 주관기관: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책임자 강은진
전화번호: 02-398-7779 E-MAIL: ejkang@kicce.re.kr
- 공동연구자 윤지연
전화번호: 02-398-7758 E-MAIL: sunflower@kicce.re.kr
- 조사대행기관: (주)한국리서치 차장 김수진
전화번호: 02-3014-0982 E-MAIL: sujinkim@hrc.co.kr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모대상 설문조사]

“출산수준제고와 일·가정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내실화

방안(VI): 지역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

연구 참여 설명문

안녕하십니까?

본 연구는 영유아 부모의 양육을 돕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입니다.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설명문과 동의서를 신중하게 읽어보셔야 합니다. 이 연구가 왜 수행되며, 무엇을 수행하는지 귀하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것입니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에게 연락 시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 **연구의 목적** : 귀하가 거주하시는 지역의 육아지원환경의 설문을 통해 지역의 육아 인프라에 대한 부모님의 만족도를 살펴보고 육아지원환경 정책에 대한 지역의 요구를 파악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대 상** : 본 연구에는 영유아기 자녀를 가진 부모 1,200명이 참여할 것입니다.
- **연구의 참여 절차** : 만일 귀하께서 참여의사를 밝혀 주시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진행될 것입니다. 거주 지역이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인지에 대한 만족도, 자녀 양육에 있어 육아지원환경의 중요도 등에 관한 설문문항에 답하시면 됩니다. 조사는 25~30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 **참 여 기 간** : 2016. 8 ~ 2016. 9
- **장 소** : 가구 조사
- **연구참여에 따른 보상**: 조사 완료시에는 감사의 뜻으로 7,000원 상당의 선물이 지급될 것입니다.
- **연구참여에 따른 위험성 및 이익**: 본 조사를 통해 조사참여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없습니다.
- **개인정보와 비밀보장**: 본 연구의 참여로 귀하에게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응답자 성명, 전화번호입니다. 이 정보는 선물 지급 및 응답 확인용이며, 수집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리됩니다. 관련 정보는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책임자 연구실과 조사업체의 잠금장치가 있는 저장장치에 보관되며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및 연구진, 조사업체 담당자만이 접근 가능합니다. 연구진은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의사로 간주될 것입니다.
- **제3자 정보제공**: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공개되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자료의 보관:** 조사로부터 수집된 원자료는 통계법에 따라 시건장치가 있는 연구책임자의 저장장치에 5년간 보관되며, 이후 즉시 폐기됩니다.
- **연구참여 도중 중도 탈락 :** 귀하는 연구에 참여하신 후에도 언제든지 도중에 그만 둘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수집된 모든 정보는 중단 즉시 폐기됩니다. 만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면 담당 연구원이나 연구책임자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설문에 대한 응답이 불성실한 경우 조사가원이 설문을 중단시킬 수도 있음을 양해해 주십시오.
- **연구 문의 :**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자에게 언제든지 연락하십시오.

책임연구자 이름: 강 은 진	전화번호: 02-398-7779
공동연구자 이름: 윤 지 연	전화번호: 02-398-7758
조사담당자 이름: 김 수 진((주)한국리서치)	전화번호: 02-3014-0982
육아정책연구소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전화번호: 02-398-7737

[부모대상 설문조사]

**“출산수준제고와 일·가정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내실화
방안(VI): 지역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 연구 참여 동의서**

- 귀하의 서명은 귀하가 본 연구에 대해 그리고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들었고, 본 연구의 내용을 이해했음을 의미합니다.
- 육아정책연구소는 국무총리 산하의 국책연구기관으로,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개인정보 제외)은 연구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내용은 통계 처리 후 익명화하여 제공될 것입니다.
- 본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데 동의하시면 해당 항목에 O로 표시하고, 확인란에 서명 부탁드립니다.

성명	동의합니다	날짜(년/월/일)	확인
			(서명/인)

조사원	성명	날짜 (년/월/일)	확인	(서명/인)

※ 본 연구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책임자 강은진	전화번호: 02-398-7779	E-MAIL: ejkang@kicce.re.kr
육아정책연구소 공동연구자 윤지연	전화번호: 02-398-7758	E-MAIL: sunflower@kicce.re.kr
조사업체 (주)한국리서치 차장 김수진	전화번호: 02-3014-0982	E-MAIL: sujinkim@hrc.co.kr
육아정책연구소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전화번호: 02-398-7737	E-MAIL: kar22@kicce.re.kr



인적사항 기록 (면접원 기록)

지역 현황	지역 코드	조사 지역		
		01) 서울 중구 04) 대전 대덕구 07) 광주 서 10) 경기 과천시 13) 강원 영월군 16) 충남 당진시 19) 전북 장수군 22)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02) 서울 서초구 05) 대전 동구 08) 울산 동구 11) 수원시 권선구 14) 충북 증평군 17) 전북 남원시 20) 전남 곡성군 23) 경남 양산시	03) 부산 중구 06) 광주 동구 09) 세종시 12) 강원 고성군 15) 충북 단양군 18) 전북 김제시 21) 경북 칠곡군 24) 경남 함양군
응답자 성명		전화번호		
가구주소 (읍/면/동)		취업 및 미취업모 구분		1) 취업모 2) 비취업모

[면접원] * 면접원 인적사항은 가장 나중에 기록할 것

면접상황	면접 일시	월 일 (오전/오후) 시 분 ~ 시 분 (약 분간)		
	면접원 ID		면접원 성명	



1.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에 대한 만족도

※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에서의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 이용 경험과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에 대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1. 귀하의 자녀는 현재 어느 기관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경우
만 0세~5세,6세(취학전) 자녀 중 가장 연령이 높은 자녀를 중심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기준자녀 연령 만 _____ 세 성별 남 / 여

- ① 유치원
- ② 어린이집
- ③ 기타 반일제 이상 학원(영어학원, 놀이학교 등) ⇨문 2-1로 이동
- ④ 가정양육(기관에 다니지 않음) ⇨문 2-1로 이동

문2. 현재 이용하는 기관(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의 편리성, 질적 우수성, 경제성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비교적 그렇지 않다' 2점, '약간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 등 1점에서 4점 사이로 응답해 주십시오.

내가 이용하는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은 ~		전혀 그렇지 않다	비교적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편리성	1) 집과의 거리가 가깝다.				
	2) 운영시간이 적절하다.				
	3) 다양한 돌봄 서비스가 제공된다. (예: 유치원-온종일 돌봄, 에듀케어, 어린이집-시간연장, 휴일보육, 시간제보육 등)				
	4) 입소/입학을 위한 대기시간(기간)이 적절하다.				
질적 우수성	5) 실내외 시설구비가 잘 되어 있다.				
	6) 교육 프로그램의 질이 우수하다.				
	7) 교직원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8) 급간식 관리 및 질을 믿을 만하다.				
경제성	9) 시설 이용 비용이 적절하다.				

⇨문 3으로 이동

문2-1. 응답대상 자녀가 현재 기관(유치원 혹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주 양육자(엄마가 직접 등)가 직접 양육하고 싶어서
- ② 아직 어린 나이이므로 가정에서 돌보고 싶어서
- ③ 양육수당이 가계경제에 도움이 되어서
- ④ 유치원 혹은 어린이집 경비가 부담이 되어서
- ⑤ 가족 내 어른이 많아 대리 양육이 가능해서
- ⑥ 아이가 원하지 않아서
- ⑦ 원하는 유치원 혹은 어린이집에 가지 못해서
- ⑧ 기타(_____)

문2-2. 향후 기관(유치원 혹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 ① 예 ☞ 문2-2-1로 이동
- ② 아니오 ☞ 문3으로 이동

문2-2-1. 향후 기관(유치원 혹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계획이 있다면 응답대상 자녀가 몇 세부터 보낼 계획이십니까?

- ① 12개월 미만
- ② 13개월 이상~24개월 미만
- ③ 24개월 이상~36개월 미만
- ④ 만 3세
- ⑤ 만 4세
- ⑥ 만 5세 이상
- ⑦ 원하는 곳의 입학이 가능해지는 대로



II. 육아지원 기관에 대한 만족도

※ 다음은 가정에서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지원 기관입니다. 각 기관의 운영 목적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에서의 이용 경험과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에 대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기카드를 참고해 주세요.]

[기관별 운영 목적]

기관명	운영목적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지원 기능과 가정양육 지원 기능의 지역내 One-stop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학생의 학교적응 및 학업능력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지원하는 곳
유아교육진흥원 또는 유아체험교육원	다양한 체험교육을 통한 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는 곳

문3. 다음 중 귀하가 사는 지역에서 이용해 본 기관은 어느 곳입니까? (중복응답가능)

- ① 육아종합지원센터
- ② 건강가정지원센터
- ③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④ 유아교육진흥원(또는 유아체험교육원)
- ⑤ 이용해본 경험 없음 ☞ 문4-5로 이동

문4. 각 기관의 편리성, 접근성, 질적 우수성, 경제성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비교적 그렇지 않다' 2점, '약간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 등 1점에서 4점 사이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 3에서 이용해 본 기관으로 기입한 기관에 대해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비교적 그렇지 않다
- ③ 약간 그렇다
- ④ 매우 그렇다

내가 사는 지역에서 육아지원 기관은~		육아종합 지원센터	건강가정 지원센터	다문화 가족지원 센터	유아교육 진흥원 (유아체험 교육원)
편리성	1)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해 있다.				
	2) 운영시간이 적절해서 원하는 시간에 이용가능하다.				
	3) 다양한 서비스(프로그램)가 제공된다.				
질적 우수성	4) 이용 신청 후 대기시간이 짧아 원활하게 이용가능 하다.				
	5) 실내외 시설구비가 잘 되어 있다.				
	6) 기관에서 이용해 본 프로그램의 질이 우수하다.				
	7) 직원 및 담당 인력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경제성	8) 제공 도서 및 장난감의 질이 우수하다.				
	9) 서비스 이용 비용이 적절하다.				

문4-5. 육아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거나 도움을 주는 기관(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을 이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지역 내 없어서
- ② 지역에 있지만 거리가 멀어 접근성이 떨어져서
- ③ 지역에 있지만 대기가 길어 이용이 불편해서
- ④ 제공하는 정보와 자료 등 서비스의 질이 낮아서
- ⑤ 이용시간대가 제한되어 있어서
- ⑥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홍보가 덜 되어서
- ⑦ 기타(_____)

문4-5-1. 육아지원 관련 위의 기관 이외 이용해 보신 유사한 기관 및 서비스 중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었던 서비스에 어떤 것이 있었는지 가능한 상세히 작성해 주세요.

① 있음

기관명	서비스 내용

② 없음

문6-1. (맞춤형)돌봄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지역 내 이용가능한 곳이 없어서
- ② 지역에 있지만 대기가 길어 이용이 불편해서
- ③ 이용시간대가 제한되어 있어서
- ④ 이용할 필요가 없어서
- ⑤ 지역에 있지만 거리가 멀어 접근성이 떨어져서
- ⑥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낮아서
- ⑦ 이용 방법의 홍보가 덜 되어서(몰라서)
- ⑧ 기타(_____)

문6-1-1. (맞춤형)돌봄지원 서비스와 관련한 위의 서비스 이외 이용해 보신 유사한 기관 및 서비스 중에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었던 서비스로 어떤 것이 있었는지 가능한 상세히 작성해 주세요.

① 있음

기관명	서비스 내용

② 없음



IV. 문화인프라에 대한 만족도

※ 다음은 문화인프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 내의 각 시설 이용 경험과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에 대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관련 문화인프라]

어린이 놀이시설	이동되지 않는 놀이기구가 고정되어있는 놀이터
어린이 공원	어린이를 위해 시설된 공원
어린이 도서관 (일반 도서관 어린이 서가 포함)	양질의 도서 및 다양한 문화강좌 제공
장난감 도서관	장난감 대여 시설
어린이 박물관(박물관, 과학관 포함)	역사적 유물 및 예술품 수집·보존·진열
어린이 미술관(미술관 포함)	미술품 전시·진열
문화체육시설	지역문화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도, 상담 등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진행(체육센터, 스포츠파크, 체육관, 체육공원, 근린공원내 체육시설 등)
자치구 주민센터(기타 지역내 육아 관련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센터)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복지 편의 시설 및 공간
문화예술시설	지역주민에게 문화 향유 및 여가 활동, 문화 교육의 장 (문화센터, 구(군)민회관, 여성회관 등)

문7. 다음 중 귀하가 사는 지역에서 이용해 본 문화인프라(시설)는 무엇입니까? (중복응답가능)

- | | |
|-----------------------------|-------------------------|
| ① 어린이 놀이시설(놀이터) | ② 어린이 공원 |
| ③ 어린이 도서관(일반 도서관 어린이 서가 포함) | ④ 장난감 도서관 |
| ⑤ 어린이 박물관(박물관, 과학관 포함) | ⑥ 어린이 미술관(미술관 포함) |
| ⑦ 문화체육시설 | ⑧ 자치구 주민센터 |
| ⑨ 문화예술시설 | ⑩ 이용해본 경험 없음 ⇨ 문8-1로 이동 |

문8. 각 문화인프라의 편리성, 질적 우수성, 경제성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비교적 그렇지 않다' 2점, '약간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 등 1점에서 4점 사이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 7에서 이용해 본 기관(시설)으로 기입한 것에 대해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비교적 그렇지 않다 ③ 약간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내가 사는 지역의 문화인프라는~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 공원)	어린이 도서관	장난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체육 시설 (주민자치 센터 포함)
편리성	1)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해 있다.					
	2) 운영시간이 적절해서 원하는 시간에 이용가능하다.					
	3) 이용 대기시간이 짧아 원활하게 이용가능 하다.					
질적 우수성	4) 실내·외 시설구비가 잘 되어 있다.					
	5) 다양한 종류의 놀이기구/도서/장난감/작품]이 있다.					
	6)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7) 담당인력이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경제성	8) 시설 이용 비용이 적절하다.					

☞ 문8-1-1로 이동

문8-1. 육아에 도움을 주는 문화인프라(어린이 도서관, 어린이 박물관, 어린이 공원, 놀이터 등)를 이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지역 내 이용가능한 곳이 없어서
- ② 지역에 있지만 거리가 멀어 접근성이 떨어져서
- ③ 지역에 있지만 대기가 길어 이용이 불편해서
- ④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낮아서
- ⑤ 이용시간대가 제한되어 있어서
- ⑥ 이용 방법의 홍보가 덜 되어서(몰라서)
- ⑦ 기타(_____)

문8-1-1. 육아관련 문화인프라 관련 위의 시설 이외 이용해 보신 유사한 시설(서비스) 중에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었던 서비스로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가능한 상세히 작성해 주세요.

① 있음

시설명	서비스 내용

② 없음



VI. 영유아 안전관리·보호에 대한 만족도

문11.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영유아 안전관리·보호에 대해 접근성, 질적 우수성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비교적 그렇지 않다’ 2점, ‘약간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 등 1점에서 4점 사이로 응답해 주십시오.

내가 사는 지역의 영유아 안전관리·보호는~		전혀 그렇지 않다	비교적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접근성	1) 보행하는 길과 차도의 분리가 명확하게 되어있다.				
	2) 자녀가 이용하는 기관 앞에 어린이 안전도로가 지정되어 있다.				
	3) 지역에 치안예방을 위한 파출소가 설치되어 있다.				
질적 우수성	4) 교통안전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5) 아이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교육 및 체험 시설이 충분하다.				
	6)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에서 파는 먹거리가 안전하다.				
	7) 아동 범죄 예방 및 보호 및 관리가 잘 되고 있다.				

문11-1. 영유아의 안전/치안 보호·관리 및 교육과 관련하여 위의 내용 이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서비스 또는 시설이 있는지 상세히 작성해 주세요.

① 있음

서비스(시설) 내용	
------------	--

② 없음



Ⅶ. 육아지원 기관 및 서비스 종합평가

문12.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에 다음의 육아지원 기관과 서비스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불충분 하다	약간 불충분 하다	대체로 충분하다	매우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1) 교육·보육 기관(유치원, 어린이집)	①	②	③	④
2) 육아지원서비스 기관(육아종합지원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 유아체험교육원 등)	①	②	③	④
3) (맞춤형)돌봄지원 서비스(시간제·시간연장·24시간·휴일 보육, 종일 돌봄, 아이돌보미 서비스, 공동육아 나눔터, 산모신생아 돌보미)	①	②	③	④
4) 문화인프라(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도서관, 장난감도서관, 어린이 박물관, 어린이 미술관)	①	②	③	④
5) 보건·의료 서비스(보건소, 소아청소년과, 종합병원 등)	①	②	③	④
6) 안전관리·보호 서비스(보행환경, 교통사고율, 안전교육, 급식관리, 아동보호 및 쉼터, 파출소)	①	②	③	④

문13. 다음의 육아지원 기관과 서비스가 일·가정 양립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비교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약간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1) 교육·보육 기관(유치원, 어린이집)	①	②	③	④
2) 육아지원서비스 기관(육아종합지원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 유아체험교육원 등)	①	②	③	④
3) (맞춤형)돌봄지원 서비스(시간제·시간연장·24시간·휴일 보육, 종일 돌봄, 아이돌보미 서비스, 공동육아 나눔터, 산모신생아 돌보미)	①	②	③	④
4) 문화인프라(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도서관, 장난감도서관, 어린이 박물관, 어린이 미술관)	①	②	③	④
5) 보건·의료 서비스(보건소, 소아청소년과, 종합병원 등)	①	②	③	④
6) 안전관리·보호 서비스(보행환경, 교통사고율, 안전교육, 급식관리, 아동보호 및 쉼터, 파출소)	①	②	③	④

문14. 귀하는 현재 거주하는 지역이 전반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기에 어느 정도 적합한 환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다 ② 대체로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다
- ③ 약간 적합한 환경이다 ☞ 문15로 이동 ④ 매우 적합한 환경이다 ☞ 문15로 이동

문 14-1. 양육하기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기를 보고 1, 2 순위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믿고 맡길 만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부족해서
- ② 육아에 대한 정보나 교육 등 서비스 지원이 부족해서
- ③ 가정의 상황에 따른 돌봄 서비스가 부족해서
- ④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 문화 시설이 부족해서
- ⑤ 주변의 안전과 치안이 걱정돼서
- ⑥ 주변에 병원 등 의료시설이 부족해서
- ⑦ 기타(_____)

문15. 귀하는 현재 자녀를 양육하면서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해 어느 정도 어려움을 느끼십니까?

	전혀 어렵지 않다	비교적 어렵지 않다	약간 어렵다	매우 어렵다
	①	②	③	④
1) 영유아 교육(보육)기관(유치원, 어린이집)의 이용				
2) 육아관련 정보 교류가 가능한 모임의 참여				
3) 긴급한 경우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 및 유치원 돌봄 서비스 이용				
4) 자녀 양육에 대한 지식·정보를 얻는 부모교육 참여				
5) 돌보미 등 육아지원 인력 확보				
6) 지역 내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문화 시설의 이용				
7) 영유아 관련 안전·치안 관리				
8) 지역의 영유아 건강 의료기관의 서비스 이용				
9) 기타(_____)				

문16.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이 '아이 키우기 좋은 육아환경'이 되기 위해 다음의 각 항목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여기십니까?

내용		전혀 중요하지 않다	비교적 중요하지 않다	약간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영유아 교육· 보육	1) (민간 국공립 모두 포함)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치원				
	2) (민간 국공립 모두 포함)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3) 국공립 유치원				
	4) 국공립 어린이집				
	5)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 및 유치원				
	6) 자격 기준이 높은 질 높은 교사 예: 보육교사 1급, 유치원정교사 1급				
육아지원 서비스	7) 자녀 양육과 교육을 지원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8) 가족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				
	9) 부모가 필요한 시간에 이용가능한 시간제 보육 서비스				
(맞춤형) 돌봄지원 서비스	10)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이른 시간과 늦은 시간에 이용가능한 시간연장형 보육 서비스(시간연장, 24시, 휴일, 야간 등)				
	11) 유치원에서 제공하는 이른 시간과 늦은 시간에 이용가능한 온종일 돌봄 서비스				
	12) 맞벌이, 장애, 다자녀 가정 등을 위한 아이돌보미 서비스				
	13) 자녀양육 경험 및 정보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동육아 나눔터				
	14) 출산부터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돌봄 지원				
문화 인프라	15)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충분한 인력				
	16) 자녀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				
	17) 자녀와 함께 이용 가능한 어린이 공원				
	18) 자녀의 연령에 적합한 도서가 구비된 어린이 도서관				
	19) 자녀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장난감을 대여할 수 있는 장난감 도서관				
	20) 자녀와 함께 이용 가능한 영유아 체험 놀이터				
	21) 어린이 박물관, 과학관				
	22) 어린이 미술관				
보건· 의료 서비스	23) 지역에서 쉽게 이용 가능한 보건소				
	24) 영유아 건강검진이 가능한 소아청소년과, 병의원				
	25) 응급실 이용이 가능한 종합병원				
	26) 충분한 보건·의료 서비스 인력				
영유아 안전관리 ·보호	27) 안전하게 보행 가능한 보행자 전용도로의 면적				
	28) 지역의 낮은 영유아 교통사고 발생률				
	29) 소방, 교통 등의 안전 체험 교육				
	30)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31)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 쉼터				
	32)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파출소				



Ⅷ. 영유아 육아지원환경 관련 정책에 대한 개선 요구

문17. 거주하는 지역이 자녀를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개선되기 위해 다음의 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불필요하다	대체로 불필요하다	약간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1) 우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지원				
2) 육아를 위해 필요한 인프라의 접근성 확보				
3) 수요자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인프라간 중복된 서비스 점검				
4) 지역의 이용 가능한 육아지원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 홍보				
5) 가정의 육아를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6) 지역 별 차이가 없이 동등하게 이용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육아인프라 정책				
7) 지역마다 필수적인 육아인프라 설치기준 마련				
8) 출산부터 유아기까지 한 번의 등록을 통해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받는 육아인프라 정책				
9) 지역 내 주민들의 육아를 위한 공동체 의식 개선				
10) 지역 내 일가정양립을 지원하는 육아친화기업육성을 위한 지원				

문17-1. 위의 정책 지원 이외 지역사회 육아지원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나 필요한 지원이 있으면 적어주십시오.

문18.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육아지원정책의 수립 주체는 주로 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현행과 같이 중앙정부 관련 부처들이 나누어 담당(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 ② 각 업무를 총괄하는 육아지원관련 기구를 마련해 담당
- ③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군청/구청)와 지역 교육청)가 지역 특성에 맞게 자체적으로 담당
- ④ 생활단위가 되는 읍, 면, 동사무소에서 담당
- ⑤ 기타(_____)



IX. 영유아 후속 출산계획에 대한 질문

문19. 현재 자녀 외에 앞으로 자녀를 더 낳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문19-2로 이동 ② 비교적 그렇지 않다 ☞문19-2로 이동
- ③ 대체로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문19-1. 향후 출산계획이 있다면, 그 이유를 다음 보기 중 1, 2 순위로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자녀에게 형제를 만들어 주고 싶어서
- ② (가정의 경제적 안정으로) 출산하기 적절한 시기라서
- ③ 국가의 비용지원으로 양육 부담이 적어져서
- ④ 본인 또는 가족이 원해서
- ⑤ 기타(_____)

☞ 문20으로 이동

문19-2. 향후 출산계획이 없다면, 그 이유를 다음 보기 중 1, 2 순위로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아이 키우기는 데 주변의 도움을 받기 어려워서
- ② 양육비용이 부담스러워서 ③ 현재 자녀수로 만족해서
- ④ (본인 혹은 배우자의) 연령 및 건강상 이유로 ⑤ 일·가정 양립이 어려워서
- ⑥ 기타(_____)

문20. 다음의 육아지원환경은 향후 출산결정에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다	비교적 중요하지 않다	약간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1)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2) 자녀 양육·교육을 지원하는 육아지원서비스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3) 긴급한 경우 자녀를 맡길 만한 돌봄지원 육아 서비스 (시간제 보육, 아이돌봄 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4) 자녀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시설 (공원, 놀이터, 도서관, 미술관 등)				
5) 거주하는 지역의 안전·치안 관리				
6) 거주하는 지역의 의료 서비스				
7) 지역사회의 육아를 위한 공동체 의식 개선				
8) 육아를 지원하는 가족 친화적 기업				

문 20-1. 위의 언급 된 내용 이외 향후 출산결정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육아지원서비스가 있으면 적어주십시오.

① 있음

②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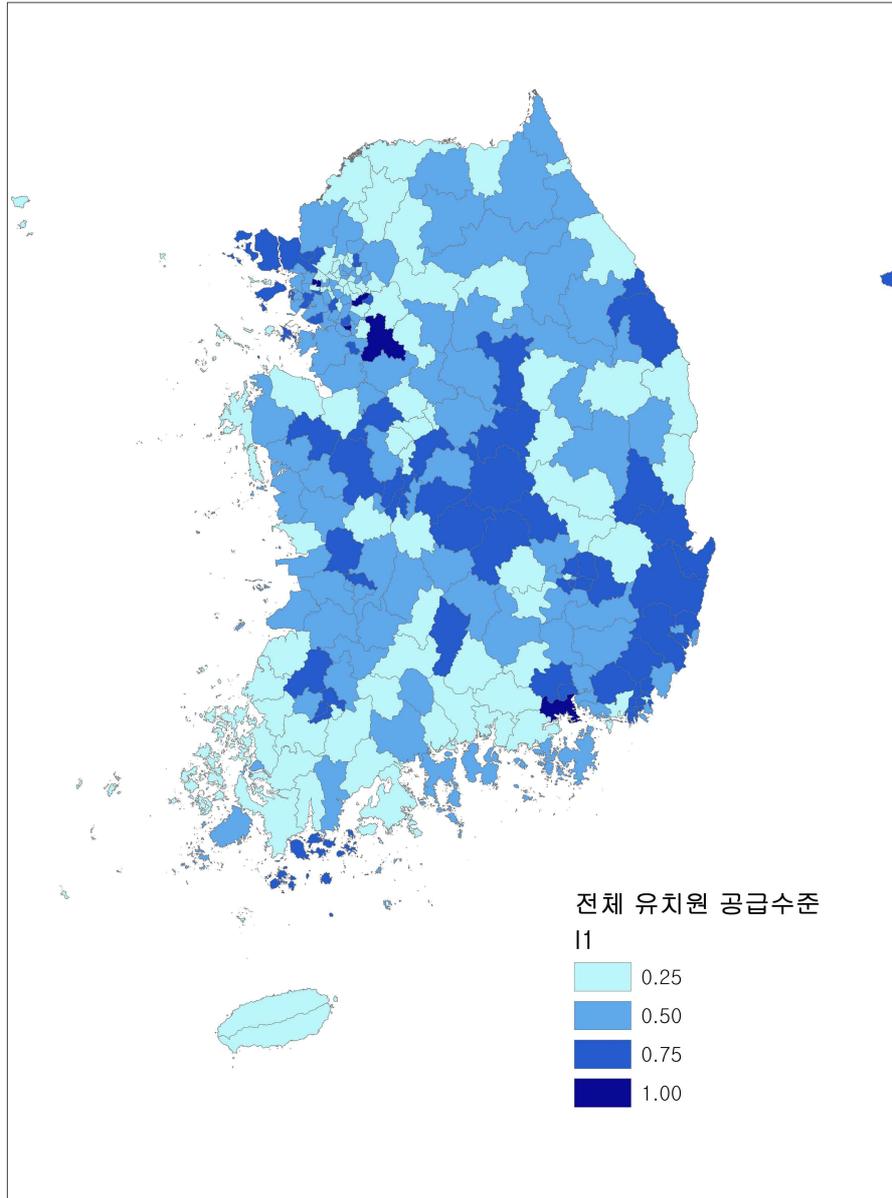


X. 가구 일반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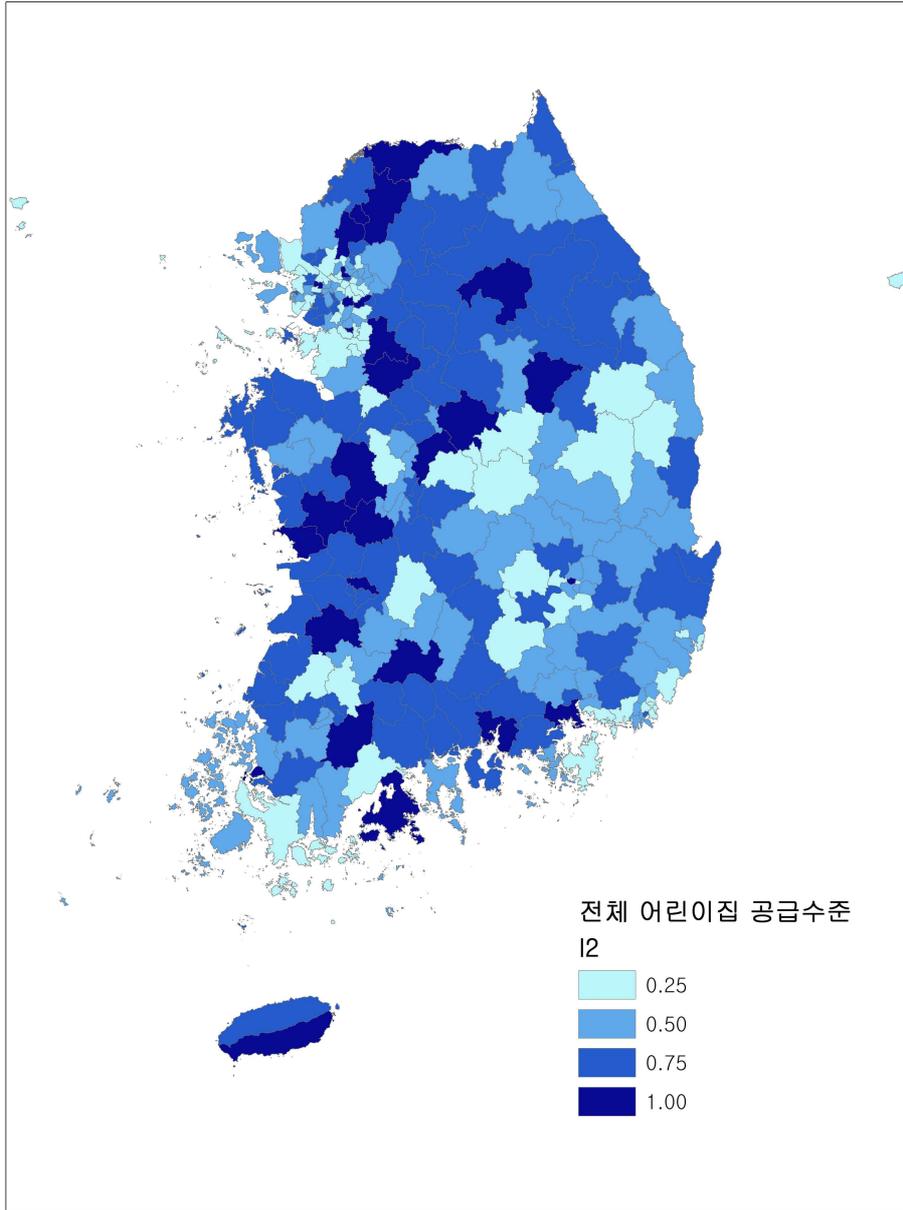
	부	모
DQ1. 영유아 부모의 동거 여부	<input type="checkbox"/> 01) 동거 <input type="checkbox"/> 02) 비동거	<input type="checkbox"/> 01) 동거 <input type="checkbox"/> 02) 비동거
DQ2. 영유아 부모 연령	만 <input type="text"/> 세	만 <input type="text"/> 세
DQ3. 영유아 부모의 최종학력	<input type="checkbox"/> 1) 고졸 미만 <input type="checkbox"/> 2) 고등학교 졸업 <input type="checkbox"/> 3) 전문대졸 <input type="checkbox"/> 4) 대학(교) 졸업 <input type="checkbox"/> 5) 대학원 재학이상	<input type="checkbox"/> 1) 고졸 미만 <input type="checkbox"/> 2) 고등학교 졸업 <input type="checkbox"/> 3) 전문대졸 <input type="checkbox"/> 4) 대학(교) 졸업 <input type="checkbox"/> 5) 대학원 재학이상
DQ4. 영유아 부모의 고용상태 (사별, 이혼, 별거 등의 이유로 자녀와 비동거 중인 경우는 응답하지 않아도 됨)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1) 정규직(전일제) 4) 자영업 7) 무직/학생	2) 비정규직(8시간 고용) 5) 휴직/이직준비 6) 전업주부
DQ5. 영유아 부모의 직종 ※ DQ3 1)~4)인 경우만 응답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01) 관리직 04) 서비스직 07) 기능직(단순) 10) 기술직(전문) 12) 기타 ()	02) 전문직 05) 판매직 08) 노동직(단순노무) 11)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03) 사무직 06) 농림어업직 09) 군인
DQ6. 가구원수 (본인 포함)	총 가구원수 <input type="text"/> 명	1) (자녀를 제외한) 성인 가구원수 <input type="text"/> 명 2) (자녀를 제외한) 미성년 가구원수 <input type="text"/> 명 2) 총 자녀 수 <input type="text"/> 명 : 성인(대학생 이상) 자녀 <input type="text"/> 명 취학(초·중·고등) 자녀 <input type="text"/> 명, 미취학자녀 <input type="text"/> 명
DQ7. 귀댁의 월평균 가구 세전 (총)소득은 얼마입니까? ※ 근로, 사업·부업 소득 등 모든 소득포함 (맞벌이 배우자 소득포함)	<input type="checkbox"/> 01) 15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03) 250만원 이상~35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05) 450만원 이상~55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07) 650만원 이상~75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09) 850만원 이상~95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02) 150만원 이상~25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04) 350만원 이상~45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06) 550만원 이상~65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08) 750만원 이상~85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10) 950만원 이상
DQ8. 현주소 거주 기간 (가구기준)	<input type="text"/> 년	
DQ9. 차량소유 여부	<input type="checkbox"/> 01) 차량 있음	<input type="checkbox"/> 02) 차량 없음

-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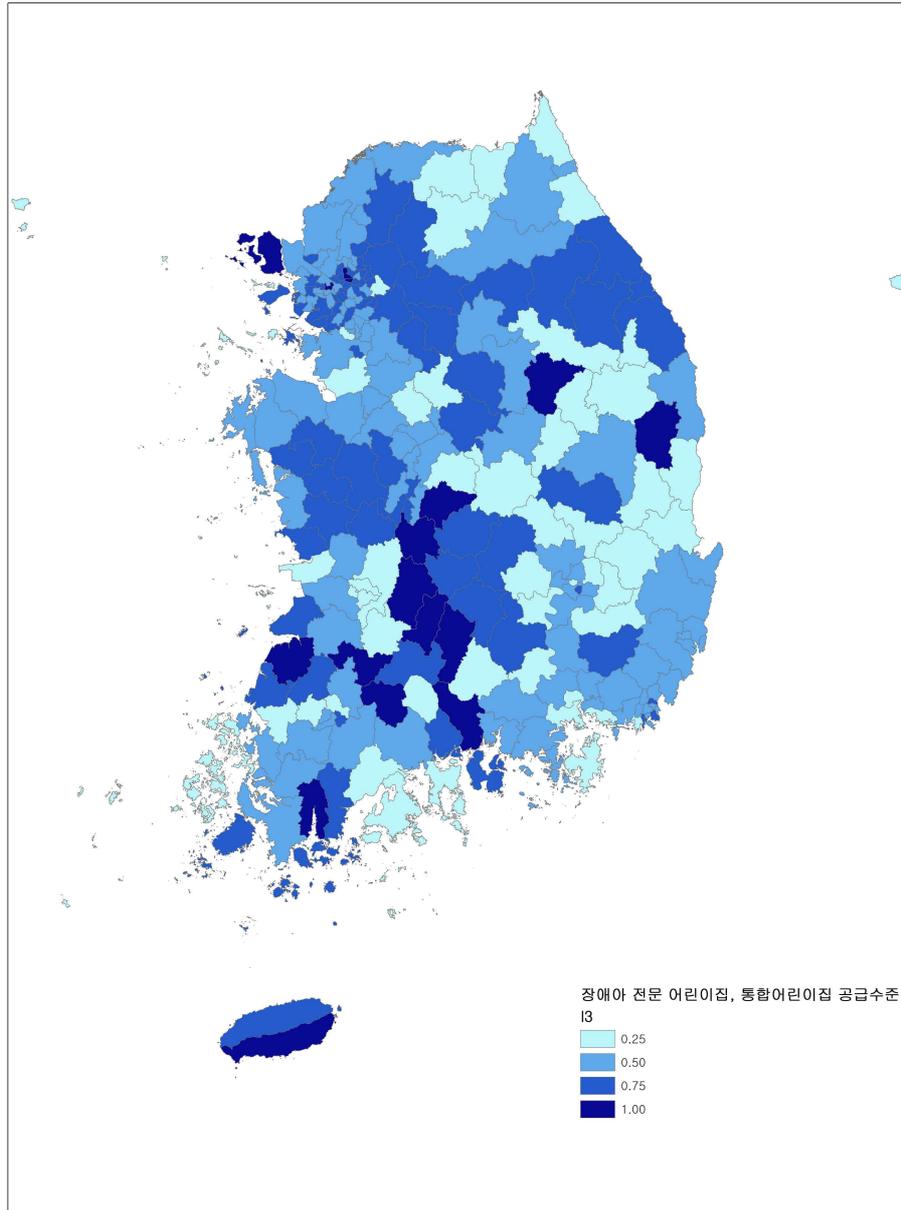
부록 5. 육아지원환경 평가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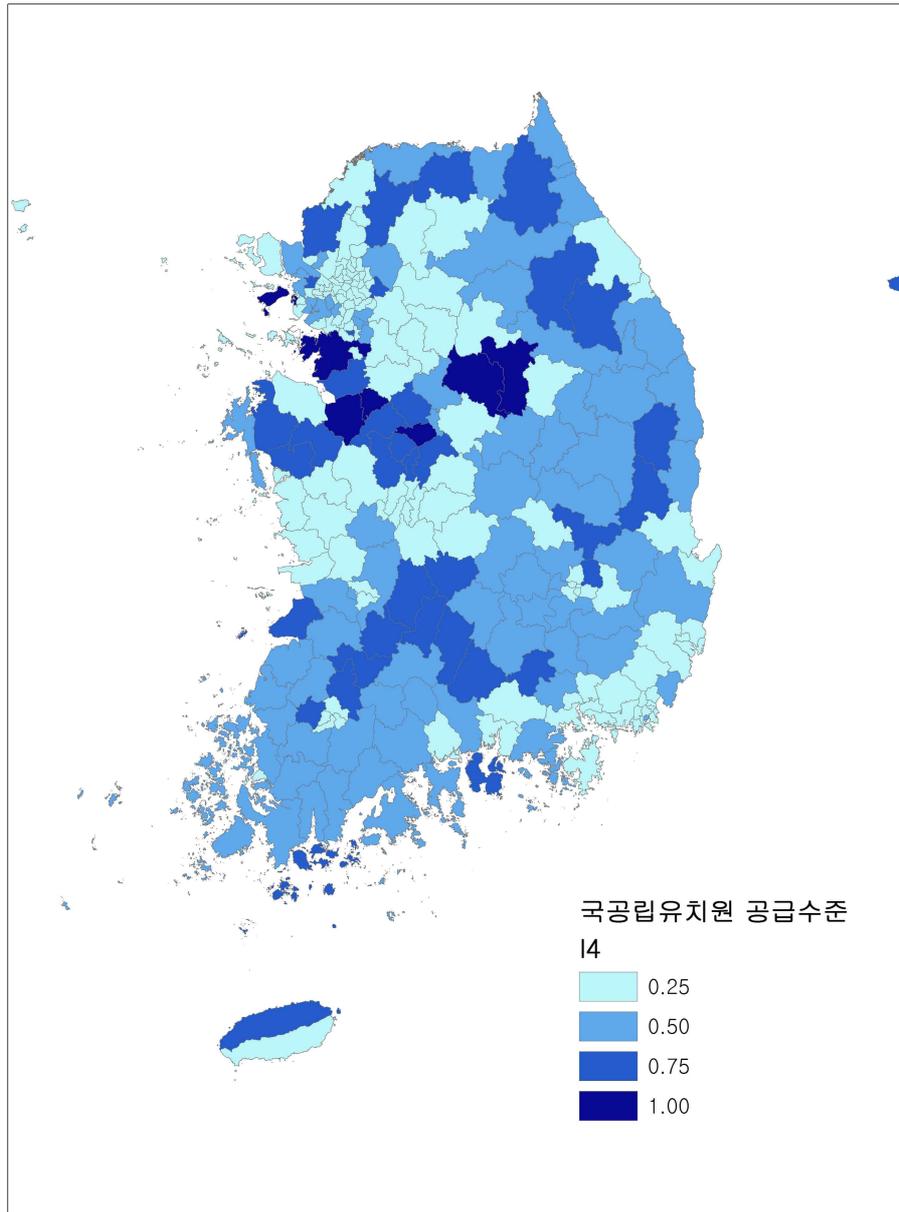
[부록 그림 V-1] 전체 유치원 공급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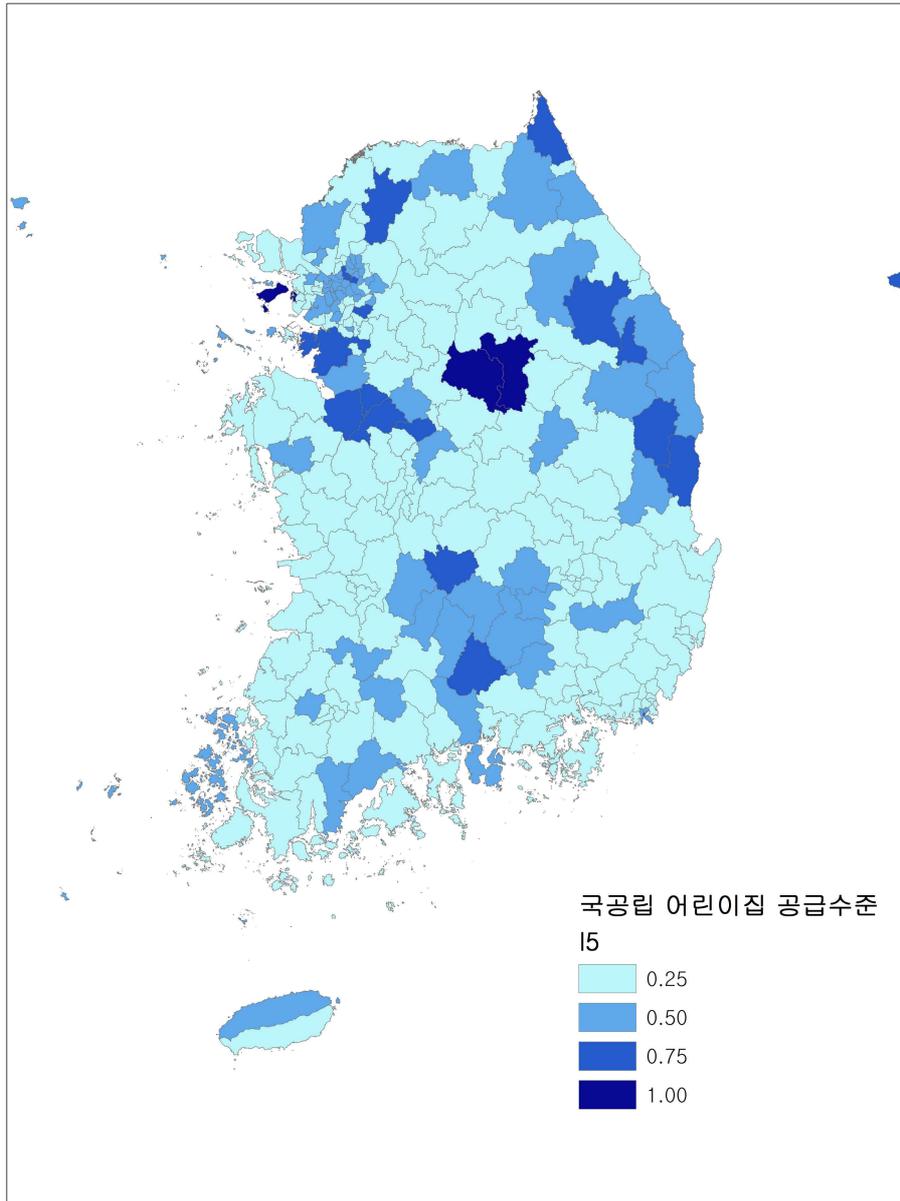
[부록 그림 V-2] 전체 어린이집 공급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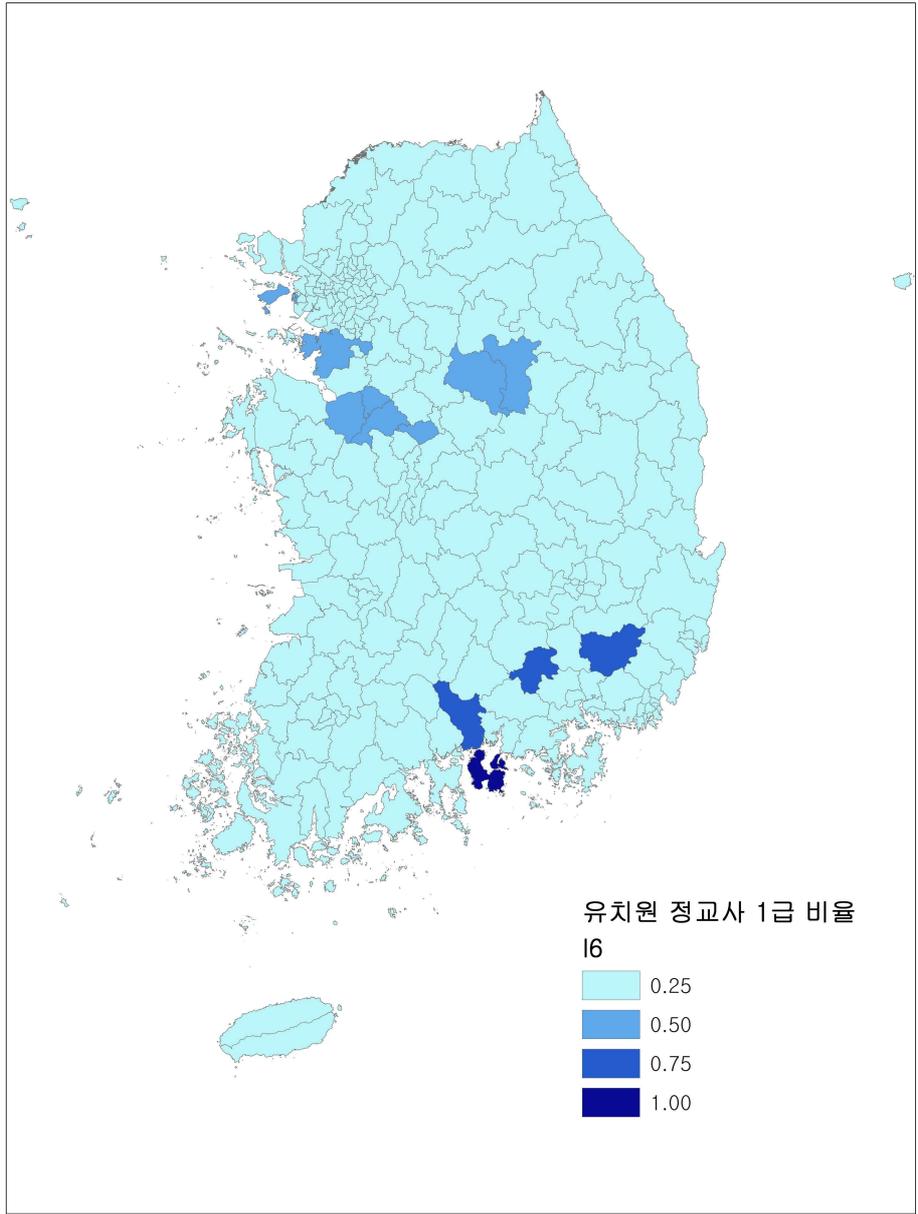
[부록 그림 V-3] 전체 특수학급 및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 공급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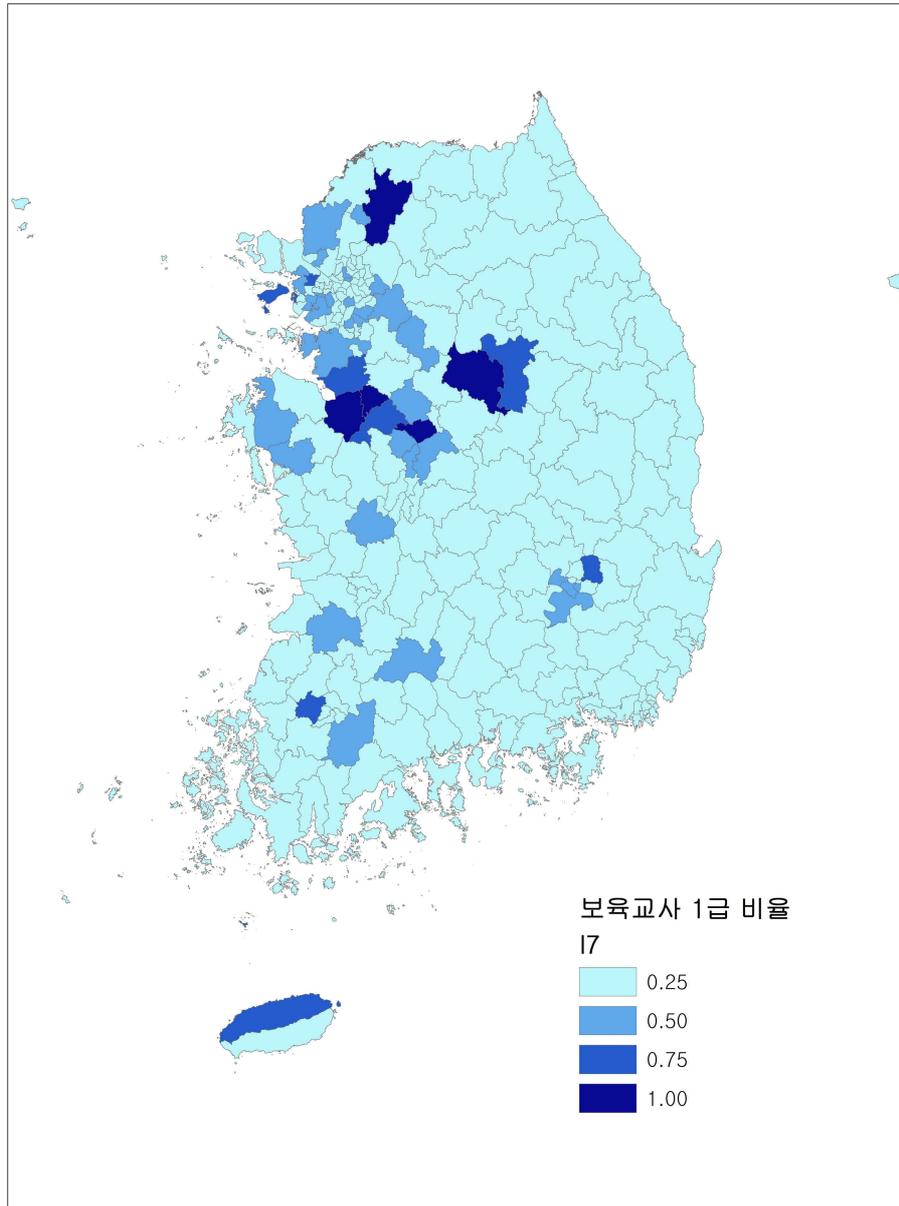
[부록 그림 V-4] 전체 국공립 유치원 공급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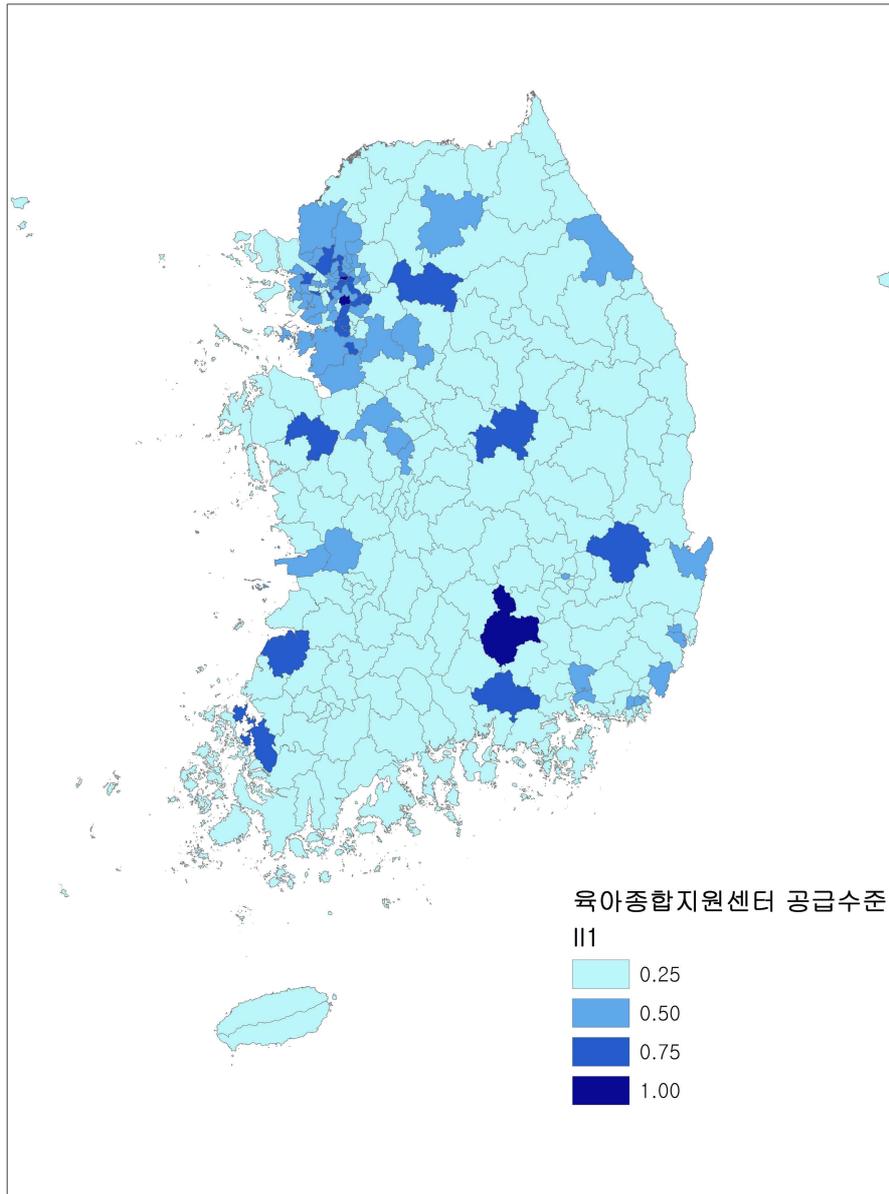
[부록 그림 V-5] 전체 국공립 어린이집 공급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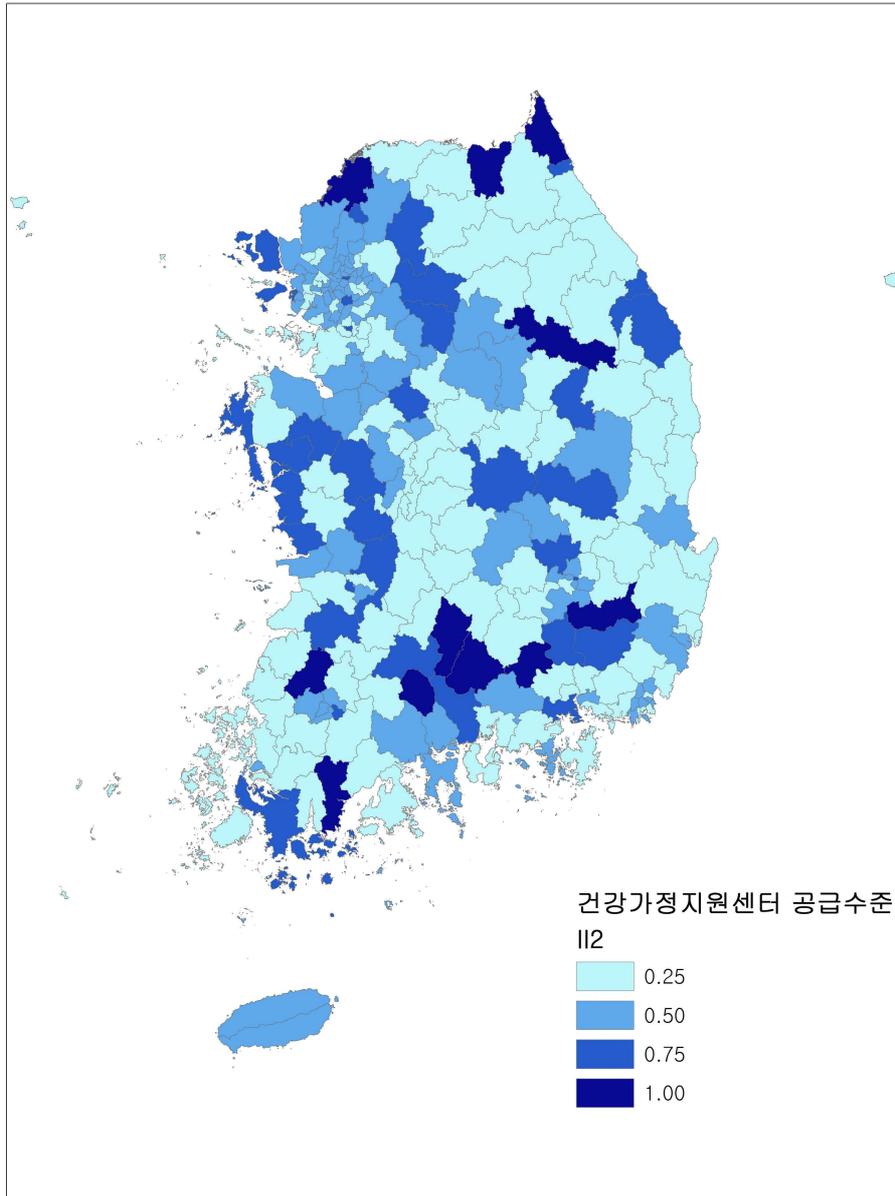
[부록 그림 V-6] 전체 유치원 정교사 1급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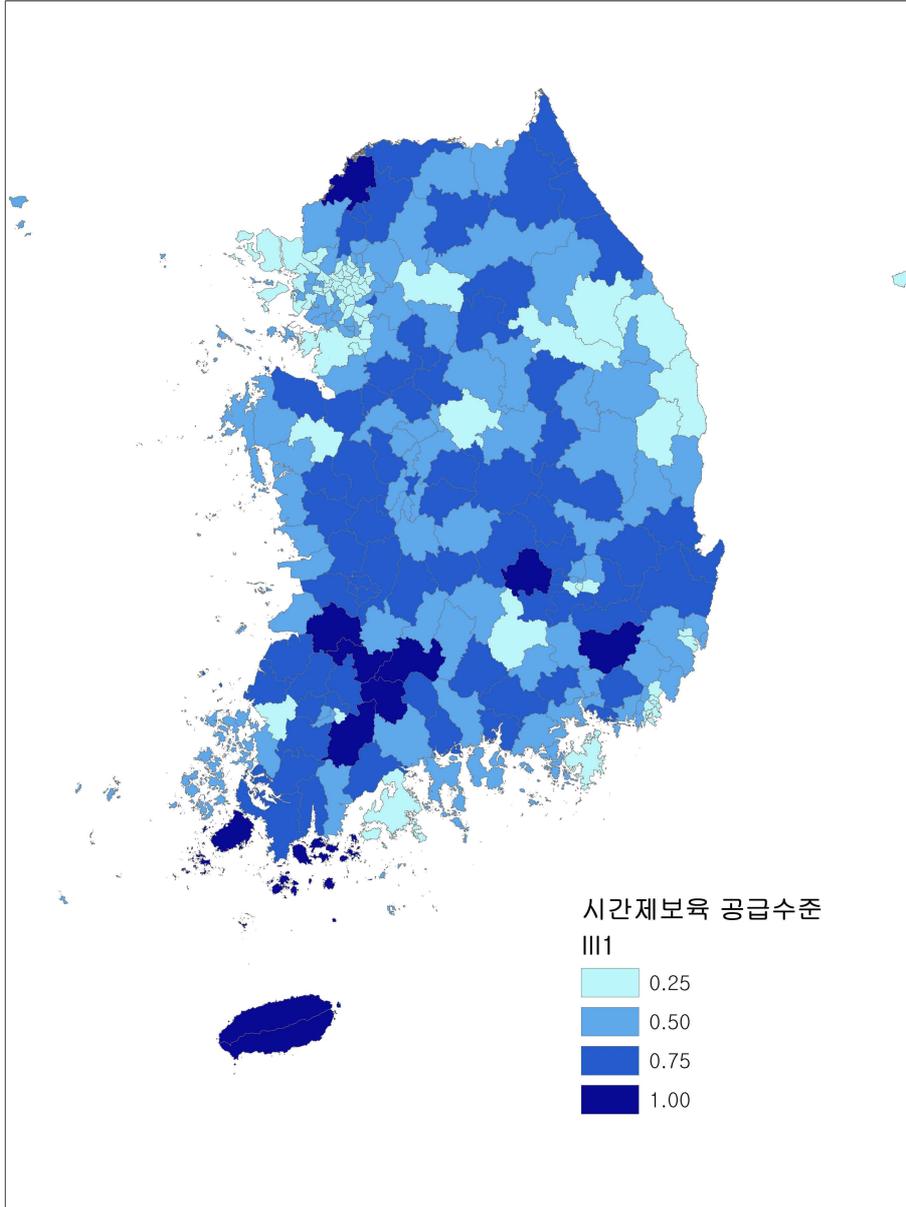
[부록 그림 V-7] 전체 보육교사 1급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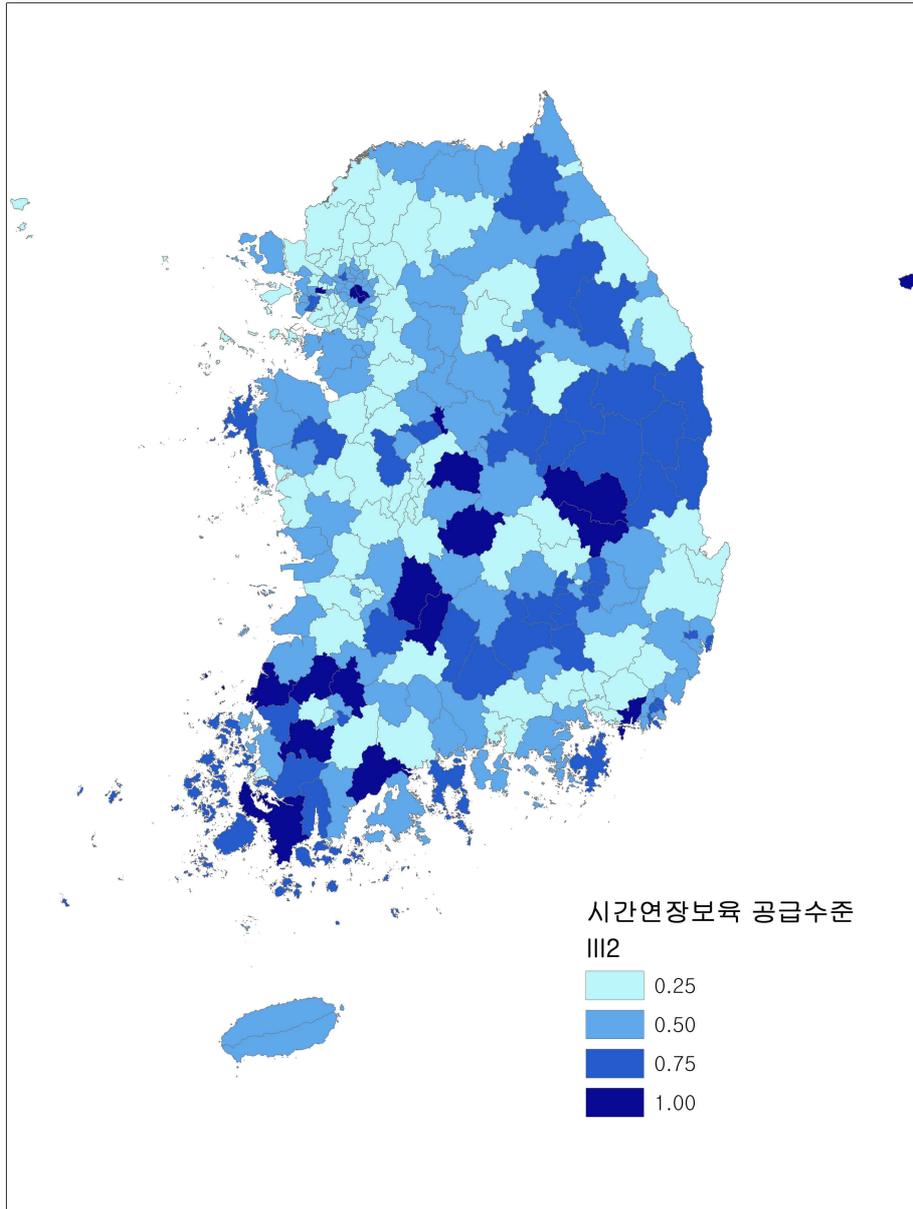
[부록 그림 V-8] 전체 육아종합지원센터 공급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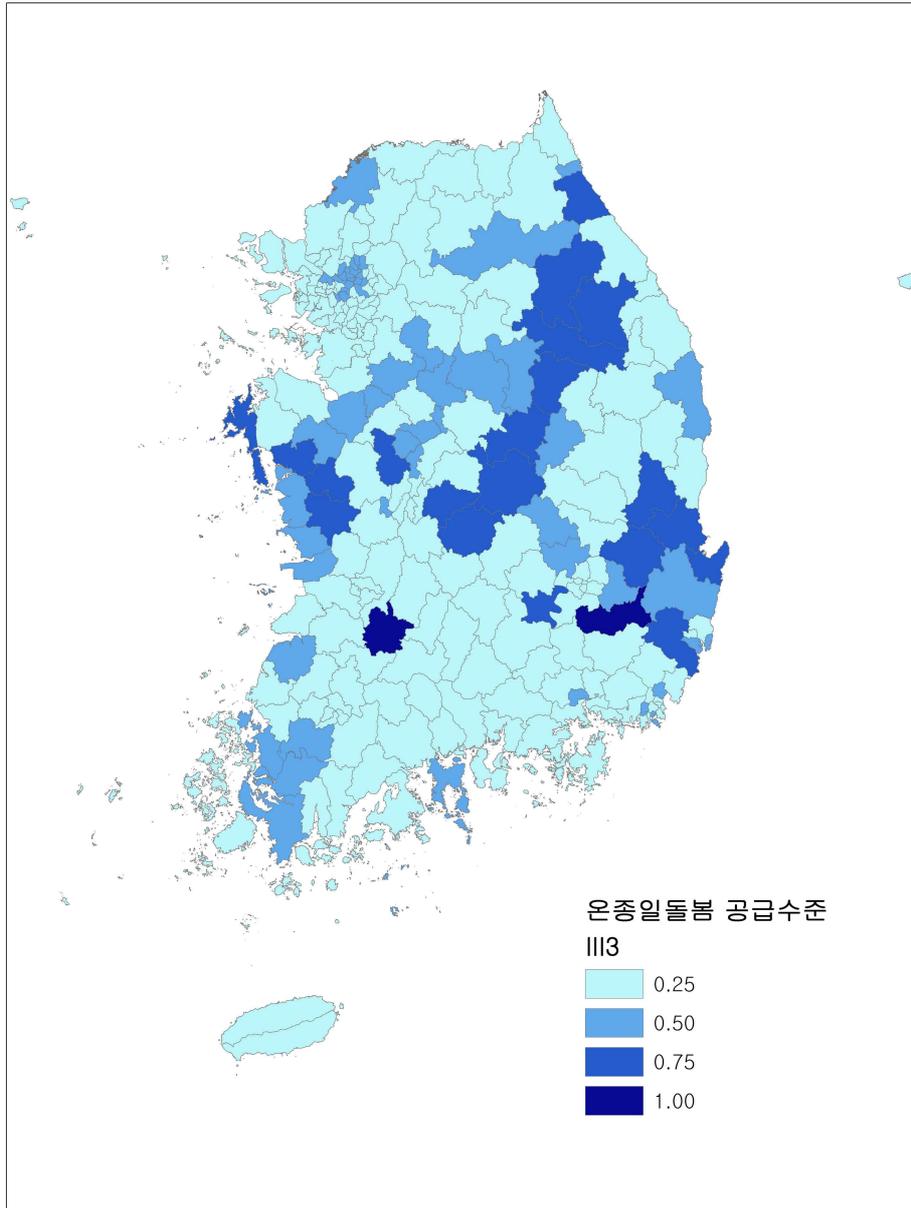
[부록 그림 V-9] 전체 건강가정지원센터 공급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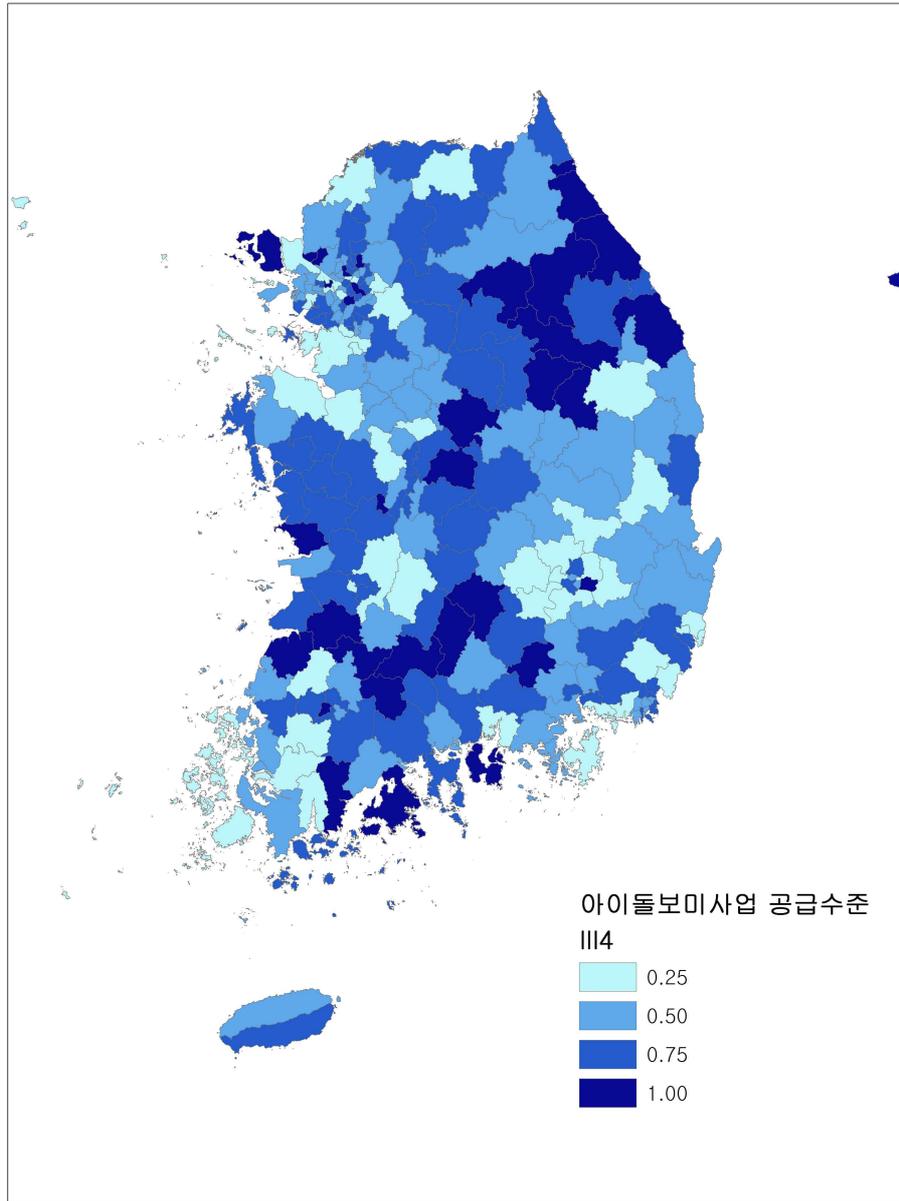
[부록 그림 V-10] 전체 시간제보육 공급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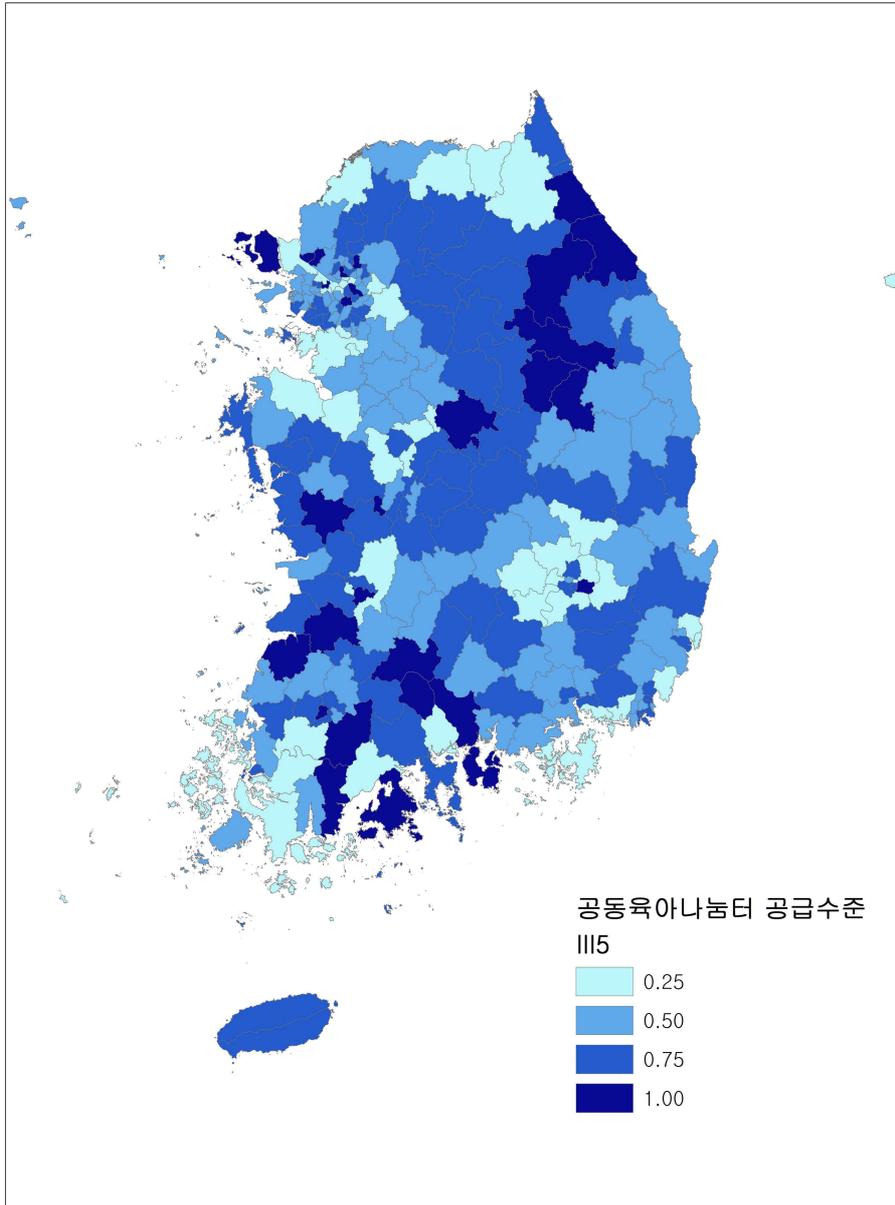
[부록 그림 V-11] 전체 시간연장보육 공급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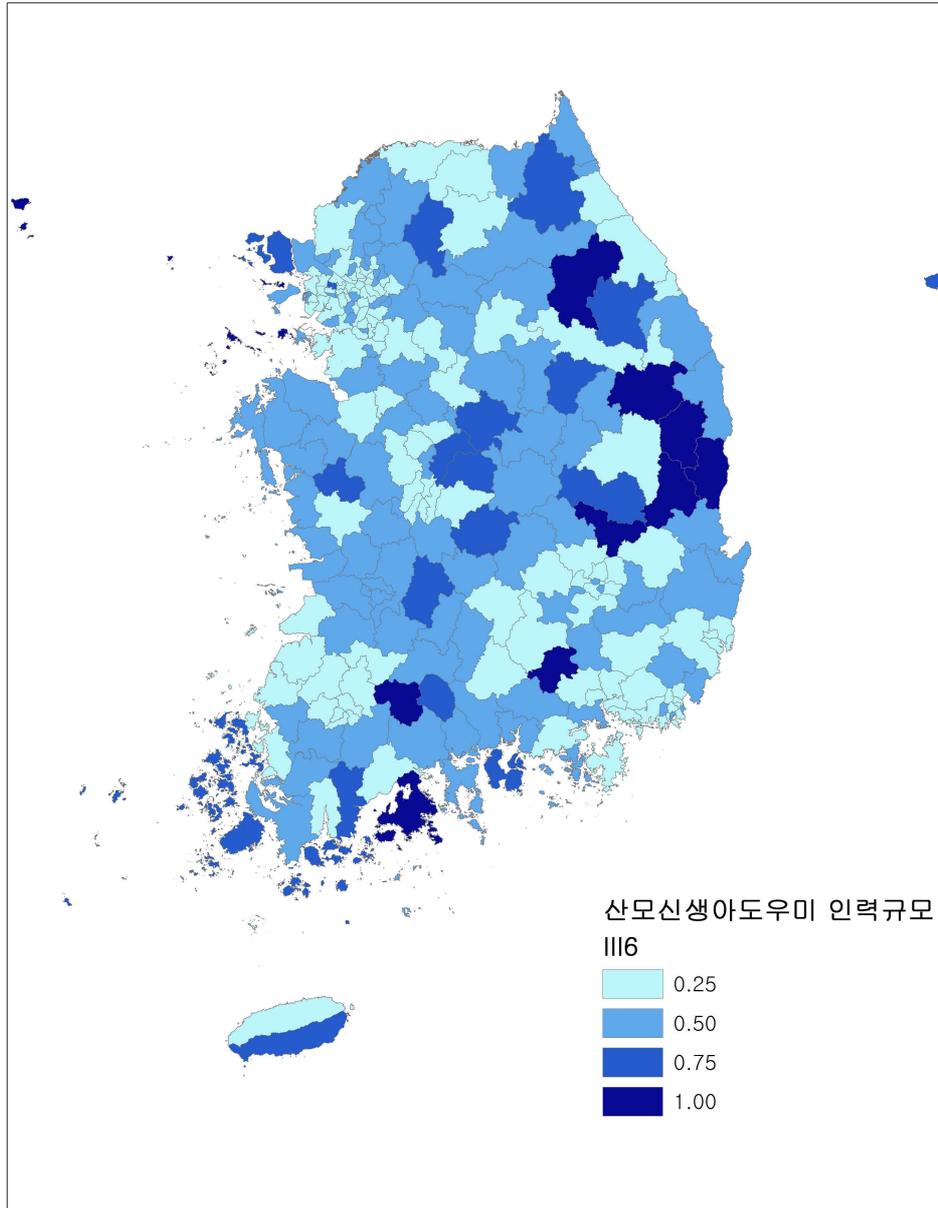
[부록 그림 V-12] 전체 온종일돌봄 공급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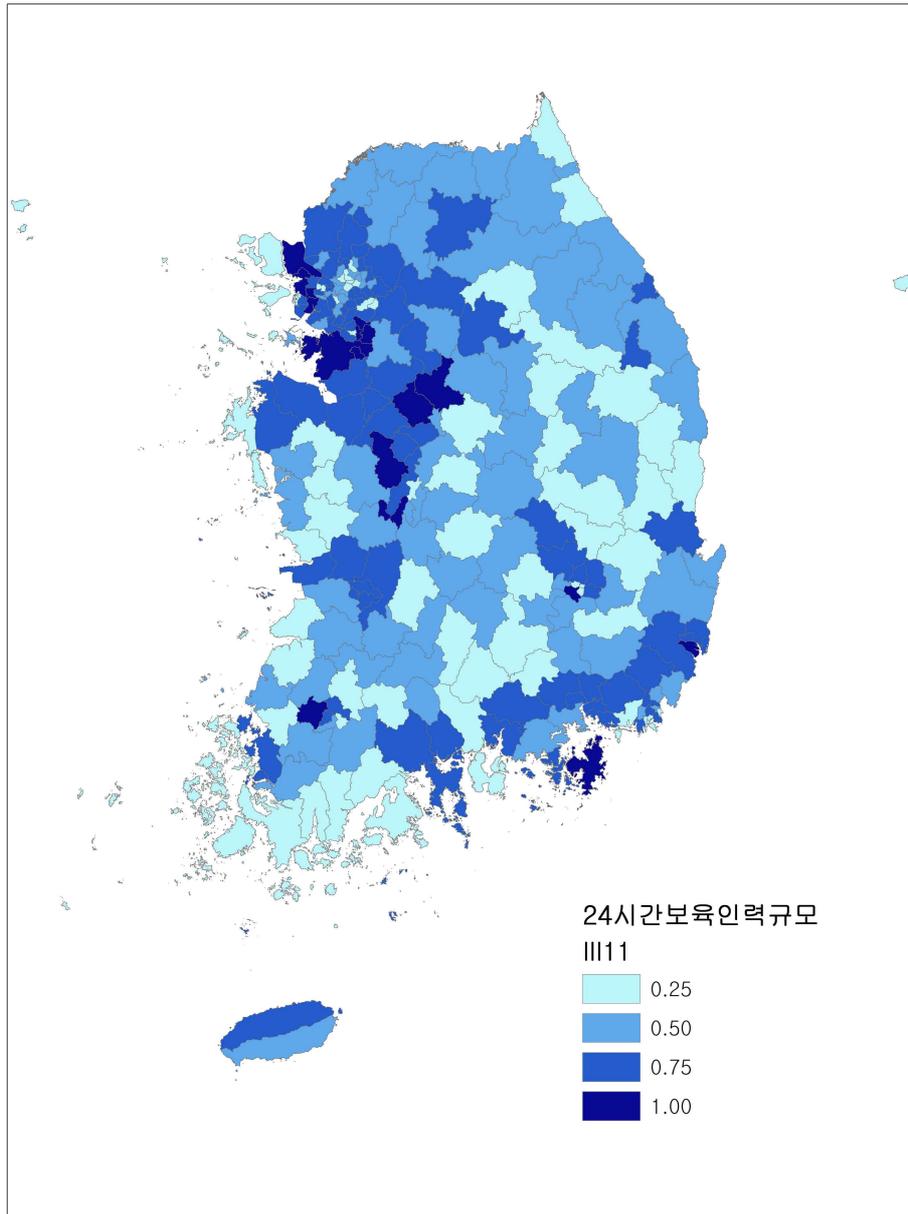
[부록 그림 V-13] 전체 아이돌보미 공급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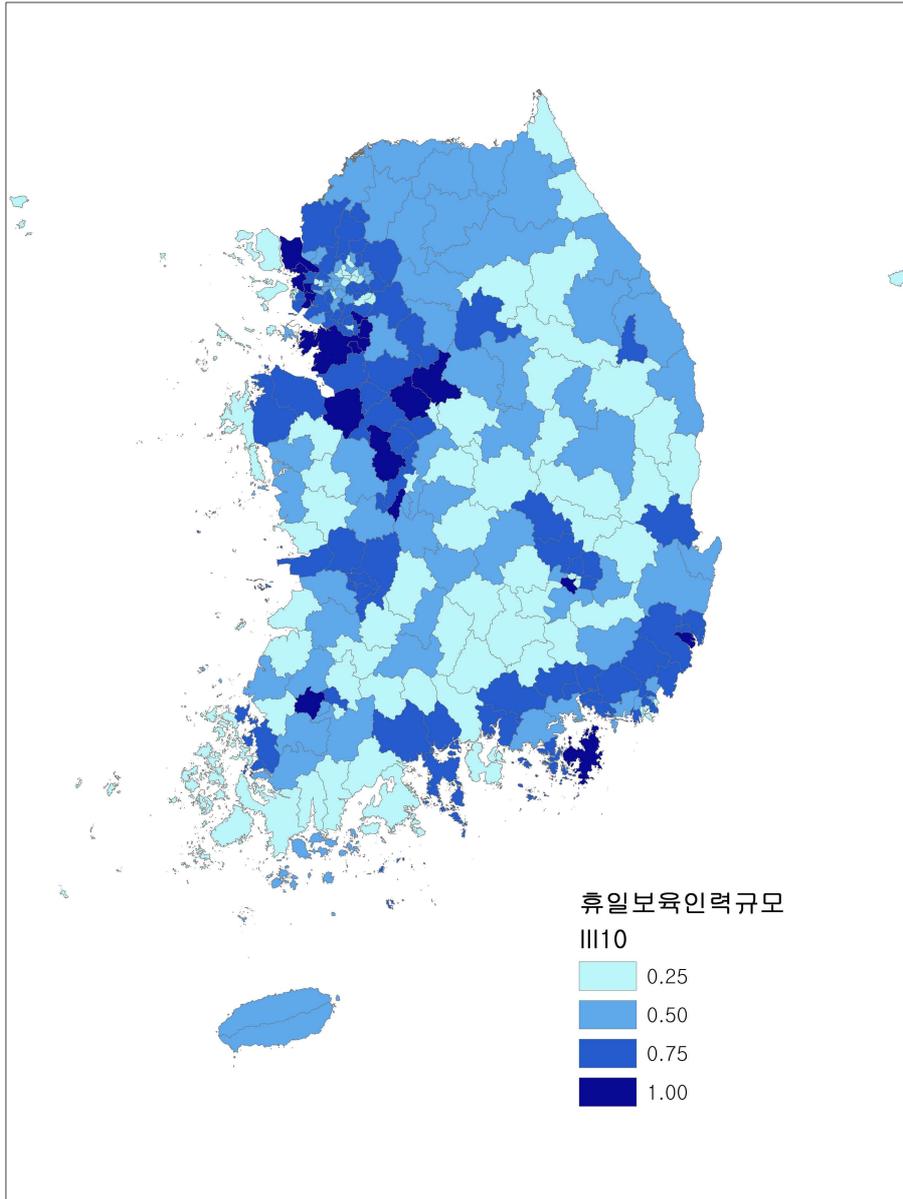
[부록 그림 V-14] 전체 공동육아놀이터 공급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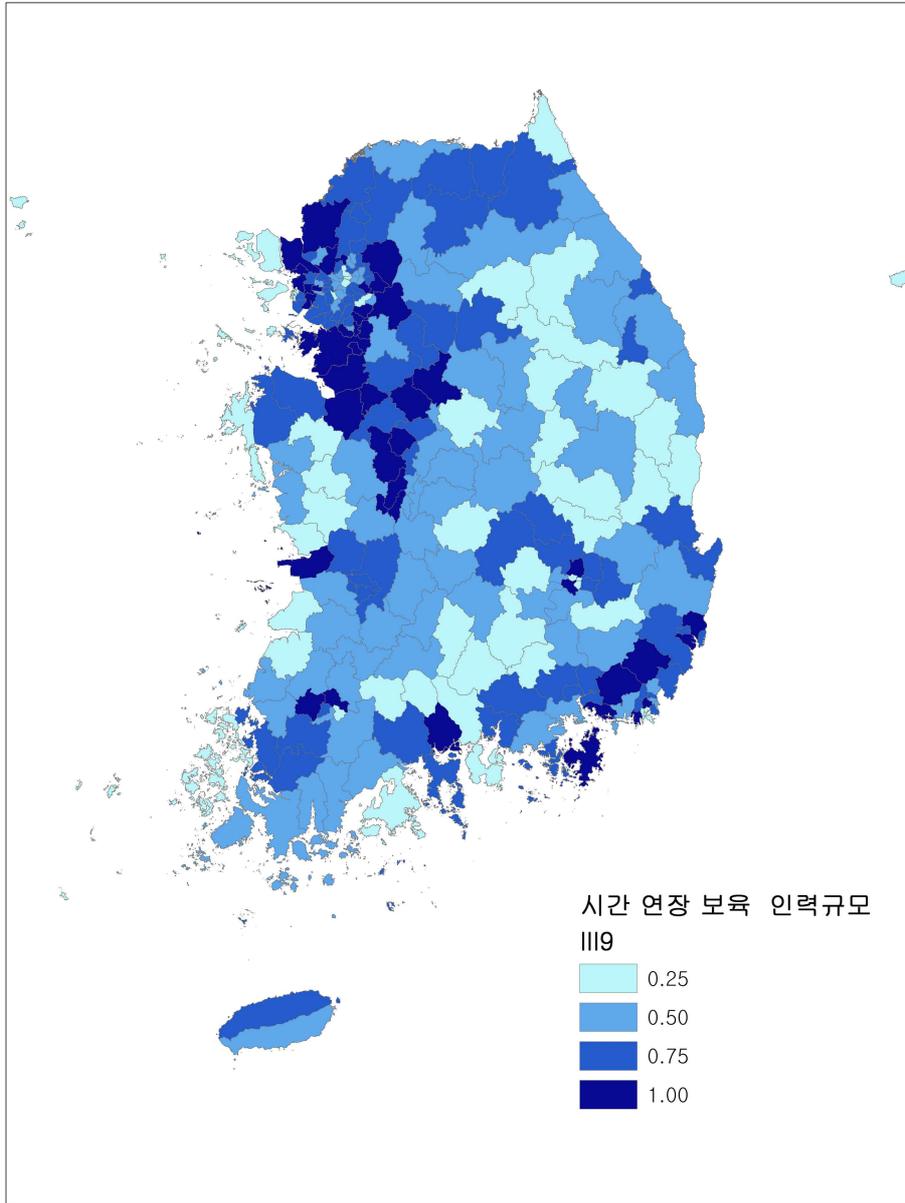
[부록 그림 V-15] 전체 산모신생아도우미 공급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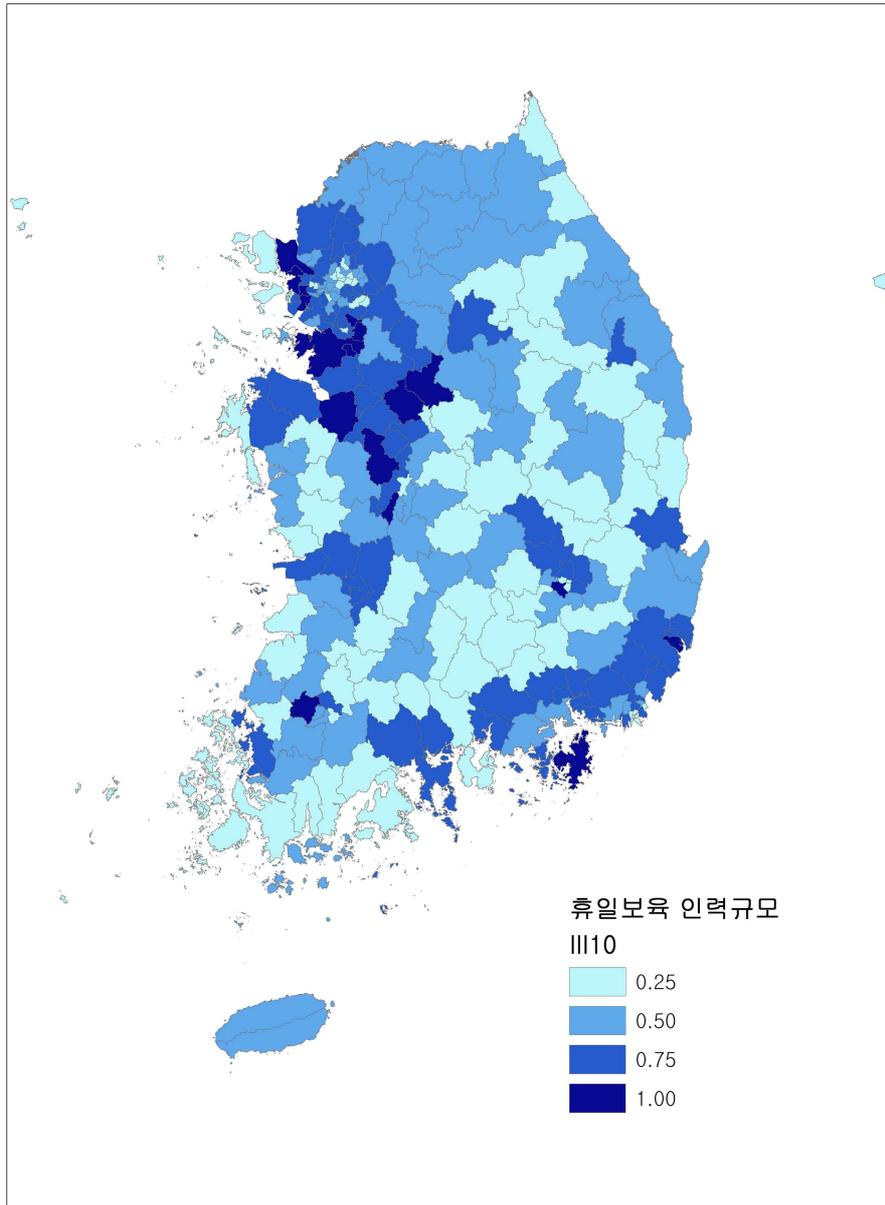
[부록 그림 V-16] 전체 24시간보육 공급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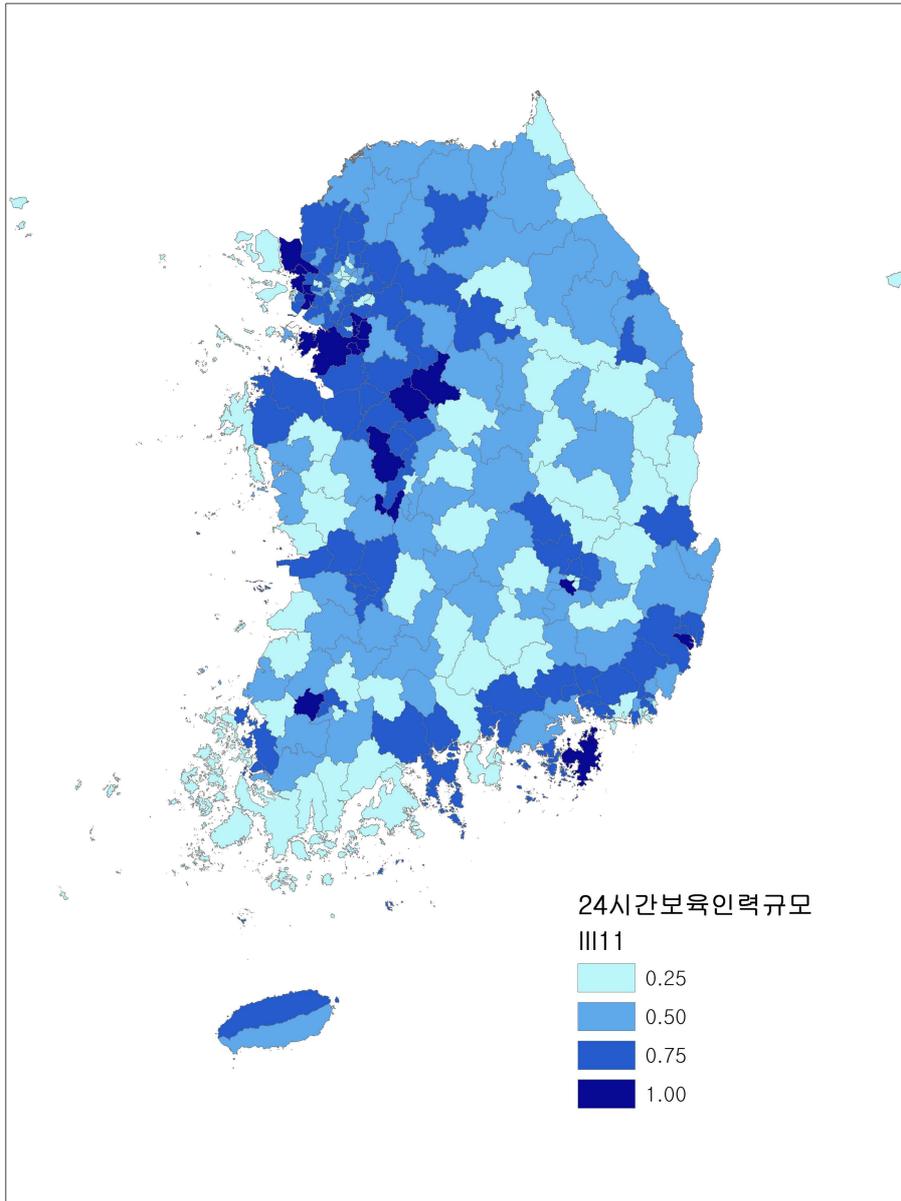
[부록 그림 V-17] 전체 휴일보육 공급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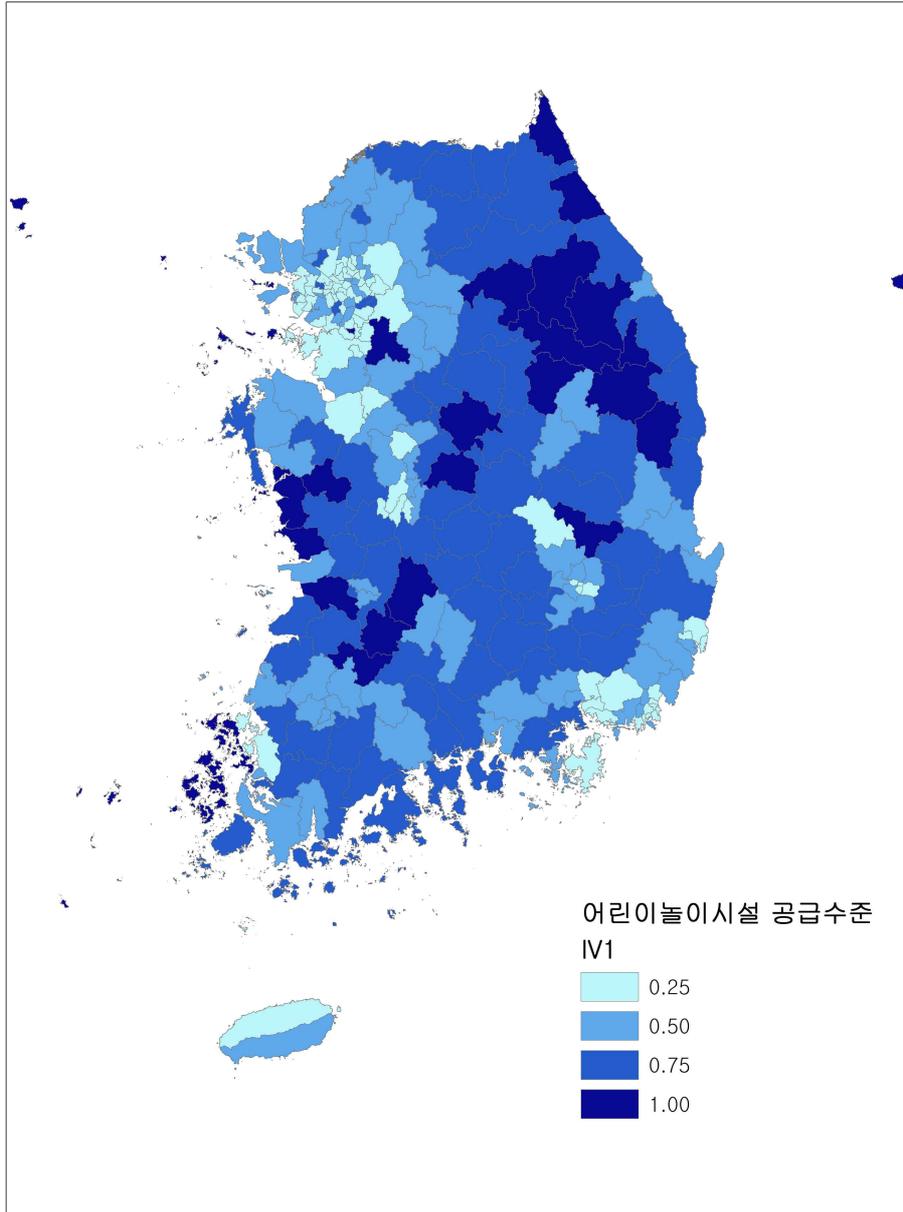
[부록 그림 V-18] 전체 시간연장보육 인력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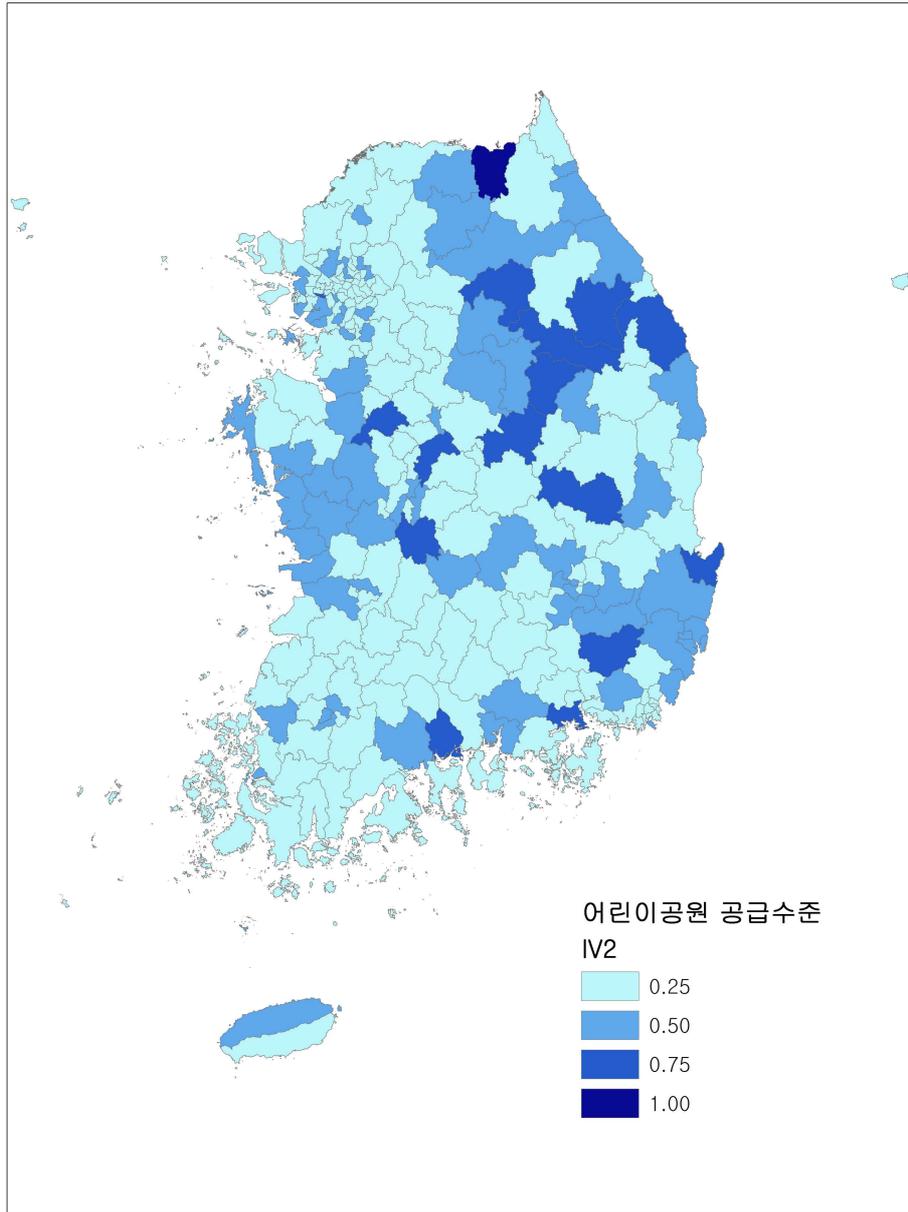
[부록 그림 V-19] 전체 휴일보육 인력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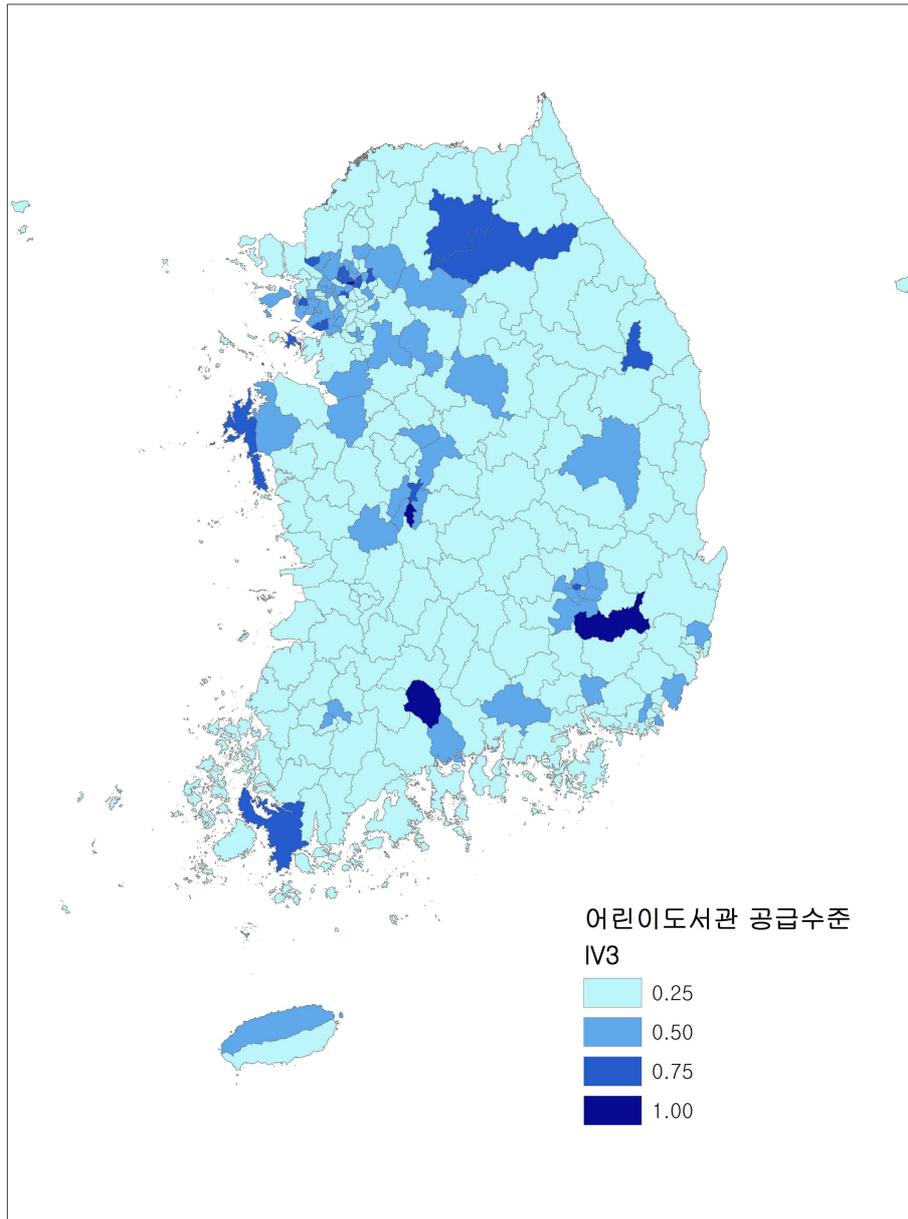
[부록 그림 V-20] 전체 24시간보육 인력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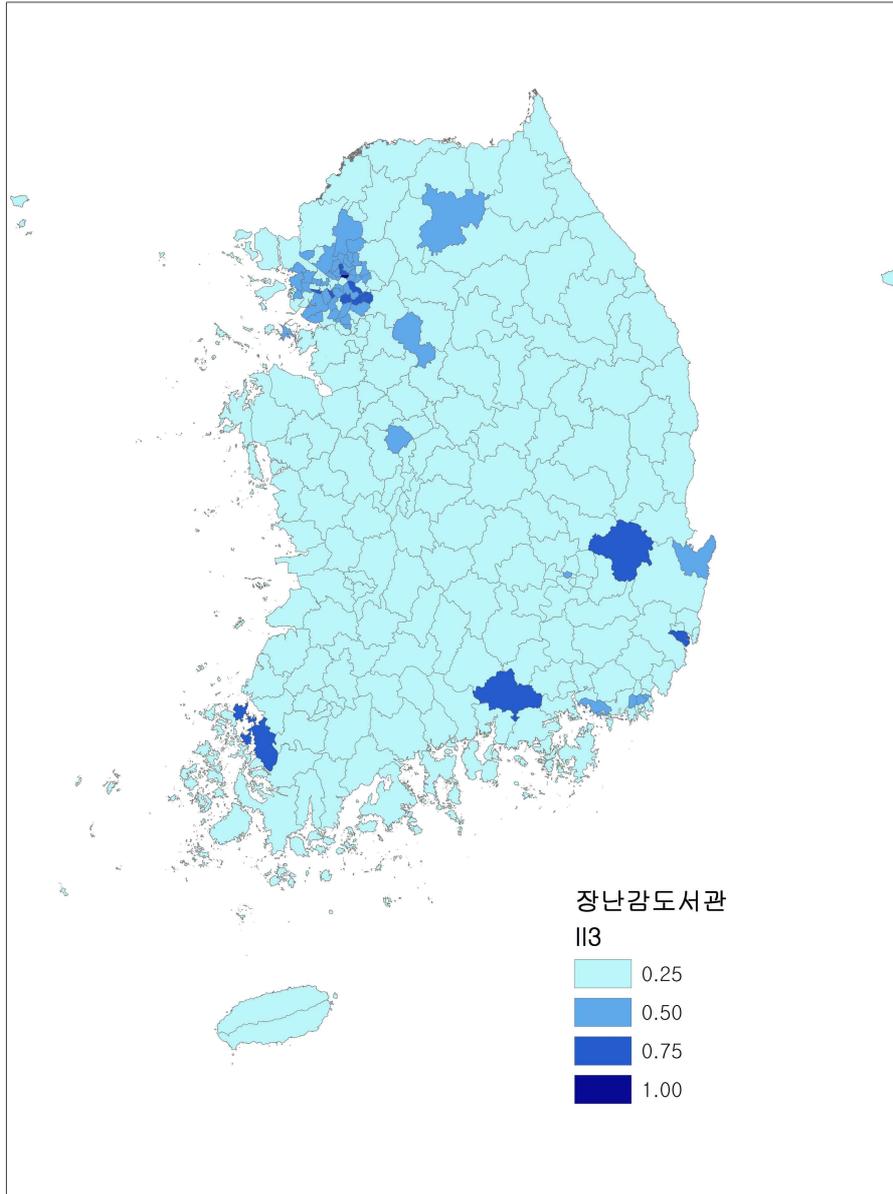
[부록 그림 V-21] 전체 어린이놀이시설 공급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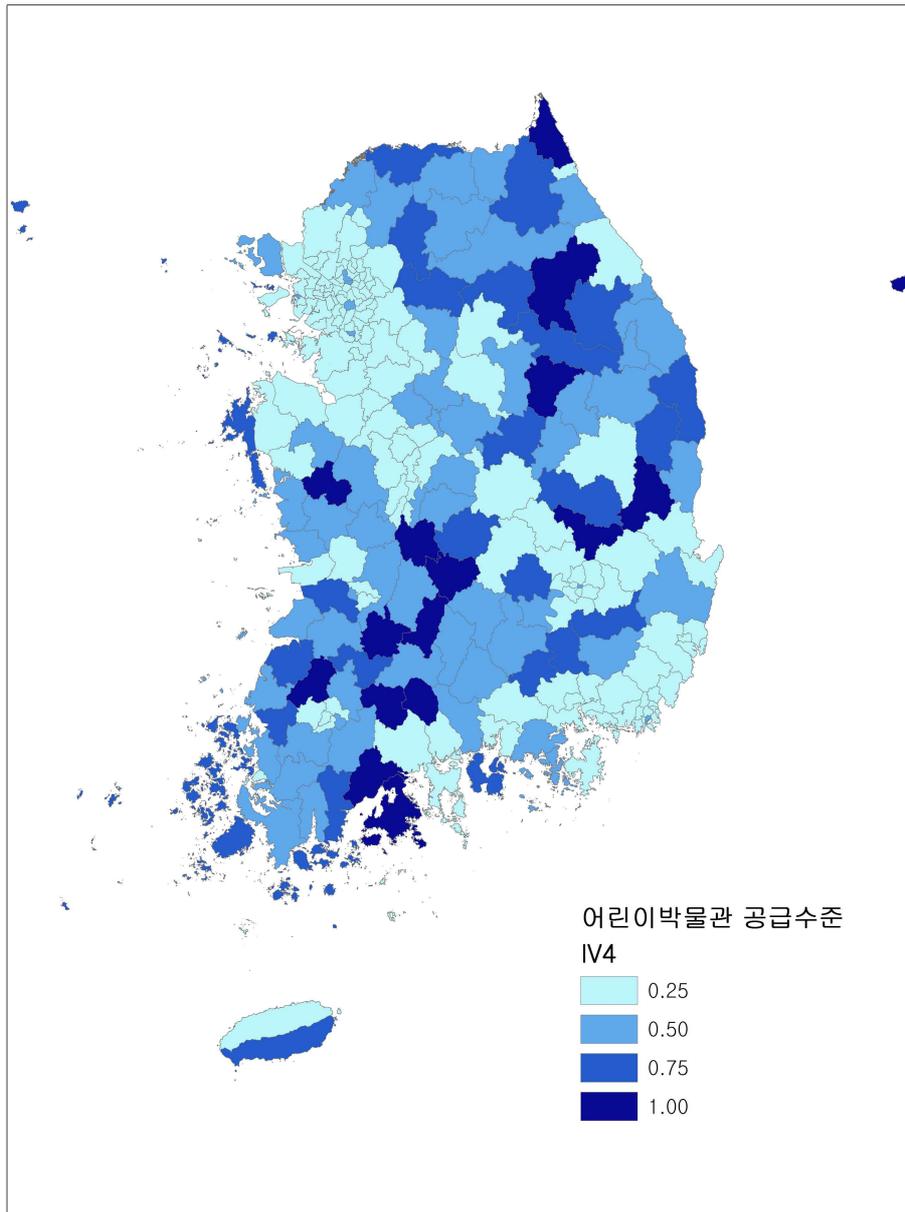
[부록 그림 V-22] 전체 어린이공원 공급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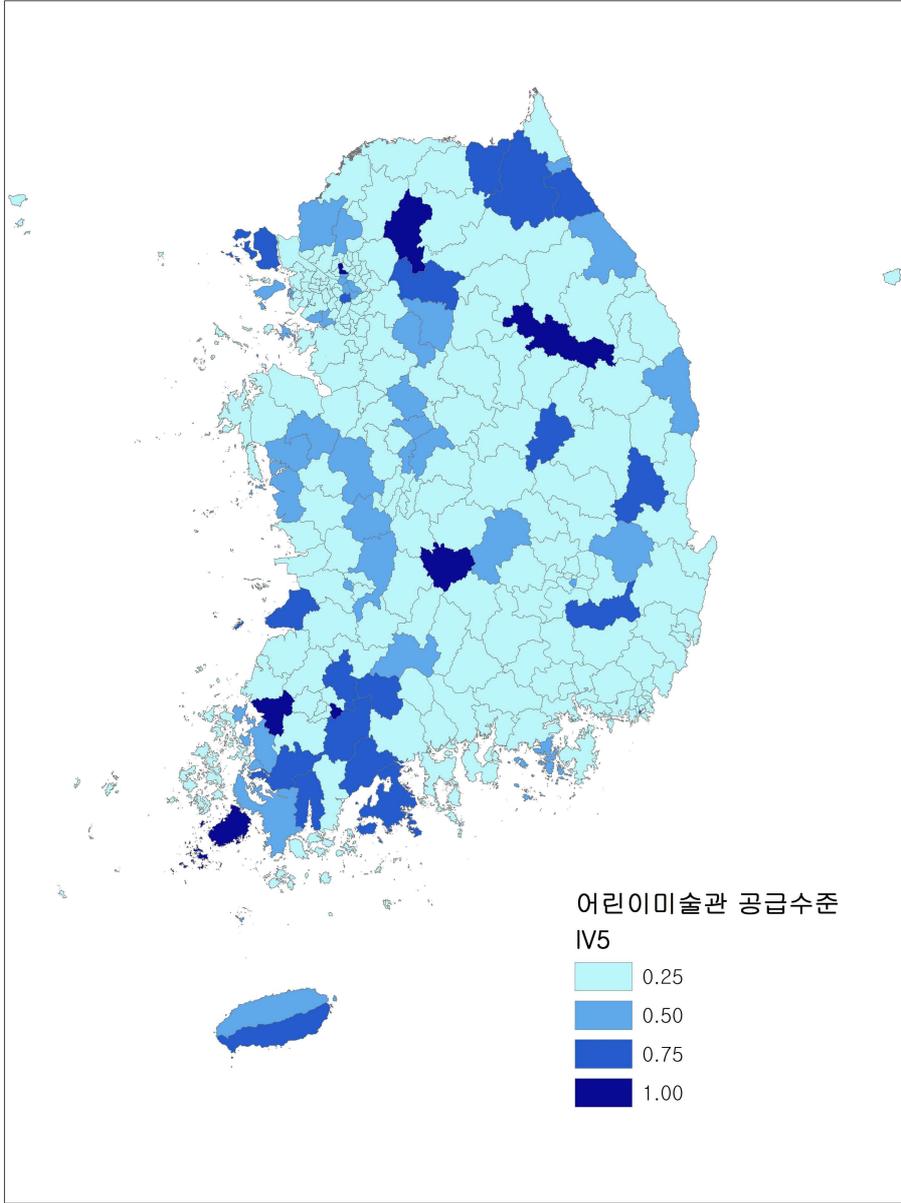
[부록 그림 V-23] 전체 어린이도서관 공급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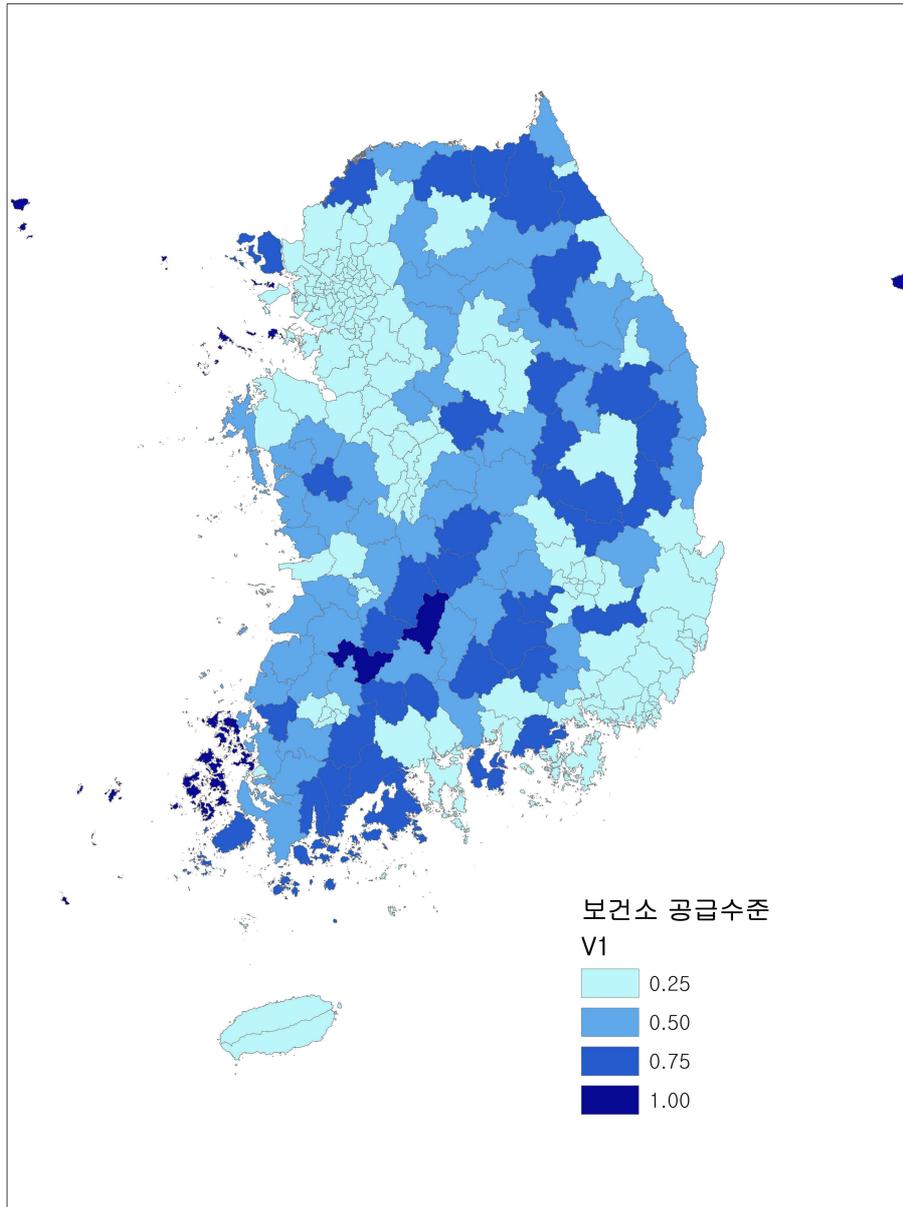
[부록 그림 V-24] 전체 장난감도서관 공급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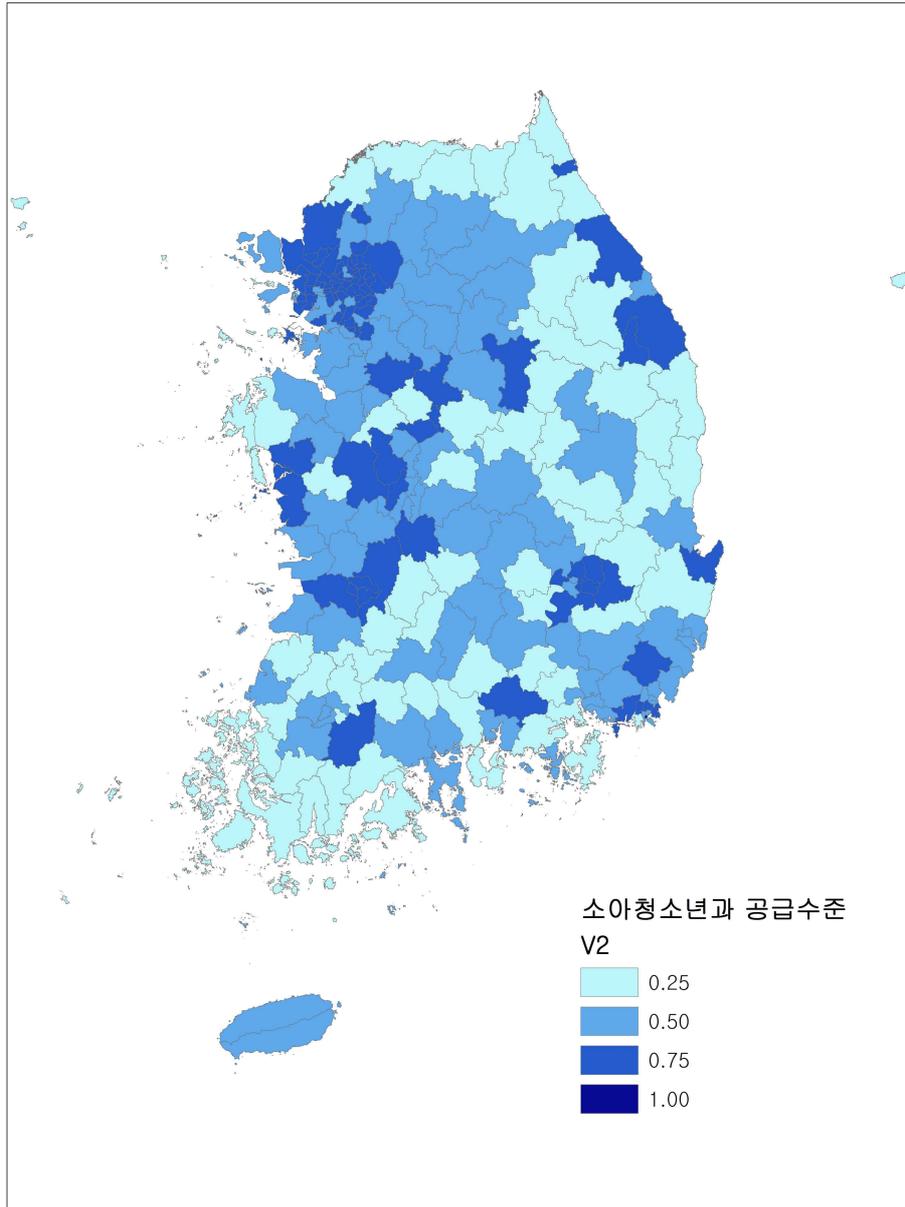
[부록 그림 V-25] 전체 어린이박물관 공급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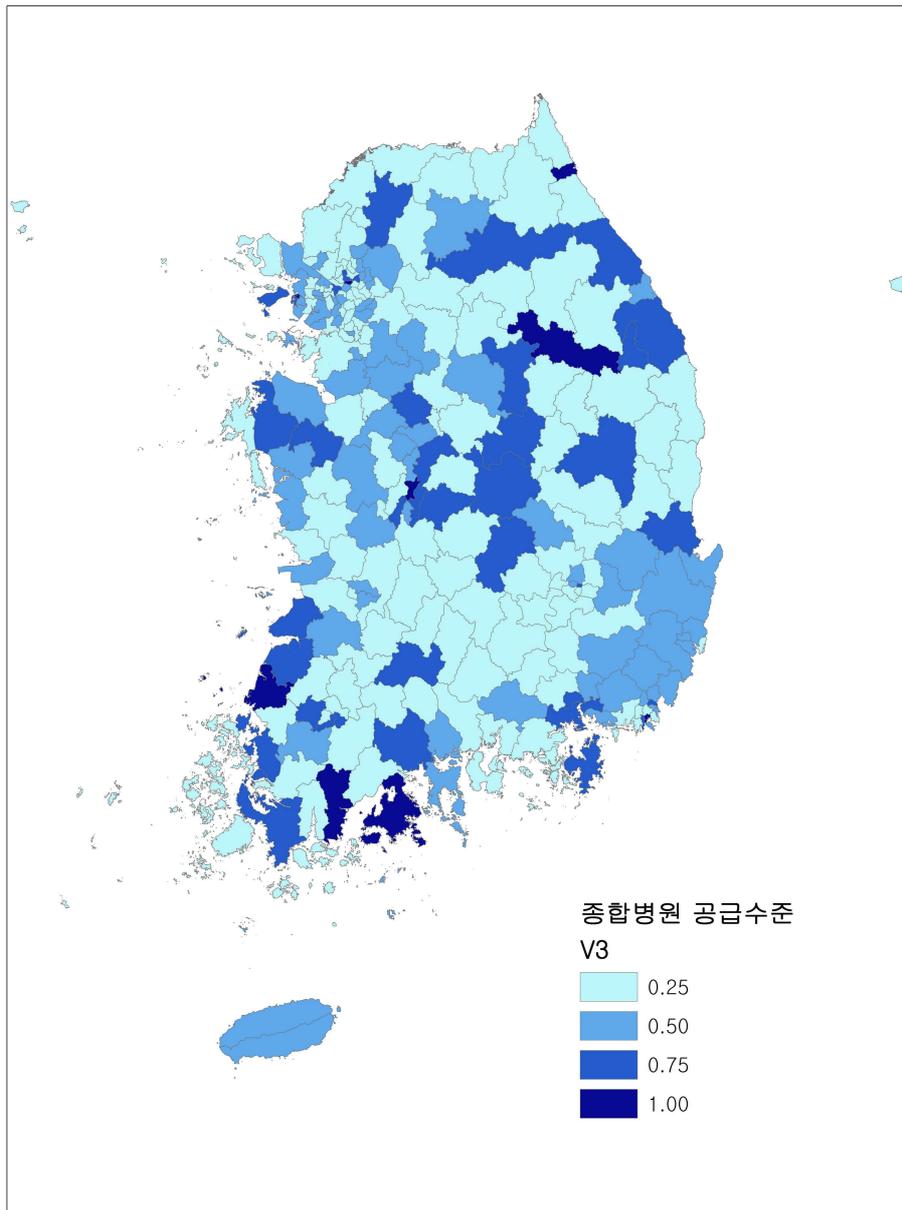
[부록 그림 V-26] 전체 어린이미술관 공급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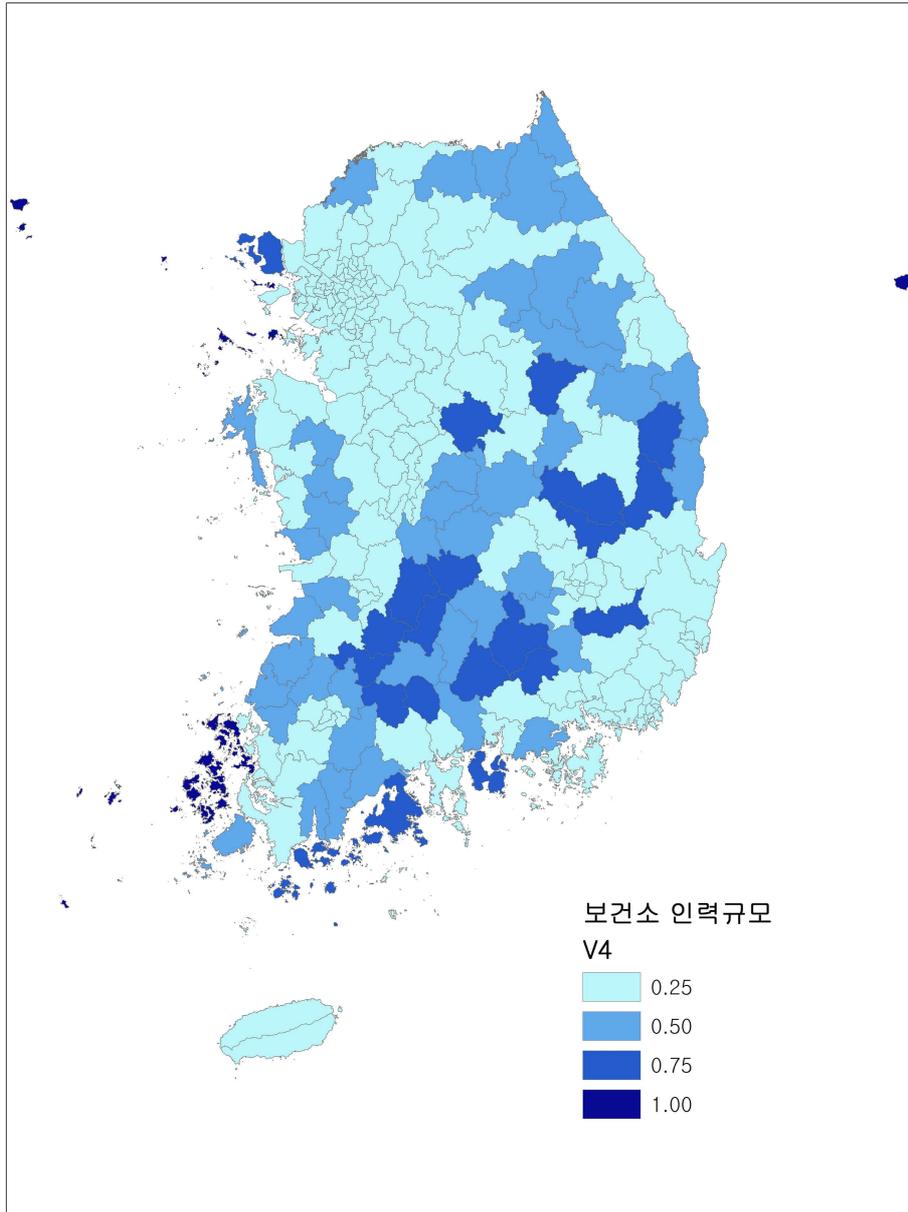
[부록 그림 V-27] 전체 보건의료 공급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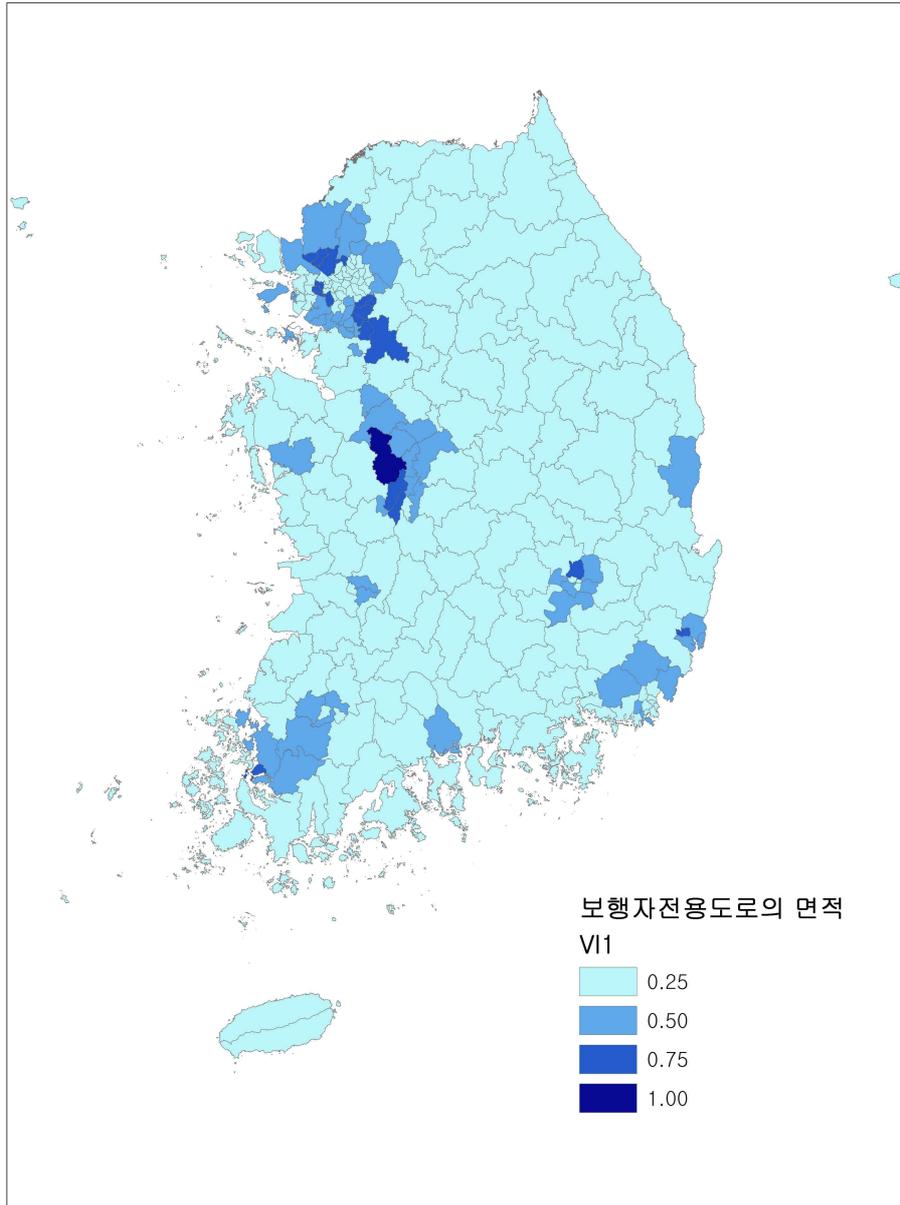
[부록 그림 V-28] 전체 소아청소년과 공급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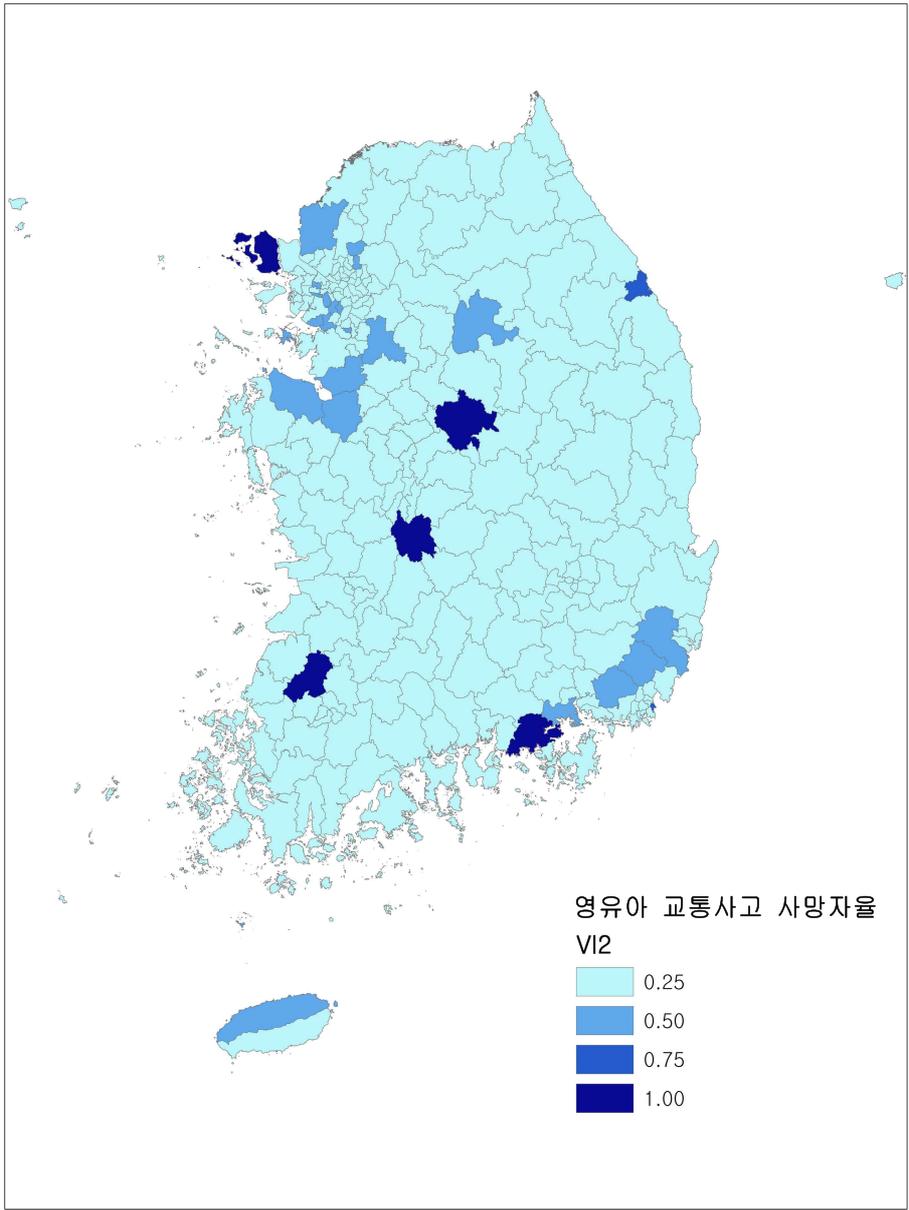
[부록 그림 V-29] 전체 종합병원 공급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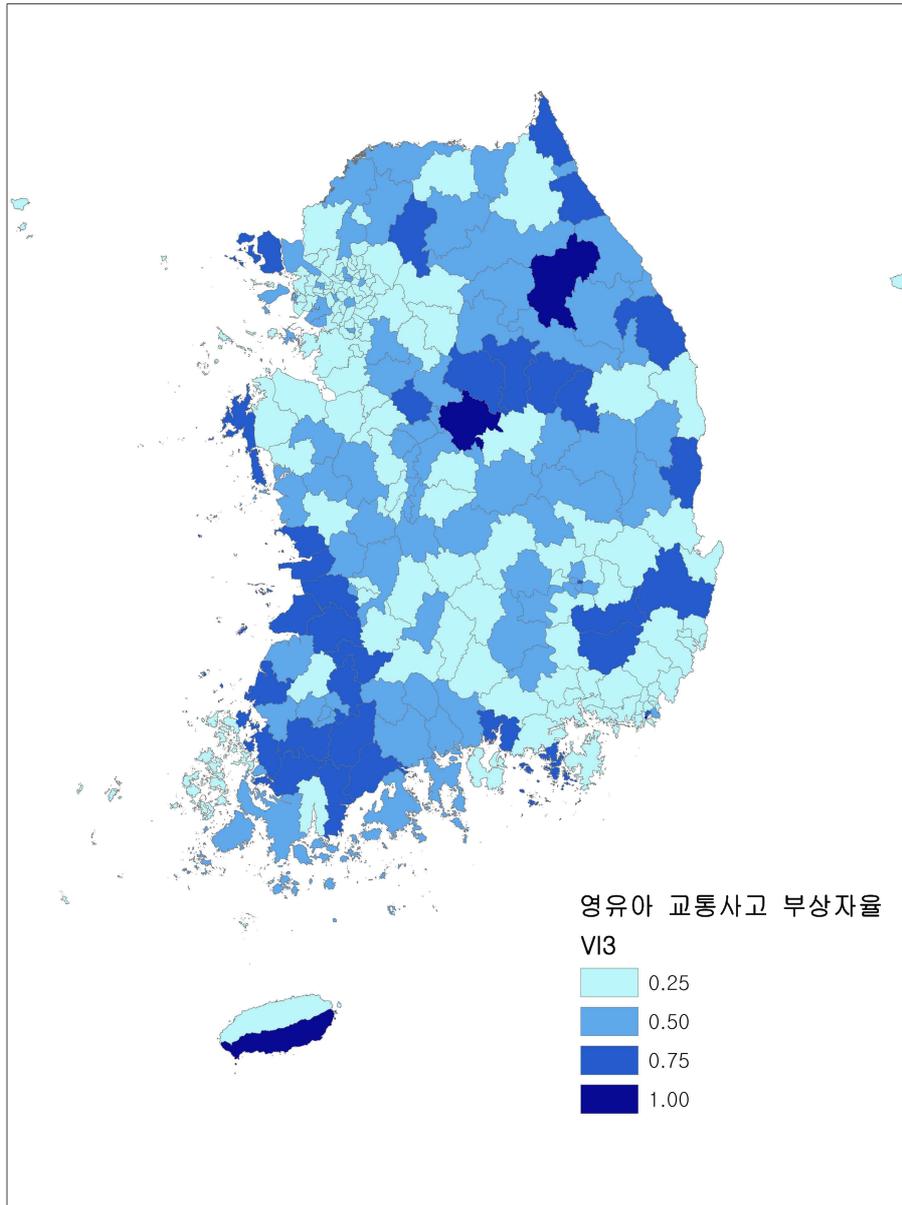
[부록 그림 V-30] 전체 보건소 인력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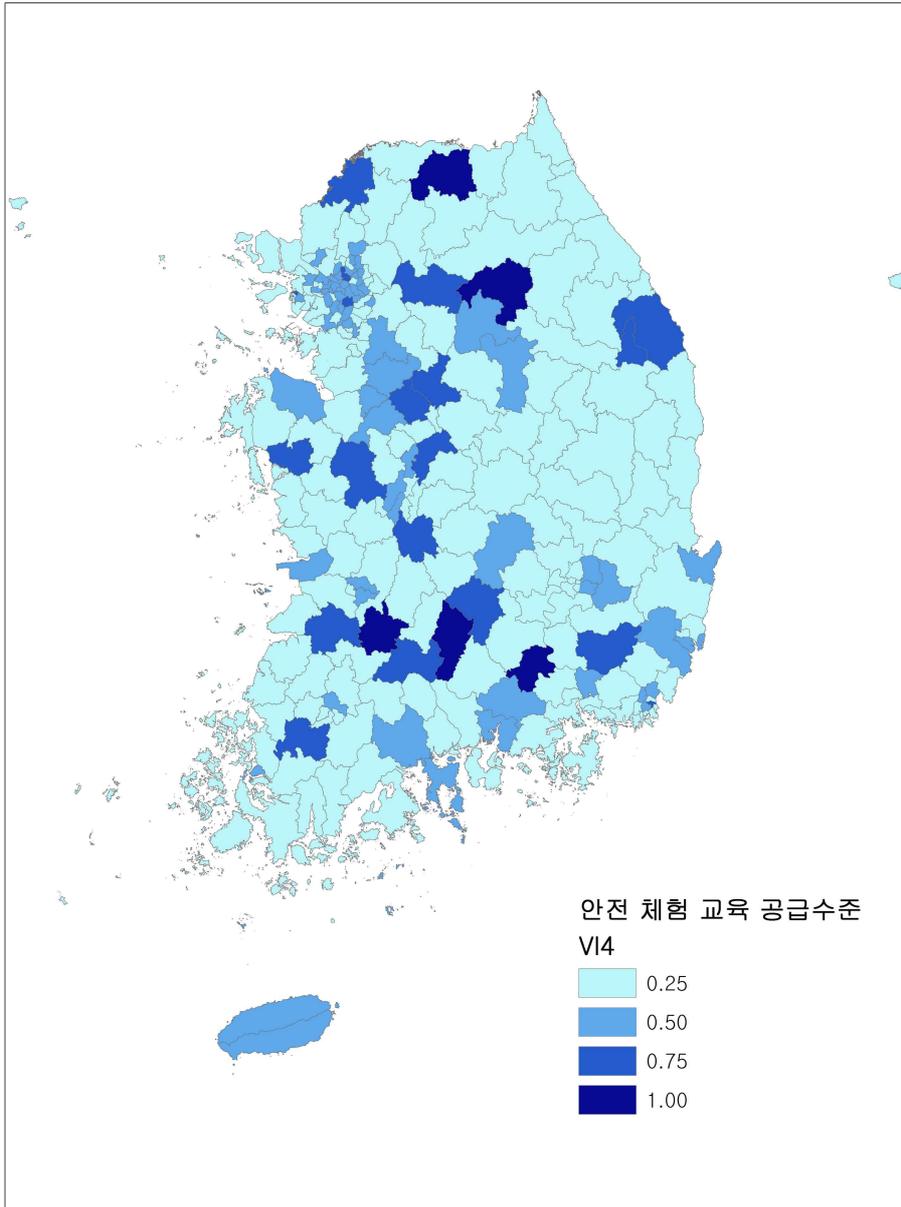
[부록 그림 V-31] 전체 보행자전용도로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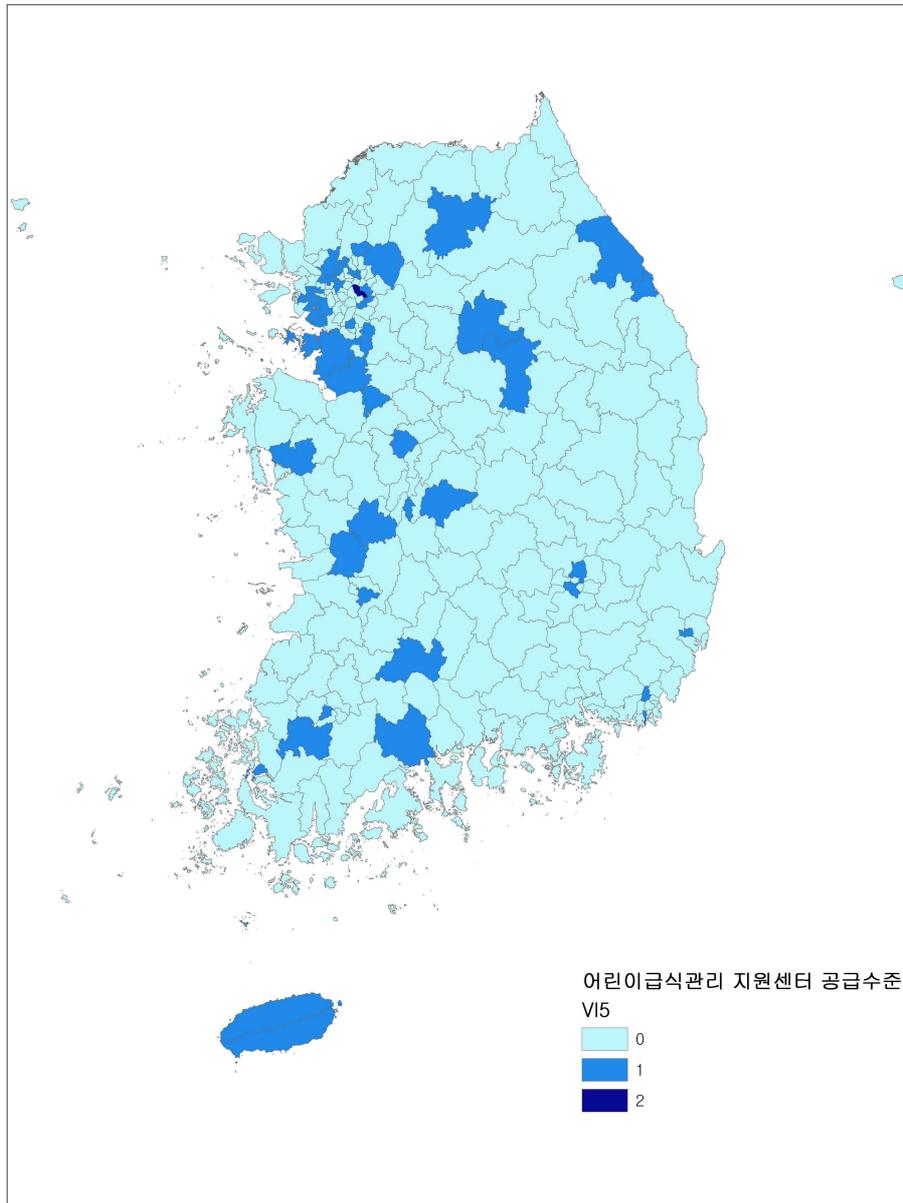
[부록 그림 V-32] 전체 영유아 교통사고 사망자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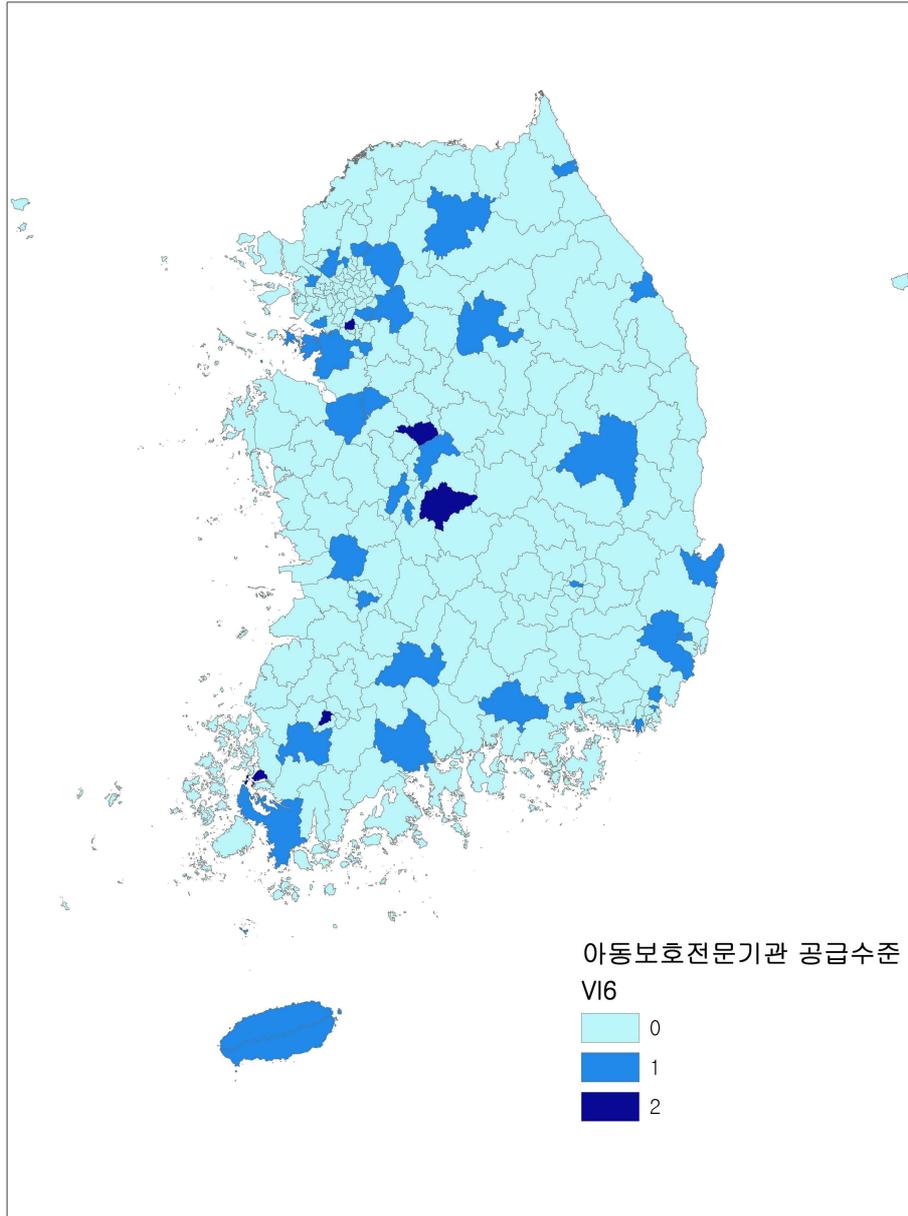
[부록 그림 V-33] 전체 영유아 교통사고 부상자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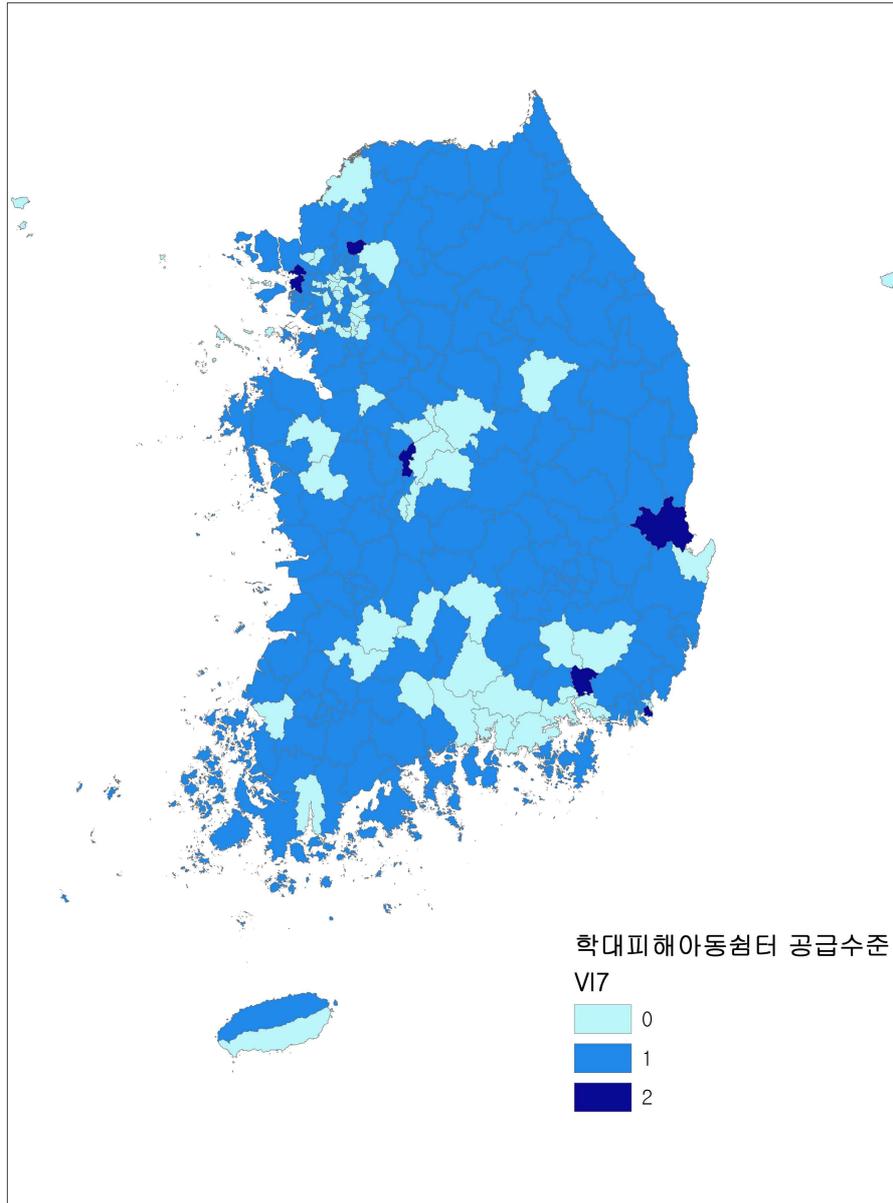
[부록 그림 V-34] 전체 영유아 안전 체험 교육 공급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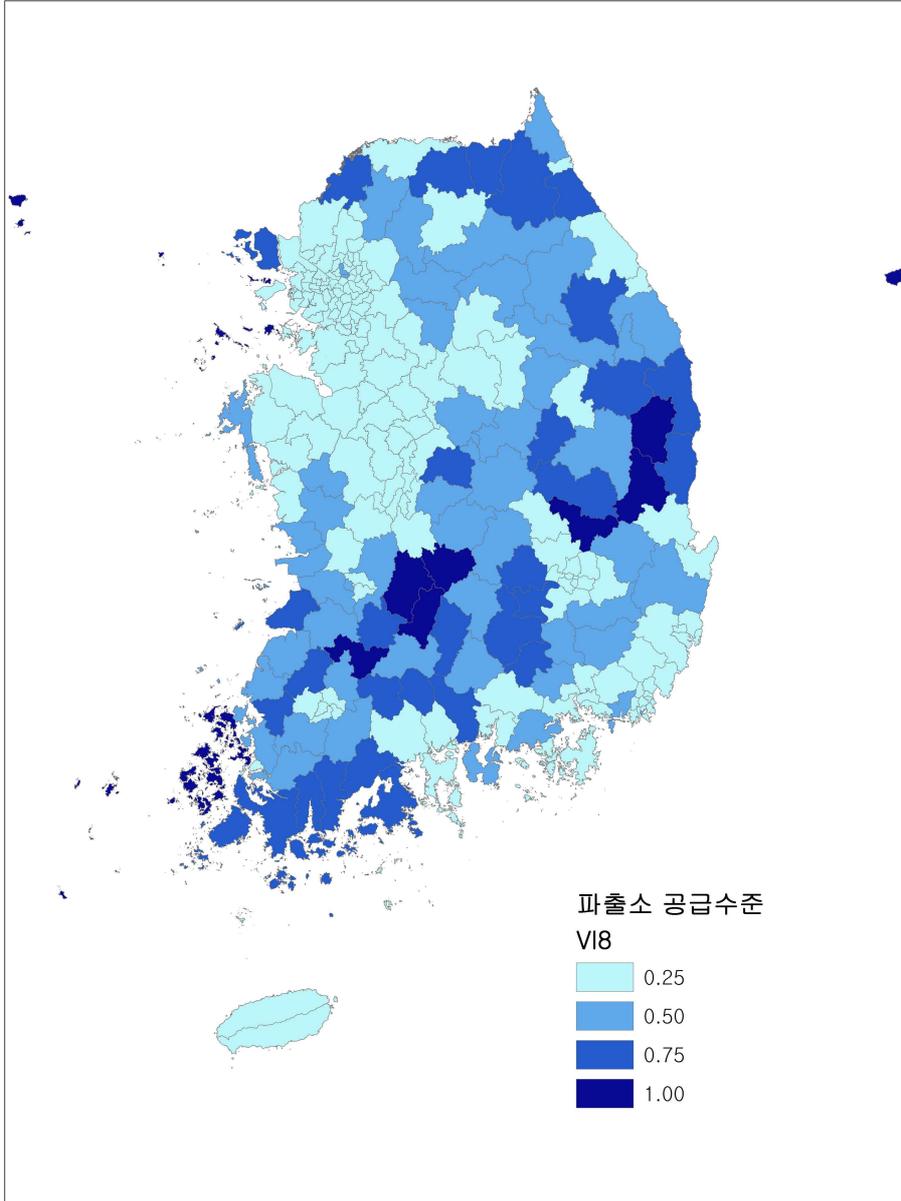
[부록 그림 V-35] 전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공급수준



[부록 그림 V-36] 전체 아동보호전문기관 공급수준



[부록 그림 V-37] 전체 학대피해아동쉼터 공급수준



[부록 그림 V-38] 전체 파출소 공급수준

부록 6. 지역 규모별 육아지원환경 공급 최소 기준

	현행
유아 교육 ·보육	<p>① 전체 유치원 공급수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공공주택지구 등은 유아수용계획을 고려하여 초등학교에 유치원을 병설하거나 별도로 설립해야 함(유아교육법 제9조의2). -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구가 유입되어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되는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유아를 수용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의 설립계획을 유아수용계획에 포함시킬 것(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 <p>② 국공립어린이집 공급수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농어촌지역,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함(영유아보육법, 제12조). <p>③ 유치원 정교사 1급 비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에는 원장·원감 외에 학급마다 교사 1명 이상을 배치하여 학급을 담당하게 함. 다만, 2학급 이하인 유치원의 경우에는 원장 및 원감이 학급을 담당할 수 있음(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3조). <p>④ 보육교사 1급 비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을 두어야 하고,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등을 둬(영유아보육법, 제17조) - 보육교사 대 영유아 비율 제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
육아 지원	<p>① 육아종합지원센터 공급수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음(영유아보육법 제7조) <p>② 건강가정지원센터 공급수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함(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맞춤형) 돌봄 지원	<p>① 시간제보육 공급수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대 영아비율 1:5(24개월 미만, 장애아 등이 예약한 경우 1:3)(보건복지부 2016년 보육사업안내, p.271)

② 시간연장보육 공급수준

- 국공립 및 정부지원 비영리법인시설의 경우 부모의 취업 등으로 1명 이상이 보육시간 연장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시간연장 보육을 의무적으로 실시(위반시 과태료 부과 대상)(보건복지부 2016년 보육사업안내, p.323)

③ 아이돌봄사업 공급수준

- 서비스기관은 서비스 대상 가정 수, 회원가입 가정 수, 해당 기관에 배정된 사업예산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며, 인력은 다음 표 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3)

④ 공동육아나눔터 공급수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

⑤ 산모신생아도우미 인력규모

- 단태아 산모 10일, 쌍생아 산모 15일,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 산모 20일 동안 서비스 제공(보건복지부 201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p.51)

⑥ 24시간보육 공급수준

- 시·도지사는 국공립·법인 등 정부지원시설 및 직장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지역별 수요를 감안하여 민간 또는 가정어린이집 등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지정할 수 있음(보건복지부 2016년 보육사업안내, p.328)

⑦ 시간연장보육 인력규모

- 원칙적으로 별도 교사를 두어야 함. 단, 시간연장 보육교사 근무수당을 지원 받는 어린이집의 경우 교사 겸직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시간연장반 교사 겸임 가능(보건복지부 2016년 보육사업안내, p.323)
- 시간연장 보육의 교사대 아동비율은 매일 1:5를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 0세아는 보육교직원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일부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유아로만 편성된 경우 1:7까지 조정할 수 있음(보건복지부 2016년 보육사업안내, p.325)

⑧ 휴일보육 인력규모

- 휴일 보육의 교사대 아동비율은 1:5를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 0세아는 보육교직원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일부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유아로만 편성된 경우 1:7까지 조정할 수 있음(보건복지부 2016년 보육사업안내, p.332)

⑨ 24시간보육 인력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 및 24시간 보육아동의 교사 대 아동비율은 1:5를 원칙으로 함. 단, 장애아, 0세아는 보육교직원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일부 달리 적용할 수 있음(종일반 편성시는 연령에 따라 반편성)(보건복지부 2016년 보육사업 안내, p.329)
문화 인프라	<p>① 어린이공원 공급수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도시지역 안에 있어서의 도시공원의 확보기준은 해당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안에 있어서의 도시공원의 확보기준은 해당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3제곱미터 이상으로 함(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p>② 어린이도서관/장난감도서관 공급수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도서관) 작은 도서관, 장난감 도서관 등 아동전용 도서관 확충 추진(아동전용 공공도서관 지자체 1개소 이상 권고)(관계부처 합동, 2015,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p.30)
보건·의료	<p>① 보건소 공급수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함(지역보건법 제10조) - 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는 시·군·구별로 1개씩 설치한다. 다만,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음(지역보건법 시행령 제8조) <p>② 소아청소년과(병의원) 공급수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아전용응급실 운영(10개소 지정 및 국고보조금 지원), 달빛 어린이병원 운영(365일 야간·휴일 밤 12시까지 진료하는 의료기관 지정 단계적 확대)(관계부처 합동, 2015,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p.53) - 하반기 신규기관 선정 후 '17년 1월부터 확대 운영(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6. 8. 8: 1)
안전 관리·보호	<p>① 보행자전용도로의 면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시장등은 보행자길 중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행자길을 보행자전용길로 지정할 수 있음(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 가. 보행자전용길의 유효폭에 대한 규정(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1) <p>② 안전체험교육 공급수준</p>

-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학하는 유치원생 및 학생의 안전문화를 높이기 위하여 안전에 관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한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5)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66조의5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5)
- ③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공급수준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전국 228개 지자체별로 1개소 이상 설치(~'18)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2015. 10. 2: 3)
- ④ 아동보호 전문기관 공급수준
- 국가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둔.
 -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함. 다만,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아동복지법 제45조)
- ⑤ 학대피해아동쉼터 공급수준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음(아동복지법 제53조의 2)

연구협력진

이 주 립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겸임교수)

연구보고 2016-23

출산수준 제고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내실화 방안(VI):
지역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 연구

발행일 2016년 12월

발행인 우남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층, 4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http://www.kicce.re.kr>

인쇄처 승림디엔씨 02) 2271-2581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85941-94-3 93330